



2017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CONTENTS

경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1
『농촌현장포럼의 운영 효과 분석을 통한 공동체 맞춤형 마을만들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강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59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 사업 및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 현황 조사 및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	
충북 농촌활성화지원센터	111
『권역단위 농촌개발사업 완료지역의 운영특성과 활성화 방안』	
충남 농촌활성화지원센터	211
『중간지원조직 역할 정립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 농촌활성화지원센터	293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연계협업에 관한 연구』	
전남 농촌활성화지원센터	381
『전라남도 광역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력에 관한 기초연구』	
경북 농촌활성화지원센터	467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사업의 정책효과분석』	
경남 농촌활성화지원센터	52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 추진동향 분석 및 개선방안』	
제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567
『마을역량단계별 지원체계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경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2017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농촌현장포럼의 운영 효과 분석을 통한
공동체 맞춤형 마을만들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최종 보고서)

2017. 11. 22

이 상 문
협성대학교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

목 차

1. 연구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목표 및 방향
- 3) 연구의 주요 내용
- 4) 연구 수행 방법 및 절차

2. 농촌현장포럼의 운영 효과 진단

- 1) 농촌현장포럼의 효과 측정을 위한 설문 조사 개요
- 2) 농촌현장포럼 운영 효과에 대한 전후 비교 분석 결과
- 3) 농촌현장포럼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 4) 주민유형별 현장포럼 수용 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
- 5) 진단 종합

3. 공동체 활동에 관한 주민역량조사표 수정안 제안

- 1) 공동체 역량의 개념과 평가요소
- 2) 공동체 활동 부문 주민역량조사표 수정안

4. 공동체 맞춤형 농촌현장포럼 도입 방안

- 1) 현행 농촌현장포럼의 운영 내용
- 2)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농촌현장포럼 개선 방향
- 3) 공동체 역량 강화형 농촌현장포럼 도입 방안
- 4) 귀농귀촌인 역량 강화를 위한 농촌현장포럼 도입 방안

5. 공동체 역량 강화형 농촌현장포럼 운영 프로그램

- 1) 공동체 역량 강화형 현장포럼의 기본 틀과 지향 가치
- 2) 공동체 역량형 현장포럼의 교육 항목
- 3) 생활만족형 현장포럼과 연계 운영
- 4) 포럼 회차별 세부 활동 내용

6. 정책적 제언

1.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들어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초한 농촌발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공동체 구성원인 주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체제로서 농촌현장포럼이 마을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음.
- 농촌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촌 주민, 공무원, 현장 전문가 등 정책 추진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관련 정책이 2000년대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아울러 농촌정책의 최하위 추진 단위인 마을 공동체의 인적 역량을 제고하자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농촌현장포럼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2013년부터 마을만들기 주민교육으로 시작된 농촌현장포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본 정책의 성과와 운영 방식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농촌계획 전문가 그룹이나 정책입안자, 현장 공무원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런데 이런 논의는 현장 주민이 체감하는 구체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지 않은 채 추상화된 문제만을 논의하는 형식이어서 실제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교육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임
- 교육적 성과 진단을 통해 농촌현장포럼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관점에서 현장포럼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체 내부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경우가 빈발하며, 주민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아울러 **농촌마을에 귀농귀촌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 간에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무엇보다 역량 있는 귀농귀촌인이 공동체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공동사업 주체에서 소외되는 현상도 자주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을 공동체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농촌현장포럼의 운영 효과를 진단하고 공동체 특성에 맞춘 새로운 현장포럼 운영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농촌발전의 주체인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목표 및 방향

(1) 연구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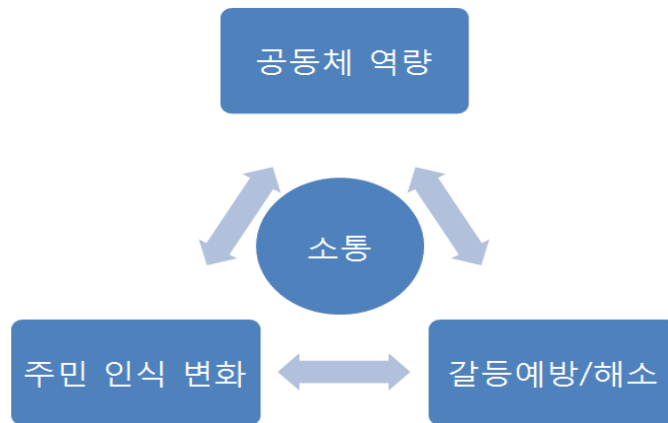
-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의 역량에 맞는 농촌현장포럼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가짐
 - ① 농촌 주민의 입장에서 **농촌현장포럼의 운영 효과** 진단
 - ② 공동체의 역량 관점에서 마을공동체 활동 인식에 관한 **주민역량조사표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③ **공동체 역량**으로서 의사소통과 주민단합에 초점에 맞춘 **농촌현장포럼 운영 프로그램 개발**
 - ④ 귀농귀촌으로 인한 **혼주화 공동체에 최적화된 농촌현장포럼 운영 방안** 마련

(2) 연구의 기본 방향

- 연구의 시작은 마을 공동체의 역량을 구성하는 항목의 도출에서부터
 - 농촌현장포럼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의 주체인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그런데 농촌 지역개발 정책의 특징은 주민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마을단위로 추진되는 것임. 여기서 마을은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기에 결국 농촌개발사업은 공동체의 역량에 기초하여 추진될 수밖에 없음.
 -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공동체의 역량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 수행되며, 이를 위해 공동체 역량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연구가 시작됨

- 포럼의 교육적 효과를 주민역량에 관한 인식의 변화 수준으로 파악
 - 농촌현장포럼의 성과는 물질, 비물질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교육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됨.
 - 주민역량 강화를 목표로 이루어지는 현장포럼의 교육적 성과는 그로 인한 주민역량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 수준을 파악하는 것으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함

- 마을 공동체를 소통과 갈등예방이란 관점에서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 농촌 마을의 공동체를 경제적, 환경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공동소득사업 수행이나 공동시설 개선에 관한 연구로 진행할 수도 있음.
 -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적 관점에서 공동체를 바라보되, 공동체 조직 구성의 측면이 아닌 구성원 내부의 역량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며, 그리고 그 역량에 기초한 구성원 간의 결합 수준으로서 파악하고자 함
 - 공동체 내부의 결합은 구성원 간의 소통에 기인하고 그 결과로 갈등 예방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
 - 공동체의 역량은 주민의 인적 역량, 공동자원 동원 능력, 공동체활동의 성능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개인의 역량이 아닌 공동의 역량을 만들어내는 토대는 주민 간 원활한 소통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함



3) 연구의 주요 내용

□ 농촌현장포럼의 운영 효과 진단

○ 주민의 입장에서 농촌현장포럼 교육 영역별 운영 효과 진단

- 공동체 역량 강화 효과: 주민역량, 리더십, 공동체 인식 등에서의 포럼 운영 전후의 효과 분석
- 사업 추진 역량 제고 효과: 마을자원의 인식 및 활용 가능성, 미래 발전 가능성, 계획 수립 역량 등에서의 포럼 운영 효과 평가

○ 참여 주체의 유형에 따른 농촌현장포럼 수용 효과에 대한 진단

- 원주민의 현장포럼 수용 수준에 대한 전후 비교 분석
- 귀농인의 현장포럼 수용 수준에 대한 전후 비교 분석
- 귀촌인인 현장포럼 수용 수준에 대한 전후 비교 분석
- 원주민, 귀농인, 귀촌인 간의 현장포럼 수용 수준의 차이에 대한 전후 비교 분석

□ 공동체 활동 관련 주민역량조사표 개선 방안 마련

- 공동체의 역량 관점에서 마을공동체 활동 인식에 관한 주민역량조사표의 적정성 검토
- 공동체 활동 인식 부문에 관한 주민역량조사표 개선방안 마련

□ 공동체 맞춤형 농촌현장포럼 프로그램 개발

○ 의사소통과 주민단합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운영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적용 대상지 제안
- 회차별 목표와 수행 과제
- 회차별 세부 활동 내용 제시

○ 귀농귀촌 공동체 맞춤형 농촌현장포럼 운영 방안 마련

- 회차별 수행 과제와 주요 내용 제시

4) 연구 수행 방법 및 절차

(1) 연구 수행 방법

○ 농촌현장포럼의 효과 측정: 전후 주민 설문조사 자료 분석

- 현장포럼 수행 마을마다 사전, 사후 시행한 설문조사 자료 활용
- 경기도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70개 마을('14년 18개, '15년 13개, '16년 39개 마을)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 분석
- 응답 주민수: 사전 설문 1,095명, 사후 설문에 1,018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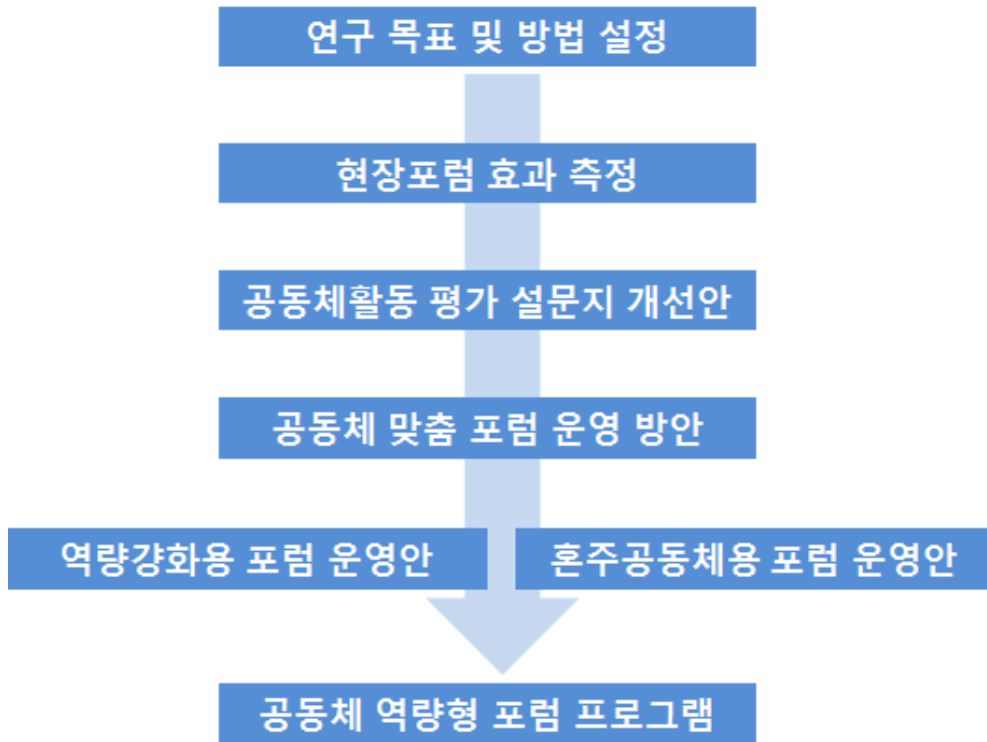
○ 설문지의 내용 및 평가 척도 구성

- 설문지 목표: 주민역량과 마을사업에 대한 인식 수준의 변화를 측정
- 설문지의 내용적 구성
 - ① 마을에 대한 관심
 - ②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 ③ 주민의 의사소통 능력
 - ④ 마을자원의 활용 능력
 - ⑤ 마을 발전에 대한 기대감
 - ⑥ 공동체 사업의 추진 의지
 - ⑦ 포럼으로 인한 마을정화 효과
 - ⑧ 포럼에 대한 만족도(사후 설문지에만 포함)
 - ⑨ 응답자의 인적 사항
- 인식 수준 측정 방법: 5단계 서술 척도
 - ① 전혀 아니다
 - ② 아니다
 - ③ 보통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포럼 전후, 주민 유형간 효과 비교를 위한 통계 분석
 - 교육 효과 비교를 위한 SPSS 통계 처리

(2) 연구 수행 절차

- 연구 수행 절차
 - 1단계: 연구 목표 및 방법 설정
 - 2단계: 현장포럼 효과 진단
 - 3단계: 공동체 맞춤 현장포럼 운영안 마련
 - 4단계: 공동체 역량강화 현장포럼 세부 프로그램



2. 농촌현장포럼의 운영 효과 진단

1) 농촌현장포럼의 효과 측정을 위한 설문 조사 개요

(1) 설문 조사 시기 및 대상

○ 설문 조사 시기

-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일까지 3개년 간
- 마을별 농촌현장포럼을 시작하기 이전, 즉 1회차 포럼 전의 사전조사 시간과 4회 혹은 5회차의 마지막 포럼을 마친 시간에 설문 진행

○ 설문 조사 지역

- 농촌현장포럼을 진행한 경기도 일원 9개 시군의 70개 마을(행정리)
- 설문 시행 시군: 평택시, 안성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 설문 조사 마을 및 주민수

- 농촌현장포럼을 진행한 마을의 주민들 중에 사전 설문에 1,095명, 사후 설문에 1018명이 참여
- 설문조사 대상 마을: 현장포럼이 진행된 총 70개 마을('14년 18개, '15년 13개, '16년 39개 마을)에서 설문조사 진행
- 사전 설문조사 응답자: 총 1,095명의 주민
- 사후 설문조사 응답자: 총 1,018명의 주민

구분		사전 설문		사후 설문	
		빈도(개, 명)	비율(%)	빈도(개, 명)	비율(%)
마을수	2014년	18	25.7	18	25.7
	2015년	13	18.6	13	18.6
	2016년	39	55.7	39	55.7
	합계	70	100.0	70	100.0
주민수	2014년	293	26.8	241	23.7
	2015년	204	18.6	197	19.4
	2016년	598	54.6	580	57.0

	합계	1095	100.0	1018	100.0
시군별 주민수	평택	89	8.1	88	8.6
	안성	113	10.3	106	10.4
	가평	173	15.8	177	17.4
	양평	435	39.7	370	36.3
	여주	83	7.6	68	6.7
	이천	82	7.5	63	6.2
	남양주	15	1.4	22	2.2
	광주	82	7.5	86	8.4
	용인	23	2.1	38	3.7
	합계	1095	100.0	1018	100.0

(2) 응답자 일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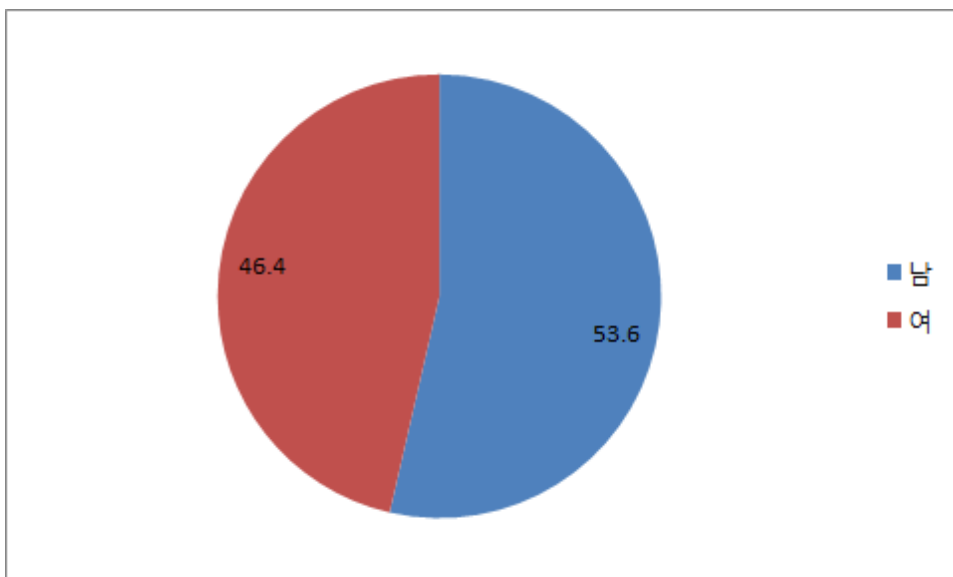
○ 응답자의 일반 사항

- 성별: 사전 설문에는 남성이 55.5%, 여성이 44.5%, 사후에는 남성 51.7%, 여성 48.3%로 약간 남성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 55세에서 75세가 사전, 사후 모두 65% 이상을 차지
- 정착유형을 보면 사전, 사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원주민이 거의 67%, 귀농인이 10%, 귀촌인이 23% 정도를 차지(마을 유입 주민이 약 33% 수준을 보임)
- 마을 내에서 역할은 14% 정도가 리더, 15%는 추진위원회, 4%는 사무장, 67%는 일반 주민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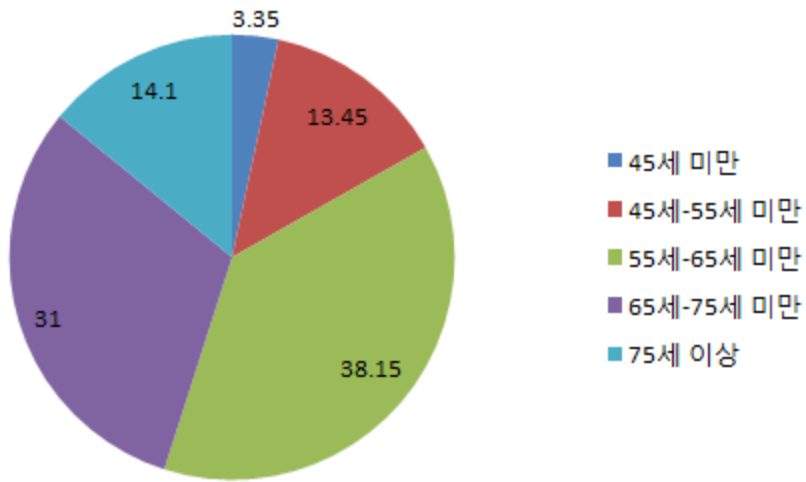
구 분		사전 설문		사후 설문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성별	남	589	55.5	522	51.7	1111	53.6
	여	473	44.5	488	48.3	961	46.4
	합계	1062	100.0	1010	100.0	2072	100
연령 대	45세 미만	42	3.9	28	2.8	70	3.35
	45세-55세 미만	138	13.0	140	13.9	278	13.45

	55세-65세 미만	388	36.5	402	39.8	790	38.15
	65세-75세 미만	338	31.8	305	30.2	643	31
	75세 이상	158	14.8	135	13.4	293	14.1
	합계	1064	100.0	1010	100.0	2074	100
정착 유형	원주민	711	66.8	687	68.2	1398	67.5
	귀농인	119	11.2	87	8.6	206	9.9
	귀촌인	234	22.0	234	23.2	468	22.6
	합계	1064	100.0	1008	100.0	2072	100
마을 내 역할	리더	148	13.9	143	14.3	291	14.1
	추진위원회	150	14.1	160	16.0	310	15.05
	사무장	39	3.7	36	3.6	75	3.65
	일반주민	725	68.3	658	66.0	1383	67.15
	합계	1062	100.0	997	100.0	205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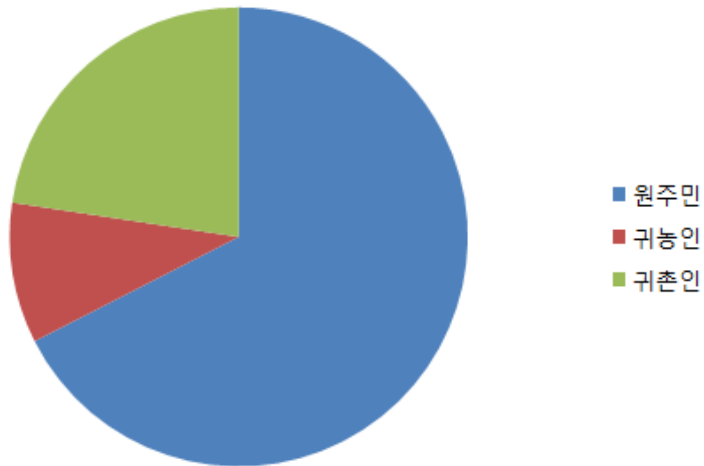
○ 성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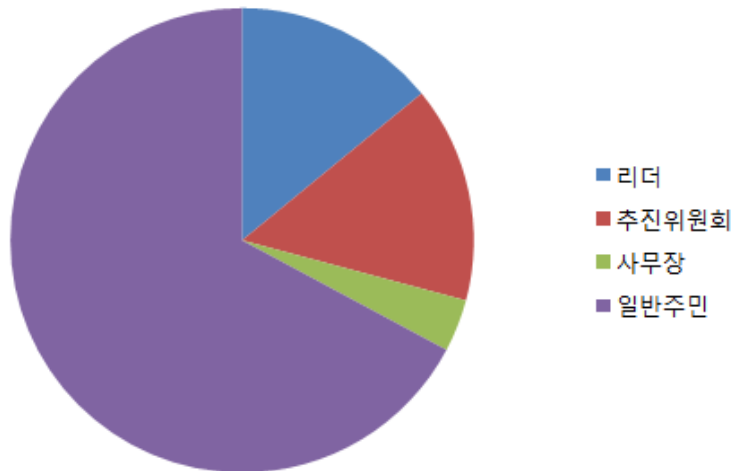
○ 연령대 구성



○ 정착 유형



○ 마을 내 역할



2) 농촌현장포럼 운영 효과에 대한 전후 비교 분석 결과

○ 모든 항목에 걸쳐 점수가 높아짐: 평균 4.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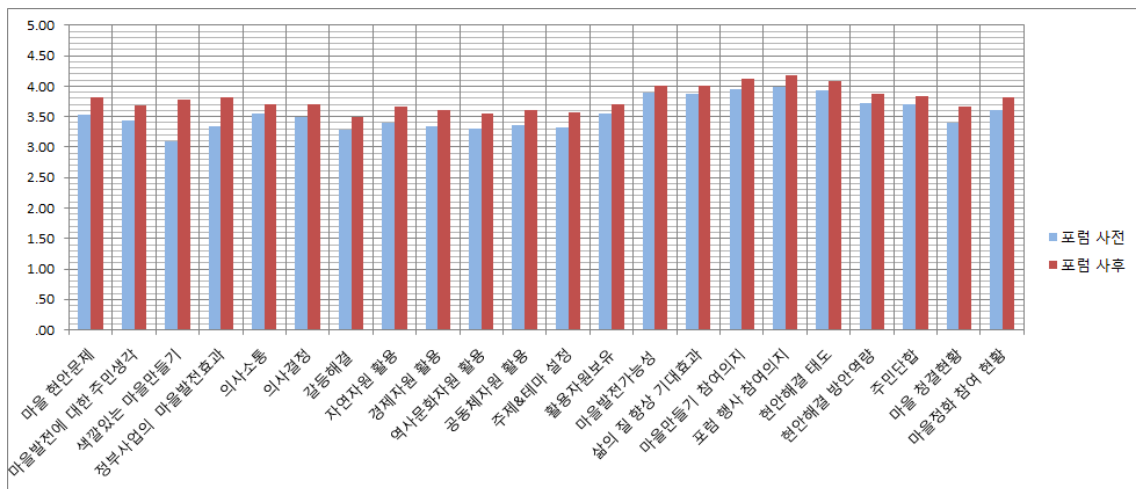
- 특히 정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많이 높아졌음(정책 이해도 부분에서 타 항목의 2배 이상의 점수 상승이 있음)

※ 이는 현장포럼의 정책적 지속과 확대 필요성을 의미: 정책적 이해도가 아주 크게 높아진 점은 포럼의 중요한 정책적 기여로서 향후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농촌현장포럼의 사전 수행을 현행처럼 계속 의무화해야 하고, 포럼이 적용되지 않은 다른 농촌사업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음

- 마을에 대한 관심, 자원 활용 능력, 마을 청결 상태에 관한 항목이 평균 이상으로 높아졌음

효과 측정 분야 및 항목		사전		사후		점수 차이	
		5점 척도	백분위	5점 척도	백분위	5점 척도	백분위
마을에 대한 관심	마을 현안문제	3.54	70.8	3.82	76.4	0.28	5.6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생각	3.43	68.7	3.69	73.8	0.26	5.1
정부 정책 이해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3.10	62.0	3.78	75.6	0.68	13.5
	정부사업의 마을발전 효과	3.33	66.7	3.82	76.4	0.49	9.7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3.55	71.0	3.71	74.2	0.16	3.2
	의사결정	3.48	69.7	3.70	74.0	0.22	4.4
	갈등해결	3.28	65.7	3.50	69.9	0.21	4.3
마을자원 활용 능력	자연자원 활용	3.40	68.0	3.66	73.1	0.25	5.1
	경제자원 활용	3.35	66.9	3.61	72.3	0.26	5.4
	역사문화자원 활용	3.30	65.9	3.54	70.9	0.24	4.9
	공동체자원 활용	3.37	67.4	3.61	72.2	0.24	4.8

	용						
	주제&테마 설정	3.32	66.4	3.57	71.5	0.25	5.1
	활용자원보유	3.54	70.9	3.70	74.1	0.16	3.2
마을 발전에 대한 기대감	마을발전가능성	3.89	77.8	4.01	80.3	0.12	2.4
	삶의 질 향상 기대효과	3.88	77.6	4.01	80.3	0.13	2.6
공동체 사업 추진 의지	마을만들기 참여의지	3.94	78.8	4.13	82.6	0.19	3.7
	포럼 행사 참여의지	4.00	79.9	4.17	83.5	0.17	3.5
	현안해결 태도	3.93	78.5	4.09	81.8	0.16	3.3
	현안해결 방안 역량	3.71	74.2	3.87	77.3	0.16	3.1
	주민단합	3.71	74.1	3.83	76.6	0.12	2.5
마을정화 효과	마을 청결현황	3.40	68.0	3.67	73.3	0.27	5.3
	마을정화 참여 현황	3.62	72.3	3.81	76.3	0.19	3.9
평 균		3.61	71.0	3.84	75.8	0.46	4.8



(1) 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마을 현안문제 인지와 마을발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음
 -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의 현안 문제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이를 미래 마을발전으로 연결시키려 하고 있음

사전-사후 교육 효과	분석 척도						척도 평균	표준 편차 Std. Dev.	분산 Var.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문항		마을 현안문제에 대한 인지								
사전	빈도	23	89	422	389	168	1091	3.54	0.92	0.85
	비율	2.1	8.2	38.7	35.7	15.4	100.0			
사후	빈도	7	44	309	416	238	1014	3.82	0.86	0.74
	비율	0.7	4.3	30.5	41.0	23.5	100.0			
문항		마을발전에 관한 주민들 생각 인지								
사전	빈도	26	106	443	401	116	1092	3.43	.892	.796
	비율	2.4	9.7	40.6	36.7	10.6	100.0			
사후	빈도	11	71	304	465	165	1016	3.69	.862	.744
	비율	1.1	7.0	29.9	45.8	16.2	100.0			

(2) 정부 마을만들기 정책에 대한 이해도 향상

- 포럼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개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크게 높아졌음. 전후 비교 결과 정책에 이해가 10-14% 이상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옴
 - 이는 농촌포럼의 가장 큰 정책적 기여로서 지금의 현장포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향후 농촌개발사업 전반에 현장포럼을 확대 적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사후 교육 효과	분석 척도							척도 평균	표준 편차 Std. Dev.	분산 Var.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문항	색깔 있는 마을만들기 정책의 이해 정도									
사전	빈도	99	180	381	337	75	1072	3.10	1.059	1.122
	비율	9.2	16.8	35.5	31.4	7.0	100.0			
사후	빈도	14	56	252	512	181	1015	3.78	.850	.723
	비율	1.4	5.5	24.8	50.4	17.8	100.0			
문항	정부 사업의 마을발전 효과에 대한 인식									
사전	빈도	64	149	334	414	110	1071	3.33	1.032	1.065
	비율	6.0	13.9	31.2	38.7	10.3	100.0			
사후	빈도	12	50	232	534	185	1013	3.82	.827	.684
	비율	1.2	4.9	22.9	52.7	18.3	100.0			

(3)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소통능력의 향상

- 포럼으로 의사소통, 의사결정, 갈등상황 해결 등 주민 간의 민주적 소통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참여를 통해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는 주민의 의사소통 능력에 달려 있는 바, 포럼을 통해 소통 여건이 조성된 것은 주민참여와 단합의 기틀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사전-사후 교육 효과	분석 척도							척도 평균	표준 편차 Std. Dev.	분산 Var.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문항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사전	빈도	21	89	358	495	114	1077	3.55	.862	.742
	비율	1.9	8.3	33.2	46.0	10.6	100.0			
사후	빈도	26	47	277	509	155	1014	3.71	.871	.759

	비율	2.6	4.6	27.3	50.2	15.3	100.0			
문항		마을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								
사전	빈도	23	130	334	486	106	1079	3.48	.903	.816
	비율	2.1	12.0	31.0	45.0	9.8	100.0			
사후	빈도	7	92	250	508	154	1011	3.70	.859	.738
	비율	.7	9.1	24.7	50.2	15.2	100.0			
문항		마을 회의에서 갈등상황 해결 능력								
사전	빈도	39	141	450	363	80	1073	3.28	.913	.834
	비율	3.6	13.1	41.9	33.8	7.5	100.0			
사후	빈도	10	106	364	433	97	1010	3.50	.844	.712
	비율	1.0	10.5	36.0	42.9	9.6	100.0			

(4) 마을자원 활용 능력의 향상

- 포럼의 큰 성과 중 하나는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임
 - 공동체 역량 중의 하나는 주민 스스로 마을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포럼을 통해 이 분야 역량이 크게 신장된 점은 공동체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사전-사후 교육 효과	분석 척도						척도 평균	표준 편차 Std. Dev.	분산 Var.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문항		자연자원 활용 능력								
사전	빈도	28	123	419	409	102	1081	3.40	.902	.813
	비율	2.6	11.4	38.8	37.8	9.4	100.0			
사후	빈도	15	72	302	475	144	1008	3.66	.863	.744
	비율	1.5	7.1	30.0	47.1	14.3	100.0			
문항		경제자원 활용 능력								

사전	빈도	33	143	413	397	93	1079	3.35	.921	.848
	비율	3.1	13.3	38.3	36.8	8.6	100.0			
사후	빈도	14	77	348	416	155	1010	3.61	.883	.780
	비율	1.4	7.6	34.5	41.2	15.3	100.0			
문항	역사문화자원 활용 능력									
사전	빈도	29	164	445	346	99	1083	3.30	.925	.856
	비율	2.7	15.1	41.1	31.9	9.1	100.0			
사후	빈도	21	86	356	409	133	1005	3.54	.900	.810
	비율	2.1	8.6	35.4	40.7	13.2	100.0			
문항	공동체자원 활용 능력									
사전	빈도	30	133	423	401	95	1082	3.37	.906	.821
	비율	2.8	12.3	39.1	37.1	8.8	100.0			
사후	빈도	24	55	358	427	145	1009	3.61	.882	.778
	비율	2.4	5.5	35.5	42.3	14.4	100.0			
문항	마을 사업에서 명칭 및 주제 만들기 능력									
사전	빈도	29	159	413	383	89	1073	3.32	.918	.843
	비율	2.7	14.8	38.5	35.7	8.3	100.0			
사후	빈도	17	82	337	444	124	1004	3.57	.870	.757
	비율	1.7	8.2	33.6	44.2	12.4	100.0			
문항	마을발전을 위한 보유 자원의 활용가능성 이해									
사전	빈도	15	97	382	444	133	1071	3.54	.873	.762
	비율	1.4	9.1	35.7	41.5	12.4	100.0			
사후	빈도	32	51	272	474	173	1002	3.70	.921	.848
	비율	3.2	5.1	27.1	47.3	17.3	100.0			

(5) 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 상승

- 포럼 전후 비교 결과 마을 발전 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 것을 파악할 수 있음

사전-사후 교육 효과	분석 척도							척도 평균	표준 편차 Std. Dev.	분산 Var.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문항	마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									
사전	빈도	7	34	247	561	219	1068	3.89	.782	.611
	비율	.7	3.2	23.1	52.5	20.5	100.0			
사후	빈도	5	35	168	532	266	1006	4.01	.785	.616
	비율	.5	3.5	16.7	52.9	26.4	100.0			
문항	마을 사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기대 수준									
사전	빈도	8	37	244	565	216	1070	3.88	.789	.622
	비율	.7	3.5	22.8	52.8	20.2	100.0			
사후	빈도	3	13	202	541	251	1010	4.01	.726	.527
	비율	.3	1.3	20.0	53.6	24.9	100.0			

(6) 높아진 공동사업 추진 의지

- 포럼 교육을 통해 마을사업과 행사에 대한 참여 의지, 문제해결과 마을단합 의지가 제고되었음
 - 포럼이 단순 교육으로 그친 게 아니라, 현안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미래 발전을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생긴 점은, 포럼이 지속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을 달리 말해주는 것임. 즉 향후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는 반드시 포럼이 적용되어야 하고, 타 분야 사업에까지 포럼이 확대되어야 함을 말해 주는 것임

사전-사후 교육 효과	분석 척도						척도 평균	표준 편차 Std. Dev.	분산 Var.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문항	마을만들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								

사전	빈도	6	23	269	505	271	1074	3.94	.797	.636
	비율	.6	2.1	25.0	47.0	25.2	100.0			
사후	빈도	4	13	155	509	322	1003	4.13	.740	.547
	비율	.4	1.3	15.5	50.7	32.1	100.0			
문항		현장포럼 및 마을행사에 대한 참여 의지								
사전	빈도	2	16	249	521	284	1072	4.00	.758	.574
	비율	.2	1.5	23.2	48.6	26.5	100.0			
사후	빈도	2	10	145	504	346	1007	4.17	.718	.515
	비율	.2	1.0	14.4	50.0	34.4	100.0			
문항		현안문제 해결에서의 민주적 태도 견지								
사전	빈도	6	18	235	601	211	1071	3.93	.728	.529
	비율	.6	1.7	21.9	56.1	19.7	100.0			
사후	빈도	2	9	146	592	262	1011	4.09	.670	.449
	비율	.2	.9	14.4	58.6	25.9	100.0			
문항		마을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의지								
사전	빈도	5	51	336	528	146	1066	3.71	.777	.603
	비율	.5	4.8	31.5	49.5	13.7	100.0			
사후	빈도	8	19	245	564	173	1009	3.87	.737	.544
	비율	.8	1.9	24.3	55.9	17.1	100.0			
문항		주민들과의 단합 의지								
사전	빈도	8	54	355	485	172	1074	3.71	.821	.673
	비율	.7	5.0	33.1	45.2	16.0	100.0			
사후	빈도	10	40	266	484	205	1005	3.83	.830	.689
	비율	1.0	4.0	26.5	48.2	20.4	100.0			

(7) 포럼을 통한 마을정화 효과 제고

- 포럼의 큰 효과는 포럼 과정에 마을청소를 시행함으로써 이전보다 청결상태가 좋아졌음을 직접 확인했다는 것임
 - 현재 포럼 시행과 함께 마을 대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 주민이 마을이 깨끗해졌다 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전-사후 교육 효과	분석 척도							척도 평균	표준 편차 Std. Dev.	분산 Var.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문항	마을의 청결함 수준									
사전	빈도	12	66	546	364	77	1065	3.40	.760	.577
	비율	1.1	6.2	51.3	34.2	7.2	100.0			
사후	빈도	12	39	382	414	159	1006	3.67	.830	.689
	비율	1.2	3.9	38.0	41.2	15.8	100.0			
문항	마을 정확에 주민참여 수준									
사전	빈도	8	90	376	431	168	1073	3.62	.873	.763
	비율	.7	8.4	35.0	40.2	15.7	100.0			
사후	빈도	10	40	291	457	212	1010	3.81	.843	.711
	비율	1.0	4.0	28.8	45.2	21.0	100.0			

3) 농촌현장포럼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 현장포럼을 마친 후 주민들이 모든 항목에 걸쳐 보통 이상인 중상 수준의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음. 특히 포럼 담당자의 태도와 향후 마을 사업 시의 유용성에 대해 가장 큰 만족을 나타내고 있음

사전-사후 교육 효과	분석 척도							척도 평균	표준 편차 Std. Dev.	분산 Var.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문항	현장포럼 개최 시기의 적절성									
사후	빈도	24	25	193	567	195	1004	3.88	.829	.688
	비율	2.4	2.5	19.2	56.5	19.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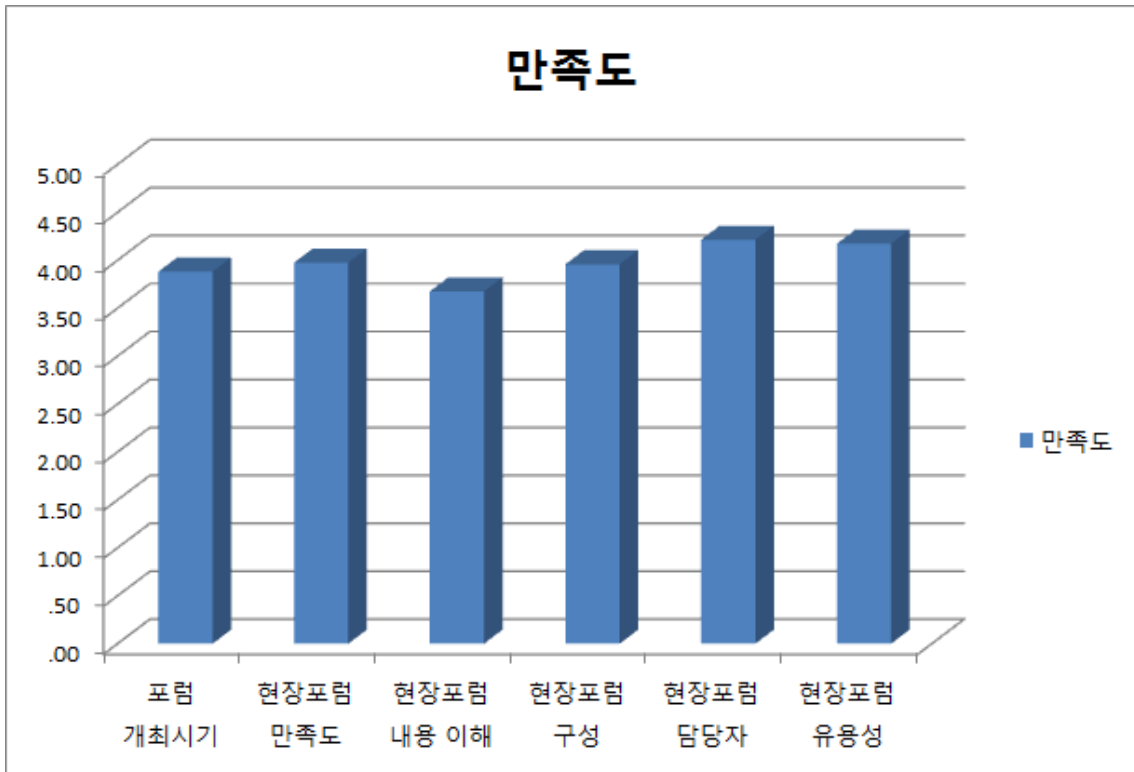
문항		현장포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사후	빈도	4	43	190	502	262	1001	3.97	.812	.659
	비율	.4	4.3	19.0	50.1	26.2	100.0			
문항		현장포럼 내용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여부								
사후	빈도	21	53	307	468	150	999	3.67	.868	.753
	비율	2.1	5.3	30.7	46.8	15.0	100.0			
문항		현장포럼 중 강의, 실습 등 활동 구성의 적정성								
사후	빈도	6	20	189	583	204	1002	3.96	.724	.525
	비율	.6	2.0	18.9	58.2	20.4	100.0			
문항		현장포럼 담당자의 태도에 만족도								
사후	빈도	1	19	113	500	367	1000	4.21	.721	.520
	비율	.1	1.9	11.3	50.0	36.7	100.0			
문항		현장포럼의 마을사업 추진 시의 유용성								
사후	빈도	6	10	141	493	351	1001	4.17	.746	.556
	비율	.6	1.0	14.1	49.3	35.1	100.0			

4) 주민유형별 현장포럼 수용 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

○ 원주민, 귀농인, 귀촌인의 현장포럼 사전 설문조사 결과

- 세 그룹 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다만 귀촌인의 인식 수준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원주민 인식이 높은 항목: 현안문제, 마을발전, 경제자원 활용
- 귀촌인 인식이 특히 높은 항목: 의사결정, 갈등해결, 활용자원 보유, 마을만들기 참여 의지, 현안 해결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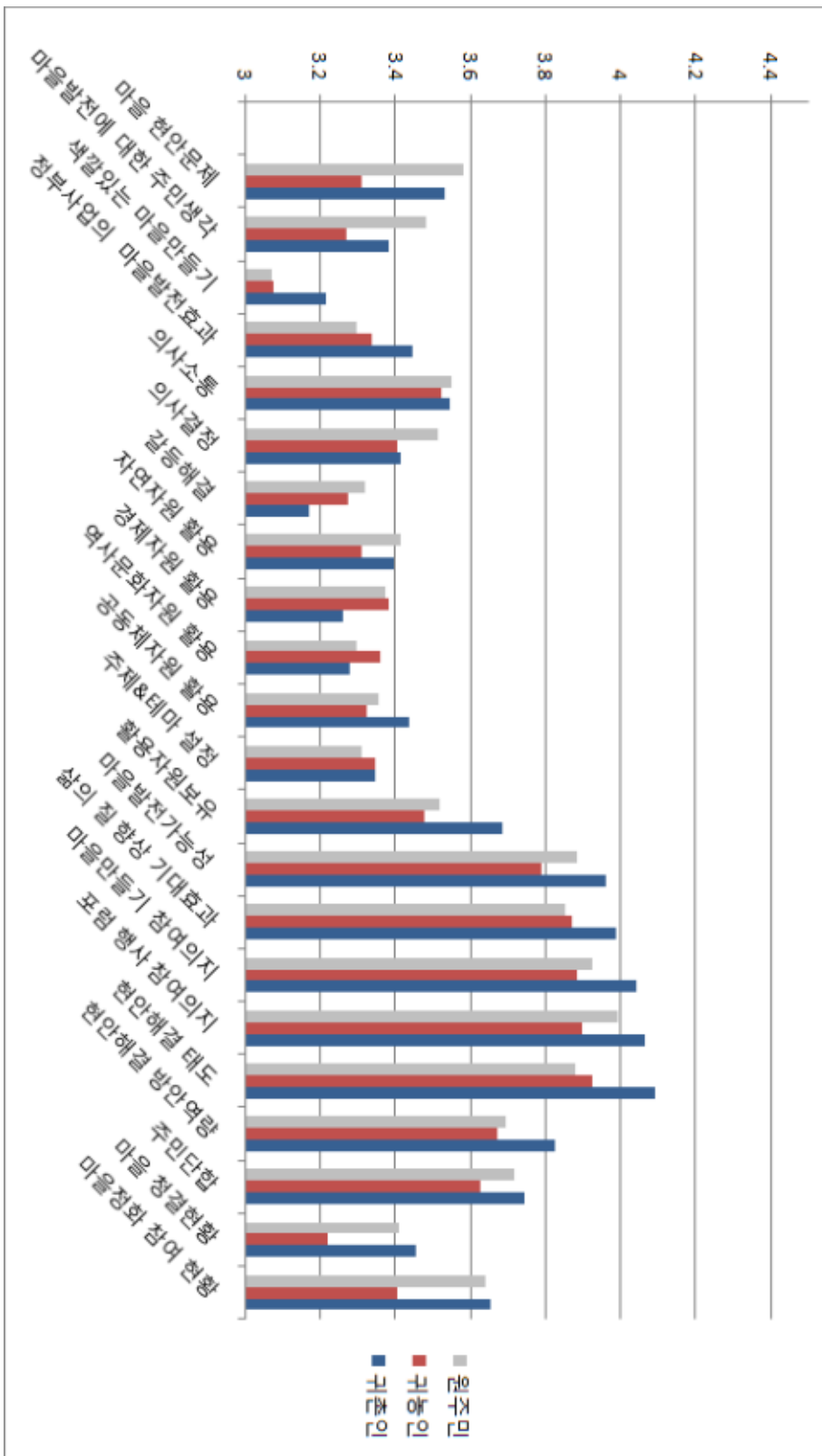
※ 원주민은 농업자원 등 현안에 집중하는 반면 귀촌인은 현안 해결,



사업 참여 의지 등 미래에 관심을 갖고 있음

정착유형	원주민		귀농인		귀촌인		합계	
	Mean	Std. Deviation	Mean	Std. Deviation	Mean	Std. Deviation	Mean	Std. Deviation
마을 현안문제	3.58	0.930	3.31	0.909	3.53	0.897	3.54	0.924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생각	3.48	.879	3.27	.918	3.38	.916	3.44	.893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3.07	1.069	3.08	1.039	3.22	1.032	3.10	1.058
정부사업의 마을발전효과	3.30	1.053	3.34	.995	3.45	.990	3.33	1.034
의사소통	3.55	.848	3.52	.910	3.55	.888	3.55	.863
의사결정	3.51	.888	3.40	.914	3.41	.957	3.48	.907
갈등해결	3.32	.919	3.28	.881	3.17	.922	3.28	.917
자연자원 활용	3.42	.888	3.31	.954	3.40	.934	3.40	.906
경제자원 활용	3.37	.913	3.38	.955	3.26	.943	3.35	.925

역사문화자원 활용	3.30	.959	3.36	.841	3.28	.875	3.30	.928
공동체자원 활용	3.36	.926	3.32	.942	3.43	.832	3.37	.908
주제&테마 설정	3.31	.933	3.35	.946	3.35	.890	3.32	.925
활용자원보유	3.52	.855	3.48	.937	3.68	.889	3.55	.875
마을발전가능성	3.89	.768	3.79	.891	3.96	.771	3.89	.784
삶의 질 향상 기대효과	3.85	.796	3.87	.801	3.99	.749	3.88	.788
마을만들기 참여의지	3.93	.799	3.88	.865	4.04	.733	3.95	.794
포럼 행사 참여의지	3.99	.767	3.90	.817	4.07	.693	4.00	.758
현안해결 태도	3.88	.726	3.92	.815	4.09	.671	3.93	.729
현안해결 방안역량	3.69	.787	3.67	.842	3.83	.709	3.72	.778
주민단합	3.72	.838	3.63	.804	3.74	.787	3.71	.823
마을 청결현황	3.41	.755	3.22	.775	3.45	.763	3.40	.761
마을정화 참여 현황	3.64	.881	3.40	.816	3.66	.878	3.62	.876
평균	3.55	0.87	3.49	0.89	3.59	0.85	3.55	0.87



○ 원주민, 귀농인, 귀촌인의 현장포럼 사후 설문조사 결과

- 세 그룹 간에 차이가 사전보다 약간 커졌고, 특히 귀촌인의 포럼 수용 점수가 크게 나타나는 항목이 늘어났음

- 귀촌인에게 점수가 더 큰 항목: 정부 정책사업 이해, 테마 설정, 활용 자원 보유 인식, 마을발전 가능성, 삶의 질 기대 효과, 행사 참여 의지, 현안 해결 태도 및 역량

※ 포럼 결과 귀촌인에게 가장 큰 점수가 나타났고, 주로 정부 사업 이해 및 마을만들기 추진 의지 부분에서 점수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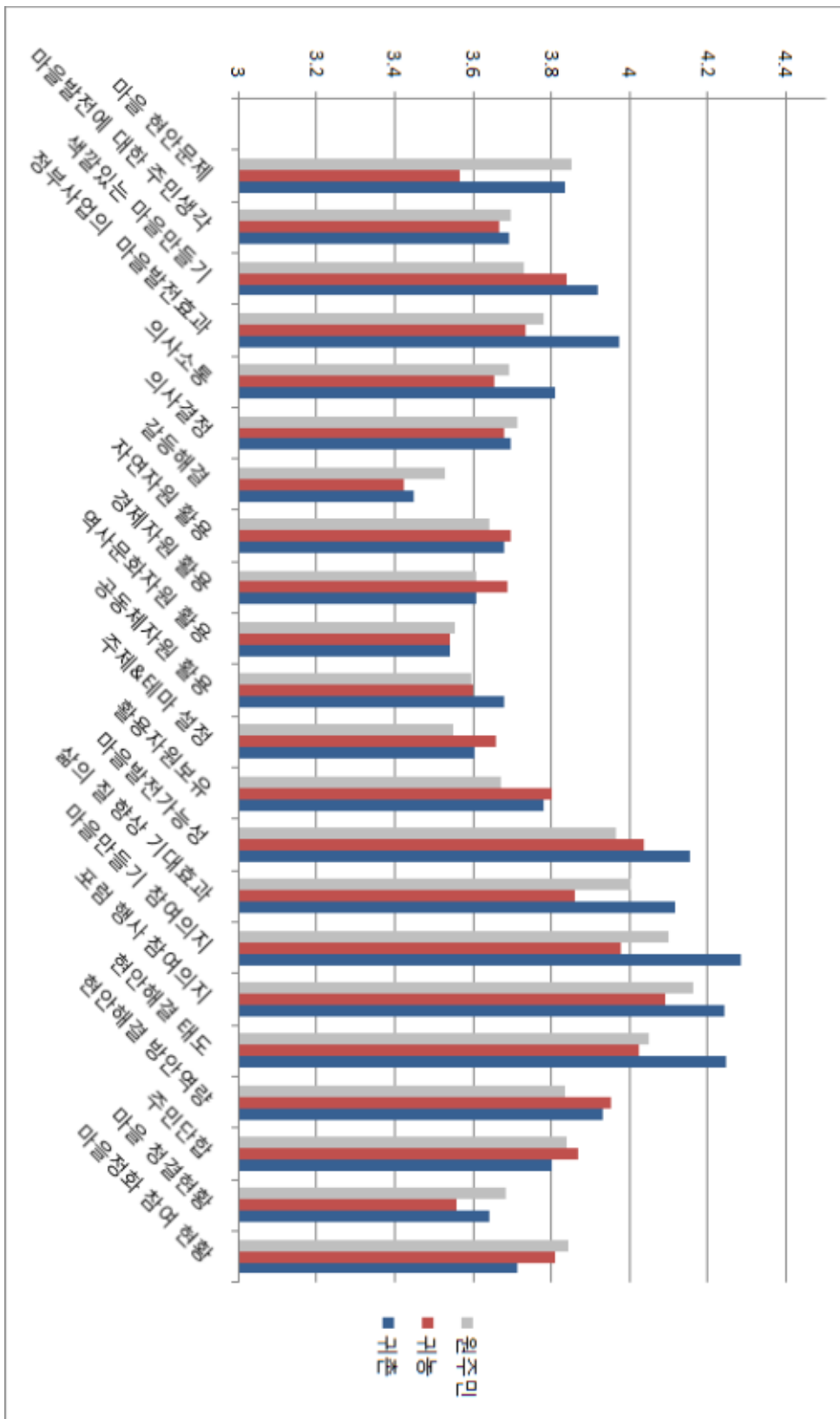
- 귀촌인의 역량은 포럼 전후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 무엇보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의지에서 점수가 높은 점은, 정책사업의 새로운 주체로서 활용할 경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임

- 이는 마을 만들기의 새로운 핵심 주체로서 사업 추진 시에 귀촌인의 역량 발휘 기회를 제도적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정착유형	원주민		귀농		귀촌		Total	
	Mean	Std. Deviation	Mean	Std. Deviation	Mean	Std. Deviation	Mean	Std. Deviation
마을 현안문제	3.85	.880	3.56	.698	3.83	.850	3.82	.862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생각	3.70	.875	3.67	.773	3.69	.840	3.69	.858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3.73	.889	3.84	.761	3.92	.747	3.78	.850
정부사업의 마을발전효과	3.78	.857	3.74	.739	3.97	.748	3.82	.827
의사소통	3.69	.891	3.66	.819	3.81	.798	3.72	.865
의사결정	3.71	.857	3.68	.828	3.70	.864	3.71	.855
갈등해결	3.53	.847	3.42	.836	3.45	.836	3.50	.844
자연자원 활용	3.64	.866	3.70	.895	3.68	.843	3.66	.863
경제자원 활용	3.61	.887	3.69	.867	3.61	.884	3.62	.884

역사문화자원 활용	3.55	.903	3.54	.880	3.54	.882	3.55	.895
공동체자원 활용	3.59	.897	3.60	.869	3.68	.827	3.61	.879
주제&테마 설정	3.55	.887	3.66	.825	3.60	.839	3.57	.871
활용자원보유	3.67	.934	3.80	.865	3.78	.890	3.71	.919
마을발전가능성	3.96	.811	4.03	.659	4.15	.725	4.01	.783
삶의 질 향상 기대효과	4.00	.747	3.86	.632	4.12	.680	4.02	.725
마을만들기 참여 의지	4.10	.730	3.98	.782	4.29	.711	4.13	.735
포럼 행사 참여 의지	4.16	.719	4.09	.741	4.24	.698	4.17	.717
현안해결 태도	4.05	.684	4.02	.664	4.25	.606	4.09	.670
현안해결 방안역 량	3.84	.762	3.95	.697	3.93	.665	3.87	.736
주민단합	3.84	.834	3.87	.737	3.80	.829	3.83	.825
마을 청결현황	3.68	.864	3.56	.683	3.64	.770	3.66	.829
마을정화 참여 현황	3.84	.862	3.81	.664	3.71	.840	3.81	.843
평균	3.78	0.80	3.76	0.74	3.84	0.76	3.79	0.79



○ 주민 유형별 포럼 수용 효과의 전후 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

※ 원주민, 귀농인, 귀촌인 간의 현장포럼 수용 효과의 차이

- 5점 척도에서 평균 0.24점 상승했는데, **귀농귀촌인의 포럼의 교육적 수용 효과가 원주민보다 크게 나타남**. 특히 귀농인의 전후 점수 차이가 0.27인 바, **포럼이 귀농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원주민에게 효과가 큰 부분: 현안문제 인지, 정부 정책 및 사업 이해, 역사문화자원 활용 능력, 마을 청결 상태 인지
- 귀농인에게 효과가 큰 부분: 마을발전 기대, 정부 정책사업 이해, 의사결정, 자연/경제/공동체자원 활용 능력, 테마 설정, 활용자원 보유 인식, 마을청결 및 마을청소 참여의지
- 귀촌인에게 효과가 큰 부분: 마을에 대한 관심, 정부 정책사업 이해, 의사결정과 갈등해결, 자연/경제/역사문화자원 활용

정착유형	원주민		귀농인		귀촌인		합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마을 현안문제	3.58	3.85	3.31	3.56	3.53	3.83	3.54	3.82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생각	3.48	3.70	3.27	3.67	3.38	3.69	3.44	3.69
새깔있는 마을만들기	3.07	3.73	3.08	3.84	3.22	3.92	3.10	3.78
정부사업의 마을발전효과	3.30	3.78	3.34	3.74	3.45	3.97	3.33	3.82
의사소통	3.55	3.69	3.52	3.66	3.55	3.81	3.55	3.72
의사결정	3.51	3.71	3.40	3.68	3.41	3.70	3.48	3.71
갈등해결	3.32	3.53	3.28	3.42	3.17	3.45	3.28	3.50
자연자원 활용	3.42	3.64	3.31	3.70	3.40	3.68	3.40	3.66
경제자원 활용	3.37	3.61	3.38	3.69	3.26	3.61	3.35	3.62
역사문화자원 활용	3.30	3.55	3.36	3.54	3.28	3.54	3.30	3.55
공동체자원 활용	3.36	3.59	3.32	3.60	3.43	3.68	3.37	3.61
주제&테마 설정	3.31	3.55	3.35	3.66	3.35	3.60	3.32	3.57
활용자원보유	3.52	3.67	3.48	3.80	3.68	3.78	3.55	3.71
마을발전가능성	3.89	3.96	3.79	4.03	3.96	4.15	3.89	4.01

삶의 질 향상 기대효과	3.85	4.00	3.87	3.86	3.99	4.12	3.88	4.02
마을만들기 참여의지	3.93	4.10	3.88	3.98	4.04	4.29	3.95	4.13
포럼 행사 참여의지	3.99	4.16	3.90	4.09	4.07	4.24	4.00	4.17
현안해결 태도	3.88	4.05	3.92	4.02	4.09	4.25	3.93	4.09
현안해결 방안역량	3.69	3.84	3.67	3.95	3.83	3.93	3.72	3.87
주민단합	3.72	3.84	3.63	3.87	3.74	3.80	3.71	3.83
마을 청결현황	3.41	3.68	3.22	3.56	3.45	3.64	3.40	3.66
마을정화 참여 현황	3.64	3.84	3.40	3.81	3.66	3.71	3.62	3.81
평균	3.55	3.78	3.49	3.76	3.59	3.84	3.55	3.79
평균 차이	+0.23		+0.27		+0.25		+0.24	

5) 진단 종합

- 현장포럼은 주민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쳐 모든 평가 항목에 걸쳐 점수가 상승했고, 특히 정부 정책사업 이해도가 가장 좋아졌으며, 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원 활용 능력과 마을 청결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장포럼에 주민은 중상 정도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고, 포럼 담당자의 태도와 포럼의 사업적 유용성에 큰 만족감을 보이고 있음
- 포럼은 귀농인에게 가장 큰 교육 효과가 있었고, 귀촌인은 마을만들기 이해, 의지, 태도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역량이 가장 높았음.
- ※ 포럼 효과 진단 결과,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주체로서 귀농귀촌인에게 역량 발휘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을 파악
 (예시) 귀농귀촌인의 역량을 활용한 농촌 일자리 만들기 사업의 추진
 (예시) 새로운 농촌발전 주체로서 귀농귀촌인의 역량 발굴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필요(농촌현장포럼과 별도로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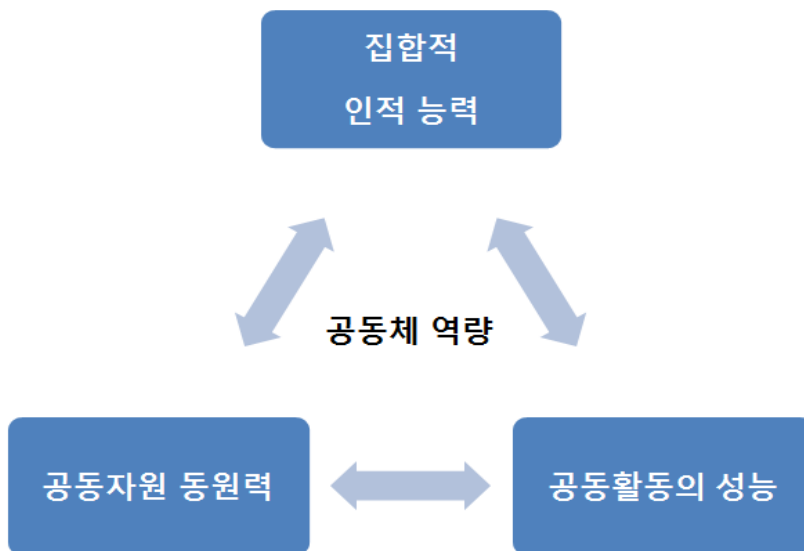
3. 공동체 활동에 관한 주민역량조사표 개선 방안 제안

1) 공동체 역량의 개념과 평가요소

(1) 공동체역량에 대한 개념 정립

○ 공동체 역량의 개념적 구성

- 구성원의 집합적 인적 능력(collective human competency),
- 공동자원의 동원 및 관리 역량(ability for mobilization and management of communal resources)
- 공동 활동의 성능(performance of communal activities)



○ 공동체 역량의 개념적 구성 요소

- ① 집합적 인적 역량 → 공동체 교육의 수용 정도
- ② 공동 활동의 성능 → 공동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
- ③ 자원 동원 역량 → 마을 공동사업의 추진 정도

(2) 공동체 역량에 대한 평가요소

○ 공동체 역량에 대한 주요 평가요소

개념 구성		주요 평가요소	평가단위
공동체 역량	집합적 주민 능력	공동체 교육의 수행 정도 - 리더십 교육 참여 정도 - 공동체 교육 수행 정도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	횟수, 인원 척도(등급)
	공동체활동의 성능	공동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 - 마을 대소사 참여 정도 - 공동 회의 개최 수준 주도그룹의 명확성 수준 조직간 협업 수준	횟수, 인원 척도(등급)
	공동자원 동원력	공동사업의 추진 정도 - 지자체 및 정부 사업 유치 - 마을 자체사업의 추진 마을 공동기금 조성 외부 인적조직의 활용	사업종류 사업비 조직의 수

2) 주민역량조사표 상의 공동체활동 부문 질문 수정안

o 현재의 문항 구성과 내용

- 7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칸 척도 조사를 하도록 설계됨
- 5칸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중간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7개 문항의 내용
 - ① 마을 주민들이 마을사업과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② 마을회의 시 회의 내용들이 잘 전달되고 주민간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 ③ 마을사업 추진에 이장, 위원장,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마을지도자들 간 협조가 원만하다.
 - ④ 마을 공동사업 운영은 특정인이 아닌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⑤ 우리 마을은 마을사업을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잘 활용한다.
 - ⑥ 우리 마을을 방문한 손님들은 다음에 다시 방문한다.
 - ⑦ 우리 마을 주민들은 공동기금을 조성하는데 잘 협력한다.

o 질문 의도 분석

질문 내용	질문 의도	공동체 역량 요소
① 마을 주민들이 마을사업과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주민의 단합과 참여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함	공동체 활동 성능
② 마을회의 시 회의 내용들이 잘 전달되고 주민간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고자 함	집합적 인적 능력
③ 마을사업 추진에 이장, 위원장,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마을지도자들 간 협조가 원만하다.	마을 주도층의 명확한 존재와 협업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질문	공동활동의 성능
④ 마을 공동사업 운영은 특정인이 아닌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마을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존재 여부 확인하고자 함	집합적 인적 능력
⑤ 우리 마을은 마을사업을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잘 활용한다.	내부 조직과 외부 조직간의 유기적 협력 수준을 파악	자원 동원 능력
⑥ 우리 마을을 방문한 손님들은 다음에 다시 방문한다.	공동사업의 성공 여부를 방문객의 재방문 수준으로 가늠	자원 동원 능력
⑦ 우리 마을 주민들은 공동기금을 조성하는데 잘 협력한다.	공동기금 조성 수준으로 공동체 활동 능력을 평가	자원 동원 능력

o 질문 내용의 문제점 검토

- ① 번: 공식적 사업과 비공식적 대소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비공식적인 대소사 참여는 개인적 친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로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본 질문은 공동체의 공식적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지를 묻는 걸로 수정해야 함.

- ② 번: 회의 내용이 잘 전달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마을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음. 물론 소통과 토론이 민주적 의사결정의 충분조건이 되기 하지만 그렇다고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님. 마을조직이 민주적으로 구성되는 바탕 위에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임.
- ③ 번: 리더그룹의 명확한 존재 여부가 공동체 활동의 성공적 결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임. 만약 리더그룹 즉 활동적인 마을 주도층이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들이 활동을 지속해 왔다면 이들 간의 협조는 당연히 아주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공동체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선 리더그룹 내부의 협조보다는 주도층의 명확성(성과를 나타내는 명확한 활동성)을 파악하는 게 우선적인 사항임. 이장,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은 우리나라 모든 마을에서 다 선임되어 있는 지도자로서 단지 이들의 존재만으로 리더그룹의 활동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앞장서서 열성적으로 공동체의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질문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임
- ④ 번: 민주적 의사결정에 관한 것은 2번의 질문과 동일한 성격에 속하므로 중복 질문은 피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함. 대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의 정도를 질문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함
- ⑤ 번: 외부 자원의 활용 능력을 묻는 질문이라면 공무원, 전문가에게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단체, 기업, 자매조직 등도 포함한 외부 인적네트워크의 체계적 구축 수준을 물어보는 게 적정함
- ⑥ 번: 마을 재방문 비율의 많고 적음으로 공동체 역량을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방문객의 존재 여부는 오직 농촌체험사업에만 국한된

것으로 경관환경, 문화복지 등 다른 분야의 농촌개발사업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질문임. 따라서 본 문항은 질문지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⑦ 번: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수준으로 마을공동사업 수행 의지 혹은 사업수행 효능을 파악하는 가늠자로 삼겠다는 것으로 이해됨. 공동기금은 주로 경제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회문화적 사업과는 거리가 있음. 공동사업의 기반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한다면, 마을기금 이외에도 마을공동의 부지, 시설, 사업조직(법인, 조합, 기업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게 합리적인 접근법이라 하겠음.

o 질문 내용 수정안

- ① 주민들은 마을회의, 대소사, 마을청소 등 공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② 마을의 조직 구성과 운영이 주민 의견에 기초하여 아주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③ 이장, 부녀회장, 청장년회 등과 함께 마을의 일을 이끌어가는 주도층이 분명히 있고 그들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 ④ 주민들은 공공이 주관하는 여러 교육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 ⑤ 우리 마을은 공무원은 물론 지역단체, 전문가, 기업, 자매도시 등 외부 조직과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
- ⑥ 우리 주민들은 마을 공동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높다.
- ⑦ 우리 마을은 공동사업에 필요한 기금이나 사업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다.

4. 공동체 맞춤형 농촌현장포럼 도입 방안

1) 현행 농촌현장포럼의 운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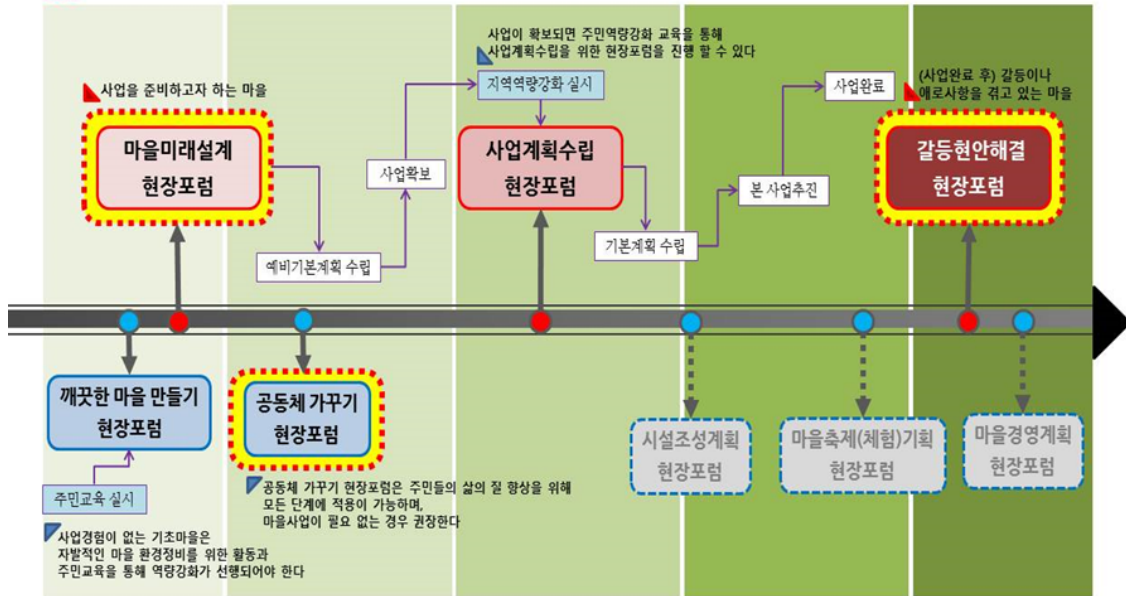
○ 현재 농림부 정책상의 농촌현장포럼 유형

- 깨끗한 마을만들기, 마을 미래설계, 사업계획 수립, 마을 현안 해결, 공동체 활성화 등 5개 유형을 제시하고 있음

구분	주요 내용
깨끗한 마을만들기 현장포럼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고,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시
마을미래설계 현장포럼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마을을 위하여 실시(농식품부 예비 단계 인증을 위한 필수과정)
사업계획수립 현장포럼	사업 선정(예비사업계획) 후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마을을 위하여 실시
마을현안해결 현장포럼	사업시행 과정 중이거나 혹은 완료 후 현안문제 해결이 필요한 마을(권역)을 위하여 실시
공동체가꾸기 현장포럼	별도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마을공동체 활력화를 위하여 실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현장포럼 표준교재, p.35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촌현장포럼 유형



* 농촌현장포럼은 농촌마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체 가꾸기 현장포럼이 필요한 마을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단계에서 적용 가능, 마을사업이 필요 없는 경우 권장
 - 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화합과 삶의 만족도 향상 및 갈등예방
- 현행 농촌현장포럼의 회차별 진행 내용(마을미래설계형의 경우)
 -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을의 주민주도에 의한 마을테마 및 발전과제의 발굴
 - 기본 4회차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5회차 추가진행
 - 후속 사업추진을 위한 심화과정 진행 가능

사전준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자원조사 • 주민역량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역량강화 교육 • 자원조사 결과 발표 • '깨끗한 마을 만들기'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테마발굴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발전과제 보완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발전심화 토론

2)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농촌현장포럼 개선 방향

(1) 공동체 역량의 관점에서 현행 농촌현장포럼의 한계

- 마을별 공동체 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
 - 공동체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가진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 간의 공동체 내부의 요구사항, 추진 방식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공동체 내부의 결속이 공고한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 간에 마을 사업에 대한 인식, 실행력, 추진방식 등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원주민층과 유입층 간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 공동사업에 대한 접근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원주민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정

(2) 현장포럼 개선 방향

- 공동체 역량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추진
- 공동체 역량 진단에 근거한 현장포럼의 방향과 교육 목표 설정
- 공동체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춘 현장포럼 신규 도입
- 혼주화된 농촌마을의 특성을 감안 귀농귀촌인 특화 현장포럼의 신규 도입 방안 마련

3) 공동체 맞춤형 농촌현장포럼 도입 방안

(1) 신규 포럼 도입 목적

- 공동체의 역량 제고를 통해 주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마을 생활 도모
-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소하여 안락하고 신뢰를 갖는 공동체를 형성

- 마을 대표자나 주도층의 리더십 향상과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로 공동체의 사업수행 능력 제고

(2) 새로운 포럼의 목표

- 주민의 개인적 역량은 물론 집합적 역량을 끌어올려 마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 공동체 역량 강화형 농촌현장포럼이 목표로 하는 바는 아래와 같음
 - ① 공동체 활동을 주도하는 마을 지도자나 주도층의 리더십의 배양
 - ② 공동체의 갈등을 예방, 해소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 연마
 - ③ 공동체의 단합을 위한 행사 추진, 내외부 네트워크 형성 등 주민참여 통로와 방법의 개발
 - ④ 공동체 역량에 적합한 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및 정부의 사업 이해하기
 - ⑤ 공동체 활동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주민 개인의 이해력 증진

(3) 공동체 역량형 농촌현장포럼 적용 대상지

- 공동체 역량강화형 현장포럼은 마을 사업의 선정 여부와 상관 없이 추진이 가능하고, 특히 주민 갈등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앞둔 마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마을에서도 본 유형의 포럼 적용이 가능함.
- 다만 주민간 갈등이 심각하여 단합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마을의 경우에는 본 프로그램의 적용에 신중해야 할 것임.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 간 교육 진행에 대한 합의가 선행된 후에 본 포럼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유형의 프로그램은 공동체 단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 사업의 유형과는 다를 수 있음. 그래서 체험소득 향상, 환경경관 개선, 문화복지 향상 등의 정부사업을 위한 다른 유형의 현장포럼이 끝났거나 향후 진행될 경우에는 그와는 별도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공동체 역량 강화형 현장포럼 회차별 수행 과제

① 사전 조사

- ※ **목표: 현재 주민역량과 자원동원 수준의 대략적 파악**
 - 마을주민 역량 조사(역량진단 조사표 활용)
 - 마을 자원 조사(자원조사표 활용)

② 1회차

- ※ **목표: 공동체의 필요성과 리더십 역할 인식**
 - 일반 주민: 현 농촌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의 필요성과 그것의 효과에 대한 이해 증진
 - 마을 주도층: 마을공동체 리더십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③ 2회차

- ※ **목표: 현재 포럼 수행 마을공동체의 실상 파악**
 - 마을의 단합, 공동사업 추진, 리더십 수행 등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도출하기
 -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융합을 저해하는 사안이나 요소 파악
 - 현재 진행되는 공동체 활동의 현황과 주요 현안 과제 파악

④ 3회차

- ※ **목표: 공동체의 의사결정 능력과 주민 간 소통 향상**
 -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의사 진행 방법 익히기
 - 다양한 의사소통 기법 익히기

⑤ 4회차

※ 목표: 공동체 활성화 구상안 만들기

- 공동체 단합 저해 요소 제거와 갈등 예방을 위한 구상안 마련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및 중앙 정부 관련 사업 이해

※ 목표: 선진지 견학을 통한 바람직한 공동체 모습 이해하기

- 공동체가 활성화된 선진 마을 견학
- 방문 체험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 도출하기

⑥ 5회차(필요시)

※ 목표: 선진지 견학을 통한 바람직한 공동체 모습 그려보기

- 공동체가 활성화된 선진 마을 견학
- 방문 체험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 재확인하기

4) 귀농귀촌인 역량 강화를 위한 농촌현장포럼 도입 방안

○ 적용 대상지와 시기

- 귀농귀촌인이 원주민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이거나 해당 주민이 적더라도 공동사업 추진이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인 대상 별도 교육이 필요한 경우 현장포럼을 시행
- 정부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 있는 마을

○ 목표

- 원주민 중심이 아닌 귀농귀촌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포럼 운영
- 귀농귀촌인의 잠재 역량을 끌어내어 마을사업의 새로운 주체로 육성

○ 기본 방향

-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마을정착을 위한 원주민과의 소통 강화와 예상되는 공동체 부적응 현상의 사전에 예방
- 해당 마을의 특징과 실태를 인지하게 하고 마을 정착에 도움이 되는 물적 인적 자원을 파악하여 이를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유도

- 귀농귀촌인 본인의 역량을 발굴함은 물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요소도 적극 발굴하여 원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 창출
- 농촌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주체로서 인식하고 리더 및 주도그룹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
- **정부사업 추진 시에 귀농귀촌인이 사업 주체로 나서도록 유도**
 - ※ (예시) 정부 사업 심사 시에 마을운영진, 사업조직 등에 5년 이내 이주 귀농귀촌인이 포함될 경우 가점을 부여 방안 검토 필요

○ 연계

- 귀농귀촌인 대상 현장포럼은 그 수요가 많지 않고, 마을 내에 교육 희망자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단일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개 마을을 묶거나 읍면 단위로 시행할 수도 있음**
- **공동체 역량 강화형 포럼과 연계하여 시행하면서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 양측의 교육 내용을 융합하여 별도로 만들 수도 있음**

○ 포럼 수행 횟수

- 기본적으로 3회차 수행: 주민소통과 역할 찾기에 초점
- 필요에 따라 5회차 진행 가능: 사전 조사와 귀농귀촌 실태 이해
- 5회 차를 적용할 경우에는 귀농귀촌형 포럼으로 단독 진행하고, 3회차인 경우에는 **공동체 역량강화형 포럼과 연계하여 교육내용을 융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토록 함**
- ※ 양측 포럼의 연계 내용과 수행 횟수 등은 사전에 주민이 시군 현장 활동가, 도단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회차별 수행 목표와 과제

- ※ 아래 제시된 회차수와 내용은 예시로 나타낸 것이고 공동체 역량 강화형 포럼과 융합할 경우에는 횟수와 내용을 조정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음

① 사전 조사(필요시 수행)

- ※ 목표: 현재 귀농귀촌 주민의 실태 파악과 공동체 활동이나 마을사업에서의 참여 수준의 개략적 파악
- 귀농귀촌 주민의 역량 조사(역량진단 조사표 활용)
- 귀농귀촌인 인지하고 있는 마을 자원에 대한 설문 조사(마을자원조사표 활용)

② 1회차(필요시 수행)

- ※ 목표: 귀농귀촌 실태 이해
- 우리나라 귀농귀촌 실태와 성공적인 마을 정착에 대한 이해 증대

③ 2회차

- ※ 목표: 이주민 관점에서 마을 현안과 갈등 상황 발굴
- 현재 정착한 마을의 현실과 문제점, 잠재력, 현안 과제 도출
- 현재 드러나고 있거나 예상되는 주민 간 혹은 원주민-이주민 간 갈등 상황 파악
- ※ 현안 발굴과 상황 파악을 위해 퍼실리테이션 형태로 진행

④ 3회차

- ※ 목표: 주민간 유대 증진을 위한 소통방법 습득
- 원주민과 이주민의 의사소통 향상 방법과 유대 강화 방법(워크숍)
- 현안 갈등을 해소하고 예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소통방법 훈련

⑤ 4회차

- ※ 목표: 귀농귀촌인의 역할과 마을사업 구상안 만들기
- 귀농귀촌인의 마을사업에서의 주체적인 참여와 역량 실천방안 모색
- 귀농귀촌인이 구상하는 마을만들기 사업구상안 만들기(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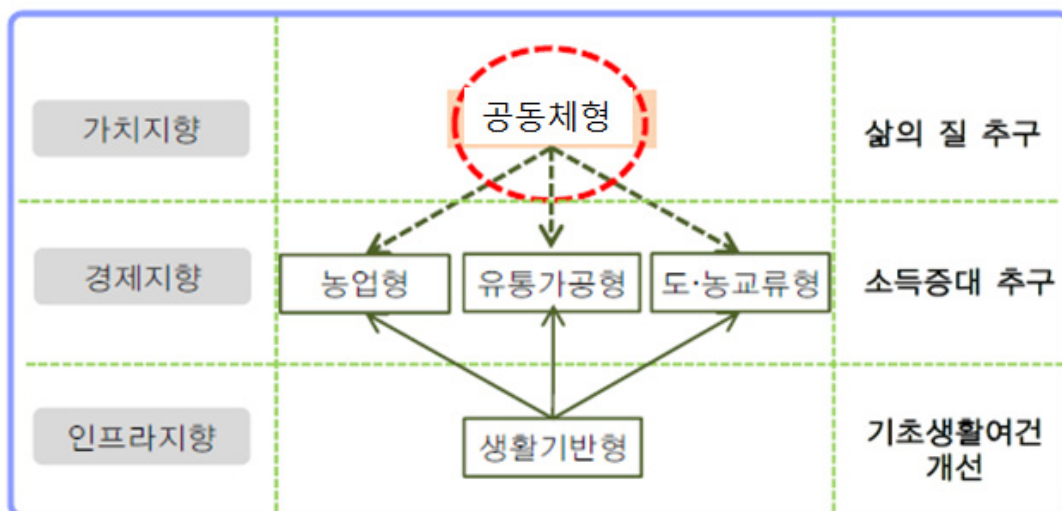
5. 공동체 역량 강화형 농촌현장포럼 운영 프로그램

1) 공동체 역량 강화형 현장포럼의 기본 틀과 지향 가치

○ 공동체 역량 강화형 현장포럼의 기본 틀(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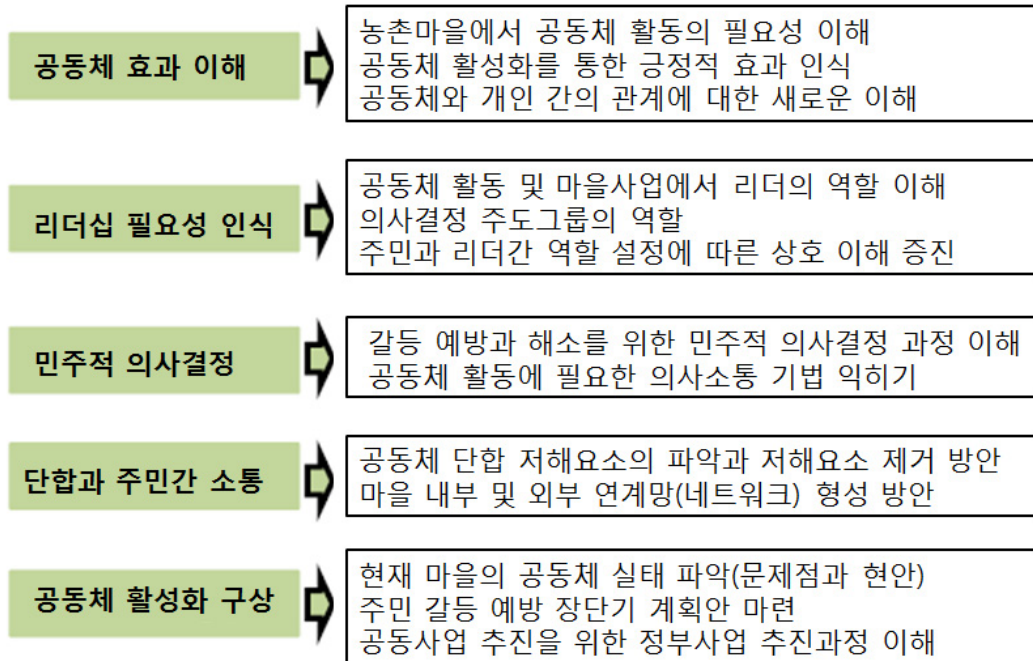
목적	주민의 민주적 역량과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동 참여와 효과 이해
내용	공동체 주도층의 리더십 이해 공동체 의사결정 능력과 주민소통 향상 마을 공동체 활성화 구상안 마련
참여자	마을 주민 전체
진행자	전문가(마을별 총괄계획가) 퍼실리테이터
결과물	공동체 활성화 구상안 현장포럼 일정계획 수립
현장활동가 역할	전문가 및 퍼실리테이터와 교육 협의 교육 환경 점검 및 준비

○ 공동체 역량형 현장포럼의 지향 가치



2) 공동체 역량형 현장포럼의 교육 항목

○ 공동체 역량형 현장포럼의 교육 항목과 내용



3) 생활만족형 현장포럼과 연계 운영

- 농림부 발간 농촌현장포럼 핸드북에 의하면 생활만족형 현장포럼은 현재 1회 정도 워크숍으로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본 공동체 역량형 포럼의 중간이나 말미에 생활만족형 현장포럼을 1회 정도 삽입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함
- 양측 프로그램을 융합하여 운영할 경우 공동체 활동의 성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 마을에 정부사업이 진행될 경우라면 소프트웨어 성격의 사업 내용을 본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 점검하고 사업효과 제고 방안을 주민

스스로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마을 공동체 활동의 종류



4) 포럼 회차별 세부 활동 내용

(1) 사전 준비

- 목표: 현재 공동체 역량의 대략적 파악
- 진행자: 전문가(현장 방문), 현장활동가, 마을운영진
- 세부 활동 내용
 - ① 마을 운영위원(혹은 주도그룹)에 대한 농촌현장포럼 관련 정보 설명

- ② 마을주민 역량 조사(주민역량진단 조사표 활용)
- ③ 마을 자원 조사(자원조사표 활용)
- ④ 마을 운영진과 포럼 진행 장소 확인 및 교육환경 협조 구하기
- ⑤ 마을 운영진과 향후 포럼 일정 계획 협의
- ⑥ 마을자원조사 및 주민역량조사 결과 농림부 RAISE 시스템 입력

(2) 공동체 동기 부여(1회차)

- **목표:** 공동체의 필요성과 리더십 역할 인식
- **진행자:** 전문가(강의, 토론 담당), 현장활동가, 마을운영진
- **세부 활동 내역**
 - ① 농촌현장포럼 및 관련 정부 정책 설명
 - ② 농촌 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력 증진
 - ③ 농촌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의 필요성과 그것의 효과에 대한 설명
 - ④ 성공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한 원주민과 귀농귀촌이 간의 마을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 설명
 - ⑤ 사전조사에서 나타난 마을자원 및 역량진단 결과 발표
 - ⑥ 마을 주도층 대상 교육 진행
 - 마을공동체 리더십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 ⑦ 향후 포럼 일정 협의 및 확정
 - ⑧ 향후 포럼을 위한 외부 전문가, 현장활동가, 퍼실리테이터의 인적 정보, 연락처 교환

(3) 마을 공동체의 실태 파악(2회차)

- **목표:** 현재 마을 공동체의 활동 수준 파악
- **진행자:** 퍼실리테이터
- **세부 활동 내용**
 - ① 지난 1회차 포럼 결과 및 2회차 포럼 개요 설명
 - ② 현재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기여 요인 찾기
 - 마을의 단합, 공동사업 추진, 리더십 수행, 공동체 행사 추진, 주민

간 인간관계 형성 등에 긍정적인 요소 발굴과 정리

③ 현재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기여 요인 찾기

- 마을의 단합, 공동사업 추진, 리더십 수행, 공동체 행사 추진, 주민 간 인간관계 형성 등에 부정적인 요소 발굴과 정리

※ 감정카드 활용: 특정 서술어와 연관된 부정적 사항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기

※ 문제상황 그리기: 문장, 기호, 그림, 다이어그램 등의 적절한 활용

④ 우리 마을 공동체 자원의 특징과 주제 발굴(필요시)

- 다른 마을과 차별화되는 특징적인 조직(단체, 모임 등), 개인, 리더, 행사, 축제, 이야기, 역사 등의 발굴
- 공동체 자원의 평가: 대표 자원 및 서술어(문구) 찾기
- 대표 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주제(테마), 사업 아이디어 찾기

⑤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화합 촉진 혹은 저해 요소 찾기(필요시)

-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화합을 촉진하는 사업, 행사, 인적 관계, 사고방식, 태도 등의 발굴
-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안, 태도 등의 발굴

⑥ 현재 진행되는 공동체 활동의 현황과 주요 현안 과제 파악

⑦ 금회차 교육내용 정리 및 향후 일정 알림

<예시> 마을 공동체 주요 현안 과제 정리

• 약속의 개념을 중시하면서 마음으로 단합하기	소통화합	
• 추진위원단 지도자 합심하자	소통화합	→ 공동체 활동으로 대체
• 주민의 사업참여방안 마련하자	소통화합	
• 서로 협력하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면 좋겠다.	소통화합	
• 직무이행에 책임을 갖고 앞장서면 좋겠다	운영위원회구성	
•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자	운영위원회구성	
• 사업할 사람을 능력있는 사람을 기용해보자	운영위원회	→ 권역운영조직 구성 토의
• 권역운영위원회 구성, 권역 운영매뉴얼 결정-마을규약	운영위원회구성	
• 마을추진위원을 활동성 있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해보자	운영위원회구성	
• 커뮤니티센터를 상시 운영해서 관리비를 마련하자	체험프로그램결정	
• 체험마을 운영은 어떻게 하고, 소득분배는 어떤식으로 결정하면 좋을까	체험프로그램결정	
• 체험끼리 만들자	체험프로그램	→ 체험프로그램 토의 대체
• 소통과 화합	체험프로그램결정	
• 소득사업 활성화	체험프로그램결정	
• 권역대표체험 먹거리 결정	체험프로그램결정	
• 회의방식 바꾸자	회의방식	
• 민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다	회의방식	→ 회의방식 개선 강의
• 남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회의방식	
• 추진위원단 노고에 감사	기타	→ 칭찬게임으로 진행(본격적 토론전)
• 권역의 협오시설 정비방법 모색	기타	→ 마을 자체적 회의를 통해 해결키로 함

(4) 의사결정과 주민소통 능력 향상(3회차)

- 목표: 공동체의 의사결정 능력과 주민간 소통 능력 향상
- 진행자: 퍼실리테이터, 전문가(의사소통 분야)
- 세부 활동 내용

- ① 지난 2회차 포럼 결과 및 금번 3회차 포럼 개요 설명
- ②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의사 진행 방법 익히기
 - 마을 주민회의 진행 절차, 의사진행, 발언 방법 등 이해
 - 마을내 역할을 상정한 의사 진행 연습하기
- ③ 주민 간 다양한 의사소통 기법 익히기
 - 대화, 서류, 그림, 전화, 문자, 제3자 등을 통한 소통 방식 익히기
 - 최근 스마트 매체를 활용한 SNS, 인터넷 소통 방식 익히기
 - 말투, 대화법, 태도, 사고방식 등에서 친밀감 증진 방법 익히기
- ④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 익히기
 - 개방적 행동, 공감, 상호지지, 적극적 대처, 상호 존중 등의 대화 방식이나 태도 견지 방법 익히기
- ⑤ 우리 마을에서 의사결정이나 주민소통에 장애가 되는 사항 파악하기
 - 위의 의사결정, 주민소통 기법 강의 시작과 말미에 토론 참여 수업을 통해 의사결정이나 주민소통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 ⑥ 금회차 교육내용 정리 및 향후 포럼 일정 알림
 - 차기 포럼이 공동체 활성화 구상안 만들기인데, 이는 사전에 주민이 긴밀히 협의하고 생각을 해서 결정해야 할 과제임
 - 미리 다음 교육주제를 알려주고 사전에 준비할 사항을 알려줌(공동체 단합, 의사결정, 주민소통, 공동사업 추진, 주민관계 형성, 친밀감 형성 등에 장애가 되는 핵심 사항을 미리 생각하기)

(5) 공동체 활성화 구상안 만들기(4회차)

○ **목표:** 공동체 활성화 구상안 만들기

○ **진행자:** 전문가

○ **세부 활동 내용**

- ① 지난 3회차 포럼 결과 및 금번 4회차 포럼 개요 설명
- ② 공동체 활성화 과제 정리
 - 지난 2회차 공동체 실태 파악에서 정리된 과제를 영역별로 재정리
- ③ 공동체 과제의 체계화
 - 마을 전체 주민이 시급하다고 평가하는 대표 현안 과제 정리
 - 주제별 핵심 과제와 주변 과제 정리
 - 단기, 중기, 장기 시기를 구분하여 해결과제 일정 구상
 - 마을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등 운영위원이 해야 할 것과 일반 주민이 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 과제를 정리
- ④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부 사업 이해
 - 지자체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설명
 - 중앙 정부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설명
- ⑤ 포럼결과 종합 정리
 - 포럼 성과, 공동체 활성화 계획안 정리
- ⑥ 향후 선진지 견학 사전 교육(견학 포럼 회차를 시행하는 경우)
 - 방문 장소, 견학 일정, 교통 수단, 마을 및 개인 준비물 공지
 - 공동체 특징에 따라 견학지 사전 조사 및 결정이 요구됨
 - 벤치마킹 방법에 대한 간략한 사전 교육 실시

(6) 선진지 견학(5회차, 필요시)

○ **목표:** 선진지 견학을 통한 바람직한 공동체 모습 그려보기

○ **진행자:** 전문가, 현장활동가, 선진지 현지 강사

○ **세부 활동 내용**

- ① 선진지 견학 계획서 작성
- ② 벤치마킹 요소에 대한 간략한 사전 교육 실시
 - 선진지로의 이동 중에 사전 교육 실시
 - 선진지의 개략 특징, 배울 점, 주의해서 볼 점, 우리 마을과의 차이점을 사전에 설명
- ③ 현장 방문 실시
 - 계획된 시간표에 맞춰 방문지 프로그램에 주민 참여
- ④ 주민 단합의 시간 마련
 - 현지 중식, 이나 귀가 후 석식 시간 활용
- ⑤ 방문 체험에서 나타난 배울 점 요점 재설명
 -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금일 배운 사항 재정리 설명
- ⑥ 현장 견학 결과 보고서 작성


✓ 벤치마킹 계획서와 보고서(예시)

000 마을 농어촌 현장푸름 3회차 벤치마킹

- 벤치마킹 대상지: 금산군 신안골역(금산군 계룡면 길곡리)
- 일정: 2013.1.16(수) 09:00-18:00
- 참여인원: 단지봉골역 주민 약40여명
- 진행시간표

시간	주요내용	진행방법	비 고
08:40-08:50	마을회관 집결		
09:00-09:40	벤치마킹 방법론 강의	강의/실습	김윤이 필장
09:40-12:00	출발(단지봉 → 신안골역)		
12:00-13:00	점심식사		단지봉골역
13:00-15:00	신안골역사업 사례강의	강의	유상권 사무장
15:00-16:00	현장탐방	체험	유상권 사무장
16:00-18:00	도착(신안골역 → 단지봉)		

- 금산 신안골역(105km 약2시간 소요)



000마을 벤치마킹 보고서

벤치마킹대상지: 금산 신안골역

벤치마킹 주제 (현장탐방)	
벤치마킹의 상세내용	
활용방안	
질문항목	
벤치마킹의 상세내용	
활용방안	

* 2인1조로 팀을 구성하여 벤치마킹 보고서를 작성한다.

(팀) : _____

6. 정책적 제언

○ 본 연구는 그간 정부가 운영해온 농촌현장포럼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마을만들기 활동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음

○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정책적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농촌현장포럼의 위상 공고화와 타 사업에의 확대 적용 건의

- 현장포럼은 정부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역량 제고에도 아주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입증된 바, 정부 농촌개발사업 추진시에 현장포럼을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현재 포럼을 적용하지 않는 여타 사업에도 확대 시행할 것을 건의하는 바임

-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침에서 농촌현장포럼 등 공동체 역량제고 사업을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 농촌현장포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포럼의 수행 주체인 도단위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위상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함

※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 주민의 사업 추진의지에서 가장 높은 교육 효과를 보였고, 사업 추진시 포럼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가장 큰 만족도를 나타내어, 포럼의 정책적 유용성은 충분히 검증됨

- 마을 단위 이외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도 현장포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할 것임(최근 농림부 지침에 포럼 적용 조항 삭제된 상황)

※ 현장포럼 식의 주민역량강화 정책은 도시재생 등 타부처 지역개발 사업에선 시행하지 않는 농림부만의 차별화된 정책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② ‘공동체 역량 강화형 농촌현장포럼’의 신규 도입 제안

- 기존 농촌현장포럼의 여러 유형에다 소통과 갈등관리에 초점 둔 ‘공동체 역량 강화형 농촌현장포럼’을 새롭게 도입할 것을 건의드리

③ 역량 있는 귀농귀촌인 활용 정부사업을 확대 추진

- 귀농귀촌이 보편화되는 추세에서 본 연구를 통해 그 역량이 다시 한번 확인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정책 개발이 필요

(예시) 귀농귀촌인 역량 활용 농촌 일자리 사업 추진

- 각종 농촌개발사업에서 귀농귀촌인이 사업 주체로 나서도록 유도할 수 있는 사업지침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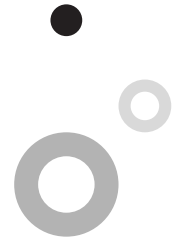
(예시) 귀농귀촌인 포함 마을운영진, 사업조직에 사업 심사시 가점

④ 귀농귀촌인 대상 마을만들기 역량 강화 사업의 개발

- 귀농귀촌인 대상 마을, 읍면 단위 농촌현장포럼 프로그램의 개발
 - ※ 공동체 역량 강화형 현장 포럼과 연계하여 융합적 프로그램 개발
- 농촌발전의 새 주체로서 귀농귀촌인의 마을만들기 역량 제고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개발

⑤ 공동체활동 부문 주민역량조사표 수정안 제안

- 공동체 역량의 체계적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 해당 부분 조사표의 질문내용을 수정하여 제시하는 바임



강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2017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지자체 역량강화사업현황조사 및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원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2
가. 주요 연구내용	2
나. 연구범위	2
다. 연구방법	3
II. 강원도 시군 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	5
1. 시군역량강화사업	5
가. 역량강화의 정의	5
나. 시군역량강화사업	5
2. 2016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	11
가. 2016년 시군 역량강화사업 계획현황	11
나. 2016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	14
다. 2016년 역량강화사업 계획대비 진행현황	17
3. 강원도 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	19
가. 강원도 및 시군 지자체 자체 역량강화사업	19
가) 마을기업형 새농촌사업 역량강화사업 현황	19
나) 시군 지자체별 역량강화사업	20
나. 강원도 농촌개발사업의 역량강화 사업 추진현황	21
III. 역량강화사업 효과성 인지도 및 요구분석	23
1. 역량강화 활동 유형별 효과성 인지도 분석	23
2.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요구 분석	27

IV. 타 부처 역량강화 사업	29
1. 특수상황지역 역량강화 사업	29
2. 국토교통부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31
3. 부처별 지역개발사업의 비교	34
V. 역량강화사업의 효율적 운용방안	36
1. 시군역량강화사업 평가사업 추진	36
2. 관련주체별 역할 활성화	39
가. 지자체	39
나. 중간지원조직	40
가)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40
나)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	40
3.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개선	41

표 차례

<표 1> 강원도의 지역구분	3
<표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개요	7
<표 3> 일반농산어촌개발 기능별 사업내용 예시 중 지역역량강화 사업	9
<표 4> 2016년 시군 역량강화사업 계획 현황	11
<표 5> 2016년 시군 역량강화사업 계획 현황	14
<표 6> 2016년 시군 역량강화사업 계획대비 추진현황	17
<표 7> 2016년 시군 지자체별 역량강화 지원사업 현황	20
<표 8> 강원도 역량강화사업 예산현황(2016)	21
<표 9> 역량강화활동 유형별 효과성 인지도 비교	23
<표 10> 안전행정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내용	30
<표 11> 성장촉진지역 역량강화사업 내용	32
<표 12> 지역역량강화사업과의 비교분석	33
<표 13> 부처별 지역개발사업 비교	35
<표 14> 프로그램 논리모델의 예	37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4
<그림 2> 2016년 사업준비지구 역량강화사업 계획(%)	13
<그림 3> 2016년 사업완료지구 역량강화 사업 계획(%)	13
<그림 4> 2016년 사업준비지구 역량강화 사업 추진현황(%)	16
<그림 5> 2016년 사업완료지구 역량강화 사업 추진현황(%)	16
<그림 6> 2016년 사업준비지구 역량강화 사업 계획대비 추진현황(%)	18
<그림 7> 2016년 사업완료지구 역량강화 사업 계획대비 추진현황(%)	18
<그림 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기업형 새농촌사업의 비교	19
<그림 9> 2016년도 사업준비지구 역량강화활동 유형별 추진 빈도	25
<그림 10> 2016년도 사업완료지구 역량강화활동 유형별 추진 빈도	25
<그림 11>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체계	31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크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한 역량강화사업과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역량강화사업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각 지역개발사업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사업과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구분됨.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예비 및 사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사업 위탁 시행자), 컨설팅 업체(사업수행자) 등이 담당하고 있음.
-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참여도가 농촌마을 개발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참여도는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제고시킬 수 있음. 따라서 역량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은 지역개발의 성패를 좌우 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농촌개발사업이 H/W 정비 중심의 사업에서 S/W 사업인 지역역량강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개발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예비 및 사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역량이란 사전적 의미로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뜻하며,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농촌 지역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역량강화란 그러한 힘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지역사회의 발전역량을 논의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사회 내 발전의 개념으로 구분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

음. (김정섭 외, 2009)

-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역량강화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시군역량강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각 지자체 단위에서 시군역량강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분석을 강원도의 사례를 통해 분석함.
- 분석 결과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시군역량강화사업에서 요구하는 목표점에 합치될 수 있는 역량강화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농촌개발 참여주체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주요 연구내용

- 역량강화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역량강화사업 현황 분석
 - 역량강화 부문별 지원규모 분석
 - 역량 강화 관련 컨설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업체 현황 분석
 -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형식 및 내용분석
- 역량강화사업 효과성 분석 및 역량강화 요구 파악
 -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역량강화사업 효과 분석 및 요구 분석
-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

나.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2017년 5월 ~10월(6 개월)

○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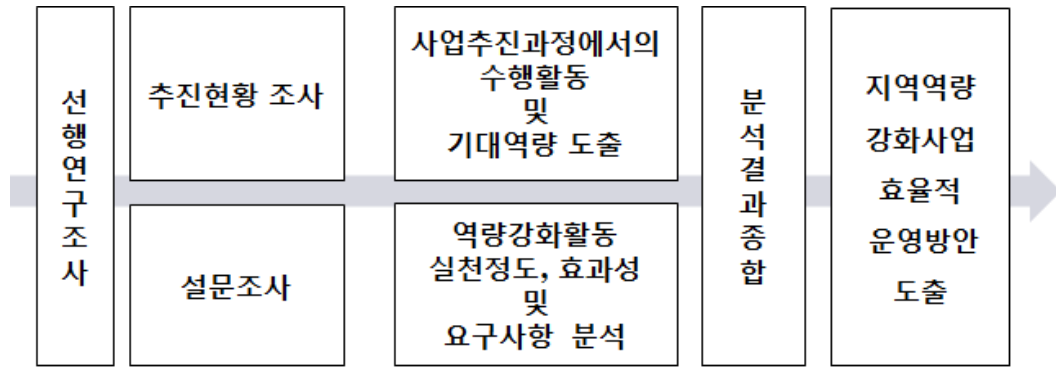
- 강원도 일반농산어촌개발지역 9개 시군

<표 1> 강원도의 지역구분

구분	지자체수
일반농산어촌개발지역	9개 시군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특수상황지역	6개 시군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성장촉진지역	3개 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계	18

다. 연구방법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사례조사,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역량강화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관련 정책사업 시행지침 등 정부 문헌 등을 검토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군의 담당 공무원 및 개발사업 경험이 있는 마을 및 권역의 대표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농촌개발사업 참여주체의 역량강화 활동 실태를 파악하였고, 강원도 일반농산어촌개발지역 9개 시군의 일반역량강화사업비의 계획현황과 사업추진 현황을 비교 분석 및 역량강화 활동의 효과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였음.
- 역량강화사업 관계자 인터뷰를 통하여 역량강화와 관련된 ○요구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음. 또한 타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량강화 내용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역량강화 사업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음.



<그림 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II. 강원도 시군 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

1. 시군역량강화사업

가. 역량강화의 정의

- 농촌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농촌지역사회의 역량’을 축적하는 것을 뜻함. UNCREC(1992)는 역량강화를 ‘인적자원 개발, 조직 개발, 법률적 지도적 틀이라는 세 차원에서 관련 주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음.
 - 인적개발 차원에서의 역량강화는 개인들에게 정보 또는 지식에 대한 이해, 습득, 접근,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성과를 이루게 하는 것을 뜻함
 - 조직개발차원의 역량강화는 공공 민간 지역사회의 조직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 조직과의 관계까지 포함하여 조직의 관리구조, 수행절차등을 보완하는 것을 말함.
 - 법률적 제도적 틀 속에서의 역량강화는 다양한 부문과 수준에서 조직, 정부기구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또는 법률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함.
- 농촌개발정책 관련 연구들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역량 강화의 공통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참여자 개인의 인적 역량 못지않게 조직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둘째, 농촌개발사업 추진조직과 외부의 파트너십이 강조되며, 셋째,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확대된 지원을 주장하고 있음.

나. 시군역량강화사업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하드웨어(H/W)시설중심의 투자에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시설의 운영관리 등 사업성과가 미진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사

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임.

- 지역개발사업의 성과는 사업마을(권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사업마을(권역)의 리더 양성에서부터 주민의 참여 의식 제고와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마을(권역)의 역량 증대를 통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임.
- 이처럼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증대하여 최종적으로 지역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사업은 1950년대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60년대를 거쳐 '70년대 새마을운동, '80~90년대 정주생활권 개발로 진화하였음.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농어촌 및 낙후지역에 다한 투자에 힘입어 사회기반시설의 정비 수준은 향상되었음.
- 그 후 2000년대에 민주화·다원화가 농어촌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지역개성과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규모 생활권 단위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으로 발전하였음.
- 그 후 농촌지역개발사업은 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도입되면서부터 하향식의 지역개발방식이 상향식의 맞춤형 지역개발형태로 변화하여 글로벌화, 지역특성 발전, 지역 간 상생발전 방향으로 새롭게 개편되었음.
- 또한 2010년부터 부처별 200여개 개별사업을 22개 사업군으로 통합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로 전환하였음. 2010년 포괄보조제 도입과 함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한 15개 지역개발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소관부처도 조정되었음. 지자체의 소관부처가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지역과 접경지역 15개 시군을 제외한 전국 117개 시군을 담당하도록 조정되었음.

<표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개요

사업유형		사업내용	사업기간
농촌중심지활성화		-농촌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 경제 등 중심기능 활성화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마을에 서비스 제공	5년 이내
기초생활거점		-통합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읍 소재지 접근성이 제한적인 배후마을에 서비스 제공 등	5년 이내 + α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5년 이내 (3년까지 단축 가능)
	자율개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신규마을	-기반조성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시행계획 수립	5년 이내
	산림휴양치유마을	-산촌마을이 산림경과, 산림문화자원, 인근 산림복지시설과 연계한 산림에 특화된 사업	5년 이내
시군역량강화		-단계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예비·사후 역량강화를 중점 지원	1년
농촌다움 복원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창의적인 사업 추진	5년 이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및 귀농 귀촌인(30%이내)를 위한 농촌형 임대주택	5년 이내

주) 2017년 1월부터 '18, '19년 산림휴양치유마을 신규사업, 산촌성격이 강한 '17년 계속사업 24개 지구를 산림청에서 관리

자료 :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추진 계획(안)

- 또한 2014년 사업체계 개편을 통하여 단계별 지원방안을 도입하여 사업역량이 부족한 마을에 고액의 사업비 지원으로 무분별한 사업비 집행과 시설물 운영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역량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실시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2017년 계획(안)을 살펴보면 기초생활거점의 추가와 농촌다움 복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분야별 마을개발사업이 자유사업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바뀌었음(표 2).
- 또한 사업의 주체인 주민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제 해결 능력, 공동체 신뢰형성, 네트워크 역량 등 사전역량강화를 의무화하였음.
 - 사업 사업참여 의사가 있는 주민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의 사전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업 참여 이전에 필히 교육을 이수하여 사업을 이해하고, 주민주도의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마을 활동으로 경험을 축적하여 마을공동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최근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다양한 유형(광역, 권역, 마을단위 등)과 형태(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등)로 발전하고 사업추진방식도 주민참여형의 상향식(Bottom-up)으로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실시되기 이전 추진되었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읍면소재지정비사업 등 농촌마을 개발사업의 정부의 하향식 사업추진으로 농촌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부족과 환경변화에 대처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여 수많은 정책사업만 양산하고, 보조금과 특혜 금융자금으로 농업생산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농가부채만 늘어나는 등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농촌주민들은 비전과 자신감을 잃었고 정부에 대한 의존만 심화시켜 왔음.
- 이에 따라 농촌지역개발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초기에는 주로 기반시설확충, 및 경관개선 등 하드웨어 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능별 사업의 종류는 크게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 등 4개 분야로, 과거에는 주로 기반시설확충 및 경관개선 등 하드웨어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그 이유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개성과 자율성, 창의성을 기초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상향식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임.

- 또한 지역역량강화(S/W)사업을 도입하여 주민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중심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임.

<표 3> 일반농산어촌개발 기능별 사업내용 예시 중 지역역량강화 사업

교육 훈련	리더양성, 정문가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 및 장비 구입,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	홍보마케팅(지역축제 활성화, 마을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 교육, 마을 기록화, 마을신문 등)
지역활성화	유지관리활성화 프로그램, 중심지와 배후 마을간 연계 프로그램 ¹⁾ , 사회적 경제조직 등 전문조직 발굴 및 육성, 공동체활성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 ²⁾ , 세부설계수립, 감리비,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총괄 계획가, PM단, 현장활동가 등), 관리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주 : 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 거점 사업(2단계 사업 시)만 해당

2) 경관계획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별도 경관계획수립비용 지원불가)

자료 :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추진 계획(안)

- 이는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향식 지역개발사업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며 농촌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내생적 역량의 강화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역역량강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능별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입비 등의 부대경비와 지역마케팅, 관계자 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의 소요경비 등과 기초생활권의 기능별 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리더 및 주민교육, 브랜드 개발, 귀농 및 귀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 또한 시군의 지역역량강화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의 3%이내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업지원에 필요한 경비와 연구비, 자문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여타 사업과 달리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짧은 시간에 하드웨어 시설중심의 투자에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시설의 운영관리 등 사업성과가 미진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임.
- 현재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사업추진주체), 한국농어촌공사(사업 위탁 시행자), 컨설팅 업체(사업수행자) 등이 담당하고 있음.

2. 2016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

가. 2016년 시군 역량강화사업 계획현황

- 강원도 9개 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지원자금의 규모파악과 역량강화사업 계획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사업 계획서를 활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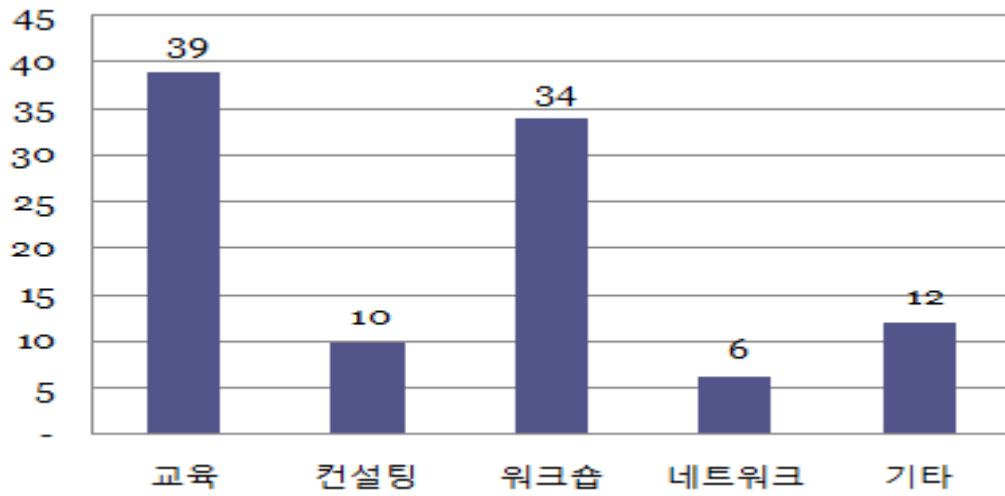
<표 4> 2016년 시군 역량강화사업 계획 현황

(단위 : 백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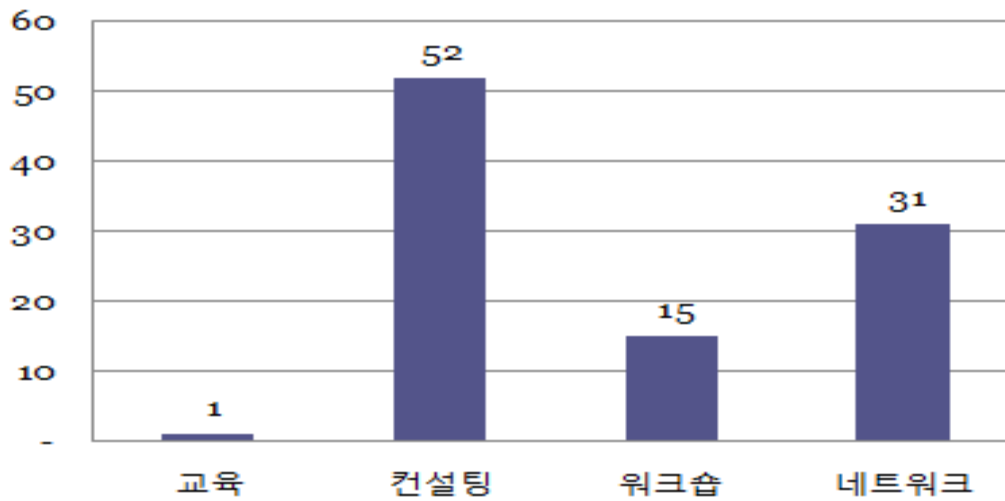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합계	50.0	50.0	50.0	100.0	150.0	50.0	100.0	100.0	100.0
사업준비지구 역량강화	49.0	50.0	50.0	64.5	136.0	33.0	100.0	100.0	76.0
교육	16.0	25.0	30.0	19.0	20.0	18.5	50.0	42.0	30.0
컨설팅	3.0	10.0	10.0	-	-	-	10.0	25.0	10.0
워크숍	24.0	5.0	5.0	21.0	85.0	6.0	35.0	20.0	30.0
네트워크	2.0	-	-	-	26.0	-	5.0	-	-
기타	4.0	10.0	5.0	24.5	5.0	8.5	-	13.0	6.0
사업완료지구 역량강화	1.0	-	-	35.5	14.0	17.0	-	-	24.0
교육	1.0	-	-	-	-	-	-	-	-
컨설팅	-	-	-	20.0	-	12.0	-	-	16.0
워크숍	-	-	-	-	-	-	-	-	-
네트워크	-	-	-	15.5	14.0	5	-	-	8.0
기타	-	-	-	-	-	-	-	-	-

주 : 교육 : 마을 리더 및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공공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등 집합식 강의
 컨설팅 : 마을만들기, 소득사업 추진 등 컨설팅업체 및 전문가의 용역 및 자문 등
 워크숍 : 농촌현장포럼, 워크숍, 세미나 등
 네트워크 :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를 위한 회의 등
 기타 : 총괄계획가운영, 콘테스트참가 등

- 사업계획 총예산과 분야별 예산을 통하여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역량강화사업별 투입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표 4>와 같음
- 역량강화사업 계획 총예산을 살펴보면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영월군은 각 5천만원이며,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은 각 1억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횡성군은 1억5천만원의 역량강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2016년 시군역량강화사업비가 시군당 최대 1억5천만원임을 감안하면 횡성군을 제외하고는 적게 신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준비지구에 전체 사업비의 88%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완료지구 역량강화에 12%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음.
 - 사업준비지구의 경우 교육 및 워크숍(현장포럼)에 사업비를 집중하고 있으며, 사업완료지구는 컨설팅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사업준비지구 예비관리 부문의 역량강화 교육은 주로 주민 및 리더교육으로 계획되고 있음(그림 2).
 - 교육부분은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 78.9%, 선진지 견학 19.2%, 공공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1.9%)
 - 컨설팅 부문은 마을만들기 컨설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워크숍은 농촌현장포럼으로 실시되고 있음.
 - 그 외 네트워크 사업 6%, 기타사업은 12%, 운영이나 박람회 등 참가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사업완료 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부문은 주로 경영 및 조직활성화 컨설팅으로 계획되고 있음(그림 3).
 - 경영 및 조직활성화 컨설팅은 50%, 네트워크 구축 31%, 워크숍 15% 순임.



<그림 2> 2016년 사업준비지구 역량강화사업 계획(%)



<그림 3> 2016년 사업완료지구 역량강화 사업 계획(%)

나. 2016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

- 강원도 9개 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지원자금의 규모파악과 역량강화사업 계획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사업에 대하여 각 시군의 추진현황 자료를 활용하였음.

<표 5> 2016년 시군 역량강화사업 계획 현황

(단위 : 백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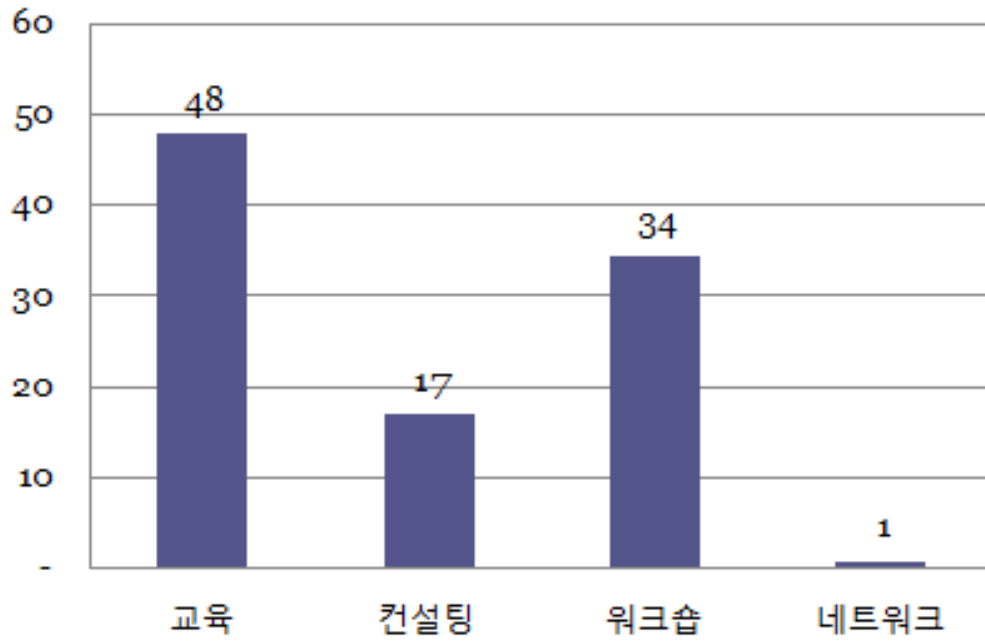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50	45.758	30.2	100	150	49.8	100.3	100	100
사업준비지구 역량강화	50	45.758	19.6	82.4	150	42	44.6	100	88.3
교육	42.4	-	19.6	25.4	136	-	25.2	5	28.5
컨설팅	7.6	-	-	-	-	-	0.4	65	37.8
워크숍	-	45.758	-	57	14	42	14	30	22
네트워크	-	-	-	-	-	-	5	-	-
기타	-	-	-	-	-	-	-	-	-
사업완료지구 역량강화	-	-	10.6	17.6	-	7.8	55.7	-	11.7
교육	-	-	4	-	-	-	19.7	-	-
컨설팅	-	-	3	0.3	-	-	36	-	11.7
워크숍	-	-	3.6	-	-	-	-	-	-
네트워크	-	-	-	17.3	-	7.8	-	-	-

주 : 교육 : 마을 리더 및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공공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등 집합식 강의
 컨설팅 : 마을만들기, 소득사업 추진 등 컨설팅업체 및 전문가의 용역 및 자문 등
 워크숍 : 농촌현장포럼, 워크숍, 세미나 등
 네트워크 :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를 위한 회의 등
 기타 : 총괄계획가운영, 콘테스트참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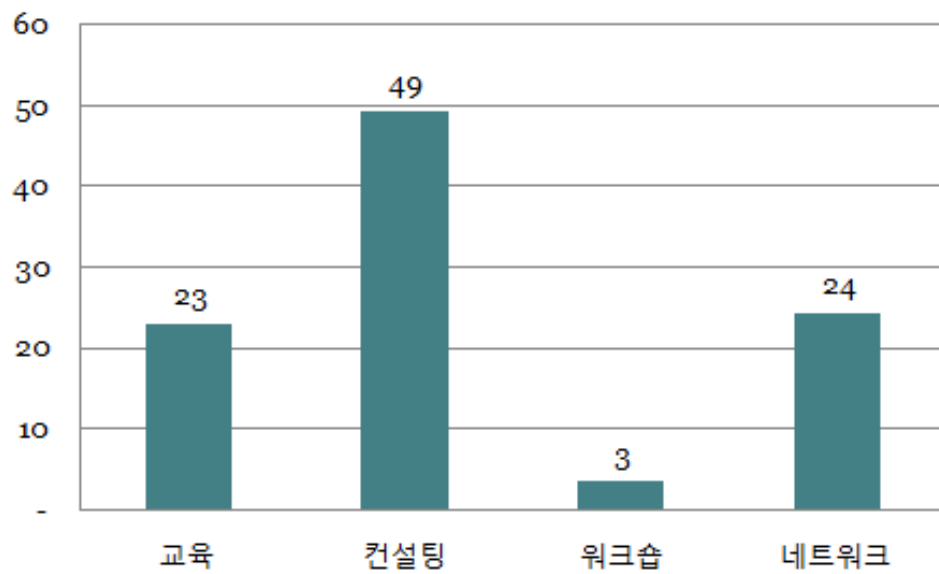
- 사업실행 부문 총예산과 분야별 예산을 통하여 각 시군에서 실시한 역량강화사업별 투입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음
- 역량강화사업 실행금액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군이 편성된 예산을 전부 집행하였음
 - 2016년 시군역량강화사업비가 시군당 최대 1억5천만원임을 감안하면 역

량강화사업의 규모가 매우 적게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사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준비지구는 교육부문이 가장 많이 실시되었으며, 다음으로 워크숍, 컨설팅 순이었음.
 - 사업완료지구는 컨설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 네트워크 순이었음.
 - 이는 사업준비지구와 사업완료지구의 역량강화 사업의 목적이 다를 수 있음.
- 사업준비지구 예비관리 부문의 역량강화 교육은 주로 주민 및 리더교육과 워크숍을 실시되고 있음(그림 4).
- 교육부분은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 78.9%, 선진지 견학 19.2%, 공공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1.9%)
 - 컨설팅 부분은 마을만들기 컨설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워크숍은 농촌현장포럼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 외 네트워크 사업은 1%로 매우 낮게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사업완료 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부문은 주로 경영 및 조직활성화 컨설팅으로 실시되고 있음(그림 5).
- 경영 및 조직활성화 컨설팅은 49%, 네트워크 구축 24%, 교육 23%, 워크숍 3% 순임.
 - 사업완료지구의 역량강화사업은 기 조성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그림 4> 2016년 사업준비지구 역량강화 사업 추진현황(%)



<그림 5> 2016년 사업완료지구 역량강화 사업 추진현황(%)

다. 2016년 역량강화사업 계획대비 진행현황

- 강원도 9개 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지원자금과 실행에서의 계획대비 실행을 비교 분석하면 <표 6>과 같음.

<표 6> 2016년 시군 역량강화사업 계획대비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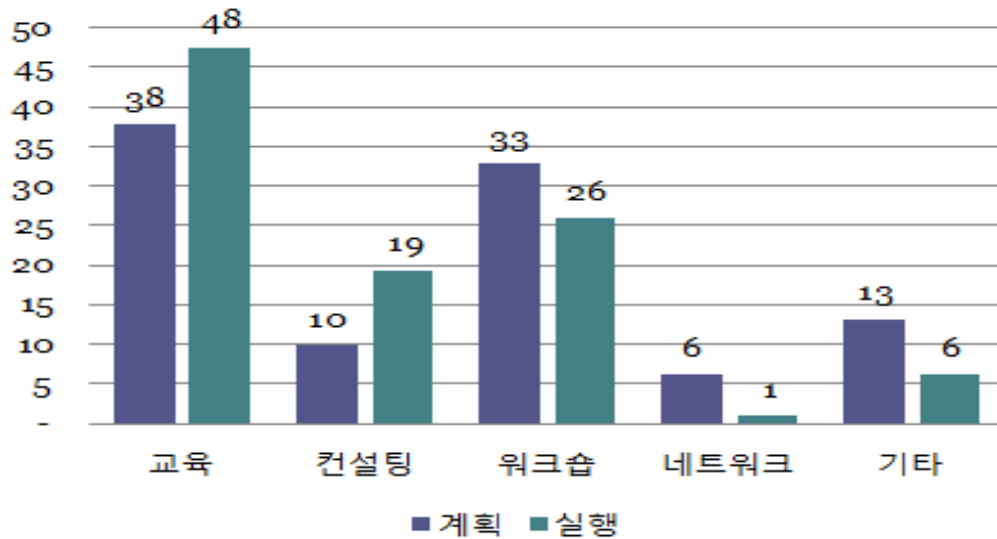
(단위 : 백 만원)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계획	실행	계획	실행	계획	실행	계획	실행	계획	실행	계획	실행	계획	실행	계획	실행	계획	실행
	50.0	50.0	50.0	45.8	50.0	30.2	100.0	100.0	150.0	150.0	50.0	49.8	100.0	100.3	100.0	100.0	100.0	100.0
사업준비지구 역량강화	49.0	50.0	50.0	45.8	50.0	19.6	64.5	82.4	136.0	150.0	33.0	42.0	100.0	44.6	100.0	100.0	76.0	88.3
교육	16.0	42.4	25.0	-	30.0	19.6	19.0	25.4	20.0	136.0	18.5	-	50.0	25.2	42.0	5.0	30.0	28.5
컨설팅	3.0	7.6	10.0	-	10.0	-	-	-	-	-	-	-	10.0	0.4	25.0	65.0	10.0	37.8
워크숍	24.0	-	5.0	45.8	5.0	0.0	21.0	57.0	85.0	14.0	6.0	42.0	35.0	14.0	20.0	30.0	30.0	22.0
네트워크 사 업	2.0	-	-	-	-	-	-	-	26.0	-	-	-	5.0	5.0	-	-	-	-
기타	4.0	-	10.0	-	5.0	-	24.5	-	5.0	-	8.5	-	-	-	13.0	-	6.0	-
사업완료지구 역량강화	1.0	-	-	-	-	10.6	35.5	17.6	14.0	-	17.0	7.8	-	55.7	-	-	24.0	11.7
교육	1.0	-	-	-	-	4.0	-	-	-	-	-	-	-	19.7	-	-	-	-
컨설팅	-	-	-	-	-	3.0	20.0	0.3	-	-	12.0	-	-	36.0	-	-	16.0	11.7
워크숍	-	-	-	-	-	3.6	-	-	14.0	-	-	-	-	-	-	-	-	-
네트워크구축 및 운영	-	-	-	-	-	-	15.5	17.3	-	-	5.0	7.8	-	-	-	-	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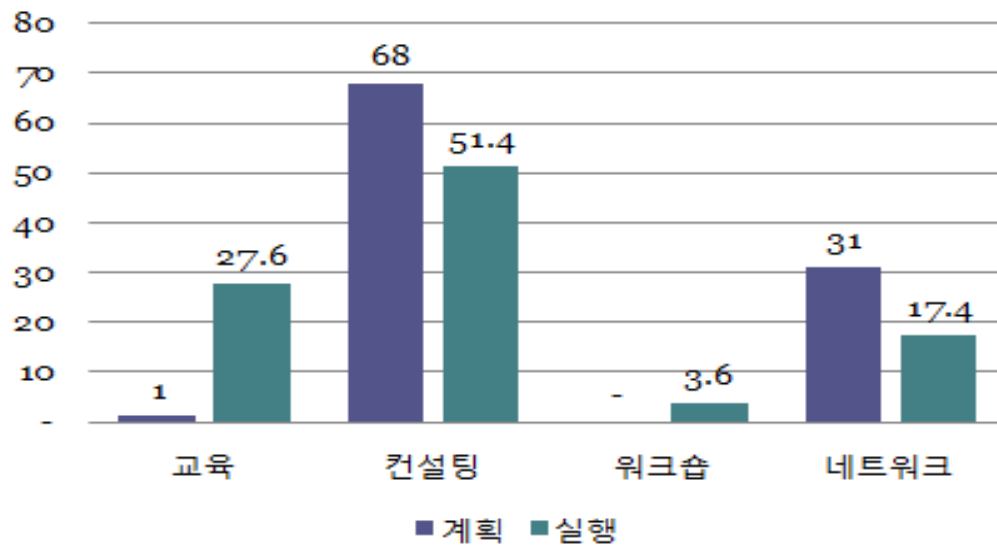
주 : 교육 : 마을 리더 및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공공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등 집합식 강의
 컨설팅 : 마을만들기, 소득사업 추진 등 컨설팅업체 및 전문가의 용역 및 자문 등
 워크숍 : 농촌현장포럼, 워크숍, 세미나 등
 네트워크 :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를 위한 회의 등
 기타 : 총괄계획가운영, 콘테스트참가 등

- 각 역량강화 부문에 있어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계획과 추진과정에서 사업준비지구와 추진지구 모두 교육부분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컨설팅 부문은 사업준비지구의 경우 10%에서 19%로 증가한 반면 사업완료지구는 68%에서 51.4%로 감소하였음.
- 이는 교육의 실시 시기가 농번기와 중복되어 교육의 어려움 등으로 변경 시행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림 6> 2016년 사업준비지구 역량강화 사업 계획대비 추진현황(%)



<그림 7> 2016년 사업완료지구 역량강화 사업 계획대비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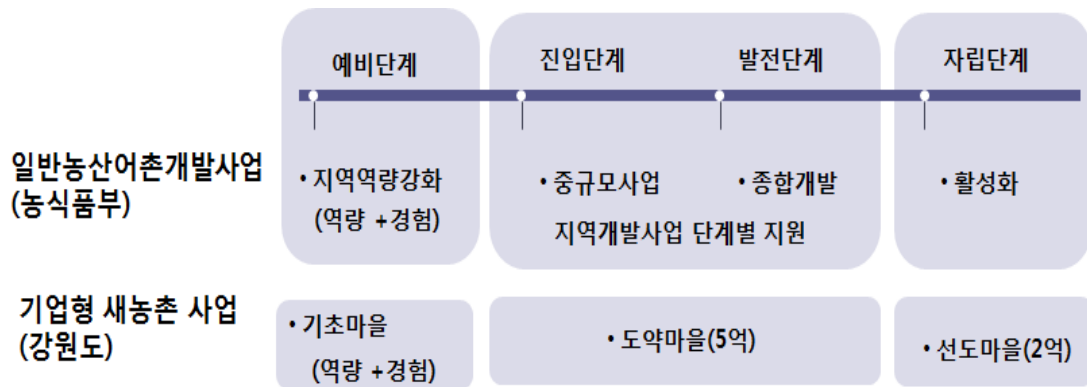
3. 강원도 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

가. 강원도 및 시군 지자체 자체 역량강화사업

가) 마을기업형 새농촌사업 역량강화사업 현황

- 강원도는 실사구시, 자력갱신, 자경정신을 바탕으로 한 21세기형 농어촌혁신운동인 ‘새농어촌건설운동’을 1999년부터 추진하여, 2015년까지 350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3~5억원씩 1,719억원의 역량강화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실정에 맞는 특성화 마을로 발전시키고 있음.
- 2014년 부터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경영차원의 마을기업형으로 전화하여 추진하고 있음
 -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우선 마을 당 3억원을 균등지원하고, 사업추진 2년차 평가과정을 거쳐 마을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1~3억(평균 2억원)을 차등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운동 추진의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기업형 새농촌사업의 비교



<그림 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기업형 새농촌사업의 비교

- 2016년 부터는 마을기업형 새농촌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새농기초마을, 도약마을, 선도마을 3단계로 추진하고 있음.

- 마을기업형 새농사업 기초마을사업에서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있음.
- 사전 역량강화를 위한 소액사업(마을당 약 700만원)과 역량강화 주민교육(마을당 약 300만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교육은 현장포럼 2회, 선진지 견학을 포함하고 있음.

나) 시군 지자체별 역량강화사업

- 강원도의 지자체별 자체 지원사업 실시에 따른
- 시 자체별 자체 지원사업 실시로 역량강화사업 실시
 - 홍천군 : 행복마을만들기 시범사업지원
 - 횡성군 :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지원
 - 평창군 : 군 자체 지원사업 실시

<표 7> 2016년 시군 지자체별 역량강화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 만원)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시범사업 등 (지자체 마을 만들기 사업 외)	700	165	258

주 : 컨설팅, 리더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선진지 견학 포함), 사전 역량강화를 위한 소액사업 등

나. 강원도 농촌개발사업의 역량강화 사업 추진현황

- 2004년부터 시작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기초생활환경정비사업, 경관정비사업, 소득기반정비사업 등을 지원하면서 주민의 역량강화사업을 병행하며 사업을 추진하였음. 그 후 모든 농촌개발사업에 역량강화사업이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음.
- 강원도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 각 개발사업에 따라 실시되는 강원도 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음

<표 8> 강원도 역량강화사업 예산현황(2016)

(단위 : 백 만원)

사업명	수량	사업액
창조적마을만들기	33	2,660
권역단위 종합	17	2,019
마을단위 사업	16	64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8	5,464
읍면소재지정비사업	16	2,828
선도지구사업	4	915
일반지구사업	8	1,721
기타협업	5	640
창조지역사업	5	640
계	66	8,764

자료 : 강원도

- 강원도의 경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총 16개 사업에서 2,828백만원의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는 33개 사업 2,660백만원의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음.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읍면소재지정비사업 16개 사업 2,828백만원, 선도지구 4개 지구 915백만원, 일반지구 8개 지구 1,721백만원으로 한 개 지구당 선도지구는 229백만원, 일반지구는 215백만원의 역량강화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음.

-
-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원역단위종합사업의 경우 17개 사업 2,019백만원을 역량강화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을단위는 16개 사업에서 641백만원의 역량강화 사업비를 사용하여 평균 권역단위사업은 119백만원, 마을단위 사업은 40백만원의 역량강화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음.
 - 기타 창조지역사업은 5개 사업 640백만원의 역량강화사업비로 평균 128백만원을 사용하고 있음.

III. 역량강화사업 효과성 인지도 및 요구분석

1. 역량강화 활동 유형별 효과성 인지도 분석

- 지역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역량 강화활동 유형의 효과성데 대한 설문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표 9>와 같음.

<표 9> 역량강화활동 유형별 효과성 인지도 비교

항 목	교육	컨설팅	토론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이해에 도움	56.3	62.5	37.5
참여분위기 조성 및 동기 유발에 도움	37.6	43.8	37.5
지역상황과 여건에 대한 진단에 도움	37.5	62.5	37.5
비전과 발전 방향 설정에 도움	37.5	56.3	50
세부사업 아이템 개발에 도움	31.3	68.8	68.8
사업활동에 필요한 기술/지식 습득에 도움	25	50.1	31.3
참여주체 결속에 도움	68.8	50	31.3
상품이나 서비스 홍보 마케팅에 도움	37.6	31.3	37.5
추진조직 관리 운영에 도움	37.6	25.1	18.8
자금이나 자산의 효율적 관리에 도움	50	31.3	31.3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에 도움	37.6	43.8	31.3

주 : 1) 표 안의 숫자는 해당 항목에 대해 '효과적이었다'와 '매우 효과적이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 2) 각 항목에서 1, 2위의 빈도를 보이는 유형의 역량강화 활동에 음영처리 함.
- 3) 일반농산어촌개발 담당자 및 마을리더 30명 설문조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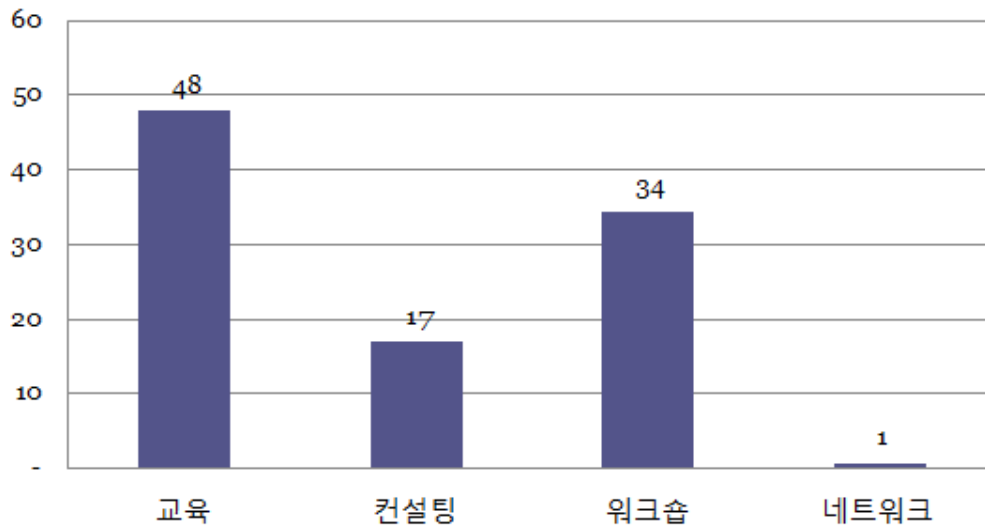
- 컨설팅은 11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가장 효과적인 역량강화 활동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이해에 도움', '지역상황과 여건에 대한 진단에 도움', '세부사업 아이템 개발에 도움', '비전과 발전 방향 설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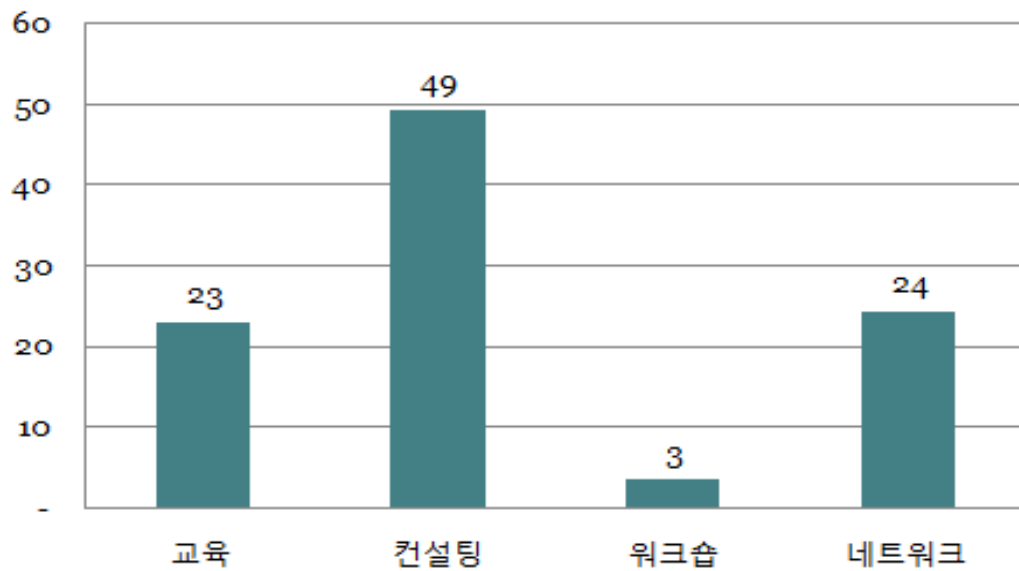
도움'과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수행하여야 하는 핵심적인 활동에서 컨설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참여주체 결속에 도움', '자금이나 자산의 효율적 관리에 도움', '상품이나 서비스 홍보 마케팅에 도움', '추진조직 관리 운영에 도움'은 교육 훈련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사업 준비 단계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토론의 경우 '세부사업 아이템 개발에 도움', '비전과 발전 방향 설정에 도움', '지역상황과 여건에 대한 진단에 도움'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토론이나 워크숍 등의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반영되어 다른 역량 강화 활동 보다는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최근 농촌현장포럼을 통하여 이러한 인식은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음.
- 유형별 효과 및 인지도 측면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준비단계에서는 수행하여야 하는 핵심적인 활동에서 컨설팅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완료단계에서는 참여주체의 결속이나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등 실질적인 사업분야에 대한 교육부문이 실제로는 교육이 가장 효과성이 높은 수준으로 인지되고 있음.
- 사업준비지구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이해의 도움이외에는 컨설팅이 효과적인 역량강화 활동이라고 인지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그림 9).
 - 네 가지 유형의 역량강화 활동 중 교육부분이 48%, 워크숍 34%인 반면 컨설팅은 17%로 주로 교육과 워크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역량강화사업이 2013년부터 현장포럼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 대다수의 농촌에서는 기존의 역량강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추정할 수 있음.



<그림 9> 2016년도 사업준비지구 역량강화활동 유형별 추진 빈도



<그림 10> 2016년도 사업완료지구 역량강화활동 유형별 추진 빈도

- 사업완료지구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에 도움이외에는 교육이 효과적인 역량강화 활동이라고 인지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그림 10).
 - 네 가지 유형의 역량강화 활동 중 교육부분이 23%인 반면 컨설팅은 49%로 주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기술적인 면이나. 홍보 마케팅 등 실질적인 현장적용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원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주민들의 요구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추정할 수 있음.
- 주민 참여는 사업준비 및 계획 수립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마을공동의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들이 각기 합의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집단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주민들 사이의 토론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현장포럼이 워크숍으로 주민들 사이에 많은 호응도를 얻고 있기 때문에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워크숍의 비중을 높이고,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컨설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사업 실행 단계에서 주민들이 부딪히게 되는 기술적인 문제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력활동은 부족한 편임. 그리고 마을 상화마다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들이 특수하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르고 있어 표준적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화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조직을 결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2.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요구 분석

- 시군 역량강화사업의 문제점 및 역량강화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역량강화사업 담당자 및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몇 가지 특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촌개발사업의 근본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음.
 - 지역농업개발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지식 기술 관련 역량보다는 농촌개발의 원론 관점에 대한 지식 요구가 많이 표출됨, 아울러 다수의 지역 농업인 참여와 이들 간 협력 및 이해관계 조정과 관련된 역량요구가 표출되었음.
 - 지역농업분야의 정책사업이 대체로 지역사회 내 농업인들의 조직화 초기 단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및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네트워크) 형성, 지도자의 갈등 조정 역량 신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일반주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농촌개발을 추진하는 체계가 필요
 - 역량강화 활동의 대상자로는 농촌 지도자 뿐 아니라 일반 주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일반 주민의 참여동기를 유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역량강화 대상으로 지역의 리더 뿐 아니라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농촌개발 주체가 농촌개발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음.
-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리더의 갈등조정 능력이 필요함.
 - 다수의 응답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주민 등 관련 주체들의 파트너십 또는 네트워크 형성이 역량강화사업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따라서 다양하고 많은 전문가 및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마을의 비전 공유를 통한 주민들의 참여도 제고가 필요
 - 사업 초기단계에서 주민들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이 중요함.
 -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러나 많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농번기에 실시되는 원인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전문가들에 의한 현장에서의 지역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맞춤형 역량강화가 필요함
 - 지역 리더나 주민들을 모아놓고 수행하는 집합식 교육보다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진행하는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서 농촌개발사업 주체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지원조직의 역할확대가 필요하며,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리더 뿐 아니라 모든 지역 주민들의 열량이 고르게 향상되어야 농촌개발을 추진하는데 효율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
 - 이에 따라 역량강화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농촌현장포럼을 적합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시기를 농한기로 조정함으로써 더욱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IV. 타 부처 역량강화 사업

1. 특수상황지역 역량강화 사업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지역 특화개발을 통한 소득창출,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 등을 통해 활력 있고 살맛나는 도서·접경지역을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추진 시 공무원, 전문가,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마을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컨설팅,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사업 완료 후 관리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마을 공동체를 통해 도서·접경지역의 특산물, 부존자원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의 경관, 문화, 역사 등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
 - 사업 추진 시 주민협의체, 마을공동체 등에 귀농귀촌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추진 시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 고려함
- 주요 사업 내용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보조율은 국고 80%로 지원되며, 전체예산의 5%을 계속사업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
 - 2014년 12월 기준 15개 접경지역(시군) 및 372개 도서지역이 있으며, 도서 이외의 육지지역은 특수상황지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표 10> 안전행정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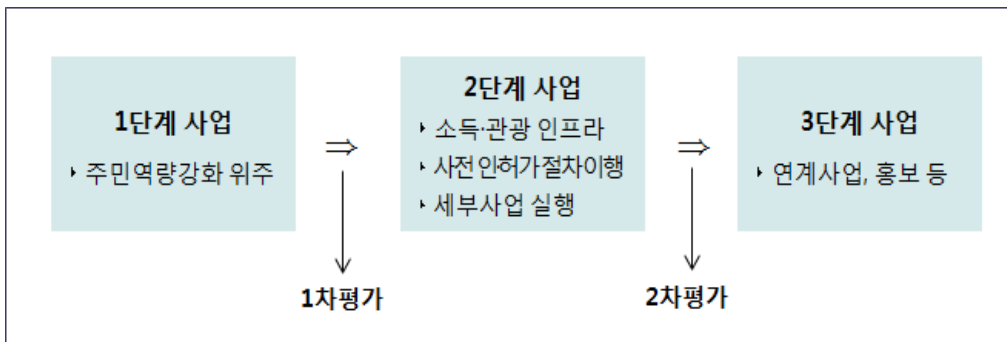
사업명	내역사업	사업내용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1)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 도로/교량/광장 등 확충사업(도로, 교량, 배수로, 건강 생태도로, 다목적관광, 주차장 등), 주민생활서비스 지 원(상하수도, 정보화시설, 전기통신시설, 건강진료센터, 환경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복합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회관, 소규모공원, 공동체 활용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지원(연륜/연도교, 선착장, 방파제, 물량장, 해안너울방지, 방풍조림, 환경 정화시설 등)
	2) 지역소득증대	·부존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기반 시설 - 주민소득기반지원(판매장, 공동창고, 저온저장고, 유통 센터, 집하장 등), 수산업 생산기반 시설 지원(소규모 용수개발, 경작로 포장, 지표수 보강시설, 농로 및 배 수로 등), 체험/휴양기반 수축 지원(전통테마마을, 체 험시설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체험관광시설, 생태학습 장 등)
	3) 지역경관개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농어촌 경관정비시설 - 고유경관 및 생태 숲 조성사업(마을 숲 조성, 보호수 정비, 경관주택 정비, 생태공원, 실개천 복원, 당산나무 주변 정비, 전통수 보호 등), 담장정비 및 향토수목 식 재(담장정비, 향토가로수 정비, 경관수목식재, 마을 숲 조성 등), 도시가로망 정비(가로등, 간판정비, 가로경관 조성 등)
	4) 지역역량강화	·지역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양성 및 특산품 브랜드 화 - 인력양성 및 특산품 브랜드화(리더교육, 관광해설사교 육, 커뮤니티사업 등 지원), 지역브랜드 및 홍보마케팅 지원(지역상품 마케팅, 관광프로그램 개발, 캐릭터 브 랜드 개발 등)

○ 마을이나 섬 자원을 고려하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발전계
획을 수립하고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사업

- 접경지역(평화생태마을), 도서지역(찾아가고 싶은 섬)

○ 가점부여

- 사업추진 주체가 법인을 구성하고 수익배분 방식 등이 표기된 정관을 제시할 경우
- 관련 부처, 지자체, 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마을관련 사업을 지정이나 인증 받은 경우((예) 행자부 마을기업 농협 팜스테이)
- 사업추진 주체가 계획에 반영되어 생산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 접경지역의 경우 주민+군인+군인가족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는 경우



<그림 11>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체계

2. 국토교통부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 성장촉진지역사업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히 저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성장촉진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을 위해 낙후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운송·교통수단을 지원하고 민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
 - 도서 등 낙후된 지역의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제고 등 지역성장기반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 주요 사업 내용

-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은 지역접근성 시설 및 성장기반시설 등을 지원
- 보조율은 국고 100%로 지원되나, 도서개발종합계획에 따라 2010년 이전 시행되어 계속 중인 사업은 기존 보조율(70%)유지함.
- 2014년 12월 기준 70개 성장촉진지역 및 186개 성장촉진 도서지역 등 지정하였음.

<표 11> 성장촉진지역 역량강화사업 내용

사업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1)지역접근성시설지원	·도서 등 낙후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및 운송·교통수단 - 진입도로, 연결도로, 연도교, 연육교, 도서내 도로망 개선, 주차장, 소규모, 여항 등 ·민자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 진입도로, 연결도로, 주차장
	2)성장기반시설지원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 트레킹 코스, 테마도로, 공원시설, 관광거점시설 ·지역특화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 가공특화단지,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기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특화시설을 위한 상하수도, 우수처리시설 등

○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

- 지자체의 사업 발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원 제외사업 외에는 사업 공모가 가능한 'negative' 방식도입

○ 지원대상

- 기반시설(H/W)과 문화 콘텐츠 등/W(타부처 사업 연계가능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 지역경제활성화·지역역량 제고 등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하는 사업 위주로 선정

○ 맞춤형 지원 사업 예시

- 사업발굴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5가지 소규모 사업유형 예시
- 5가지 유형은 예시일 뿐, 사업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 추진 가능
- 지역산업부문, 지역경관부문, 생활복지 기반조성 부문, 체험 관광 부문, 지역역량증진 부문

○ 지역역량증진 부문

- 지역역량 제고를 통한 개발사업 발굴 및 활용성 극대화를위해지역역량증진대학"을 운영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실행비용 지원을 통해 교육성과가 실현될 수 있는 기초기반 조성
- 또한, 지역사업 관리프로그램, 지역개발사업 홍보프로그램 등 기존 지역개발사업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을 하고 있음.

<표 12> 지역역량강화사업과의 비교분석

분류	농림축산식품부 역량강화 사업	지역역량증진 대학
사업 대상	리단위 마을 주민	시·군단위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 및 전문가
사업 내용	주민 현장 학습 등 소프트웨어 중심 지원	개발사업 발굴 및 의견 수렴 역량 교육 → 실행비용 지원
지원 금액	3억원+ α	3억원 내외

3. 부처별 지역개발사업의 비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포함한 3개 지역개발사업의 비교를 통해 사업의 지원 성격을 파악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표 13>과 같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가장 유사한 지원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및 도시 활력증진지역사업 등으로 파악됨.

- 대상사업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장촉진지역은 지역접근성시설지원, 성장기반시설지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과거 마을개발사업, 경관개선사업, 농업기간시설 유지보수를 통폐합하여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보조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 특수상화지역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과 유사하게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원시설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장촉진지역은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및 성장기반시설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특수상화지역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시설조성은 유사하나 지역의 특수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 일반농산어촌지역은 일반농산어촌지역의 기초생활시설 및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 집중하고 있음.

<표 13> 부처별 지역개발사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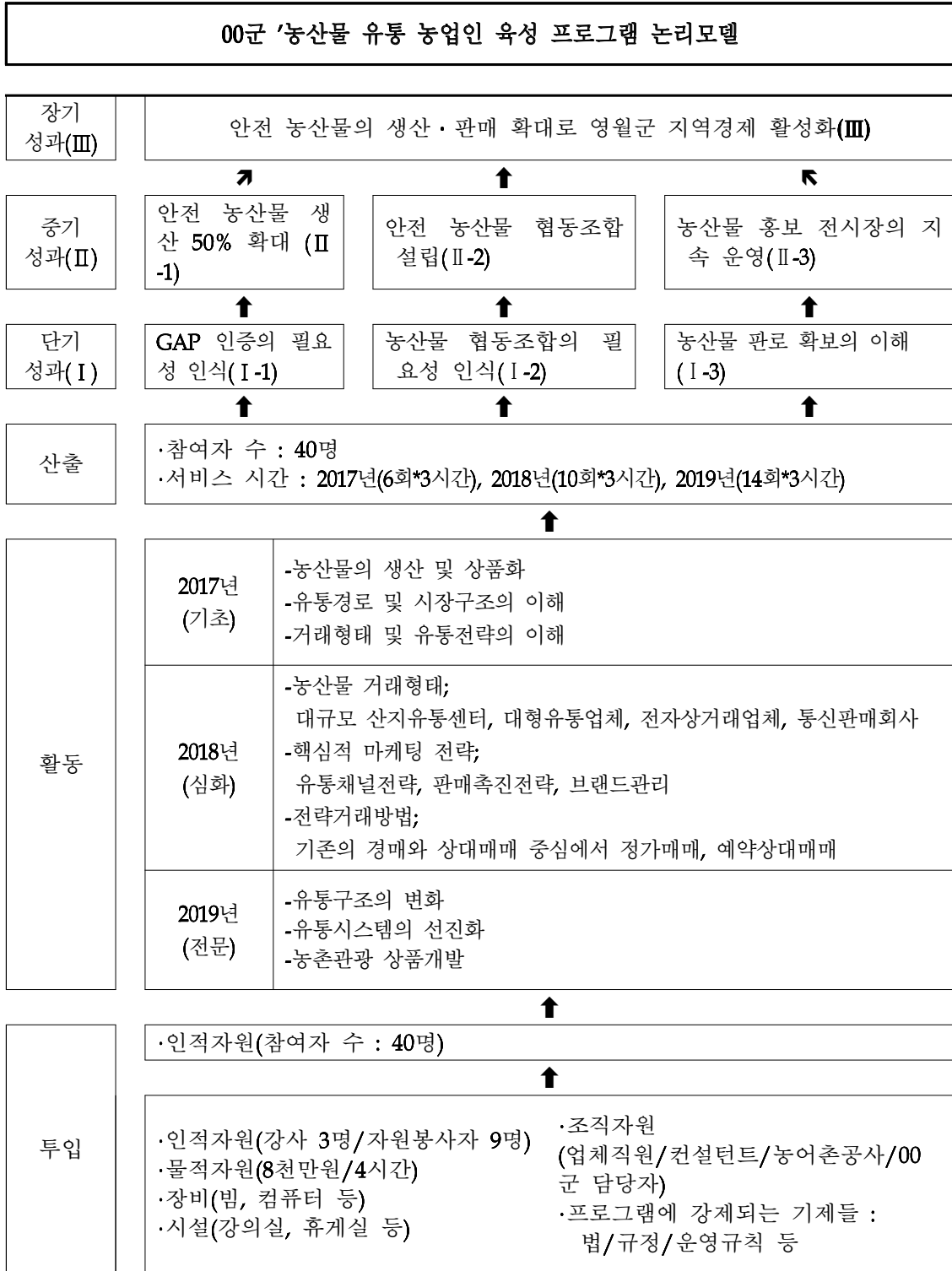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
대상 지자체	일반농산어촌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 및 186개 도서 *지역위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 및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고시(균특법 시행령 제2조의 2)	15개 접경지역 시·군 및 372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지역이 아닌 186개 도서	도농복합형태 시 및 군 지역(117개 시·군) *제주 특별자치도 행정시 포함 *광역시의 군 제외 *특수 상황지역 해당지역 제외
	*전체 232개 시·군·구는 우선 일반농산어촌,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은 추가적으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주관 부처	국토부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고 보조율	100%	80%	70%
대상 사업	-특수상황지역 및 일반농산어촌개발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구성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 기초생활기반확충, 중심시가지재생, 주거지 재생,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구성 -성장 촉진지역 : 지역접근성시설지원, 성장기반시설지원 *과거 마을개발사업, 경관개선사업, 농업기간시설 유지보수사업을 통합하여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보조율 차등 적용		
관련 법령	·지역개발 관련 기본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접경지역지원법,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촌 정비법, 어촌·어항법, 산림 개발법 등
지원 시설 성격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및 성장기반시설 조성에 중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시설조성은 유사하나 지역의 특수성을 더욱 강조	일반농산어촌지역의 기초생활시설 및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 집중

V. 역량강화사업의 효율적 운용방안

1. 시군역량강화사업 평가사업 추진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하드웨어(H/W)시설중심의 투자에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시설의 운영관리 등 사업성과가 미진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임.
-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성과창출은 결국 사업마을(권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역의 리더 양성에서부터 주민의 참여 의식 제고와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 및 소득 증대를 위한 권역의 역량 증대를 통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지역역량강화 분야 시행계획 및 집행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업추진 주체들의 이해 부족과 주민들의 참여부족에 대한 어려움은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 현 역량평가에 대한 평가는 역량강화 사업의 시행 주체가 실시하는 교육평가 설문지가 대표적인 방법으로 지역역량강화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효율성 있는 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임.
- 지역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자선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함. 이는 지역역량강화 사업의 책무성을 반드시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하지만 지금과 같이 지역역량강화 분야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성과 제시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계속 수행된다면,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주민역량강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프로그램을 왜 개발했는지, 주민의 요구는 무엇이었는지, 진행과정은 체계적이었는지,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 사업정도로만 인식한다면, 더 이상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수준 향상은 한계에 부딪힐 개연성이 높기 때문임.

<표 14> 프로그램 논리모델의 예



- 또한 지역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 시 주요 요소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평가'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자와 학습자 사이의 관점 차이를 비교, 반영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기관은 교육이나 훈련에 사용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었는지, 성과 향상을 위해 설계되고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지,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지역역량강화 사업의 추진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탐색과 논리구조를 개발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논리모델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쉽게 보여주는 모델'을 말함. 논리모델은 프로그램이 특정한 환경과 상황에서 확인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밝히기 위한 적절한 모델로 프로그램의 성과목표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구조와 문제해결의 적합한 방법들을 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함.
- 논리모델에 의한 평가체계 구축은 프로그램의 주요요소와 성과측정을 위한 평가 항목의 구체화 등 평가와 성과측정의 틀을 마련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평가보고서의 틀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어 평가와 측정으로부터 확인된 결과물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그 결과 프로그램의 발전에 기여하며,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담당자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이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즉 역량강화사업 시행기관이 실행한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프로그램 논리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용역업체로서의 책임성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즉, 제한된 자원의 할당이라는 측면에서 제공된 자원의 할당이 올바른 결정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음.

2. 관련주체별 역할 활성화

가. 지자체

- 지역농업개발분야의 사업추진 단계별 참여주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태도에 따라 주민들의 사업추진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음. 공모제로 진행되는 정책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은 단순한 정책사업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후보 마을의 주민들이 농촌개발사업에 진입할 준비를 하도록 돕는 변화 촉진자로서 참여분위기 조성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농촌개발사업은 사업계획을 자기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이 주민들에게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급이 시작되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였었음, 따라서 충분한 학습을 동반하는 자기 주도적 계획수립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준비기간이 주민들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학습 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정책사업 추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거나 또는 준비중인 마을의 대표자나 주민들은 사업추진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자체의 역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
 -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한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역량강화사업 활동지원 및 조성기능 강화
 - 농어촌 퍼실리테이터, 농어촌개발건설턴트의 활용
 - 현장활동가의 참여활동 확대

나. 중간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은 일반적으로 비영리적 목적을 띤 조직들을 위해 지원서비스 조직을 의미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음.
- 즉 중간지원조직의 목적은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중간지원조직은 마을 관련 사업들을 관리 및 지원함으로써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 관련 중간지원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역량 강화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함.

가)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 각 광역지자체의 정책기획력을 가질 수 있는 교육 및 역량 제고
 - 현장에 대한 이해(법, 예산 등), 마을기업 경영 전문화 교육 등
 - 농촌개발관련 인재 육성(리더육성)
 - 현장활동가의 양성
 -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
- 타 도와의 정기적인 역량강화사업 교류프로그램을 통한 정보교환
- 농촌현장포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방안 찾고 대안을 제시

나)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

- 시군단위 역량강화사업 지원활동
- 시군단위 소모임활동 지원
- 마을별 공모사업 진행 활동 지원

3.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개선

- 농어촌지역개발 과정은 매우 이론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교육 내용을 담고 있어 농어촌지역에서 특정한 분야의 개발활동을 주도할 리더십을 육성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짐
- 농촌지역 개발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및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농촌지역 개발에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농촌개발에 있어서 사업추진을 통한 경제적 수익 등 경제적 영향, 기반 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농촌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통한 사회문화적인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적 인프라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증진을 위한 문화활동 등 공동체 의식의 제고 노력과, 커뮤니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발전의 비전 및 가치의 공유, 신뢰와 협력에 기반을 둔 집단적 문제해결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앞으로의 농촌지역 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상향식 사업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과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의 원칙으로서 지역사회 애착증진, 자발적 문제의식의 성장, 요구수립 및 문제해결 과정인식, 자발적 조직화가 필요하다.
- 둘째, 지역의 커뮤니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의 비전 및 가치의 공유, 자율적 행동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신뢰와 협력에 기반을 둔 집합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셋째, 지역 개발을 위한 공공의 행·재정적 지원 시 지역공동체 형성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문화 형성을 통한 개인적 역량의

강화와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 넷째, 지역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서 공간적 인프라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 다섯째, 지역 만들기에 있어 자발적, 자율적 참여, 나아가 지속적 참여, 참여확대로의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비참여~참여(주민참가단계), 지속적 참여(주민기획 및 주도단계), 참여확대(지역네트워크단계)의 단계별 역량강화 계획 및 모델구축이 필요하다.
- 이와 함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역량강화사업의 운영개선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리더프로그램과 주민프로그램의 차별화된 개발이 필요함.
 - 리더교육은 리더십, 농림식품 정책의 전반적인 이해, 창의성,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능력, 기획력
 - 주민교육은 책임감, 주도성, 협력 등, 농식품산업에 대한전반적인이해 마을개발의 필요성 등
 - 농촌현장포럼 등 주민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교육 활성화가 요구됨
 -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일반 컨설팅 업체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강화
 - 교육 프로그램 시기의 조정
 - 농한기에 역량강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각 도 활성화센터의 역량강화역할증대
 - 농어촌퍼실리테이터, 농어촌개발컨설턴트 교류확대 및 역량강화활동 참여 확대

참고문헌

- 김정섭, 권인혜, (2010). 농촌개발사업 참여주체의 역량강화 방안, 농촌지도와 개발 제 17권 3호.
- 박수진·나주몽(2014),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역량강화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 46(2)
- 박한식·김남조(2008), “농촌관광마을 리더의 역량분석과 역량모델 개발”, 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23(3),
- 박경(2007), “농촌발전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 방안”, 충남연구원, 열린충남 39,
- 최영환, (2014) 지역역량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표준업무 설계 및 적정 효율 산정.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섭, 마상진, 권인혜, (2009). 농촌개발사업 참여주체의 역량강화방안 KREI.
-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방안 연구
- UNCED(1992). Capacity Building. UNDP Briefing Paper No.37.



충북 농촌활성화지원센터

2017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2017 충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과제

-권역단위 농촌개발사업 완료지역의 운영특성과 활성화 방안-

2017. 12

충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진

■충북대학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충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센터장 / 윤 성 수

상임연구원 / 장 우 석

연구원 / 홍 윤 실

연구원 / 정 상 숙

연구원 / 황 성 기

연구원 / 김 현 준

목차

I. 서론	123
1. 연구배경	123
가. 연구의 배경	123
나. 연구의 목적	125
II. 이론적 배경	127
1. 지역개발사업 관련연구	127
가. 하드웨어(H/W) 사업과 관련된 연구	127
나. 소프트웨어(S/W) 사업과 관련된 연구	130
다. 휴먼웨어(HM/W)와 관련된 연구	132
2. 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	136
III. 현장조사 및 분석	139
1. 조사개요 및 조사표 설계	139
가. 선행연구의 조사표 고찰	139
나. 설문조사표 도출	142
2. 연구대상지 선정	147
가. 연구대상지 선정결과	147
나.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방법	148
다. 자료 분석 방법	149
라.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	149
3. 시설 운영특성 분석결과	150
가. 조사대상지별 사업 개수 현황	150

나.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사업추진 및 운영현황 ····	152
다. 소득증대시설의 사업추진 및 운영현황 ·····	158
라. 경관개선사업의 추진 및 운영현황 ·····	164
4. 공동체 운영특성 분석결과 ·····	170
가. 조사대상지별 공동체 현황 ·····	170
나. 공동체 조성 목적별 분석현황 ·····	171
다. 공동체 조성 목적별 분석현황 ·····	172
라. 대상지별 공동체 운영특징 ·····	173
마.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특성 ·····	175
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인식 특성 ·····	176
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	177
5. 운영자 면담 분석결과 ·····	179
6. 시설물 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IPA 분석 ·····	181
가. 중요도-성취도 분석 ·····	181
나. 기초생활기반시설의 IPA 분석 결과 ·····	182
다. 소득증대사업의 IPA 분석 결과 ·····	183
라. 경관개선사업의 IPA 분석 결과 ·····	184
마. 대상지별 IPA 분석 결과 ·····	185
7.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186
가. 시설물 소유권 관련 명문화 ·····	186
나. 시·군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활성화 ·····	187
다. 지역개발사업 완료지역 활성화 방안 ·····	189
IV. 결론 ·····	196
V. 참고문헌 ·····	199

표 목차

표 1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139
표 2	주요 선행연구자별 조사내용 분석결과	140
표 3	선행연구의 주요 조사항목	141
표 4	대상지 현황 조사표 및 척도	143
표 5	시설조사표 내용 및 척도	144
표 6	마을행사 조사표 내용 및 척도	145
표 7	응답자 면담분석을 위한 인터뷰 내용	146
표 8	연구대상지 선정결과 및 특성	147
표 9	연구대상지 선정 및 조사방법	148
표 10	사업 유형별 주요 특성 분석결과	151
표 11	기초생활기반시설의 목적별 분류결과	152
표 12	기초생활기반사업의 시설인식정도 분석결과	157
표 13	소득증대시설의 목적별 분류결과	158
표 14	소득증대사업의 시설인식정도 분석결과	163
표 15	경관개선사업 목적별 분류결과	164
표 16	경관개선사업의 시설인식정도 분석결과	169
표 17	연구대상지의 공동체 조성 목적별 특성	172
표 18	연구대상지의 공동체운영 특징	174
표 19	연구대상지의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	178

표 20 연구 대상지별 IPA분석 분류결과	185
표 21 중요재산관리 사후관리 기간 규정	187
표 22 2017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내용	188
표 23 지역개발완료지구의 사업지속가능성 역량진단 절차(예)	190
표 2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192
표 25 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평가 및 정상화절차(예)	195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149
그림 2. 조사 대상지별 사업추진 개수 분석결과	150
그림 3.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사업유형 분석결과	153
그림 4.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운영특성 분석결과	154
그림 5.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결과	155
그림 6. 소득증대사업의 유형 분석결과	159
그림 7. 소득증대시설의 운영특성 분석결과	160
그림 8. 소득증대시설의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결과	161
그림 9. 경관개선사업 유형 분석결과	165
그림 10. 경관시설의 운영특성 분석결과	166
그림 11. 경관개선사업의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결과	167
그림 12. 연구대상지의 공동체 현황	170
그림 13. 연구대상지의 공동체 조성 목적별 분석결과	171
그림 14. 공동체활동 프로그램 운영특성 분석결과	175
그림 15. 연구대상지의 주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인식정도	176
그림 16. 운영자 면담 주요 응답결과 분석결과	180
그림 17. IPA분석과 각 사분면의 의미	181
그림 18. 기초생활기반시설의 IPA분석결과	182
그림 19. 소득증대사업시설의 IPA분석결과	183
그림 20. 경관개선사업의 IPA 분석 결과	184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농촌지역개발사업은 1960년대에 낙후된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되어, 1970년대 새마을 운동, 1980년대 종합적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발달되었음.
- 1990년대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면 단위 정주권 개발사업 및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2000년대 복합생활공간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0년부터는 통합적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음(Ibranim·Dorina·Abdelrazek 2013).
- 특히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에서 2000년대부터는 주민주도의 상향식 개발 형태로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이영걸 2016).
- 2011년부터는 읍·면정비 사업과 권역단위 사업이 2014년까지 실시되었고, 2015년은 농촌중심지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및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Lopez·Pastor 2015).
- 이 사업들은 주로 농촌 정주권 향상을 목적으로 주민 편의 시설인 다목적회관, 복지회관, 마을진입로, 상하수도 등 경관사업으로는 테마공원, 담장정비 등, 소득기반시설로는 농산물 판매장, 방문객 체험관, 캠핑장, 복지관내 숙박시설 등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음(농림축산식품부 2017).
-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역들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시설을 건축하였지만, 사업 완료 후 주민들이 경영 경험 부족 등으로 소득이 향상되지 않아 시설 유지비와 관리비,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가 어려워하고 있는 현실임(배승중 2010)
- 농촌지역개발사업 운영이 저조한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사업추진

과정 조직의 운영관리, 리더와 주민의 열정 부족, 인력 부족, 불투명한 회계 관리, 주민과의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가 부진하고, 화합 단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이병준 2015; Landini·Vargas·Bianqui·Rebol e·Martinez 2017).

- 정부에서는 농촌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농촌문제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으나(박창규 등 2011)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수십 억 원을 투자한 권역의 지역주민들은 삶의 질이 향상되었거나 농촌주민들의 불만족스런 문제들이 해결된 지역은 드문 현실임(김재원 2017)
-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지역개발사업은 그 지역의 다원적 기능을 권역별로 특성화하고, 잠재자원을 권역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함(Koopmans· Rogge·Mettepenninge n·Knickel·Sumane 2017; Toader·Roman 2015).
- 농촌지역에서 소득이 증대 되도록 도농 교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 공간 정비사업과 소득시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촌지역 개발사업 완료지역의 현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김승근 2005).
- 정부에서는 농촌문제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으나(박창규 등 2011; Koopmans·Rogge· Mettepen- ningen·Knickel·Sumane 2017),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주민들은 오히려 사업과 연관된 지역역량강화교육 참석 및 사업추진협의회 등으로 더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되었으며, 주민들이 희망하는 농특산물 판매로 인한 소득증대와 마을 운영의 성과 부족으로 하드웨어 시설 유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음(양원식 2012).

나. 연구의 목적

- 과거와 달리 사업추진 시에 참여하는 주체간의 권리와 주장이 강해짐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 조율과 합의 형성이 선행되지 않고는 성공적인 농촌 지역개발사업이 불가능함(김태구 2011).
- 향후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서로 협력하는 마을공동체 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바람직한 리더육성, 실효성 있는 마을 규약 마련, 개방적, 포용적 의식 전환과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방법의 기본적 역량강화가 필요함(최영완 등 2012; Andersson·Hojgard·Rabinowicz 2017).
-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직접 수혜자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유지를 담당할 주민과 지자체의 체계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음(이봉훈 2005; Bjarstig·Sandstrom 2017).
- 농촌의 지역개발사업은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그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주민의 자발적, 주체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되어야 하며(안중호 2013), 주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주민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상향적인 체계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이정원 2013).
-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권역사업 완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중 하드웨어 시설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의 사업들이 지금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최영완 등 2011).
-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세가지로 통합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관련한 연구는 부족함.
- 당초 시설물로 대표되는 하드웨어, 그 외 주민역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구분되어 사업을 계획 추진하였으나 소프트 시설물의 목적대로 제작되고, 역량사업은 추진하였음에도 지역시설을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 완료지구의 활성화 문제가 제기되었음.

-
- 여기서 소프트웨어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주민의 교육 운영 및 관리 역량 등 휴먼웨어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사업이 종료 되었을때에도 활성화 되지 못한 지구의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를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15개 권역의 농촌지역개발 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하드웨어(시설), 소프트웨어(프로그램), 휴먼웨어(공동체)의 운영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휴먼웨어인 공동체와 지역주민들의 역할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임.

II 이론적 배경

1. 지역개발사업 관련 연구

가. 하드웨어(H/W) 사업과 관련된 연구

-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1960년대에는 농촌마을 조직과 한국사회 도시와 농촌의 빈민 등,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계획, 농업구조 개선과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었음(주석균 1964 ; 박동호1960).
- 1970년대에 이루어진 연구는 일상생활 속의 문화와 농촌사회의 변화 등을 연구하였으며(강계원 1970), 1980년대에(김성수 1987)는 농촌교육과 기관간 협동의 발전 방향 연구와 복합영농의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를 하였음(고미숙 등 1987).
- 1990년대는 농촌 공업화 단지 조성사업이 농촌지역개발사업에 기여하는 영향평가 이주용(2011)를 연구하였고, 류선무(1998)는 농촌관광마을 조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음.
- 2000년대에 이희승(2004)은 농촌지역 노인주거 모델이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적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인 노인 주거환경이 향상된 모델을 기대하는 농업생산양식과 농촌사회구성의 재편 등을 분석하였고, 2010년 이후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됨
- 고영구(2010)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촌지역개발사업이 농촌마을의 기초기반시설 및 경관개선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고, 송희중(2013) 은 농촌마을 각각의 특성으로 차별화하고 전통적인 농촌다움을 회복하면서 살기 좋은 마을을 건설하는데 정책목표로 연구 분석하였음.
- 김환용(2010)은 농촌지역개발사업 일환으로 시행되는 상수도 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계획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기초생활 환경정비에 기여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김동기(2011)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공 요인은 중간평가와 준공평가를 통해 나타난 우수권역들과 부진한 권역들에 대한 사례분석으로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다양한 비도시지역 재생 사업에 대한 성공 요인을 제시한 바 있음.

- 박창규 등(2011)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의 변화가 지역주민의 개발 태도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중요한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영향 지각이 지역주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음.
- 도종원(2013)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투자 지원이 최종 완료된 권역의 지역주민들이 본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과 사업 추진을 통하여 권역 내 시설이 투자된 만큼 지역주민들도 해당 시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분석하였음.
- 안종헌(2012)은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광시설은 도시와 농촌 상관없이 지속적인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밝혔고, 채종훈(2010)은 수려한 자연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곡성군은 섬진강이 흐르고 지리산이 가까이에 있으나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타 시·군에 비해 저조하여 곡성군 관광시설 실태조사 및 개발계획 현황파악과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고 향후 곡성군에 합리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정기석(2015)은 기존의 각종 농촌유희시설 자산은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임대, 저가 할인 매각 조건의 공동사업 협동 경영체 사업주체와, 기존의 유희농지를 농지은행의 관리 및 운영 방식을 참고하여 사회적 자산은행에서 맡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함.
- 한석종(2012)은 농촌 마을 공공시설 및 공간계획 시 고려되어야 하는 자연 환경과 인문·사회 환경 등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분류하고 이를 객관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체계개발을 목적으로, 이를 위해 문헌 조사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분석지표를 조사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지표추출 및 적합성을 확보하여 평가지표를 선정하여(한석중2012), 선정된 평가지표는 의사 결정기법을 통해 상대적인 중요도가 반영된 가중치를 도출하여 최종 평가지표를 구축함.

- 권태영(2006)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탈피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이며,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법 개발을 통하여, 설치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법을 제시함.
- 강영은(2012)은 농촌경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는 농촌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대응하여 바람직한 농촌경관계획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1950년대 이후 농촌개발사업에 의한 농촌경관 변천을 고찰하고, 특히 농촌경관변화를 분석하는 이유는 시기별로 달리 적용된 농촌개발사업들과 농촌경관변화의 관련성을 비교함으로써 농촌개발사업의 성격 및 내용에 따른 경관 변화 내용을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연구함.
- 서정호(2013)는 구례군의 4개의 사례마을과 인근마을 주민 75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방향을 제시함.
- 이기용(2015)은 고령화 시대의 농어촌 공동생활 주거 시설은 농어촌 고령자 공동생활 주거 시설에 대한 개념 정립과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을 고찰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시행 또는 건축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 및 사례 조사를 통하여 유형별로 분석 검토함. 최종적으로 운영 실태 및 사례 조사결과는 농어촌 지역 노인들의 거주특성 및 정주여건을 반영한 차별화 된 공동생활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농어촌이 급격하게 여성화 독거화·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주민들의 거주 안정성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농어촌 고령자들의 공동체 시설 지원 추진 체계 및 모델을 제안한 바 있음.
- 조은정(2014)은 우리나라에서 농촌 지역 내부도로의 기본적 현황마저도 제

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인지하고, 이에 따라 농촌 마을 내부도로의 여건 및 현황을 다양한 기준에 의해, 좀 더 상세히 조사·분석하고 내부도로의 수행기능과 마을주민들의 도로이용 실태 및 만족도, 도로개량의 의향 등을 파악하였음.

- 이상영 등(2014)은 우리나라 농촌 마을 내부도로의 정비 현황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정의·개발하고 개발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마을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정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송희중 (2013)은 농촌마을단위 경관진단지표를 개발하여 제안하였음
- 김영택(2014)은 농촌 마을 단위에서 다원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마을 유형별로 평가지표체계를 구축하여 마을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마을특성에 따른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속적 발전체계를 단계화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함.

나. 소프트웨어(S/W) 사업과 관련된 연구

- 김형준(2009)은 실제 국립민속박물관의 박물관과 함께 하는 민속마을 여행이라는 체험마을 교육프로그램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모형을 제시하였고,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된 강원도 인제 군의 냇강마을을 사례를 들어 박물관의 전문성을 통해 체험마을을 운영할 수 있음을 규명함.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 등 정부의 정책 변화는 창의적 체험교육 사업을 통하여 박물관과 지역 교육기관 간의 발전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선한 바 있음 (장인경 2012).
- 양원식(2012)은 지역의 소득증대라는 정량적 효과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커뮤니티 활성화에 바탕이 되는 정성적 측면 등의 초점을 맞추어 성과를 검토하고자 하였고, 또한 소득사업의 단계별 절차 이행과정을 점검하여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마을사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모델을 제시하였음.

- 방배명 (2012)는 환경 친화적 팜스테이와 친환경 농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환경친화적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국내·외 추진사례와 실증분석을 통해 세계화와 개방화 시대에 World Trade Organization(WTO), Doha Development Agenda(DDA) 농업협상 및 Free Trade Agreement(FTA) 협상체결 등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적 개선 사항을 제안함.
- 배태안(2014)는 2000년도에 시작된 농촌관광은 규모나 내용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했으며 국내 관광시장에서도 농촌관광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농업 이외의 소득창출과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정주공간으로서 만족도를 높여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관광의 목적 달성한 연구를 함.
- 채종훈(2010)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 실시 후 정량적 및 정성적인 경제적 성과가 발생하였는가를 밝히고,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는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효과적인 사업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투자사업인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적 성과인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음.
- 이수(2016)는 사회적 자본이 관광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지역사회 문화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고, 민흥기(2014)는 농촌개발사업 추진과정에 관련되는 지역사회 역량 구성요인을 규명하,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역량과 갈등수준을 측정하고, 상호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역사회역량 규명과 측정도구개발, 지역·사회간 상호역량관계분석, 지역사회 역량과 갈등과의 관계해석, 농어촌 마을의 사회적 관계망 해석과 취약성을 평가함.
- 이원재(2017)는 메타평가를 통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평가시스템에서 도출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집단 간의 차이점을 규명함

으로써 평가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농촌개발사업 평가시스템의 평가체계,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 기준 및 항목 등에 대한 상세하고도 체계적인 개선을 도모함.

- 김도덕(2016)은 여러 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추진되는 권역사업의 목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기반시설, 경관시설 등 정량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의 효과가 아닌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측면에서 정성적으로 느끼는 효과를 분석하여 지역역량강화(S/W)사업의 정책적 시사점 제시한 바 있음.
- 양용석(2007)은 농촌체험관광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 지역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역과 비활성화 지역을 평가하고 각 지역의 활성화, 비활성화 요인을 사업의 운영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상 지역이 지니고 있는 지리적 측면을 분석한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향후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중장기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평가모형을 개발함.

다. 휴먼웨어(HM/W)와 관련된 연구

- 황영섭(2014)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사무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사무장의 업무 현황분석과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의 활동특성을 규명하고, 사무장의 역할에 대한 주민의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 사무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생기는 원인 규명을 통해 제도적 대안을 제시함.
- 채종훈(2010)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후 정량적 및 정성적인 경제적 성과가 발생하였는가를 밝히고,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는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였음. 이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투자사업인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적 성과인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함.
- 한석종(2012)은 농촌 전원생활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도시민의 거주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시 청년층이 농촌으로 이주 정착이 가능한

새로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대안으로써 도·농 복합형 마을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였음. 이주민과 기존주민, 도시 출·퇴근자, 농민, 은퇴자 등 다양한 계층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형 마을로서 이 연구를 통하여 마을의 합리적인 개발방안과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이희승(2004)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농촌 노인들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를 복지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임윤건(2010)은 향후 "농촌 노인의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전제하에 바람직한 전망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 복지적 접근을 통한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의 방안을 제시함.
- 안상유(2014)는 중앙정부가 농촌지역사회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제시하였음.
- 유선경(2012)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완료한 권역 중 운영에 모범이 되고 있는 권역과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권역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의 행태를 비교해 주민참여가 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민참여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 무엇이 중요한 요소이며, 실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주민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신현옥(2000)은 1960, 70년대 국가주도 개발과정에서 여성들이 동원되는 방식, 특히 농촌 여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여성 조직화를 통해서 국가와 여성의 상호작용과 그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는 시도로서 구체적으로 마을의 부녀회 조직의 역할과 그 활동을 분석하였음.
- 오효선(2012)은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아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의 안전지식, 안전문제해결사고, 안전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 안중호(2013)는 지역 간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농촌지역개

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권지운(2015)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개발역량 교육의 만족도를 분석하고, 마을의 유형별 교육 요구도를 분석하여, 마을 유형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역량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마을개발 역량교육의 정도 분석, 교육만족도 분석, 역량분석 요구도 분석, 교육의 필요성 차이 분석, 교육 프로그램발전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김보미(2015)는 ‘농촌체험관광은 마음의 산업이다’ 정의하고, 첫째 농촌체험관광과 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농촌관광 이미지 개념을 정립하고, 감성어휘를 목록화하고, 농촌관광 이미지의 측정을 위한, 감성어휘를 활용한 정제와 평가과정을 거친 농촌관광 이미지 측정척도를 개발함
- 박한식(2008)은 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없이는 농촌지역개발사업 리더에게 요구되는 한 체계적 정책적인 시행착오가 일어날 것이라 주장하였고, 리더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역할 수행자로 그들의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김인환(2009)은 농촌관광 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파트너십의 유용성 및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마을 운영에 현실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실용적 가치를 연구함.
- 조성환(2005)은 경남 의령군의 2004년도 통계청 기준은 노인 인구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나 농촌 지역의 노인들은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 및 여가시설 부족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였음. 이를 위해 초고령 사회가 된 의령군을 사례로 하여 농촌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농촌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성을 모색하였음.
- 김주현 등(2017)의 연구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조성된 경상북도 상주시 녹

동 귀농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귀농 마을에 대한 만족도와, 거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성공적인 귀농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물리적 사업(+), 자연환경(+), 프로그램 사업(+), 요인 순으로 나타난 요인들을 분석하였고, 또한, 귀농마을조성사업에 대한 귀농자들의 평가를 통해 농촌 생활환경 만족도와 농촌 커뮤니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한 바 있음.

- 이현정(2016)은 정보화 마을 사업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가 마을마다 각기 다르게 작용하여 사업의 성패에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규명함.

2. 지역활성화와 관련된 연구

- 이채식 등(2007)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사업인 도로 환경 개선, 공동체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설정한 이 연구에서는 러번지역이라는 발전된 형태의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지역공동체 등의 활동 단체를 사업의 실행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는 주민참여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마상진(2014)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와 관련한 실태를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지방 농정 거버넌스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한 분석 모형도출, 지방 농정 거버넌스 관련 사례지역 조사를 통한 거버넌스의 형성·운영 과정 분석 및 성과와 해결 과제 도출, 지방 농정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관련 주체들의 거버넌스 실태에 대한 인식조사·분석, 지방 농정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유희숙 등(2009)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브랜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생활기반이 붕괴될 수 밖에 없는 난관을 벗어나기 위해 제시하였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요소를 지역브랜드를 제시하였고, 연구수행의 결과 지역브랜드의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임채숙(2016)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이미지로, 그 지역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객에게 지역의 특징을 인식시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징적인 랜드마크 개발이 우선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 개발에 대한 사례를 분석함.
- 원도연(2007)은 그린투어리즘 혁신전략과 지역혁신체계(RIS)에 가장 근사한 형태를 갖고, 그린투어리즘 속성상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음.
- 김주숙 등(2003)은 농촌과 도시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도농 분리형 지역개발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개발과 상호

공생을 추구하였음. 여기서,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농촌마을에 문제점이 생기며, 특히 소외감이 심각한 농촌주민들의 불만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농촌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농촌사회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도·농 복합시에 주거하면서도 도시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다는 소외감이 작용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갈등요인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김재원(2017)의 연구는 주민참여형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과는 주민참여가 높을 경우 그 성과도 높게 나타나고, 주민 참여형 개선방안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제한된 자료 조사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는 그 자체의 과정으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라 규명함.
- 김강섭 등(2004)은 오늘의 농촌이 있기까지 농촌의 현실을 조사하고, 정부의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가를 분석함.
- 김정섭 등(2011)은 농촌지역개발사업 활성화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정책의 외연으로 확대하고, 지방분권화를 지향하며 정책 추진체계가 재편되었고, 상향식 접근방법과 지역 접근방법이 도입되고 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 활성화가 확산된다고 주장하였음. 농촌지역의 경제·인구 사회학적 현실이 빠르게 변하므로, 사실이 다차원적 변화의 고찰이 필요함. 다차원 변화를 성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농촌 지역 활성화 정책의 발전 방향을 도출함
- 유일 등(2013)은 업체들의 사회적기업 환경 가능성 진단과 지역주민의 수요 조사를 통해 보성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농촌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비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인력난과, 사업 운영 경험 부족 등의 원인임을 주장함.
- 오내원 등(2010)은 농촌 경제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발전방향을 농촌지역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의 운영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였고,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

적 경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이상연과 심완섭(2015)는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디자인 개발을 통한 활성화 정책이 면 소재지인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진, 디자인 부분들이 상인들과 이용객들이 선호하는지 더 나아가 디자인 개발을 하면서 지역특성화에 맞는 활성화를 목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지를 분석함. 농촌지역에 소재한 전통시장처럼 디자인 개발 성과의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에 맞는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이론 자료와 디자인 개발 우선순위, 방향성을 제시함.
- 오세익(2010)은 농촌지역개발사업에 기여하는 사회 경제를 구축하려는 농촌지역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고, 농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첫째, 지역주도의 사회 경제 주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육성 둘째, 기존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농촌에 적합한 사회 접목을 추구하는 농촌형 사회적기업을 육성 셋째, 사회적기업의 기존 활동 외에도 로컬푸드, 환경·산림·경관 보존, 도농 교류 등 향후 농촌의 사회적기업의 활동 내역을 확대하고 이들 분야에서 사업모델을 발굴·보호 넷째,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을 중시하는 보호된 시장을 보장 다섯째, 업종에 따른 차별화된 사회적기업 지원임을 주장함.
- 김종선(2014)은 농업·농촌개발 정책에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도입하였고, 농업·농촌정책의 목표는 단순한 ‘식량생산 증대’(농업·농촌 1.0)에서 ‘산업화’(농업·농촌 2.0)로, 다시 ‘지속가능하고 살고 싶은 공간’(농업·농촌 3.0)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개발과 문제해결에 있어 과학기술 또는 농업·농촌 각각의 측면을 아우르는 ‘제3의 길’이 필요함 주장하였음.
- 이렇게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휴먼웨어(HM/W)와 관련된 통합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웨어에 대해 비중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음.

III 현장조사 및 분석

1. 조사개요 및 조사표 설계

가. 선행연구의 조사표 고찰

- 본 연구에서는 지역개발사업 완료지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차별화된 조사표 작성을 시도함.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하드웨어로 분류되는 시설물 조사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 시설물을 제외한 공동체 활동 및 역량강화 노력 등 소프트웨어의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음.
-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시설물 활성화와 공동체 활성화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을 함께 조사할 수 있는 조사표를 설계하였음. 설문조사표는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사례를 조사하여 각 항목을 기본현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1차 분류하였으며, 여기에 공동체 및 마을역량강화 노력 등을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함. 선행연구의 주요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연구자	내용
박경철 (2015)	충청남도의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설문조사 실시
조영재 등(2015)	충청남도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된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운영주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김영주등 (2014)	지역개발사업 완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의 일반현황, 시설물 일반현황 등 설문조사 실시

자료: 박경철,조영재(2015), 김영주(2014) 등 인용, 재정리

- 선행연구의 설문조사 항목을 1차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박경철과 조

영재(2015)가 실시한 연구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의 경향이 강하고 본 연구와 방향이 다른 부분이 많아 김영주(2014)의 연구와 조영재 등(2015)의 연구에서 활용된 조사표를 분류하였음.

표 2 주요 선행연구자별 조사내용 분석결과

구 분	세부 사항	연구자
일반 현황	권역명, 사업기간 사업비, 공사위탁유무 공사위탁유무.	김영주 등(2014)
일반 현황	권역명, 위치, 대상마을인구, 세대수	조영재 등(2015)
시설문 현황	시설 규모, 시설물 형태 내부공간형태 수용인원, 사업비 방문 자수, 고용인원 운영 주체, 현재 운영 여부	김영주 등(2014)
사업추진 현황	사업 기간, 사업비, 시설 연면적 부지 규모, 사업 유형 사업비, 운영 실적 운영 주체, 운영실태 평가	조영재 등(2015)
운영 수입·지출	연간 운영수입, 수입 형태 운영 프로그램, 자매 결연기관 발전 기금 적립 유무 발전 기금 적립 규모 인건비, 공과금, 세금 유지관리비용 자체부담유무	김영주 등(2014)
권역조직운영현황	조직법인구성형태 운영실태 평가 권역조직 운영실태 발전기금 적립	조영재 등(2015)
건의 사항	권역사업정책건의사항, 권역사업 인지도	조영재(2015)

표 3 선행연구의 주요 조사항목

항목	공통항목	개별항목(김영주 등)	개별항목(조영재 등)
일반현황	권역명	공사위탁유무	위치
	사업기간		인구(명)
시설현황	시설규모(m ²)	내부공간형태	
	사업비(천원)	수용인원(명)	
	부지규모(m ²)	방문자수(명)	
	연면적(m ²)	고용인원(명)	
	사업유형		
운영관련	운영실적		조직운영실태
	시설물규모(m ²)	수입형태	운영실태평가
	운영주체	운영프로그램	인지도
	운영실적	자매결연기관	추진방식
	정책건의사항	발전기금 적립 및 규모(m ²)	향후과제
	발전기금적립	인건비(원)	
운영지출		공과금(원)	
		세금(원)	
		비용자체조달유무	
		조직법인가구성형태	

나. 설문조사표 도출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보다 면밀한 실태조사를 위해 일부 항목을 추가하고 보완하여 조사표를 재설계함. 먼저 기본현황 측면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마을 또는 권역의 공동체 활동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항목을 채용함
- 시설물조사 항목은 일반현황인 시설물 규모와 형태, 유형, 사업비 등의 공통항목을 조사표에 설정하였고, 보다 세부적인 시설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숙소, 식당 유무의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최대수용인원, 연간방문자 수, 가동일 수 등을 추가항목으로 삽입하여 운영여건 등의 분석에 활용함.
- 시설물 책임자와 연 매출액, 운영비, 순수익, 운영규정 등의 항목과 시설중요도(5점척도), 운영만족도, 운영문제점, 자구책 등의 항목을 설정하여 운영원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시설계획의 타당성, 시설건설의 원활도, 성과, 마을에 주는 영향,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여부의 항목을 추가로 설정하여 조사표를 설계함.
- 본 연구에서는 마을 전체인구 대비 공동체 활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행사모임을 조사표에 추가함. OECD는 2011년부터 11개 영역(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웰빙 지표를 매년 발표하고 있음. 여기서 공동체지표는 지원관계망의 질(Quality of support network)의 지표이며, 이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마을 전체 인구에서 공동체 활동을 구성하는 인구의 비율로 정의하고 공동체조사표를 설계함.
-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자유로운 응답을 통해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조사대상지의 요구도 및 집중도 등을 파악하여 질적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설문조사표 설계과정을 거쳐 아래 표와 같은 설문조사표를 도출함.

표 4 대상지 현황 조사표 및 척도

구분	조사내용	척도
일반현황	사업지구위치	개방형
	사업년도	개방형
	마을인구	개방형
	호수	개방형
	귀농귀촌호수	개방형
시설조사	단위사업명	개방형
	구분	개방형
	시설명	개방형
	목적	개방형
	규모	개방형
	사업비	개방형
	숙소유무	명목
	식당유무	명목
	최대수용인원	개방형
	연간방문자수	개방형
	현재운영여부	명목
	가동일수	개방형
	시설책임자	개방형

표 5 시설조사표 내용 및 척도

구분	조사내용	척도
시설조사	전담인원	개방형
	연매출액	개방형
	운영관리비	개방형
	순수익	개방형
	운영규정여부	명목
	시설중요도	등간
	운영만족도	등간
	운영문제점	개방형
	자구책	명목
	정부지원요구	개방형
	시설타당성	등간
	시설건설문제성	등간
	시설성과	등간
	마을영향	등간
	유지관리	등간
모임조사표	목적	개방형
	창립년도	개방형
	회원수	개방형
	모임일수	개방형
	참석인원	개방형
	규정유무	명목
	연간 예산	개방형
	기금여부	개방형
	현재운영여부	명목
	모임중요도	등간
	모임만족도	등간

표 6 마을행사 조사표 내용 및 척도

구분	조사내용	척도
마을행사조사서	운영주체	개방형
	목적	개방형
	행사장소	개방형
	행사기간	개방형
	연간횟수	개방형
	참여인원	개방형
	도시민인원	개방형
	현재운영여부	명목
	운영관리비	개방형
	운영규정여부	명목
	행사중요도	등간
	운영만족도	등간
	운영의문제점	개방형
	자구책	명목
	정부지원요구	개방형
	행사계획타당성	등간
	행사계획문제성	등간
	행사성과	등간
	마을영향	등간
	지속가능성	등간
기타의견	기타의견	개방형

- 위원장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설문지는 질적분석을 위해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설계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 7 응답자 면담분석을 위한 인터뷰 내용

문항	Interview 내용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요구사항
2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3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어려움/문제점
4	농촌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 지구의 자구책
5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운영 현황
6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역의 소득에 대한 만족도
7	마을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
8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9	마을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2. 연구대상지 선정

가. 연구 대상지 선정결과

- 연구대상지 선정은 지역개발사업을 준공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를 공간적 영역으로 설정함. 충청남도 5개 권역과 충청북도 10개 권역을 선정함.
-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에 위치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역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무작위 표본추출로 15개 지구를 선정하였음. 선정된 지구는 충청남도 5개 지구와 충청북도 10개 지구로 다음 표과 같음.

표 8 연구대상지 선정결과 및 특성

연번	시도	시군	지구명	준공연도	총사업비 (백만원)
1	충북	영동군	가곡권역	2008	6,150
2		충주시	달두루권역	2010	6,760
3		괴산군	백마권역	2015	6,055
4		제천시	비단권역	2015	6,929
5		단양군	삼동지권역	2013	4,000
6		보은군	서원권역	2012	6,029
7		제천시	용두산권역	2012	7,631
8		영동군	지내권역	2010	6,760
9		괴산군	청천면소재지	2010	7,000
10		옥천군	한두레권역	2012	6,995
11	충남	논산시	광석권역	2012	5,740
12		태안군	별주부권역	2013	4,800
13		금산군	신안권역	2012	6,210
14		공주시	양화권역	2009	5,442
15		홍성군	천수만권역	2015	10,430

나.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방법

-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역 조사는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함. 사전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충청북도, 충청남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에 협조 요청을 실시하여 각 지역의 사업준공 보고서를 협조받는 절차로 수행됨.
-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박사과정 재학중인 인원 2명과,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인원 3명을 팀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학사과정을 재학 중인 연구원은 현장 조사 실시 전에 사전교육을 충분히 받고 현장조사에 임함.
- 현장조사는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1달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해당 연구원이 대상지에 직접 방문하여 위원장과 사무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실시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터뷰 응답식으로 진행됨
- 구조화된 설문지의 경우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역의 현실에 대한 문제점, 마을주민간의 의사소통과 화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자유롭게 대답하는 형태로 조사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완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요구도 분석에 활용하는 용도로 분석함.

표 9 연구대상지 선정 및 조사방법

구 분	설문 및 면접조사
조사대상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역 중 충청남·북도 총 15지구
표본추출방법	단순무작위 추출(Simple random sampling)
조사방법	현장조사와 인터뷰
조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와 면담 질문
조사내용	권역의 일반적 현황, 시설물 현황/관리/운영, 기타 의견 등
조사기간	2017년 8월 ~ 9월

다. 자료 분석 방법

- 농촌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 Version을 사용하여 설문지 자료를 분석함.
- 연구대상지의 일반적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함.
- H/W, S/W, HM/W에 대한 현황을 분석을 위해 파이, 히스토그램, 평균(M), 표준편차(SD) Pearson Correlation을 사용하였음.

라.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

-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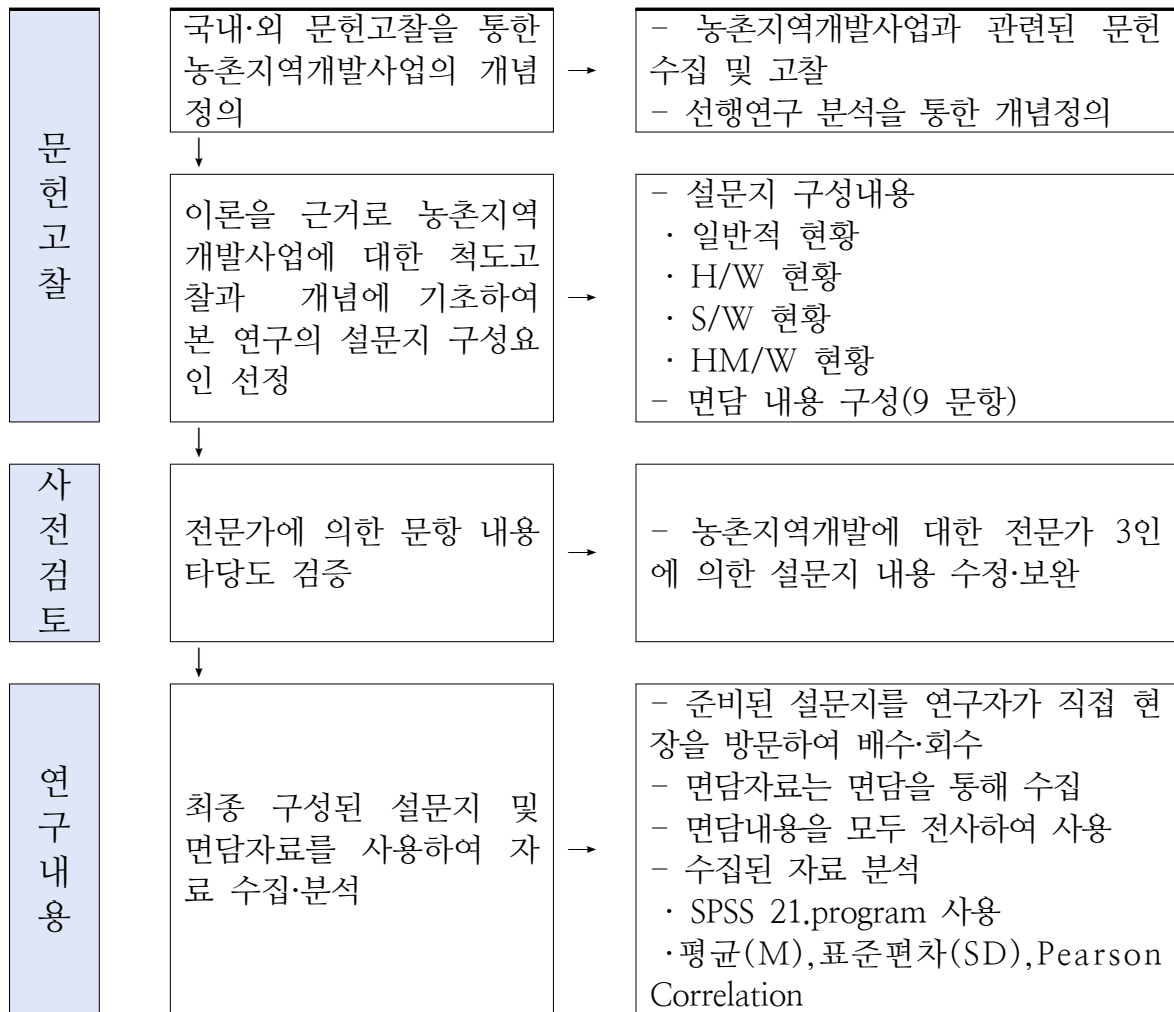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3. 시설 운영특성 분석 결과

가. 조사대상지별 사업 개수 현황

-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지로 선정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15개 지역의 기초 생활기반시설, 경관개선시설, 소득시설, 공동체를 종합한 사업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음
- 충북지역의 G권역 5개, D 권역은 9개, B권역은 10개, B1 권역은 6개, S 권역은 12개, S1 권역은 8개, Y 권역은 15개, G1 권역은 12개, C권역은 7개, H 권역은 12개로 나타났으며, 충남 G2 권역은 9개, B2 권역은 8개, S2권역은 10개, Y1권역 10개, C2권역 9개로 사업 시행 개수가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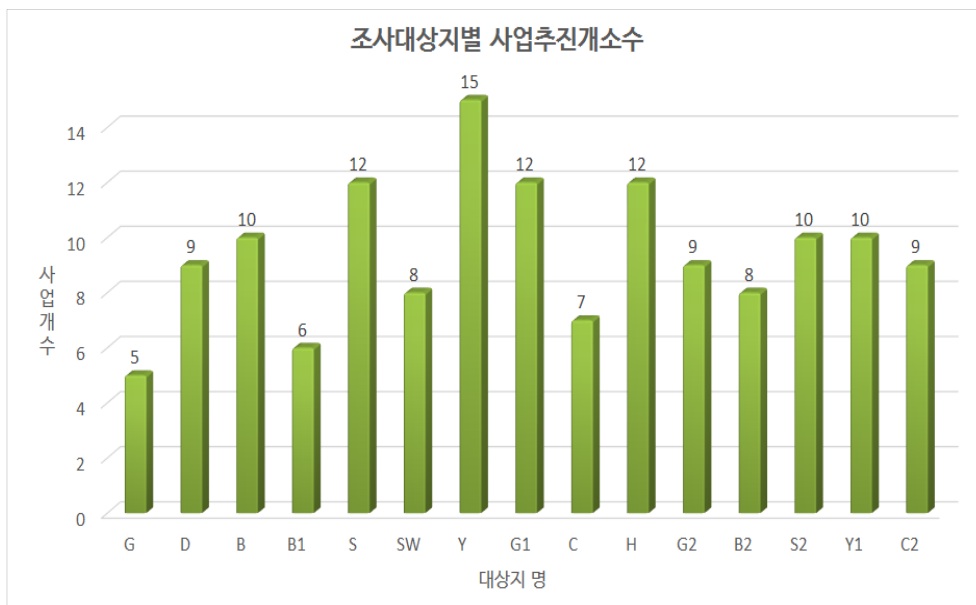


그림 2. 조사 대상지별 사업추진 개수 분석결과

- 시설유형에 따른 사업 개수 및 평균공간면적, 평균 대지면적, 평균 사업비를 분석해 본 결과는 아래 표 11과 같음.
- 기본적으로 소득증대사업, 기초생활기반시설, 경관개선 사업순으로 사업비율이 구성되고 있었으며, 사업비의 비중도 이와 유사하였음.
-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기반시설은 총 142개의 사업 중 52개소로 36.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건물면적은 291m², 평균 대지조성면적은 3,787m², 평균 사업비는 354,232천원으로 나타났음.
- 소득증대사업은 전체 사업 중 58개소로 40.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건물면적은 362m², 평균 대지 조성면적은 5,703m², 평균 사업비는 527,55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경관개선사업은 32개소로 22.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건물면적은 135m², 평균 대지 조성 면적은 4,573m², 평균 사업비는 155,629천원으로 나타났음.

표 10 사업 유형별 주요 특성 분석결과

사업유형	사업유형 (개)	비율 (%)	평균 건물면적 (m ²)	평균 대지면적 (m ²)	평균 사업비 (천원)
기초생활기반	52	36.6	291	3,787	345,232
소득증대사업	58	40.8	362	5,703	527,556
경관개선사업	32	22.5	135	4,573	155,629
합 계	142				

나.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사업추진 및 운영현황

1) 기초생활기반시설 기본 현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초생활기반확충 기능별 세부사업은 ‘문화’, ‘복지’, ‘주거·수질 환경개선’, ‘지역경제활성화’, ‘도로·교통’, ‘안전·재해대비’, ‘상하수도’, ‘생산기반’ 의 8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사업에 따라 다양한 사업내용이 포함하였음.
- 그러나 사업 추진대상지의 ‘기초생활기반시설’ 사업의 추진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편의시설’과, ‘문화복지시설’, ‘건강증진시설’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음.
- 주민편의 목적의 주요시설로는 마을회관, 쉼터, 다목적주차장, 수변공원, 가로수 및 인도정비, 진입로, 저수지쉼터 등의 사업이 실시되었음.

표 11 기초생활기반시설의 목적별 분류결과

시설조성 목적	개수	주요시설
주민편의	35	마을회관, 쉼터, 다목적주차장, 마을안길정비, 다목적광장, 수변공원, 커뮤니티센터, 소나무길 정비, 가로등, 인도블럭 및 데크, 휴게공간, 가로등, 인도블럭 및 데크, 쉼터, 진입로, 저수지쉼터, 지붕정비, 관정개발
문화복지	9	복지회관, 마을회관, 문화복지센터, 마조리사랑방, 마을공동체회관, 소공연장, 다목적회관, 전통생활시설
건강증진	8	다목적족구장, 등산로정비, 다목적 체육경관, 건강관리실, 산책로 등
총합	52	

2) 기초생활기반시설 사업의 유형특성

- 기초생활기반시설 사업유형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3과 같음.
- 분석결과 기초생활기반시설은 ‘회관’ 및 ‘쉼터’등의 주민 편의목적을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책로, 상하수도 등 주민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성격으로 추진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세부적으로는 ‘회관’으로 분류되는 사업이 9개소로 17%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쉼터’로 분류되는 사업은 7개소로 13%를 차지하였고, ‘진입로’로 분류되는 사업은 5개소로 9%의 비율을 나타냈음
- 이 밖에 ‘산책로’는 4개소로 8%, ‘센터’, ‘상수도’는 3개소로 6%, ‘다목적광장’, ‘주차장’, ‘공원’, ‘복지센터’, ‘가로경관’은 각 2개소로 4% 이며, ‘기타’ 항목은 공연장, 터미널정비, 교량 등으로 총 11개소의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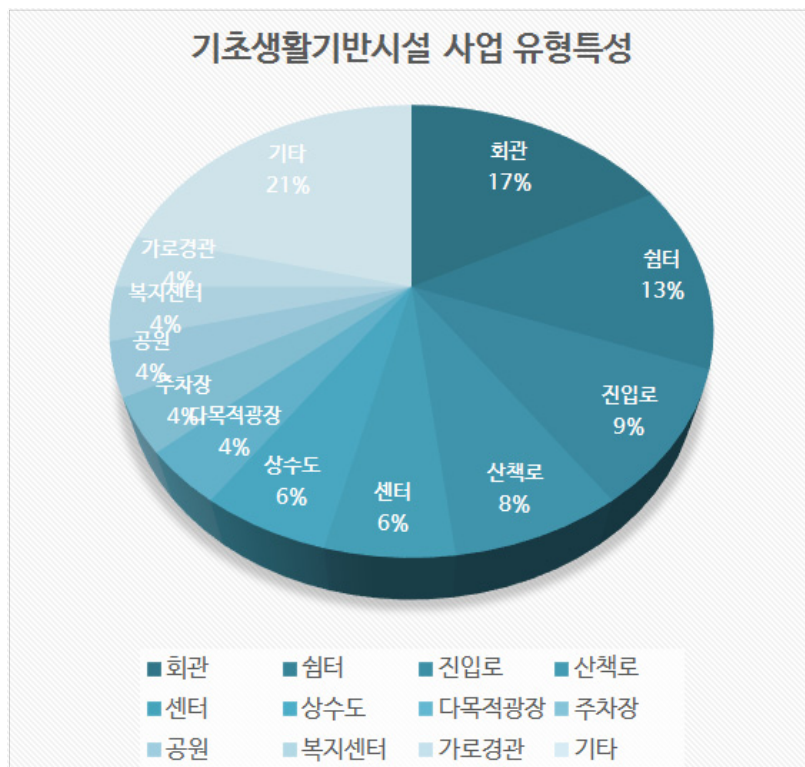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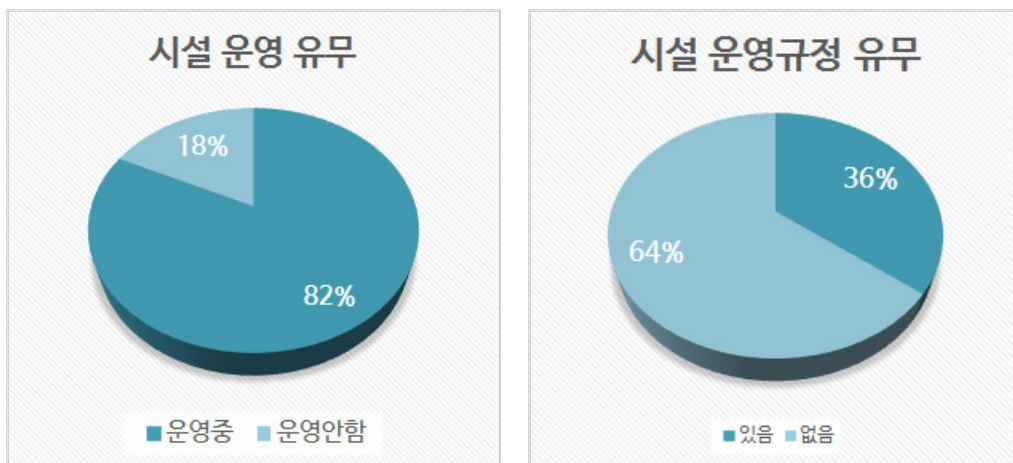


그림 3.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사업유형 분석결과

3)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운영특성

- 기초생활기반시설 중 상수도, 배수로, 교량, 진입로, 터미널 등 그 운영목적이 보편적인 정주여건에 해당되고 수혜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시설을 7개소를 제외한 후 회관, 산책로, 쉼터, 다목적 광장, 주차장 등에 해당되는 사업의 평균 운영일을 분석해 본 결과 365일 중 평균 262일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운영과 관련되어 운영현황과 관련된 세부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는 그림 4와 같았음.
- 해당 시설을 운영 중인지 묻는 항목에서 ‘현재 운영중’ 이라고 응답된 시설은 45개소 중 37개소로 82%의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운영중이지 않는다’고 응답한 시설은 8개소로 18%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해당시설의 운영규정 유무를 묻는 항목에서는 ‘운영규정이 있다’ 라고 응답된 시설이 16개소로 36%에 그쳤으며, ‘운영규정이 없다’ 라고 응답된 시설은 29개소로 64%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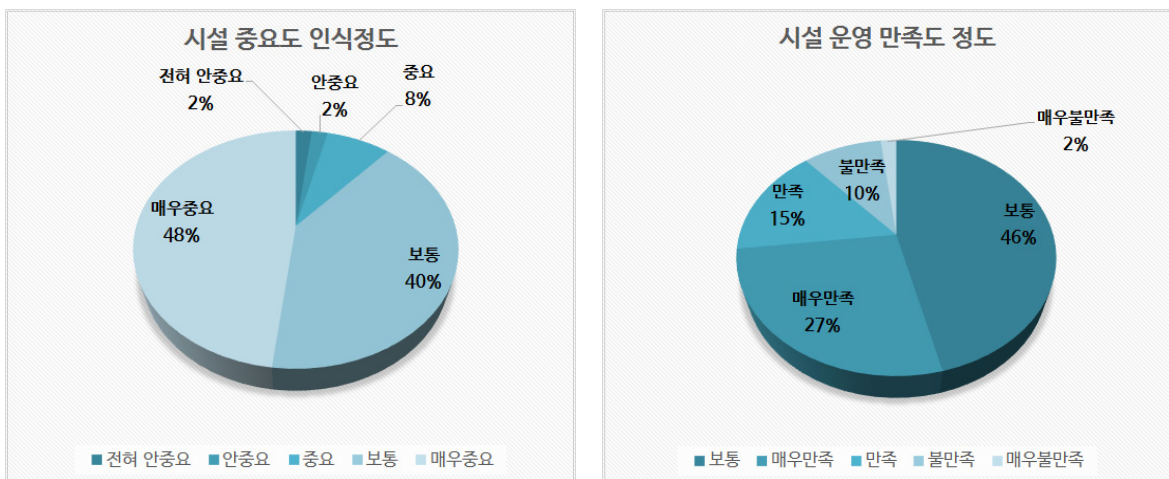
〈시설운영유무 분석결과〉

〈시설운영규정유무 분석결과〉

그림 4.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운영특성 분석결과

4)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시설중요도 및 만족도 특성

-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중요도 인식정도와 운영만족도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났음.
-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중요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부터 ‘매우 중요함’의 5점의 척도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된 시설이 25개소로 48%의 비율을 보임. ‘보통’으로 응답된 시설이 21개소로 40%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중요하다’는 8%, ‘중요하지 않다’ 및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각각 2%의 비율을 나타냄..
-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운영만족도를 ‘매우 불만족’의 1점부터 ‘매우 만족’의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수는 24개소로 46%의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매우 만족’은 14개소로 27%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개소 15% 였음.
-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초생활기반 시설 자체의 중요도는 높게 평가되지만, 정작 해당 시설을 운영함에 있는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시설중요도 인식정도 분석결과〉

〈시설 운영만족도 분석결과〉

그림 5.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결과

5)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인식특성

-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시설계획 인식정도를 5점 척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전체 응답비율의 92.3%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되었고, 타당성 평균값이 3.87인 것을 볼 때, 기초생활기반시설의 계획은 지역에 맞는 범위에서 타당하게 계획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시설은 건설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는지 묻는 항목에서 전체 응답비율의 92.3%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되었고, 시설 건설 문제정도의 평균값이 4.04인 것을 볼 때,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시설건설은 문제없이 잘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시설은 계획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개소로 15.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일부 시설에 한하여 계획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시설은 마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묻는 항목에서 전체 응답비율 중 96.2%가 ‘보통’에서 ‘매우 큰 영향이 있다’의 범주에 속하며, 평균값이 4.13인 것을 볼 때, 기초생활기반시설은 마을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유지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매우 유지가 잘 된다’로 응답된 비율이 15개소로 28.8%로 나타났으며, ‘유지가 잘 된다’고 응답된 비율은 19개소로 36.5%, ‘보통이다’고 응답된 비율은 17개소로 32.7%로 나타났음

표 12 기초생활기반사업의 시설인식정도 분석결과

설문문항	척도	응답수 (N=52)	비율 (%)	평균 (M)	표준편차 (SD)
시설계획의 타당성	문제가 전혀없다	0	0.0%	3.87	1.01
	문제없다	4	7.7%		
	보통	18	34.6%		
	타당하다	11	21.2%		
	매우 타당하다	19	36.5%		
시설 건설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	0	0.0%	4.04	1.05
	문제가 있다	4	7.7%		
	보통이다	15	28.8%		
	문제없다.	8	15.4%		
	전혀 문제없다.	25	48.1%		
시설조성의 성과도	전혀 효과가 없다	0	0.0%	3.52	1.18
	효과가 없다	8	15.4%		
	보통이다	20	38.5%		
	성과가 있다	8	15.4%		
	매우 큰 성과가 있다	15	28.8%		
시설조성의 마을영향	매우 영향이 없다	0	0.0%	4.13	0.89
	영향이 없다	2	3.8%		
	보통이다	11	21.2%		
	영향이 있다	17	32.7%		
	매우 큰 영향이 있다	22	42.3%		
시설의 유지 가능성	전혀 유지가 안된다	0	0.0%	3.92	0.84
	유지가 안된다	1	1.9%		
	보통이다	17	32.7%		
	잘 된다	19	36.5%		
	매우 유지가 잘된다	15	28.8%		

다. 소득증대시설의 사업추진 및 운영현황

1) 소득증대시설 기본 현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소득증대사업 기능별 세부사업은 ‘소득기반’, ‘체험관광’ 의 2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세부사업에 따라 다양한 사업내용이 있음.
- 소득증대사업은 기본적으로 마을 및 권역의 소득사업을 통한 수익창출로 시설의 유지비용 부담 및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크게 ‘소득기반’ 과 ‘체험관광’,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음.
- ‘소득기반’ 은 가공시설, 소포장시설 등 농산물 가공 및 유통 등에 관련된 시설로 분류하였고, ‘체험시설’은 체험장, 도농교류센터 등 방문자 센터, 방문자 안내 편의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을 분류함. 이 밖에 수혜대상이 마을주민이 아닌 방문객을 목적으로 조성한 방문객쉼터등의 시설은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 과 같음.

표 13 소득증대시설의 목적별 분류결과

시설조성 목적	개수	주요시설
소득기반	22	농산물판매장, 소포장시설, 메주공장, 한우단지, 공방, 배추절임, 장류시설, 포도가공시설, 저온저장고, 친환경축사, 농산물유통단지, 가공센터, 불가사리퇴비화, 공동작업장, 유효미생물발효시설, 인삼가공시설, 시설하우스, 농산물 판매장 등
체험관광	28	장류체험장, 눈썰매장, 야외체험장, 도농교류센터, 전통체험관, 권역다목적실, 농산물판매센터, 동굴진입로, 포도체험관, 캠핑장, 건강관리센터, 음악체험실, 산채체험관, 생태체험관, 수산물판매장, 낚시공원, 폐교캠핑장 등
기타	8	권역안내판, 잔디광장, 방갈로 등
총합	58	

2) 소득증대시설 사업의 유형특성

- 소득증대시설 사업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6과 같음.
- 분석결과 소득증대시설 사업은 ‘체험관’ 및 ‘가공시설’ 등 직접적인 수익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세부적으로는 ‘체험관’으로 분류되는 사업이 15개소로 26%, ‘가공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이 11개소로 19%로 나타났으며, 도농교류센터가 9개소로 16%, 농산물판매장이 5개소로 9% 임.
- 이 밖에 관광객을 위한 ‘관광객쉼터’, ‘관광안내판’, ‘캠핑장’ 등이 조사되었으며 ‘기타’ 항목으로 ‘축사’, ‘공원’, ‘시설하우스’ 등의 항목으로 8개소, 14%의 비율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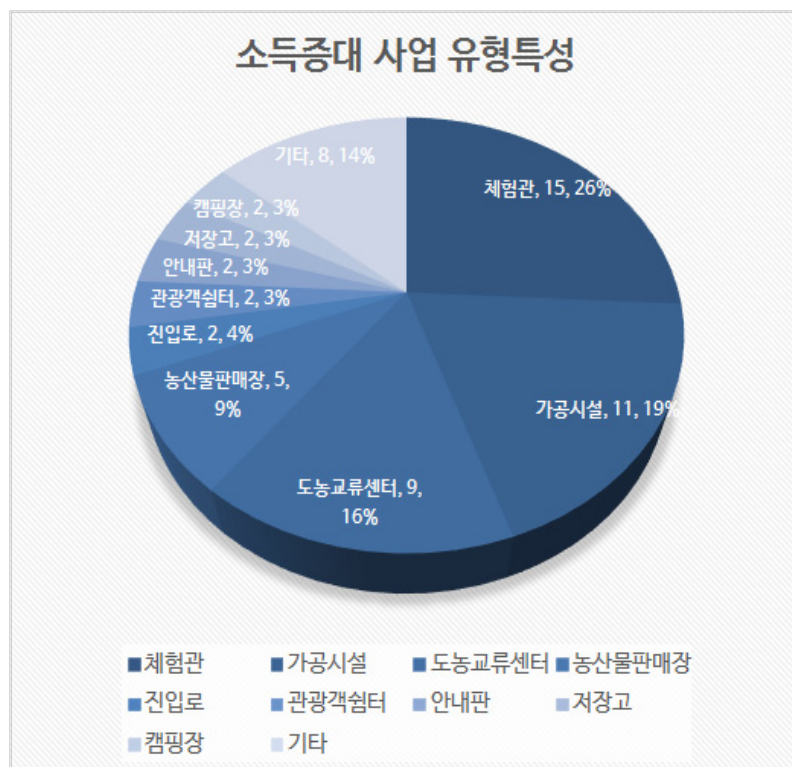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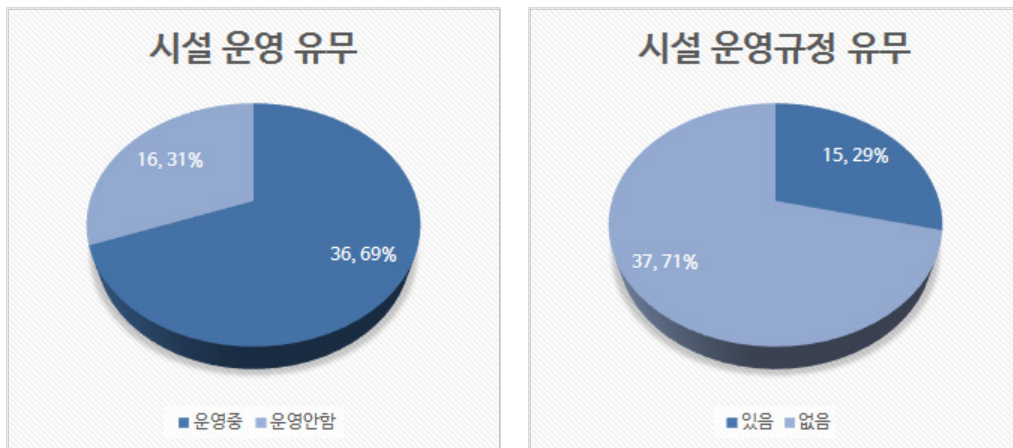


그림 6. 소득증대사업의 유형 분석결과

3) 소득증대시설의 운영특성

- 소득증대시설 사업유형 중 안내판, 잔디광장 등 그 조성 목적이 보편적인 인프라 제공에 해당하고 수혜 대상자가 방문객으로 특정되지 않는 시설 6개를 제외한 52개소 평균 운영일수를 살펴보면 365일중 224일이 운영되고 있었음.
- 이러한 소득증대시설 사업과 관련되어 운영현황 및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그림 7과 같았음.
- 해당 시설을 운영중인지 묻는 항목에서 ‘현재 운영중’ 이라고 응답된 시설은 52개소 중 36개소로 69%의 비율을 나타내었고, ‘운영중이지 않는다’ 고 응답된 시설은 16개소로 31%인 것으로 나타남.
- 해당시설의 운영규정 유무를 묻는 항목에서는 ‘운영규정이 있다’ 라고 응답된 시설이 15개소로 전체 52개소 중 29%에 불과했으며, 71%에 해당하는 37개소의 시설은 ‘운영규정이 없다’ 고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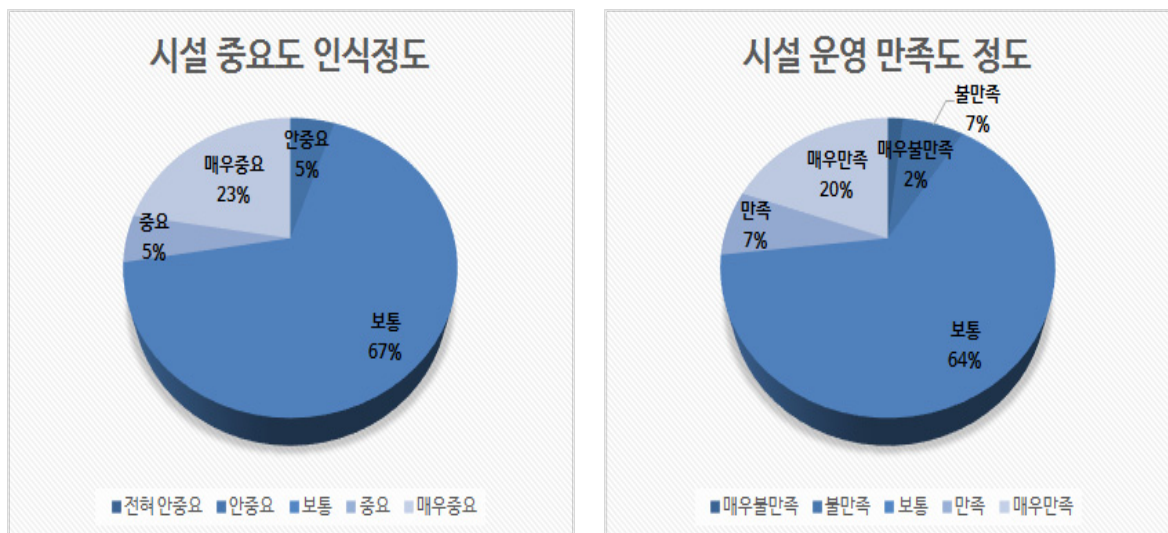
〈시설운영유무 분석결과〉

〈시설운영규정유무 분석결과〉

그림 7. 소득증대시설의 운영특성 분석결과

4) 소득증대시설의 시설중요도 및 만족도 특성

- 소득증대사업 시설의 중요도 인식 정도와 운영만족도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8과 같이 나타남.
- 소득증대사업 시설의 중요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부터, ‘매우 중요함’ 의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된 시설은 13개소로 23%의 비율을 보였으며, ‘중요하다’ 고 응답된 비율은 3개소로 5%, ‘보통’ 으로 응답된 시설은 39개소로 67%의 비율을 나타냄. ‘중요하지 않다’ 고 응답된 비율은 3개소로 5%로 나타남.
- 소득증대사업 시설의 운영만족도를 ‘매우 불만족’ 1점부터 ‘매우 만족’의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매우 만족’ 으로 응답된 시설은 11개소로 20%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만족’ 이라고 응답된 시설은 4개소로 7%, ‘보통’ 이라고 응답된 시설은 36개소로 64%에 달하였고,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각각 4개소 7%, 1개소 2%의 비율을 보임.
-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증대사업 시설의 경우 중요도 인식 정도 및 운영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



〈시설중요도 인식정도 분석결과〉

〈시설 운영만족도 분석결과〉

그림 8. 소득증대시설의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결과

5) 소득증대시설의 인식특성

- 기초생활소득증대시설의 시설계획 인식정도를 5점 적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여기서 시설계획의 타당성 정도는 전체 응답비율의 91.4%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되었고, 타당성 평균값이 3.45인 것을 볼 때, 기초생활기반시설의 계획은 지역에 맞는 범위에서 타당하게 계획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시설의 건설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전체 응답비율의 81.0%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되었고, 시설 건설 문제정도의 평균값이 3.52인 것을 볼 때,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시설건설은 보통수준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시설은 계획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계획된 성과가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시설의 계획성과는 낮았음.
- 시설은 마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묻는 항목에서 ‘매우 큰 영향이 있다’ 응답과 ‘영향이 있다’ 의 응답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값이 3.33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영향정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소득증대사업 시설의 유지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매우 유지가 잘 된다’ 로 응답된 비율이 5개소로 8.5% 로 나타났으며, ‘유지가 잘 된다’ 고 응답된 비율은 17개소로 29.3%, ‘보통이다’ 고 응답된 비율은 33개소로 56.9% 로 나타남.

표 14 소득증대사업의 시설인식정도 분석결과

설문문항	척도	응답수 (N=58)	비율 (%)	평균 (M)	표준편차 (SD)
시설계획 의 타당성	문제가 전혀없다	1	1.7%	3.45	0.98
	문제없다	4	6.9%		
	보통	34	58.6%		
	타당하다	6	10.3%		
	매우 타당하다	13	22.4%		
시설 건설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	0	0.0%	3.52	1.06
	문제가 있다	11	19.0%		
	보통이다	20	34.5%		
	문제없다.	13	22.4%		
	전혀 문제없다.	14	24.1%		
시설조성 의 성과도	전혀 효과가 없다	3	5.2%	3.07	1.09
	효과가 없다	14	24.1%		
	보통이다	26	44.8%		
	성과가 있다	6	10.3%		
	매우 큰 성과가 있다	9	15.5%		
시설조성 의 마을영향	매우 영향이 없다	3	5.2%	3.33	0.9.
	영향이 없다	2	3.4%		
	보통이다	33	56.9%		
	영향이 있다	13	22.4%		
	매우 큰 영향이 있다	7	12.1%		
시설의 유지 가능성	전혀 유지가 안된다	1	1.7%	3.40	0.77
	유지가 안된다	2	3.4%		
	보통이다	33	56.9%		
	잘 된다	17	29.3%		
	매우 유지가 잘된다	5	8.6%		

라. 경관개선사업의 추진 및 운영현황

1) 경관개선사업 기본 현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역경관개선사업 기능별 세부사업은 경관·생태 항목 하나로 분류되어 있지만, 기능별 사업 내용에는 마을경관가꾸기, 생태쉼터, 도랑 및 옛길복원 등 경관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 연구에서는 크게 경관개선사업 추진 목적에 따라 각종 정비를 통해 경관을 가꾸는 ‘경관정비’ 사업과, 역사문화 전통을 복원하고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전통문화경관’, 생태계 보존과 유지발전을 통한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생태쉼터’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경관정비 항목의 주요시설로는 공원, 경관담장, 저수지 수변개발, 조형물 설치 등 종합적인 경관정비 성격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생태쉼터 항목에서는 소공원 쉼터, 생태 숲, 생태 쉼터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추진되었으며, 전통문화경관에서는 빨래터, 우물터 정비, 효자비 및 성황당 정비 사업이 주 사업 내용으로 분석되었음.

표 15 경관개선사업 목적별 분류결과

시설조성 목적	개수	주요시설
경관정비	23	공원, 경관담장정비, 저수지수변개발, 권역안내판, 가로수식재, 생태하천소공원, 조형물설치, 경관도로정비, 지붕경관정비, 축사주변경관정비 저수지수변경관정비 등
생태쉼터	5	소공원 쉼터, 저수지 쉼터, 생태 숲, 생태쉼터, 마을공동쉼터
전통 문화경관	4	빨래터 정비, 우물터 정비, 오인용효자비, 성황당 정비
총 합	32	

2) 경관개선사업의 유형특성

- 소득증대시설 사업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9와 같음.
- 경관개선사업은 ‘조형물 설치’, ‘지붕경관정비’ 등의 지역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인 ‘경관개선’ 항목이 10개소로 29%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가로수 식재 등 진입로 등의 경관을 개선하는 가로경관개선과 전통문화를 복원하는 ‘전통문화’ 항목이 각각 4개 항목으로 11%로 나타남
- 저수지 정비와 저수지 및 하천 수변개발은 각각 3개로 8%로 나타났으며, ‘생태숲’ 과 같이 생태계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항목은 3개소로 9%의 비율을 보임. 이 밖에 공원, 쉼터, 담장정비는 각각 2개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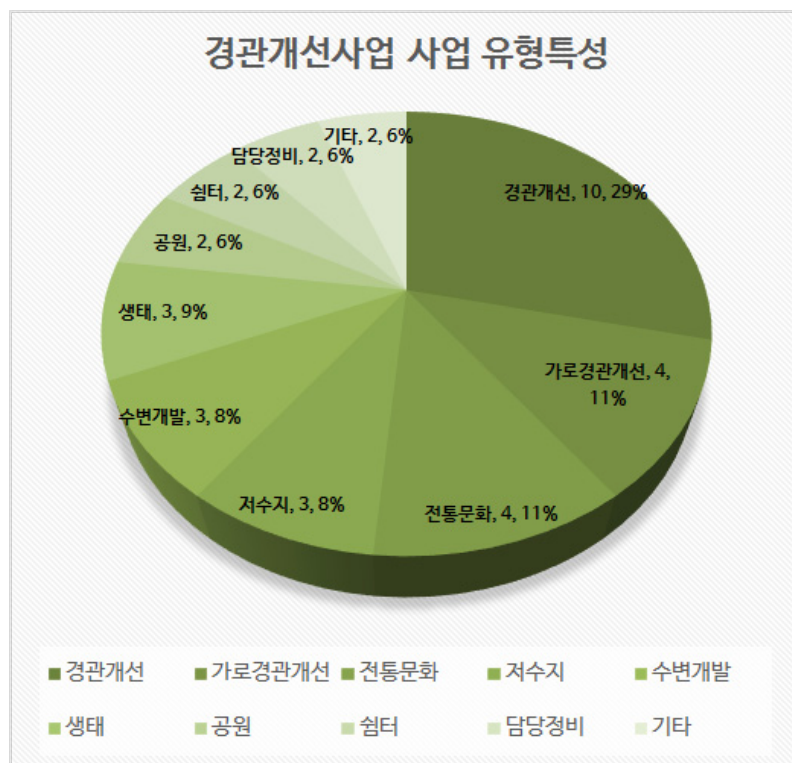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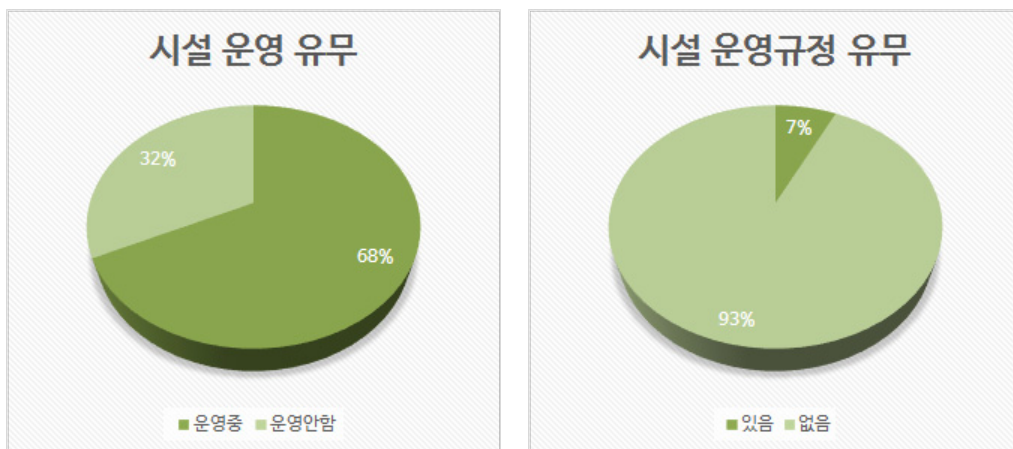


그림 9. 경관개선사업 유형 분석결과

3) 경관시설의 운영특성

- 경관개선사업 유형 중 가로경관, 지붕경관정비 등 그 조성 목적이 보편적이고 수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시설을 제외한 후 경관정비, 생태쉼터, 전통문화경관 등의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운영현황과 관련된 세부 응답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음.
- 시설을 운영 중인지 묻는 항목에서 ‘현재 운영중’ 이라고 응답된 시설은 28개소 중 19개소로 68%의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운영중이지 않는다’ 고 응답한 시설은 9개소로 32%인 것으로 나타남.
- 운영규정 유무를 묻는 항목에서는 ‘운영규정이 있다’ 라고 응답된 시설이 2개소로 7%에 그쳤으며, ‘운영규정이 없다’ 라고 응답된 시설은 26개소로 93%의 경관개선사업은 운영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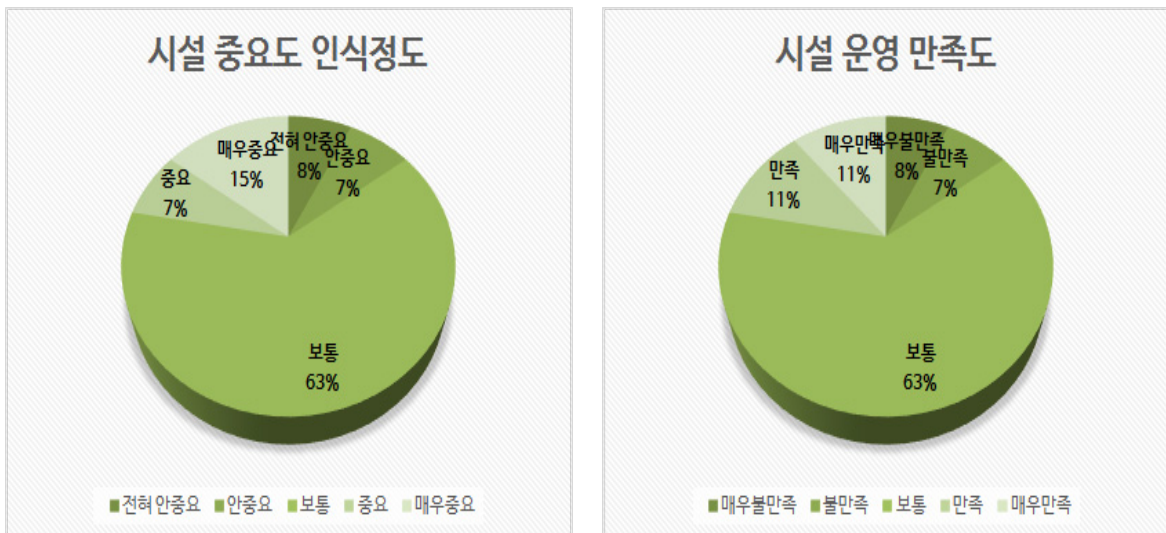
〈시설운영유무 분석결과〉

〈시설운영규정유무 분석결과〉

그림 10. 경관시설의 운영특성 분석결과

4) 경관개선사업의 중요도 및 만족도 특성

- 경관개선사업의 중요도 인식 정도와 운영만족도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남.
- 경관개선사업의 중요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부터, ‘매우 중요함’ 의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된 시설은 4개소로 15%의 비율을 보였으며, ‘중요하다’ 고 응답된 비율은 2개소로 7%, ‘보통’ 으로 응답된 시설은 17개소로 63%의 비율을 나타냄.
- 경관개선사업의 운영만족도는 ‘매우 만족’ 과 ‘만족’ 으로 응답된 시설은 3개소로 11%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보통’ 이라고 응답된 시설은 17개소로 63%에 달하였고,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각각 2개소 7%, 8%로 나타남.
-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경관개선사업의 중요도 인식정도 및 운영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일부 시설의 경우 중요하지 않거나, 운영에 불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시설중요도 인식정도 분석결과〉

〈시설 운영만족도 분석결과〉

그림 11. 경관개선사업의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결과

5) 경관개선사업의 인식특성

- 경관개선사업의 인식정도를 5점 척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시설계획의 타당성 정도는 ‘매우 타당하다’고 응답한 응답된 시설이 전체 38개소 중 11개소로 28.9%의 비율을 나타내었고, ‘타당하다’고 응답된 비율이 1개소로 2.6%, ‘보통’으로 응답된 비율이 18개소로 47.4%로 응답된 것으로 볼 때, 경관개선사업의 계획은 지역에 맞는 범위에서 타당하게 계획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문제 정도의 평균값이 3.96인 것을 볼 때,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시설건설은 보통 이상 수준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시설은 계획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매우 큰 성과가 있다’고 응답된 비율은 8개소로 21.1%로 나타났으며, ‘성과가 있다’고 응답된 비율은 5개소로 13.2%, ‘보통’으로 응답된 비율은 18개소로 47.4%로 나타남.
- 경관개선사업은 마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묻는 항목에서 ‘매우 큰 영향이 있다’ 응답과 ‘영향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값이 3.85로 나타나, 전반적인 영향정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경관개선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등의 유지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매우 유지가 잘 된다’로 응답된 비율이 3개소로 7.9%로 나타났으며, ‘유지가 잘 된다’고 응답된 비율은 8개소로 21.1%, ‘보통이다’고 응답된 비율은 17개소로 44.7%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경관개선사업의 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지 않는 평균 수준의 응답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음.

표 16 경관개선사업의 시설인식정도 분석결과

설문문항	척도	응답수 (N=38)	비율 (%)	평균 (M)	표준편차 (SD)
시설계획 의 타당성	문제가 전혀없다	0	0.0%	4.02	1.00
	문제없다	2	5.3%		
	보통	18	47.4%		
	타당하다	1	2.6%		
	매우 타당하다	11	28.9%		
시설 건설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	0	0.0%	3.96	0.85
	문제가 있다	1	2.6%		
	보통이다	18	47.4%		
	문제없다.	6	15.8%		
	전혀 문제없다.	7	18.4%		
시설조성 의 성과도	전혀 효과가 없다	0	0.0%	3.99	0.88
	효과가 없다	1	2.6%		
	보통이다	18	47.4%		
	성과가 있다	5	13.2%		
	매우 큰 성과가 있다	8	21.1%		
시설조성 의 마을영향	매우 영향이 없다	0	0.0%	3.85	0.82
	영향이 없다	1	2.6%		
	보통이다	21	55.3%		
	영향이 있다	4	10.5%		
	매우 큰 영향이 있다	6	15.8%		
시설의 유지 가능성	전혀 유지가 안된다	0	0.0%	3.72	0.80
	유지가 안된다	4	10.5%		
	보통이다	17	44.7%		
	잘 된다	8	21.1%		
	매우 유지가 잘된다	3	7.9%		

4. 공동체 운영특성 분석결과

가. 조사대상지별 공동체 현황

-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의 공동체적 특성 및 SW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사업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연구대상지의 공동체, 마을행사, 축제 등과 관련된 현황을 분석함
- 연구대상지의 15개소의 대상지에서 66개의 공동체가 조사 되었으나 이 중 공동체 활동원 등이 불분명한 공동체 12개를 제외하고 총 54개에 대한 공동체 현황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그림 12와 같음.
- ‘부녀회’ 항목은 13개로 전체 공동체 활동 중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회’ 항목은 10개로 19%인 것으로 나타남. 이 밖에 청년회는 8개로 15%, 대동계는 6개로 11%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항목에는 ‘상족계’, ‘영농회’, ‘어촌계’ 등이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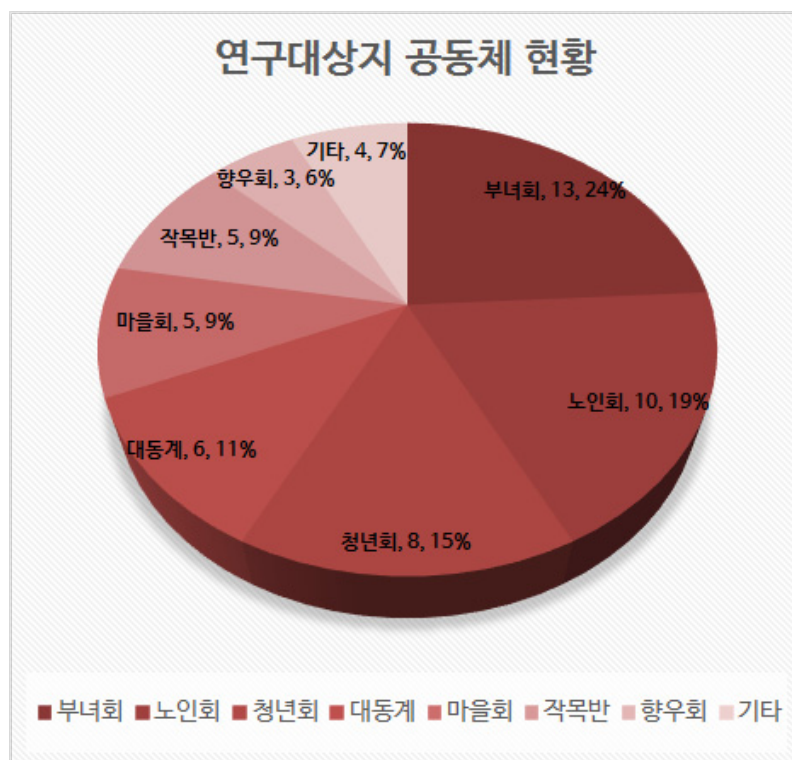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대상지의 공동체 현황

나. 공동체 조성 목적별 분석현황

- 분석대상인 54개 공동체의 조성 목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3과 같이 나타남.
- 공동체 조성 목적이 ‘친목도모화합’인 경우는 18개로 33%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마을발전지원’은 10개로 18% 인 것으로 나타남. 이 밖에 ‘친목도모 및 행사지원’에 응답된 공동체는 5개소로 9%등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항목은 ‘노인복지’, ‘상조회’, ‘마을봉사목적’, ‘마을행사주도’, ‘마을전통 문화계승’ 목적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공동체 조성의 주 목적은 마을 주민 간 친목도모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도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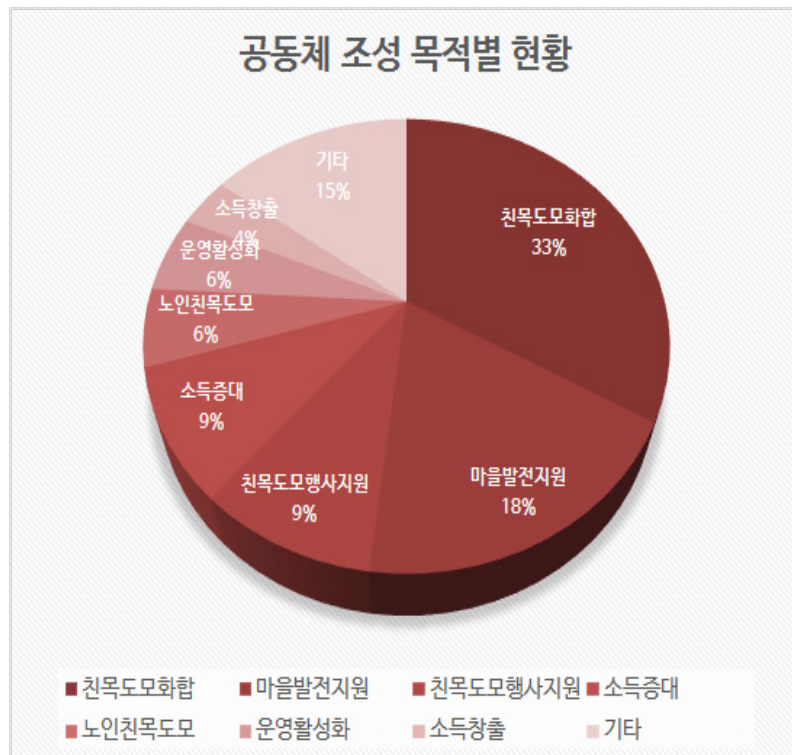


그림 13. 연구대상지의 공동체 조성 목적별 분석결과

다. 공동체 조성 목적별 분석현황

- 공동체 유형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타’ 항목에 속하는 공동체 유형을 제외한 총 50개의 공동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17과 같음.
- ‘부녀회’ 공동체의 경우 평균 회원수가 81명, 연평균 모임횟수는 6회, 평균 참석인원은 71명이고, 총 13개소의 대상 중 10개 공동체가 운영규정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모임의 중요도 인식 항목에는 ‘매우 중요하지 않다’ 1점, ‘매우 중요하다’ 5점의 리커트 척도에서 4.15점을 나타내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노인회는 총 10개소가 조사되었으며, 평균 회원 수는 65명, 연 평균 모임횟수는 8회, 평균 모임 참여인원은 5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개소 모두 운영규정을 보유하고 있었음.
- 모임중요도 인식 항목은 4.30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청년회, 대동계, 마을회, 작목반, 향우 회 등도 각각 4.75, 4.67, 4.80, 4.20, 4.67의 중요도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17 연구대상지의 공동체 조성 목적별 특성

구분	모임 수	평균 회원 수	연 평균 모임	평균 참석 인원	운영 규정 있는곳	모임 중요도
부녀회	13	81	6	71	10	4.15
노인회	10	65	8	56	10	4.30
청년회	8	59	8	170	7	4.75
대동계	6	80	2	104	5	4.67
마을회	5	168	7	153	5	4.80
작목반	5	67	8	57	5	4.20
향후회	3	130	5	110	2	4.67

라. 대상지별 공동체 운영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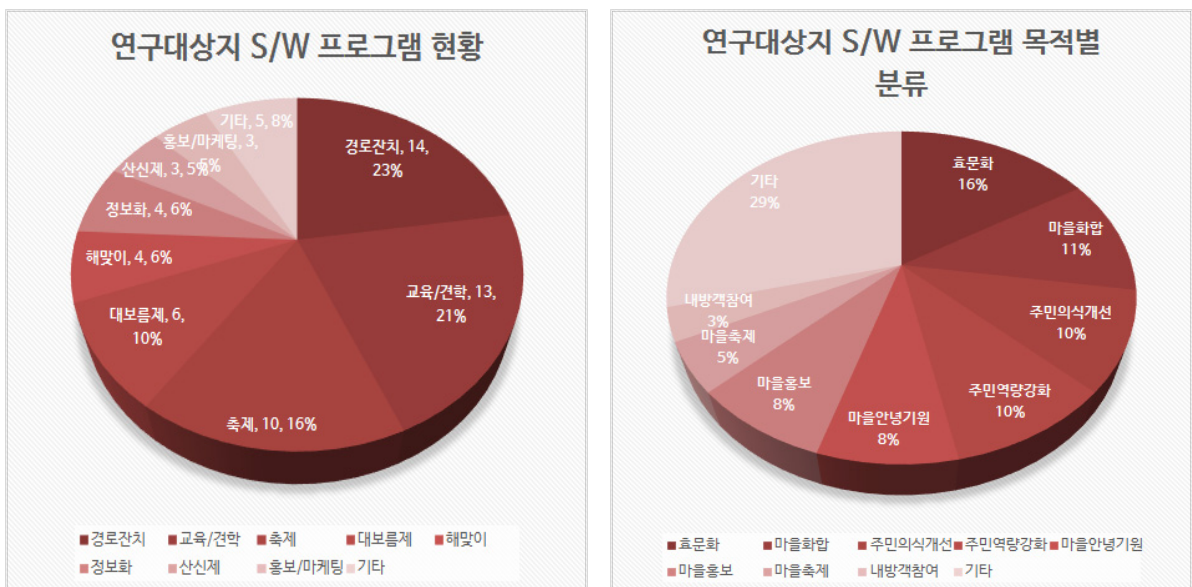
- 연구대상지별 공동체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8과 같음. 분석결과 특징적인 점을 살펴보면 운영중인 공동체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 서원권역과 충남 신안권역, 충남 천수만 권역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충남 신안권역과 천수만권역은 공동체 회원이 각각 1,466명, 927명으로 상대적 수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남.
- 1년 중 공동체 모임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충남 별주부 권역으로 연간 57회 가량의 공동체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광석권역은 연간 46회로 두 번째로 공동체 활동이 많았음. 공동체 활동 예산은 충남 별주부 권역, 충남 신안권역, 충남 천수만권역, 충북 달두루권역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 용두산 권역과 충북 지내권역, 충북 청천권역은 공동체활동을 위한 예산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아 0원으로 조사되었음.
- 공동체 활동의 중요도에 관한 인식은 평균 4.42로 대체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충북 가곡권역 3.67, 충북 비단권역 3.00, 충남 양화권역 3.33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이지만,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 공동체활동을 주민들이 만족해하는지 묻는 항목은 평균적으로 4.31로 대체로 만족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가곡권역은 3.67, 충북 비단권역은 3.00, 충북 삼동지 권역 3.80, 충남 양화권역 3.00 을 보여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특히 충남 양화권역은 공동체의 중요도는 4.50으로 높았으나, 주민들의 만족도 정도는 3.00을 나타내 두 항목 간 큰 차이를 보임.
- 이처럼 공동체 활동을 주민들이 만족해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지역별로 일부 특징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음

표 18 연구대상지의 공동체운영 특징

대상지	공동체 수	회원수	모임횟수 (1년/회)	활동예산 (천원)	평균 모임중요도 인식정도	평균모임 만족도
G	3	119	22	320	3.67	3.67
D	4	130	10	15,000	5.00	5.00
B	1	180	3	3,000	4.00	4.00
B1	2	70	12	2,600	3.00	3.00
S	5	215	21	7,300	4.00	3.80
SW	6	185	33	9,000	4.83	4.83
Y	5	205	36	0	4.00	4.00
G1	5	180	6	0	5.00	5.00
C	1	88	6	0	5.00	5.00
H	2	25	12	3,000	5.00	5.00
G2	5	800	46	1,100	5.00	5.00
B2	5	285	57	75,300	5.00	5.00
S2	6	1,466	22	48,000	4.50	3.00
Y1	3	94	22	500	3.33	3.33
C2	6	927	41	41,000	5.00	5.00

마.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특성

-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조사대상지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행사의 종류는 다음 그림 14와 같음.
- 연구대상지에 과거에 운영되었던 사례가 있거나, 현재 운영중인 S/W 프로그램을 분류한 결과 총 62개의 프로그램이 조사되었으며, 그 중 경로잔치가 14개로 23%의 비율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 교육 및 견학이 13개로 21%의 비율로 나타남.
- 연구대상지의 S/W프로그램 활동의 목적별 분류를 실시한 결과 S/W프로그램 목적 중 경로잔치, 노인잔치 등의 ‘효 문화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10개소로 전체 62개중 16%의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산신제, 대보름제, 마을축제 등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화합’ 프로그램이 7개소로 11%를 나타냄.
- 현재 운영중이지 않은 S/W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해도 지역에서는 ‘효 문화증진’과 ‘마을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연구대상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현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목적별 분류결과〉

그림 14. 공동체활동 프로그램 운영특성 분석결과

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인식 특성

- S/W 프로그램 중 현재 운영 중이며 기초통계분석이 가능한 표본 32개의 행사추진관련 인식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15와 같음.
- S/W 프로그램 중 ‘경로잔치’ 항목은 프로그램 타당성 4.92로 매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추진 문제여부에서 4.50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프로그램의 중요도 인식은 3.92,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3.67로 만족도 부분은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응답결과를 보였음.
- ‘대보름제’는 프로그램의 중요도 인식은 ‘경로잔치’와 마찬가지로 3.86, 만족도는 3.43으로 보통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축제’의 프로그램은 ‘경로잔치’, ‘대보름제’ 등의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지만, 응답 결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해맞이’ 프로그램은 타당성 5.00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중요도는 3.00으로 ‘보통’에 해당하는 응답을 보임. 다른 항목들에 비해 가장 낮은 인식정도를 보였으며, 프로그램의 만족도 인식도 3.00으로 ‘보통’ 수준이지만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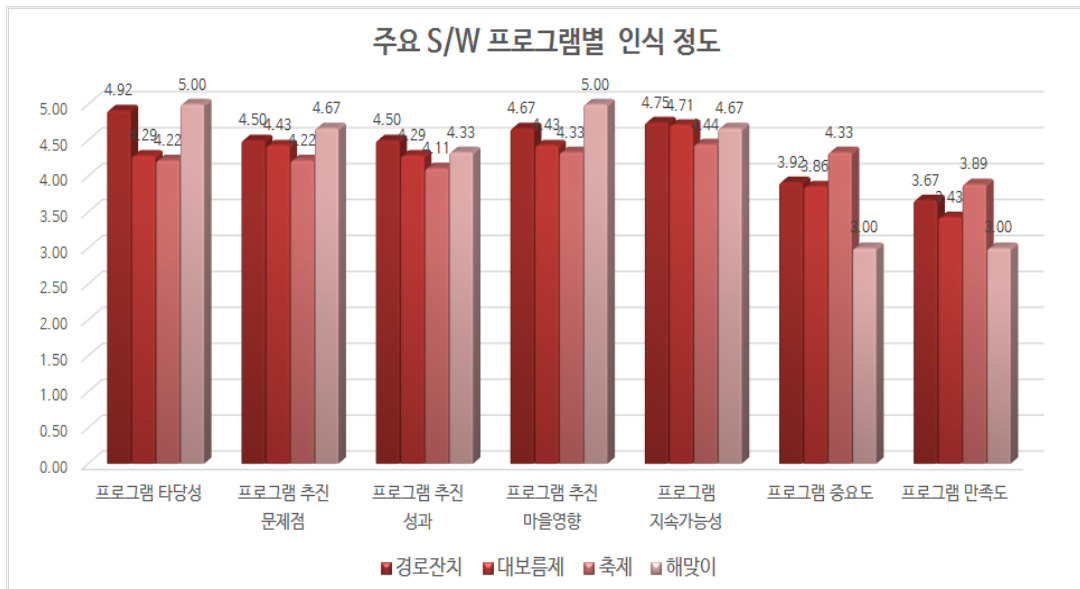


그림 15. 연구대상지의 주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인식정도

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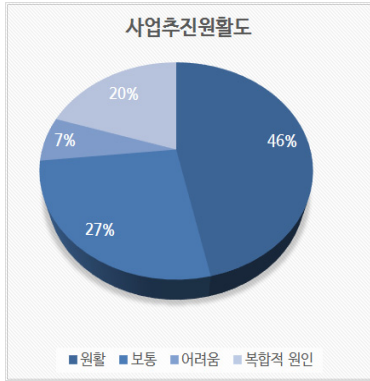
- 연구대상지의 과거에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중인 62개의 S/W 프로그램 운영의 변화 양상을 정리한 결과 표 19와 같이 15개의 프로그램이 과거에는 운영되었지만 현재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충북 가곡권역은 과거에 5개의 S/W 프로그램이 운영된 바 있으나 현재는 1개의 S/W 프로그램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충북 달두루 권역은 당초 2개 S/W 프로그램에서 1개의 S/W 프로그램만이 운영되고 있었음.
- 이처럼 과거 지역개발사업 추진 간 다양한 S/W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지만 현재에는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S/W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충북 용두산권역, 충남 광석권역, 충남 별주부권역, 충남 양화권역, 충남 천수만권역은 S/W 프로그램을 현재까지 꾸준히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총 12개 대상지에서 교육 및 견학등의 내용으로 운영된 바 있으나 현재는 8개소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견학 등이 있었음. 충남 광석권역은 현재에도 3개의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교육, 견학, 홍보마케팅, 정보화 프로그램 등의 역량강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9 연구대상지의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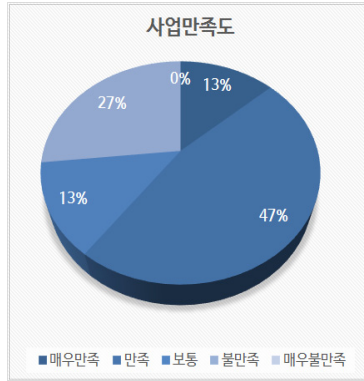
사업 지구명	과거 운영	현재 운영	역량강화 S/W 추진 (과거)	역량강화 S/W 추진 (현재)	내용
G	5	1	운영안함		
D	2	1	1개	현재 운영안함	교육, 견학
B	4	3	1개	현재 운영안함	교육, 견학
B1	4	3	1개	1개 운영	교육, 견학
S	2	2	1개	1개 운영	교육, 견학
SW	3	2	1개	1개 운영	교육, 견학
Y	8	8	운영안함	운영안함	
G1	3	0	1개	현재 운영안함	교육, 견학
C	3	2	운영안함	운영안함	
H	3	1	운영안함	운영안함	
G2	6	6	3개	3개 운영	교육, 견학, 홍보마케팅, 정보화
B2	7	7	1개	1개 운영	교육, 견학
S2	3	2	1개	운영안함	교육, 견학
Y1	4	4	1개	1개 운영	교육, 견학
C2	5	5	1개	1개 운영	교육, 견학

5. 운영자 면담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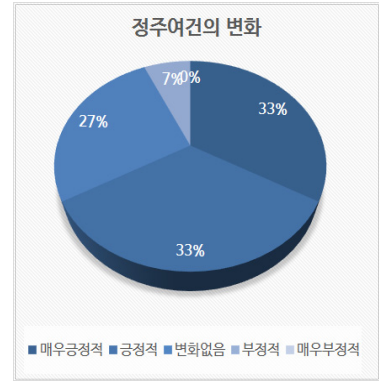
- 설문 응답자인 사무장, 추진위원장 등의 개별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6과 같았음
- 면담내용은 사업추진원활도, 사업만족도, 정주여건의 변화, 마을소득의 변화, 사업추진의 어려움, 정부 및 지자체 요구사항 등의 6가지 요소로 분류하였음.
- 전반적인 사업추진 원활도와 만족도 등의 면담결과는 매우만족 ~ 만족의 응답이 높았으며,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농촌 정주환경 개선은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징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마을소득의 변화 항목, 사업추진 어려움 항목, 정부 및 지자체 요구사항 항목이 있었음.
- 마을 소득변화와 관련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응답 결과를 보였으나, 면담 도중 소득창출의 지속성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게 나타났음.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소득증대라는 잠재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수익창출은 어려운 현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업 추진상 겪는 어려움은 2~3개의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복합적 원인이 주를 이루었음. 대부분은 운영상 어려움과 후속사업 부재 항목이었으며, 지역개발사업의 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전략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임.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으로는 복합적인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된 항목으로는 운영비 지원과 후속사업 지원이 많았음. 시설가동에 필요한 경상비 지원과 이를 유지하기 창출해내기 위한 알맞은 후속사업을 희망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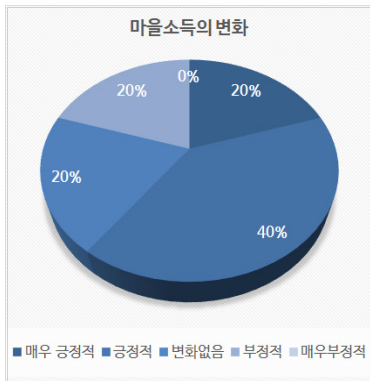
〈사업원활도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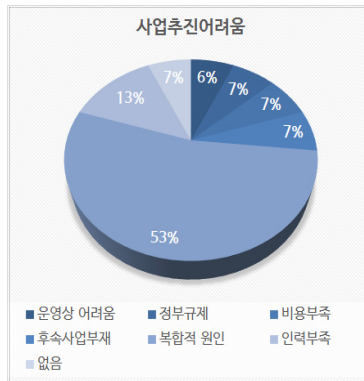
〈사업만족도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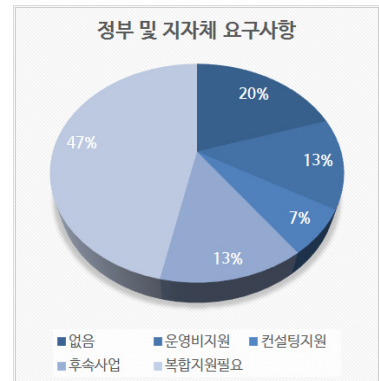
〈정주여건변화 응답결과〉



〈소득변화 응답결과〉



〈사업어려움 응답결과〉



〈요구사항 응답결과〉

그림 16. 운영자 면담 주요 응답결과 분석결과

6. 시설물 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IPA 분석

가. 중요도-성취도(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은 평가요소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고, 그 사분면의 위치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임
-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표를 ‘만족도’와 ‘중요도’로 설계하여 5점 척도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이렇게 조사된 값은 IPA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4분면에 대하여 ‘유지’, ‘집중’, ‘저순위’, ‘과잉’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IPA분석결과 4분면에 위치한 시설별을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그림 17. IPA분석과 각 사분면의 의미

나. 기초생활기반시설의 IPA 분석 결과

- 기초생활기반시설의 45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중요도의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18과 같이 나타났음.
- IPA 분석결과 45개의 시설 중 13개의 시설이 1사분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 시설은 평균보다 높은 중요도와 만족도를 보인 시설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전략이 요구되는 시설임.
-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중점개선이 필요한 시설로는 권역활성화센터를 포함한 7개의 시설이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아 점진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시설은 전체 표본 중 23개의 시설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 시설은 우선순위에 분석결과에 따라 낮은 관리 순위를 보이는 시설로 중장기적 관리전략을 수립해야함.
- 과잉관리를 지양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2개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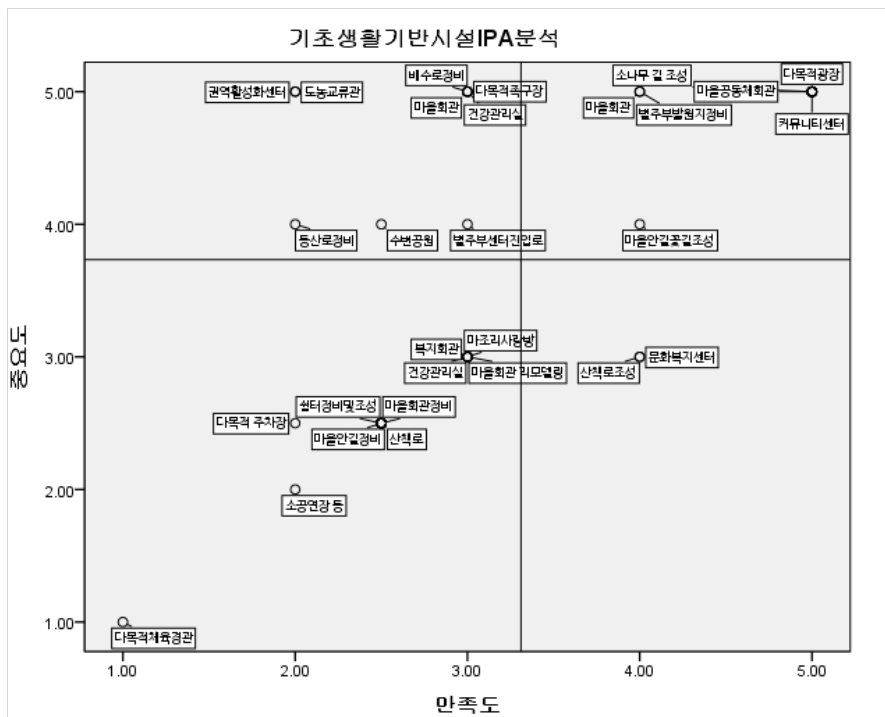


그림 18. 기초생활기반시설의 IPA분석결과

다. 소득증대사업의 IPA 분석 결과

- 소득증대사업의 58개 표본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중요도의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19와 같음.
- IPA 분석 결과 58개의 시설 중, 13개의 시설이 1사분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 시설은 평균보다 높은 중요도와 만족도를 보이는 시설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전략이 요구되는 시설임
-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중점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2개 시설이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아 개선이 요구되는 시설은 전체 58개의 표본 중 42개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IPA 그래프의 위치에 따라 중요도 및 만족도 등을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한 관리방안이 요구됨.
- 과잉관리를 지양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1개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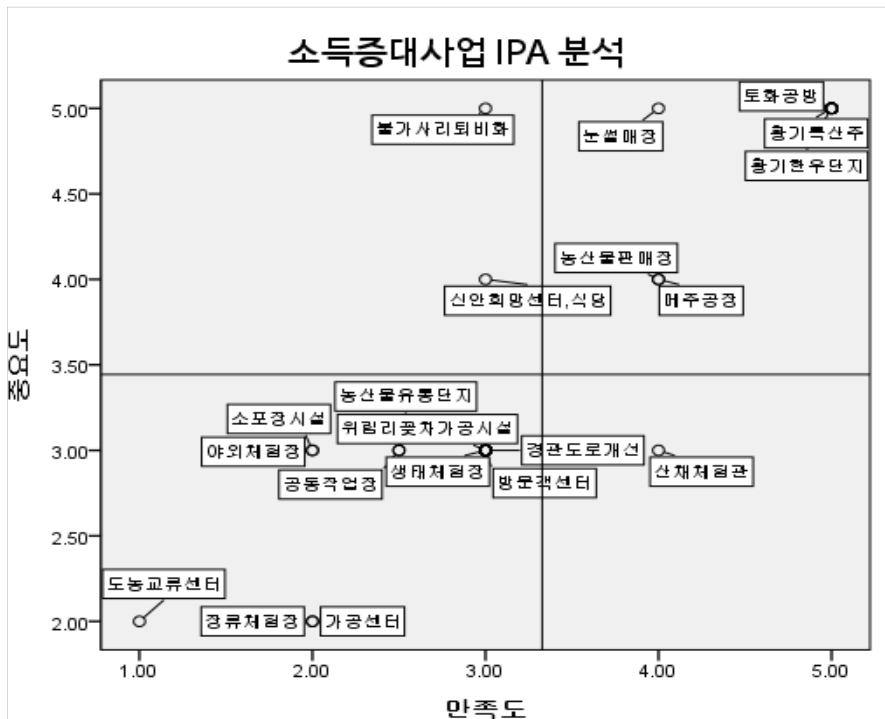


그림 19. 소득증대사업시설의 IPA분석결과

라. 경관개선사업의 IPA 분석 결과

- 경관개선사업의 27개 시설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중요도의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20과 같이 나타났음.
- IPA 분석결과 27개의 시설 중 5개의 시설이 1사분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중점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2개로 분석되었음
-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아 점진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시설은 전체 표본 중 18개의 시설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그래프 상 중심점에 가까이 위치한 시설이 많아 약간의 관리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 위상에 따른 알맞은 관리전략이 요구됨.
- 과잉관리를 지양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2개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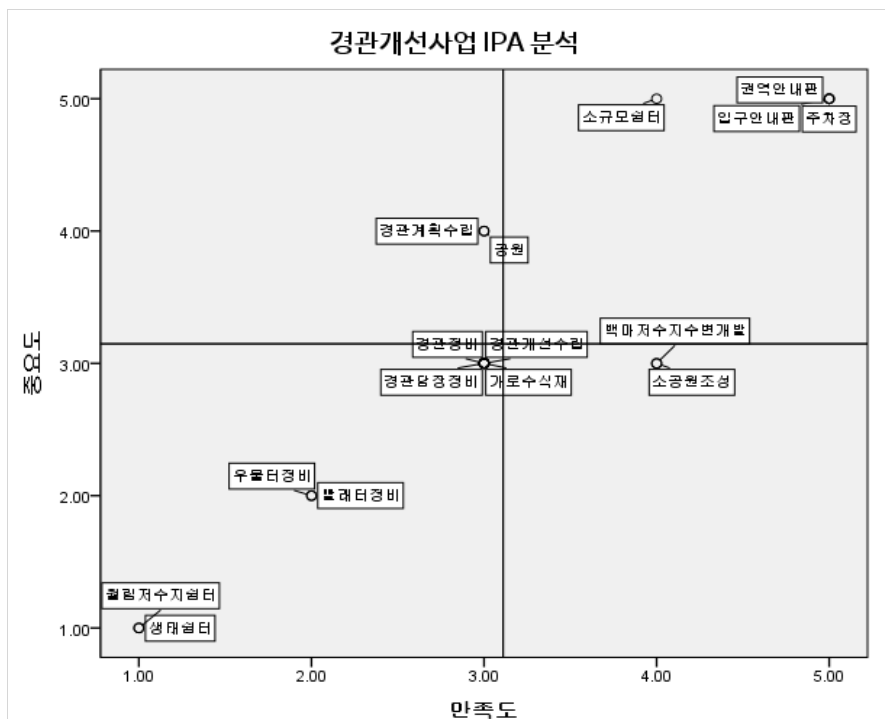


그림 20. 경관개선사업의 IPA 분석 결과

마. 대상지별 IPA 분석 결과

- IPA 분석결과 전체 연구대상지에 따라 해당 그래프에 위치하는 시설의 개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20과 같음.
- 지속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31개소, 중점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11개소, 관리우선순위가 낮거나 집중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83개소, 과잉관리를 지양해야 하는 시설은 5개소로 나타났음.
- 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의 정상화를 위한 관리전략은 지역별로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인 예로 G권역은 2사분면에 위치한 시설의 지속관리를 목표로 설정할 수 있으며, Y권역은 3사분면에 위치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중요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표 20 연구 대상지별 IPA분석 분류결과

연구 대상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G	2	2	1	0
D	1	1	2	2
B	2	3	4	1
B1	0	0	6	0
S	3	1	7	0
SW	0	0	8	0
Y	5	0	10	0
G1	2	1	8	0
C	3	0	2	0
H	5	0	5	2
G2	1	0	8	0
B2	3	2	3	0
S2	0	1	9	0
Y1	0	0	6	0
C2	4	0	4	0
합계	31	11	83	5

7. 지역개발사업 준공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가. 시설물 소유권 관련 명문화

- 본 연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바탕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준공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사후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 2017)을 살펴보면,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포괄보조금 제도에 포함된 사업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게 되어있음. 이 기준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사업명칭과 사업계획, 시설물의 표준단가와 설치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지역개발사업이 준공되면 원칙적으로 시·군이 관리 감독하게 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기준’ 제8조(시설물 관리 위탁 등)에 의해 마을 또는 단체에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임.
- 대부분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완료한 지역에서 사업 준공 이후 운영난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 준공 이후 소득사업 및 소득프로그램을 통한 안정적인 경상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임.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은 사업비를 통해 경상비를 확보할 수 있으나, 사업 준공 이후에는 동기준 11조의 ‘사업 활동비 등 지급 규정’에 의해 보조금에서 충당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유지비 관리 및 마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소득시설의 경우 매년 지원 받은 보조금의 2~5%를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이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한 것이 현실임.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사후관리 기간 10년 후 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피하여 사업 준공 후 기금을 납입 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지역개발사업 준공 이후 지자체가 시설물 운영·관리를 해당 마을에 위탁하며 작성하는 협약서에 소유권 항목을 기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의 사후관리 기간을 아래 표 21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표 21 중요재산관리 사후관리 기간 규정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사용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 이 항목은 지속적인 사업목적 추구를 위해 원활한 관리·운영 기간을 명시한 것이며,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이라 할 지라도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또한, 소유권 이전은 소득사업자가 원인행위를 통한 기금 납부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때,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해제한 후 소유권 양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임.
- 마을과 체결하는 위탁관리 협약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고, 관리 기간만 보낸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워 마을 주민 간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함.

나. 시·군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활성화

-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기준’ 제33조(활성화의 촉진) 2항에는 시장·군수는 지역개발사업의 효과를 제고 하거나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시군에 배정된 역량 강화사업비로 컨설팅을 실시하거나, 지방비를 통한 리모델링 및 용도 변경을 실시할 수 있음.

- 시·군역량강화사업은 1년 이내에 시·군 공무원 및 사업 준비지구의 마을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사업추진,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5천만 원, 1억 원, 1.억5천원을 차등 지원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은 1억 5천만원, 2017년은 2억, 2018년은 3억 이상으로 매년 사업비가 증가하는 추세임.
-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네거티브형식의 사업으로 자율성 및 창의성을 발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 지침상 지원제외 대상 사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추진 가능한 사업임. 특히 사업지원내용에 지역개발사업 완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농촌현장포럼 프로그램 운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 지역개발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사업(S/W) 지원이 가능함을 아래 표 22와 같이 명시하고 있음.

표 22 2017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내용

구분	내용	
	지원가능사업(예)	지원불가사업(예)
시·군 역량강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공무원 및 사업 준비지구의 마을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s/w 사업 지원 -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시·군 내 권역 간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 설치비용 지원 불가 -공무원, 주민, 발전협의회, 자문위원회 등 일체의 해외연수비용(교육비에 포함된 경우도 포함) 지원 불가 -준공지구의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경상비)는 지원 불가

- 지역개발사업 완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지역개발 소프트웨어사업 프로그램 지원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 지역개발사업 완료지역 활성화 방안

- 지역개발사업 완료 지역의 활성화는 단편적인 예산투입과 전문가 투입만으로 이뤄질 수 없는 현안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농촌 공동체의 면밀한 진단을 포함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역량단계별 추진체계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농림축산식품부 2017). 지역개발사업 완료 지역의 활성화도 이와 같은 개념에서 출발해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1) 마을 주민 및 리더의 역량 강화

- 지역개발사업 완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당사자이며 핵심주체인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이것은 곧 마을 내 공동체성 강화를 의미하며, 마을사업추진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강한 공동체적 유대감 형성을 의미함.
- 따라서 마을의 당사자인 주민이 마을사업의 추진실태와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스스로 도출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중간지원조직 등에서 이를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마을공동체 강화와 공동체성 평가는 공동체 역량진단 도구를 통한 방법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농촌 현장포럼 등 주민주도형 회의기법을 통한 방법이 있음.
- 역량진단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항목을 통해 응답을 이끌어내는 정량적인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응답자의 응답을 기대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간접측정방법은 4~5차례 정도의 포럼 및 워크숍을 통해 전체 마을의 참석 정도, 관심도, 참여도, 문제 인식 등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한계가 있음.

표 23 지역개발완료지구의 사업지속가능성 역량진단 절차(예)

구분	시·군	전문기관	마을
기획단계	완료 지역 활성화 계획 시행 및 통보	시, 군 지자체	각 권역별
사업 선정 단계	대상지 선정	전담전문가 배치, 공동체평가 프로그램 기획	마을 주민에게 전파
시행단계	프로그램 운영현황 점검	공동체평가 프로그램 추진	마을 주민 참여독려, 프로그램 수행
프로그램 사후관리 단계	모니터링 및 점검	모니터링 및 점검	주민 자체 문제 해결 노력 수행
이행 점검 단계	모니터링 및 점검	주민주도 프로그램 및 사후 해결 노력 등 분석결과 취합	활성화 자구책 지속수행
결과보고 및 성과측정 단계	평가보고서 검토 및 분석	프로그램 추진 결과보고서 및 의견 제출	활성화 자구책 지속수행
평가 및 환류 단계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결과 통보	평가결과 대응 방안 논의	평가결과 대응책 마련
신규사업 기획 및 편성	공동체 진단결과에 따른 추가 역량 강화 및 컨설팅사업 편성		

2) 전문 기업 수준의 경제기반 확보

-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서 관리 인원,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이 명확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것은 운영 노하우 부족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소득사업을 안정적이며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경제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시·군은 중간지원조직과 협약서 및 관련 규정 등을 명문화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경영 컨설팅 기관에 의뢰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3) 지속적인 경영, 운영 마케팅 실시

- 지역개발사업 준공지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 농촌 지역에서는 고객의 니즈, 최신 트렌드의 전파가 늦어 시장 파급력과 타당성을 갖춘 프로그램을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로 소비자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음.
- 이것은 해당 지역이 가진 자원 및 특산물의 매력 성이 떨어진다는 것보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가공하여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지 못하는 점이 크게 작용함.
-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시행하는 소득사업 내에서 최신 소비 경향이, 고객의 니즈(needs) 또는 원츠(wants)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및 어메니티 제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시·군에서는 필요에 따라 시·군 역량 강화사업을 활용하여, 체험 등의 어메니티 프로그램은 운영마케팅 컨설팅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먹거리 서비스 등은 지역대학 등에 자문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마을에서는 소비자 트렌드, 시장분석 전문가 등을 지속적으로 초청하여 철저한 시장분석과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시·군 중간 지원조직이 있다면 해당 기관을 이용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농식품부에서 추진중인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임(농림축산식품부 2017).
- 표 24와 같이 사업 대상자도 개별, 법인 경영체로 구분되어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보조금을 통해 조직된 소득사업자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자부담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해결해야 함.
- 또한, 부서간 칸막이로 인하여 유사한 형태의 중복사업 편성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지원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기준마련도 필요함.

표 2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구분		지원자격
법인 경영 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 경영체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 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사업시행지침서(2017)

4) 시설물 운영 주체 변경을 통한 활용도 제고 측면

-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이 운영악화 등의 문제로 유희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운영 주체를 변경하여 시설의 용도 변경 및 타 용도로의 변경을 추진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준공되면 해당 마을 또는 영농조합법인과 운영 관리 위탁협약을 체결하는데, 협약서의 운영관리 조항에 근거하여 시·군에서 운영권을 회수하여 운영 주체를 변경하고 이를 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농림축산식품부, 2017).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귀촌자의 입식 숙소, 사회적기업 및 농촌 마을 지원센터의 입주 등 수요가 있을 경우 타 용도로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 마을(권역) 발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운영이 부진하여 시·군이 운영권을 회수하여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사업이 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 기관과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운영권 회수 등의 운영 주체 변경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마을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함.

5) 부진지구의 책임규정 마련

- 지역개발사업 완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대상마을에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이거나 회생의 의지가 없거나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군에서는 점검 후 해당 유형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에 시·군에서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농림축산식품부 2016).
- 시·군에서 지역개발사업 완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마을 주민들의 참여저조, 관심 부족, 갈등상황 등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시·군에서는 사업추진 타당성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마을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 사업 운영권을 회수하였을 때 시·군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이 월등히 앞설 것이라는 판단이 확보된다면 과감하게 관련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타목적으로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거나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다만, 이러한 결정은 관련 분야의 역량을 갖춘 독립적인 기관에 사업성, 경제성 등의 종합적인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충분히 분석한 다음 내릴 필요가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투자하여 마을 주민과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25 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평가 및 정상화절차(예)

구분	시·군	전문기관	마을
기획단계	활성화 평가결과 통보 및 행정조치	행정조치 대응방 안 논의 (현장포럼 등)	행정조치에 따른 자구책 마련
활성화 대책 수행단계	모니터링 및 점검	모니터링 및 점검	행정조치에 대응 방안 수행 (주민주도 노력)
부진지구 활성화 1차 평가	행정조치 대응결 과 평가 및 통보	행정조치 대응방 안 논의 (현장포럼 등)	평가결과에 따른 자구책 마련
활성화 대책 수행 단계	모니터링 및 점검	모니터링 및 점검	행정조치에 대응 방안 수행 (주민주도 노력)
부진지구 활성화 2차 평가	평가위원회를 통 한 평가 및 결과 통보	평가결과 대응논의	평가결과 대응논의
평가 및 후속조치 단계	각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	유형별 적정 운 영계획 수립	평가 대응
재활성화 단계	시설물 활용도 제 고	사후관리 및 모 니터링	활성화 수행

IV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역의 현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연구대상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역의 운영 유형을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휴먼웨어사업으로 구분하였고 충청남북도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 수집된 자료는 기초통계분석과 양적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현안을 도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제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음.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하드웨어사업은 기초생활기반사업, 소득증대사업, 경관개선사업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음. 세부 사업 유형별로 소득증대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기초생활기반사업, 경관개선사업 순으로 사업이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②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기반 시설 사업은 준공 이후에도 대부분 운영되고 있었으나, 체계적인 운영규정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③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소득시설도 대부분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소득창출이라는 시설특성상 꾸준히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 일부 조사되었음. 또한, 명확한 운영규정을 통해 관리되어야 할 소득시설의 경우 운영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유무 여부 확인도 되지 않을 정도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었음.
 - ④ 지역경관개선사업은 경관개선과 생태보존을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준공이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많았음. 경관개선 사업이 가로정비, 지붕정비, 담장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관리규정, 책임자 등이 불분명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음. 주민 스스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경관개선과 보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⑤ 지역공동체활동을 분석한 결과, 주로 많이 조사되는 공동체 프로그램은 ‘효 문화 증진’ 과 ‘마을화합’ 을 위한 프로그램이 조사되었음.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지역 특성상 ‘경로잔치’, ‘대동계’ 활동을 통해 노인공경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됨.
- ⑥ 농촌지역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중인 기간에는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지만,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는 운영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조직구성과 운영 등 주민 스스로 권역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음
- ⑦ 사무장 및 운영위원장 면담 결과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정주여건등이 향상되고 지역소득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하지만 이것은 사업예산 투입으로 인한 잠재적 기대감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준공이후의 지속성 부분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업준공 이후에 지속적인 운영 기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유치, 시설물 이용, 방문객 확보 등의 프로그램 개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⑧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IPA 분석 결과 시설별, 지역별 차등화된 관리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소득증대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경우 집중관리를 통한 중요도 및 만족도 증진전략이 요구되며, 시설물 관리전략은 지역별 현황에 따라 달리 수립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⑨ 지역개발사업 준공지역에 당면한 현안 중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인력’ 와 ‘경상비’ 문제임. 경상비의 경우 체험휴양마을의 경우 ‘사무장’ 지원제도를 통해 인력의 인건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것은 일정수준의 실적을 확보한 대상지별로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현실과 뒤떨어진 금액이 보조되고 있는 실정임.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개발사업 준공지역의 정상화를 위해 1~2년간 사무장 운영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인력’ 문제의 경우 해당 권역에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일자리 마련과 빈집을 활용한 정주환경 제공 등의 복합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귀농귀촌을 장려하거나 젊은 인구의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⑩ 지역개발사업 준공지역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군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예산 지원과 프로그램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회생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위탁운영 협약을 파기하고 운영권을 시·군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음. 단, 이 경우 지역주민의 반발 및 행정기관과의 갈등발생 소지가 다분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중간지원조직 활용하여 면밀한 지역 진단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운영권을 회수하고 시·군 직영운영 또는 제3자의 위탁운영을 통해 정상화에 성공한 타 지역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지역주민과 상생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V 참고문헌

1. 강계원(1970), “도시화에 따른 주변 농촌 지역의 개발 방향” 도시문제, 5 (3).
2. 강영은(2012), “한국농촌 경관 변천 특성 연구: 1950년대 이후 농촌개발사업의 경관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고미석·박중춘·박충생·정좌용·황홍도·김상대(1987), “복합영농의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서부경남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연구소보, 21(1).
4. 고영구(2010), “이천시 서경 권역의 특성분석과 개발방향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사례로,” 한국지역경제연구소, 15.
5. 고영길(2008), “농촌관광사업 지원제도 연구 : 강원도 신활력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6. 권지윤(2015), “농촌마을 유형별 마을개발 역량교육 요구 분석,” 공주대학교 대학원, 지역사회개발학과, 석사학위논문.
7. 권태영(2006), “분산지역 및 농촌 마을 하수처리를 위한 자연정화 고도처리 공법개발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지역건설공학과, 박사학위과정.
8. 김강섭·이상정(2004),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변천 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6(3)
9. 김경희·오대민·정충섭(2017), “농촌 지역사회개발의 학습 단계와 주민역량 강화, 농촌지도와 개발,” 24(1).
10. 김도덕(201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만족도 분석 : 곡성군 목화골권역과 광양시 도선 국사 권역을 사례로,”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11. 김동기(2011), “비도시지역 재생의 성공 요인 분석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업 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김두순·김성록·(2013),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업무 중요도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20(4), 937-952.
 13. 김보미(2015), “감성어휘를 활용한 농촌관광 이미지 측정척도 개발,” 대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 박사학위논문.
 14. 김선영(2017),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과를 내는 농촌마을 리더에 관한 연구 : 사업추진 및 운영상 발생하는 갈등문제해결 중심,”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인사·조직 전공) 석사학위논문.
 15. 김성수(1987), “농촌교육과 기관 간 협동의 발전 방향,” 직업교육대학원, 6(1).
 16. 김승근(2005),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 충북 감곡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7(3)
 17. 김영주·최병한·조래청·최영완·김윤식(2014), 농촌계획, 20(2), 139-150
 18. 김영택(2014), “농촌 마을 유형별 발전단계 설정을 위한 구분지표체계 개발”,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역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박사학위논문.
 19. 김인환(2009), “농촌관광사업 추진 주체의 파트너십 및 갈등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 김재원(201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있어 주민참여 실태와 성과에 관한 연구, 전남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 19, 1(64)11-22.
 21. 김정섭· 박경철· 송미령(2006). “국외의 농촌지역사회개발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김종선(2014),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혁신,” 과학기술정책, 195, 24-36.
 23. 김종안· 김진희· 김가영· 이소진(2015), “농업·농촌자원 활용한 서비스산업 경영체의 비즈니스 모델 진단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 30, (6), 387-409.

24. 김주숙·김은영(2003), “도,농 복합시 농촌주민의 갈등요인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3(1).
25. 김주현·장명준·조덕호(201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귀농정착자들의 귀농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경상북도 상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지 역개발학회지, 29(2).47-68.
26. 김태곤(2006), “일본의 새로운 농업생산조직,” 농업기술회보, 43(5), 18-20.
27. 김태구(201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협력적 계획과정과 계획효과의 영향구 조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지역개발학과 박사학위논문.
28. 김형준(2009),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박물관 교육콘텐츠 활성화 방안,” 한국박 물관 교육학회, (3), 53-84.
29. 김환용(201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상하수도시설의 합리적 계획 방 향에 관한 기초적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8, 2(23), 62-71.
30. 농림수산식품부(2008). “농어촌경관계획수립 및 경관관리 업무편람,” 농림 수산식품부.
31. 농림수산식품부(2009), “제 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 역개발,” 농림축산식품부.
31. 농림축산식품부(2011),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추진 매뉴얼” 농림축산식품 부
32. 농림축산식품부(2013), “2012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33.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부.
34. 농림축산식품부(2014), “2014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 관계자 워크숍,” 22-30.
35. 농어촌연구원(2008), 농어촌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36. 농림축산식품부(2014),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37. 농림축산식품부(201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설명회 자료집,” 농림축산식품부
3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2016),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우수사례집,” 농림축산식품부.
39. 농림축산식품부(2017), “일반농산어촌 추진계획(안),” 농림축산식품부.
40. 농어촌공사(2017), “지역개발사업의 현황 및 전망,” 한국 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
41. 다무라 아키라(1987), “마을 만들기의 발상,” 소화, 2005, 제러미 리프킨, 『유러피언 드림 - 아메리칸 드림의 몰락과 세계의 미래』, 이원기.
42. 도종원(201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원시설 유형별 지역주민 만족도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3. 류선무(1998), “농촌공원의 자원별 관광농업 개발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학교, 환경원예학과, 박사학위논문.
44. 마상진(2014), “농업인의 교육 참여 실태와 관련 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6(3)
45. 민흥기(2014), “권역단위 농촌개발사업에서 취약성 평가를 위한 농촌마을사 회관계망 해석,”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6. 박경철·강마야(2015), “충남형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12).
47. 박동호(1960), “농촌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계획안(제1장~4장까지의 요약).” 경제학 월론, 8(1)
48. 박미옥(2017), “21세기 녹색혁명, 6차산업화 정책사례 연구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2), 111-144.

49. 박재철·허영미·정경숙(2013), “중국(中國) 관광농업(觀光農業)의 현황(現況) 및 발전(發展) 방향(方向), 내몽고(內蒙古) 자치구(自治區) 탁극탁현(托克托縣)을 중심(中心)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 19(4), 213-226.
50. 박창규·김혜영(2011). “지역주민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이 농촌 관광개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지리학회, 14(3), 419-436.
51. 박한식·황길식·김영택(200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내용분석과 시사점 : '04-'07년 사업대상지 사업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14(4), 121-128
52. 박한직(2008), “농촌관광마을 리더의 역량모델 개발”, 한양대학교 대학원, 관광학과, 박사학위논문.
53. 방배명(2012),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양평군의 팜스테이(Farm Stay)를 사례로,”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4. 배승종(2010), “DEMATEL 및 내용분석기법을 활용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정량적 분석”, 한국농촌계획학회, 서울대학교, 생명과학연구원. 16(3), 173-184.
55. 배태안(2014), “지역사회 애착도가 농촌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관광학과, 석사학위논문.
56. 서정호(2013), “구례군의 사례를 통하여 본 농촌 마을 만들기의 방향,” 농촌계획. 19(1).
57. 성주인·송미령(2004).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한국농경제연구원.
58. 성주인·박주영(2009), “농어촌 경관관리 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경관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96, P75
59. 소순열(2007), “농촌개발정책의 동향과 주민의 대응방향,” 전북대학교 농

업생명대학.

60. 손창연·김종구(2016),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경관요소 도출 및 평가,” 대한 토목학회논문집, 36(5)
61. 송정기(2002),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있어서 지역조직과 전통 성 재고,” 정치정보연구, 5(2), 175-5-207.
62. 송희중·김대식 (2013), “농촌마을단위 경관진단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9(3), 107-116.
63. 신현옥(2000), “국가개발정책과 농촌지역 여성조직에 관한 연구 : 1960-70년대 마을부녀회조직의 역할과 활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4. 안상유(2013), “농촌지역 마을만들기의 주민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학위논문.
65. 안종현(2012), “곡성군 관광시설의 개발사업에 대한 고찰, 지역사회개발연구소, 37(1).
66. 안중호(201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 만족도 영향 분석,”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67. 양용석(2007), “농촌관광 정책수립을 위한 입지성과 수익성 비교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8. 양원식(2012), “권역단위 소득사업의 추진유형과 성과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박사학위논문.
69. 여관현(2015), “주민학습과 실천을 통한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성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12), 69-92.
70. 오세익·이정환·양승룡·한건희·김종훈·최원목·정현돈·설광언·전원수·박영식·박동규·사공용(2010), “주요토론포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99-120.

71. 오효선(2012),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아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72. 원도연(2007), “농촌활성화전략과 그린투어리즘 사례연구,” 지역사회학, 9 (1).
73. 유선경(2012), “농업·농촌종합대책과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74. 유일·최혁라·김선명(2013),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1), 332-346.
75. 유희숙·유미정·김예승(2009),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브랜드 활용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7(2)
76. 윤치성(2009), “통합마케팅 개념을 활용한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 흥천 사랑말권역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77. 이기용(2015), “고령화시대 농촌마을 공동생활 공간 개발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78. 이동주(2007),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농촌마을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9. 이병준(201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 운영개선 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농업경제학, 석사학위논문 76-77.
80. 이봉훈(200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발전 방향,” 한국농공학회지, 전원과 자원, 47(4).
81. 이상연·심완섭(2015), “농촌지역 전통시장 디자인 개발을 통한 활성화 효과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3), 483-494.
82. 이상영·김미희·강방훈·손진(2014), “농촌 마을 생태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못형 습지 평가지표 개발,” 농촌지도와 개발, 21(4), 1125-1147.
83. 이선철(2007). “문화예술을 활용한 농촌 마을 활성화 전략”, 1-19.

84. 이성근·허주열(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참여 특성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3),45-70.
85. 이 수(2016), “중국 농촌 관광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관광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문화성향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6. 이영걸(2017), “마을 만들기 사례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 진안 원연장 마을, 완주 안덕마을, 임실 치즈마을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학위논문.
87. 이원재(2017), “농촌개발사업의 평가시스템개선에 관한 연구 메타평가 관점에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8. 이정원(2013) “농촌경관계획 및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9. 이주용(2011), “자율적 농어촌지역개발사업 평가지표 연구”, 건국대학교 지역 건설환경공학과, 박사학위논문.
90. 이채식·박덕병·박은식, 등(2007), “농촌청소년의 지역사회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래청소년학회지, 4(1)
91. 이현정(2016), “정보화 마을사업의 성공 요인이 실제 정보화 마을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기도 세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자치, 30(2).
91. 이희승(2004), “농촌지역 노인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2. 임윤건(2017), “고령화 사회의 농촌교회 활성화 방안,” 임윤건, 총신대학교 목회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3. 임채숙(2016), “지역 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 개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3)

94. 장우석·정남수(2016), “농촌 마을 공동체 유형에 따른 의식조사 : 충남 예산군을 대상으로,” 농촌계획, 19(2), 51-61
95. 장인경(201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박물관교육 : 철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장인경, 박물관교육연구, 8.
96. 정기석(2015) “귀농촌인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 정책지원 목적의 '농촌 유희시설 지역공유 사회적 경제 자산은행'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97. 정문수(2016), “사회적 경제에 입각한 지역발전 프로젝트 간 비교연구 : 전라북도 진안군과 완주군 사례의 레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 (2), 39-64.
98. 조성환(2005), “초고령 농촌지역 노인복지 욕구와 서비스 개선방안,” 강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9. 조영재(2015), “유럽의 농촌마을에서 무엇을 배울인가,” 열린충남, 69,124-130
100. 조은정(2010), “농촌마을내부도로의 현황분석 및 진단지표개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1. 조진상,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구례방광 권역 주민사업 소득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15(4), 109-124.
102. 주석균(1964),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계획: 농업구조 개선과 지역개발 계획,” 지방행정, 13(126), 34-44.
103. 채종훈(201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와 파급효과 분석,” 채종훈,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4. 최수명·리신호·김기성·황한철·김대식·김영주·정남수(2011), 농촌계획학, 동명사.
105. 최영완·김영주(2012), “농촌공간의 구조적 특성에 바탕으로 한 어메니티 자원 : 분류체계 재정,” 농촌계획,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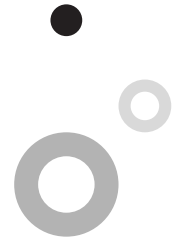
106. 최영완·박정원·윤용철·김영주(2011), “지역 유형을 고려한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주민평가 및 개선방안,” 농업생명과학연구, 45(6).
107. 최유나(2016), “농촌공간 및 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8. 한국농어촌공사(20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별 참여 현황.” 농촌개발처.
109. 한봉석(2008) “1950년대 말 농촌지도의 한 사례,” 역사문제연구, (19), 85-137
110. 한석종(2012),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고려한 도·농 복합형 마을의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1. 황길식(2005), “농촌관광체험이 농촌어메니티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2. 황영섭(2014),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지역 리더로서 사무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연구,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사무장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3. Andersson, A., Hojgard, S., & Rabinowicz, E.(2017). Evaluation of results and adaptation of EU rural development programmes. *Journal of Land Use Policy*, 67, 298-314.
114. Barragan-Ocana, A. & del-Valle-Rivera, M. C. (2016). Rur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the use of biofertilizers in agriculture: An alternative for underdeveloped countries? *Technology in Society*, 46, 90-99.
115. Bjarstig, T., & Sandstrom, C. (2017).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Swedish rural context-A policy tool for the authorities to achieve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Journal of Rural Studies*, 49, 58-68.
116. Cavaye, J.(2006). Understanding community development. Cavaye Co

mmunity Development, 1–34.

117. Dao, M. Q. (2009). Poverty, income distribution, and agriculture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Studies*, 36(2), 168–183.
118. Ellis, F., & Biggs, S.(2001). Evolving themes in rural development 1950s–2000s. *Development Policy Review*, 19(4), 437–448.
119. Edhlund, B. (2011). *Nvivo 10 Essentials*. MI: Grand Rapids.
120. Friedman, J. & Weaver, C. (1979). *Territory and function: The evolution of regional planning*. London: E. Arnold.
121. Hashemi, N., & Ghaffary, G. (2017). A proposed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index (SRDI): Lessons from Hajij village, Iran. *Tourism Management*, 59, 130–138
122. Ibranim, M. A., Dorina, M., & Abdelrazek, I.(2013). How rural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animal production) can use projects benefits for improving the economics states of farmers.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8, 484–489. Koopmans, M. E., Rogge, E., Mettepenning, E., Knickel, K., & Sumame, S.(2017). The role of multi-actor governance in aligning farm modernization and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Journal of Rural Studies*, 1, 1–11.
123. Landini, F., Vargas, G., Bianqui, V., Rebole, M.I. M., & Martinez, M.(2017). Contributions to group work and to the management of collective processes in extension and rural development. *Journal of Rural Studies*, 56, 143–155.
124. Lopez, M., & Pastor, R.(2015). Development in rural areas through capacity building and education for business.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97, 1882–1888.
125. Martín-López, B., & Montes, C.(2015). Restoring the human capacity

for conserving biodiversity: A social–ecological approach. *Journal of Sustain Sciences*. 10, 699–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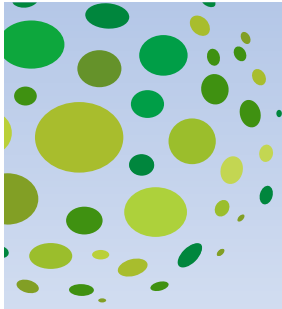
126. Menconi, M. E., Grohmann, D., & Mancinelli, C. (2017). European farmers and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experiences to optimize rural development. *Journal of Land Use Policy*, 60, 1–11.
127. Toader, M., & Roman, G. V.(2015). Family farming–Rexamples for rural communities development.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Sciences Proceedings*, 6, 89–94.
128. Woods, M. (2005). *Rural geography: Processes, responses and experiences in rural restructuring*. London: SAGE Publications.



충남 농촌활성화지원센터

2017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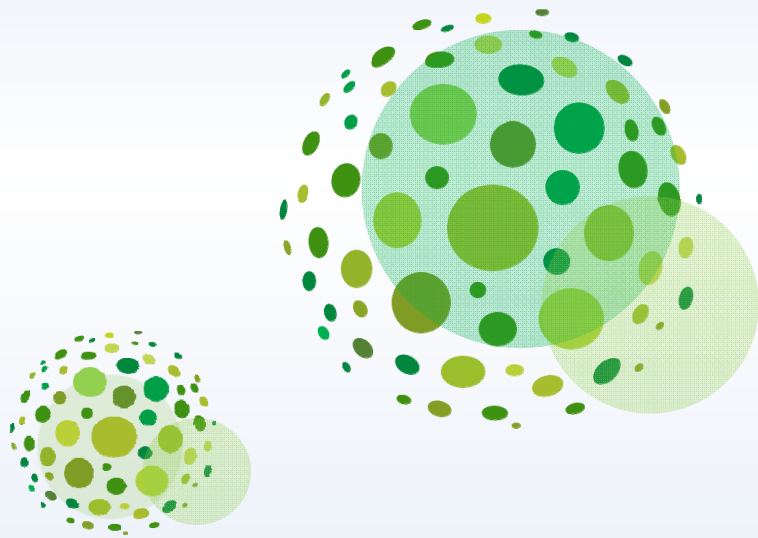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중간지원조직 역할 정립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The Rural Revitalization Support Center of Chungcheongnamdo



목 차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범위
3. 연구대상과 방법

II. 이론적 고찰

1. 마을만들기와 중간지원조직
2. 선행연구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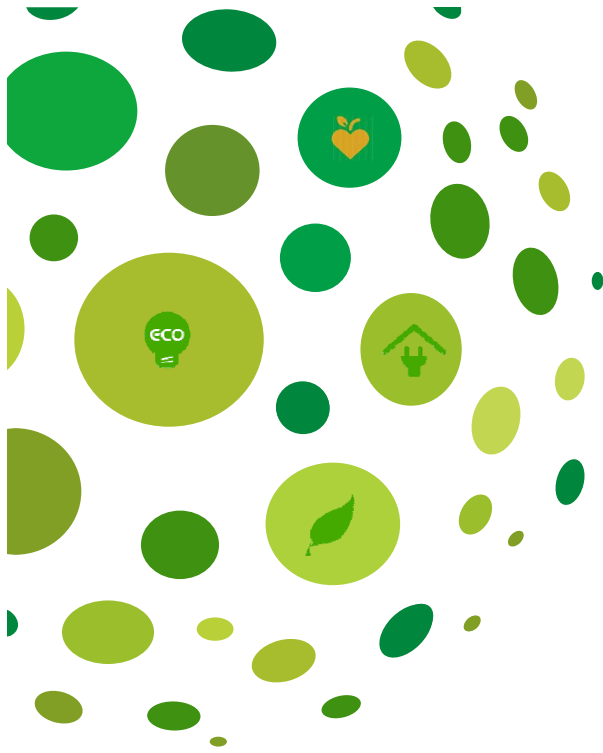
1. 자료수집
2. 연구절차
3. 분석

IV. 연구결과

1. 문헌조사 결과
2. 워크숍 결과
3. 포커스 집단 면담 분석 결과

V. 결론

- V. 결론



I. 서론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배경과 목적

- 2012년 하반기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중간지원조직’이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지원을 통해 기초적 운영기반을 형성하거나 자생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 과정에서 조직된 이후 현재까지 조직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 지역의 독자적인 자치조례나 정부부처의 공공지원사업 사업지침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활동하는 단체도 있음
-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중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개별단체들은 대응 과제 등도 다양한데, 지역 특성과 설립경위, 정책현안 등에 따라 차별화된 상황적 역할과 위상을 부여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직의 가치와 소명, 그리고 운영방식 또한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
-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개별 단체들은 마을 만들기의 중간 영역, 즉 행정과 민간의 중간지점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 공간을 가꿔나가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늘 강조되어 왔지만, 이에 비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자료는 매우 드물며, 합의된 개념정의도 찾기 어려움
- 농촌개발 관련 중간지원조직 연구를 통해 광역에 존재하는 중간지원조직 간의 역할을 정리하고, 광역 조직과 기초단위의 조직 간의 역할도 정리해보고자 함



1. 서론

2. 연구내용과 범위

연구내용

-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을 정리하고,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을 정리
- 이론적 고찰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마을만들기와 중간지원조직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마을만들기 사례에 관한 연구, 중간지원조직 역할, 시사점을 정리
- 연구방법
 - 자료수집과 연구절차, 분석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
- 연구결과
 - 문헌조사결과, 워크숍 결과(계획), 워크숍 결과(진행), 워크숍 결과(결과), 포커스 집단 면담 분석 결과를 정리함
- 결론
 - 결론, 제언을 정리함

연구범위

- 내용: 충청남도 내 광역 및 기초 마을만들기 관련 중간지원조직
- 시간: 2017년 5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



1. 서론

3. 연구대상과 방법

연구대상

- (워크숍)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된 광역 및 기초단위의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모여 워크숍을 진행함
- (FGI) 광역 혹은 기초단위에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에 근무해 본 사람 중에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 활동이나 발표회 등을 경험 해 온 전문가와 충청남도 농촌마을지원과 마을가꾸기팀 구성원 등을 인터뷰 함

연구방법

- 마을 만들기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문헌조사, 포커스 집단 워크숍, 포커스 집단 면담 분석을 통해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검토함
 - 문헌조사를 통해 충남 도내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와 사례를 분석함
 - 포커스 그룹 워크숍을 통해 충남 도내의 중간지원조직의 정의, 장 단점, 발전방향, 광역과 시군 센터 역할 구분, 협력 방안을 정리함
 -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중간지원조직 관련 전문가들의 집중 인터뷰를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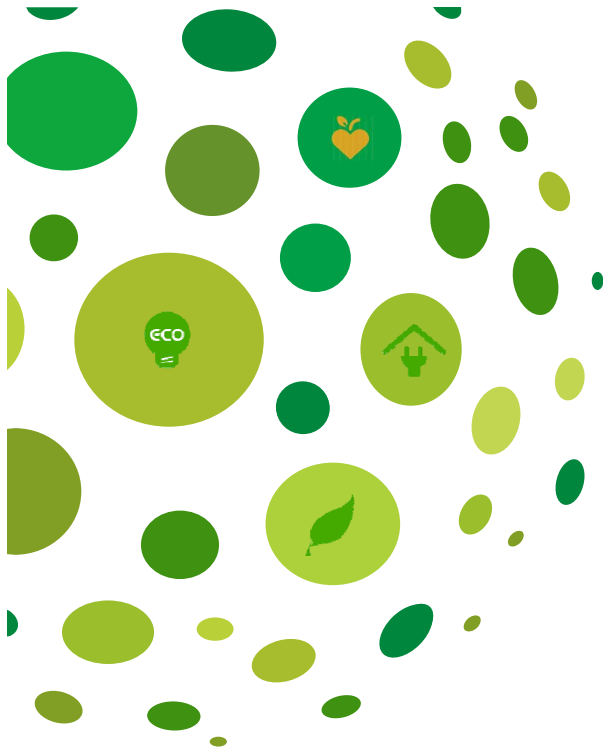
〈문헌조사〉



〈워크숍〉



〈인터뷰〉



II. 이론적 고찰

II. 이론적 고찰

1. 마을 만들기와 중간지원조직

마을 만들기

- 마을 만들기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 마을 환경의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 간의 관계와 활동을 창조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생활환경의 문제점을 주민이 함께 해결하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련의 활동(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조, 2013)
- 마을 만들기는 ‘삶터 가꾸기, 공동체 이루기 등의 사람 만들기’라고 설명하기도 함. 즉, 일상 주민을 주민 스스로가 가꾸고 지역사회 문제를 모색하여 일상생활을 개선하여 가는 과정임. 마을의 공동체를 조직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주민활동을 통하여 공동체를 조직하여 지역성,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 이웃과의 유대감을 구축하여 공동체를 형성해 나감. 개인주의와 소외를 극복하여 이웃과 함께 사회의 문제를 모색해 나가는 새로운 민주시민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임(박은아, 2016)
- 한국사회에서 마을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과 시도는 1990년대 도시 지역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음. 시민 사회가 대중적 소통과 조직화로부터 멀어졌다는 성찰 속에서 전환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역과 마을이 부각되면서 풀뿌리 운동과 마을공동체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음
- 운동적 차원에서 머물렀던 마을 만들기가 정부정책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분권-분산 정책을 적극 실시하면서부터임. 행정자치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건설교통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서 관련 사업들을 실시하였음(구경하, 2015)



II. 이론적 고찰

1. 마을 만들기와 중간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 i

- 중간지원조직은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에이전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임 (지식경제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으로는 공설공영, 공설민영, 민설민영의 형태로 분류하고 있음. 공설공영은 행정기관의 시설로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고 전부 세금으로 운영하고, 공설민영은 시설은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위탁비나 조성비 등으로 민간단체나 NPO가 운영을 담당하며, 민설민영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함(이자성, 2011)
- 중간지원조직은 NPO(또는 NGO)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NPO와 NPO, NPO와 행정기관, 기업 그리고 주민 사이에 중개자 역할도 하는 조직을 지칭함. 일본에는 2007년 기준 288개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됨.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네트워킹 및 교류촉진, 정보수집 및 제공 기능, 상담 및 컨설팅 기능, 조사 연구 기능, 인재 육성 및 연수 기능, 활동 지원 및 조성 기능, 정책 제안 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음(강내영, 2008)
- 영국에서는 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이라 불리는 중간조직들이 활성화되어 있음. 다른 명칭으로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조직(infrastructure Organization) 등으로 사용됨



II. 이론적 고찰

1. 마을 만들기와 중간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 ii

- 캐나다에서는 지역사회 미래 발전 공사(community Future Development Corporation)란 이름으로 전국에 268개가 설립되어 있기도 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 ‘중간조직’이라는 위상적 특성과 ‘지원조직’이라는 기능적 특성을 가진 조직임.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주체 또는 조직 사이에 위치하는 제3의 조직으로서, 그 존재의 근거를 각 주체·조직의 필요성과 서로의 공유된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고, 각 주체들을 매개·연계하며, 이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성·중재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김태영, 2016)
- 지역사회의 자립, 공생, 협력을 목표로 행정과 민간 사이의 중재와 민간과 민간 사이의 협력과 조정을 하며 부족한 민간의 역량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조직(임경수, 2013)



IV. 연구결과

1. 마을 만들기와 중간지원조직

나라별 중간지원조직(기구) - i

- **[미국]** 인프라스트럭처 조직(Infrastructure Organization), 재단(Fund), 인디펜던트섹터(Independent Sector) - 회계담당 인재의 필요성에서 시작하여, 경영체계의 개선과 활동에 대한 전문화가 요구됨 → NPO의 활동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중간지원조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 **[영국]** IO, 엠브렐러 조직(Umbrella Organization), 로컬 디벨롭먼트 에이전시(Local Development Agency) -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영국 정부에서 담당 해 줄 수 있는 주체로 볼런터리 커뮤니티섹터(Voluntary & Community Sector: VCS)를 내세움. 지역의 주요 공공서비스 제공 및 핵심 역할이 지역의 VCS에 위임됨 → 정부나 지방행정, VCS 간의 네트워킹 및 커뮤니케이션을 조율해 줄 수 있는 중개자인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됨(전국사회서비스협력회). 이후 이들 기관은 정부와 시민섹터 간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 내 구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에서 인재육성이나 전문가 매칭, 자금조달 등의 활동을 지원해주면서 VCS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됨
- **[일본]** 우리나라의 중간지원조직의 보편적 의미의 용어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은 일본에서 도입됨. MSO(Management Support Organization) - 중간지원조직이 발달한 계기는 NPO법의 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시민사회에서 수많은 볼런티어 그룹들이 등장하게 됨. 이는 지역 풀뿌리 단체들이 급성장하게 되었으며, 주민자치, 지역자치에도 적극 참여하게 됨.



IV. 연구결과

1. 마을 만들기와 중간지원조직

나라별 중간지원조직(기구) - ii

- [한국]** 2000년대 ‘고용 없는 성장’의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 국가가 전담해왔던 역할들을 시민 섹터로 이양함으로써, 생산 및 공급이 공존하는 사회적 경제영역과 비화폐경제시장을 새롭게 형성하는 방안이 실행됨 → 사회적기업이나 CB 등의 민간단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마을 개발 분야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2008년부터 현재까지 광역 및 시·군의 마을 만들기 조직은 40여 개 이상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2013년에 9개도 거점에 설치·운영 해 오고 있음(5년차)

〈국가별 중간지원조직의 등장배경 비교 분석〉

항목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용어	IO	IO, UO, LDA	중간지원조직, Intermediary, MSO	중간지원조직
도입년도	1800년대	1900년대	1990년대 말	2000년대
최초의 중간지원조직	Charities Information Bureau	전국사회 서비스협력회	NPO 서포트센터	
주요기능	비영리섹터 내 사회서비스 효율화 위한 NPO지원	정부-시민섹터 간 파트너십 구축, 인재육성	지역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사회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효율화 위한 SB 사업체 지원
활동영역	중앙, 광역	지역	지역	중앙, 광역

II. 이론적 고찰

1. 마을 만들기와 중간지원조직

마을 만들기와 중간지원조직 i

-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존의 도시계획이 전문가와 중앙정부 중심의 중앙 집중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아주 미미했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모토로 내걸고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내세우고 있음(김상민, 2016)
- 한국의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는 행정이 주도하여 거버넌스의 구조를 형성하고 참여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역시 공공부문과의 관계 속에 결정되는 특성을 지닌다고 진단함. 거버넌스 구조와 주체, 과정을 참여성, 자율성, 상호의존성 지표를 구성하여 분석한 사례연구에서 서울시 북촌, 광주시 마을 만들기 사업 모두 자율성 지표, 즉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 지표가 가장 취약하며 이는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박세훈 등, 2009)
- 관 중심의 단기성 사업이 많고 성과주의에 치우쳐 형식적 거버넌스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지역 주민보다 행정과 전문가, 조직화된 집단의 참여 비중이 높은 경향이 생겨남(정규호, 2012)
- 마을 만들기 사업 사례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마을 만들기가 주민의 참여와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유용한 장이 된다는 평가와 함께 이를 견인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행정 주도 기획의 거버넌스라는 한계가 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하면서 효능과 역량, 공동의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음



II. 이론적 고찰

1. 마을 만들기와 중간지원조직

마을 만들기와 중간지원조직 ii

- 주민 스스로가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나 행정·전문가 집단과의 협상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업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변인이라는 것을 밝혀냄(김도희 & 하상근, 2013)
-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를 통하여 주민의 참여자치 역량이 향상되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함(김상민, 2016)
- 공공부문은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진정한 주민 참여 거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지속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음(박세훈 등, 2009)
- 행정과 민간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설립은 마을 현장에 기반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등 기존 행정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대안 조직으로 주목받고 있음(박경철 등, 2016)
- 마을 만들기와 거버넌스 관련 논의들은 마을 만들기가 마을의 발전, 변화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함께 모색하는 주체가 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능성으로 전망하고 있음



II. 이론적 고찰

2. 선행연구

마을 만들기 사례에 관한 연구 i

- 도시계획 및 마을 만들기에서의 공공의 역할
 -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확대를 위한 요건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치구 도시계획 기능의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선정원, 2002)
 - 도시계획 행정을 주도하는 구청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에게 역할 및 문제점에 대한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도출(임현철, 2004)
 - 사업의 주도자 입장이 아닌 지원하는 입장으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외 주민조직 구성 지원 등의 추가 역할과 더불어 주민 갈등의 중재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여러 참여주체들의 역할과 개선방향에 대한 제시(박내규, 2012)
 - 서울시 마을 만들기 행정의 현 수준을 파악하고 국내외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으로 마을 만들기를 실행한 사례 조사를 통해 지원 제도의 필요조건을 분석(서울시, 2010)
 - 주민 참여가 도시 정비 및 재생 계획에 바람직한 도시 정비 효과를 위한 필수적 사안임을 감안하여 관련 이론의 정리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불합리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안병훈, 2009)



II. 이론적 고찰

2. 선행연구

마을 만들기 사례에 관한 연구 ii

- 추진 체계 관계 구도
 -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의 사업 주체별, 추진 주체별 분류 기준 및 특성을 제시(전원식 등, 2008)
 - 사업진행에 따른 단계별 주체의 변화와 세부 사업 간의 관계 구도를 알아보고 사업 간의 원활한 연계방법을 통하여 추진 주체의 관계 구도 특성을 검토(신중진 등, 2010)
 -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마을 만들기가 전국적인 주민운동으로 확대발전 할 수 있도록 생활의 터전 만들기 차원에서 마을 만들기 참여 주체별 역할을 정립(도선봉 등, 2009)



II. 이론적 고찰

2. 선행연구

중간지원조직 역할 i

-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마을 공동체의 성공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임(고광용, 2014; 고재경·주정현, 2012, 2014;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5; 최인수 등, 2014; 김학실, 2014; 박태정, 2014; 이차희, 2014; 김현호, 2013; 최인수 외, 2014; 여관현, 2013; 정규호, 2012; 박종관, 2012; 최현선 등, 2012; 남원석 등, 2012; 이자성, 2010; 배응환, 2008; 우치다 유조, 2006)
- 유럽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대상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분석하여 중간지원 조직이 협력과 네트워킹, 정책지지 등의 역할을 통하여 성공적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보여주었음. 중간지원조직의 일반적 기능을 지원 서비스(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역량강화(특화된 기술, 전문성,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 옹호(전달 통로, 대변인, 정책, 환경, 법, 제도 개선 촉구), 조정(이해 관계자 간 자원 연결 코디네이터 역할), 자원 동원 및 네트워킹(교류 협력 촉진, 정보와 아이디어 공유, 공동의 활동 조직화 기회 제공, 네트워크 형성 지원), 정책 효과성 제고(단체 활동 평가 및 모니터링, 피드백 제공)(고재경 & 주정현, 2014)



II. 이론적 고찰

2. 선행연구

중간지원조직 역할 ii

- 중간지원조직을 중개자, 조정자, 역량 구축자로 구분하고 성북구에서 중간지원조직이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활동과 참여 및 정보 공유를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함(고광용, 2014)
- 마을교육프로그램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자기주도적 마을학습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마을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5)
- 장기적인 사업운영전략 컨설팅, 장기적인 홍보마케팅 전략, 공동사업 운영전략, 마을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촉진, 회계교육, 정책제안의 기능과 자문 및 현지조사의 역할 등을 해야 한다고 하였음(행정자치부, 2012)
- 광역 시·도별 사회적 기업 사업모델 발굴, 지역별 설명회·간담회 개최 실무지원,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모델 수익성, 시장성 등 사업화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 상시 컨설팅, 경영 일반, 노무 마케팅 등 분야별 경영 자문 및 컨설팅 지원, 재정 지원 사업 수행 기관 선정 심사 지원, 지역별 자원 연계 활성화, 지역별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근로자 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주장하였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II. 이론적 고찰

2. 선행연구

중간지원조직 역할 iii

- 개인과 조직의 역량강화, 물질적 자원 동원, 정보 및 지식 제공, 상호 지원을 위한 협력구조 제공, 다른 기구와의 가교 역할을 꼽았음(Brown & Kalegaonkar, 2002)
- 지역의 주요 이해당사자 참여, 결집, 지원, 서비스와 책임성 강화, 자원의 중개와 연계,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기능과 역할로 규정함(Blank et al., 2003)
- 조력자 및 공적 교육, 조정 및 역량 형성, 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조직화를 주장함(Briggis, 2002)
-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사회적경제 조사·교육·연구 및 개발, 사회적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경영지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교류 추진으로 분류함(송두범, 2014)
- 컨설턴트, 브로커, 조정자, 자원제공자가 필요함(Howard & Partners, 2007)



II. 이론적 고찰

2. 선행연구

세계 중간지원조직 사례 i

- EU 국가의 농촌개발정책(박덕병 등, 2008)
 - 농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주체로서 정부와 민간 사이에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발기구(development agency)가 필요함. 농촌개발은 그 과정이 어떻게 관리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민관협치기구로 개발기구가 있어, 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이러한 기구에 소속되어 농촌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지만, 촉진시며 주는 역할을 하여야 함. 스페인의 LEADER 프로그램이나 프랑스의 Pays나 독일의 Agentur는 모두 이러한 개발기구임
 - 농촌협치를 통한 농촌개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비위계화와 유연한 정부조직구조가 필수적임. 농촌협치를 통한 농촌개발정책은 기존의 정부조직의 효과적인 통제를 벗어나서 작동되고, 다양하고 상호통합된 네트워크 구성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 많아졌기 때문임. 주민참여를 통하여 정부조직이 주민들의 관점을 지향하게 만들고 이를 통하여 ‘활력 있는 지역공동체’와 ‘활력 있는 지역주민’이 농촌 개발사업 파트너가 되게 함
 - 농촌개발정책 시스템의 변화는 영국과 같이 사업자금은 정부 예산으로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형태의 농촌개발을 위한 공공법인조직(Non-Department Public Bodys)이 육성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하여 협치의 새로운 구조와 과정은 농촌개발위원회, 농촌개발기구, 직업훈련센터, 상공회의소, 창업지원사업소, 소규모 향토기업체, 경제적 파트너십 등과 같은 조직체들이 육성되어,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II. 이론적 고찰

2. 선행연구

세계 중간지원조직 사례 i

- EU 국가의 농촌개발정책 (박덕병 등, 2008) -이어서-
 - 관련 주체들은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사업의 계획, 실천, 평가에 지역주민이 참여하여야 할 것임. 주민 참여에 의한 주민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화려한 개발 계획서는 의미가 없는 것임
 - 농촌개발사업 단위사업 지구의 광역화를 통한 효과적인 자원동원과 상호경쟁을 유발시켜야 함. LEADER 프로그램의 사업지역이 전체인구의 40~60% 정도이고, 이 지역의 인구가 국가 전체인구 10~20%를 차지하고 있음. 미국의 EZ/EC 사업 지구가 1~1개의 카운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EU의 LEADER 프로그램은 인구 10만 정도의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프랑스에서 LEADER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Pays의 경우 인구 10만정도의 10여개 코뮌(commune)을 합한 지역을 사업지구로 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단위 지역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자원동원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농촌개발사업의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점을 강조한 것임



II. 이론적 고찰

2. 선행연구

세계 중간지원조직 사례 ii

- EU의 농촌개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박덕병·이민수, 2009)
 - 사업권역의 광역화를 통하여 자원동원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간 경쟁강화를 중시하였음. 유럽의 EU 집행위원회 LEADER 사업지역이 기존의 국민국가들 내에서 행정적인 경계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기 보다는 새로운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음. 그리하여 사업지역 선정에서 10만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음. 영국(England)의 20개 LEADER 사업지역에서는 사업지역이 1000km²의 면적과 평균인구가 5만 2천명이고, 세 개의 district(England의 행정구역 단위)가 함께하도록 하였으며, 때때로 군(counties) 행정 경계단위를 넘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음
 - 농촌개발기구 혹은 지역개발기구(Agency)가 필요함. 네트워크와 주민역량강화를 중시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농촌개발사업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주민과의 접촉을 통한 변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 따라서 이에 적합한 새로운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함



II. 이론적 고찰

2. 선행연구

세계 중간지원조직 사례 ii

- EU의 농촌개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박덕병·이민수, 2009)
 - 에이전시와 같은 농촌개발기구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잉글랜드 지역개발 에이전시(Regional Development Agency), 프랑스 빠이(Pays) 신디케이트, 독일 헷센주 ‘헷센 아젠투어’(Hessen Agentur) 등은 농촌개발 혹은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임. 별도의 기구가 없는 국가들도 기존의 LEADER 프로그램의 LAG를 개발기구로 활용하고 있음. 프랑스 지역단위에서 디아엑트(DIACT)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은 지방정부(코뮌, 코뮌 협의체), 광역단위 지방정부인 데파망트가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 권역으로 구성된 빠이권역(project territories)과 지역의 국립공원, 지역활동가조직(Local Action Group: LAG)이 있음
 - 어떤 형태의 에이전시를 만들 것인가임. EU에서는 LEADER 프로그램의 지역활동가조직(LAG)이 에이전시의 기본적인 모형이 됨
 - 에이전시 내의 의결기구(지역대표자)와 사업수행보(전문가)를 구분하여 시군단위 개발기구에서 농촌개발위원회(Committee)의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함. EU 국가의 사례를 보면, 기초 지자체 공무원, 기초의원, 지역각종 조직체나 취미클럽으로 구성된 40-80인으로 구성되어 개발사업에 대한 중요한 의결을 함(프랑스 빠이, 잉글랜드 지역개발 에이전시, 독일 아젠다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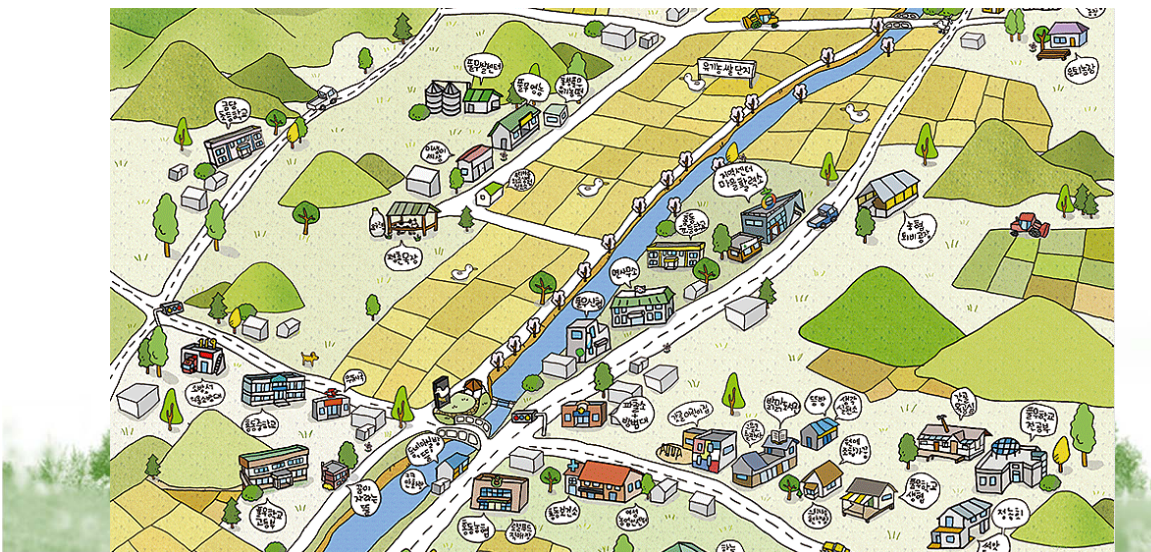
II. 이론적 고찰

2. 선행연구

농어촌지역개발전문가 직업명세서 분석

- 직업명세서(Occupational Specification) - 직무분석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업을 기초로 하고 있는 주요 직무의 소요특질,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인력 양성 실태 및 직무 활동 영역, 관련 직무군과의 관계 등을 기술한 직무 특성의 진술서로 농어촌개발컨설턴트의 직업 분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조건, 인력 양성 실태 및 취업 경로, 작업 환경 조건, 관련 직업과의 관계, 직업 기초 능력 수준 등을 분석하는 것
- (지역사회조사) 작업과정으로는 조사계획수립하기, 자원조사하기, 현황분석하기, 정책법령 분석하기가 이루어짐
- (지역개발계획) 개발계획수립하기, 실행계획수립하기, 환경개선계획수립하기, 경관계획하기가 이루어짐
- (지역경영관리) 마케팅 전략수립하기, 브랜드개발하기, 정보화 체계 구축하기, 지역주민교육하기, 운영관리조직 구성하기, 갈등관리하기가 이루어짐
- (지역산업활성화) 지역산업조사계획수립하기, 소득사업개발하기, 소득사업타당성분석하기, 체험프로그램개발하기가 이루어짐

출처: <김지인 외, 2014. DACUM기법을 활용한 농어촌지역개발전문가 직무분석연구. 관광경영연구, 18(4).>



II. 이론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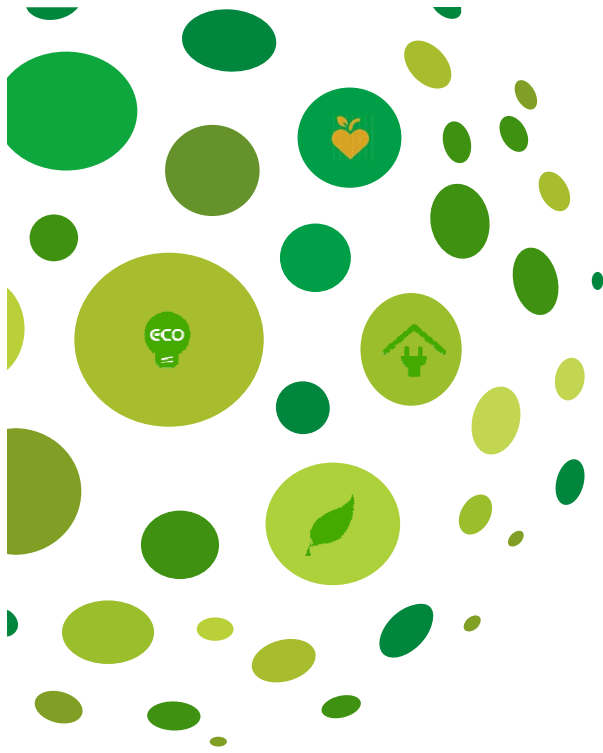
2. 선행연구

시사점

• 선행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중간지원조직 연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중간지원조직 거시적 방향에 관한 연구, 중간지원조직 전문가의 직업명세서 분석 등으로 나뉨
-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마을 공동체의 성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직임
-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사업지원 · 컨설팅 · 인재육성 · 조사 및 연구 · 홍보 및 정보제공 · 네트워크 · 재정지원 · 커뮤니티 지원 · 정책제안이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요소로는, 컨설턴트 · 브로커 · 조정자 · 자원제공자가 필요함
- 중간지원조직의 거시적 방향으로는, 중간지원조직(Agency) 구축 및 역할 강화, 지방정부 역할(regulation와 incentive 조화), 중간지원조직 사업 권역(평균 1,500km², 인구 5~12만 명)을 짊어
- 농어촌지역개발전문가의 직업명세서 분석을 보면, 지역사회조사 · 지역개발계획 · 지역경영관리 · 지역산업활성화 역할을 함





Ⅲ. 연구방법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 문헌조사
 - 자료 수집기간: 2017년 5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 수집된 자료: 연구에 활용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 및 사례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함
- 중간지원조직 워크숍
 - 워크숍 자료 수집기간: 2017년 9월 28일 10시~16시
 - 수집된 자료: 마을만들기지원센터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각 센터별 역할분석(강점, 약점 분석), 중간지원조직 발전 강화 방안,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광역 도 지원센터 역할 구분, 시군과 광역간 중간지원조직 협력 방안
- FGI
 - FGI 자료 수집기간: 2017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1월 17일까지
 - 수집된 자료: 인터뷰 과정에서 이루어진 면담의 녹음 내용이 기록된 필사본과 진행자가 면담 과정에서 작성한 현장노트임
 - 진행자가 사용한 인터뷰 지침을 근거로 전문가 별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소요시간은 약 120분~150분 사이였음
 - 인터뷰의 목적, 진행과정, 주요 질문, 그리고 시간 등에 대한 설명 후 인터뷰 시작과 함께 녹음도 동시에 진행됨을 알리고 주요 인터뷰 내용을 기록함
 - 진행자 외에도 필사자가 동행하여 면담자의 발언 중 놓치는 단어가 없도록 하였음
 - 인터뷰 후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 수집을 종료함. 인터뷰 질문이 끝날 때 마다 질문의 요지를 요약하였고, 인터뷰 종료 시 전체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음



III. 연구방법

2. 연구절차

- 기초 자료 수집
 - 중간지원조직의 정의와 역할, 기초자료 및 선행연구 검토
- 중간지원조직 워크숍
 - 중간지원조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워크숍을 진행
 - 2017년 9월 28일에 덕산 스포케슬 내 회의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중간지원조직 전문가와 회의 진행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근무자가 참여하였음
 - 중간지원조직 관련 근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강의와 농어촌퍼실리테이터가 진행한 중간지원조직 전반에 걸친 워크숍내용을 정리함
- 포커스 그룹 인터뷰
 - 중간지원조직 관련자를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 진행
 - 인터뷰를 위하여 Krueger & Casey(2000)가 제시한 질문방식을 수정하여 도입, 전환, 주요, 마무리 질문의 4가지 종류로 세분화 하여 구성함
- 종합
 - 광역 중간지원조직 간 역할 정리
 - 기초 중간지원조직과 광역 중간지원조직 간 역할 정리
 - 시사점 도출



III. 연구방법

2. 연구절차

① 중간지원조직 워크숍 상세

- 2017 시군 중간지원조직 협력 워크숍
 - 목적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활동 범위 및 기반 구축
 - 도 및 시군 센터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역할 분담을 통한 운영 성과 제고
 - 주요내용
 -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상상과 발전방향 논의
 - (강연)마을과 중간지원조직(60분)
 - (포럼)시·군 중간지원조직 간 역할 공유(60분)
 - (포럼)시·군 중간지원조직 업무 내용에 대한 고찰(60분)
 - (포럼)시·군 중간지원조직 간 업무 연계 방안 마련(60분)
 - (강연)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흐름(60분)



III. 연구방법

2. 연구절차

② 포커스 그룹 인터뷰 상세

• 인터뷰 절차

① 인터뷰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

- Krueger & Casey(2000)가 제시한 질문방식을 수정하여 ‘도입질문’, ‘전환질문’, ‘주 질문’, ‘마무리질문’의 4 종류로 세분화

② 인터뷰 실시 과정

- 사전준비: 자리배치, 개인별 선물, 녹음기 1대
- 연구목적 소개 시간: 연구자료로 쓰일 것을 설명하고 오디오 녹음 시작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③ 그룹 인터뷰 실시

- 면담 시 사용되는 용어나 질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명확하게 하고 선지식은 제공 되지 않음
- 각 주제에 대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독려함

- ✓ 도입질문(5분) -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함

“최근에 근무하면서 행복했던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 ✓ 전환질문(5분) - 연구를 주도하는 중요한 질문으로 대화를 유도함

“중간지원조직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 ✓ 주 질문(100분) - 연구를 추진해가는 질문으로 연구자는 면담자의 다양한 의견 도출과 핵심질문들에 대한 발언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넉넉한 시간을 할애 하도록 하고, 핵심 질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진행함

- ✓ 마무리질문(10분) - 관련 주제에 대한 토의에서 빠진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는지 연구의 목적을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여 확인함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해서 알아봐야 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혹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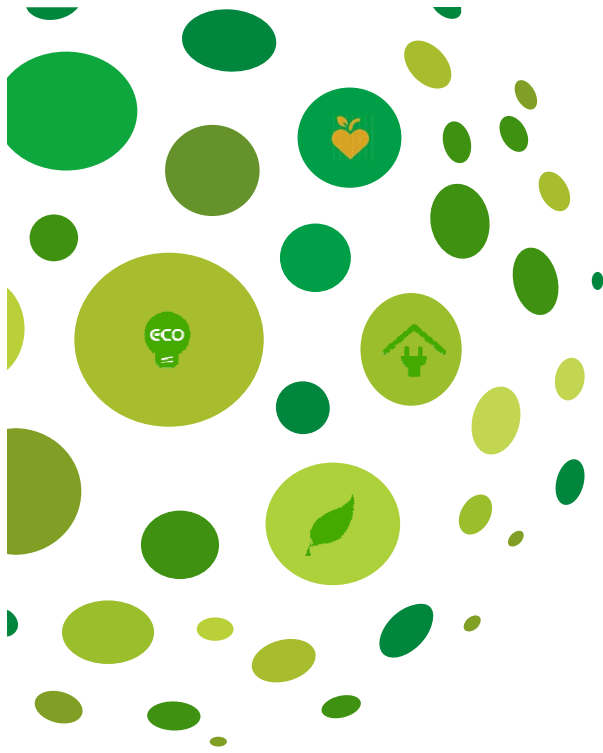
III. 연구방법

3. 분석

분석방법

- 워크숍 도출 결과 내용 분석은 질문과 참여자들의 의견이 붙어 있는 완성 시트를 매칭시켜 내용분석방법으로 수행되었음
- 인터뷰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을 중심으로 중심의미를 정리하여 하부 범주, 범주, 주제로 통합해 들어가는 전통적 내용분석방법 (conventional 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음. 인터뷰 내용의 분석 단위는 집단이었으며, debriefing 과정을 통해서 합의도출을 유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론적 틀은 근거이론 (grounded theory)의 지속적 비교방법 (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사용함
 - 전체 인터뷰를 함께 분석하는 방법 (cross-case interview analysis)을 사용함





IV. 연구결과

IV. 연구결과

1. 문헌조사 결과

충남 광역 중간지원조직 현황

- 충남의 마을만들기 업무 관련 광역 중간지원조직은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음
 -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충청남도 가 각 50%씩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2013년도에 설립되었음. 2012년도에 시범사업과 ‘농어촌활성화센터의 모델 정립’ 연구를 거쳐 ‘정책지원’, ‘지역인적자원 육성 및 관리’, ‘현장포럼 지원’, ‘정보교류’, ‘조사 및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의 6대 역할을 수행함
 - 충청남도청 >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 마을가꾸기팀 소속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살기 좋은 희망마을 지원 조례」 12조에 근거한 충청남도 100% 출연 방식으로 2016년 개소함. 기본 사업은 ‘소통과 홍보’, ‘조사와 분석’, ‘역량강화’, ‘협력과 연대’, ‘마을 동아리 육성’임
 - 충청남도청 >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 마을가꾸기팀 출연
(살기 좋은 희망마을 지원 조례 12조)
 - 충남연구원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수탁사업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수익사업(연구용역), 기타 민간경상보조사업



IV. 연구결과

1. 문헌조사 결과

충남 광역 중간지원조직 현황

- 충남 도내에 설치된 마을만들기 업무 관련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은 9개소임

* 논산시 지역공동체팀

- 블로그 blog.naver.com/gongdongche9721
- 밴드 band.us/band/66383622
- 사무실/메일 041-746-6491 / nonsanse365@gmail.com

*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밴드 band.us/@brmaeul
- 사무실/메일 041-934-1996 / brmaeul@gmail.com

* 서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블로그 blog.naver.com/sol41700
- 밴드 band.us/#!/band/62585076
- 사무실/메일 041-953-8152 / scmaewl16@gmail.com

* 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

- 블로그 blog.naver.com/asancb
- 홈페이지 www.asancb.kr
- 밴드 band.us/#!/band/55285667
- 사무실/메일 041-536-8638 / yoon651102@gmail.com

*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 블로그 blog.naver.com/yshap21
- 밴드 band.us/@yshap21
- 사무실/밴드 041-330-1278 / yshap21@naver.com

* 천안시 공동체지원센터

- 블로그 blog.naver.com/camaeul
- 홈페이지 cafe.naver.com/cheonanmaeul
- 밴드 band.us/#!/band/64307837
- 페이스북 www.facebook.com/camaeul/
- 사무실/밴드 041-415-1157 / camaeul@naver.com

* 청양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페이스북 www.facebook.com/cymaeul/
- 사무실/밴드 041-943-9911 / sbroh23@daum.net

* 홍성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홈페이지 hsmc.modoo.at/
- 사무실/밴드 041-635-1502 / ddd333@hanmail.net

* 태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IV. 연구결과

2. 워크숍 결과

계획

- 본 워크숍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활동 범위 및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 또한, 도 및 시·군 센터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역할 분담을 통한 운영 성과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참석대상은 시·군 중간지원조직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함
- ‘마을만들기와 중간지원조직’이란 주제로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4시간의 포럼진행 후 국외 중간지원조직의 흐름에 대한 강연을 기획함
- 포럼은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상생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했으며, 세부 기획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시·군 중간지원조직 간 역할 공유
 - 시·군 중간지원조직 업무 내용에 대한 고찰
 - 시·군 중간지원조직 간 업무 연계 방안 마련



IV. 연구결과

2. 워크숍 결과

진행

- 충청남도 시·군 중간지원조직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7년 9월 28일 「2017년도 시·군 중간지원조직 협력 워크숍」을 개최함
- 충청남도 시·군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어 있는 9개 시·군 중 보령시, 논산시,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등 5개의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함
-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최근 동향’에 대한 기초강연을 시작함
- ‘충남 중간지원조직 역할 및 발전방향 탐색’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함. 포럼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제를 다룸
 -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공유
 -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장·단점
 -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발전 방향 논의
 - 광역과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구분
 - 광역과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협력 방안 논의
- 끝으로 ‘국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흐름’에 대한 강연으로 워크숍을 마침



IV. 연구결과

2. 워크숍 결과

결과 i

- 먼저 중간지원조직(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함
- ‘주민과 소통하는 곳’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마을과 주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곳’,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력자’, ‘마을을 지원하는 민원소’ 라는 의견이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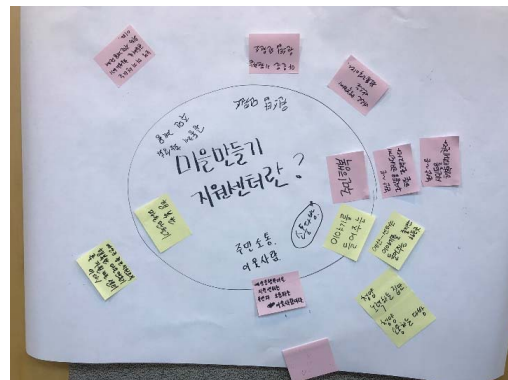
- 마을을 지원하는 ONE-STOP 민원소

- 마을을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
 -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곳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란?

-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 계몽단체
- 주민들을 하나되게 하는 조력자

- 주민과 소통하는 이웃 사람
 -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
 - 노력하는 집단
 - 소통하는 다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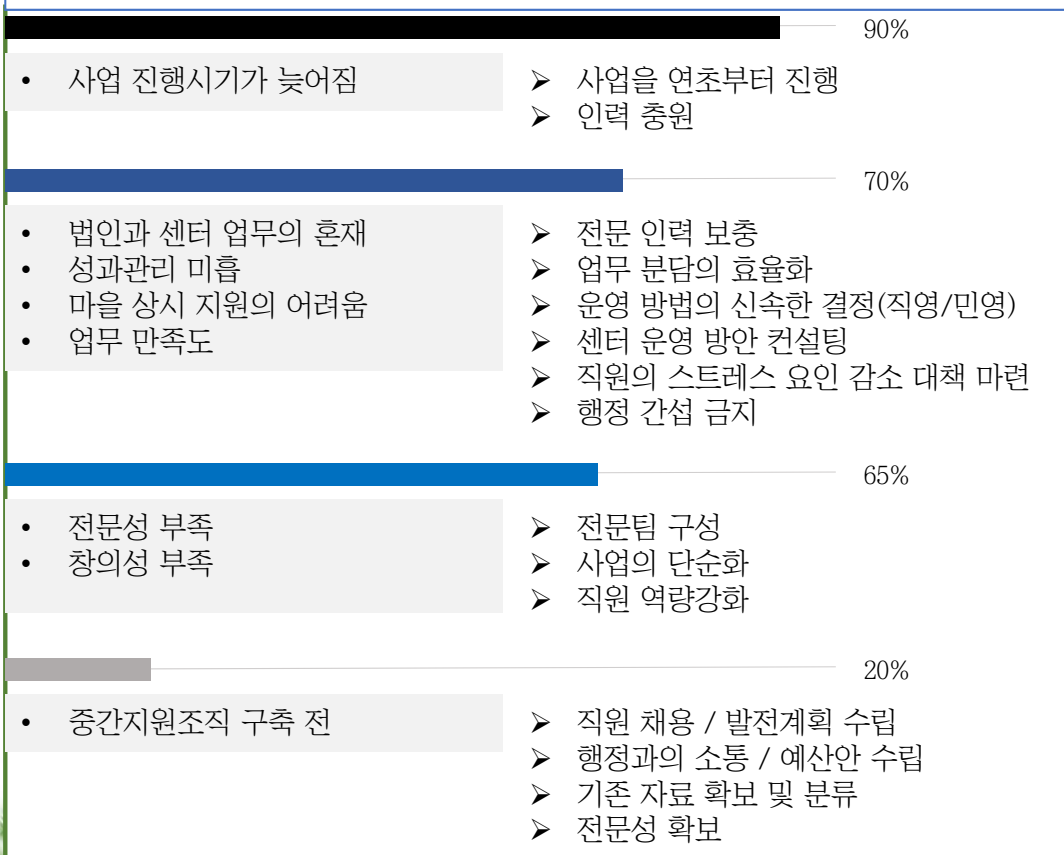


IV. 연구결과

2. 워크숍 결과

결과 ii

-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장단점을 분석·평가한 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함
-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장점으로는 ‘주민과의 소통’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았으며, ‘현장 밀착성’, ‘주민들의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사업의 창의성’, ‘마을 만들기 기회 제공’ 등의 의견이 도출됨
-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으며, ‘행정의 간섭’, ‘여비 지급 등의 처우’ 등의 의견이 도출됨
- 도출된 단점에 대해 점수를 책정하고 개선 및 강화 방안을 마련함



IV. 연구결과

2. 워크숍 결과

결과 iii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광역과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구분,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중간지원조직의 업무로는 크게 ‘조사·연구’,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공모사업’, ‘현장포럼 지원’ 등으로 나타남

주요기능	세부 업무 내용
조사·연구	마을 DB 조사, 마을지도
교육	마을 대학, 찾아가는 마을 만들기 교육, 협동조합 육성 교육, 창안 대학, 교육공동체 푸른 빛 고을 학교
컨설팅	마을 동아리 활동 지원, 축제 지원, 사업완료지구 사후관리, 행복마을 콘테스트, 선행사업, 시·군 지역역량강화, 예비계획 수립
네트워크	소식지 제작
공모사업	우리마을 쓰리고, 청년정책 공모사업, 마을 리챌린지사업, 호수마켓(플리마켓)
현장포럼 지원	농촌현장포럼 지원
기타	법인 설립, 직원 채용, 내부 역량강화



IV. 연구결과

2. 워크숍 결과

결과 iv

-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크게 네트워크, 정보교류, 역량강화, 정책 제안, 연구 등으로 구분되며, 세부 내용으로는 인력풀 양성, 중간지원조직 간 교류 활동 강화, 중간지원조직 장기 계획 수립, 운영 매뉴얼 개발,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연구 기능 강화, 정책 제안 등이 있음
-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마을 DB 구축, 네트워크, 주민(현장)의 대변인, 도우미, 조력자 등으로 나타남
-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의 경우 ‘마을’ - ‘행정’ - ‘전문가’ - ‘컨설팅 업체’와의 사이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논의함

행정

- ✓ 긴장감 유지
- ✓ 사업의 실효성
- ✓ 주민(현장) 의견 대변인

전문가

- ✓ 네트워크 구축
- ✓ 정보 공유
- ✓ 소통 창구 역할
- ✓ 주민(현장) 의견 대변인
- ✓ 실행(실무)

시·군 중간지원조직 역할

- ✓ 인구 유입
- ✓ 마을 붕괴 방지
- ✓ 주민 의견 들어주기
- ✓ 민원 창구
- ✓ 생각의 구체화(기록, 문서화)
- ✓ 마을 발전계획 수립
- ✓ 마을의 데릴사위
- ✓ 도우미·조력자

- ✓ 사업 참여 연계 관리
- ✓ 사후 관리 파트너
- ✓ 마을 사업 관리
- ✓ 정보 창고
- ✓ 정보 공유

주민

컨설팅업체



IV. 연구결과

3. 포커스 집단 면담 분석 결과

면접 대상자

-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인물을 대상으로 초점 개별 면담을 실시했음
 -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participant)을 선정하되 보다 포괄적인 경험을 추출하기 위하여 동질적인 집단과 이질적 집단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Kirk & Miller, 1986)
 - 어떤 연구에 의해 채택된 방법론의 유형은 연구 목적 및 질문에 달려 있음(Crabtree & Miller, 1999; Denzin & Lincoln, 2000)

연번	성별	소속	직위	연구내 표기
1	남	공주대학교	부교수	학계
2	남	충남도청	팀장	(광역)행정
3	남	충남도청	주무관	(광역)행정
4	남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광역)마을지원센터
5	남	천안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기초)마을지원센터
6	남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기초)중간지원조직

Approaches to data analysis

- Krueger, 프레임워크 분석(Framework analysis)
 - 친숙함(familiarization)
 - 주제별 틀을 확인함(indexing ad thematic framework)
 - 색인 생성(indexing)
 - 도표 작성(charting)
 - 매핑과 해석(mapping and interpretation)(Ritchie & Spencer, 1994)



IV. 연구결과

3. 포커스 집단 면담 분석 결과

결과 i

- 센터의 설립 목적에 대한 논의
 - 학계: 분명한 설립 목적이 있어야 함
 - (광역)행정: 현장지원
 - (광역)마을지원센터: 시군 센터 설립
 - (기초)마을지원센터: 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자원 복원, 마을 발전 지원
 - (기초)중간지원조직: 불특정 다수의 주민, 구체적이지 않은 일
- 센터의 설립 목적에 대해 학계는 분명한 설립 목적에 의해 그 업무만 하는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광역)행정은 '현장에서 마을을 지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았으며, (광역)마을지원센터는 '시군(기초) 마을지원센터의 설립'으로 목적을 설정함. (기초)마을지원센터는 '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자원 복원', '마을 발전 지원' 등의 지원에 목적이 있다고 보았으며, (기초)중간지원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위한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활동
 - 학계: 성공 사례 발굴
 - (광역)행정: 민관협력, 연구, 정책수립, 네트워크, 교육 등 역할
 - (광역)마을지원센터: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정책수립, 정보전달
 - (기초)마을지원센터: 실천학습 지원, 정보제공
 - (기초)중간지원조직: 욕구를 조직하는 것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해서 학계는 성공 사례 발굴에 목표를 두고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는 모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광역)행정은 기초단위 센터에서는 네트워크, 교육 차원에 집중하고 광역단위 센터는 연구, 정책 수립에 우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광역)마을지원센터는 기초단위의 센터 설치·운영하는 지원 기능을 1차적 역할, 행정 흐름의 정보 수집을 통한 융·복합, 협업 유도를 2차적 역할로 보고 있음. (기초)마을지원센터는 실천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정부지원사업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로 보고 있음. (기초)중간지원조직은 주민들의 본연에 가지고 있는 욕구를 조직하는 것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라고 봄



IV. 연구결과

3. 포커스 집단 면담 분석 결과

결과 ii

• 중간지원조직의 문제점

- 학계:

- (광역)행정: 인력 확보, 일자리로서의 처우 개선
- (광역)마을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적 이해 부족, 법적 근거 마련
- (기초)마을지원센터: 인력 확보
- (기초)중간지원조직: 마을 활동가의 부재, 보조금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리더, 칸막이 행정

- 중간지원조직의 문제점에 대해 (광역)행정은 우수 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일자리로서의 처우 개선 방안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음. (광역)마을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적·제도적 이해와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기초)마을지원센터는 인력 충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음. (기초)중간지원조직은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일을 해본 활동가가 없다는 것과 보조금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지도자들, 칸막이 행정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당면 과제 및 개선 방안

- 학계: 적정 범위에 설치하고, 일감의 확보
- (광역)행정: 기초 센터의 설립
- (광역)마을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의 정체성 및 개념에 대한 이해 필요
- (기초)마을지원센터: 고유 사업들의 안착
- (기초)중간지원조직: 경상비 지원, 통합 행정 체계

- (광역)행정은 기초단위의 마을지원센터의 설립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광역)마을지원센터의 당면과제는 정체성에 대한 논리적 이해와 정서적으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내 필요성을 인지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기초)마을지원센터는 설립 초기 단계에 있어 현재 진행되는 고유 사업들의 안착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기초)중간지원조직은 통합 행정체계에 따른 경상비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IV. 연구결과

3. 포커스 집단 면담 분석 결과

결과 iii

- **중간지원조직의 특징점 및 단점**
 - 학계: 커뮤니티 개발의 전문가 집단
 - (광역)행정: 정보의 접근성 향상, 인력 확보의 어려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 (광역)마을지원센터: 체계적인 학습과 토론으로 전문가 양성
 - (기초)마을지원센터: 현장밀착성
 - (기초)중간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의 특징점 및 단점에 대한 의견에서 학계는 커뮤니티 개발 전문가 집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광역)행정은 정보의 접근성 향상을 도와주고,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도와주지만,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던짐. (광역)마을지원센터는 체계적인 학습과 토론으로 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음. (기초)마을지원센터는 현장밀착성의 장점을 꼽았음
- **중간지원조직의 독립성 유지 기능**
 - 학계: 중간지원조직 자체 구조 개선
 - (광역)행정:
 - (광역)마을지원센터:
 - (기초)마을지원센터: 자체 사업 안정화
 - (기초)중간지원조직: 경상비 지원, 행정조직 개편, 중간지원조직 자체 구조 개선
- 중간지원조직의 독립성 유지 기능으로는 학계는 프랑스 *Pays*처럼 강력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자체 구조 개선을 꼽았고, 이는 (기초)중간지원조직의 의견과 같았음. (기초)마을지원센터는 자체 사업 안정화를 독립성 유지 기능으로 보았음



IV. 연구결과

3. 포커스 집단 면담 분석 결과

결과 iv

• 중간지원조직 간의 역할 중복과 조정

- 학계:
 - (광역)행정: 광역의 주된 역할은 연구 및 정책 수립, 조직 간 연계 필요
 - (광역)마을지원센터: 조직 간 연계 필요
 - (기초)중간지원조직: 기초적·전문적 교육 운영 후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에 연결
-
- (광역)행정, (광역)마을지원센터, (기초)중간지원조직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은 별도의 추진 예산을 통해 조직이 구성되고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전략적 사업들에 대해 지원·운영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정해져 있는 사업들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보임
 - (광역)행정에서는 역할 중복에 대해 광역-기초간 큰 맥락은 같이하되 연구나 정책 수립은 광역의 주된 역할로 가져가야 한다고 보았음. 사업의 연계성으로 보았을 때, 현재 광역단위 마을지원센터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의 조직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광역)마을지원센터는 행정을 상대하고 흐름을 읽는 데에 강점이 있다고 본데 반해,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현장경험이 강하다고 보았으며 두 이점을 합해서 큰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음
 - (기초)중간지원조직은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은 특정 주제를 가지고 전략적인 사업들을 운영해야 하는데, 어떠한 분야의 기초적·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발굴된 인력들을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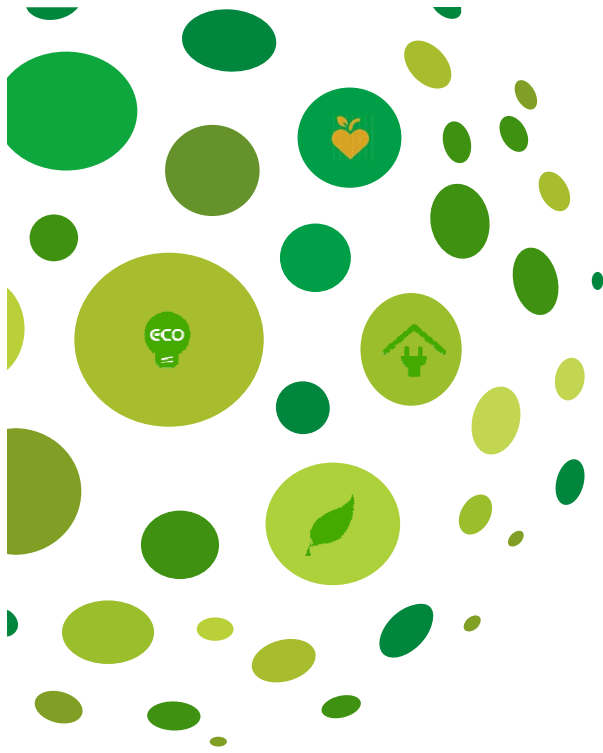
IV. 연구결과

3. 포커스 집단 면담 분석 결과

결과 v

- 기초-광역 중간지원조직 간의 역할, 목표
 - 학계:
 - (광역)행정: 연구·정책수립은 광역단위의 역할, 기초단위는 시·군별 운영(지역 구분)으로 중복이라고 볼 수 없음
 - (광역)마을지원센터: 광역단위에서의 정책적 기능 중요
 - (기초)마을지원센터: 광역단위는 기초단위를 지원
 - (기초)중간지원조직: 광역단위는 기초단위를 지원
- (광역)행정에서는 연구나 정책 수립은 광역의 주된 역할로 보고, 기초-기초간 역할에 대해서는 시·군별 지역단위 활동이기 때문에 역할이 중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함
- (광역)마을지원센터는 중간에서 지원하는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공통분모가 있으며, 다만 광역단위는 정책적인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았음
- (기초)마을지원센터는 광역단위는 기초단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기초단위는 현장에서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함
- (기초)중간지원조직은 광역의 큰 역할 중 하나가 광역과 기초단위 간 위계관계를 가진 후 그에 따른 기초단위의 지원이라고 보았으며, 기초단위에서 조직되지 않는 욕구를 광역에서 융합시키고 조직시키는 것이 광역의 역할이라고 봄





V. 결론

V. 결론

1. 결론

문헌조사 소결 i

- (종합)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체의 성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
- (선행연구 분류) 중간지원조직의 선행연구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중간지원조직의 거시적 방향에 관한 연구,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자격 조건 분석 등으로 나뉨
- (중간지원조직 개념에 대한 이해) 중간지원조직은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 능력을 갖춘 에이전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임(지식경제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 (나라별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및 역할) 미국은 Infrastructure Organization, fund, Independent Sector 등으로 불리며, 회계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화의 요구에 발맞춰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들을 주로 함. 영국은 Umbrella Organization, Local Development Agency, Voluntary & Community Sector(VCS)로 불리며, 정부와 시민 섹터 간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 내 구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에서 인재육성이나 전문가 매칭, 자금조달 등의 활동을 지원해주며 VCS 코디네이터 역할을 함. 일본은 Intermediary, Management Support Organization(MSO)로 불리며, 고베 대지진 이후 시민사회 자원봉사 그룹들이 등장하여, 주민자치나 지역자치에도 영향을 미쳤음. 한국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비롯하여 현재는 광역 및 시·군까지 40여 개의 중간지원조직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



V. 결론

1. 결론

문헌조사 소결 ii

- **(중간지원조직 역할)** ‘중간으로서의 고유한 역할들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다수임. 이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행정적인 제약 없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됨. 중간지원조직의 여러 역할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과 조직의 역량강화, 정보와 지식 제공, 상호 지원을 위한 협력구조 제공, 다른 기구와의 가교 역할을 꼽고 있음. 그 외에도 컨설턴트, 브로커, 조정자, 자원제공자의 역할도 있음
- **(세계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례)** 농촌개발 사업에 있어 지역개발 주체로서 정부와 민간 사이에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발기구(프랑스 *Pays*, 독일 *Agentur*, 스페인 *LEADER 프로그램*)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농촌 협치를 통한 농촌개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비(非) 위계화와 유연한 정부조직구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시각을 같이 함. 농촌개발 정책 시스템의 변화는 영국과 같이 사업자금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농촌개발을 위한 공공법인 형태로 조직(Non-Department Public Bodys)이 육성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주체들은 파트너십 뿐만 아니라 사업의 계획, 실천, 평가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함. 또한 농촌개발 사업 단위사업 지구의 광역화를 통한 효과적인 자원동원과 상호경쟁을 유발시키는 추세임. 광역화의 예로는 먼저, 프랑스 10개 commune을 합한 지역이며, 인구 100,000명 정도에 1개 중간지원조직 설치하고 있고, 영국은 사업지역이 1000m² 면적과 인구 52,000명 수준이며, 3개의 district과 함께하도록 하였음. 이런 조건에서 설립된 영국 *Agency*, 프랑스 *Pays*, 독일 *Agentur* 등은 농촌개발기구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V. 결론

1. 결론

문헌조사 소결 ii

- (세계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례 - 이어서) 어떤 형태의 에이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EU에서는 지역 활동가 조직(Local Action Group: LAG)가 기본적 모형이 됨. 에이전시 내의 의결기구(지역대표자)와 사업수행보(전문가)를 구분하여 **농촌개발위원회(Committee)**의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있음. 이처럼 강력한 위원회의 운영은 중간지원조직이 실제로 독립성을 확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 구성원의 역량) 실제 세계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community development에 있어 **상당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역에서 요구하는 **성공사례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농촌 지역 개발 유일한 자격증인 농어촌지역개발전문가 직무 분석을 보면, **지역사회조사, 지역개발계획, 지역경영관리, 지역산업활성화 영역**을 필요하다고 보았음. 외국의 경우, 중간지원조직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중점 성공사례 목표가 다르므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는 각종 전문 지식 및 전문가 연계 등의 방법을 총 동원하여 업무를 수행함. 이 때 기본적으로 지역사회개발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부차적으로 담당 영역이나 업무에 맞는 역량들을 갖추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가적 소양이나 농촌 지역개발 전문가 직무 분석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구비라는 측면에서 전공이나 직무 경력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곳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집합체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목표 및 결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V. 결론

1. 결론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워크숍 소결 i

- (중간지원조직 근무자 집중 워크숍) 워크숍을 통해 중간지원조직 근무자들의 생각을 이끌어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음
-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함. ‘주민과 소통하는 곳’, ‘마을과 주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곳’,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력자’, ‘마을을 지원하는 민원소’라는 의견들이 나옴.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민의 입장에서 개념이나 정의가 출발한다고 보여짐**
-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장단점을 분석·평가한 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장점**으로는 ‘주민과의 소통’, ‘현장밀착성’, ‘주민들의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사업의 창의성’, ‘마을만들기 기회 제공’ 등의 의견이 도출되었고, **단점**으로는 ‘인력 부족’, ‘행정의 간섭’, ‘여비 지급 등의 처우’ 등의 의견이 도출됨



V. 결론

1. 결론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워크숍 소결 ii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광역과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구분,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중간지원조직 역할로는 ‘조사·연구’,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공모사업’, ‘현장포럼 지원’ 등으로 나타남. 광역과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구분은 크게 ‘네트워크’, ‘정보교류’, ‘역량강화’, ‘정책 제안’, ‘연구’ 등으로 이루어지며, 세부 내용으로는 ‘인력풀 양성’, ‘중간지원조직 간 교류 활동 강화’, ‘중간지원조직 장기 계획 수립’, ‘운영 매뉴얼 개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연구 기능 강화’, ‘정책 제안’ 등이 있음. 또한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마을 D/B 구축, 네트워크, 주민의 대변인, 도우미, 조력자 등으로 나타남
- 중간지원조직 근무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나 행정의 벽에 부딪힌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어, 중간지원조직의 구조적인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임



V. 결론

1. 결론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인터뷰 소결 i

- (인터뷰) 센터의 설립목적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활동, 중간지원조직의 문제점, 중간지원조직의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중간지원조직 간의 역할 중복과 조정, 중간지원조직의 독립성 유지, 중간지원조직 간의 역할·목표에 대해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중간지원조직은 광역 중간지원조직과 기초 중간지원조직으로 관할 범위에 따라 나뉘지며, 광역과 기초 중간지원조직 간의 역할 차이를 구분하려는 시도를 하였음
- 학계는 중간지원조직의 업무 방향과 목적에 있어 세계 선진 사례 등을 벤치마킹한 성공사례 발굴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모임이 중간지원조직이어야 하며, 일거리가 중복되지 않고 마련되는 범위에 중간지원조직이 위치해야 한다고 말함
- 이에 반해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은 중간지원조직의 시스템 구축에 첫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계 보다는 목적 등에 대한 내용은 후순위에 머물고 있음. 또한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보완과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의 지원이 가장 큰 방안으로 보았음. 시군의 중간지원조직 설치가 이루어져야 해당 시군이 활력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V. 결론

1. 결론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인터뷰 소결 ii

- (종합) 중간지원조직의 일반적 역할에 대한 공감은 형성 되었으나, 중간지원조직의 업무 실천에 있어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법이나 조례에 의해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는 곳은 중간지원조직으로 볼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은 5년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지내오며 농촌 활성화를 위해 움직이던 열정에 갑자기 '정체성 혼돈'을 불러 일으키기도 함
- 법이나 조례에 설치된 기관이라고 해도 행정과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행정의 하수인으로써 활용되다가 정작 중요한 중간지원조직의 고유 업무를 놓칠 수 있다고 판단됨
-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에 있어 맹목적인 성과 확산 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필요에 의한 목표를 갖는 기관을 설치하여야만, 중간지원조직 설치 후 목적을 찾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됨
- 중간지원조직 설립 전에 시·군민 대상으로 수요조사(중간지원조직 필요성 및 주요 요구 사항)가 이루어져야 함. 그 뒤에 시·군민 요구사항을 중간지원조직 고유의 역할 등에 비추어 시·군 센터 만의 비전을 수립함. 목표는 자세히 설정하도록 하고,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은 사명감을 바탕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시·군민
수요 조사

비전 및
목표 설정

센터 설립
및 운영



V. 결론

1. 결론

중간지원조직 역할 정립 연구의 시사점 i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정립하고, 광역 및 기초에서 활동하는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운영 성과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
- 중간지원조직은 해당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적정 인구 규모나 토지 면적에 따라 설치되고, 해당 지역 고유의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 *Community Development Specialist*들이 모여 일하는 곳으로 요약됨
- 중간지원조직의 일반적인 기능과 역할은 정책지원, 지역 인재 육성 및 관리, 사업지원, 정보교류, 조사 및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고, 구성요소로는 컨설턴트, 브로커, 조정자, 자원 제공자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됨
- 기초 중간지원조직은 주민과의 소통력을 바탕으로 현장에 밀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전문 사업 진행을 하는 곳으로 나타났고, 해당 소속 활동가들이 행정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함. ‘마을’에서는 ‘실무전문가’ 역할을 원하고, ‘행정’에서는 ‘현장 대변인’의 역할을 원하며, ‘전문가’는 실무와 소통의 전문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컨설팅업체’에서는 ‘마을 사업 관리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이처럼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대한 시각들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이런 역할들은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목적에 반영되어야 할 항목임
- 광역 중간지원조직은 일반적인 중간지원조직 기능 인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비슷하지만, 역할에 관해서는 기초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 기능을 우선으로 보는 시각(행정에서 바라보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이 중심)도 있고, 광역차원에서 전문 활동가들의 성공 사례 발굴 및 전파로 보는 시각(마을이나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이 중심)도 있었음. 이는 광역에서도 각각 위치한 상황을 고려해 역할이 정립된 것일 뿐, **중간지원조직 활동의 효용이 중간지원조직에 관계된 구성원들 모두를 향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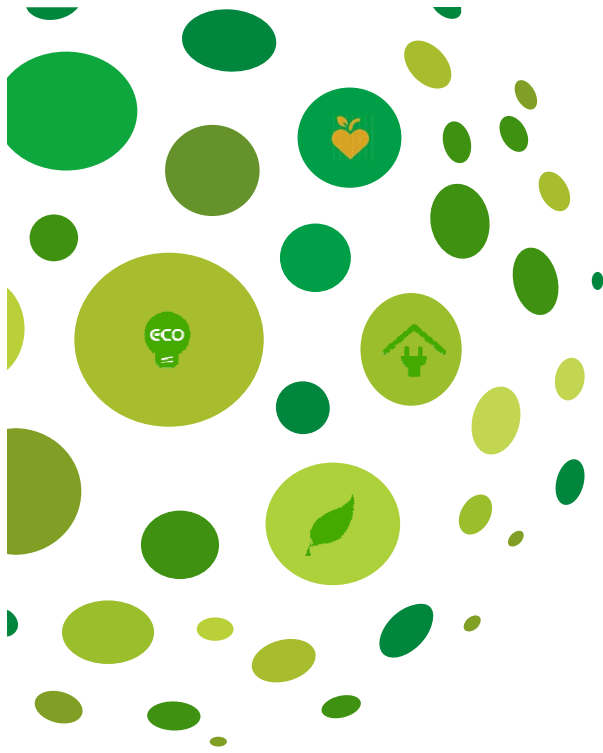


V. 결론

1. 결론

중간지원조직 역할 정립 연구의 시사점 ii

- 중간지원조직의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동가들이 중간지원 역할을 해 나가는 조직인데 반해 일자리로서는 처우 개선이 시급하고,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기회가 필요함.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 사업(original business)들의 안착이 중요하고, 경상비 지원으로 독립된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탈 지역 통해 조직 간 연계를 통한 사업운영 등이 구상되어야 함
- 중간지원조직은 체계적인 학습과 토론을 통한 지역사회개발 전문가 양성으로, 현장 밀착성 활동 과정을 통해 사업 지역 및 개발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특징이 있음. 특히 프랑스 Pays 처럼 강력한 위원회(많은 곳은 120여 명에 달함)의 구성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자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음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구분에 있어선 광역과 기초 간에 큰 맥은 같이 하되, 연구나 정책 수립, 교육을 통한 중간지원조직 인력 양성은 광역의 주된 역할로 가져가야 한다고 보았음. 또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들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곳으로써 중간지원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음. 이는 중간지원조직 자체 구조 개선과도 맥을 같이하는 내용임. (광역)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농림축산식품부)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의 사업 연계를 시작으로 나아가 조직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광역과 기초 간의 역할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광역과 기초 단위간에 위계관계를 가진 후 그에 따른 기초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또한 광역 단위에서의 정책적 기능이 중요한 역할로 평가받는데, 이는 중간지원조직이 정치적인 조직으로 인식되면 지자체 선거의 전리품으로 취급 받아 존폐 기로에 서는 현실에서 나온 역할이라고 판단됨
-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에 있어 해당 지역의 각종 협의회장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간지원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상비 형태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지역 내 고유 사업 발굴을 통해 성공사례 발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VI. 참고문헌

VI.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가나다순 i

- 고광용. (2014). 자치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비교연구: 서울시 동대문구와 성북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2), 131-159.
- 고재경·주정현. (2012). 경기도 저탄소 녹색마을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연구.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 고재경·주정현. (2014). 유럽 에너지자립마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특징 연구. *환경정책*, 22(2), 101-135.
- 구경하. (2016). 정부주도 마을 만들기 활동의 지속성(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 김도희·하상근. (2013). 울산광역시 남구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추진실태분석에 따른 성공요인과 정책적 효과분석: 지역재생을 위한 '지붕 없는 미술관' 신화마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3), 93-123.
- 김상민. (2016). 주민자치와 협력적 마을 만들기: 협력적 마을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1), 181-209.
- 김태영. (2016). 사회적경제 영역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분석: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적용. *정부학 연구*, 22(2), 81-125.
- 김학실. (2014).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한 사회적 경제 지원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0(7), 75-97.
- 김현호. (2013).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남원석. (2012).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방안 연구.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 박경철·황바람·구자인·박주석. (2015). 아산시 마을 만들기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방안. 공주: 충남연구원.
- 박내규. (2012).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 추진과정에서의 공공의 역할에 관한 연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 박세훈·천현숙·전성제. (2009). 마을 만들기 참여 거버넌스의 비교분석: 제도주의적 접근. *국토계획*, 44(3), 207-220.
- 박은아. (2016). 마을만들기 참여가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숭실대학교.
- 박종관. (2012). 지역공동체 형성전략연구: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12(7), 183-193.



VI.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가나다순 ii

- 박태정. (2014). 마을공동체사업의 프로그램논리모형에 대한 연구: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5(3), 31-55.
- 배응환. (2008). 지역혁신체제와 중개 조직: 대덕밸리의 BI사업과 RIC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7(4), 193-222.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 *마을살이 작은 연구*. 서울: 서울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제2조, § 1. (2013).
- 서울특별시. (2010). 서울특별시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연구: 서울 휴먼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 p.11.
- 선정원. (2002). *자치구행정과 도시계획*. 서울: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송두범. (2014). 충남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열린 충남*, 56(단일호), 31-39.
- 신종진·송승현. (2010).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추진주체의 관계구도 특성 연구: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6(1), 295-306.
- 안병훈. (2009). *효율적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산업대학교.
- 여관현. (2013).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6(1), 53-87.
- 우치다 유조. (2006). 커뮤니티 워크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도시와 빈곤*, 82, 5-23.
- 이자성. (2010). *일본 지역공동체 경영을 위한 주민참여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단일호, 1-19.
- 이자성. (2011).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II). *경남발전*, 113, 118-132.
- 이장원. (2014).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수원: 성균관대학교.
- 이차희·탁영란·김민서·손용훈. (2014). 농촌체험관광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 양평군·이천시 농촌나드리 비교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20(3), 75-88.
- 임경수. (2013). *중간지원조직의 광역·시군간 역할분담 및 발전방향: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향 자료집*. 전주: 지역농업연구원.
- 전원식. (2008).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업주제 및 추진주제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9(4), 131-148.



VI.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가나다순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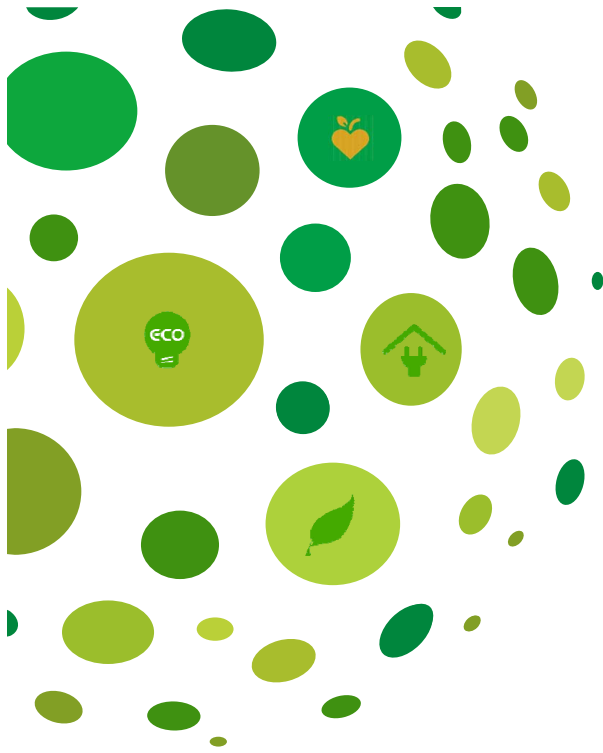
- 정규호. (2012).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35(2), 7-34.
- 최인수·전대욱. (201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 연구*.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현선·이현주·이은지. (2012). 커뮤니티 개발에 기반 한 도시재생정책: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2(3), 255-275.
-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매뉴얼*. p.1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지역자활센터의 중간지원조직 역할 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강내영. (2010, November 10). 중간지원조직이란?[블로그 포스트]. Retrieved from <http://blog.daum.net/wed95/122>

2. 국외문헌

ABC순 i

- Blank, M. J., Brand, B., Deich, S., Kazis, R., Politz, B., & Trippe, S. (2003). Local intermediary organizations: Connecting the dots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Jobs for the Future*(pp. 1-10). Boston, MA: EDRS Price MF01/PC01 Plus Postage.
- de Souza Briggs, X. (2003). *Working the middle: Roles and challenges of intermediaries*. (pp. 1-21) Retrieved from <http://www.communityproblem-solving.net>.
- Brown, L. D., & Kalegaonkar, A. (2002). Support organizations and the evolution of the NGO sector.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1(2), 231-258.
- Kirk, J., & Miller, M. L., (1986). *Reliability and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Ⅶ. 부록



Ⅶ. 부록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활동 영역

- 정보수집·제공기능, 상담 및 컨설팅 기능, 조사연구기능, 인재육성 및 연수기능, 활동지원 및 조성기능 등임(강내영, 2011)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특성 연구에서는 ①마을 공동체지원 사업, ②마을만들기 지역자원조사, ③주민교육 및 마을 일꾼 양성, ④마을만들기 각종 공모사업 지원, ⑤관련 조직 지원(농림부, 충남 도청), ⑥민민·민관 네트워크(민간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연계), ⑦마을 만들기 관련 홍보 및 세미나 개최, ⑧기타 역할을 제시하고 있음(박세훈, 2015 재구성)
- 부산시 도시재생중간지원조직의 활동 영역을 보면, ①주체별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②마을전문가(마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 운용 지원, ③마을공모사업컨설팅·마을경제컨설팅·소규모 마을축제지원 등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통합네트워크구축, ⑤시민 참여형 마을만들기, ⑥마을협동경제플랫폼, ⑦홍보사업으로 나타남(권진휘, 2015)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서의 역할을 보면, ①기업설립 지원, ②기업운영지원, ③사업추진지원, ④자금조달지원, ⑤사업단 운영, ⑥인재육성, ⑦상담창구, ⑧정보제공, ⑨교류촉진, ⑩코디네이터, ⑪조사연구로 나타남(서정민, 2011)
-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농촌개발 정책 수행 관련 지식과 기술 전파 등 지역사회 혁신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①지역격차 해소, ②지식 인프라 구축 지원, ③거버넌스 촉진, ④s/w 중심의 농촌개발 지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임상봉, 2014)
-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업무중요도를 다룬 연구에서는 ①인적자원 육성 및 관리(교육 기능 강화를 통한 상승 효과 기대), ②현장포럼 지원(지역에 좋은 인력이 부재하다 보니, 인력 지원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 업무로 나타났음(김두순, 2013)

VII. 부록

중간지원조직을 향한 변화의 요구

- 중간지원조직을 향한 변화의 요구도 감지되는데, 최근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의 통합 운영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음. 중간지원조직들의 입장에서도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상호연계의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행정에서 지역사회로의 운영의 중심이 이동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감지됨.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행정중심 운영은 필연적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역할과 목소리를 어떻게 더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요구들이 나옴(김지현, 2016)



VII. 부록

중간지원조직의 이상과 현실

- **(중간지원조직의 그늘)** 중간지원조직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행정에게 운영재원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졌음. 이는 지속가능한 운영의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조례를 통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는 중간지원조직의 경우에도 행정으로부터의 위탁사무에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함 → 중간지원조직이 거버넌스에 있어 행정과 시민을 이어주는 하나의 주체로 인식되기 보다는 행정의 하부조직의 하나로서 인식되는 경우가 생겨남

출처 : (김지현, 2016. 중간지원조직과 거버넌스. 희망 이슈 5호.)

- **(충남)** 충남마을만들기센터의 경우, 2016년 10월 개소하여, 각 시·군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할 지원하고 있음. 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2015, **공설공영**), 논산시 공동체경제추진단(2015, **공설공영**)-현재 기관 폐쇄,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2015, 공설민영), 보령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2016, 공설민영), 천안시 공동체지원센터(2016, 공설민영), 홍성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2016, 공설민영), 서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2017, **공설공영**), 청양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2017, **공설공영**) → 지자체가 설립지원하고 민간위탁형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행정의 의견이 운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김재현 외, 2013; 김지현, 2016)
- **(충남)** 중간지원조직의 시·군 설립 목적은 해당 시·군에서 일어나는 농촌 개발에 관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역할 예시-①지역사회조사, ②지역개발계획, ③지역경영관리, ④지역산업활성화(김지인 외, 2014. 재인용) → 시·군센터에서 채용되는 인력들을 보면, 해당분야 전공여부나 경력의 전문성을 따져 봤을 때 농어촌지역개발을 바른 길로 안내 할 사람이 거의 전무한 수준임. 따라서 광역에서는 네트워크 위주의 정책을 펴고, 시군에서는 해당 전문영역에 대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업무 구조상 불합리한 부분이 많음 → 또한, 시·군 마을을 책임질 인력 창출이나 교육기회의 제공이 부족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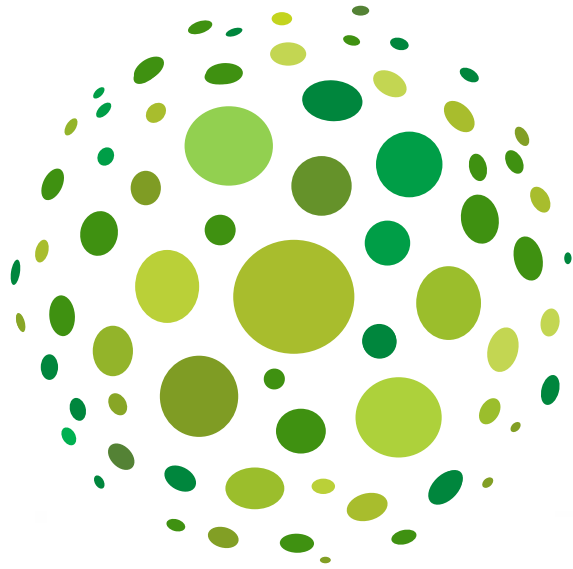
VII. 부록

중간지원조직의 이상과 현실

- **(과연 한계인가?)** 각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대학 내에 위치하며, 해당 근무 인력에 좋은 배움의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음. 해당 분야의 전공자로서, 현업에 종사하며 배움의 기회를 끊임없이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농촌지역개발의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파트너십(센터 및 네트워크에 전문가 다수 포함)을 기초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이뤄가며 지역의 일거수 일투족을 DB화 하고 있음
- **(선행사업과의 연계)** 마을마다 현장포럼을 거쳐, 충남도의 선행사업을 진행하고, 후에 진입단계 사업을 분야를 정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이른바 역량단계별지원체계 마련) → 그러나, 선행사업의 경우, 무조건 시·군으로 해당 비용이 할당되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군에서 발주를 통한 사업 진행을 하고 있음. 이는 컨설팅사에 발주를 통해, 획일적인 사업(예, 마을 표지석 건립)을 진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런 상황은 충남도의 선행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해당 마을에 대한 자료를 이전 받아, 바람직한 기준에 의한 바람직한 평가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음. 이런 결과에 대해, 농촌마을 역량의 축적이라는 연구에서는 각 단계의 역량이 비슷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역량의 축적이 일어날수 있다는 연구도 진행되어 있음(김두순, 2016).
- **(실질적인 업무분할)**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간의 업무 분할은 두 센터장의 합의 일뿐, 추가 논의를 통해서 수정 가능함 →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현장포럼 운영,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선행사업을 맡고 있음



감사합니다





전북 농촌활성화지원센터

2017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연계협업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한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정책제안-

2017. 12.



전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



목 차

I. 서 론	299
1. 연구 배경	299
2. 연구 목적	299
3. 연구 범위	300
4. 연구 방법	300
II. 이론적 배경 및 개념	301
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301
2.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형태	302
III. 중간지원조직 실태조사	303
1. 전라북도 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실태조사 개요	303
2. 전라북도 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실태조사 결과	304
1) 기본정보 비교	304
2) 조직·인력 현황 비교	305
3) 사업예산·재원마련 비교	306
4) 추진사업 비교	310
5) 추진사업 총괄정리	311
6) 설립단계 과정비교	313
3. 중간지원조직 실태조사 결과정리	314
1) 실태조사 결과요약	314
2) 실태조사 결과분석	315
IV. 중간지원조직 역할정리를 위한 관계자 토론회 및 워크숍	318
1.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토론회 및 워크숍 개요	318
2.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토론회	319
3. 행정-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워크숍	319
4. 행정-중간지원조직-전문가 관계자 세미나	322
5.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정리 및 유형도출	329
V.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설문조사	335
1.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개요	335
2.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내용	335
3.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정리	343
VI. 종합결과정리	346
VII. 정책제안	350
첨부. 중간지원조직 사례	355

1. 연구 배경

- 최근 농촌마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민주도 마을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 추진이 최근 추세임
- 단계별 지원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 시·군에서는 농촌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각 지역의 마을에 대한 지원효과를 제고시키고자 하였으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필요성들이 제기됨
- 중간지원조직의 특성상 수익사업보다는 지원사업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연속사업으로 기관을 운영하지만 중앙부처, 도, 각 지자체에서의 지원형태 및 지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도 중간지원조직의 유형과 역할이 제각각이며, 체계적인 정립에 의한 실질적인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함
- 도 단위의 광역 중간지원조직, 시·군 단위의 기초 중간지원조직은 각기 필요시기와 정책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정책 및 니즈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중간지원조직이 설치가 되지만 재원이 다른 경우 행정 칸막이, 중간지원조직간 갈등 등으로 조직간 사업연계가 어려워 마을에 대한 중복지원이 발생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피로도가 제고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전라북도 내 중간지원조직의 사례를 조사하고, 실제 중간지원조직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토론, 워크숍, 설문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역할정리와 함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함
- 본 연구는 광역단위와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사업중복을 개선하고, 정책수요자들의 피로도 감소를 위한 연계협업 과제를 중간지원조직의 관계자들 대상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함

3. 연구 범위

- 그동안 새로운 정책의 발표 및 변경 됨에 따라 중간지원조직도 설치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어 왔으나 “농촌마을 마을만들기”에 특정한 연구자료와 특정 지자체만을 대상으로한 연구자료가 아닌 광범위적으로 실시한 연구자료를 찾아보기 힘들어 본 연구에서는 이 두가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실시하고자 함
-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는 전북도내의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연구
-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유형구분 및 역할정리, 연계·협업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통한 각 중간지원지원조직의 구체적인 정보파악을 통해 1차 자료정리, 정성적분석을 위한 실무자 토론회, 피실리테이션 워크숍, 전문가 세미나를 실시하여 역할정리 및 유형도출, 정량적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역할 및 연계·협업 과제의 결과를 정리하고자 함

4. 연구 방법

- 연구방법은 크게 정성적분석과 정량적분석으로 구분되며 중간지원조직의 기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내용을 정리
- 정성적분석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 행정, 전문가를 대상으로한 토론회, 워크숍, 세미나를 실시하여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의견도출 및 수합으로 역할정리 및 유형도출 등을 실시
- 정량적분석은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형구분에 대한 역할, 중간지원조직의 역량, 지속가능한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방안마련, 실현가능한 정책접근, 연계협업 과제 등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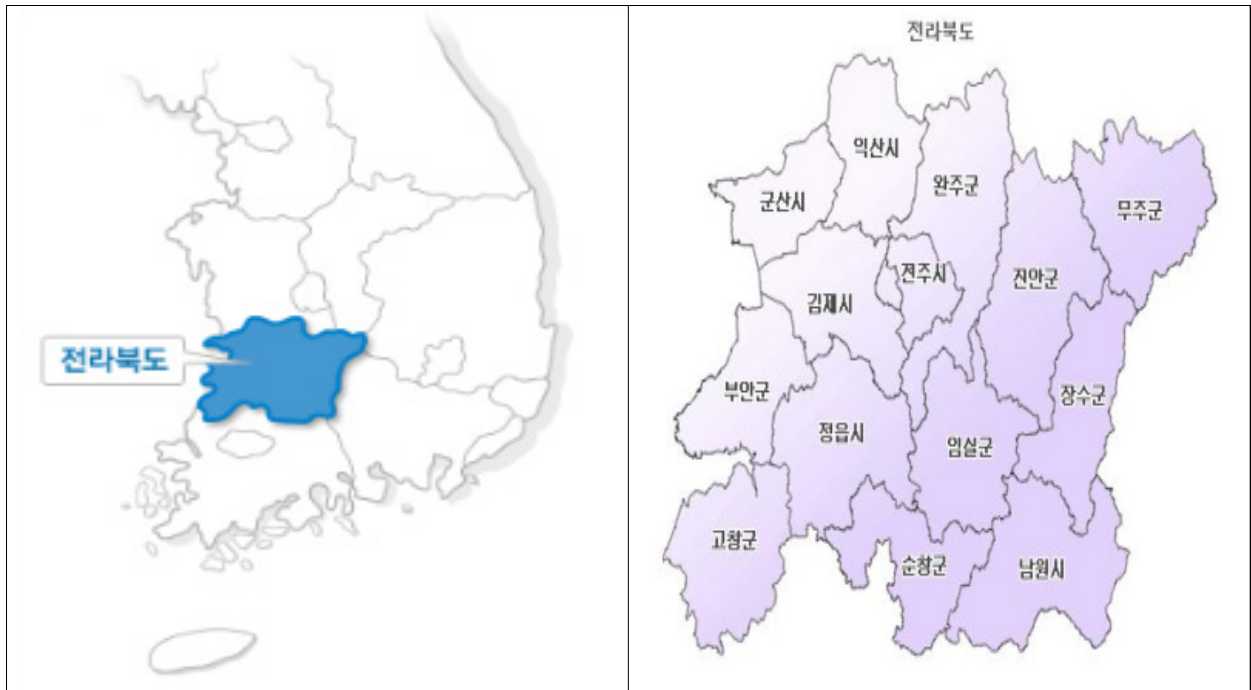
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은 서로 다른 두 조직 사이에서 양자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Briggs, 2003).
- 중간지원조직은 이때 양자가 직접 관계할 때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한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조직은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된다. 기업사회에서는 중개인(broker)이라는 형태로 거래를 매개해 주는 수많은 중간지원조직이 있다.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시민사회단체, 학회 등은 모두 어느 정도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갖는다(박세훈, 2015).
-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이 오래전부터 활성화 되어 왔으며 미국에서 중간지원조직은 인프라조직(infrastructure organization)으로 불리우고,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와 이를 공급하는 자선단체를 연계하며 부당한 수혜자를 고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박세훈, 2015).
- 일본 내각부에서는 다원적 사회에서 공생과 협력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인재, 자금, 정보 등 자원을 제공하고 시민사회단체 간의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한다(內閣附, 2002).
- 중간지원조직을 설명하는 가장 큰 개념적인 특징은 다양한 주체들 간에 또는 일정 주체와 그 대상(기술, 제도 등) 간의 원활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이며 이것이 사실상 중간지원조직을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간지원조직을 단순히 단체나 조직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기능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경호 외, 2016).

2.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형태

-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은 그 운영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중간지원조직이 지자체의 지원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관계속에서 그 기능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설립배경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장단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그 설립주체와 운영주체에 따라 공설공영(公設公營), 공설민영(公設民營), 민설민영(民設民營)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성완 외, 2013)
- 공설공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며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중간지원조직이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부서로 존재하며 직원들도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임
- 공설공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지만 그 운영은 민간단체가 담당하는 형태이며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요구되는 업무를 전문성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임
- 공설민영의 형태 중 첫 번째는 민간위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에게 해당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임
- 민설민영은 민간에서 설립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사회적 기업이 취하는 방식이지만,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경우는 드물며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위상을 가지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최근에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활용하고, 정부정책 집행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공설민영의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설민영과 같이 위탁사업 형태의 정부-시민사회 협력방식이 갖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1. 전라북도 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실태조사 개요



〈그림 1. 전라북도 지도〉

-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으로 현재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은 11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음
 - ※ 전라북도 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 전주시,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임실군
- 중간지원조직 실태조사는 전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사무국에서 실시하였으며, 7월 ~ 8월에 실시
- 전주시를 제외한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
 - ※ 당초 연구계획 당시 대상지역에 대한 조사완료, 2개 지역은 추가적으로 조사 예정

2. 전라북도 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실태조사

1) 기본정보 비교

〈표 1〉 전북 도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기본정보 비교

지역	기관명	조직형태	설립연도 (총사업기간)	조례제정	정책적지원
고창군	고창공동체협의회	사단법인	2016년 (2년차)	여	여
무주군	마을을잇는사람들	사단법인	2016년 (2년차)	여	여
순창군	순창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단법인	2016년 (2년차)	부	여
완주군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재단법인	2010년 (8년차)	여	여
장수군	장수지역활력센터	사단법인	2014년 (4년차)	여	부
정읍시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행정설치조직 (법인형태없음)	2015년 (3년차)	여	여
진안군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단법인	2012년 (5년차)	여	여
임실군	임실군 마을가꾸기협의회	사단법인	2013년 (5년차)	여	여

- 조직형태는 8개 시·군의 조직 중 4개조직이 사단법인의 형태이며, 2개 지역은 위탁이지만 위탁기관이 사단법인으로 6개 지역이 사단법인의 형태이며, 나머지 2개지역은 재단법인과 지자체조례로 설치된 조직임
- 설립연도의 경우 완주군이 2010년으로 가장 먼저 설치되었고, 진안군(2012년), 임실군(2013년), 장수군(2014년), 정읍시(2015년),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2016년) 순으로 8년차에서 2년차로 2년차에 해당되는 지역이 가장 많았음
- 조례제정과 정책적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순창군, 장수군을 제외하고 모두 조례제정과 정책적지원을 받고 있었고, 장수군은 정책적 지원의 부재, 순창군은 조례제정이 부재하였음

2) 조직·인력현황 비교

〈표 2〉 전북 도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조직·인력현황 비교

지역	총직원수	실무직원수	외부조직(수)	내부조직(수)
고창군	5명	4명	운영위원회(1)	마을지원팀, 과소화대응팀(2)
무주군	3명	3명	자문위원회(1)	운영관리팀, 대외협력팀, 사업관리팀, 교육연구팀(4)
순창군	2명	2명	이사회(1)	공동체지원팀, 교육사업팀, 네트워크사업팀(3)
완주군	9명	9명	-	공동체육성팀, 아파트르네상스팀, 공유경제팀(3)
장수군	2명	1명	총회, 이사회, 감사, 자문위원, 운영위원회(5)	사무국, 공동체사업단, 대안유통사업단, 공정여행사업단(4)
정읍시	9명	9명	-	운영지원팀, 공동체지원1팀, 2팀, 교육지원팀(4)
진안군	8명	7명	이사회(1)	총무회계팀, 교육연수팀, 문화예술팀, 편집홍보팀, 부설연구소, 농촌관광코디네이터(6)
임실군	4명	4명	자문위원회, 협의회(2)	사무국, 총무팀, 마을1팀, 마을2팀(4)

※ 조직구성은 기관별 조직도를 참고(별첨자료)

- 근무하는 직원 수의 경우 완주군과 정읍시가 총직원 9명, 실무직원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창군과 장수군이 총직원 2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특히 장수군은 실무직원이 1명으로 가장 적은 수의 인력 보유
- 또한 대부분의 조직에서 총 직원의 수와 실무직원의 수가 같아 임원직의 직원도 실무를 같이 보고 있음(고창군, 장수군, 진안군 제외)
- 외부조직의 수는 장수군이 5개, 임실군 2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진안군이 각각 1개이며, 내부조직의 수는 진안군이 6개, 무주군, 장수군, 정읍시, 임실군 4개, 순창군, 완주군 3개, 고창군 2개 순임
- 인력상황은 내부조직에 대비한 직원의 수로 보았으며 완주군이 팀당 3명으로 인력상황이 가장 좋았고, 정읍시, 고창군이 팀당 2명, 진안군과 임실군이 팀당 1명이며 무주군, 순창군, 장수군은 팀당 1명 이하임

3) 사업예산·재원마련 비교

〈표 3-1〉 전북 도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총사업비 비교

지역	총 사업비 증감	총사업비 증감율(%)	16년(천원)	17년(천원)
고창군	증가	100.0	25,000	50,000
무주군	증가	264.5	207,940	758,000
순창군	증가	114.3	77,000	165,000
완주군	증가	7.5	400,000	430,000
장수군	동결	0	50,000	50,000
정읍시	증가	12.6	732,161	824,494
진안군	-	-	-	360,000
임실군	증가	14.5	365,000	418,100

- 도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총사업비는 2016년도에는 정읍시가 가장 많았고, 완주군이 두번째이며 2017년도에는 정읍시가 가장 많았고, 무주군이 두 번째로 많음
-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변동폭으로 무주군이 무려 264.%이고, 정읍시, 순창군이 두 번째로 높음

〈표 3-2〉 2017년 총사업비 상위 3개지역 재원마련 비교

지역	정읍시(천원, %)			무주군(천원, %)			완주군(천원, %)		
	2016	2017	비율	2016	2017	비율	2016	2017	비율
국비	512,512	577,145	69.9	9,058	65,100	11.2	-	-	-
도비	10,000	0	0	20,000	155,700	26.6	-	-	-
시군비	209,648	247,348	30.1	124,882	363,700	62.2	400,000	430,000	100

- 총 사업비 1순위인 정읍시는 2016년까지 도비지원을 받다가 2017년에 도비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국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사업비를 운영
- 2순위인 무주군은 모든 경로에서 재원마련을 하고 있으며 시·군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3순위 완주는 시·군비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지역에서 3번째로 사업비가 많음

〈표 3-3〉 총사업비 증감율 상위 3개지역 재원마련 비교

지역	무주군(천원, %)			순창군(천원, %)			고창군(천원, %)		
	2016	2017	증감율	2016	2017	증감율	2016	2017	증감율
국비	9,058	65,100	618	18,900	68,600	262	-	-	-
도비	20,000	155,700	678	20,000	20,000	0	10,000	20,000	100
시군비	124,882	363,700	191	38,100	76,400	100	15,000	30,000	100

- 사업비의 '16년도와 '17년도를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증감율을 보인 상위 3개 지역은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으로 고창군을 제외하고 국비로 재원마련을 하고 있음
- 1순위인 무주군의 경우 국비와 도비가 대폭 증가하였고, 2순위인 순창군은 국비와 시·군비가 증가하였고, 고창군은 도비와 시·군비가 두배 정도 증가하였음

〈표 4-1〉 전북 도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 비교

지역	인건비 증감	인건비 증감율(%)	인당 인건비 증감	16년(천원)/인원(명)	17년(천원)/인원(명)
고창군	증가	66.7	감소	18,000 / 1	30,000 / 2
무주군	증가	344.4	증가	16,200 / 1	72,000 / 3
순창군	증가	56.7	증가	30,000 / 2	47,000 / 2
완주군	증가	27.8	증가	252,336 / 8	322,600 / 10
장수군	동결	0	동결	30,000 / 2	30,000 / 2
정읍시	증가	75.3	감소	120,000 / 3	210,304 / 7
진안군	-	-	-	-	48,000 / 2
임실군	증가	189.0	증가	50,000 / 2	144,500 / 4

- 총인건비의 경우 8개 지역 중 장수군만 동결이었고, 모두 증가하였으나 1인당 인건비의 경우 고창군, 정읍시가 감소하였음

- 인건비는 2017년도 기준 완주군이 가장 많았으며, 정읍시, 임실군 순으로 많았으며 고창군과 장수군은 가장 적었음

〈표 4-2〉 총인건비 상위 3개지역 재원마련 비교

지역	정읍시(천원, %)			무주군(천원, %)			완주군(천원, %)		
	2016	2017	증감율	2016	2017	증감율	2016	2017	증감율
국비	512,512	577,145	12.6	9,058	65,100	618	-	-	-
도비	10,000	0	-100	20,000	155,700	678	-	-	-
시군비	209,648	247,348	17.9	124,882	363,700	191	400,000	430,000	7.5

- 총인건비 상위 1순위인 정읍시의 경우 도비지원은 감소했지만 시·군비의 증가와 국비가 증가하였고, 2순위인 무주군의 경우 국비와 도비, 시·군비 모두 증가하여 총인건비가 대폭 상승함을 보였으며 3순위인 완주군의 경우 시·군비만을 지원받고 있으며 시·군비가 소폭 증가함을 보였음

〈표 5〉 전북 도내 중간지원조직의 연당인건비 변화

전북 도내 중간지원조직 연당 인건비총액의 변화				
구 분	16년 최고액	16년 최저액	17년 최고액	17년 최저액
예 산(천원)	31,542	15,000	36,125	15,000

〈표 6〉 전북 도내 중간지원조직의 인당인건비 변화

전북 도내 중간지원조직 연당 인건비(1인당) 변화				
구 분	최고증가액	최저증가액	최고감소액	최저감소액
예 산(천원)	11,125	718	9,957	3,000

〈표 7〉 전북 도내 중간지원조직의 사업비증감 및 인건비증감

전북 도내 중간지원조직 사업비증감 및 인건비증감						
구 분	사업비		사업비증감		인건비증감	
	최고증가	최저증가	최고증감	최저증감	최고증감	최저증감
예 산(천원)	550,060	25,000	264.5%	7.5%	344.4%	28.0%

- 기본통계결과로는 1인당 한 해동안 받는 인건비의 경우 '16년도 평균 23,093천원이고, '17년도 평균 24,991천원이며, 2개년도를 모두 합쳐 최저 15,000천원, 최고 36,125천원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심한 것으로 보여짐
- 재원마련의 경우 무주군, 순창군, 장수군, 진안군이 국비, 도비, 시·군비에서 마련을 하였고, 고창군, 임실군은 도비, 시·군비에서, 정읍시는 국비와 시·군비, 완주군은 시·군비로만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도비로 재원마련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대체로 인건비가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며 도단위의 지원정책이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 증가요인으로 볼 수 있겠음
- 중간지원조직의 연당인건비는 '16년도와 '17년도의 2개년도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연당인건비 총액은 동결하거나 증가하였지만 1인당 인건비로 봤을 때는 감소하는 지역이 있음
- 사업비의 증감과 인건비 총액의 증감을 비교했을 때는 사업비와 인건비 총액 모두 증가하였고, 최고증감을 봤을 때 사업비증감보다 인건비증감이 더 높았으며, 최저증감율도 인건비가 더 높게 나타남

4) 추진사업 비교

〈표 8〉 전북 도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추진사업 비교

지역	사업구분(개, %)			사업유형(개, %)	
	중앙부처	도	지자체	지원사업	수익사업
고창군	1(25)*	2(50)	1(25)	4(100)	0
무주군	2(20)	2(20)	6(60)	8(80)	2(20)
순창군	0	2(50)	2(50)	4(100)	0
완주군	0	0	19(100)	19(100)	0
장수군	1(16.6)	1(16.6)	4(66.6)	4(66.6)	2(33.3)
정읍시	3(42.8)	0	4(57.1)	7(100)	0
진안군	3(50)	0	3(50)	3(50)	3(50)
임실군	2(28.6)	3(42.8)	2(28.6)	6(85.7)	1(14.3)

※ 1은 사업 수(개)이고, 괄호 안의 숫자 25는 전체 사업량 중의 해당비율(%)임

- 중앙부처 사업은 순창군과 완주군을 제외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도단위 사업은 완주군, 정읍시, 진안군을 제외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사업은 모든 기관이 추진하고 있음
- 사업비중 측면에서 바라볼 때 중앙부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0개 지역, 도 단위 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2개 지역, 지자체 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4개 지역이고, 순창군은 도사업과 지자체사업이 동일, 진안군은 중앙부처사업과 지자체사업이 동일한 비중을 보였음
- 사업유형은 대부분의 중간지원조직이 지원사업에 대한 비중이 높았으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은 고창군, 순창군, 완주군, 정읍시이고, 수입사업을 하는 곳으로는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으로 이 중 진안군이 수익사업 비중이 가장 높았음

5) 추진사업 총괄정리

<표 9> 전북 도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추진사업 총괄정리1

사업내용 총괄정리 1			
구분	사업내용		
사업 출처	중앙 부처	역 량 강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역량강화지원사업 • 농촌현장포럼
		컨 설 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 2017년 고령친화형 생생마을재생사업
	도	육 성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지원사업 • 농촌과소화대응인력육성
		컨 설 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터미널 조성사업(도 관광문화재단) •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지 자 체	역 량 강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활동가교육 • 지역자체역량강화 • 주민역량강화사업 • 공동체역량강화사업 • 찾아가는 마을교육 • 기존마을사업 내실화 및 신규사업지원 • 국가사업 연계가능한 역량있는 마을육성 • 마을사후관리 지원 • 모여라2030청년공동체발굴·육성사업 • 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네 트 워 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공동체 활동지원 및 교류사업 • 주민상담 네트워크 지원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조 사 및 연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자원발굴사업 • 정책개발연구 • 마을자원조사
		컨 설 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교류 마을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 농촌관광중심지활성화사업 • 공동문화형 마을사업 육성지원사업 • 마을영상 제작지원 • 마을만들기시민창안대회 • 장터홍보마케팅지원사업 • 마을체험상품 개선사업

<표 10> 전북 도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추진사업 총괄정리2

사업내용 총괄정리 2		
구분	사업내용	
사업유형	중앙	• 시·군 역량강화지원사업
	도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지원사업 • 향토산업마을 지원사업 •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 문화터미널 조성사업
	지원사업	• 지역자체역량강화 • 마을활동가교육 • 찾아가는 마을교육 • 주민역량강화사업 • 공동체역량강화사업 • 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 국가사업연계가능한역량있는마을육성 • 마을공동체 자원발굴사업 • 마을자원조사 • 정책개발연구
	지자체	• 주민상담 네트워크 지원 • 창업공동체 활동지원 및 교류사업 • 마을만들기시민창안대회 • 모여라2030청년공동체발굴·육성사업 • 공동문화형 마을사업 • 농촌관광중심지활성화사업 • 중앙부처 공모사업 마을지원 • 중앙부처 마을기업사업 • 마을지원 • 기존마을사업 내실화 및 신규사업지원 • 마을체험상품 개선사업 • 장터홍보마케팅지원사업 • 마을영상 제작지원
	수익사업	• 음식관광네트워크구축컨설팅용역 • 마을컨설팅(단계별 사업) • 창조적마을만들기(문화복지프로그램 및 동아리 육성 용역) •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용역사업 •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자체	• 내고장바로알기 공직자 탐방

※ 위의 <표 5>와 <표 6>은 전북 도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들의 사업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지역간 중복되는 사업명은 추가로 작성하지 않았음

- 전북 도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들은 대체적으로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중에서도 역량강화 사업에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중앙부처 사업은 일부지역의 중간지원조직에서만 수행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나 도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중간지원조직도 있음
- 두 지역의 기관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기능을 갖추고,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자원조사 마을발굴과 같은 조사사업은 대부분 조직이 수행하고 있음

6) 설립단계 과정 비교

〈표 11〉 전북 도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설립단계 과정 비교

지역	설립 전 준비단계	설립단계	조례 및 지침근거
고창군	- 협의회 성격의 모임 - 공동체 발굴 및 연대활동 - 단체 설립 - 공동체 행사 진행	- 사업 수탁 - 조례제정 - 사단법인 설립허가 - 위탁 결정 및 승인	고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무주군	- 협의회 창립총회	- 법인설립허가 - 협의회 승계	무주군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순창군	- 워크숍 추진	- 위탁 - 실무진 구성	2016년도 생생마을만들기 추진지침(시·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완주군	- 제안 및 논의 - 육성방안 용역 - 조례제정	- 출자 및 재단법인 출범 - 위탁운영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장수군	-	-	2016년도 생생마을만들기 추진지침(시·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정읍시	- 지원센터 설립	-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공모 - 운영위원회 창립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진안군	- 정기총회(설립추진 결정) - 설립추진단 발족 - 설립추진단 실무논의(11차) - 조례제정 - 위원회 및 발기인대회	- 법인명칭 결정 - 창립총회 - 위·수탁	①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②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임실군	- 계획수립 - 기본조례제정	- 선진지견학(일본) - 공동출자 - 지역활성화포럼 개최	임실군, 농업농촌활력센터 운영 및 지원 기본 조례제정

- 전북 도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설립단계 비교 결과 ‘설립 전’ 단계에서는 모임, 워크숍, 총회 등의 논의하는 과정을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시하였고, 단체 및 추진단, 센터 등의 조직설립의 과정과 조례제정의 과정도 다수의 지역에서 실시함
- 설립 전 단계에서는 논의(회의) 및 조직(단체)설립의 과정이 주요하며 연대활동, 용역, 조례제정, 계획수립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
- ‘설립’ 단계에서는 사업의 위·수탁 과정이 많은 지역에서 실시하였고, 실질운영을 위한 법인의 설립허가도 많은 비중을 차지함

3. 중간지원조직 실태조사 결과정리

1) 실태조사 결과요약

○ 중간지원조직의 조직형태

- 전북 도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은 공설민영, 위·수탁으로 운영이 되고있으며 조직형태는 대부분이 사단법인으로 최장기간 8년차, 다수의 지역이 2년차로 중앙정부, 도단위의 정책에 의하여 최근 설치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보임

○ 조례제정 및 정책적지원 유무

- 순창군(조례제정 부재), 장수군(정책적지원 부재) 두 지역을 제외하고, 조례제정과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과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총직원 및 실무직원의 수에 따른 인력보유현황

- 총직원 수의 경우 가장 많은 곳이 9명(정읍시, 완주군), 가장 적은 곳이 2명(순창군, 장수군)으로 지역간 인력보유에 차이가 심각함
- 인력보유는 팀당 인원배치와도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실무인력이 팀당 3인까지 배치(완주군)되는 곳이 있는 반면 팀당 1인 이하(무주군, 순창군, 장수군)의 배치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지역이 존재함

○ 총사업비 및 인건비를 고려한 운영예산현황

- 총사업비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하였을 때 장수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고, 무주군이 약 264%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총인건비의 경우도 장수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지만 1인당 인건비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및 총인건비와 다르게 고창군과 정읍시에서는 감소하였고, 장수군은 동결하였음

○ **재원마련(국비, 도비, 시·군비) 및 사업유형(지원사업, 수익사업)**

- 재원마련에 대한 경로 중 중앙부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순창군, 완주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추진 중임
- 도 사업의 경우 완주군, 정읍시, 진안군을 제외한 지역에서 추진 중이었으며 시·군단위 사업은 모든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음
- 사업의 유형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비중이 높았으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지역은 고창군, 순창군, 완주군, 정읍시로 나타남

2) 실태조사 결과분석

○ **설립전-설립단계별 유형구분**

〈표 12〉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전-설립단계별 유형구분

구 분	설립 전 준비단계	설립단계	연차
①	논의(모임) & 단체설립	조례제정 & 위·수탁	- 2년차(75%) - 4년차(25%) ※평균 2.5년차
②	논의(회의) → 조례제정	출자&총회 및 포럼 → 위·수탁	- 3년차(25%) - 5년차(50%) - 8년차(25%) ※평균 5.2년차

※ 1번과 2번 유형의 기관수는 각각 4개 지역의 기관임

※ &는 별도의 추진과정, →는 순차적 추진과정

- 전북 도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전 준비단계와 설립단계로 단계별 구분을 하였을 때
- 설립 전 준비단계는 ① 논의(모임의 성격) 또는 단체설립이 이루어지는 유형과 ② 논의(회의의 성격) 후 조례제정으로 진행되는 유형

으로 구분

- 설립단계는 ① 조례제정 또는 위·수탁이 이루어지는 유형과 ② 출자와 총회 및 포럼이 이루어진 후 위·수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 구분
- 단계별 구분된 유형은 연차로 특징이 보여지는데 유형 ①은 최근 설치된 평균 2.5년으로 최근 정책적인 흐름에 의하여 설립이 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음
- 유형 ②는 평균 5년차로 예전부터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하여 준비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음

○ 총사업비 상위 2개지역과 하위 2개지역 차이비교(사업적접근)

- 2017년 기준 총사업비 상위 2개지역은 정읍시와 무주군이고, 하위 2개지역은 고창군과 장수군임
-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의 사업내용을 비교해보면 상위지역의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중앙부처 사업을 2개 이상 진행하며 무주군 중간지원조직은 수익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하위지역에서는 중앙단위의 사업은 진행하지 않으며 지원사업만 추진 중에 있음
- 상위지역의 특징은 지자체에 자체적인 역량강화 → 지역자체사업(소액사업)으로의 단계별 지원정책에 근거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정읍시 시민창안대회, 무주군 지역역량강화, 활동가교육 등

- 하위지역의 특징은 도단위의 지원정책인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농촌과소화대응인력육성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에 별도의 지원정책이기 보다는 매칭형식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3〉 총사업비 상위지역-하위지역 차이비교

구 분	지역	사업유형	재원마련구분	사업명
상위 1순위	정읍시	지원사업	중앙부처	-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 2017년 고령친화형 생생마을재생사업 -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지자체	- 주민역량강화사업 - 정읍마을만들기시민창안대회 - 모여라2030청년공동체발굴·육성사업
상위 2순위	무주군	지원사업	도	- 중간지원조직구축사업 - 농촌과소화대응인력육성
			지자체	- 도농교류 마을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 마을활동가교육(2015년 시작) - 시·군역량강화사업(교육, 역량강화) - 무주군 지역역량강화(네트워크) - 농촌관광중심지활성화사업
		수익사업	중앙부처	-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지원 - 음식관광네트워크구축 컨설팅용역
하위 1순위 (공동)	고창군	지원사업	도	- 중간지원조직구축사업 - 농촌과소화대응인력육성 - 문화터미널 조성사업
			지자체	- 마을공동체 자원발굴 사업 - 시·군역량강화사업
하위 1순위 (공동)	장수군	지원사업	도	- 중간지원조직구축사업 - 농촌과소화대응인력육성 - 생생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자체	- 시·군역량강화 사업 - 찾아가는 마을교육 - 마을자원조사 - 마을체험상품 개선사업 - 마을영상 제작지원

중간지원조직 역할정리를 위한 관계자 토론회 및 워크숍

1.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토론회 및 워크숍 개요

- 전라북도 내의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정리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대표 및 실무자, 시·군의 담당공무원,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
-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차씩 1차 실무자 토론회, 2차 행정-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워크숍 3차 행정-중간지원조직-전문가 관계자 세미나(워크숍)를 진행
- 토론회 및 워크숍의 주요목적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정리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4〉 중간지원조직의 관계자 토론회 및 워크숍

구 분	참여자	주요내용
1차 실무자 토론회	전북 도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주요현안 파악
		현안개선을 위한 필요·가능사항
		중간지원조직 필요성 및 기능
2차 관계자 워크숍	전북 도내 중간지원조직 관계자(대표, 실무자), 시·군 담당공무원(계장, 담당자)	(행정관점) 중간지원조직 필요성 및 기능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지원
		중간지원조직의 단계별 유형도출
3차 관계자 세미나	전북 도내 중간지원조직 관계자(대표, 실무자), 시·군 담당공무원(계장, 담당자), 관련전문가	중간지원조직 역할정리
		역할에 대한 이상적인 유형도출
		유형도출에 대한 진단(방안마련)

2.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토론회

- 전라북도 내의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실무자간 토론회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의견 도출 및 자료를 수집
-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토론회는 2017년 8월 30일에 6개지역(고창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에서 참여하여 진행하였음
- 각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무자들의 토론회와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을 진행함

1)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간담회 결과

〈표 15〉 중간지원조직의 주요현안 토론회결과

중간지원조직의 주요현안 토론회결과			
구 분	주제분류	이슈분류	현황 및 방안
현안	중간지원조직 운영	초기 인건비 지원	성과가 없다며 의회에서 삭제 (인건비에 대한 지원제외)
	관심 및 인식	설립당시 마을로부터 관심	작은규모의 사업만 진행하여 관심도가 점차 감소(운영의 침체기 돌입)
		행정에서 설치	낮은인식정도 (하청업체, 낮은역량, 부하직원 등)
해결 방안	중간지원조직 운영	인건비 지원	조례제정에 의한 정책적지원
	관심 및 인식	마을의 관심	내부적 성찰과 내부역량강화를 통한 역할의 확대
		행정의 인식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백한 제시 (행정조직의 파트너기관)
추가 의견 (중간지원조직의 효과)	사업 수행		중간지원조직이 없다면 마을사업을 단순 위탁사업으로 진행 가능성 농후
	마을에 대한 인식		단순 사업대상이 아닌 공동체활성화를 위 한 지역주민으로 인식
	자산축적		과거, 현재, 미래에 추진사업과 지역 내 마 을에 대한 자료축적 → 역량강화 → 계획 수립 등이 가능

- 중간지원조직의 특성상 ‘역량강화’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므로 단기
간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움
- 마을에서도 예산규모가 크거나 실질 체감도가 높은사업(국가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행정에서의 인식도는 행정보조, 보조금집행조직, 마을사무장 정도로 인식

-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에 관련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내부적 성찰이 필요하며 내부역량강화를 통해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위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백한 제시 필요

〈표 16〉 중간지원조직 현안개선을 위한 필요·가능사항 토론결과

중간지원조직 현안개선을 위해 필요·가능사항 토론결과		
구분	주제	내용
필요사항	네트워크 및 교류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만의 가조조직 구축 및 운영필요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만의 네트워크 및 소통의 장)
	중간지원조직 필요성 조사·분석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유/무, 존재의 전/후 효과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여 비교분석 필요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체감정도를 확인하여 필요성 확인)
	역량강화 니즈요청 권한	역량강화가 필요한 분야, 내용에 대하여 광역조직에 요청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치 필요(교육과정, 내용 등)
가능사항	지역유대감 강화	풀뿌리 자치 및 협치주의로 지역과의 지역성 및 유대감 강화
	지속성있는 지원	담당공무원의 빈번한 교체 및 역량과 의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마을·지역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가능
	예산사용의 중간조정자	행정의 칸막이로 인한 국가 및 지방 사업비의 비효율적 집행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가능하도록 중간조정자 역할

- 중간지원조직의 주요현안인 인건비, 관심 및 인식에 대한 개선과 현상황보다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함
- 필요사항으로는 네트워크 및 교류,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와 분석, 역량강화 니즈요청 권한이 주요하며 가능사항으로는 지역유대감 강화, 지속성있는 지원, 예산사용 중간조정이 가능함

2)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표 17〉 중간지원조직 필요성·역할·기능의 퍼실리테이션 실시 결과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역할·기능의 퍼실리테이션 실시 결과		
구 분	현상항 및 사업분류	내 용
필요성	마을은 단순 돈벌이 대상이 아닌 진심으로 지원해야하는 대상	-중간지원조직은 강한 지역성과 마을과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기본으로 함
	대부분의 마을들이 사업 종료와 함께 지원과 관리도 받지 못하는 현상 발생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종료 후에도 현장성을 기반으로한 관계유지로 마을에 대한 지속적 인 지원이 가능
	행정의 과도한 업무로 마을에서 원하는 필요지원에 즉각적인 지원이 한계	-중간지원조직은 마을을 우선으로 하기 때 문에 보다 빠른지원이 가능
	지역 내·외부의 네트워크 한계	-민간네트워크와 교류가 가능하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의 기능도 가능함
역할과 기능	현장의 밀착활동	-마을공동체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지원이 가능
	관계 조정 및 네트워크	-행정과 마을의 중재 및 조정 -마을의 대변 및 옹호 -마을과 마을간 연결고리 등 네트워크
	사후관리	-마을의 한계를 같이 극복하고자함 -지속성있는 사후관리
	지역사업 조정 및 중재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내 사업들의 조정 및 중재
	조사 및 연구	-정책수립 및 사업계획을 위한 조사와 연구

3)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토론회 결과요약

- 중간지원조직은 현재 불안한 인건비 확보, 낮은수준의 관심과 인식이라는 주요 현안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조례제정, 정책지원, 지침제시 등 외부적인 지원과 내부성찰 및 역량강화, 지역유대감 강화 등 내부적 노력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지속적인 마을지원이 가능한 조직이며 역량강화(교육), 네트워크, 사후관리, 조사 및 연구, DB구축, 행정지원, 사업 조정 및 중재 등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사업확장이 가능함

3. 행정-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워크숍

- 전라북도 내의 자자체 공무원(계장, 담당자)과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관계자(대표, 실무자)와의 토론회를 실시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두 주체의 관점 및 입장의 차이를 현장에서 논의하며 의견을 도출함
- 행정-중간지원조직 워크숍은 2017년 9월 20일에 중간지원조직 9개 지역(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행정 4개 지역(무주군, 완주군, 익산시, 장수군)에서 참여하여 진행함
-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주제의 발제 후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형태로 워크숍을 진행함

1) 중간지원조직 운영형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발제

- 중간지원조직 운영형태
 - 임실군 중간지원조직인 (사)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 장현우 사무국장
 - 역량강화사업, 장터 홍보마케팅, 생생마을만들기(기초, 사후, 콘테스트),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해결이 필요(인건비 지원 2년 이후의 자립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
- 중간지원조직 필요성과 발전방향
 - 장수군 (사)지역활력센터 하영택 부센터장
 - 조례제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사업추진의 근거가 확보될 수 있음
 - 행정 부서간 결합된 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의 내적 전문성, 현장성 강화를 통한 민간의 신뢰, 민간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이 필요

2) 중간지원조직 핵심이슈에 대한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역할과 기능(행정관점)

<표 18> 행정관점의 중간지원조직 필요성·역할·기능의 퍼실리테이션 결과

행정관점의 중간지원조직 필요성·역할·기능의 퍼실리테이션 실시 결과		
구분	원인 및 사업분류	내용
필요성	인사이동 및 과중한업무	-행정과의 파트너
	현장(마을) 업무에 대한 현장성	-신규마을발굴 -공동체 DB구축 -마을활성화
	내·외부 네트워크 한계	-민-민 네트워크 -민-관 네트워크 -지역 내·외 관계 네트워크
역할과 기능	행정업무 지원	-마을에서 어려워하는 정산 -사업진행보조 -행정사무업무(간소화) -민원전달 및 해결
	네트워크 및 현장지원	-주민들과 만나는 현장활동가 -행정에서 부족한 민관 네트워크 -관계기관과의 교류 촉매제 -행정과 주민의 매개체
	사업수행	-업무적인 중립 -잠재(신규)마을 발굴 -실질적인 마을현황 파악 -컨설팅, 지자체사업 위탁
	조사 및 연구	-조사 및 정보제공, DB구축

- 행정관점을 추가적으로 도출한 결과 순환보직구조의 특성상 업무적 한계로 인한 행정과의 파트너로서 중간지원조직, 현장성 있는 업무지원, 내·외적인 네트워크 및 관계형성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행정관점에서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기능은 행정업무지원, 네트워크 및 현장지원, 사업수행, 조사 및 연구로 분류할 수 있음

〈표 19〉 행정관점과 중간지원조직관점의 결과비교

행정관점과 중간지원조직관점의 결과비교			
구 분	행정관점	중간지원조직관점	비교결과
필요성	행정과의 파트너(과중업무)	마을의 즉각지원	중간지원조직 관점에서 '지속적 사후관리'가 추가
	현장성있는 업무지원	강한지역성으로 마을지원	
	네트워크 및 관계형성	지역 내·외부 네트워크	
	-	지속적 사후관리	
역할과 기능	행정업무지원	현장의 밀착활동	중간지원조직 관점에서 '지역사업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추가
	네트워크 및 현장지원	관계 조정 및 네트워크	
	사업수행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조사 및 연구	조사 및 연구	
	-	지역사업의 조정 및 중재	

- 행정관점과 중간지원조직의 관점을 비교한 결과 세부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에서 일치하거나 유사하였고, 필요성에서 ‘지속적 사후관리’, 역할과 기능에서 ‘지역사업의 조정 및 중재’가 중간지원조직의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도출됨
- 두 가지 주제 모두 중간지원조직에서 추가적인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지역과 마을을 위하여 더욱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냄

○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지원

<표 20>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지원 1조 결과

순번 (시급성)	분류	내용
1	사업운영비 비원	장기적인 인건비지원, 지원비율 조정
		사업비지원 상향조정
		실무자 신분보장
2	인건비 보장	실무자 인건비(인건비, 활동비)
		인센티브(추가 보너스), 연봉 상승, 급여 인상
		고용안정성 강화
3	사무공간 확보 및 운영	사무실 운영비
		사무공간(정착할 수 있는, 이사안가는)
		쾌적한 사무실, 집기류 등
4	충분한 T.O확보	인력지원, 인력, 인력풀, 충분한 인력
5	실무자 역량강화	실무자(직원) 역량강화
		실무 역량강화비, 활동인력 인재개발 비용
		트렌드를 읽을 수 있도록 전문교육
6	법적근거 마련	법률 및 조례제정
7	업무차량 지원	공용차량 지원

<표 21>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지원 2조 결과

구분 (시급성X)	분류	내용
1	센터운영비 지원	인건비, 활동비 지원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비품, 사무실 기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2	행정과의 모임 정례화	행정과의 정기적인 모임
		파트너십 강화
3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교육비, 전문 교육지원
		역량강화 교육, 전문인력 양성, 역량강화
4	시스템 체계화	시스템 정착, 정확한 업무분장
		칸막이 제거
		체계적인 사업계획, 일관성 있는 사업진행
5	조례의 활성화	법(조례)대로 진행

※ 2조는 시급성 순서가 아님

- 필수적인 지원으로는 센터운영비 지원, 역량강화, 법적근거 마련, 조례의 활성화, 행정과의 모임 정례화, 시스템 체계화로 의견이 도출됨
- 센터운영비 지원으로는 인건비 보장, 사무공간 확보 및 운영, 충분한 T.O확보, 공동사용을 위한 업무차량 지원으로 도출되었고, 역량강화의 의견으로는 기관역량과 실무자역량에 대한 강화가 도출됨

〈표 22〉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지원(보조적인 지원)

구분	내용
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적인 사업권한, 사업비 전결권, 구체적 사업량 확보 -행정의 파트너마인드, 지자체의 필수조직으로 인정 -통일된 지침서(중간지원조직) -업무성과 인센티브, 공동차량지원
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없는 사업, 소규모 마을공동체 사업, 사업발굴 -서류간소화, 워드만 사용하는 서류환경 -사업비 이월 -관심과 배려, 인내와 침묵, 과도한 간섭자제, 성과독촉 자제, 문제점 공유

- 보조적인 지원으로는 사업부분, 업무부분, 인식부분, 지침부분 등의 의견이 도출되었음
- 사업부분으로는 실질사업권한 확보, 사업비 전결권 확보, 구체적인 사업량 확보, 사업발굴, 소규모 마을공동체 사업이며, 업무부분으로는 서류간소화와 워드위주의 서류환경 탈피가 도출되었음
- 인식부분으로는 행정의 파트너 마인드, 필수조직으로 인정, 관심과 배려, 인내와 침묵, 행정의 과도한 간섭자제, 성과독촉 자제가 도출됨
- 지침부분으로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통일된 지침서, 지침없는 사업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문제점공유, 사업비 이월, 업무성과 인센티브의 기타의견이 도출되었음

○ 중간지원조직의 단계별 형태 및 유형

<표 23> 중간지원조직의 단계별 형태 및 유형

구 분	설립 단계	정착 단계	지속운영 단계
내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구성, 정체성 확립 - 발전전략수립,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 지역밀착 현장성 확보, 마을주민과의 신뢰, 자생을 위한 지역 기반 구축 - 자기계발, 민-민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십, 지역 내 단체 네트워크 - 지역조사DB구축, 정책 조사연구 - 마을과 마을 연계사업 강화, 충분한 사업비 확보, 수익사업 창출 - 전문적인 스킬, 컨설팅 업체보다 나은 전문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사업 수탁운영, - 지역활성화 아젠다 발굴, 사업발굴 - 인력의 전문화
외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지원, 인건비보장, 센터운영비 지원, 사무공간 확보.운영 - 실무자 역량강화, 충분한 T.O확보, 단체장 의지 - 전담 행정조직 신설, 행정과의 모임 정례화 -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시스템 체계화 - 조례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마련, 조례의 활성화 - 필수기관 인정 - 행정협의회(부서간협력), 의회 기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차량 지원 - 전국적 교류&협력 - 인센티브

- 중간지원조직의 단계별 형태(내부)로는 설립단계, 정착단계, 지속운영 단계로 나누어 의견을 도출하였음
- 설립단계로는 구축(조직구성, 정체성확립), 계획(발전전략 및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운영(지역밀착 현장성, 마을주민과 신뢰, 지역기반구축, 자기계발), 네트워크(민-민 네트워크 구축)가 도출됨
- 정착단계로는 사업내용(지역조사 DB구축, 정책조사연구, 수익사업, 마을과 마을의 연계사업), 역량강화(사업수행 전문스킬, 컨설팅업체 이상의 전문능력), 네트워크(행정과의 파트너십, 지역 내 단체 네트워크)가 도출되었음
- 지속운영단계로는 사업내용(교육사업 수탁운영, 지역활성화 아젠다 발굴, 추가사업발굴), 역량강화(인력의 전문화)가 도출되었음

- 중간지원조직의 이상적인 형태(외부지원)로는 설립단계, 정착단계, 지속운영단계로 나누어 의견을 도출하였음
- 설립단계로는 운영비지원(충분한 T.O와 인건비, 사무공간 운영비), 행정지원(조례제정, 전담행정조직 신설, 행정과의 모임 정례화(소통), 단체장의 의지 필요), 운영지원(운영시스템 체계화, 역량강화)이 도출되었음
- 정착단계로는 행정지원(법적근거 마련, 조례의 활성화, 부서간 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 의회기능 강화), 인식(지역의 필수기관으로 인정)이 도출되었음
- 지속운영단계로는 운영지원(인센티브, 운영차량 지원), 네트워크 지원(전국적 교류 및 협력지원)이 도출되었음

3) 행정-중간지원조직 워크숍 결과요약

- 운영비지원은 인건비(충분한 인력확보, 기간연장), 사무실운영지원, 차량지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됨
- 행정지원은 조례제정(지역)에서 법적근거 마련(중앙)이 필요하고, 행정에서의 인식변화가 필요한데 인식은 파트너로서 업무적 독촉을 자제를 해야한다는 결과가 도출됨
- 사업내용은 지역정보 DB구축, 교육사업, 소규모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과 마을간 연계사업, 지역활성화 아젠다 발굴, 추가사업 발굴
- 역량강화는 전문스킬과 컨설팅사업역량, 실무자 및 조직역량 강화
- 네트워크는 민-민 네트워크, 민-관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지역 내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전국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도출됨

4. 행정-중간지원조직-전문가 관계자 세미나

- 2017년 10월 24일(화) 개최
- 중간결과 공유발표, 유형별 운영모델 발굴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중간지원조직 관련 주제 발제 및 패널토론&전체토론 실시
- 전북도내 행정(계장, 담당자), 중간지원조직(대표, 실무자), 광역 중간지원조직(전국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

1) 행정-중간지원조직-전문가 세미나 결과정리

- 중간지원조직 유형구분 및 유형분석(장단점)

〈표 24〉 공무원관점의 중간지원조직 유형

(공무원 관점)중간지원조직의 유형		
구분	내용	설명
조직형태	위탁운영	아직은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이 파트너가 될 수 없는 구조이며,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든 위탁운영
조례제정	여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필수
정책적지원	여	운영을 위한 정책적지원 필요
실무직원 수	기능, 업무량	조직의 기능과 업무량에 대비한 적절한 직원 수
재원마련	국비, 매칭	국비지원, 시.군에서는 매칭으로 재원을 마련
추진사업	지자체+국.도비사업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에 집중해야 하므로 지자체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지원사업 위주로 추진

- 공무원 관점의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중간지원조직 유형은 위탁운영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구분하기 보다 우선적으로 위탁운영)의 형태
- 조례제정과 정책적지원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임
- 실무직원 수는 조직의 기능과 업무량에 대비하여 적절한 인원 수가 필요하며, 몇 명이라고 사전에 정하기가 어려움
- 재원마련으로는 국비지원과 매칭을 통하여 다양한 루트에서 마련하고, 지자체사업 위주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필요시 중앙단위, 도단위의 사업을 추진

〈표 25〉 공무원관점의 중간지원조직 유형진단

(공무원관점)중간지원조직 유형진단	
장 점	단 점
-안정성 확보 -행정업무 경감	-탄력적 운영의 한계 -적극성 결여
장 점 강 화 방 안	단 점 보 완 방 안
-구성원의 인적역량 강화 -안정적 재원확보	-자체사업 지속적 추진 -인센티브 지원

- 공무원관점의 중간지원조직 유형의 장점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간지원조직 업무지원기능을 통한 행정업무에 대한 경감이며 강화방안은 구성원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임
- 단점은 지자체 행정의 개입으로 탄력적 운영의 한계와 적극성이 결여된다는 부분이며 보완방안은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적극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도출

〈표 26〉 중간지원조직관점의 중간지원조직 유형

(중간지원조직 관점)중간지원조직의 유형		
구 분	내 용	설 명
조직형태	위탁운영/ 조례조직(직영)	재단법인, 행정의 지분(출자)에 제한
조례제정	여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필수
정책적지원	여	운영을 위한 정책적지원 필요
실무직원 수	최소 7명	중가지원조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팀당 2인 이상은 필요
재원마련	국비, 도비, 시.군비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모든 경로에서 재원을 마련이 필요
추진사업	중앙, 도, 지자체	지자체의 지원사업과 지속적인 운영 및 자립을 위한 중앙.도단위의 수익사업을 추진

- 중간지원조직관점의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중간지원조직 유형은 위탁 운영(재단법인)과 직영의 조례조직 두 가지 방향이 도출됨
- 조례제정과 정책적지원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임

- 실무직원 수는 최소 7명으로 팀당 2인 이상은 필요함
- 채용마련과 추진사업은 모든경로에서 추진하며, 지원사업과 함께 수익사업을 실시하여 지속적 운영에 대한 안정성 및 자립을 위함임

〈표 27〉 중간지원조직관점의 중간지원조직 유형진단

중간지원조직 유형(공무원그룹)의 장단점 및 강화보완방안	
장 점	단 점
-운영의 안정성 확보 (단체장이 바뀌어도 안정적인 운영가능) -재정적안정 (안정적인 재정보호로 원활한 운영) -출자자의 관심도 증가	-출자지분에 따른 행정의 지배예상 -출자자 다양성 욕구충족 한계 -재단설립시 재원충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설립이 어려움 -출자가 어려움
장 점 강 화 방 안	단 점 보 완 방 안
-사업다각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강화 -지역 민간단체의 적극적참여(민-민 강화)	-행정의 지분을 최소화 -국도비 비율을 70%이상 매칭사업으로 추진 -의견 구조방법 대안마련 -조례에 (재원사업)지원근거 명시 -재단법인의 성격 및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중간지원조직 관점의 중간지원조직 유형의 장점은 단체장이 바뀌어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운영의 안정성 확보, 안정적인 재정보호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재정적안정, 출자자의 관심도 증가이며 강화방안은 사업다각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강화, 지역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부분임
- 단점은 출자지분에 따른 행정의 지배가 예상되는 부분, 출자자 다양성 욕구충족의 한계, 재단의 설립시 재원의 충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 설립절차가 까다롭고, 지식이 없으면 설립이 어려운 부분과 출자가 어려운 부분이며 보완방안은 행정의 지분을 최소화, 국도비 비율을 70%이상으로 매칭사업을 추진, 의견 구조방법 대안마련, 조례에 재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재단법인의 성격 및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도출

5.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정리 및 유형도출

1)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정리

〈표 28〉 행정과 중간지원조직관점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정리

구 분	필요성	기능	세부내용
행 정	행정과의 파트너 (행정의 과중업무 해소)	행정업무 지원	-마을에서 어려워하는 정산 -사업진행보조 -행정사무업무 -민원전달 및 해결
	현장성있는 업무지원	사업수행 조사 및 연구	-잠재(신규)마을 발굴 -컨설팅, 지자체사업 위탁 -조사 및 정보제공 (실질적인 마을현황 파악, 정보갱신) -지역 내 DB구축
	네트워크 및 관계형성	네트워크 및 현장지원	-행정에서 부족한 민-관 네트워크 -관계기관과의 교류 촉매제 -행정과 주민의 매개체 -현장성 있는 활동가
중 간 지 원 조 직	마을은 단순 돈벌이 대상이 아닌 진심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지속성있는 사후관리
	대부분 마을들이 사업 종료와 함께 지원과 관리도 받지 못하는 현상		
	행정의 과도한 업무로 마을요청시 즉각지원의 한계	현장의 밀착활동	-마을공동체의 특성과 상황에 맞춤지원
	지역 내·외부의 네트워크 한계	관계조정 및 네트워크	-행정과 마을의 중재 및 조정 -마을의 대변 및 옹호 -마을과 마을간 연결고리 등 네트워크
	지역사업 효과성 제고	지역사업의 조정 및 중재 (행정의 칸막이)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내 사업들의 조정 및 중재
조사 및 연구		-정책수립 및 사업계획을 위한 조사연구	

〈표 29〉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정리(종합)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정리(종합)	
구 분	역 할
행정업무 지원	-마을에서 어려워하는 정산 -사업진행보조 -행정사무업무 -민원전달 및 해결
사업수행	-잠재(신규)마을 발굴 -컨설팅, 지자체사업 위탁 -지속성있는 사후관리 -마을공동체의 특성과 상황에 맞춤지원
조사 및 연구	-조사 및 정보제공 (실질적인 마을현황 파악, 정보갱신) -지역 내 DB구축 -정책수립 및 사업계획을 위한 조사연구
네트워크 및 현장지원	-행정에서 부족한 민-관 네트워크 -마을과 마을간 연결고리 등 민-민 네트워크 -관계기관과의 교류 촉매제 -행정과 주민의 매개체(중재 및 조정) -마을의 대변 및 옹호 -현장성 있는 활동가
지역사업의 조정 및 중재 (행정의 칸막이)*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내 사업들의 조정 및 중재

* 지역사업의 조정 및 중재는 미래에 중간지원조직이 할 수 있는 역할임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성, 기능, 세부내용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고, 행정의 관점과 중간지원조직의 관점을 각각 관계자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행정업무 지원, 사업수행, 조사 및 연구, 네트워크 및 현장지원, 지역사업의 조정 및 중재라는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파트너로서 채워줄 수 있어야 하며 지역 내 조사·사업수행·사후관리로 지역개발과 관련된 전분야에 대하여 수행해야하며 연구와 네트워크도 추가적으로 추진해야함

2)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따른 유형도출

〈표 30〉 지속가능한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유형구분

지속가능한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유형구분						
번호	필요성	조례 제정	정책적 지원	실무직원 수	재원마련	사업추진
워크숍 결과	사단법인, 조례조직 (위탁)	여	여	7명 이상 (최소 팀당 2인)	시·군비+ (매칭)국비, 도비	지원사업+수익사업
조합 1순위	사단법인 (위탁)	여	여	9명	국비, 도비, 시·군비	지원사업(100%)
조합 2순위	사단법인 (위탁)	여	여	3명 ~ 4명	도비, 시·군비	지원사업(60%~80%) 수익사업(20%~40%)

- 중간지원조직의 유형구분 중 워크숍 결과로 인한 유형구분, 기존의 조합 1순위 유형구분, 조합 2순위 유형구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워크숍 결과, 조합 1순위 유형구분은 이상적인 유형, 조합 2순위는 보다 현실적인 유형으로 구분이 됨
-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이상적인 유형은 위탁운영으로 사단법인, 조례조직형태이며, 조례제정과 정책적 지원 모두 되어있어야하며, 실무직원 수는 7명이상이고, 시·군비를 기반으로하며 매칭으로 국비와 도비도 확보해야하며 지원사업과 수익사업을 추진해야함
- 현재 전북 도내의 중간지원조직들은 조직의 형태부터 사업추진까지 통일된 사례는 없으며 이상적인 유형과 거리가 멀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중간지원조직들이 존재함

1.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개요

-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과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는 10월 ~ 11월에 직접방문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조사
 - 광역단위는 전국의 9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조사
 - 기초단위는 전북 도내 10개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조사
 - 총 응답 51명으로 광역단위 20명, 기초단위 31명임
 - 조사내용은 기본정보조사, 역량 및 역할조사, 연계협업조사, 지속 운영을 위한 중요성 및 시급성 조사로 구분

2.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내용

1) 중간지원조직 기본정보조사

- 성별 및 연령대
 - 성별은 남성 70.6%, 여성 29.4%로 남성이 많음
 - 연령대는 30대 35.3%, 40대 21.6%, 50대 21.6%, 20대 17.6%순임
- 직업형태 및 월평균 근로소득
 - 직업형태는 전업 84.3%, 겸업 11.8%로 전업인 경우가 대부분
 - 월평균 근로소득은 100~200만원 54.9%, 200~300만원 31.4%로 전체 중 86.3%가 300만원 이하의 월평균 소득을 얻고 있음
- 대학(원)전공
 - 대학(원)전공은 중간지원조직 업무와 관련없는 전공 45.1%, 관련된 전공 39.2%, 어느정도 관련된 전공 15.7%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공자가 54.9%에 해당됨

2) 중간지원조직 역량 및 역할조사

○ 중간지원조직 관계자가 자체평가한 역량수준

〈표. 31〉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수준 평가

번호	문항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	지역 및 마을에 대한 정보조사	0.0%	2.0%	33.3%	47.1%	17.6%
2	역량강화 및 교육	0.0%	5.9%	37.3%	47.1%	9.8%
3	예비사업계획 및 기본사업계획 수립	3.9%	17.6%	39.2%	29.4%	9.8%
4	도 및 지자체 소액사업지원	5.9%	7.8%	39.2%	31.4%	15.7%
5	중앙단위 중규모 이상 컨설팅사업	9.8%	29.4%	31.4%	29.4%	0.0%
6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3.9%	13.7%	33.3%	39.2%	9.8%
7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0.0%	5.9%	35.3%	39.2%	19.6%
8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	5.9%	23.5%	27.5%	29.4%	13.7%
9	행정에 대한 업무지원(정산, 사무, 민원 등)	3.9%	3.9%	17.6%	56.9%	17.6%

- 중간지원조직의 역량평가는 총 9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이 보통이상으로 평가되었음
- ‘높음’으로 평가된 문항은 정보조사, 역량강화, 사후관리, 네트워크, 연구, 행정업무지원이고, ‘보통’으로 평가된 문항은 사업계획수립, 소액사업지원, 컨설팅사업으로 나타남
- 보통으로 평가된 부분은 사업계획수립부터 사업운영까지의 컨설팅역량으로 볼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 관계자가 자체평가한 역할의 적합도

〈표. 32〉 중간지원조직 역할의 적합도 평가

번호	문항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	지역 및 마을에 대한 정보조사	0.0%	2.0%	21.6%	52.9%	23.5%
2	역량강화 및 교육	0.0%	2.0%	19.3%	66.7%	11.8%
3	도 및 지자체 소액사업지원	2.0%	2.0%	39.2%	45.1%	11.8%
4	중앙단위 중규모 이상 컨설팅사업	3.9%	19.6%	41.2%	33.3%	2.0%
5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2.0%	7.8%	25.5%	54.9%	9.8%
6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0.0%	2.0%	31.4%	51.0%	15.7%
7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	3.9%	9.8%	39.2%	31.4%	15.7%
8	(광역)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육성·운영지원	0.0%	2.0%	35.3%	29.4%	13.7%
9	(광역)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요구(니즈)해결	0.0%	2.0%	41.2%	25.5%	11.8%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적합도는 총 9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8번과 9번 문항은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에게만 해당이 됨
- ‘높음’ 으로 평가된 문항은 정보조사, 역량강화, 소액사업지원, 사후관리, 네트워크이고, ‘보통’ 으로 평가된 문항은 중규모이상 컨설팅사업,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 (광역)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육성지원, (광역)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요구해결으로 나타남
- 역량수준평가에서 ‘보통’ 으로 평가된 부분은 소액단위사업이 역할부분에서는 높음으로 평가되어 역량은 부족하지만 추 후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업 가능성평가

〈표. 33〉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업 가능성평가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마을)의 정보조사 및 DB구축	0.0%	0.0%	25.5%	39.2%	35.3%
2	역량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0%	3.9%	27.5%	51.0%	17.6%
3	도 및 지자체 소액사업지원	0.0%	5.9%	39.2%	41.2%	13.7%
4	중앙단위 중규모 이상 컨설팅사업	0.0%	3.9%	45.1%	35.3%	15.7%
5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0.0%	5.9%	43.1%	35.3%	15.7%
6	지역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0.0%	2.0%	11.8%	47.1%	37.3%
7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	0.0%	3.9%	25.5%	35.3%	35.3%

- 중간지원조직의 연계협업 가능성평가는 총 7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 ‘매우높음’ 으로 평가된 문항은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이고, ‘높음’ 으로 평가된 문항은 정보조사, 역량강화, 소액사업지원, 네트워크이며 ‘보통’ 으로 평가된 항목은 중규모이상의 컨설팅사업, 사후관리임
-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는 역량 및 역할 평가에서는 보통과 높음으로 평가되었지만 연계협업의 가능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어 추후 연계할 수 있는 분야로 기대할 수 있음

〈표. 34〉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업 긍정적효과기대 1순위

번호	문항	평가	순위
1	지역(마을)의 정보조사 및 DB구축	31.4%	1
2	역량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27.5%	2
3	도 및 지자체 소액사업지원	5.9%	5
4	중앙단위 중규모 이상 컨설팅사업	3.9%	6
5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2.0%	7
6	지역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17.6%	3
7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	11.8%	4
8	기타	0.0%	

〈표. 35〉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업 긍정적효과기대 2순위

번호	문항	평가	순위
1	지역(마을)의 정보조사 및 DB구축	17.6%	2
2	역량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17.6%	2
3	도 및 지자체 소액사업지원	5.9%	6
4	중앙단위 중규모 이상 컨설팅사업	3.9%	7
5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15.7%	4
6	지역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29.4%	1
7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	9.8%	5
8	기타	0.0%	

〈표. 36〉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업 긍정적효과기대 3순위

번호	문항	평가	순위
1	지역(마을)의 정보조사 및 DB구축	19.6%	2
2	역량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11.8%	4
3	도 및 지자체 소액사업지원	5.9%	7
4	중앙단위 중규모 이상 컨설팅사업	11.8%	4
5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17.6%	3
6	지역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23.5%	1
7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	9.8%	6
8	기타	0.0%	

- 중간지원조직의 연계협업 시 긍정적효과는 총 7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음
- ‘1순위’에서는 정보조사 및 DB구축 31.4%, 역량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27.5%,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17.6% 순으로 나타남
- ‘2순위’에서는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29.4%, 정보조사 및 DB구축 17.6%, 역량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17.5% 순으로 나타남
- ‘3순위’에서는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23.5%, 정보조사 및 DB구축 19.6%, 지속적인 사후관리 17.6% 순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1순위 ‘정보조사 및 DB구축’, 2순위·3순위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로 선정되었음
- 연계협업이 가능한 사업(업무)명으로는 다음과 같음

〈표. 37〉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업 사업(기초단위)

구분	분야	사업(업무)명
1순위	정보조사 및 DB구축	- 마을자원조사 - 모니터링 및 평가이력시스템 구축 - 공동체현장지원 및 모니터링
2순위·3순위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 마실넷, 농촌과소화대응인력 담당자(마을형) 협의회 -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 사회연대경제교류협력
추가	역량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 소규모 마을(농장)축제기획 및 마케팅/ 네이버 모두 툴을 이용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교육 - 지역역량강화사업, 농촌현장포럼 - 슬로푸드학교, 찾아가는 마을학교, 체험지도사과정 - 민박협의회 회원 역량강화 교육
	지속적인 사후관리	- 체험프로그램 개선과 발굴, 홍보영상제작 지원 - (도)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사업
	소액 및 컨설팅 사업운영	- 지역단계별지원정책 사업(도, 지자체) - 공동체협의회 운영, 소규모 지역공동체발굴 지원 - 마을축제, 장터, 박람회 지원사업 - (농식품부)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 (도)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사업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	- 정책개발 각종 포럼

〈표. 38〉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업 사업(광역단위)

구분	분야	사업(업무)명
1순위	정보조사 및 DB구축	- 마을자원조사 - 마을만들기 지도제작, 마을 DB구축 - 마을만들기 참여활동 공유자료 구축
2순위 · 3순위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 지역별 마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마을만들기 인재뱅크 구축 - 신규자 채용설명회,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 오프라인 소식지 발간, 웹진 소식지 발간, 온·오프라인 홍보서비스 구축, 연간활동 보고서 발간 - 대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마을만들기 인재뱅크
추가	역량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 각 시군 마을조사방법 교육 - 농촌현장포럼, 주민역량강화 - 현장활동가 교육
	지속적인 사후관리	- 사후관리 워크숍 - 추가컨설팅 및 자문
	소액 및 컨설팅 사업운영	- 동아리 공모사업 - 도 및 지자체 소액사업지원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	- 마을만들기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업 사업내용은 기초단위와 광역단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 1순위인 정보조사 및 DB구축에서 기초단위에서는 마을자원조사 및 모니터링이 주요했으며 광역단위에서는 마을자원조사, 지도제작, 정보자료에 대한 DB구축이 주요하여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초단위와 광역단위에서 모두 수행가능한 업무로 볼 수 있음
- 2순위·3순위인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에서 기초단위는 마을만들기 관련 중간지원조직간의 네트워크가 주요하며, 광역단위에서는 마을네트워크, 전문가 네트워크,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홍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연계협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짐
- 추가적인 연계협업이 가능한 부분으로는 역량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속적인 사후관리, 소액 및 컨설팅 사업운영,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에 해당되는 내용이 도출되었으며 특히 지역역량강화 및 단계별지원정책에 따른 사업운영에서 협업이 가능함을 보임

○ 지속가능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한 중요성 및 시급성평가

<표. 39> 중간지원조직간 지속운영을 위한 중요성 및 시급성평가

번호	문항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충분한 인력확보	중요성	0.0%	0.0%	5.9%	37.3%	51.0%
		시급성	0.0%	0.0%	5.9%	37.3%	51.0%
2	장기적인 인건비지원	중요성	0.0%	0.0%	11.8%	43.1%	39.2%
		시급성	0.0%	3.9%	11.8%	27.5%	51.0%
3	업무성과 인센티브(추가 보너스)제도 운영	중요성	3.9%	7.8%	25.5%	39.2%	17.6%
		시급성	0.0%	11.8%	25.5%	35.3%	21.6%
4	사업비지원 상향조정	중요성	0.0%	0.0%	19.6%	49.0%	25.5%
		시급성	0.0%	0.0%	25.5%	45.1%	23.5%
5	실질적인 사업권한 및 사업비전결권	중요성	0.0%	0.0%	29.4%	45.1%	19.6%
		시급성	0.0%	0.0%	27.5%	49.0%	17.6%
6	구체적인 사업량 확보	중요성	0.0%	0.0%	29.4%	35.3%	31.4%
		시급성	0.0%	0.0%	35.3%	35.3%	23.5%
7	행정의 파트너마인드, 필수조직으로 인식	중요성	0.0%	3.9%	11.8%	29.4%	51.0%
		시급성	0.0%	7.8%	11.8%	29.4%	45.1%
8	과도한간섭 및 성과독촉 자제	중요성	0.0%	3.9%	7.8%	52.9%	29.4%
		시급성	0.0%	3.9%	21.6%	41.2%	27.5%
9	안정적인 사무공간(사무실) 지원 *사무실 운영비 포함	중요성	0.0%	3.9%	9.8%	37.3%	43.1%
		시급성	0.0%	0.0%	11.8%	35.3%	47.1%
10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 *교육비, 전문교육지원	중요성	0.0%	0.0%	9.8%	49.0%	35.3%
		시급성	0.0%	0.0%	17.6%	43.1%	33.3%
11	업무차량 지원(공동사용)	중요성	3.9%	3.9%	29.4%	27.5%	29.4%
		시급성	0.0%	9.8%	27.5%	23.5%	33.3%
12	조례제정 지원	중요성	0.0%	0.0%	13.7%	45.1%	35.3%
		시급성	0.0%	0.0%	13.7%	47.1%	33.3%
13	법적근거 마련	중요성	0.0%	0.0%	13.7%	45.1%	35.3%
		시급성	0.0%	3.9%	39.2%	27.5%	23.5%
14	행정과의 모임 정례화 *행정과 정기적모임	중요성	0.0%	2.0%	33.3%	37.3%	21.6%
		시급성	0.0%	3.9%	39.2%	27.5%	23.5%
15	중간지원조직의 통일된 지침서	중요성	3.9%	13.7%	29.4%	35.3%	13.7%
		시급성	3.9%	19.6%	19.6%	33.3%	17.6%
16	정착단계부터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정착지원	중요성	3.9%	3.9%	15.7%	37.3%	33.3%
		시급성	3.9%	9.8%	5.9%	39.2%	35.3%

-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 중 중요성과 시급성을 구분하여 총 16개 문항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중요성과 시급성 모두 ‘매우그렇다’ 라고 평가된 문항은 충분한 인력확보, 파트너마인드, 안정적 사무공간 지원, 업무차량지원으로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이 도출된 것으로 보임

3.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정리

1)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수준 및 역할적합도

○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수준 및 역할의 적합도

〈표. 40〉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수준 및 역할의 적합도 비교

번호	문항	역량수준	역할 적합도
1	지역 및 마을에 대한 정보조사	높음 (47.1%)	높음 (52.9%)
2	역량강화 및 교육	높음 (47.1%)	높음 (66.7%)
3	예비사업계획 및 기본사업계획 수립	보통 (39.2%)	높음 (45.1%)
4	도 및 지자체 소액사업지원	보통 (39.2%)	보통 (45.1%)
5	중앙단위 중규모 이상 컨설팅사업	보통 (31.4%)	높음 (41.2%)
6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높음 (39.2%)	높음 (54.9%)
7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높음 (39.2%)	높음 (51.0%)
8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	높음 (29.4%)	보통 (39.2%)

-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수준과 역할의 적합도를 비교해 본 결과 역량수준도 높고, 역할 적합도도 높은 문항은 정보조사, 역량강화 및 교육, 지속적인 사후관리,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로 나타남
- 역할의 적합도는 높으나 아직 역량은 보통인 수준의 문항은 사업계획수립, 중규모 이상의 컨설팅사업으로 나타남
- 역량수준은 높으나 역할적합도는 보통인 수준의 문항은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로 나타남
- 역량수준과 역할의 적합도 모두 보통인 수준의 문항은 도 및 지자체의 소액사업지원으로 나타남
- 중간지원조직들은 대부분 분야에서 ‘보통이상’의 역량수준과 역

활의 적합도를 인식하고 있지만 컨설팅분야인 사업계획수립과 소액사업지원, 중규모 이상의 사업지원의 부분에서 특히 미흡한 역할을 자체 평가하였음

- 이 부분은 중간지원조직 역할의 범위결정 및 역량강화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임

2)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업 및 긍정적효과 기대

○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업 가능성 및 긍정적효과 비교

〈표. 41〉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업 가능성 및 긍정적 효과 비교

순위	문항	연계협업 가능성	긍정적효과 기대(1순위)
1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	매우그렇다 (35.3%)	4위 (11.4%)
2	역량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렇다 (51.0%)	2위 (27.5%)
3	지역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그렇다 (47.1%)	3위 (17.6%)
4	도 및 지자체 소액사업지원	그렇다 (41.2%)	5위 (5.9%)
5	지역(마을)의 정보조사 및 DB구축	그렇다 (39.2%)	1위 (31.4%)
6	중앙단위 중규모 이상 컨설팅사업	보통이다 (45.1%)	6위 (3.9%)
7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보통이다 (43.1%)	7위 (2.0%)

※ 연계협업의 가능성 순위는 매우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순이며, 같은 범주에서는 %수치로 순위화 함

- 연계협업의 가능성과 함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연계협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업 가능성 및 긍정적효과(1순위)를 비교하였음
-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는 가능성은 매우높게 평가되었으나 긍정적인 기대효과는 보통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역량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연계협업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긍정적인 효과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도 연계협업 가능성과 긍정적인 효과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도 및 지자체 소액사업지원은 연계협업의 가능성은 높은수준이나 긍정적인 효과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마을)의 정보조사 및 DB구축은 연계협업의 가능성이 보통수준이나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중앙단위 중규모 이상 컨설팅사업은 연계협업의 가능성이 보통수준이며 긍정적인 효과는 낮게 나타남
-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는 연계협업의 가능성이 보통수준이며 긍정적인 효과는 낮게 나타남
- 결론적으로, 연계협업의 가능성도 높은편이고, 긍정적인 효과도 높은 과제는 역량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로 볼 수 있음
- 또한 지역(마을)의 정보조사 및 DB구축도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높고, 연계협업의 가능성도 높은 편이므로 위의 두가지 과제와 같은 연계협업의 상위군에 포함될 수 있음

1. 연구종합정리

1) 전북 도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현황

□ 중간지원조직 운영현황

- 전라북도 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설민영의 방식으로 사단법인에 위·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조례제정과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이 존재하므로 조례의 수정·보완 및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함
-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보유 현황은 지역별로 제각각이며 총 인원 9명에서 2명으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함에도 큰 차이가 존재하고, 내부 운영팀 당 인력배치 또한 팀당 3명 ~ 1명 이하로 충분한 사업비와 인건비를 확보·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중앙단위사업과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지원사업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중앙단위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 특히, 총사업비 하위권에 위치한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의 공통점은 역량강화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 설립단계 구분

-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준비단계와 설립단계로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됨
- 첫 번째 유형은 신설된 중간지원조직이 해당이 되며 논의(모

임) 또는 단체설립을 준비단계에 실시하며 조례제정과 위·수탁을 통해 설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 5년된 기존에 운영을 계속해오던 중간지원조직은 수차례 회의를 한 후 조례제정을 함으로써 설립준비를 하고, 출자 및 총회를 통해 위·수탁을 결정하는 것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첫 번째 유형은 시·군단위 이상의 정책적인 지원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유형은 시·군단위에서 필요에 의하여 자체적인 노력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2) 전북 도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유형

□ 관점별 중간지원조직 역할정리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행정의 관점과 중간지원조직의 관점으로 구분을 하여 정리함
- 행정의 관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행정의 업무지원, 지역 내 사업수행, 조사 및 연구, 네트워크 및 현장지원으로 행정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한 역할이 도출되었음
- 중간지원조직 관점에서의 역할은 지역 내의 사업수행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현장의 밀착활동, 관계조정 및 네트워크, 조사 및 연구, 행정 부서간 조정 및 중재로 도출 되었으며 마을(현장)에 대한 현장성을 주요하게 인식하며 지역적인 관점의 필요성에 의한 역할이 도출되었음

□ 중간지원조직 역할 총정리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행정업무지원, 사업수행, 조사 및 연구, 네트워크 및 현장지원, 지역사업의 조정 및 중재로 구분
- 현장업무 지원은 마을에서 어려워하는 사업, 업무 등에 대한 지원, 행정(공무원)의 사업진행보조, 행정사무보조, 민원전달 및 해결의 역할로 도출됨
- 사업수행은 지역 내 잠재(신규)마을 발굴, 지자체 위·수탁사업(소액사업), 중규모 이상 컨설팅사업, 지속성있는 사후관리, 마을공동체의 특성과 상황에 맞춤지원이라는 내용이 도출됨
- 조사 및 연구는 실질적인 마을현황 파악, 정보갱신 및 제공, 지역 내 DB구축, 정책수립 및 사업계획을 위한 조사연구라는 내용이 도출됨
- 네트워크 및 현장지원은 민-관 네트워크, 민-민 네트워크, 관계기관과의 교류 촉매제, 마을의 대변 및 옹호 등의 내용이 도출됨
- 지역사업의 조정 및 중재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내 사업들이 행정의 부서간 나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 및 중재하는 내용의 역할임

□ 중간지원조직 설문조사에 따른 역할정리

- 설문조사지는 워크숍의 결과를 반영하여 문항이 설정되었음
-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수준에 대한 적합한 역할은 정보조사 및 DB구축, 역량강화 및 교육, 지속적인 사후관리,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로 볼 수 있음
- 예비사업계획수립, 소액사업지원, 중규모 이상의 사업지원과

같은 컨설팅은 아직 역량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중간지원조직 역할정리에 따른 유형도출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관계자가 유형을 도출함
- 유형의 내용으로는 공설민영으로 사단법인에 위·수탁하는 조직형태이며 조례제정과 정책적지원을 받고, 실무직원 수는 최소 팀당 2인씩 배치할 수 있는 7인 이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시·군비를 중점적으로 국비 및 도비를 매칭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지원사업과 수입사업을 추진하는 유형이 도출됨

3) 중간지원조직간의 연계협업

□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업 가능성 및 긍정적 효과기대

-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업의 가능성이 높은 순부터 살펴보면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 역량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도 및 지자체 소액사업지원, 지역(마을)의 정보조사 및 DB구축, 중앙단위 중규모 이상 컨설팅사업,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볼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업 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는 1순위 지역(마을)의 정보조사 및 DB구축, 2순위 지역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3순위 지역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로 위의 연계협업 가능성과 다소 순위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문항이 보통 이상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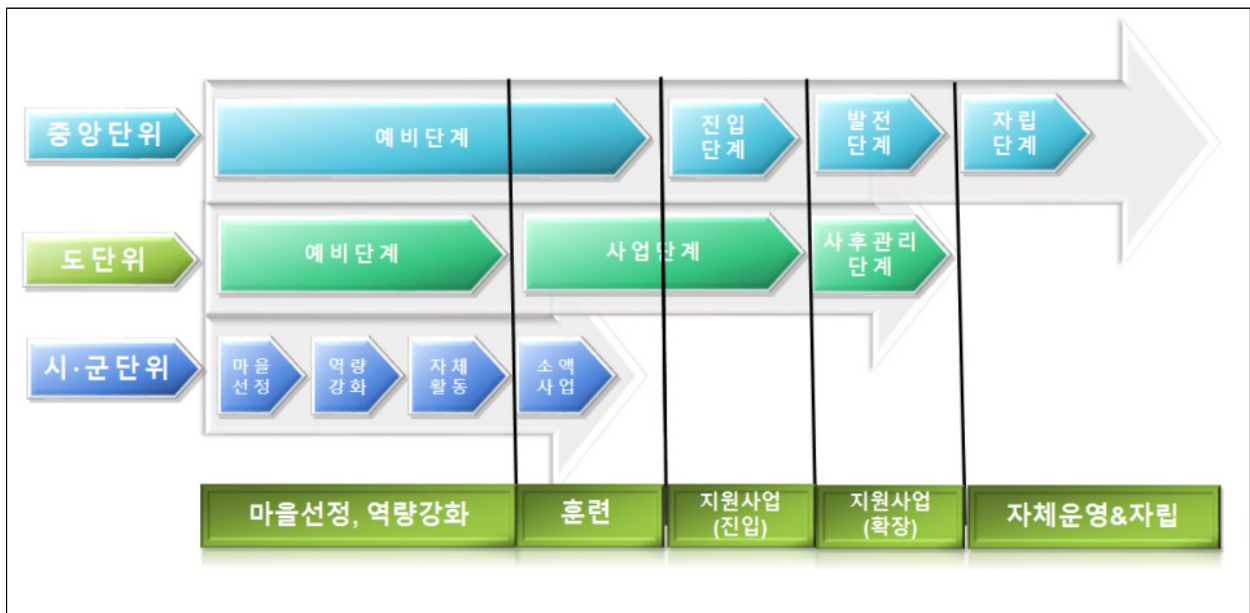
□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업과제(사업) 도출

- 연계협업의 가능성도 높고, 긍정적인 효과도 높은 과제는 역량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정보조사 및 DB구축으로 볼 수 있음
- 위의 과제들부터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1. 단계별 지원정책 수립에 의한 중간지원조직 역할정립 필요

1) 지역별 단계별 지원정책의 수립 및 중앙~지역별 단계별 지원정책 거시적 연계

- 기존에 진안군, 정읍시와 같이 역량단계별 지원정책이 수립·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도 활성화되고 있음
- 역량단계별 지원정책이 부재한 있는 시·군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운영에 한계성이 있으므로 해결방안으로는 지역별 단계별 지원정책 수립에 의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이 필요



<그림. 1> 단위별 단계별 지원정책 보완 및 연계정립

- 중앙단위와 도단위의 단계별 지원정책과 순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단계별 지원정책을 구축·운영해야함
- 단계별 지원정책을 통한 시·군단위→도단위→중앙단위로의 순

차적인 연계접근은 마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의 보편적인 역할정립을 기대할 수 있음

2) 지역별 단계별 지원정책에 의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정립 및 기능확대

- 연구결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조사 및 DB구축, 역량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및 교류가 주요하였으며 사업수행 및 지역사업조정은 필요한 역할로 구분할 수 있음
- 현 상황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 설치·운영한다면 역량강화 단계에만 역할이 집중될 수 밖에 없음
- 중간지원조직은 마을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조직이므로 역량강화 뿐만아니라 사업분야까지 지원을 필요로 함

〈표. 42〉 단위별 단계별 지원정책 보완 및 연계정립 내용

구분	역량강화	훈련	지원사업(진입)	지원사업(확장)	자립
시·군	-마을선정 -역량강화	지자체 소액사업			
도	-마을검토 -역량강화	도 소액사업	도 중규모사업	도사업 사후관리	
중앙	-마을승인 -역량강화 지원	검토사항 모니터링	진입사업 (중규모)	확장사업 (대규모)	완료지구 사후관리
중간지원 조직 역할	-마을선정 -역량강화	-사업계획수립 -소액사업지원	컨설팅	컨설팅	사후관리

중간지원조직 필수 역할 영역
(전국적으로 공통의 역할)

중간지원조직 확장 역할 영역
(지역상황별 선택)

- 중간지원조직은 마을지원이라는 공통의 목적에 의하여 설치됨에 따라 공통적으로 수행할 역할을 정립할 수 있고,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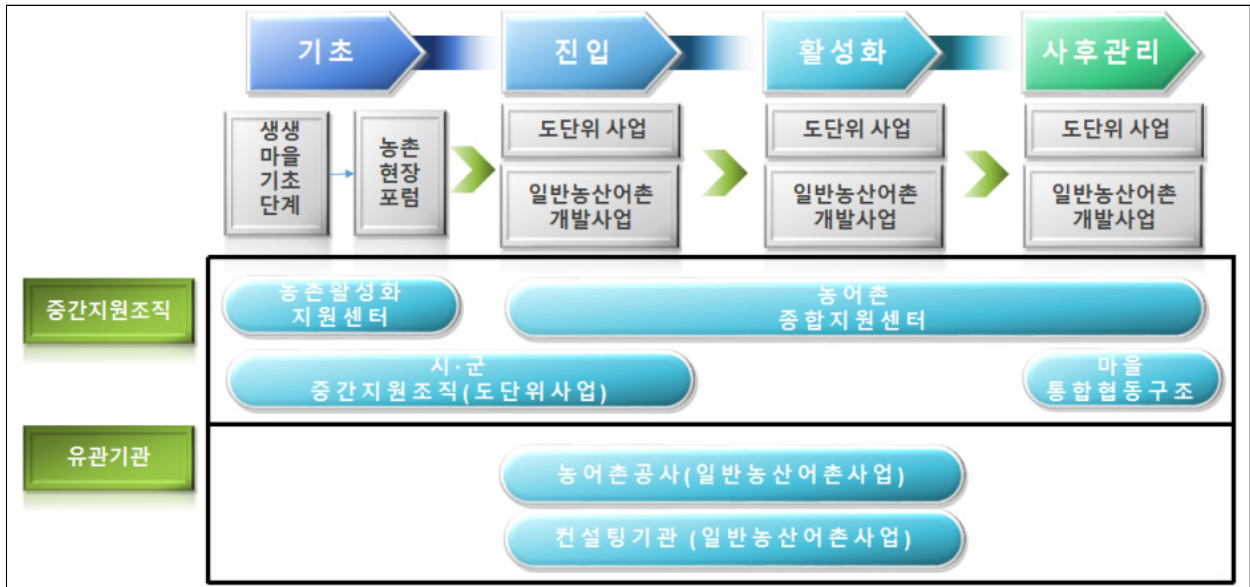
상황에 따라 컨설팅, 사후관리 분야까지 확장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지역별 단계별 지원정책이 수립된다면 중간지원조직은 마을의 선정부터 역량강화 및 교육, 소액사업 지원까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한 체계적인 역할정립이 가능함
- 추가적으로 컨설팅 및 사후관리 분야는 지역 내 수행가능기관의 존재 유무 등을 통해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기능의 확장이 가능
- 즉, 중간지원조직의 우선 설치 이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단계별 지원정책 수립을 통해 체계 속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 후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

2. 도단위의 거시적인 연계협업 구조에 의한 세부적인 연계협업 추진

1) 거시적 구조에서 연계협업 구조 마련

- 지역 내 광역단위-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이 존재하는 경우 세부적인 연계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한계점이 존재
- 도단위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정보, 운영사업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이 가능하므로 중간지원조직의 전체적인 틀에서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적으로 제시가 필요



<그림. 2> 전라북도 단계별 흐름에 따른 연계협업 총구조(예시)

- 전라북도의 경우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요 중간지원 조직으로 농식품부의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전라북도의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 또한 전라북도의 경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는 이미 여러 조직이 통합된 형태이므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농식품부의 역량단계별 지원정책 중 예비단계인 역량강화에 중점이 맞춰져있음
- 전라북도 차원의 구상중인 체계와 같이 우선적으로 거시적인 연계협업구조가 도출 된 후 세부적인 내용을 구상하는 방식의 연계협업 구조가 도출되어야만 실질적인 연계협업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는 행정차원의 정립이 필요

2) 거시적 구조에서 안에서 세부적인 연계협업 과제 추진

- 중앙 또는 도 차원으로 전체적인 체계를 정리하고, 단계별 연계협업이 가능한 분야나 과제를 분류하여 연계협업을 추진해야하는 특정분야를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
- 거시적인 시스템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 또는 사업(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사업대상자인 마을에 중복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 및 내용을 파악하기에 용이함
- 실질적인 추진절차로는
 - ① 도단위 에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계정립을 실시
 - ② 거시적인 틀에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구분
 - ③ 단계별 지원정책에 따라 역할 및 역량에 맞게 기관을 정립
 - ④ 각 단계(분야)별로 기관간 중복되는 역할 및 사업(과제) 도출
 - ⑤ 각 단계별 연계협업이 가능한 기관간 정보공유 및 교류기회 제공
 - ⑥ 단계 내 연계협업(기초단계 내), 단계별(기초단계→진입단계) 연계에 대한 공동역할정립 실시
 - ⑦ 연계협업에 대한 점검 및 보완 실시
- 연구결과 예비단계에 한계가 있는 연계협업 과제를 위와같은 체계를 통하여 연계협업 현실성을 제고하고, 연계협업 분야의 확장, 연계협업 시 효과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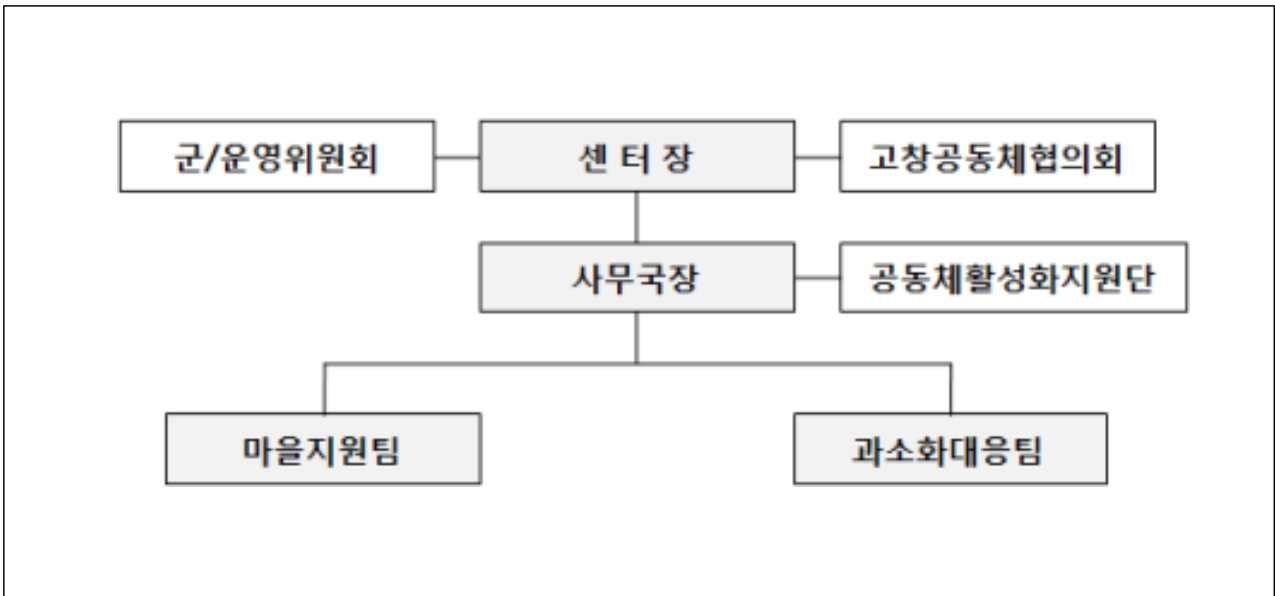
1. 고창군 중간지원조직

〈표 1〉 고창군 중간지원조직 기본정보

중간지원지원조직 기본정보			
기관명(대표자)	(사)고창공동체협의회 (대표: 이영근)		
주 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182.		
조례제정 <small>(아닌 것 삭제)</small>	여	정책적 지원 <small>(아닌 것 삭제)</small>	여
총 사업기간 <small>(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small>	2 년차	설립연도 <small>(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small>	2016 년
총 직원수	(과소화 포함) 5명	실무직원 수 <small>(임원급 제외)</small>	4 명
연간 총사업비 <small>(2017년)</small>	50,000,000 원	인건비 <small>(인원수(명), 지원금(원))</small>	2명/30,000(천원) 과소화 인력 별도
연간 총사업비 <small>(2016년)</small>	25,000,000 원	인건비 <small>(인원수(명), 지원금(원))</small>	1명/18,000(천원)
연간 총사업비 <small>(2015년)</small>	- 원	인건비 <small>(인원수(명), 지원금(원))</small>	- 명/ - 원
재원마련 <small>(17년)</small>	국비	도비	시군비
	원	20,000,000 원	30,000,000 원
재원마련 <small>(16년)</small>	국비	도비	시군비
	원	10,000,000 원	15,000,000 원
재원마련 <small>(15년)</small>	국비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 고창군의 중간지원조직은 (사)고창공동체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설립 되었으며 소재지인 고창읍에 위치하고 있음
- 2016년 설립된 (사)고창공동체협의회는 조례제정과 함께 도 및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지원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최근 도의 정책으로 충원된 과소화 대응인력 2명을 포함한 총 5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임원급 1명을 제외하면 실무직원 수는 4명임

- 총 사업비가 25백만원('16년도), 50백만원(' 17년도)이며 인건비는 18백만원('16년도)으로 총사업비에 72%이고, 30백만원(' 17년도)으로 총사업비에 60%이지만 사업비가 부족하여 해당직원에 대한 인건비 대우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1. 고창군 중간지원조직 조직도>

- (사)고창공동체협의회의 조직체계는 센터장, 사무국장, 마을지원팀, 과소화대응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부조직으로는 군/운영위원회, 고창공동체협의회, 공동체활성화지원단이 각기 존재함
- 실질적인 업무는 사무국장이 총괄하며 마을지원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짐

<표 2. 고창군 중간지원조직 연혁>

기 간		내 용	비 고
연	월		
2015년	12월	고창공동체협의회(단체) 설립	
2016년	3월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지원 사업 수탁	
2016년	12월	「고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	
2017년	1월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지원 사업 수탁	
2017년	6월	고창공동체협의회 사단법인 설립	

〈표 3. 고창군 중간지원조직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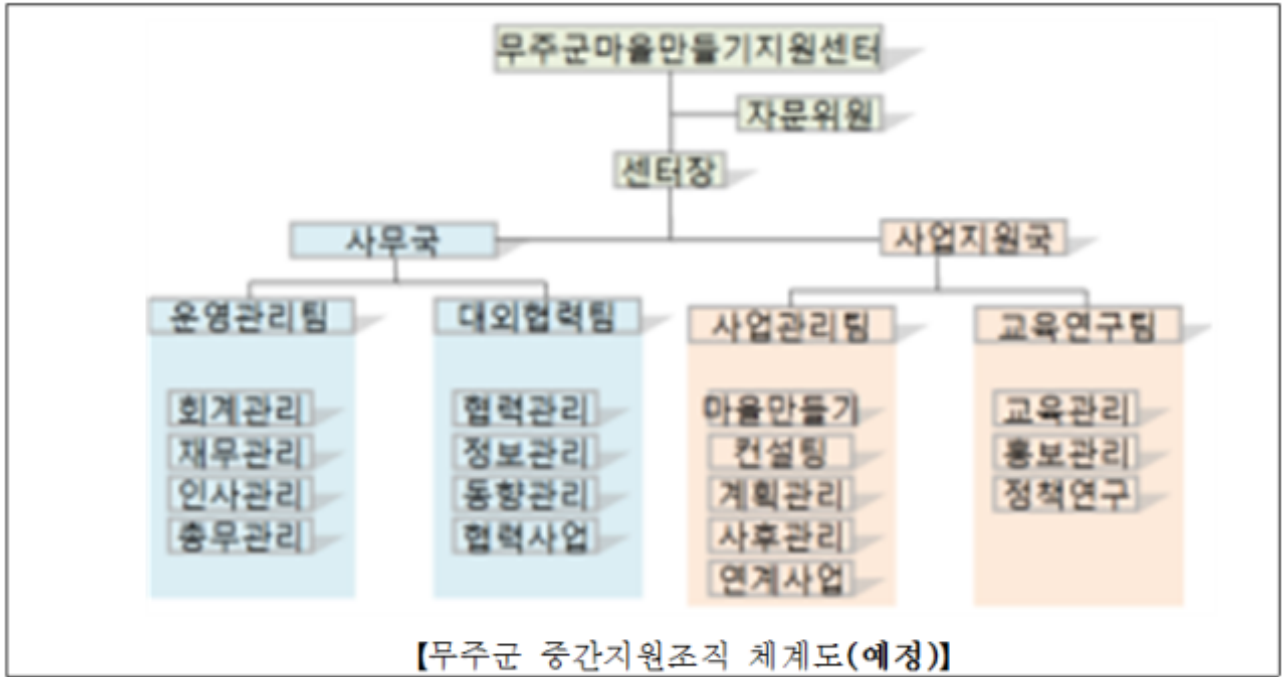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운영근거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지원 사업 ❖ 고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6년)	
설립과정	설립(전) 준비	① 2013년 이전 : 마을사업별로 구성된 협의회 성격의 모임이 소수 있었으나, 활성화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② 2013년 ~ 2015년 추진된 지자체 연계사업(메이플-스톤)을 통해 발굴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연대 움직임 시작 ③ 2015년 말, 위 공동체 중심의 단체(공동체협의회) 설립 ④ 협의회원 중심으로 다수의 공동체 행사 진행
	설립 추진	① 2016년 도` 중간지원조직 사업 수탁 ②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제정(2016년) ③ 2017년 도` 중간지원조직 사업 수탁 ④ 고창공동체협의회 사단법인 설립 허가(2016. 6) ⑤ (가칭)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설립 및 위탁 결정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⑥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위탁 승인(고창군의회) ⑦ 지원센터 위탁공모 추진(예정)
사업내용	중앙부처	① 시군 역량강화사업
	도	①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지원 사업(도) ② 고창군 문화터미널 조성사업(도` 관광문화재단)
	지자체	① 마을공동체 자원발굴 사업
사업구분	지원사업	① 시군 역량강화사업 ②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지원 사업 ③ 고창군 문화터미널 조성사업 ④ 마을공동체 자원발굴 사업
	수익사업	

2. 무주군 중간지원조직

〈표 4〉 무주군 중간지원조직 기본정보

중간지원지원조직 기본정보			
기관명(대표자)	사단법인 마을을잇는사람들		
주 소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 82, 2층		
조례제정 (아닌 것 삭제)	여	정책적 지원 (아닌 것 삭제)	여
총 사업기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2 년차	설립연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2016년
총 직원수	3명 (팀장, 과소화인력마을형2명)	실무직원 수 (임원급 제외)	3명
연간 총사업비 (2017년)	758,000,000원 (인건비 포함/과소화인력대응 읍면형10명/마을형2명포함)	인건비 (인원수(명), 지원금(원))	3명/72,000,000원 (월:2,000천원*12개월 *3명:마을형2명포함)
연간 총사업비 (2016년)	207,940,000원	인건비 (인원수(명), 지원금(원))	1명/16,200,000원 (월:1,800천원*9개월)
연간 총사업비 (2015년)	원	인건비 (인원수(명), 지원금(원))	명/ 원
재원마련 (‘17년)	국비	도비	시군비
	65,100,000원	155,700,000원	363,700,000원
재원마련 (‘16년)	국비	도비	시군비
	9,058,000원	20,000,000원	124,882,000원
재원마련 (‘15년)	국비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 무주군의 중간지원조직은 (사)마을을잇는사람들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소재지인 무주읍에 위치하고 있음
- 2016년 설립된 (사)마을을잇는사람들은 조례제정과 함께 도 및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루트의 재원마련을 통해 점차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도의 정책으로 충원된 과소화 대응인력 2명을 포함한 총 3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실무직원 수는 3명임
- 총 사업비가 207백만원(‘16년도), 758백만원(‘17년도)이며 인건비는 18백만원(‘16년도)으로 총사업비에 7.7%이고, 72백만원(‘17년도)으로 총사업비에 9.5%로 1차년도에 비하여 2차년도의 인건비 대우와 인력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보임



〈그림 2〉 무주군 중간지원조직 조직도

- (사)마을을잇는사람들의 조직체계는 센터장, 사무국, 사업지원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무국에서는 운영관리팀과 대외협력팀이 있고, 사업지원국에서는 사업관리팀과 교육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조직으로는 자문위원이 존재함
- 아직 예정인 상황이며, 점차적으로 체계를 완성시켜 나갈 것임

〈표 5〉 무주군 중간지원조직 연혁

기 간		내 용	비 고
연	월		
2015	11	제1차(지역공동체활성화협의회 구성 필요성 토의)	
2015	12	제2차(지역공동체활성화협의회 준비위원회 구성)	
2015	12	제3차(준비위원회 활동방안)	
2015	12	제4차(협의회 회칙안 사전논의)	
2015	12	제5차(협의회 회칙안 사전논의)	
2015	12	제6차(협의회 회칙안 사전논의)	
2015	1	제7차(협의회 준비위원회 임시회의)	
2015	2	제8차(무주군지역공동체활성화협의회 창립총회)	
2015	11	제8차(비영리사단법인 준비위원회 구성 및 임시회의)	
2015	11	제9차(비영리사단법인 정관안 작성 및 창립총회 협의)	
2016	12	제10차(사단법인 마을을잇는사람들 창립총회)	지역공동체활성화 협의회 승계
2017	2	비영리 법인설립허가	

〈표 6〉 무주군 중간지원조직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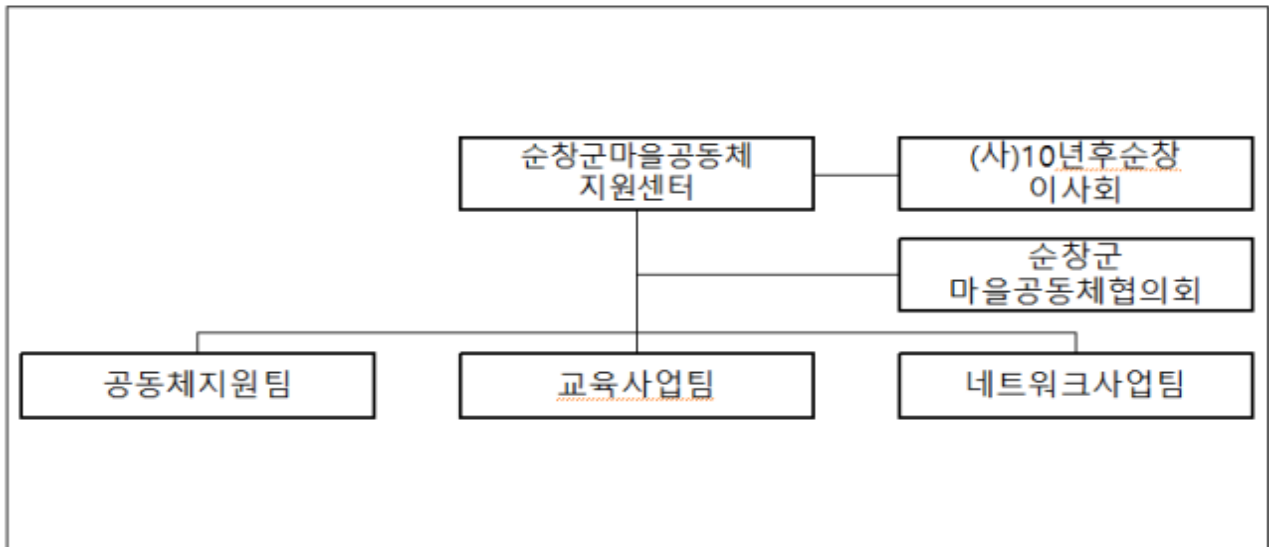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운영근거	무주군 마을만들기 지원조례(2017.07.07 조례 제2232호)	
설립과정	설립(전) 준비	
	설립 추진	① 무주군 지역공동체활성화협의회 창립총회 ② 사단법인 마을을잇는사람들 창립총회 및 법인설립허가 (무주군지역공동체활성화협의회 승계)
사업내용	도	-중간지원조직구축사업(운영, 기본계획, 정책연구) -농촌과소화대응인력육성(도매칭)
	지자체	-도농교류 마을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마을활동가교육(2015~2016) -시군지역역량강화(모니터링 및 이력시스템구축, 마을만들기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리더 역량강화 교육, 마을로 찾아가는 주민교육, 포럼, 워크숍) -무주군지역역량강화(마을DB구축, 도농교류홍보, 활동가 교육, 마을소식지) -농촌관광중심지활성화사업(홍보마케팅, 모니터링 및컨설팅) -농촌과소화대응인력육성(도매칭)
사업구분	지원사업	상동
	수익사업	-음식관광네트워크구축컨설팅용역 -가림마을창조적마을만들기 (문화복지프로그램교육 및 동아리 육성 용역)

3. 순창군 중간지원조직

〈표 7〉 순창군 중간지원조직 기본정보

중간지원지원조직 기본정보			
기관명(대표자)	순창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대표:김석균)		
주 소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구산로122 (회문산권역 내)		
조례제정 (아닌 것 삭제)	부	정책적 지원 (아닌 것 삭제)	여
총 사업기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2년차	설립연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2016년
총 직원수	2 명	실무직원 수 (임원급 제외)	2명
연간 총사업비 (2017년)	165,000,000원	인건비 (인원수(명), 지원금(원))	2명/47,000,000원
연간 총사업비 (2016년)	77,000,000원	인건비 (인원수(명), 지원금(원))	2명/30,000,000원
연간 총사업비 (2015년)	원	인건비 (인원수(명), 지원금(원))	명/ 원
재원마련 (‘17년)	국비	도비	시군비
	68,600,000원	20,000,000원	76,400,000원
재원마련 (‘16년)	국비	도비	시군비
	18,900,000원	20,000,000원	38,100,000원

- 순창군의 중간지원조직은 순창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구림면에 위치하고 있음
- 2016년 설립된 순창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도 및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루트의 재원마련을 통해 점차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순창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인력은 총 2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실무직원 수는 2명임(임원급들이 실무자로 활동)
- 총 사업비가 77백만원(‘16년도), 165백만원(‘ 17년도)이며 인건비는 30백만원(‘16년도)으로 총사업비에 38.9%이고, 47백만원(‘ 17년도)으로 총사업비에 28.5%로 1차년도에 비하여 2차년도의 인건비 대우가 좋아진 것으로 보임



〈그림 3〉 순창군 중간지원조직 조직도

- 순창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조직체계는 센터장과 공동체지원팀, 교육사업팀, 네트워크사업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질적인 사업수행은 (사)10년후 순창에서 실시하며, 외부조직으로는 이사회와 순창군 마을공동체협의회가 존재함
- 순창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인력이 2명으로 3개의 업무분장팀의 역할을 모두 수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며, 인력 충원이 필요함

〈표 8〉 순창군 중간지원조직 연혁

기 간		내 용	비 고
연	월		
2015	7~9	순창군 마을공동체사업 통합 모니터링 - 순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3개 마을 운영실태 전수조사	(공모)사업비 3,450천원
2015	8~11	순창군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공모)사업비 5,000천원
2015	9~12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3회) - 중간지원조직의 이해, 선진사례 교육, 조직 구성 등	(공모)사업비 3,000천원
2016	1~3	순창군 중간지원조직 구축 실무진 구성 논의	
2016	4	순창군 중간지원조직 구축 전북도 공모	사업비 50,000천원
2016	6	(가칭)순창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개소	
2016	7~12	(가칭)순창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2017	1~10	(가칭)순창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표 9〉 순창군 중간지원조직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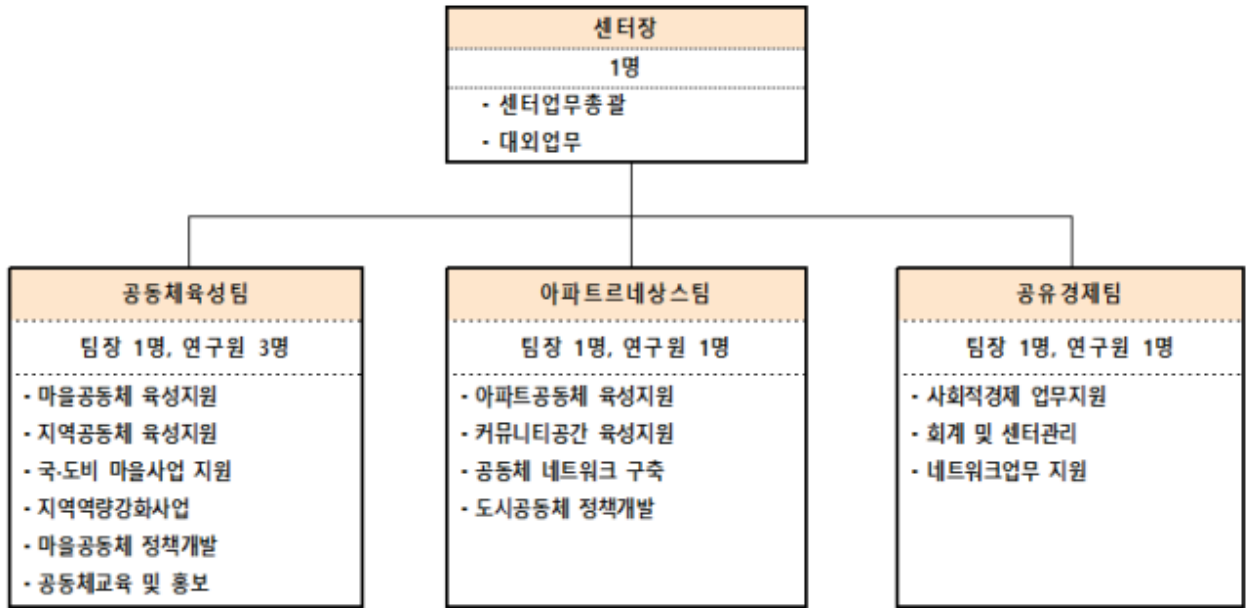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운영근거	2016년도 생생마을만들기 추진지침 (시군중간지원조직 구축 사업)	
설립과정	설립(전) 준비	2016년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 진행 - 중간지원조직의 이해, 선진사례 교육, 조직 구성 등
	설립 추진	별도 법인 혹은 협의체 구성은 하지 않고, (사)10년후순창 법인으로 위탁받아, 중간조직 실무진 구성
사업내용	중앙부처	
	도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사후관리단계 마을 지원
	지자체	-중앙부처 공모사업 진행마을 및 도향토산업마을 진행마을 사후관리 지원
사업구분	지원사업	-전북도 향토산업마을 지원 -전북도 생생마을 기초단계 마을 지원 -중앙부처 공모사업 권역단위종합개발 마을 지원 -중앙부처 행안부 마을기업 사업 마을 지원 등
	수익사업	

4.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표 10〉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기본정보

중간지원지원조직 기본정보			
기관명(대표자)	완주공동체지원센터 (김택천 이사장)		
주 소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7		
조례제정 (아닌 것 삭제)	여	정책적 지원 (아닌 것 삭제)	여
총 사업기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8 년차	설립연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2010년
총 직원수	9 명	실무직원 수 (임원급 제외)	9 명
연간 총사업비 (2017년)	430,000,000원	인건비 (인원수(명), 지원금(원))	10명/ 322,600,000원
연간 총사업비 (2016년)	400,000,000원	인건비 (인원수(명), 지원금(원))	8명/ 252,336,000원
연간 총사업비 (2015년)	360,000,000원	인건비 (인원수(명), 지원금(원))	7명/ 207,240,000원
재원마련 (‘17년)	국비	도비	시군비
	원	원	430,000,000원
재원마련 (‘16년)	국비	도비	시군비
	원	원	400,000,000원
재원마련 (‘15년)	국비	도비	시군비
	원	원	360,000,000원

- 완주군의 중간지원조직은 완주공동체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설립 되었으며 구산면에 위치하고 있음
- 2010년 설립된 완주군공동체지원센터는 조례제정과 함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원마련을 통해 점차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완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인력은 총 9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과 소화대응인력 포함하여 실무직원 수는 9명임
- 총 사업비가 400백만원(‘16년도), 430백만원(’ 17년도)이며 인건비는 252백만원(‘16년도)으로 총사업비에 63%이고, 322백만원(’ 17년도)으로 총사업비에 74.8%로 1차년도에 비하여 2차년도의 인건비 대우가 좋아 진 것으로 보임



<그림 4>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조직도

- 완주공동체지원센터의 조직체계는 센터장과 공동체육성팀, 아파트르네상스팀, 공유경제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완주군의 특성상 농촌마을과 아파트 주거지역인 동네에 대한 지원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완주공동체지원센터는 각 팀마다 팀장급과 연구원이 배치되어 있어 중간지원조직 중에서도 체계적인 조직구성이 이루어져 있음

<표 11>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연혁

기 간		내 용	비 고
연	월		
2017		3팀(공동체육성팀/완주르네상스팀/공유경제팀)으로 변경	
		완주봉동생강국가중요농업유산등재 추진 연구용역 수행	
		완주군사회적경제 포럼 수행	
		아파트 현장활동가 양성과정 수행	
		농촌현장포럼 수행	
2016		이근석 센터장 취임	
		3팀(공동체육성팀/완주르네상스팀/정책기획팀)으로 변경	
		1111사회소통기금 발족	
		완주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	

2015	유대근 센터장 취임	
	완주공동체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1국 2팀(사무국/마을공동체팀/정책기획팀)으로 변경	
	아파트 르네상스 기반 구축 지원사업 수행	
	경로당 노인여가코디네이터 사업 수행	
	완주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	
2014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선정	
	완주군 협동조합 경영진단 및 컨설팅 용역	
	서두마을 향토산업마을 조성 발전계획 수립	
	소양슬로공동체 조성 발전계획 수립	
	도시농업연구과제 수행	
	사회적 경제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수행	
2013	로컬에너지 한마당(나는 난로다) 진행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진행	
	농정원 중간지원조직과 거버넌스 활동가 교육 선정	
	청소년 농촌직업탐방 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선정	
	제5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2012	임경수 센터장 취임	
	로컬에너지 한마당 [나는 난로다] 진행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진행	
	농정원 중간지원조직 거버넌스 활동가 교육 선정	
	청소년 농촌작업탐방 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선정	
2011	제4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커뮤니티비즈니스 컨설팅 잔치 진행	
	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선정	
	커뮤니티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선정	
2010	제3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재단설립(2010년5월14일)	
	토지구획공사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 선정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위탁 운영	
	제2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커뮤니티비즈니스 서포터즈 포럼 진행	
세상을 바꾸는 1천개의 직업 행사		

〈표 12〉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운영근거	2009년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육성에 관한 조례' (2015.09.24. 일부개정)	
설립과정	설립(전) 준비	①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의 제안으로 논의 ②희망제작소 수행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방안' 용역 ③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설립 추진	①지역은행, 농협, 신협 등 완주군 관내 민간기관과 지역주민의 출자로 재단법인 출범 ②커뮤니티 비즈니스 위탁운영 (사업 전개)

항목	세 부 내 용	비 고
공동체 사업현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공동문화형 마을사업 육성지원(마을현장지원 50건) ◦ 기존 마을사업 내실화 및 신규사업지원(시범사업 2개소) ◦ 국가사업 연계가능한 역량있는 마을육성(시범사업 2개소) ◦ 창업공동체 활동지원 및 교류사업(워크숍4회,신규공동체2건) 	
정책개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한 마을 플랫폼 구성연구(2단계공동체사업 연구보고서) ◦ 농촌 어메니티 자원연구(예비조사보고서,농업유산견학2건) ◦ 관내마을과 아파트 간 도농소통사업연구(연구보고서) ◦ 사회적거버넌스 구축방안연구(선진지견학1회,연구보고서) 	
주민상담 네트워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학술교류 및 지역네트워크 추진(워크숍1회,보고서) ◦ 사회적경제역량강화 교류연구포럼(교류포럼4회,보고서) ◦ 사회적경제사례탐방(사례탐방3회,보고서) ◦ 공동체누리살이한마당(행사자료 및 발표자료 작성) ◦ 주민상담 및 정책수시지원(주민상담보고서) ◦ 방문객안내 및 교육연수(37개단체,1,000여명 방문)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공동체이웃소통 프로젝트 활성화(모임 30회) ◦ 거점형 공동체캠퍼스 공간 조성(공간 5개) ◦ 아파트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공동체 30개) ◦ 아파트공동체 활동 활성화 지원(상담/컨설팅50회, 홍보30회) ◦ 아파트 소통미디어 기반 구축(교육 7회, 포럼 3회) 	

5. 장수군 중간지원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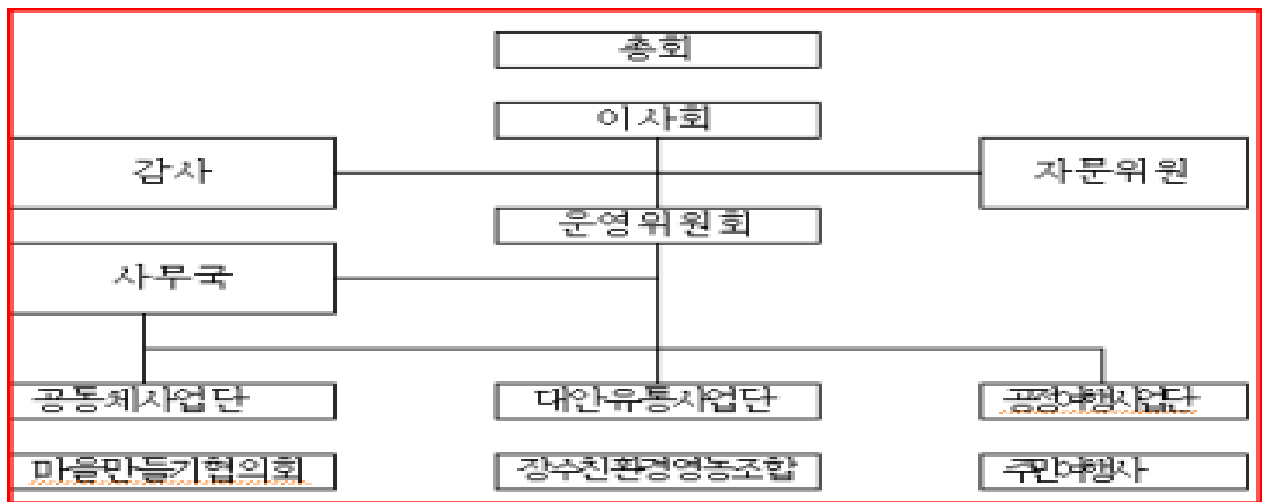
〈표 13〉 장수군 중간지원조직 기본정보

중간지원지원조직 기본정보			
기관명(대표자)	사단법인 장수지역활력센터		
주 소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송학로 93		
조례제정 (아닌 것 삭제)	여	정책적 지원 (아닌 것 삭제)	부
총 사업기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4년차	설립연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2014년
총 직원수	2명	실무직원 수 (임원급 제외)	1명
연간 총사업비 (2017년)	50,000,000원	인건비 (인원수(명), 지원금(원))	2명/30,000,000원
연간 총사업비 (2016년)	50,000,000원	인건비 (인원수(명), 지원금(원))	2명/30,000,000원
연간 총사업비 (2015년)	원	인건비 (인원수(명), 지원금(원))	명/ 원

운영예산	총예산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총 계	250	280	100	94.5
	운영비	30	30	50	
	사업비	220	250	50	94.5
	기 타				
주요재원		시군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과소화대응인력사업			
기관 개요	<p>▶ 장수지역활력센터는 장수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지원하고 추진</p> <p>▶ 공동체사업의 운영체인 협동조합, 영농조합, 마을기업 등의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발굴, 교육 사업을 통해 장수지역의 활력화를 위하여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공유하며 서로 협력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단법인단체</p> <p>▶ 장수지역활력센터는 2014년 3월 25일 설립 되었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과 민간단체, 마을의 중간에서 다양한 민간단체와 마을을 지원하는 전문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위해 준비 중</p>				

- 장수군의 중간지원조직은 (사)장수지역활력센터라는 명칭으로 설립 되었으며 소재지인 장수읍에 위치하고 있음

- 2014년 설립된 (사)장수지역활력센터는 조례제정과 함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짐
- (사)장수지역활력센터의 인력은 총 2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임원급을 제외한 실무인력은 1명임(과소화대응인력 2인 미포함)
- 총 사업비가 500백만원('16년도), 500백만원(' 17년도)이며 인건비는 300백만원('16년도)으로 총사업비에 60%이고, 300백만원(' 17년도)으로 총사업비에 60%로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인건비 대우가 동일함



<그림 5> 장수군 중간지원조직 조직도

- (사)장수지역활력센터의 조직체계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관리하고, 사무국, 공동체사업단, 대안유통사업단, 공정여행사업단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사)장수지역활력센터는 실무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관계기관과 함께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짐

〈표 14〉 장수군 중간지원조직 사업분야

구 분	내 용
주요기능 (가장 중요한5개)	공동체 운영지원, 상담창구, 정보제공, 교육지원, 조사연구
주요지원분야 (2개)	교육, 기타(농촌공동체 활동 지원 및 상담)
지원범위	지자체 자체사업, 광역(시도)사업, 부처사업

〈표 15〉 장수군 중간지원조직 연차별 사업내용

2015년	2016년	2017년
1. 귀농귀촌지원사업 -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 2. 조사, 연구사업 - 마을공동체사업 현장조사 - 중간지원조직 구축 연구 용역 3. 네트워크조직 - 마을활동가 연구회 모임 조직	1. 컨설팅 - 시군역량강화 사업 - 생생마을만들기 컨설팅 2. 교육사업 - 찾아가는 마을교육 - 마을만들기 포럼개최 3. 조사, 연구사업 - 마을자원조사 4. 네트워크조직 - 마을협의회 조직 5. 마을만들기 조례제정	1. 컨설팅 - 시군역량강화 사업 - 생생마을만들기 컨설팅 2. 교육사업 - 찾아가는 마을교육 3. 조사, 연구사업 - 마을자원조사 4. 농촌관광 품질개선사업 - 마을체험상품 개선 사업 5. 마을 홍보영상지원 사업 - 마을영상 제작지원 (5개마을)

6. 정읍시 중간지원조직

〈표 16〉 정읍시 중간지원조직 기본정보

중간지원지원조직 기본정보			
기관명(대표자)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대표자:이미경)		
주 소	정읍시 대석1길 13-16		
조례제정 (아닌 것 삭제)	여	정책적 지원 (아닌 것 삭제)	부
총 사업기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3 년차	설립연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2015 년
총 직원수	9 명	실무직원 수 (임원급 제외)	9 명
연간 총사업비 (2017년)	824,494,000원	인건비 (인원수(명), 지원금(원))	7명/210,304,000원
연간 총사업비 (2016년)	732,161,000원	인건비 (인원수(명), 지원금(원))	3명/120,000,000원
연간 총사업비 (2015년)	387,000,000 원	인건비 (인원수(명), 지원금(원))	2명/120,000,000원
재원마련 (‘17년)	국비	도비	시군비
	577,145,800원	0원	247,348,200원
재원마련 (‘16년)	국비	도비	시군비
	512,512,700원	10,000,000원	209,648,300원
재원마련 (‘15년)	국비	도비	시군비
	270,900,000원	0원	116,100,000원

- 정읍시의 중간지원조직은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금봉동에 위치하고 있음
- 2015년 설립된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는 조례제정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속적 운영을 위한 확실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의 인력은 총 9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과소화대응팀 인력을 포함하여 9명이 실무로 종사하고 있음
- 총 사업비가 732만원(‘16년도), 824백만원(’ 17년도)이며 인건비는 120백만원(‘16년도)으로 총사업비에 16.4%이고, 210백만원(’ 17년도)으로 총사업비에 25.5%로 1차년도에 비하여 2차년도에 인력충원으로 인한 인건비가 증액함

〈표 17〉 정읍시 중간지원조직 조직도

조직 / 담당업무

부서	이름	담당업무
센터장	이미경	센터업무 총괄, 대외 네트워크
운영지원	장성준	회계업무 총괄 행정지원 사업지원 및 기획사업
	이현숙	
공동체지원	1팀	마을 및 소규모 공동체 지원활동 창안대회 운영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홍보 등
	2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총괄 마을지원
교육지원	최영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년공동체 지원 소식지 발간
	조병도	
	서은희	
	김건희	

-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의 조직체계는 센터장이 총괄관리하고, 운영지원팀, 공동체지원(1팀, 2팀), 교육지원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팀에 2명씩 배치되어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배정이 되어있음
-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는 각 팀마다 팀장급과 연구원이 배치되어 있어 중간지원조직 중에서도 체계적인 조직구성이 이루어져 있음

〈표 18〉 정읍시 중간지원조직 연혁

기간		내용	비고
연	월		
15	4	센터 개소	
15	8	정읍칠석날골목파티 개최	
15	9	‘정읍을 말하다’ UCC 공모전 개최	
15	10	정읍할로윈골목파티 개최	
15	12	공동체와 시민이 함께 나누는 ‘드림나눔행사’ 개최	
16	1	메이플-스톤공동체지원센터 통합	
16	1	2016 정읍마을만들기 시민창안대회 운영	
16	5	정읍교육지원청 MOU체결	
16	5	정읍청춘골목파티개최	
16	9	제9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in정읍	
16	10	2016 지역상생활성화아이디어공모 장려상 수상	
16	10	교육박람회 개최	정읍교육지원청 공동주관
16	11	2016 전라북도14개시군 문화정책콘서트 대상 수상	
17	1	2017 정읍마을만들기 시민창안대회 운영	
17	3	교육박람회 개최	정읍교육지원청 공동주관
17	5	정읍청춘골목파티 개최	공동체페스티벌 공동개최
17	6	전국마을중간지원조직 행정회계 담당자 워크숍 개최	한국마을지원센터 연합 공동 주관

〈표 19〉 정읍 중간지원조직 사업분야

구 분	내 용	
운영근거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5조 2항	
설립과정	설립(전) 준비	① 2012년 정읍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2013년 종료) ② 2013년 메이플-스톤공동체지원센터 설립 (2015년 종료)
	설립 추진	① 2014년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공모 ② 2015년 3월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위원회 창립
사업내용	중앙부처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농림축산식품부) 2017 고령친화형 생생마을재생사업(농림축산식품부)
	도	
	지자체	
사업구분	지원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공동체역량강화사업 정읍마을만들기시민창안대회 모여라2030청년공동체발굴·육성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수익사업	

7) 진안군 중간지원조직

〈표 20〉 진안군 중간지원조직 기본정보

중간지원지원조직 기본정보			
기관명(대표자)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대표: 강신옥)		
주 소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975		
조례제정 (아닌 것 삭제)	여	정책적 지원 (아닌 것 삭제)	여
총 사업기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5년차	설립연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2012년
총 직원수	8명	실무직원 수 (임원급 제외)	7명
연간 총사업비 (2017년)	360,000,000원	인건비 (인원수(명), 지원금(원))	2명/48,000,000원
재원마련 ('17년)	사업수익		시군비(군위탁예산)
	31,000,000원		50,000,000원

- 진안군의 중간지원조직은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소재지인 진안읍에 위치하고 있음
- 2012년 설립된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조례제정과 함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비교적 적은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재원마련을 사업수익을 통하여 마련하고 있는 점이 다른 중간지원조직과 다른 부분임
-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센터의 인력은 총 8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과소화대응팀 인력을 포함하여 7명이 실무로 종사하고 있음
- 진안군의 경우 총사업비 내 인건비 지원은 2명을 받고 있지만 수익사업을 통하여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부자료의 수집이 필요



<그림 6> 진안군 중간지원조직 조직도

<표 21> 진안군 중간지원조직 조직 및 업무

직위	성명	업무
센터장	강신욱	센터 업무 총괄(주민교육, 컨설팅, 외부 방문 응대 등)
연구원	김경화	주민교육 및 컨설팅, 마을조사, 정책연구 등
총무회계팀장	장재원	총무 회계 업무
편집홍보팀장	사공석	홈페이지 및 SNS홍보, 주민교육, 소식지 발간, 시설관리 등
문화예술팀장	임봉규	창조동아리 육성 및 주민교육 등
교육연수팀장	이근우	주민교육 및 컨설팅, 마을조사 등
농촌관광코디네이터	-	농촌관광 지원, 외부 방문 응대 등

-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마을엔사람)의 조직체계는 이사회와 센터장이 총괄관리하고, 사무처장과 부센터장이 중간관리, 총무회계팀, 교육연수팀, 문화예술팀, 편집홍보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설연구소에서 마을컨설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팀에 1명씩 배치되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팀별인원이 다소 부족한 현황임
-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각 팀마다 팀장급 인원이 배치되어 있지만 팀원 및 연구원이 없어 팀장이 담당업무를 전부 소화해야하는 구조임

<표 22> 진안군 중간지원조직 연혁

기 간		내 용	비 고
연	월		
2012	8	사단법인 마을엔사람 창립	
2012	12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개소식	
2013	3	오죽권역 사업 진행(~2015)	
2013	3	안천슬로공동체 종합계획수립	
2014	3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마을만들기와 에너지 자립'	
2014	6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초청 강연	
2014	7	충남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시스템 연구	
2014	5	진안마을 6차 산업 연구 / 귀농귀촌연구	
2014	1	창조동아리 사업 진행(~2015)	
2015	11	무주중산마을 컨설팅	
2016	3	원강정, 외사양마을 컨설팅	
2017	3	봉곡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	
2017	4	농촌과소화마을 대응인력 지원사업	
2017	9	제10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	

<표 23> 진안군 중간지원조직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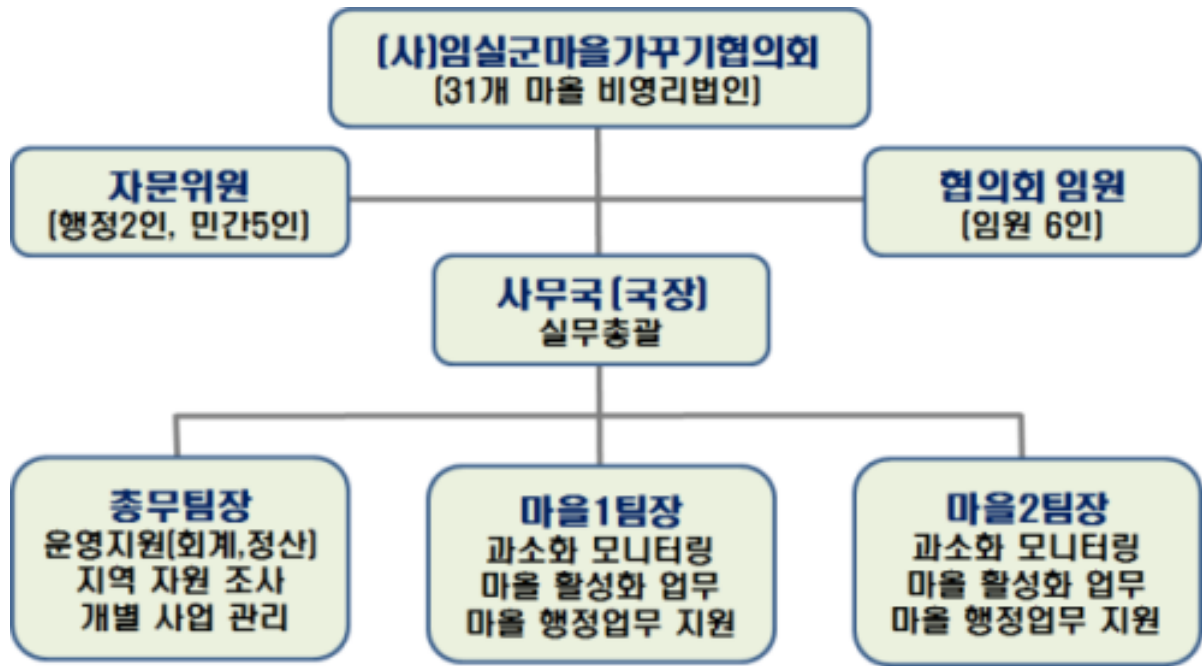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운영근거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 진안군 조례 제1868호(2010.5.31.)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진안군 조례 제1977호(2012.10.9.)	
설립과정	설립(전) 준비	①마을만들기 지구협 정기총회에서 설립추진 결정 ②4회 마을만들기의 날 행사에서 설립추진단 발족 ③설립추진단 실무논의(11차) ④법인설립준비위원회 및 발기인대회 개최
	설립 추진	①준비위원회 4차회의에서 법인명칭 결정 ②사단법인 마을엔사람 창립총회 ③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수탁
사업내용	중앙부처	지역역량강화 농촌현장포럼 농촌과소화대응인력육성지원
	도	지역역량강화 마을만들기 활성화 농촌과소화대응인력육성지원
사업구분	지자체	지역역량강화 마을만들기 활성화 농촌과소화대응인력육성지원
	지원사업	지역역량강화 마을만들기 활성화 농촌과소화대응인력육성지원
	수익사업	마을컨설팅(단계별 사업)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용역사업 내고장바로알기 공직자 탐방

8. 임실군 중간지원조직

〈표 24〉 임실군 중간지원조직 기본정보

중간지원지원조직 기본정보			
기관명(대표자)	(사)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		
주 소	전북 임실군 임실읍 봉향로 142. 2층		
조례제정 (아닌 것 삭제)	여	정책적 지원 (아닌 것 삭제)	여
총 사업기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5년차	설립연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2013년
총 직원수	4명	실무직원 수 (임원급 제외)	4명
연간 총사업비 (2017년)	418,100,000원	인건비 (인원수(명), 지원금(원))	4명/144,500,000원
연간 총사업비 (2016년)	365,000,000원	인건비 (인원수(명), 지원금(원))	2명/50,000,000원
연간 총사업비 (2015년)	원	인건비 (인원수(명), 지원금(원))	명/ 원
재원마련 (‘17년)	국비	도비	시군비
	원	시군중간 20,000,000원	시군중간 80,000,000원
	원	과소화 13,350,000원	과소화 31,150,000원
재원마련 (‘16년)	국비	도비	시군비
	원	시군중간 10,000,000원	시군중간 40,000,000원

- 임실군의 중간지원조직은 (사)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소재지인 임실읍에 위치하고 있음
- 2013년 설립된 (사)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는 조례제정과 함께 도 및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인원에 대한 충분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는 인력은 총 4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과소화대응팀 인력을 포함하여 4명이 실무자로 종사하고 있음
- 총 사업비가 365만원(‘16년도), 418백만원(‘17년도)이며 인건비는 50백만원(‘16년도)으로 총사업비에 13.7%이고, 144백만원(‘17년도)으로 총사업비에 34.5%로 1차년도에 비하여 2차년도에 인력충원 및 인건비에 대한 대우가 좋아짐



〈그림 7〉 임실군 중간지원조직 조직도

- (사)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의 조직체계는 31개 마을 비영리법인이 함께하는 협의회가 총괄관리하고, 사무국장이 실무총괄을 하며 총무팀장, 마을1팀장, 마을2팀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조직으로는 자문위원과 협의회 임원이 존재함
- (사)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는 각 팀마다 팀장급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각 팀별로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표 25〉 임실군 중간지원조직 연혁

기 간		내 용	비 고
연	월		
2013	1	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 임의단체 구성(17개 마을)	
2015	10	시군중간지원조직 구축 간담회	
2015	12	시군중간지원조직 구축 집합교육, 선진지 교육	
2015	12	마을공동체 어울림마당 "톡톡톡" 개최	
2016	3	총회 (임원선출), 협의회장 신승철 대표선출	
2016	6	임시총회 사단법인화 정관 승인 통과	
2016	11	비영리법인 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 설립 허가 (23개 회원 마을)	
2017	6	임실읍 봉황로 142. 2층 사무실 이전	
2017	7	부설 임실슬로푸드학교 설립, 초대 교장 신승철	
2017	9	33개 회원 마을	

〈표 26〉 임실군 중간지원조직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운영근거	임실군, 농업농촌활력센터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제정: 2012.12	
설립과정	설립(전) 준비	①임실군, '농업농촌활력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2012..2) ②임실군, '농업농촌활력센터 육성 및 지원 기본조례 제정(2012.12)
	설립 추진	①협의회 주최·주관 '일본 농촌지역개발 선진견학('14.3.4~8) ②6차산업 주)임실치즈레인보우 공동출자('14.3~현재) ③협의회 주최·주관 '임실 지역활성화포럼'개최('14.4~7)
사업내용	중앙부처	①지역창의아이디사업 ②시군역량강화사업
	도	①시군중간조직주축지원사업 ②과소화대응인력지원사업
	지자체	①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②장터홍보마케팅지원사업
사업구분	지원사업	①지역창의아이디사업 ②시군역량강화사업 ③시군중간조직주축지원사업 ④과소화대응인력지원사업 ⑤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⑥장터홍보마케팅지원사업
	수익사업	①전북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컨설팅)



전남 농촌활성화지원센터

2017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전라남도 광역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력에 관한 기초연구

2017. 12.

전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내용

제2장.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및 특징

1. 중간지원조직의 등장배경과 필요성
2.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3.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4.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제3장. 국내 중간지원조직 운영현황

1. 중간지원조직의 제도 및 정책
2. 국내 중간지원조직 현황

제4장. 전라남도 광역중간지원조직 운영현황 및 실태

1. 중간지원조직 관련 제도기반
2. 광역중간지원조직 현황
3. 광역중간지원조직의 유형과 특징
4. 광역중간지원조직의 문제 및 한계

제5장. 전라남도 광역중간지원조직의 연계협력방향

1. 광역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정립 기본 방향
2. 광역중간지원조직의 본래 취지와 기능의 회복
3. 중간지원조직의 수직적 기능 분담구조 형성
4. 중간지원조직의 수평적 연계 및 협력

<참고> 광역중간지원조직 운영사례(1)(2)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 다양한 성격과 역할, 위상의 중간지원조직
 - 정부부처(농식품부, 행자부, 해양수산부 등)-광역시도(전라남도)-시군, 다양한 중간조직 존재
 - 농촌활성화지원센터(13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11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6차산업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 담양군 풀뿌리지원센터, 순천시 공동생활지원센터 등

- 중간지원조직 기능상의 유사성 및 중복성에 대한 문제제기
 - 운영 및 추진과정에 대한 교류와 연계의 한계 문제
 - 수평적, 수직적 연계의 한계
 - 현장의 다양한 요구수용과 지원한계

-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재정립과 연계협력 방안 모색 필요
 - 광역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재정립 방안과 중간지원조직간 중복기능의 통합적 운영체계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중앙지원조직-광역지원조직-기초(시군단위) 중간지원간 역할 분담을 통한 중간지원조직간 유기적 연계구조 구축 필요
 - 제3섹터인 중간(행정-민간)지원조직의 본래 기능 강화방안 모색 필요

2. 연구목적

- 중간지원조직간 연계 및 협력, 역할 정립방향 제시
 - 전라남도내 중간지원조직의 현황 및 실태, 특성 분석
 -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재정립 방향 설정
 - 중간지원조직간 연계 협력 방향 제안

- 기대효과
 - 유사중복기능의 통합운영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실행방향 제공
 - 광역중간지원조직의 통합지원체계 기반조성을 위한 단초 제공

3. 연구범위

- 연구대상
 - 전라남도내 광역중간조직 가운데 농어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조직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6차산업지원센터

- 연구내용
 -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정의, 역할과 필요성
 - 국내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및 특성
 - 중간지원조직의 조직구성, 주요 추진사업 분석
 - 중간지원조직간 기능과 유사사업 등의 비교분석
 - 중간지원조직간 연계와 협력방향 제시

제2장.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및 특징

1. 중간 지원조직의 등장배경과 필요성

-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등장한 곳은 미국으로 1900년대 후반 급증한 지역 자선단체들의 중복적 활동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시작됨.
 - ‘인프라스트럭처조직(Infrastructure Organization)’이라 불리는 미국의 중간지원조직은 1800년대 후반 급증한 지역자선단체(Charity Organization Society)들의 중복적 활동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형태
 - 당시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수혜자들의 정보나 그들이 바라는 요구를 조정하고 부당한 이익을 받는 수혜자들을 고발하는 역할을 함.
 - 1970년대 들어 비영리섹터 활동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미국의 중간지원조직들도 활동분야나 그 수가 급격히 증가
 - 미국에서 중간지원조직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은 정부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추진된 NPO의 자립화의 영향이었음. NPO에 대한 보조금 지원 축소, 회계관리 담당 인재의 필요성 증대, 정부와의 계획을 통한 사회사업 활동 증가 등을 위해 NPO전문화 요구. NPO의 활동을 촉진시켜줄 기능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 증가

- 영국의 중간지원조직은 자원봉사 영역의 역할이 중시되자 정부와 지역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해주는 역할로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
 - 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 지역개발기관(Local Development Agency)으로 불리며, 사회서비스 제공을 중시
 -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원봉사와 공동체지원조직(Voluntary & Community Sector:VCS)을 활용.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서비스 제공의 핵심역할을 담당. 개발조직과 조직간, 그리고 정부나 지방행정와의 조율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초기모델이 1919년 설립된 전국사회서비스협력회임.

- 이러한 기관들은 정부와 시민섹터 간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 내 구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에서 인재육성이나 전문가 매칭, 자금조달 등의 활동을 지원 해주면서 VCS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
- 일본의 경우는 1995년 고베 대지진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풀뿌리 시민단체가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고 이들 중 일부가 자립과 공생에 기초한 지역사회만들기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발전
 -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또는 MSO(Management Support Organ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
 - 일본에서는 1998년 시민단체의 지원을 위해 NPO법(특정비영리활동추진법)을 제정하였고, NPO에 대한 인재, 자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NPO지원센터가 일본 중간지원조직의 초기모델이며, 이후 다양한 조직으로 활성화 됨.
- 우리 나라는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확대
 - 2000년대 들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시범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중앙부처 중심의 사회적기업 및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추진
 - 행정과 민간간의 중재자, 민간과 민간간의 협력 및 조정자, 부족한 민간역량의 보완 및 지원을 위한 전문조직으로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개발방식의 추진은 예산낭비와 개발효과저하 등의 문제 발생
 - 지역주민과 밀착되지 못하는 사업추진으로 계획과 사업추진 단계 전반에 걸쳐, 주민의 참여와 관심 부족, 시설관리, 행정의 서비스 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 발생
 -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추진으로 개발이후 관리부담의 증가와 사업의 변질, 상호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 발생
 - 사회의 다원화·복잡화로 행정이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의 문제 또한 다양한 해결책을 요구함에 따라 행정과 민간 사이에서 협력과 조정 등을 위한 주체의

필요성 증대

- 행정에서의 전문성 보완, 민간(현장)에서 부족한 역량을 보완·지원하기 위한 전문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부각됨
- 비영리섹터가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타 섹터나 기관들과 연계구조를 고민하는 등 새로운 활동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실천하는 NGO, NPO 등의 민간 비영리섹터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하는 매개자로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요구 증대

<표 1> 국가별 중간지원조직의 등장배경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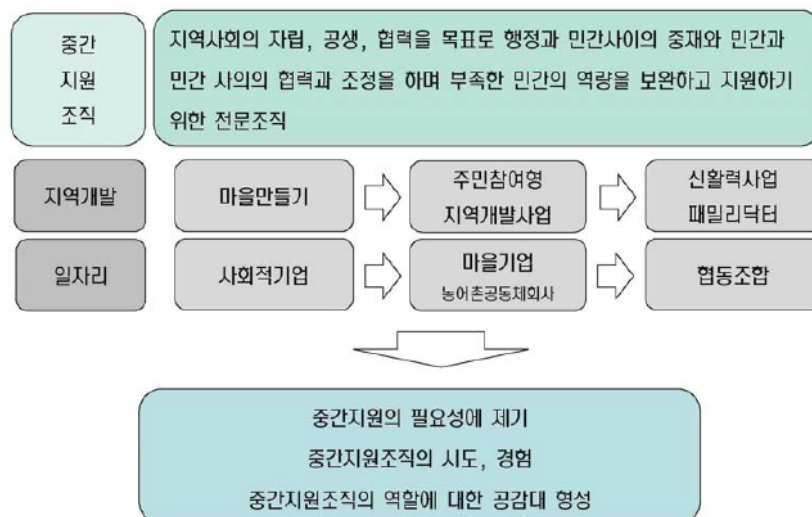
항목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용어	IO (Infrastructure Organization)	IO, UO, LDA	중간지원조직, Intermediary, MSO	중간지원조직
도입년도	1800년대	1900년대	1990년대말	2000년대
최초의 중간지원조직	Charities Information Bureau	전국사회 서비스협력회	NPO 서포트센터	
주요기능	비영리섹터내 사회서비스 효율화위한 NPO지원	정부-시민섹터 간파트너십 구축, 인재육성	지역문제해결, 사회서비스제공 시스템구축	사회문제해결, 사회서비스 효율화위한 SB사업체지원
활동영역	중앙, 광역	지역	지역	중앙, 광역

*자료 : 김재현·태유리·이효정·임윤정, 2013,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 중간지원조직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이 쌍방적 또는 다자적 관계속에서 다른 조직들을 상호 연결하는 활동을 하는 조직(오정섭, 2013)

- 중간지원조직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수혜 받는 현장(민간)의 사이에서 민간과 행정의 가교로서의 역할, 민간과 민간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창한, 2014)
-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행정과 시민 또는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김지현, 2016)
-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은 ‘중간조직’(intermediaries 또는 intermediary organization)이라는 위상적 특성과 ‘지원조직’(support organization)이라는 기능적 특성을 가진 조직 (김태형, 2016)
- 지역사회의 자립, 공생, 협력을 목표로 행정과 민간사이의 중재와 민간과 민간사이의 협력과 조정을 하며, 부족한 민간역량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조직(임경수, 2013)



<그림 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역할

-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광범위하게 정의

- 유럽과 일본 등에서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음.
 -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컨설팅, 코디네이터, 교류, 정보, 경영, 네트워킹, 훈련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사회 사이에서 매개자로 활동하는 조직(유럽연합 연구프로젝트 RISO)
 - NPO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NPO와 NPO, NPO와 행정기관·기업·주민 사이에 중개자 역할도 하는 조직이라고 보기도 함(일본)

- 브릭스(Briggs, 2003)는 중간지원조직을 “자원동원과 연계를 통해 다른 조직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부가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는 조직”으로 정의 (Briggs, Xavier de Souza. 2003. Working the Middle: Roles and Challenges of Intermediaries. Cambridge, MA: The Community Problem-Solving Project@MIT)

-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2011)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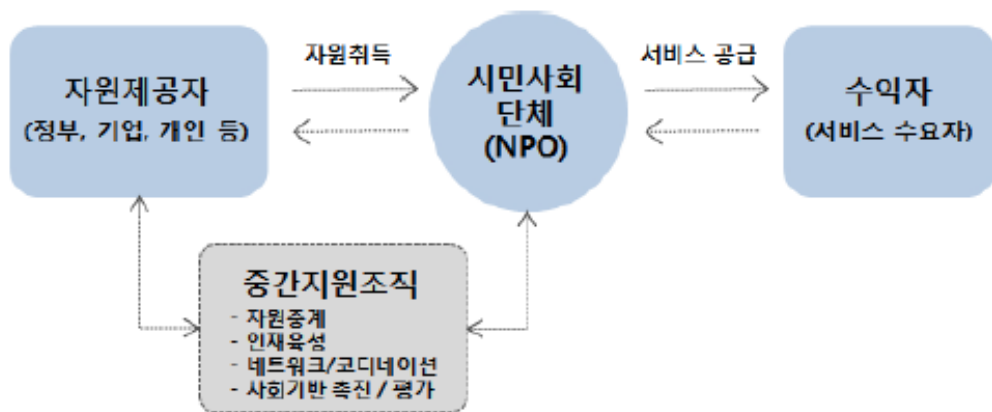
- 일본의 내각부(內閣府, 2002)에서는 “다원적 사회에서 공생과 협력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인재, 자금, 정보 등 자원을 제공하고 시민사회단체 간의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

- 이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에서 공통적인 의미는 먼저, '중간'적 위상으로 갖게 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 또는 조직의 중간자역할로서 '연결' 또는 '중개', '매개'라는 개념이 근저에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됨. 이러한 점에서 주체간의 협상, 연계, 조정 등의 기능이 핵심이 되게 됨. 중간지원조직의 위상측면에서 보면 '균형'이라는 개념과 '상호작용' 개념의 기능적 측면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3.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중간지원조직은 주체나 조직의 사이에서 중개자 (Intermediary agent/broker), 조정자 (Coordinator), 역량구축자(Capability Builder)로서 역할을 함. 여기에서의 주체는 정부, 민간, 전문조직, 주민조직, NGO 등이 됨
- 중간지원조직은 지원대상의 특성에 따라 상담과 조언, 인재육성 및 확보, 재정 및 경영지원, 홍보마케팅, 조사 및 연구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역할을 수행
- 미국의 중간지원조직은 Incubator, Intermediary, MSO(Management Support Organization) 등으로 부르며, 4가지 기능과 역할을 담당함
 - 첫째,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자원과 기술을 알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
 - 둘째,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 조직운영, 재정, 인력확보, 홍보 등의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기능을 담당
 - 셋째, 사회적기업이외 다른 조직과 네트워크하고 각종 제도와 법률의 적용을 수용하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
 - 넷째, 사회기반의 정비, 조사, 연구, 여론형성, 제도화, 입법화를 위한 로비활동 등 전략적인 장기적 역할을 담당

- 일본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예비사업자를 위한 창업, 경영, 사업전개, 자금조달, 인재육성, 상담창구, 정보발신, 교류촉진, 코디네이트,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담당
 - 커뮤니티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으로는 사업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 중간지원 활동 외에 공공시설 위탁운영 등 별도의 수익사업을 병행1)
 - NPO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정보의 수.발신, 자원과 기술의 중개, 인재육성, 상담 및 컨설팅,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평가, 정책제안,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담당



자료 : 内閣府(2002)

<그림 2> 일본의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1) 마상진 외, 해외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과 농촌활성화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p.82.

<표 2>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기 능	역 할
정보의 수·발신	•NPO나 행정, 기업 등 각 주체에 대한 정보수집,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전달
자원과 기술의 중개	•정보제공이나 상담업무 이외에 NPO법인의 활동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금, 인재 등을 지원하거나 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제공자와 연결시켜주는 역할
인재육성	•NPO법인이 자립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조직운영, 자금확보 등에 대응가능한 인재양성
상담 및 컨설팅	•NPO법인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매니지먼트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관련된 문제나 어려운 점을 컨설팅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누구나가 쉽게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 개최(행사, 포럼, 심포지엄 등) •관련 NPO를 네트워크하거나 각각의 NPO법인이 가진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코디네이트 역할 수행 •지역자원(사람, 물건, 돈 등)의 마케팅, 협력관계(행정, NPO, 기업 등)의 코디네이트 제공
평 가	•NPO활동의 지표를 활용하여 활동실태나 정보에 대한 수준을 정부, 기업, 개인 등 지원기관에게 제공
정책제안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 시키거나,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을 만들어냄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시스템이나 방법을 구축, 정책제안기능을 강화
조사·연구	•정책제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작업활동으로 중간지원조직만이 수행할 수 있는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통해 특정 사회이슈의 해결방안을 제시

*자료 : 内閣府, 『中間支援組織の現實と課題に關する調査報告書』第一總合研究所., 2002.

- 즉, 중간지원 조직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주체 또는 조직 사이에 위치하는 제 3자 조직으로서, 그 존재의 근거를 각 주체·조직의 특성 및 공유영역의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음(김태형, 2016)
- 각 주체 및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각 주체들을 매개·연계하며, 이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중재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연계·매개, 조정·중재, 지원의 역할 가운데 ‘지원’ 역할에 지나친 강조가 주어지게 되면, 중간지원조직은 자신과 각 주체 간 또는 각 주체 간의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 중간지원조직이 가진 능력과 자원을 통해 이것이 부족한 주체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각 주체에 대한 우월적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한 주체의 자원을 그것이 부족한 다른 주체에게 전달하는 전달조직 또는 일방의 의지를 다른 주체에게 실현하는 대리조직(agency)으로서 성향을 띠 수도 있음
- 중간지원조직이 과연 자신과 각 주체 또는 각 주체 간의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그러지 않아도 되느냐의 여부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각 주체의 인식 또는 주체 간에 공유된 인식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보여짐. 일방의 의지와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중간지원조직의 경우(Ashman et. al, 2011; Szanton2003)에는 균형성이 굳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
- 그러나 어떤 특정 주체의 필요성보다 다수의 주체들의 이해가 관련된 사안이거나 또는 어떤 일의 결과물 못지않게 그 결과물을 이루어 내는 과정에서 일어나야 할 것들이 더 중요한 중간지원조직의 경우(Howells, 2006; Klerkx and Leeuwis, 2007; Brown and Kalegaonkar,2002)는 균형성에 대한 강조가 보다 더 필요함
- 중간지원조직 활동의 과정에 얻어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재확인, 협력의 효과에 대한 학습, 사회적 자본의 형성 등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목표 달성과 함께 사회적경제영역의 확장과 지속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은 균형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김태형, 2016)

4.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 중간지원조직은 지원대상, 설립주체와 운영주체, 그리고 지역적 활동범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
- 먼저, 지원대상에 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관련한 중간지원조직이 있음

- 설립주체와 운영주체에 따른 유형. 공설공영 유형, 사업공공위탁유형, 사업민간위탁 유형, 공설민영유형, 민설민영유형, 민관협치유형 등으로 나누어짐.
 - 공설공영유형은 중앙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수원, 성남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시·군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 같은 유형
 - 사업공공위탁유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의해 권역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조직으로 지정된 경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은 ‘사업공공위탁’ 유형
 - 사업민간위탁 유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통합지원기관으로 지정한 (사)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같은 유형
 - 공설민영유형은 경기도가 설립하고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따복공동체지원센터와 같은 유형
 - 민설민영유형은 풀뿌리사람들과 충남의 사회적협동조합인 공동체 세움과 같이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민설민영’ 유형
 - 민관협치유형은 강원도 사회적기업의 연합체인 강원도 사회적기업협의회(의부설로 있는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은 유형
 - 이외에도 민민위탁유형, 민설공영유형 등이 이론적으로 가능함

- 중간지원조직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종합지원형과 특화분야형으로 구분(김재현, 2011)
 - 종합지원형: 모든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인재양성교육을 실시하는 유형. 지원하는 대상 또한 정부부처, 행정,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 매우 광범위
 - 특화분야형: 해당 조직의 강점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만 중간지원기능을 하는 유형. 환경분야·복지분야·농업분야·예술분야 등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뛰어난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성을 지원

- 지역적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중간지원조직, 광역중간지원조직, 그리고 기초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분

-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형의 중간지원조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민간영역에서 만들고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함께일하는 재단 등이 있음
 - 광역형의 중간지원조직으로는 진흥원에 의해 매년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는 15개의 중간지원조직과 광역시도가 선정하는 광역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진흥원이나 광역시도에 의해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광역형의 중간지원조직이 있음
 - 기초중간지원조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주도에 의한 시·군·구 중간지원조직들과 민간영역에서 설립·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이 있음
- 일본의 경우 중간지원기관을 공설공영(公設公營), 공설민영(公設民營), 민설민영(民設民營)의 형태로 분류
- 공설공영은 행정기관의 시설로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고 100%세금으로 운영
 - 공설민영은 시설은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위탁비나 조성비 등으로 민간단체나 NPO가 운영을 담당
 - 민설민영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운영
- 일본에서는 중간지원기관의 활동형태를 기준으로 지역밀착형, 기능분야(전문분야) 특화형, 중간지원 조직지원형 등 3가지로 분류

<표 3>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형태(이창한, 2014 인용)

분류	공설공영	공설민영	민설민영
주체	행정	행정	민간
운영주체	행정	민간	민간
직원	시의 직원(순환)	민간단체직원(전임)	민간단체직원(전임)
사업자금	정부예산	정부예산+자체예산	정부예산+자체예산
이점	안정적 운영자금 확보	공설민영과 민설민영 쌍방의 이점	시민의 주체성
특징	-사회적 신용, 자금의 안정 확보가능 -행정에 예측될 우려 -직원의 이동에 따른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 한계	-위탁사업 수입 의존,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곤란 -회비, 보조금, 공모사업, 자체사업 등으로 다양한 자원 확보 노력 -시민주도의 운영 전환 목표 필요	높은 경영 능력 요구

제3장. 국내 중간지원조직 운영현황

1. 중간지원조직의 제도 및 정책

- 우리나라에서 중간지원조직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6차산업지원센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지원센터, 해양수산부의 어촌특화지원센터,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지원기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지원기구, 보건복지부 자활센터,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등의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지원기구 등이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역할에 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6차산업지원센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지원센터, 해양수산부의 어촌특화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자활센터 등과 같이 지원조직의 설치근거를 법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활성화지원센터,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원기관과 같이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로 나누어짐.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포괄적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이며, 행정안전부는 근거법이 없는 상황임
- 행정안전부는 지침을 통해 마을기업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역할은 마을기업 대상 교육 및 컨설팅, 마을기업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연계, 홍보·교육 등 기타 필요한 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특화지원기관의 역할을 자원 연계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대상별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확산, 성공 사례 발굴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등 홍보·교육, 인증·상시 상담·모니터링 등으로 정하고 있음

<표 4> 중간지원조직 설치근거 규정

관련법	규정	비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高齡)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移讓)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농촌융합산업법)	제1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6차 산업 지원센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귀농어귀촌법)	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귀농어·귀촌종합 지원센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약칭: 어촌특화 발전법)	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어촌특화 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사회적 기업지원 센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중간지원 기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제15조의3(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활센터

	<p>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17조(자활기관협의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회"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p>	
<p>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정부 지침)</p>	<p>□ 마을기업 지원기관</p> <p>○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p> <p>광역자치단체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기관</p> <p>□ 마을기업 지원기관 역할</p> <p>○ 마을기업 교육 기획 및 운영 ○ 신유형 마을기업 발굴</p> <p>○ 마을기업 지정 및 심사 지원 ○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p> <p>○ 마을기업 지원 계획 및 실적 광역자치단체에 제출</p> <p>○ 마을기업 교육 계획 광역자치단체에 제출</p> <p>○ 마을기업 판로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p> <p>○ 기타 필요한 업무</p>	<p>마을기업 지원기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p>

2. 국내 중간지원조직 현황

1) 농촌활성화지원센터

(1)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설치 배경

- 농어촌활성화센터는 농어촌 지역 발전의 원천인 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지원하여 지식 기반 자본(KBC: knowledge-based capital)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간지원 거점조직을 목적으로 2013년 설치

○ 농어촌활성화센터의 필요성

- 지역격차 해소 : 농어촌 지역이 정보와 지식 기반 자본 형성에 뒤처질 경우, 도농격차가 심화되고 농어촌의 침체 가속화 우려
- 지식인프라구축 지원 : 공공부문에서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정보와 지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도농간 지식 격차 해소 기여
- 거버넌스 구축 : 농어촌지역개발 방식으로 상향식과 하향식이 통합된 네트워크형 종합개발이 강조되면서 수평적, 수직적 거버넌스를 촉진할 수 있는 중간 매개자 역할 필요
- 소프트웨어 중심의 농촌개발 지원체계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함께하는 우리농어촌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체계적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주요 목적

- 색깔있는 마을 육성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변화하는 농촌환경 및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주체 역량강화 및 중간지원 조직체제 마련
- 주민주도 농촌지역개발 추진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육성, 행정 및 전문가 등 협력체제에 의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 지속가능한 마을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주체별 역량배양

(2)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조직구성 및 역할

○ 대상기관 : 도 또는 도에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한 대학, 공공·민간 전문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도와 협의를 마친 광역 지원 조직

* 역할: 현장포럼 지원, 지역인적자원 육성, 정보교류 등 지원

- (대학) 종합대학으로 사회·교육학, 지역개발학 관련 학과가 주체로 문화·예술,

- 환경·경관, 건축·토목, 경영·법률, 복지 등 학과 참여가능
- (공공기관) 도발전연구원, 도농업기술원, 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도 및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등
- (민간기관) 퍼실리테이터 및 컨설팅 전문기관 필수 포함(지역 관계 없음)
 - * 퍼실리테이터, 컨설팅 전문기관은 전문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조직 및 구성

- 센터장과 상임연구원 필수, 상임연구원은 관련학과 박사급
 - * 센터장은 사회·교육·경영학계열 또는 지역개발에 경험·역량이 있는 관련 교수로 하며, 상임연구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사회·경영·교육계열 전공자를 필히 포함

○ 주요 역할

- 정보교류 : 행정·전문가·중간지원조직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류를 위해 전문가 워크숍, 정보지 발간, 도내 우수사례 발굴 등 추진
- 지역인적자원 육성·관리 : 총괄기획가 연계, 지자체 현장활동가 역량강화, 민간전문가 육성, 마을리더 교육 등 2016년 현장활동가 2,081명 육성(총 73회 교육), 마을리더 2,532명 육성(총 60회 교육)
- 현장포럼 지원 : 마을자원분석, 주민역량평가, 퍼실리테이션, 관련전문가를 지원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2016년 농식품부 포럼 1,430개소, 시군 자체 시행 포럼 334개소 지원
- 마을·권역·지역단위 지역활성화 사업, 정책 또는 제도개선, 조사 및 연구, 복지·경관·환경·문화 등 삶의 질 관련 연구 등 마을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 및 정책 발굴, 조사 수행

(3) 농촌활성화지원센터 현황

- 광역단위 지원센터는 농식품부 산하 농촌활성화지원센터 9개소와 지자체 조직 (충남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전북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 지역대학·전문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연계하여 구축
 - 리더 및 일부전문가, 지자체 중심 지원방식

<표 5>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운영 현황 (2017. 현재)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개소	협성대	강원대	충북대	공주대	전북대	목포대	경북대	경상대	제주대

- 예산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9개소, 개소당 80 ~ 130백만원(평균 120백만원)
- (시·군단위) 충남·전북지역을 중심으로 24개소 운영
 -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역 113개 시·군 대비 21%
 - 향후 2년내 구축 예정중인 시·군은 총 29개소
 - 설치 및 운영주체에 따라 5개 유형의 지원센터 운영
- 광역(도)단위로는 농식품부 및 지자체조직이 구축되어 있으나 시·군단위 조직 구축은 다소 미흡

<표 6>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 운영 유형

유형	특징	지역	비고
행정직영	관 주도로 설립,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통해 운영	보령, 논산 등 3개소	경직된 운영, 행정 조직화
공설민영	대학	지역대학·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업무 위탁 운영	공공성이 높고 교육 네트워크 활용
	법인	컨설팅업체, NGO 등에 중간지원조직 업무 위탁 운영	일반적인 운영방식
민관네트워크	공무원·주민·공사·컨설팅업체 간 협의회를 통해 운영	충북 남부센터 등 5개소	초기 단계에서 전담조직 설치가 곤란할 경우
민설민영	자생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	진안	지역 주민의 활동 기반형성 필요

*자료 : 농림부 2017년 내부자료

2) 농어촌공동체지원센터

(1) 농어촌공동체지원센터 설치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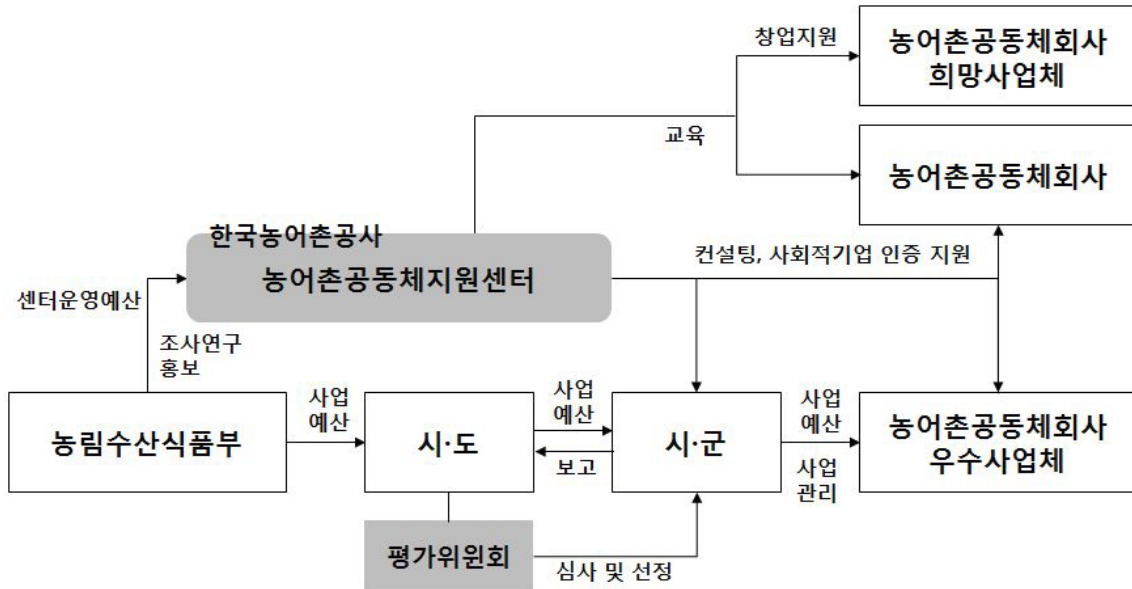
- 농어촌공동체회사란,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을 말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2월에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육성을 촉진시키고자 전담지원을 맡을 중간지원조직 '농어촌공동체지원센터' 설립
- 관 주도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산업도농교류지원본부 내에 소속

(2) 주요기능과 역할

- 창업지원기능 : 농어촌공동체회사로 신규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주거나,현재는 농어촌공동체회사이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
- 컨설팅기능 : 농어촌공동체회사를 경영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애로사항을 해결함에 있어서 경영,생산,유통,마케팅,회계,조직관리 등의 분야에 대해 상담 및 컨설팅을 해주는 기능
- 교육기능 :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운영 중이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 조사연구 기능 : 농어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제도개선,모델발굴을 위해 진행
- 홍보기능 : 농어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보를 제공
- 네트워킹 기능 :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에 대한 유통판로를 확대시켜줄 수 있는 민간기업체를 발굴하고 농어촌공동체회사와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개

3) 6차산업지원센터

(1) 6차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배경



<그림 3> 농어촌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 행정의 노력과 지원으로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있는 컨설팅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조직이 필요
- 6차산업화 정책(사업)이 본 취지에 맞게 농촌현장에서 정착할 필요가 있지만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점, 애로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히 행정 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함
-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농촌마을, 농업법인체 등 6차 산업화 추진 주체의 부족한 역량(경영 능력, 가공 기술, 홍보·마케팅 등)을 채워 주기 위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이 필요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6차산업화 전담 중간지원조직 필요

(2) 6차산업지원센터 구성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융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은 경영·컨설팅 지원, 연구개발 지원, 국내·외 연구기관·기업 및 대학 간의 연계 지원, 제품의 판매·유통·홍보지원, 사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과 경영실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시 도지사는 시도별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
 - 농촌의 자원과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함
 - 6차산업화 관련 창업 준비자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육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종합상담 기능
 - 지원기능 수행조직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를 관리
 - 6차산업화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현장 접목 지원
 - 6차산업화 사업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기업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 지원
 - 6차산업화를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홍보 및 판매·유통 홍보지원
 - 6차산업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경영 모니터링
 - 6차산업화 사업자의 경영실태 및 사업 추진현황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운영을 공모방식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가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신청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로는 농업기술원, 시도 지역발전연구원, 6차산업화 협의회, 농업관련 전문 교육기관 등이며, 중간 지원조직의 위탁기간은 3년임
 - 신청하고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

- 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신청기관 또는 단체를 심사
- 선정기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간지원 실적, 6차산업화 관련 모니터링 및 컨설팅, 중간지원조직 사업 계획서의 적절성, 전문인력 구성과 연계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관심도로 나뉨
 - 지방자치단체는 심사결과에 따라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확인 후 최종적으로 융복합산업 지원센터를 선정

(3) 6차산업지원센터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 및 현장 수요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구축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는 9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와 경북도를 제외하고 모두 시도에서 출자한 지역발전연구원에서 업무를 담당
- 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16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이 되고있으나 각 지역별로 업무의 범위와 역할이 다르게 나타남
- 6차산업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방식 차이
 - 6차산업 지원센터를 총괄 기획·운영하는 주관기관은 전국 10개 광역시도 중 농정원 1곳, 시도연구원 7곳, 농업과 관련 있는 기관 2곳 임.
 - 대부분 시도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경기도와 경북의 경우, 농업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기농림진흥재단, (재)경북농민사관학교에 각각 위탁
- 분야별로 협력 지원체계 구축 운영
 - 기술 연구 분야는 시도연구원과 지역대학교, 농촌 관련 컨설팅 회사에서 전담

- 기술 지원 분야에서는 도 농업기술원이나 농산물을 가공하고 지원해주는 기관이 대부분
 - 판로 유통 분야에서는 농협, 농산물유통공사 등
 - 사업화지원으로는 각 지자체의 농산물유통공사, 지역대학교 및 시도연구원이 업무를 분장
- 6차산업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중간지원조직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모델마을 발굴 육성, 기초통계 구축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력 및 예산
- 총예산 108억원(국비50,지방비50), 운영비 10억원(국비50,지방비50)

<표 7> 충남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예산 사례(2014년)

구 분	내 역	금 액(천 원)
출연금	충청남도 출연금	217,000
기금이자8)	출연기금 이자 수입	90,000
보조사업	충청남도 보조사업비	80,000
중간지원협의체 운영비	국비(농림축산식품부) 지원	20,000
합 계		407,000

- 충남 6차산업 지원센터 예산운영 사례 : 출연금과 기금이자의 용도는 인건비, 경상경비, 자체사업비(센터장의 인건비는 센터 예산이 아닌 충남발전연구원 예산에서 지급). 보조사업비는 충남 6차산업화 사업체 모니터링 사업과 학교 급식센터 모니터링 사업비

<표 8> 전국 6차산업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현황(2014년 10월 현재)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력 (비정규직)	1 (0)	2 (1)	2 (1)	6 (2)	2 (1)	1 (0)	1 (0)	1 (1)	2 (1)
예산 (백만원)	20	100	40	417	20	20	20	85	20

<표 9> 농촌6차산업지원센터 현황

지역	주관기관	사업내용
세종시	농정원	- 인증심사 및 현장코칭 - 컨설팅 및 온라인 홍보 판매
경기	경기농림진흥재단	- 농어업 2,3차 및 6차 산업화 실태조사 - 시군별 순회 상담 및 설명회 - 6차 산업화 모델마을 육성 및 지원
강원	강원발전연구원	- 지역 순회 현장 설명회 - 신규사업 발굴, 창업지원, 컨설팅 - 6차산업 시범모델 공동체 조성 - 6차산업화 기획, 조사, 연구 및 DB구축 - 우수상품 발굴 및 홍보 - 홈페이지 제작 및 정보교류
충북	충북발전연구원	- 지역 순회 정책 설명회 - 6차산업화 기초조사 및 연구 - 시범마을 선정 및 컨설팅 - 성과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충남	충남발전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 지역 순회 교육 - 신규모델 발굴 및 육성지원 - 우수 경영체 홍보지원 - 로컬푸드 인증제 "미더유" 도입
전북	전북발전연구원	- 현장포럼 운영 - 지역 순회 상담 및 설명회 - 우수상품 및 사례 홍보
전남	전남발전연구원	- 지역 순회 상담 및 설명회 - 모델마을 육성 지원 - 6차산업화 활성화 연구
경북	(재)경북 농민사관학교	- 지역 순회 상담 및 설명회 - 6차산업화 모델 개발 - 6차산업화 컨설팅 -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 - 6차산업화 경진대회

		- 경영 현장 컨설팅 - 상품 기획·판촉전 및 홍보 - 창의형 인재 양성
경남	경남발전연구원	- 지역 순회 워크숍 - 잠재모델 파악 -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현장 컨설팅
제주	제주발전연구원	- 지역 순회 설명회 및 컨설팅 - 6차산업 활성화 방안 포럼개최

자료 : 이승우·박상우·김유진·이호림, 2015, 어촌특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운영·관리 방향, KMI 현안분석(No. 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사회적 기업(통합)지원센터

(1)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배경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그리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육성지침을 작성한 행정자치부가 주관
- 사회적경제의 세 가지 세부영역이 모두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담론이 확산됨에 따라 통합지원의 필요성이 제기
- 최근 사회적경제 영역의 세부영역별 중간지원조직들을 통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
- 중앙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처음에는 사회적기업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으로 활동하였으나, 이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아우르는 통합중간지원조직으로 활동
- 아직 관련법의 미비로 인해 마을기업 영역은 진흥원이 여전히 관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
-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조직으로 시·도

단위에 광역 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 시·군·구 단위에 기초 사회적기업지원 센터를 두고 있음.

(2)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구성과 역할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신규 모델 발굴 확산
 -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발굴 육성
 -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모델 발굴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행정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정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 검토의견 제시 및 심사 행정지원
 -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현장실사, 검토의견 제시 및 심사 행정지원
 - 마을기업 설립지원프로그램 운영
 - 유통형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컨설팅, 판로촉진 교육
-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경제 기업 워크숍 및 심포지엄 개최
 - 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협의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유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공동사업 추진
-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지정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사전설명회 개최, 사회적경제 기본개념, 마인드 교육
 - 경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타 시도 우수기업 벤치마킹 교육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통합 상담센터 운영
 - 기본교육(회계, 인사, 노무, 세무 등 분야별·권역별)
 - 신규 지정기관에 대한 대표자 역량강화 교육

(3)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현황

- 중앙정부차원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2011년 1월에 개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하여 운영 중
- 지역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으로 16개(대전, 세종통합)의 지역별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 지역별 지원기관의 유형은 민간단체·연구소(7개소),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사회적기업지원센터, 연구소(5개소) 등
 - 광역자치단체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일부는 자치단체 출연기관, 일부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의 경우 중간지원기관의 본래역할보다는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운영
-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역시 기존 사회적기업지원기관, 중소기업 지원센터, 지자체출연연구원, 민간 컨설팅 회사 등 컨설팅 수행을 위한 조직들을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동체지원센터²⁾가 중간지원기관 역할을 담당
- 중간지원기관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에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부가하는 형태 및 행정기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

2) 센터는 창업 및 운영컨설팅, 우수사사업 모니터링, 온·오프라인 홍보, 기업간 파트너십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2월에 문을 열었다. 센터에서는 3월 우수사업 지원대상 54개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선정 한바 있다.

<표 10>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중간지원기관

구 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 기획재정부
근거법령	- 행정안전부 지침	- 사회적기업육성법	· 협동조합기본법
중간지원기관	- 중앙단위 : 없음 - 지역단위 : 사회적기업과 통합운영	- 중앙단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지역단위 : 마을기업과 통합운영	· 중앙단위: 없음 · 지역단위: 중간지원기관(18개)
	※ 3개 부처가 지역단위 중간지원기관 통합운영 중		

<표 11>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현황(2017년 현황)

지역	지원기관명	지역	지원기관명
서울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광주	(사)광주NGO시민재단
인천	(사)시민과대안연구소	전북	(사)전북사회경제포럼
강원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남	(사)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경북	(사)지역과소설비즈	대전세종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충북	(사)사람과경제
울산	울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5) 어촌특화지원센터

(1) 어촌특화지원센터 설치 배경

- 어촌인구의 감소·고령화와 어업 중심의 단일 경제구조에 따라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여건 취약, 경제구조 다변화 방안 마련 필요
- 그간 어촌경제는 어업 생산활동 중심의 단순구조로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 수산물 가공, 어촌관광 등 어촌경제구조 다변화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어촌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발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연안 광역시·도에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운영
- 어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한 어촌 6차산업화 확대 추진을 위한 상시적·체계적인 현장밀착형 전담지원기구(어촌특화지원센터) 설치 필요
-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창업·경영컨설팅,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에 대한 상시 업무 지원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사업 성과제고와 활성화 유도하기 위해 설치

(2) 어촌특화지원센터 구성 및 역할

- 지정대상
 -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지정요건

<표 12>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 1인 이상을 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 2. 경영학, 관광학, 지역개발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그 밖에 수산, 가공, 유통, 관광, 지역개발 및 어업인 교육·상담· 컨설팅 등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상기와 같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센터는 다음의 필수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센터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춘 1개 이상의 사무실 2. 1개 이상의 회의실 3. 1개 이상의 교육실 ※ 회의실 및 교육실은 지원센터 전용사무실과 동일한 건물(층)에 있지 않아도 무방함

- (역할) 어촌 특화자원의 발굴, 상품·서비스 개발, 생산품의 판매·유통·홍보, 교육·연수, 6차산업화 창업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표 13> 센터 역할 및 주요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비고
창업 및 컨설팅	.어촌의 경영·기술, 창업 등에 관한 애로사항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희망하는 특화어촌을 위한 컨설팅 사업	
연구개발	.어촌의 특화자원 발굴·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또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관리	.어촌특화 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특화어촌에 대한 분기별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기타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 지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교육·연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연계의 지원 .국내·외 어촌자원 및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3) 어촌특화지원센터 현황

- 지정 관련 사항
 -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제 30조의2제1항1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및 단체지정 가능
- 지원센터 참여 형태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주관기관, 협력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지정
- 총 4개의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있음.
 - 2016년 2개소 지정 : 경남은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어촌특화지원센터로 선정, 전남은 목포해양대·광주일보 컨소시엄 지정
 - 2017년 2개소 지정 : 강원도는 강릉원주대학교·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으로 지정, 충남은 (재)충남연구원이 지정
- 지원규모
 - 개소당 연 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추진 목표
 - 어촌의 수산물, 우수한 자연경관 등의 자원을 가공·유통·서비스, 관광산업과 융·복합하여 어업 외 소득 증대 지원
 - 어촌특화 창업·경영컨설팅 지원, 특화상품·기술 연구개발, 특화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경영실태 관리 등
- 사업범위
 - 광역도 관할 어촌마을(어촌계)

제4장. 전라남도 광역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현황 및 실태

1. 중간지원조직 관련 제도기반

- 전라남도는 2015년에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5)’를 제정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시군차원에서는 이보다 앞선 2011년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정에 이어 총 10개의 시군지역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중간지원조직인 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시군은 4개 시군을 제외한 6개 시군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음.

<표 14> 전라남도 중간지원조직 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제정시기)	중간지원조직
전라남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5)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함평군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6)	-
순천시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2011)	순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나주시	나주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2012)	-
광양시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2015)	광양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담양군	담양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2013)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강진군	강진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2013)	-
무안군	무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4)	무안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곡성군	곡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2016)	곡성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보성군	보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7)	보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영암군	영암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2016)	-

<표 15>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유형 및 기능, 관리운영 방식

지역	설치	기능	관리운영
전라남도	직접 또는 민간위탁	조사, 평가, 연구, 계획수립 지원, 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위탁기간 3년 운영경비지원 공무원 파견가능
순천시	직접 또는 민간위탁	조사, 평가, 연구, 계획수립 지원 등, 공공형사업, 사회적경제지원 등	위탁기간 2년 운영경비지원
광양시	직접 또는 민간위탁	조사, 평가, 연구, 계획수립 지원 등	위탁기간 3년 운영경비지원 공무원 파견가능
담양군	직접 또는 민간위탁	조사, 평가, 연구, 계획수립 지원 등	위탁기간 2년 운영경비지원 공무원 파견가능
무안군	직접 또는 민간위탁	계획, 교육, 네트워크 사업 등	위탁기간 3년 운영경비지원 공무원 파견가능
곡성군	직접 또는 민간위탁	계획, 교육, 네트워크 사업 등	위탁기간 3년 운영경비지원, 공무원 파견가능
보성군	직접 또는 민간위탁	계획, 교육, 네트워크 사업 등	위탁기간 3년 운영경비지원, 공무원 파견가능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라남도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방식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 모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설치유형은 전라남도내 시군 대부분이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다만, 전라남도 조례에서는 각 시군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 광역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내용에서는 대부분 계획수립, 교육, 네트워크 등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은 조사, 평가, 연구 등의 내용이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 위탁기간은 순천시와 담양군만이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를 비롯하여 나머지 시군지역은 대부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위탁기간이 끝난 뒤에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열어놓고 있음.
- 대부분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공무원을 파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강제 규정은 아님.

2. 광역중간지원조직 현황

1) 전남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1) 개요

-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2011년에 설립하고, 2015년에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개소
- 도내 분산된 개별 기업 지원조직을 통합하여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지원 실효성 확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확산하고자 통합 운영
-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 운영 : 사단법인 형태의 민간단체와 도 출자 재단법인의 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자원동원을 극대화하고, 자율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지원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마련.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역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
 - (사)휴먼네트워크상생나무 : 민간연구기관

<2015년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 (사)전남지역발전포럼

마을기업·기타 도 특화사업 : (재)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16년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기타 도 특화사업 : (사)전남지역발전포럼

<2017년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 (사)휴먼네트워크상생나무(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

마을기업·기타 도 특화사업 : (재)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라남도 위탁)

(2) 역할 및 기능

- 사회적경제 종합 관리 및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관리, DB 구축, 사후관리
 - 성장사다리 시스템 정착, 도 담당부서 가교 역할 수행
 - 자금지원 컨설팅, 공동판촉 및 행사 지원

- 신규모델 발굴 및 정책 연구 지원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6차 산업 등 각 분야별 신규 모델 발굴
 - 전남 사회적경제 육성방안 강구, 시책 개발

- 지역별 자원연계
 - 사회적경제 협의회와 연계하여 기업과 프로보노 등으로 구성된 간담회 개최 등 네트워크 확충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기관 간 파트너십
 - 사회적경제 기업 협의회 운영지원
 - 업종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전남네트워크 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기관 간담회 및 공동 워크숍
 - 전남사회적경제기업 통합지원사업 운영 보고회(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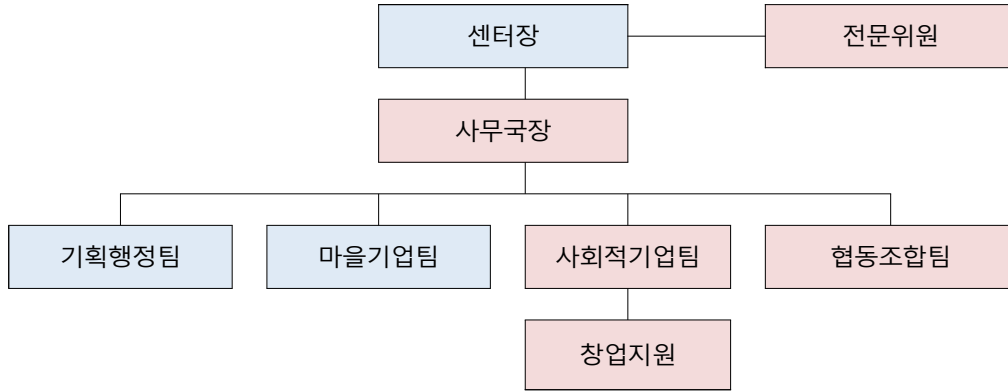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 기업 현장 실사 및 심사 지원
 - 전남사회적경제 기업 모니터링 실시
 - 페이지 Q&A를 통한 컨설팅 활성화

- 사회적경제 기업 요청시 현장 서류 작성 컨설팅 (회계,노무)
 -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기록·사후관리 실시
 - 지정 및 인증 전환 등 설명회 개최
 - 현장실사 및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상시 상담
- 사회적경제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
 - 경영자문 및 진단
 - 경영컨설팅 직접 지원서비스
 - 외부 전문 경영컨설팅 연계 지원
 - 브랜드디자인위원회 구성
- 홍보, 교육 등 기타 필요한 업무
 -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유사사업(업종별) 우수사례 발굴
 -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 “녹색나눔” 홍보
 -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홍보
 - 우수사례 기업의 성과 경연포럼 개최
 - 대기업 쇼핑몰 및 홈쇼핑 (예비)사회적경제 기업제품 입점
 - 타 지역 우수사회적경제 기업 벤치마킹
 - 전남 사회적경제 기업 경영공시 설명회 개최
 - 사회적경제 기업에 관심 있는 지역민들의 단계별 교육
 - 사회적경제 기업 전문가과정 개최
 - 참여자교육

(3)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 구성

- 센터장 아래 4개 팀 운영 : 사회적 경제 분야로 구분하여 기획행정팀, 마을기업팀, 사회적 기업팀, 협동조합팀으로 구성

-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인력으로 이루어짐.



합계	전문위원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
16	1	1	1	3	10

- 참여인력 편성표상의 기획행정팀, 마을기업팀 인원은 기존 전남사회적경제통합 지원센터 운영 주체인 (사)전남지역발전포럼 직원 중 지속고용 인원 4인과 신규 채용인력(2월 1일자 임용)으로 구성하여 (재)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사회적기업·협동조합팀은 전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인 (사)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가 운영하며 인력은 (사)전남지역발전포럼 직원 중 지속고용 인원 2인과 신규 인력으로 구성함
- (재)중소기업지원센터는 전라남도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지역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재무위험이 적고 일반기업이나 도민들로부터 공신력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전남도내 22개 시군과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가능함
- (사)휴먼네트워크상생나무는 사회적기업민·관협의체인 사회적기업활성화전남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확산에 주력해온 민간연구기관으로서 교육, 연구, 조사, 토론회, 국제교류, 인적·물적 자원연계, 경영코칭, 인증지원 등 사회적경제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사단법인 형태의 민간단체와 도출자 재단법인의 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자원동원을 극대화하고, 자율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지원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마련함.

○ 예산 및 주요 사업

구분	사업 세부내용		예산 (천원)	재원
인건비	전라남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3명)		108,091	전남도
	마을기업 경영컨설팅 및 판로지원사업(3명)		86,451	국비+지방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사업(9명)		220,350	기재부, 노동부
	합계		414,892	
운영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경비		25,705	전남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운영경비		26,929	국비+지방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복리후생비 등 포함		44,384	기재부, 노동부
	국내여비		28,800	기재부, 노동부
	사업추진비로 회의비 및 다과비		8,500	기재부, 노동부
	일반관리비 및 예비비		12,166	기재부, 노동부
	마을기업 경영컨설팅 및 판로지원사업 수탁수수료		19,940	국비+지방비
	전라남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수탁수수료		10,500	전남도
	합계		176,924	
사업비	마을기업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9,400	국비+지방비

구분	사업 세부내용		예산 (천원)	재원	
		신규지정 마을기업 지침교육	1,000	국비+지방비	
		사경센터 임직원 역량강화교육	2,000	국비+지방비	
		신규 마을기업 경영컨설팅	11,400	국비+지방비	
		마을기업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20,960	국비+지방비	
		사회적경제 심포지엄	15,000	국비+지방비	
		2017 국제 농업박람회 참가지원	10,000	국비+지방비	
		전남 우수마을기업 판촉지원사업	3,700	국비+지방비	
		마을기업 박람회 참가지원	12,760	국비+지방비	
		마을기업 홍보 및 광고지원사업	15,310	국비+지방비	
		전남 마을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간담회	10,150	국비+지방비	
		소계	278,454		
		센터사업	사업설명회, 홍보 및 광고지원 사업	5,704	전남도
		전남도 및 사회적기업 특화사업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담회	20,000	국비+도비
전남사회적경제기업 품평회	30,000		국비+도비		
전남사회적경제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50,000		국비+도비		
전남사회적경제기업가 맞춤형 아카데미	20,000		국비+도비		
청년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창업 지원사업	20,000		전남도		
소계	384,158				
소계		668,316			
합 계			1,260,132		

2) 농촌활성화지원센터

(1) 개요

-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2013년에 목포대학교에 설치하고,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2년마다 재지정(2015년, 2017년 재 지정) 운영함

- 대학의 다양한 인력, 시설, 연구 및 교육 여건을 비롯해 내외부적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정책 제언·자문 및 모니터링, 교육 등 부처 및 광역도, 시군 지자체 농촌지역개발 정책사업 전·후방 지원업무 추진
- 사업비 운용 : 민간경상보조, 국비 50%, 도비 50%(농촌현장포럼운영 국비 50%, 지방비 50% 별도 사업)

(2) 역할 및 기능

[추진 방향]

- 민·관·학 지역개발 전문기관의 컨소시엄을 통한 주민주도 마을발전계획수립, 마을 및 권역 조사, 모니터링 및 멘토링 체계화
- 광역도 및 시·군 지자체 마을만들기 정책, 사업과 연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시스템 구축에 의한 지역개발정책 선진모델 창출

[역할]

- 농어촌지역사회의 체계적, 지속적 역량강화
 - 농어촌지역개발의 소프트웨어적측면 강조로 인해 지역사회의 역량강화가 주요 관심사 대두에 따른 지역개발관계자 체계적인 역량강화
 - 예비-진입-발전-자립 등 역량단계별 지역주민들의 수요와 필요에 의한 사전 사후 역량강화 지원
- 색깔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 추진
 -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토대로 특색있는 마을 발굴, 사업화를 연계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주도적인 공동체사업 추진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지속성 등 중간연결자로서 지원에 필요한 역할 확대

- 통합적 농어촌지역개발 촉진
 - 부문(sector)적 통합과 추진체계의 통합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접근방식의 종합적 시스템 구축
 - 협력체계와 대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시스템 구축
 - 마을발전 및 사업추진단계별 입체적 농어촌지역개발모델 창출

-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식과 경험의 효과적인 창출과 확산
 -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요소로서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 부각
 - 농어촌개발사업의 다양한 연계 지식과 경험발굴, 활동 축척, 확산 등 역할 강조

- 농어촌거버넌스 구축기반 확립
 - 농어촌개발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조
 - 지역개발사업 관련자간 참여폭 확대
 - 지역내외 다양한 기관간 활동가 참여 증진, 민간부문 참여 강조
 - 수평적,수직적 협력과 조정 및 네트워킹 확대
 - 다양한 현안사항과 문제의 해결 및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의사소통과 정보 및 경험의공유

[기능]

- 정책지원 : 마을·권역·지역단위 신규 사업 및 완료후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정책·제도 건의
 -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및 완료후 운영관리 효율적인 방안 제시
 - 광역도·시군·마을 등 다양한 상향식 지역개발정책 및 사업 제안
 - 추진 및 완료사업의 자문 및 컨설팅 등

- 지역인적자원 육성·관리 : 현장활동가, 마을리더교육, 민간전문가 및 필요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 사업관계자 인식개선, 참여증진을 위한 사회적 자본육성, 관리
 -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단계별 역량강화 의무화에 따른 체계적인 인력양성
 - 협업기관 및 센터 구성원 내부역량강화 활성화

- 현장포럼 지원 : 마을자원조사 및 분석, 주민역량평가, 관련 전문가 및 퍼실리테이터 지원, 현장포럼 자문 및 모니터링(시군자체 현장포럼 대상지) 등
 - 주민협의프로그램을 통한 상향식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관심과 참여 유도
 - 지역개발 관련자간 협업을 통한 교육-워크숍-마을발전계획수립 전체 과정 지원
 - 기획-운영-결과-모니터링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한 단계별 지역개발사업 성과 도출

- 정보교류 : 중간조직간 협력, 마을발전관련 정보공유,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수집
 - 중간지원조직간(시군조직 및 전국 광역조직) 온-오프라인 정보교환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 공동학술조사 및 연구, 마을개발 성과 시스템구축, 정보교환 및 DB구축 등을 통한 선진모델 확산

- 조사 및 연구 : 마을 및 지역활력증진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 조사 등
 - 공동학술조사 및 연구과제 수행
 - 지역개발 관련 다양한 지역내외 정책과제 발굴,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추진

- 네트워크 구축 : 민간 및 공공기관, 관계 전문가, 마을리더 및 민간(행정)조직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 지역전문가군 구축·관리를 통한 지역내외 네트워크체제 유지
 -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멘토링 활동 확대
 - 전문가 의견수렴, 정책사업 모니터링,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세미나) 등 다양한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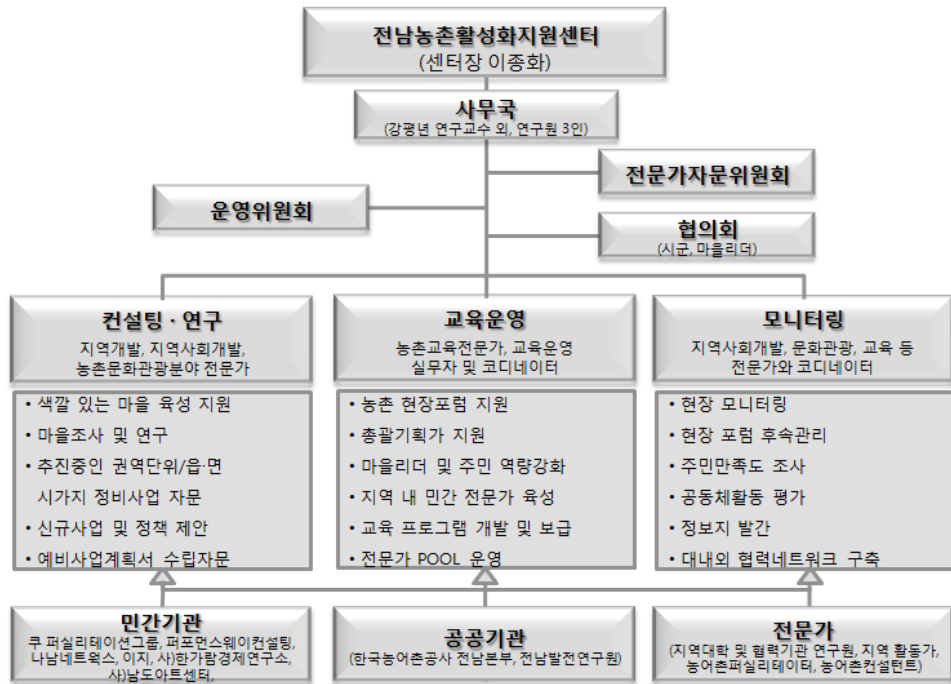
(3) 조직 및 인력구성

- 사무국 내 인력 : 센터장을 포함하여 사무국장(연구교수), 연구원 3인 총 5인으로 구성

합계	센터장	사무국장	연구원
5	1	1	3

- 센터 운영위원회 : 총 15인 구성(전라남도, 대학, 공공 및 민간협업기관 등)
- 3개의 팀과 공공 및 민간 협업기관 구성.운영
 - 3개의 팀 : 교육운영팀, 조사 및 교육팀, 모니터링팀
 - 공공협업기관(컨설팅 및 심사평가등) : 광주전남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지역본부
 - 민간협업기관(현장포럼, 교육, 역량강화사업 지원 등)
 - 컨설팅기관 : 주)나남네트웍스, 주)이지, 사)한가람경제연구소
 - 퍼실리테이션기관 :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 주)쿠퍼실리테이션그룹, 사)한국농어촌퍼실리테이터협회
 - 기타 협업기관 및 전문가그룹 : 사)남도아트센터, 주)프랜즈드림, 전문가자문위원회, 시군 및 마을리더 협의회 등

○ 조직도



(4) 예산

구분	사업 세부내용	예산(천원)	재원출처	기타	
인건비	인건비(2명 : 사무국장, 연구원1인)	57,000	농식품부/ 전남도	연구원2인 : 시군 현장포럼경비 활용	
운영경비	여비	2,000	"		
	일반수용비	1,500	"		
	업무추진비	2,000	"		
	산단부담금	6,500	"		
	소 계	12,000	"		
직접사업비	연구용역(과제)	중간지원조직 협업관련 자체 과제	10,000	"	
	역량강화 및 교육	현장활동가교육(3회)	15,200	"	
		마을리더교육(3회)	18,700	"	
		현장포럼 (설명회 1회)	1,700	"	
		소 계	35,600	"	
	홍보 및 정보교류	사업홍보	4,000	"	
		정보교류	6,000	"	
		소계	10,000	"	
	기 타	종합보고서	1,000	"	
		워크숍	4,400	"	
소 계		5,400	"		
	소 계	61,000			
	총 계	130,000			

3) 마을공동체지원센터

(1) 개요

- 전라남도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연구에 경험이 있거나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016년 수탁기관을 선정(150백만원), 협약 체결 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재위탁 가능
- 위탁 사무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관리.운영 전반
- 목표
 - 주민주도식 마을공동체 육성
 - 공동체 사업을 이끌고 갈 마을사람 키우기
 - 마을공동체 단계별 구분 지원
 - 마을공동체 민관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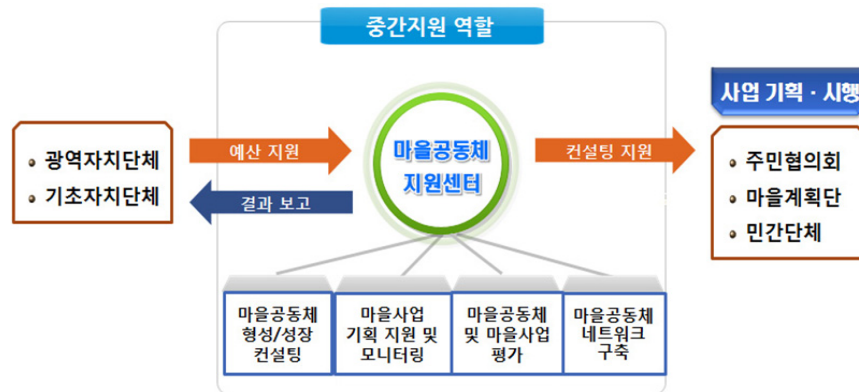
(2) 역할 및 기능

- 행정(정책 집행)과 주민 또는 주민단체(사업 시행) 간 종합적 중간지원 역할
- 마을공동체 형성/성장 컨설팅
 -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단계별 컨설팅
 - 타 시도 및 도내의 다양한 마을활동 내용을 파악·분석 후 주민단체의 사업 기획·시행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컨설팅 지원
 - 마을만들기 관련 애로사항 및 전문가의 도움 필요시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내 [마을공동체방] 이용
- 마을 사업 기획 지원 및 모니터링
 - 신규 마을 발굴 및 육성
 - 마을간 네트워크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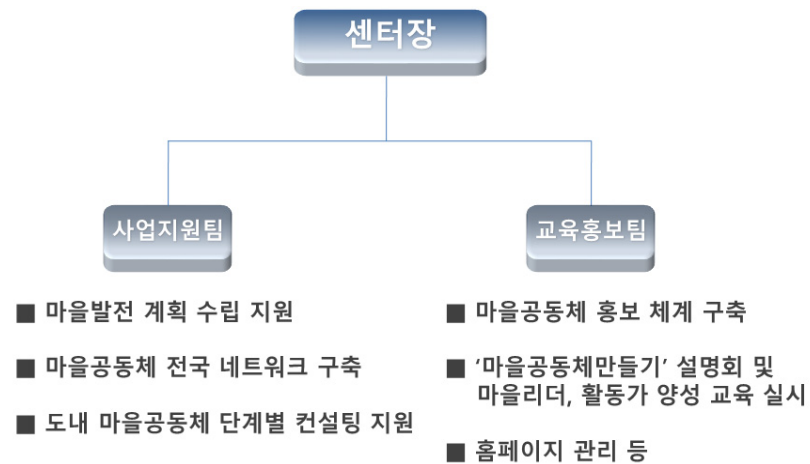
- 공모대상 선정 및 컨설팅
 - 전라남도 마을 경진대회 개최
 -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모임 개최
 - 전남 마을만들기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 마을공동체 사업 분석, 평가, 연구
- 마을 홍보체계 구축
 - 홈페이지, 영상, 자료를 이용 → 사람간, 공동체간 홍보 지원
 - 마을 홍보의 파급 또는 확산 구조를 정착화 → 지속가능한 홍보체계 구축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순환구조 구축 → 도/시군 홍보물, SNS, 마을신문, 소식지, 방송 등
- 단계별 교육
 - 마을 단계별 교육을 통한 잠재적·실천적 마을 인재 양성
 - 다양한 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 문제상황을 인식·분석·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 교육 및 배양
 - ‘마을공동체만들기 설명회’를 통한 주민동기화 역량 배양
 - 마을리더/마을활동가 등의 재교육을 통한 지속가능 체계 유지
-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유형별·단계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유사 및 이종 마을공동체간 교류 활성화 지원



- 마을공동체간 교류촉진과 사업지원의 효율성 제고 → 민관거버넌스 및 시군
- 단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 상호 교류 및 소통 할 수 있는 정보 공유 및 협력의 장 구축 →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참여하는 주민, 리더, 활동가 등 대상



(3) 조직 및 인력 구성



○ 조직

- 2팀으로 구성 : 사업지원팀, 교육홍보팀
- 센터장1명, 사업지원팀3명, 교육홍보팀 2명 등 총 6명이 근무

(4) 예산

구분	사업 세부내용	예산(천원)	재원출처	기타	
인건비	인건비(6명)	198,000	전남도		
운영비	일반운영비	41,000	전남도		
사업비	컨설팅	설명회 및 컨설팅	26,000	전남도	
	역량강화 및 교육	리더교육	13,500	전남도	
		활동가교육	44,000	전남도	
		역량강화 및 워크샵	10,000	전남도	
		워크샵	7,000	전남도	
		소계	74,500		
	홍보	홈페이지 및 SNS		전남도	2018년도
		홍보물 제작	2,000	전남도	
		소계	2,000		
	기타	발표한마당	20,000	전남도	
	소 계		122,500		
	합 계		361,500		

4) 6차산업지원센터

(1) 개요

- 전남6차산업지원센터는 2014년 5월 7일 개소
- 전남농업 6차산업지원센터는 현장코칭 및 인증자 관리, 농산물 유통·마케팅, 기초실태조사 및 D/B현행화 등의 현장 밀착 서비스 지원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6차산업 활성화에 기여
-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 6차산업화 사업자에 대한 현장맞춤형 지원으로 융·복합 수익모델 발굴 및 육성

(2) 역할 및 기능

- 6차 산업 사업자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
 - 인증기준에 따라 자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매년 2회 인증사업자(후보)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추천
 - 인증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인증기간 경과 후 3년간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 인증 갱신여부 판단
 - 지역내 인증사업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연2회)하고, 상담·코칭, 현장설명회, 정책건의 등을 통해 해소 추진
 - 인증사업자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장을 지원
 - 절차 : 6차산업화 인증제 홍보 및 사전 설명회 →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신청서 접수(연 2회) → 서면·현장 심사 → 선정 →결과 통보 →교육(집합 및 순회) 및 모니터링
 - 기초실태조사 : 지역별 대표 6차산업 품목 및 유형별 6차산업 추진 경영체수, 매출액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6차산업 현장코칭 및 사업화 지원과 전문교육 추진
 - 6차산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등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경영·마케팅 등에 대해 전문가 풀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 및 코칭 제공
 - 전문가 풀 구성 후 농업인의 신청분야 및 내용에 따라 전문가 배정으로 맞춤형 코칭 지원
 - 전문위원은 코칭 실시 후 현장코칭 수행결과보고서를 코칭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원센터와 경영체에 제출하여 완성도 있는 현장코칭 지원
 - 절차 : 추진절차 : 신청·접수 → 상담(지원센터↔신청자) → 전문가 매칭 및 전문가 매칭결과 안내(지원센터→신청자) → 자부담 입금 → 현장코칭 → 완료점검 → 정산 → 코칭 결과분석
 - 유통업체 판매플랫폼 구축 및 안테나숍 운영

○ 6차산업 관련 지원조직간 협력체계 구축

- 분산.운영되어 온 농업 분야 창업지원기관의 주요 사업을 창업(희망)자들에게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
- 실용화재단(3명), 농기평(1), 농금원(1)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이하 특 화센터)’를 구성.운영
- 그 외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9개소), 귀농귀촌종합센터(1개소), 농산물종합가공센터(23개소) 등은 협력기관으로 참여
- 네트워크 참여기관의 창업지원 사업 정보를 총 망라하여, ‘특화센터’에서 창업(희망)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창업(희망)자별로 필요한 지원 내용을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논의를 통해 지원가능여부, 지원시기 등을 결정하여 ‘(가칭)창업지원 프로세스 설계도’를 만들어 제공

(3) 조직 및 인력



- 지원센터에서 지원기능 수행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관리.파견 등 총괄경영을 기획담당
-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

<표 16> 6차산업 지원센터 주요 조직

업무분야	주요업무
인증제 평가 및 사후관리	- 인증제 운영 - 인증사업자 관리 - 인증사업자 홍보
현장코칭 및 창업학교	- 현장코칭 운영 - 창업학교 운영 - 유관기관 협력업무
6차산업 판로지원	- 안테나숍 운영 - 판매플랫폼 운영 - 6차산업 상품 마케팅 지원
6차산업 현황관리	- 실태조사 및 디렉토리 구축

- 정책지원협의체에서는 연구기획, 기술지도, 판로유통, 사업화지원 등에 대해 지원역할 수행
 - 연구·기획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등 6차산업화 자원 조사 및 모델 개발·적용, 필요한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등
 - 기술지도 : 전남농업기술원, 식품산업연구센터 등 생산·제조·가공·판매·유통·체험 등 6차 산업화 추진과정 중 필요한 기술의 지도·보급, 현장 농업인 교육 등
 - 판로·유통 : 농협전남지역본부, aT광주전남지역본부 등 6차산업화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로확보 및 유통망 확충, 홍보 등 지원
 - 사업화지원 :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대학교 등 6차산업화 희망 경영체에 대한 창업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에 대한 관리를 통한 사업화 지원

5) 어촌특화지원센터

(1) 개요

- 2016년 4월 목포해양대와 광주일보 컨소시움으로 어촌특화지원센터로 지정
- 어촌특화발전 지원특별법에 근거한 기관으로 해양수산부와 전남도가 선정한 어촌들을 대상으로 교육마케팅홍보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
- 어업 생산활동 중심의 단순구조에서 벗어나 수산물 가공, 어촌관광 등 어촌경제구조 다변화하는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촌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발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연안 광역시·도에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운영

- 사업목표
 - 어촌의 수산물, 우수한 자연경관 등의 자원을 가공·유통·서비스, 관광산업과 융·복합하여 어업 외 소득 증대 지원
 - 어촌특화 창업·경영컨설팅 지원, 특화상품·기술 연구개발, 특화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경영실태 관리 등

(2) 주요 사업 내용

-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신규과정)
 - 어촌마을의 역량강화를 통해 마을단위 자체사업으로 특화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선진지 견학, 마을 갈등관리 등 추진
 - 마을자원 발굴, 특화상품 개발방향 도출, 특화상품 개발 단계별 필요사항 컨설팅, 마케팅 방안 마련, 우수사례 현장견학 등

-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심화과정)
 - 어촌특화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어촌마을 중 특화사업추진을 위한 마케팅 분야를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특화상품 판매단계로 진입 지원.

- 역량강화 이수 어촌마을 5개소를 대상으로 어촌특화상품 브랜드화, 판매·유통 등을 위한 마케팅과 컨설팅 교육 추진.
- 5개소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어촌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마케팅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집중 컨설팅 추진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관리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연차별 사업추진 현황과 경영실태 등에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사업성과 도출 지원.
- 어촌 6차산업화 시범마을의 사업추진, 사업성과, 운영·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마을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지원



○ 1사 1촌 자매결연 추진

- 관내 공공기업과 어촌 6차산업 추진마을 간 연계 지원함으로 마을의 주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 지원.
- 전남 어촌 6차산업화 마을상품 홍보와 구매 지원.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식자재, 상품구매 촉진으로 사업초기 안정적인 판로 확보 지원

○ 안테나숍 운영 지원

- 어촌 6차산업화 상품·서비스의 판매방식·판로구축에 앞서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여 특화상품의 품질개선과 판매전략 개선을 지원

○ 어촌특화사업 예비 후보군 발굴

- 어촌마을 대상 현장조사·상담 등 지원업무를 통해 향후 어촌특화 역량강화, 어촌 6차산업화 지원 후보군을 발굴하고 사업 참여 유도.
- 정부·지자체의 어촌 6차산업화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가능성 검토, 분야별 특화산업화 기술·특허 등 사전정보 제공
-
- 어촌특화사업 홍보물 발행
 - 어촌 6차산업화 우수사례 등 성과와 특화지원센터 역할·기능을 홍보하여 어촌 특화 사업참여와 발전을 지원하여 정부정책 효과성 제고.
 - 어촌 6차산업화 성과 및 어촌특화상품·이벤트(특화상품, 음식, 관련 축제·행사 등)를 홍보하고,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역할·기능 소개 등을 위한 오프라인 홍보물 발간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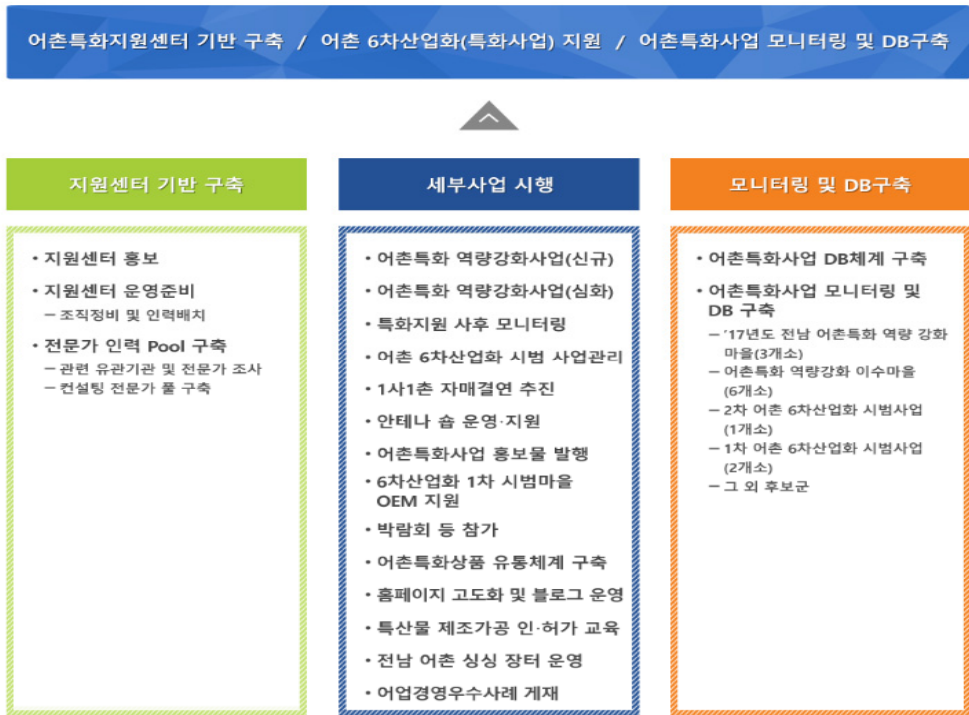
(3) 조직과 인력

총 6명의 인력이 5개 분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

<표 17> 전남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사업 영역

직 책	담당 업무
센터장	센터 업무 총괄
부센터장	홍보·마케팅, 연계사업, 그 외 사업 총괄
부센터장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 총괄
사무국장	센터 회계 책임 및 서류 작성 총괄
과장	현장 관리, 자료 정리
대리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 및 현장 관리

○ 추진체계



3. 광역중간지원조직의 유형과 특징

(1) 설치유형

- 법적 설치 근거에 따른 구분 : 법에 설치근거와 기능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설치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으로 나누어짐.
 - 법에 설치근거있는 중간지원조직 : 6차산업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
 -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는 중간지원조직 :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 법에 설치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중간지원조직(지원규정)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 공설공영 : 6차산업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
 - 비영리법인위탁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 사업내용

- 5개 센터 모두 교육 및 역량강화 영역, 컨설팅영역, 홍보 마케팅영역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교육, 공동체지원센터와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마을리더 및 활동가 교육, 6차산업지원센터는 창업 교육,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함.
 - 홍보에서는 센터에 대한 홍보에서 부터 마케팅을 위한 홍보까지 다양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의 수준이나 깊이는 다소 차이가 있음. 비교적 소극적인 센터는 공동체지원센터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임.
- 정보축적 영역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6차산업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음.
 -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태조사 및 디렉토리구축, 마을모니터링 등의 형태임.
- 정보교류와 관련해서는 6차산업지원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센터의 경우 정보교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간담회, 발표회, 정보교류, 사전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센터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유일함.
 - 대학에 설치됨에 따라 대학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함
- 협의체 또는 협력기관을 운영하는 센터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6차산업지원센터가 있음.
 -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과 민간기관(컨설팅기관, 퍼실리테이션기관 등)으로 나누어 협업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컨설팅이나 자문, 교육 등의 영역에서 협력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6차산업지원센터는 전남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광주전남연구원, 농업기술연구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간 수평적 연계를 위한 기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표 18> 전남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사업 영역

구분	사경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6차산업 지원센터	어촌특화 지원센터
교육 / 역량 강화	마을기업교육 센터직원교육 사회적기업아 카데미	리더교육 활동가교육 주민역량강화	리더교육 활동가교육 현장포럼	창업학교	어 촌 특 화 역량강화
컨설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창업지원	설명회, 컨설팅	-	현장코칭	특화상품개발
정보 축적	DB구축	-	-	실태조사 디렉토리구축	마을모니터링
정보 교류	마을기업간담 회	마을발표회	정보교류	-	특 화 사 업 사전정보제공
연구 과제	-	-	중간지원조직	-	-
심포 지움/ 워크숍	사회적경제심 포지움	워크숍	워크숍	-	-
홍보/ 마케팅	마을기업홍보, 광고 판촉지원 품평회 구매상담회 박람회참가지 원	홈페이지 홍보물 SNS	사업홍보	안테나숍 판매플랫폼	1사1촌 안테나숍 특화사업홍보 물
협의체	-	-	협업기관구성	정책지원협의 체	-

(3) 조직구성과 운영

- 공무원이 파견된 경우는 전무하고, 관에서는 설치하고, 민간에서 위탁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음.
- 자체재원은 없으며, 중간지원센터 설립주체의 지원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비는 센터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이 지원됨. 특히, 도차원에서 설립운영된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추진 및 활동 등도 저조
-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가 기재부, 행안부 등의 사업을 통합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비교적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음.

4. 광역중간지원조직의 문제 및 한계

(1) 재정자립도의 취약(조직 운영의 자율성 부족)

-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중간지원조직이 정부의 사업비 위탁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 운영 재정의 대부분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의존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요구보다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을 지시받는 구조(정부사업의 대리인)임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여 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간의 수직적 관계 또는 정부대행 사업기관으로 비춰지는 등의 중간조직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 (인건비) 예를 들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국비와 광역도비로 지원되는 센터로서 인건비가 최소화(2인 인건비만 충족)되어 있음. 연간 단위로 재계약과정을 거치지만 실질적으로 10개월 동안 대학을 통해 임용하는 조건 등으로 비정규직이자, 자체적인 운용비 마련을 위한 인력 확보로 인해 시군 지자체의 용역수행 등이 불가피한 상황임(시군역량강화사업 및 현장포럼 지원을 통한 자체 인력 인건비충당하는 구조)
- 특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의 시·군 역량강화사업비 항목이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인건비는 지원제외대상으로 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시·군 창의사업(일부 시군 지자체의 시군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지원비 확보)위한 인건비 지원도 불허함
- 결국 조직 설립 및 일부 운영비는 지급하겠지만, 인건비는 시군에서 대응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 (재원) 국비·지방비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직운영 및 사업운용에 필요한 운영비 조달이 곤란하고 이러한 뒷받침없이 역량수준이 높은 인력 채용이 어려움

(2) 사업의 다양성 확보 곤란

- (사업비)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경우 지자체 자체예산보다 농식품부 시·군

역량강화사업을 비롯해 일부 시군의 위탁·수행 등을 통해 운영 및 인건비가 조달되고 있어, 각각의 중간조직별로 자체적인 조사연구 및 지역내 역량강화를 위한 비수익 사업 수행 곤란

- 이밖에 타 광역도 중간지원조직의 경우도 대체로 연간 계획수립 및 기관평가 대비 등에 맞춰 전국적으로 조직별 사업계획 및 내용이 동일한 포맷으로 진행됨에 따라 각각의 조직에서 운영 및 사업에 대한 특성화, 다양성 확보가 어려움

(3) 전문성과 전문인력 부족

- 전국적으로 부처별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많게는 5년이상, 적게는 1~2년이상 운영되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지도가 매우 낮음
-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전문인력 기반이 취약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경우 전국 9개 종합대학교내 설립되었으나 다양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또한 6차산업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등의 경우도 마을 및 기관, 개별 경영체를 지원하다보니 전문성 뿐만 아니라 현장성을 갖춘 인력확보가 쉽지 않음
- 현장 요구에 대한 대응의 한계현상은 중간지원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역량(양적·질적)의 한계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해 전문성 있고 지속성 있는 행정과의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원인도 큼

(4) 지역내 인재풀의 한계와 조직운동을 위한 유형화된 모델정립 부재

- (인력) 지역 내 인재풀이 부족과 함께 한정된 인건비로 인해 적합한 외부인사 초빙에 어려움 존재
- 전문성 및 현장성, 지역성 등 조직 운용에 필요한 역량을 고루 갖춘 지역내 인력난 부재로 업무의 역할 및 기능에 맞는 조직구성과 운영의 어려움
- (조직운영) 대체적으로 부처 사업예산에 의존도가 높아 운영재원 마련 및 인력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음

- 최근 충청남도,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활발한 시군중간지원조직 생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신규 시스템 구축 및 광역도-시군중간조직 연계 운영을 위한 유형화된 참고모델·가이드라인 부재

(5) 현장의 다양한 요구의 수용과 지원의 한계(현장밀착성 부족)

-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을 갖춘 인적역량 부족, 구조적으로는 현장의 요구를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함.
- 중앙정부 중간지원조직은 권역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중간지원조직 역시 아직은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

(6) 중간지원조직 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크와 협력관계 부족

- 농촌활성화, 공동체활성화, 6차산업지원, 어촌특화, 사회적경제 등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조직간 연계나 협력 구조가 갖추어져있지 않아 동일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수 있거나 함께 할 경우 효과가 높을 수 있는 영역간의 연계가 부족
- 예를 들면 지역적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이 추진되거나,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공모, 반복되는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로도는 물론 불필요한 예산 낭비등이 나타나기도 함
- 지역 및 공간별 정보교류와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연계협력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나타나는 개별성, 반복성 등의 극복이 필요함
-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담양군을 시작으로 곡성군, 무안군, 광양시 등이 시군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거나 준비중인데, 이들 시군중간지원조직은 각각 개별적으로 광역도 조직과 소통하고 있는 터라 향후 시군중간조직 생성이 활발해지면서 발생하게 될 연계협력, 네트워킹을 위한 사전 광역도 중간지원조직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

(7) 조직의 지속성·안정성 부족

- 농촌활성화지원센터나 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기업 관련사업을 위한 중간지원

- 조직들은 조직의 설치, 운영, 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음(6차산업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 등 조직운영에 대한 법제정)
- 매번(2-3년) 평가, 공모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 한시적 시범사업형태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중간지원조직들의 농촌지역이나 사회적 기업, 공동체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보장하기 어려움.
 - 이로 인해 중간지원조직 역시 장기적 안목에서 자체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
 - 예컨대,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종사자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자체 사업비 지원, 위탁계약의 안정성 등 기관의 재정적 제도적 안정성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제5장. 전라남도 중간지원조직의 연계협력방향

1.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정립 기본 방향

- 중간지원조직의 본래 취지와 기능의 회복
 -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재정적 안정성 확보
 - 중간지원조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 중간지원조직의 수직적 기능의 체계적 분담구조 형성
 - 중앙·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간 수직적 역할분담을 통해 현장과 정책 간 간극을 줄일 때 중간지원조직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음
 - 중앙지원조직-광역지원조직-기초지원조직 간의 체계적 기능분담 구조 형성

- 중간지원조직의 수평적 연계 및 공유
 - 유관 중간지원조직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와 문제 개선 필요
 - 중간지원조직 업무조율 공동협의기구 정례 운영 또는 새로운 통합 체계 구축 필요

2. 광역중간지원조직의 본래 취지와 기능의 회복

(1) 광역중간지원조직의 행재정적, 제도적 안정성 확보

-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중간지원조직의 기반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공설민영, 공설공영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이 바람직함. 그러나 공설민영의 경우, 사업추진이나 행정재정부문에 있어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2-3년마다 위탁기관이 바뀔 수 있어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반면에 공설공영의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있으나 자칫 행정조직에 예측될 우려가 있어, 중간지원조직이 갖춰야 하는 민간과 행정간의 중간기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은 지속적으로 기초(시군)중간지원조직을 일관성 있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을 공설공영형태, 공설민영형태로 하되, 행정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그리고 외부 인재를 자유롭게 영입할 수 있는 인사관리 구조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농촌형 중간지원조직은 독립된 기금조성이 가능한 독자사업의 운영도 필요함. 지원정책과 병행하여, 민간기금을 조성하고, 농촌지역활성화, 커뮤니티의 회복 등과 연관된 지역내 기금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사업의 기획·운영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제도적 기반 강화 : 법적 설치 근거 명확화

- 중간지원조직의 설치근거와 주요 기능, 행·재정적 지원이 법으로 규정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그 역할 수행과 조직운영의 지속성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
-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어촌특화지원센터, 6차산업지원센터 등은 근거법이 분명하게 ‘지원센터’설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나 공동체지원센터 등의 경우는 지침이나 조례수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기능이나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원조직의 역할을 정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인재확보를 위한 여건 및 재원지원

- 지방은 인재가 중앙에 비해 적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이로 인해 인재를 안정적, 지속적인 토대하에 육성하는, 지방의 혁신주체

- 라고 할 수 있는 대학과 결합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운영을 위한 지원이 보장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임. 즉, 인재채용, 기본사업지원(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구축 관리, 기초연구 등) 등에 대한 지원이 보장이 되어야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2) 광역중간지원조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은 ‘중간조직’(intermediaries 또는 intermediary organization)이라는 위상적 특성과 ‘지원조직’(support organization)이라는 기능적 특성을 가진 조직 (김태형, 2016)
- 중간지원조직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수혜 받는 현장(민간)의 사이 따라서 민간과 행정의 가교로서의 역할, 민간과 민간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창한, 2014)
- 중간이라는 위상적 특성으로 인해 행정과 민간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위상이 모호해지고 결국 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됨
- 모호해진 위상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당초 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됨
-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이 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통해 중개자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임.
- 그러나 현재의 광역중간지원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확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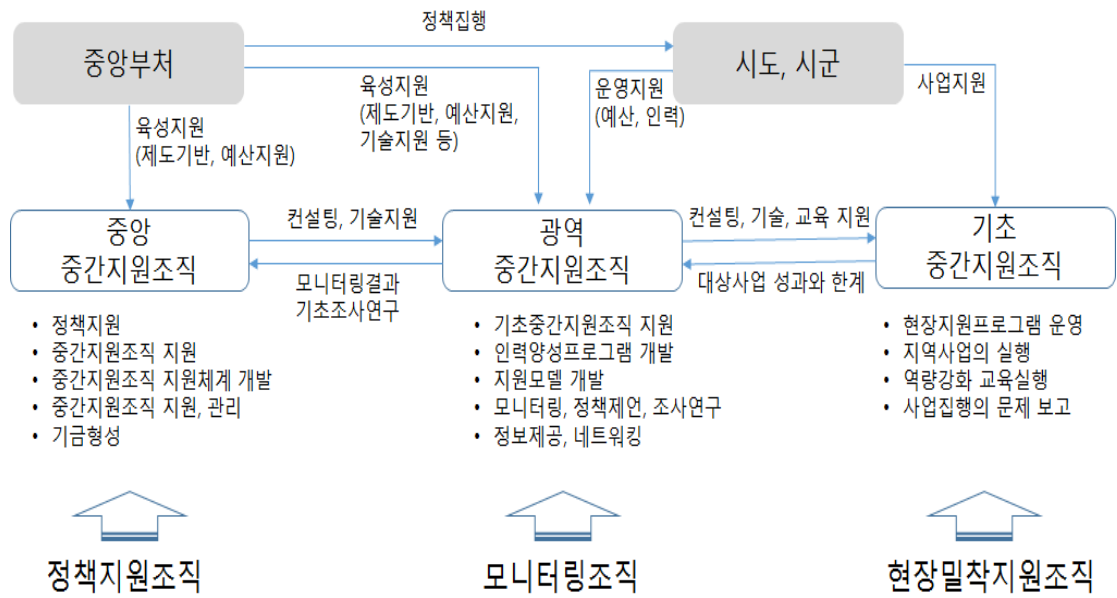
(3) 광역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경우, 지자체 자체예산보다 농식품부 시·군 역량강화사업의 위탁·수행을 통해 조달됨에 따라 비수익 사업 수행이 곤란한 여건 개선 필요

- 현행, 사업추진병행형 --> 모니터링, 컨설팅,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중간지원조직간 역할분담 및 조율
- 조직이 가지는 전문성,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광역도' 공간적 범위에서의 역할과 기능 조정으로 '기초지자체(시군)' 운영을 지원해 통합 조직으로서 역할 필요

3. 중간지원조직의 수직적 기능 분담구조 형성

- 중앙지원조직-광역지원조직-기초지원조직 간의 체계적 기능분담 구조 형성
 - 중앙지원조직은 정책과 제도 입안 및 행재정 지원 중심, 광역지원조직은 기초지원조직의 지원 및 중앙지원조직의 지침을 기초지원조직에 전달하고 기초지원조직에서 관리하는 현장문제를 중앙에 전달하는 중간매개 역할을 담당하며, 기초지원조직은 실제 마을이나 지역의 사업추진과정을 지원하는 역할 담당
- 광역 중간지원조직
 - 총괄적인 정책기획, 기초 수준의 중간지원조직 지원, 연구·교육, 중간지원조직 간 네트워킹등의 역할을 수행
 - 각 중간지원조직간 전문성, 자율성을 살린 역할과 기능 검토로 연계협력을 통한 기초 중간지원조직의 활동기반 제공
- 기초중간지원조직 : 현장성 중요.
 - 직접 주민들과 접촉하고 사업을 발굴하여 그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
 - 실제 추진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집행하는 데에 집중
 - 지역주민, 상인, 사회적 경제, 공공기관, 지역기업등의 지역주체 사이에서 역할을 결집하고 이해관계를 조정



4. 중간지원조직의 수평적 연계 및 협력

(1) 단기 : 중간지원조직 업무조율 공동협의기구 정례 운영

- 지역 또는 마을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 현재 농촌사업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중간지원조직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 장소나 마을이 다름.
 - 농촌활력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가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에도 한 두 부문에 집중하여 전체적인 비전과 구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장소, 지역, 마을에 공동으로 사업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의 경직된 운영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타 부처사업과 중복추진에 따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주요 역할 및 기능
 - 대상사업 협의 및 조정 작업 진행
 - 공유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
 - 기초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
 - 주요 정책사업의 문제 및 개선, 공동운영방안 모색
 - 마을 중심의 공동사업 추진 협의
 - 공동소식지 및 홈페이지 운영

(2) 장기 : 통합운영체계 모델 운영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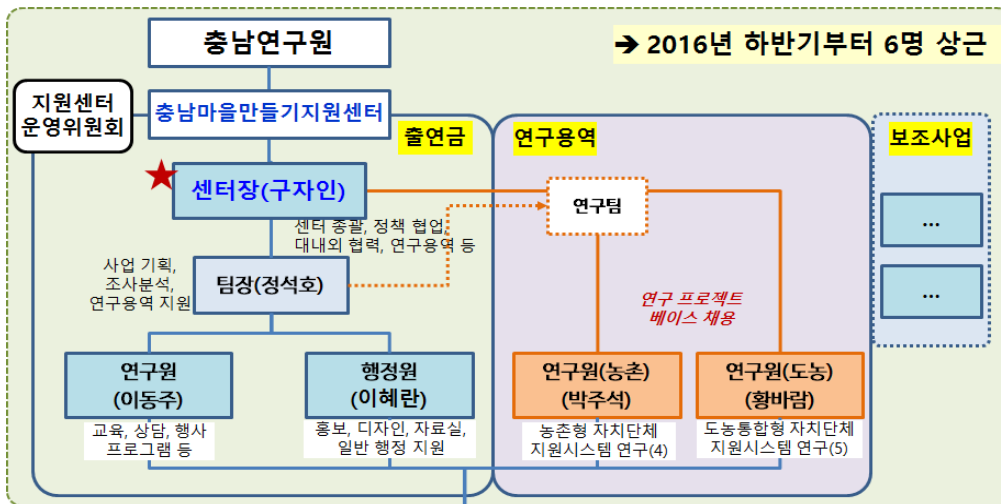
-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 증대
 - 공동협의기구를 운영하더라도 6차산업, 어업, 농촌, 공동체 등 분야별로 구분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업무의 중복성에 대한 논란은 존재

- 현재 중간지원조직의 분야이외에도 지역이나 마을에서 필요로하는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 필요
 - 공동협의기구를 통해 일정 부분 협력부문과 협력방식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뒤에 좀 더 발전된 형태의 통합지원체계 고민 필요
- 통합운영체계 운영방식
- 중간조직을 통합운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소통의 효율성을 제고
 - (1안) 느슨한 통합운영 방식 : 각각의 중간지원조직을 하나의 공간에 두고, 상징적으로 각 센터의 장이 순환형태로 장을 겸직하면서 통합운영하는 대안
 - (2안) 완전한 통합운영 : 현재의 중간지원조직 분야를 통합된 조직의 부서(또는 센터)로 조정하고, 업무를 통합하는 형태로 전환
 - 부처별로 나누어진 재정지원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 필요
 - (3안) 외형유지, 사업내용 통합 : 재정지원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경우 센터의 외형은 유지하고 내용을 통합하는 방식의 운영 대안 검토(통합운영에 따른 운영부담 축소 및 협의의 효율성 도모 가능)

<참 고 1> 광역중간지원조직 운영사례(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센터 개요

- (주요연혁) '16.6월 센터 위탁 협약, 8월 센터 개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아산) 및 시군 중간지원센터 채용설명회 개최
- (운영방식) 충남도의 위탁을 통해 충남연구원 내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센터장 구자인)가 운영(관설민영)
- (주요업무) 충남도 광역 단위 마을만들기 정책 지원,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연구,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조직구성) 6명(센터장 1, 팀장 1, 지원연구원 2, 연구용역팀 2)



- (운영예산) 396백만원(인건비 6명, 264백만원)
- (특기사항) 센터 초기 구축을 위해 충남연구원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19년 민간법인 독립 운영 계획

□ '16년 주요활동실적

-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시·군 10회), 마을자료실 구축(도서 1,050권)
- 시·군 핵심리더(2회)·신규활동가워크숍(4회), 충남마을넷 구축 포럼(1회)
- 시·군 마을만들기 시스템 구축 용역(9개소) 등

□ 운영예산 세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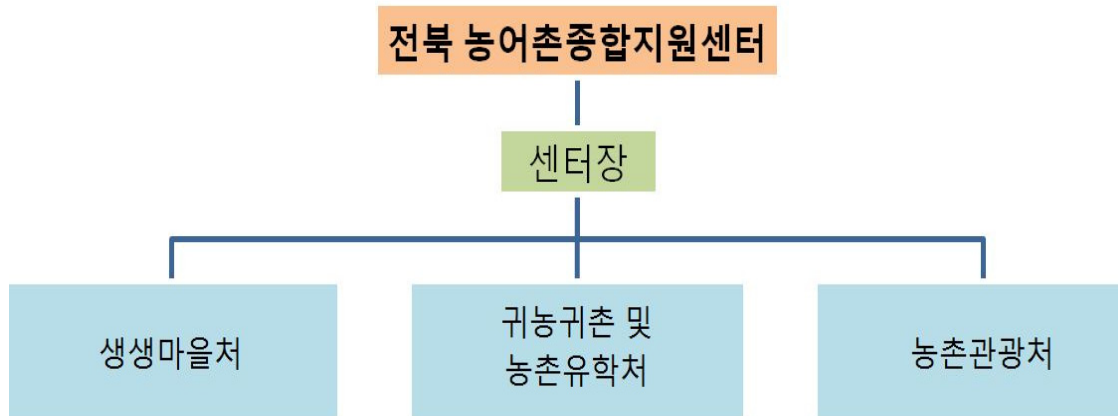
(단위:천원)

항목	세 부 내 용	금 액
운영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6명) ◦ 운영비(사무실운영비, 통신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264,308 66,268
	소 계	330,576
소통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소식지/잡지 발간마을 ◦ 웹진 소식지 발간 ◦ 연간활동보고서 발간 ◦ 온/오프라인 홍보 서비스 구축 	10,800 4,800 5,000 3,200
	소 계	23,800
조사 분석 (마을자료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도서/보고서 수집 및 분석 ◦ 마을만들기 학술행사 개최 ◦ 마을만들기 참여활동 공유 자료 구축 ◦ 충남마을만들기 아틀라스 제작 	1,500 1,160 5,100 14,206
	소 계	21,966
역량강화 (핵심리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핵심리더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 시.군 지원센터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 시.군 순회 교육 및 정책 설명회 개최 ◦ 신규활동가워크숍 ◦ 광역 센터 역량강화 	4,930 1,700 4,680 4,200 1,000
	소 계	16,510
협력 연대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포럼 ◦ 마을만들기 인재뱅크 작성 및 배포 ◦ 대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00 1,540 3,000
	소 계	5,540
마을동아리 육성	◦ 광역 마을만들기 동아리 공모사업	16,938
특별사업	◦ 마을만들기 5개년 기본계획 수립	16,056
합 계		431,386

<참 고 2> 광역중간지원조직 운영사례(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 센터 개요

- (주요연혁) '16.8월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16.12월 위·수탁 협약 센터 개소
- (운영방식) 전북도의 위탁을 통해 민간단체 사단법인 지역활력센터(대표 송해안)가 운영(관설민영)
- (주요업무) 생생마을 만들기 정책개발, 시군 중간지원조직 구축·활성화, 귀농어·귀촌 관련 조사·홍보·정착지원, 농촌유학 활성화
- (조직구성) 6명(센터장 1, 처장 1, 팀장 2, 팀원 2)



- (운영예산) 410백만원(인건비 5명, 173백만원)
- (특기사항) 기존 운영중인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 센터, 농촌관광 지원센터, 귀농어·귀촌 지원센터를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 설치

□ '17년 상반기 주요활동실적

- 주민역량강화(생생마을대학247명, 과소화대응인력교육140명), 전문가현장자문(1회)
- 귀농귀촌 박람회(11회), 도시민 홍보(매체광고, 홍보물제작, 홈페이지 운영)
- 농촌관광 상품 개발(33개마을), 농촌관광시범사업(공정여행93회, 팸투어11회)

□ 운영예산 세부사항

(단위:천원)

항목	세 부 내 용	금 액
운영 경비	◦ 인건비(5명)	173,496
	◦ 운영비(사무실운영비, 통신비, 소프트웨어구입비등)	4,242
	소 계	177,738
주민역량 강화사업	◦ 생생마을대학 (주민역량강화강좌9회, 선진지견학1회, 워크숍1회)	24,000
	◦ 통합설명회(1회)	10,000
	소 계	34,000
통합 모니터링 사업	◦ 운영컨설팅 (현장조사 30개소, 지정컨설팅 8개소, 운영컨설팅 10개소)	30,000
	◦ 모니터링(2회, 10개소)	4,000
	소 계	34,000
네트워크 사업	◦ 네트워크 지원(귀농귀촌박람회 1회, 전국대회 1회)	19,000
	◦ 공동장터 ◦ 내부역량강화	20,000 5,000
	소 계	16,510
기반구축 마케팅	◦ 홍보 및 마케팅 (통합이미지 제작, 뉴스레터, 소식지, 웹진, 페이스 북 운영, 리플릿 제작, 홈페이지 보수, 인트로 제작)	85,262
	소 계	85,262
정책연구	◦ 마을사업메뉴얼	20,000
	◦ 정책토론회	15,000
	소 계	35,000
합 계		410,000

[참고문헌]

- 송두범, 2011, “충남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열린충남 56권0호, pp.31-39
- 김태형, 2016, “사회적경제 영역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분석: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적용”, 『정부학연구』 제22권 제2호(2016): 81~125
- 오정섭, 2013, 不動産資産管理 | 韓國不動産資産管理學會誌 | 第 1卷 1號 (通卷第 1號), 101-112)
- 김지현, 2016.5., “중간지원조직과 거버넌스”, 희망이슈 5호, 희망제작소
- 임경수, 201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향», “중간지원조직의 광역시군간 역할분담 및 발전방향”(지역농업연구원 17차 정기세미나 자료집), 지역농업연구원
- 김재현·태유리·이효정·임윤정, 2013,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승우·박상우·김유진·이호림, 2015, 어촌특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운영·관리 방향, KMI 현안분석(No. 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마상진, 2011,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북 농촌활성화지원센터

2017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2017년 경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과제 보고서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사업의 정책효과분석 -

2017. 11.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KNU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경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해 2000년 대 이후 도농격차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은 거주환경, 교통, 문화·복지, 여가생활 여건 등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지역의 소득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관광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농업생산액은 2012년 44조원에서 2016년 현재 44조원으로 큰 변동은 없지만 농촌관광 수요는 2014년 831만 명에서 2016년 약 1,000만 명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은 52개국과 FTA를 체결(발효)하여 농산물 수입액 80%를 FTA체결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등 농업부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국내 농업·농촌의 여건의 변화 속에 더 이상 농업 소득만으로는 농가가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농업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개발사업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이 중요 정책으로 대두되었다.

농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단계별 지원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이후 본격적으로 주민교육과 의견수렴을 중시하는 상향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향식 농촌마을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 2013년 전국에 9개의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농촌마을의 리더 및 담당공무원(현장활동가)의 교육을 시작으로, 현장포럼지원,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마을개발사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마을리더 및 현장활동가 교육을 통하여 농촌마을 활성화와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과 마을, 권역 및 중심지 단위별 현장포럼을 통하여 상향식 농촌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의 초석을 다지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출범 5년차를 맞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6차산업지원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촌관광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 등 부처 및 지자체별 유사한 분야의 여러 중간지원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며, 이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그동안 연계성이 많음에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마을만들기 협력센터와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촌관광지원센터가 금년부터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로 통합·운영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사업단위별 주체 교육과 현장포럼을 통하여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업완료단위 지구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농촌마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총괄지원 하는 광역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마을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대학교, 퍼실리테이터, 컨설턴트, 선진마을리더 등)을 확보하고 업무수행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광역중간지원 조직의 운영이 5년차에 접어들면서 부처별 유사사업 분야와 조직들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비롯한 중간지원조직의 업무영역을 수정·보완하고 역할정립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광범위한 업무영역에 비해 인력과 예산 등을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각 센터의 직원들을 인력에 비해 과중한 업무량을 수행 중이며, 이에 따라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비롯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업무의 효율성과 사업 결과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경우 광역 지자체별 특성으로 인해 운영방식과 체계가 조금씩 상이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각 센터의 장단점을 조합하여 운영의 효율을 꾀하고, 여타 중간지원조직으로 파급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필요하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아직 법제화된 기관이 아니므로 센터의 존립, 사업의 연속성, 센터 운영의 당위성을 보장받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향후 법제화를 통해 조직이 더욱 견고한 설립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 농촌개발분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당위성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상향식 농촌개발사업은 2010년 이 후 급속히 추진되어 최근 현장에서도 상당한 정착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상향식 농촌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광역자치단체·중간지원조직 역할 정립과 확산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과도기 단계에 있는 농촌개발분야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더욱 효율적으로 상향식 농촌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추진되었던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정립 방안을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농촌개발분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정립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원해야 할 역할과 중간지원조직 자체의 역량강화,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농촌개발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 도출, 정책 대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1. 국내외 중간지원조직 연구 현황

농촌개발에 관한 연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국내 연구는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최근 사회적기업, 6차산업, 상향식 농촌개발사업의 트렌드로 인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표 1> 국내 선행연구 현황

저자	소속	제목
정전섭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2011] [국내석사]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발전에 관한 연구
이기태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활동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중간지원조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장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에 관한 연구
배주현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12] [국내석사]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지역 거버넌스 기능에 관한 연구
이기태 하현상	(韓國政策學會報, Vol. 25 No. 1, [2016])[KCI 등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엄형식 마상진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Vol.- No.-, [2011]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현황과 시사점
김태영	정부학연구, Vol. 22 No. 2, [2016][KCI 등재]	사회적경제 영역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분석: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적용
박세훈	도시 행정 학보, Vol. 28 No. 3, [2015][KCI 등재]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특성 연구
이수창	한국군형발전연구, Vol. 4 No. 2, [2013]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모색
권용덕	경남정책 Brief, Vol. 2014 No. 4, [2014]	농업의 6차산업화 : 경남의 중간지원조직 구축
김재현 장주연 이효정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 14 No. 2, [2011][KCI 등재]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지역사회투자활동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농촌사랑국민운동본부의 1사1촌 운동을 사례로
이차희 탁영란 김민서 손용훈	농촌계획, Vol. 20 No. 3, [2014][KCI 등재]	농촌체험관광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양평군, 이천시 농촌나드리 비교를 중심으로
이기태	한국정책학회 동계 학술발표논문집, Vol. 2015 No.-, [2015]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김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연구
엄형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2/2차 연도)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현황과 시사점

2. 국외 농촌지역개발 사례

1) 영국

<표 2> 영국의 농촌지역개발 사례

<p>□ NR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농촌네트워크(UK National Rural Network)는 2004년 대학이 농촌기업과 단체 및 조직체에 지식전파를 위하여 영국 지식전파사업(Knowledge Exchange)의 일환으로 설립- 14개 종합대학교 및 단과대학교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
<p>□ RDPE 네트워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농촌개발규정의 요구사항을 공동 조직화하는 네트워크 장치역할
<p>□ NI 네트워크(북아일랜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7-2013년 EU가 농촌개발을 위한 유럽농업기금을 조성하여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축 : 농장현대화 사업, 가공 및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금, 멘토링, 주말농장, 벤치마킹을 위한 농민과 가족◦ 제2축 : 생물다양성과 환경 및 지속가능한 농장관리◦ 제3축과 제4축 :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 창업, 관광, 농촌지역사회, 마을을 위한 기본서비스, 농촌유산의 재건 및 보존 등
<p>□ Leader 프로그램(스코틀랜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2006년 Leade+를 개편하여 스코틀랜드 농촌개발프로그램 개발- 상황식 접근법의 농촌개발 지원방식으로 20개 지역의 LEADER 프로그램과 웹사이트존재
<p>□ Rural Network(웨일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주제에 대한 주제별 그룹에 대한 설립 및 지원- 농촌 네트워크 내에서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및 파트너 검색- 로컬 작업 그룹을 위한 훈련, 멘토링, 지원 및 정보제공- 상호 영토와 횡단 국가활동 지원- 영국 농촌 네트워크의 설립 협조- 웹사이트를 통한 공지 및 출판물 보급, 파트너 간 정보 공유

2) 미국

<표 3> 미국의 농촌지역개발 사례

□ NERCRD

- 설립 : 1972년 Rural Development Act : 펜실베니아주, 미시시피주, 미시간주, 유타주에 설립
- 목표 : ① 농촌지역을 지방 혹은 전국적 수준으로 연계하여 농촌개발을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
 - ② 소규모 마을 및 농촌지역에 적응력을 높이고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
 - ③ 소규모 마을 및 농촌지역의 웰빙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
 - ④ 시대의 변화에 적응 가능한 지역사회 능력 배양
 - ⑤ 각 가정과 지역사회의 자립능력을 양성하여 생존력을 증진
 - ⑥ 농업, 지역사회, 환경자원 등을 포함한 자연자원의 산업화

3) 일본

<표 4> 일본의 농촌지역개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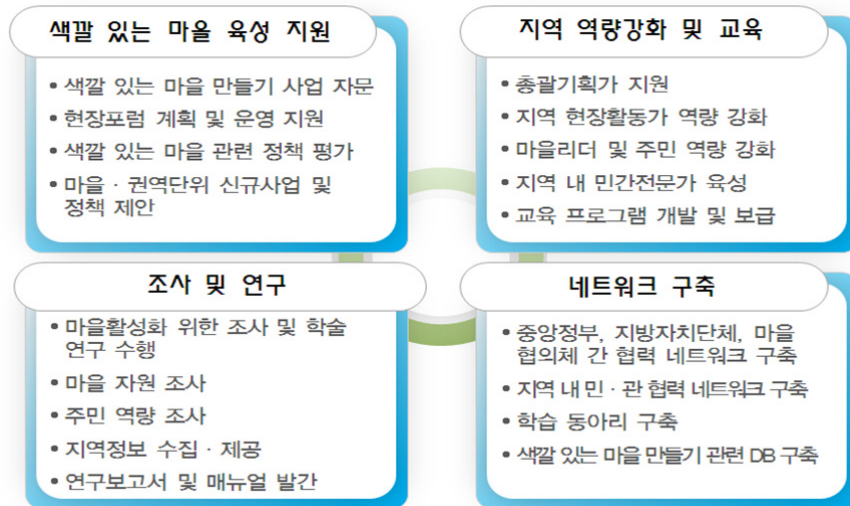
□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

- 마을만들기 전반(마을만들기 조직, 규칙, 계획, 지구계획, 건축협정, 도시계획제안제도, 경관계획, 경관협정 및 기타 마을만들기사업), 시가지 개발사업(구획정리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 방재사업(집, 길, 마을개선사업 등) 지원
- 농촌에서 일하는 인재육성 사업
 - 농촌의 자립적인 지역활성화를 담당할 인재의 육성과 확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려는 노력
 - 농촌지역의 활성화 활동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도시의 인재를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인재 육성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인재육성 및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능력을 갖춘 코디네이터 관련 기관에 대해 지원하는 형태

3. 국내 농어촌분야 중간지원조직

1)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설립목적 : 색깔있는 마을 육성 및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지역인적자원 육성·활용, 마을실태 진단 및 농촌현장포럼 운영 지원 등 추진
- 추진방향 : ① 민·관·학 지역개발 전문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주민주도 마을 발전계획수립, 마을·권역 모니터링 및 멘토링 체계화
 ② 지자체 마을만들기 정책과 연계하여 마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시·군 단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지원
- 설립근거 :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②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주요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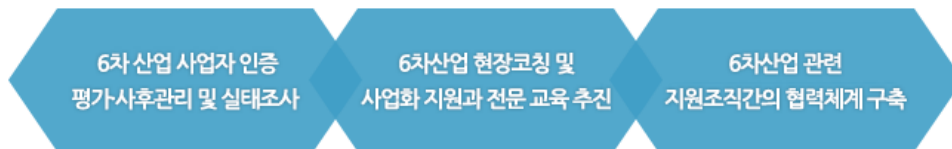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총사업비 : 13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시행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광역자치단체, 도별거점대학교
- 도별 지정현황

도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선정 대학	협성대	강원대	충북대	공주대	전북대	목포대	경북대	경상대	제주대

2) 농업6차산업지원센터

- 설립배경 : ① 농업의 고령화로 생산적 복지 확대 필요
 ② 농촌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요구
 ③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 고조
 ④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
 ⑤ IT, BT, NT 등 기술과 농업의 융복합
- 설립목적 : 현장코칭 및 인증자 관리, 농산물 유통·마케팅, 기초실태조사 및 D/B현행화 등의 현장 밀착 서비스 지원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6차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기본방향 : ①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② 6차산업화 사업자에 대한 현장맞춤형 지원으로 융·복합 수익모델 발굴 및 육성
- 주요기능



<출처 : 전남농업6차산업지원센터>

- 지정현황 :

지역	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위치
경기	경기 농식품유통진흥원	http://www.경기6차산업.com	031-250-2750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강원	강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http://www.gangwon6.co.kr	033-249-2633	춘천시 효자동
충북	충북연구원	http://www.충북6차산업.com	043-220-1179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남	(사)지역활력센터	http://www.cdi6.re.kr/	041-840-1207	공주시 금흥동
전북	광주전남연구원	http://www.vill.kr	063-271-3545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남	광주전남연구원	http://www.전남6차산업.com	061-931-9433	나주시 빛가람동
경북	경북농민사관학교	http://www.경북6차산업.com	054-624-0112	군위군 효령면
경남	한국국제대학교	http://경남6차산업.com	055-751-7961	진주시 문산읍
제주	제주발전연구원	http://www.제주6차산업.com	064-722-7915	제주시 오라이동
세종	농정원	http://www.epis.or.kr	044-861-8884	세종시 조치원읍

- 주요사업 : ① 사업자인증 및 사후관리

- 인증기준에 따라 자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매년 2회 인증사업자(후보)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추천
- 인증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인증기간 경과 후 3년간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 인증 갱신여부 판단
- 지역내 인증사업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연2회)하고, 상담·코칭, 현장설명회, 정책건의 등을 통해 해소 추진
- 인증사업자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장을 지원

② 현장코칭

- 6차산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등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경영·마케팅 등에 대해 전문가 풀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 및 코칭 제공
- 전문가 풀 구성 후 농업인의 신청분야 및 내용에 따라 전문가 배정으로 맞춤형 코칭 지원
- 전문위원은 코칭 실시 후 현장코칭 수행결과보고서를

코칭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원센터와 경영체에 제출하여 완성도 있는 현장코칭 지원

③ 판로지원

- 판매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활성화에 애로를 겪는 6차산업 경영체에 판로 및 홍보의 기회 제공
- 소비시장에 우수제품을 알리고 시장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비력이 큰 대형마트를 활용한 지속적 프로모션 활동
- 판매 플랫폼 구축은 안테나숍과 다르게 대형마트에서 우수제품의 판매에 중점을 두고 기획판매전 형태로 운영(지역내외에서 가능, 수도권도 가능)

④ 지역인프라 정비

- 지역별 대표 6차산업 품목 및 유형별 6차산업 추진 경영체수, 매출액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6차산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지역별로 기 설치되어 있는 제조·가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제조·가공시설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여 디렉토리 구축
-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한 제조·가공 시설에 대해 조사

⑤ 정책수립 지원

3) 어촌특화지원센터

- 설립배경 : 어촌경제는 어업 생산활동 중심의 단순구조로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 수산물 가공, 어촌관광 등 어촌경제구조 다변화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어촌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발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연안 광역시·도에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운영

- 설립목적 : ① 어촌의 수산물, 우수한 자연경관 등의 자원을 가공·유통·서비스, 관광산업과 융·복합하여 어업 외 소득을 증대토록 지원
- ② 시범사업 마을과 예비마을 대상으로 창업·경영컨설팅지원, 특화상품·기술 연구개발, 특화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경영실태 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으로 사업 성과제고와 활성화유도
- 설립근거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
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 1.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2.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01.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02.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03.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04.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지정현황 : 2016년도 어촌특화지원센터 2개소 지정, 추후 전국 광역시·도에 확대 설치할 예정

지역	운영
경남	한국어촌어향협회
전남	목포해양대·광주일보 컨소시엄

- 센터업무 : ① 창업 및 컨설팅 : 어촌의 경영·기술, 창업 등에 관한 애로사항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희망하는 특화어촌을 위한 컨설팅 사업
- ② 연구개발 : 어촌의 특화자원 발굴·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또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 ③ 관리 : 어촌특화 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특화어촌에 대한 분기별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
- ④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 지원
 - ⑤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교육·연수
 - ⑥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연계의 지원
 - ⑦ 국내·외 어촌자원 및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및 절차

1) 1단계(문헌조사)

- 국내 중간지원조직 현황파악
 - 연구의 추진을 위해 먼저 국내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사례를 조사함. 이를 통해 현재 국내 중간지원조직의 장·단점 등을 도출
- 해외 중간지원조직 운영사례 조사
 - 선진국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사례를 조사 : 문헌조사, 인터넷, 이메일·전화인터뷰 등
 - 해외 중간지원조직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 접목가능 부분 도출

2) 2단계(현장조사 및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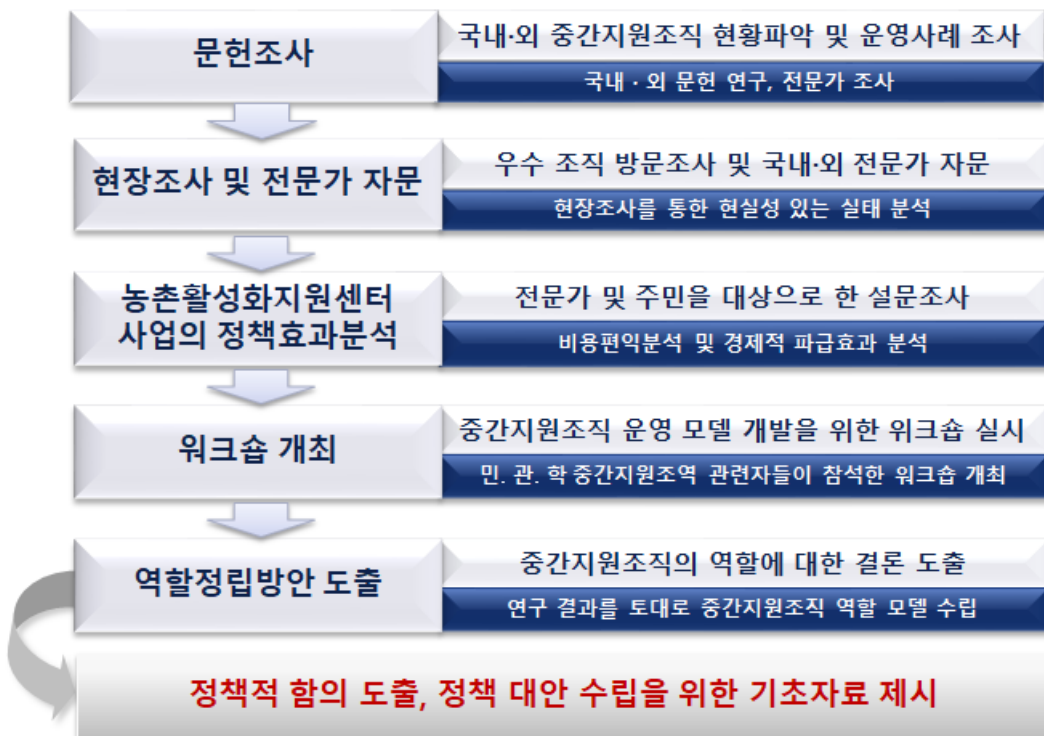
- 국내·외 중간지원조직 분야 전문가 자문(국외는 전화나 이메일), 국내 현장방문
 - 국내·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방안 모색
 - 국내 우수 중간지원조직 방문 및 현장조사

3) 3단계(효과분석)

- 농촌활성화지원센터사업의 정책효과분석
 -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비롯한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인지도 조사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전문가, 주민)
 - 농촌활성화지원센터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 농촌활성화지원센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4) 4단계(결과도출)

- 중간지원조직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워크숍 실시(농림축산식품부, 광역 자치단체, 각 중간지원조직 구성원, 퍼실리테이터, 마을리더, 기타 관련전문가 등 참석)
 -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관련전문가 강의 및 사례발표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사업의 정책효과분석결과 발표
 - 종합의견 수렴 및 검토
- 농촌개발분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결론 도출
 - 전 과정에 걸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촌개발분야 중간지원조직 역할 모델 수립



2. 자료의 수집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정립과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경상북도 23개 시·군과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지역 리더·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활동가, 마을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를 보완·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017년 10월 23일부터 2017년 11월 1일까지 총 10일에 걸쳐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1:1 면접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 수는 총 200명이었고, 이 중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3명의 응답을 제외한 유효 표본수는 총 197명이었다.

조사 내용에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식,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업의 효과성, 경제적 파급효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농촌현장포럼에 대한 일반 인식 등이 포함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 중립·변화 없음(=)에 대한 선택지를 제시하였으며, 그 범위는 긍정적(+) 5점부터 부정적(-) 5점까지로 설정하였고, 중립·변화 없음에 대해서는 0점으로 설정하였다.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Carey et al.(2003)¹⁾의 (-)5부터 (+)5까지 범위로 설정된 척도 분석에서 평균값이 +2이상이면 적절 수준이며, +3이상이면 매우 적절한 수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1) P. Carey, C. Short, C. Morris, J. Hunt, M. Davis, C. Finch, N. Curry, W. Little, M. Winter, A. Parkin, L. Firbank. 2003. The multi-disciplinary evaluation of a national agri-environment scheme.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69: 71-91.

IV. 분석 결과

1. 응답자 기초통계

설문응답자의 특성 변수에 의한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남성이 0.84로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평균연령은 53.93세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0.48로 군에 해당하는 지역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교육년수는 평균 12.89년, 직업은 주로 농림어업(0.66)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가구당 월 소득은 339.84만원이었고, 리더와 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0.85로 높게 나타났다. 정착유형을 살펴보면, 원주민의 비중이 0.57로 귀농·귀촌인보다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프로그램에는 모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응답자 기초통계

Variable		Mean	Std.D.	min.	Max.	Valid N
인구 · 사회 변수	성별(남성=1, 여성=0)	0.84	0.44	0.00	3.00	197
	연령(세)	53.93	10.76	25.00	77.00	197
	지역(시=1, 군=0) ¹⁾	0.48	0.50	0.00	1.00	197
	교육년수(년) ²⁾	12.89	3.38	6.00	18.00	197
	직업(농림어업=1, 농림어업외=0) ³⁾	0.66	0.47	0.00	1.00	197
	가구당 소득(만원/월)	339.84	113.49	100.00	500.00	197
	역할(리더·전문가=1, 주민=0) ⁴⁾	0.85	0.36	0.00	1.00	197
경험 변수	정착유형(원주민=1, 귀농귀촌=0) ⁵⁾	0.57	0.50	0.00	1.00	197
	중간지원조직 운영 프로그램 참여 여부(참여=1, 비참여=0)	1.00	0.00	1.00	1.00	197

- 주. 1) 지역 : 경산 19명(9.6%), 군위 16명(8.1%), 상주 16명(8.1%), 청송 13명(6.6%), 영천 12명(6.1%), 의성 12명(6.1%), 칠곡 11명(5.6%), 구미 10명(5.1%), 문경 9명(4.6%), 영덕 9명(4.6%), 영양 9명(4.6%), 고령 7명(3.6%), 성주 7명(3.6%), 영주 6명(3.0%), 예천 6명(3.0%), 청도 6명(3.0%), 경주 5명(2.5%), 대구 5명(2.5%), 봉화 5명(2.5%), 안동 5명(2.5%), 포항 5명(2.5%), 김천 3명(1.5%), 울진 1명(0.5%), 합계 197명(100%)
- 2) 교육년수 : 초등학교 졸업 이하=6, 중학교 졸업=9, 고등학교 졸업=12, 대학교 졸업=16, 대학원=20
- 3) 직업 : 농림어업 130명(66.0%), 회사원 26명(13.2%), 공무원 12명(6.1%), 자영업 9명(4.6%), 주부 7명(3.6%), 기타 7명(3.6%), 무직·퇴직 6명(3.0%), 합계 197명(100%)
- 4) 역할 : 마을리더 84명(42.6%), 이장 39명(19.8%), 주민 29명(14.7%), 전문가 17명(8.6%), 공무원 16명(8.1%), 기타 12명(6.1%), 합계 197명(100%)
- 5) 정착유형 : 원주민 112명(56.9%), 귀농 43명(21.8%), 귀촌 16명(8.1%), 기타 26명(13.2%), 합계 197명(100%)

2.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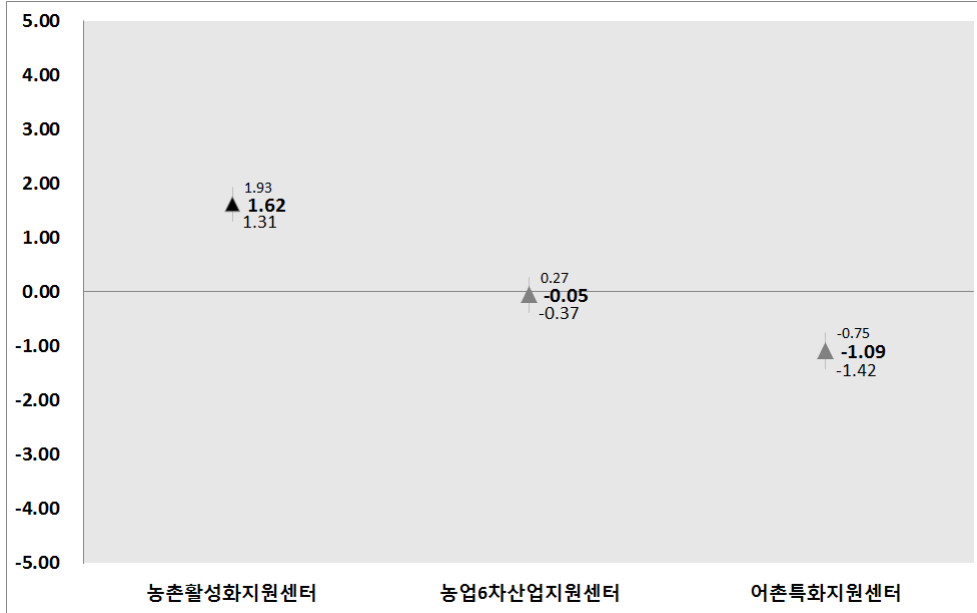
1)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지도

국내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업6차산업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에 대한 주민·전문가·공무원 등의 인지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6>와 같다.

<표 6>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지도

Variable		Mean	T-value	Std.D.	95% C.I.		Valid N	M.D.	F-value
					min.	Max			
농촌활성화지원센터		1.62	10.36	2.19	1.31	1.93	197	-	
성별	남성	1.63	-0.01	2.26	-0.82	0.81	160	0.00	2.62
	여성	1.63	-0.01	1.96	-0.76	0.75	35		
역할	리더 및 전문가	1.52	-1.48	2.26	-1.52	0.22	168	-0.65	3.31
	주민	2.17	-1.84	1.65	-1.36	0.06	29		
정착 유형	원주민	1.35	-2.01	2.29	-1.25	-0.01	112	-0.63	3.89
	귀농·귀촌	1.98	-2.04	2.01	-1.23	-0.02	85		
농업6차산업지원센터		-0.05	-0.31	2.30	-0.37	0.27	197	-	
성별	남성	-0.14	-1.06	2.35	-1.31	0.39	160	-0.46	0.01
	여성	0.31	-1.14	2.11	-1.26	0.35	35		
역할	리더 및 전문가	-0.13	-1.18	2.28	-1.46	0.37	168	-0.54	0.24
	주민	0.41	-1.13	2.43	-1.53	0.44	29		
정착 유형	원주민	-0.31	-1.84	2.22	-1.26	0.04	112	-0.61	0.40
	귀농·귀촌	0.29	-1.82	2.38	-1.26	0.05	85		
어촌특화지원센터		-1.09	-6.33	2.41	-1.42	-0.75	197	-	
성별	남성	-1.26	-1.93	2.36	-1.74	0.02	160	-0.86	0.02
	여성	-0.40	-1.83	2.56	-1.81	0.08	35		
역할	리더 및 전문가	-1.16	-1.04	2.50	-1.46	0.45	168	-0.51	10.87
	주민	-0.66	-1.34	1.74	-1.26	0.25	29		
정착 유형	원주민	-1.14	-0.38	2.40	-0.82	0.55	112	-0.13	0.04
	귀농·귀촌	-1.01	-0.38	2.42	-0.82	0.55	85		

- 주. 1) '매우 잘 알고 있음' =+5부터 '전혀 알고 있지 못함'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2) 평균편차(M.D.) : 집단별 응답의 차이를 나타내며, '집단 ___이 집단 ___보다 만큼...' 으로 해석함
 3) 집단별 응답의 95%신뢰구간은 평균편차(M.D.)에 대한 95%신뢰구간임



<그림 1>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지도

- 주. 1) ‘매우 잘 알고 있음’ =+5부터 ‘전혀 알고 있지 못함’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2) 95%신뢰구간 하한, 평균값(▲), 95%신뢰구간 상한값을 나타내며, 식별의 편의를 위해 항목 최대치에 대해서는 흑색으로 표기하였음

국내 중간지원조직 중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1.62로 농업6차산업지원센터(-0.05), 어촌특화지원센터(-1.0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세부 그룹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있어서는 특히 주민이 2.17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귀농·귀촌인들도 1.98로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세부 그룹별 전체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현장포럼과 리더교육 등을 운영하며, 농촌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조사 대상이 대부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사업을 접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농업6차산업지원센터의 경우 전 그룹에 있어서 보통수준(0) 전·후의 다소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어촌특화지원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지도는 다소 떨어지는 수준에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세부 그룹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지도

- 주. 1) ‘매우 잘 알고 있음’ =+5부터 ‘전혀 알고 있지 못함’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 2) 평균값(▲)을 나타내며, 식별의 편의를 위해 항목 최대치에 대해서는 흑색으로 표기하였음

2)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중요도

국내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업6차산업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중요도의 경우에는 모든 중간지원조직이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3.11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6차산업지원센터도 1.92로 다소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었으며, 어촌특

화지원센터도 1.40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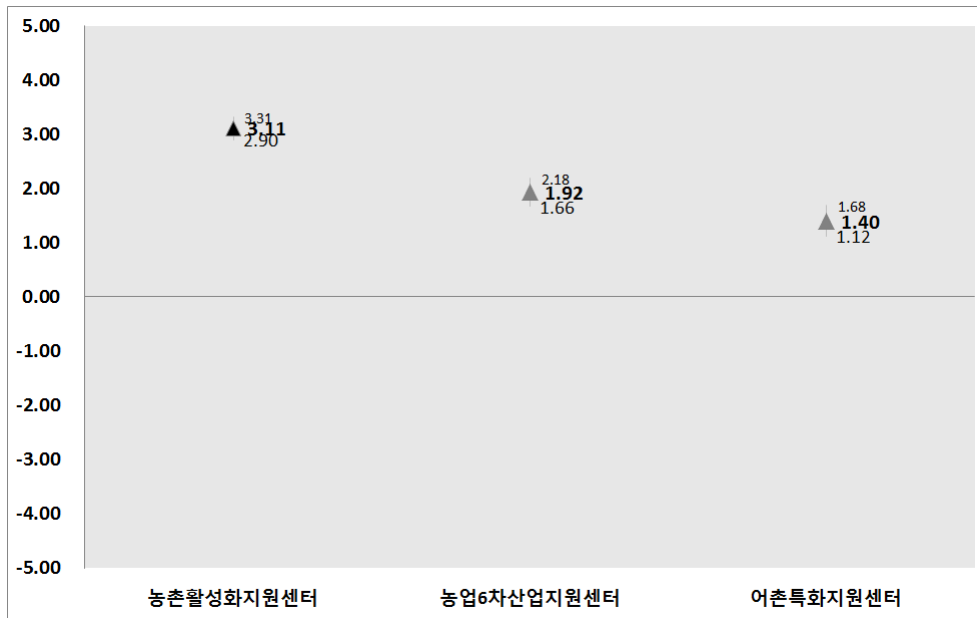
<표 7>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중요도

Variable		Mean	T-value	Std.D.	95% C.I.		Valid N	M.D.	F-value
					min.	Max			
농촌활성화지원센터		3.11	29.97	1.45	2.90	3.31	196	-	
성별	남성	3.16	0.79	1.49	-0.32	0.75	159	0.21	2.46
	여성	2.94	0.86	1.30	-0.29	0.72	35		
역할	리더 및 전문가	3.12	0.29	1.48	-0.49	0.66	167	0.09	1.06
	주민	3.03	0.33	1.27	-0.44	0.61	29		
정착 유형	원주민	2.99	-1.30	1.55	-0.68	0.14	112	-0.27	1.90
	귀농·귀촌	3.26	-1.33	1.30	-0.67	0.13	84		
농업6차산업지원센터		1.92	14.61	1.85	1.66	2.18	197	-	
성별	남성	1.90	-0.37	1.87	-0.81	0.56	160	-0.13	0.28
	여성	2.03	-0.38	1.81	-0.81	0.55	35		
역할	리더 및 전문가	2.00	1.39	1.86	-0.21	1.25	168	0.52	0.11
	주민	1.48	1.45	1.77	-0.21	1.24	29		
정착 유형	원주민	1.73	-1.68	1.76	-0.97	0.08	112	-0.44	0.41
	귀농·귀촌	2.18	-1.66	1.94	-0.97	0.09	85		
어촌특화지원센터		1.40	9.84	2.00	1.12	1.68	197	-	
성별	남성	1.41	0.17	2.00	-0.68	0.80	160	0.06	0.00
	여성	1.34	0.16	2.07	-0.71	0.84	35		
역할	리더 및 전문가	1.42	0.26	2.05	-0.69	0.90	168	0.11	0.93
	주민	1.31	0.30	1.69	-0.60	0.82	29		
정착 유형	원주민	1.00	-3.31	1.93	-1.48	-0.38	112	-0.93	0.08
	귀농·귀촌	1.93	-3.30	1.98	-1.49	-0.37	85		

주. 1) ‘매우 중요함’ = +5부터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2) 평균편차(M.D.) : 집단별 응답의 차이를 나타내며, ‘집단 ___이 집단 ___보다 만큼...’ 으로 해석함

3) 집단별 응답의 95%신뢰구간은 평균편차(M.D.)에 대한 95%신뢰구간임



<그림 3>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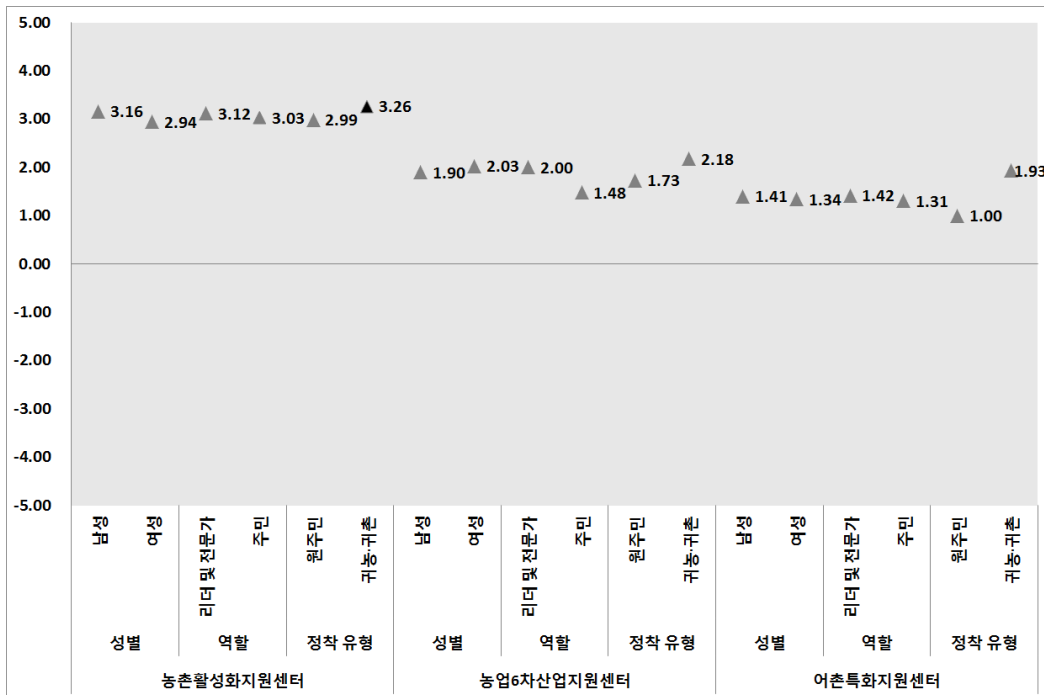
- 주. 1) ‘매우 중요함’ =+5부터 ‘전혀 중요하지 않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2) 95%신뢰구간 하한, 평균값(▲), 95%신뢰구간 상한값을 나타내며, 식별의 편의를 위해 항목 최대치에 대해서는 흑색으로 표기하였음

세부 그룹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있어서는 남성이 3.16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여성도 2.94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리더 및 전문가들도 3.12로 매우 중요하다고 있었으며, 지역주민들 또한 3.03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원주민은 2.99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귀농·귀촌인들은 3.26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룹으로 조사되었다.

농업6차산업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여성이 2.03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리더 및 전문가들도 2.00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귀농·귀촌인들은 2.18로 다른 그룹들에 다소 높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중요성이 크게 높다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

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양(+)의 부호를 나타내며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대부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 세부 그룹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중요도

- 주. 1) '매우 중요함' = +5부터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 2) 평균값(▲)을 나타내며, 식별의 편의를 위해 항목 최대치에 대해서는 흑색으로 표기하였음

3) 중간지원조직의 영향력

국내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업6차산업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응답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 영향력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8>와 같다.

영향력 분석 결과 모든 중간지원조직이 양(+)의 부호를 나타내 도움이 되었

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2.87로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농업6차산업지원센터 1.43, 어촌특화지원센터 0.36의 수준을 나타냈다.

<표 8> 중간지원조직의 영향력(도움이 된 수준)

Variable		Mean	T-value	Std.D.	95% C.I.		Valid N	M.D.	F-value
					min.	Max			
농촌활성화지원센터		2.87	24.81	1.63	2.64	3.10	197		-
성별	남성	2.96	1.18	1.72	-0.24	0.95	160	0.36	6.45
	여성	2.60	1.61	1.03	-0.08	0.80	35		
역할	리더 및 전문가	2.85	-0.45	1.62	-0.79	0.50	168	-0.15	0.58
	주민	3.00	-0.45	1.67	-0.83	0.53	29		
정착 유형	원주민	2.86	-0.16	1.71	-0.50	0.43	112	-0.04	0.03
	귀농·귀촌	2.89	-0.16	1.51	-0.49	0.42	85		
농업6차산업지원센터		1.43	10.44	1.93	1.16	1.70	197		-
성별	남성	1.37	-1.04	2.07	-1.09	0.34	160	-0.37	20.93
	여성	1.74	-1.52	1.09	-0.86	0.12	35		
역할	리더 및 전문가	1.51	1.31	1.98	-0.26	1.27	168	0.51	2.22
	주민	1.00	1.58	1.51	-0.14	1.15	29		
정착 유형	원주민	1.36	-0.62	1.87	-0.72	0.37	112	-0.17	0.06
	귀농·귀촌	1.53	-0.62	2.00	-0.72	0.38	85		
어촌특화지원센터		0.36	2.22	2.28	0.04	0.68	197		-
성별	남성	0.21	-1.86	2.36	-1.62	0.05	160	-0.79	0.10
	여성	1.00	-2.17	1.85	-1.51	-0.06	35		
역할	리더 및 전문가	0.24	-1.73	2.36	-1.69	0.11	168	-0.79	2.47
	주민	1.03	-2.28	1.59	-1.49	-0.09	29		
정착 유형	원주민	0.04	-2.26	2.32	-1.37	-0.09	112	-0.73	0.16
	귀농·귀촌	0.78	-2.28	2.16	-1.37	-0.10	85		

- 주. 1) '매우 도움이 됨' = +5부터 '전혀 도움되지 않음' =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2) 평균편차(M.D.) : 집단별 응답의 차이를 나타내며, '집단 ___이 집단 ___보다 만큼...' 으로 해석함
 3) 집단별 응답의 95%신뢰구간은 평균편차(M.D.)에 대한 95%신뢰구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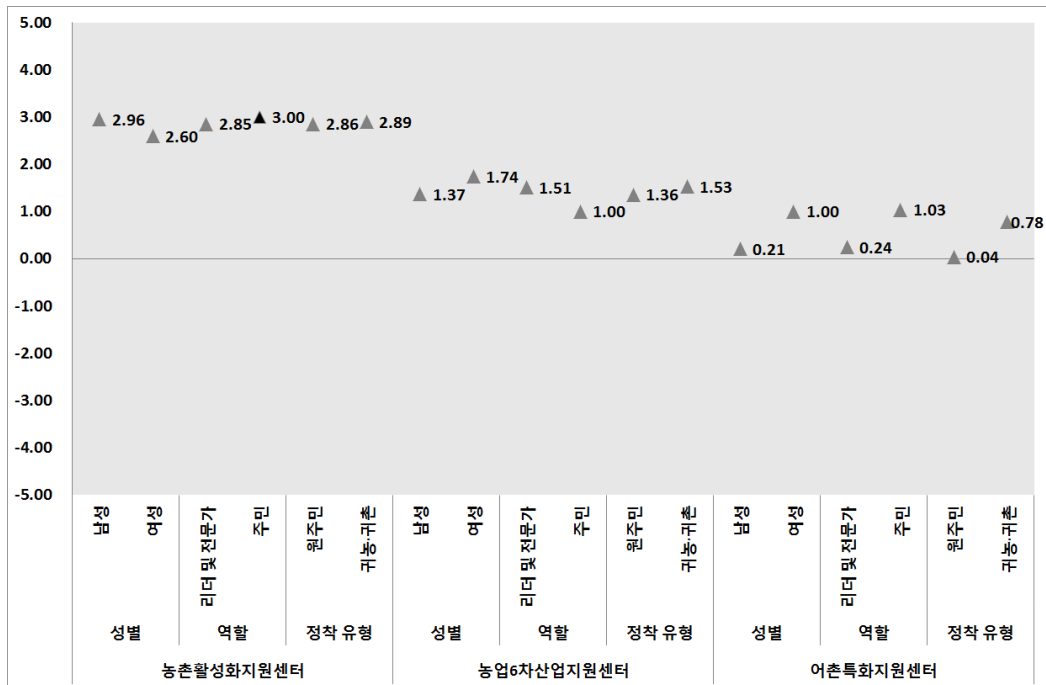
<그림 5>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영향력

- 주. 1) ‘매우 도움이 됨’ = +5부터 ‘전혀 도움되지 않음’ =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2) 95%신뢰구간 하한, 평균값(▲), 95%신뢰구간 상한값을 나타내며, 식별의 편의를 위해 항목 최대치에 대해서는 흑색으로 표기하였음

세부 그룹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경우 남성이 2.96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2.06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리더 및 전문가들은 2.85로 도움이 되었다고, 주민은 3.00으로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원주민(2.86)과 귀농·귀촌인(2.89) 모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6차산업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남성이 1.37, 여성이 1.74, 리더 및 전문가가 1.51, 주민이 1.00, 원주민이 1.36, 귀농·귀촌인이 1.53 등의 수준으로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었다.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남성이 0.21, 여성이 1.00, 리더 및 전문가가 0.24, 주민이 1.03, 원주민이 0.04, 귀농·귀촌인이 0.78 등의 수준으로 영향력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 세부 그룹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영향력

- 주. 1) '매우 도움이 됨' = +5부터 '전혀 도움되지 않음' =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2) 평균값(▲)을 나타내며, 식별의 편의를 위해 항목 최대치에 대해서는 흑색으로 표기하였음

3.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업 · 프로그램의 효과

1)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업 · 프로그램의 효과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들의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농업소득 향상 부분에 있어서는 1.72로 나타났고, 농외소득 향상 부분에 있어서는 1.96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모사업 유치에 있어서는 2.70으로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민의 역량강화에 있어서는 2.75로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업 · 프로그램의 효과

Variable	Mean	T-value	Std.D.	95% C.I.		Vaild N
				min.	Max	
농업소득 향상	1.72	13.41	1.80	1.47	1.97	197
농외소득 향상	1.96	16.98	1.62	1.74	2.19	197
마을공모사업 유치	2.70	27.54	1.38	2.51	2.89	197
주민의 역량강화	2.75	28.23	1.37	2.56	2.94	197
지역의 역량강화	2.74	27.79	1.38	2.55	2.94	197
사업추진력 향상	2.72	25.10	1.52	2.50	2.93	197
마을환경 개선	2.57	23.37	1.55	2.36	2.79	197

주. '매우 효과' =+5부터 '전혀 효과 없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지역의 역량강화에 있어서도 2.74로 높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추진력 향상 또한 2.72로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마을환경 개선 부분에서도 2.57로 높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업 · 프로그램의 경험 전 · 후 효과

(1) 경제적 부분의 수준 변화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들을 경험하기 전·후의 경제적 부분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험 이전 경제적 부분의 수준은 농업소득 0.21, 농외소득 0.03, 마을공모사업 유치 -0.39 등 높지 않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표 10> 경험 이전 경제적 부분의 수준

Variable	Mean	T-value	Std.D.	95% C.I.		Vaild N
				min.	Max	
농업소득	0.21	2.54	1.18	0.05	0.38	197
농외소득	0.03	0.25	1.42	-0.17	0.22	197
마을공모사업 유치	-0.39	-2.93	1.85	-0.65	-0.13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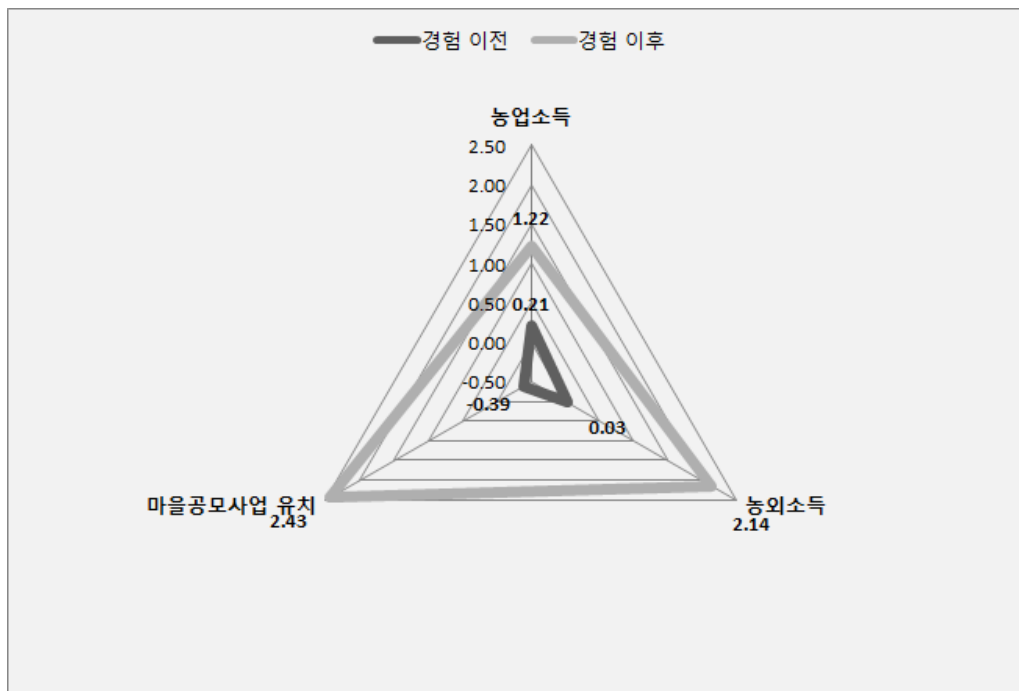
주. '매우 높음' =+5부터 '매우 낮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표 11> 경험 이후 경제적 부분의 수준

Variable	Mean	T-value	Std.D.	95% C.I.		Vaild N
				min.	Max	
농업소득	1.22	14.36	1.20	1.06	1.39	197
농외소득	2.14	23.65	1.27	1.96	2.32	197
마을공모사업 유치	2.43	24.83	1.37	2.24	2.62	197

주. '매우 높음' =+5부터 '매우 낮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그러나 농촌현장포럼 등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사업·프로그램들을 경험한 이후에는 농업소득이 1.22로 향상되었고, 농외소득은 2.14로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마을공모사업 유치에 있어서도 2.43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 경험 전 · 후 경제적 부분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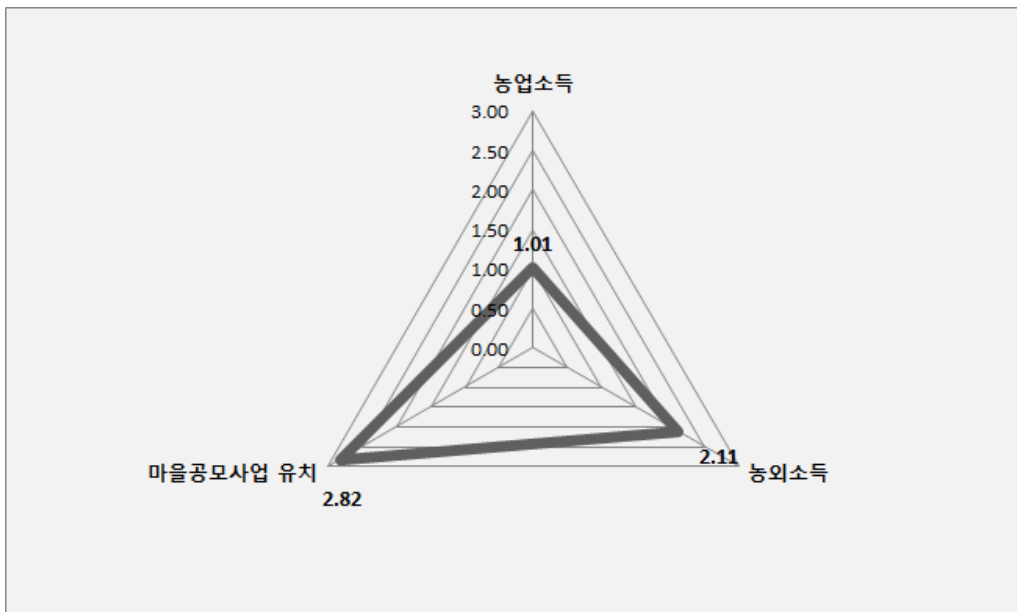
주. '매우 높음' =+5부터 '매우 낮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표 12> 경험 전·후 경제적 부문의 수준 변화

Variable	Paired D.	T-value	Std.D.	95% C.I.		Vaild N
				min.	Max	
농업소득	1.01	11.13	1.27	0.83	1.19	197
농외소득	2.11	18.35	1.62	1.89	2.34	197
마을공모사업 유치	2.82	16.74	2.36	2.49	3.15	197

주. 1) '매우 높음' =+5부터 '매우 낮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2) 대응편차(Paired D.) : 경험 전후 결과의 차이(현재-경험 전)를 나타내며, '경험 전보다 현재가 _만큼..' 으로 해석함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의 경험 전·후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업소득은 1.01수준 향상되었고, 농외소득은 2.11만큼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마을공모사업 유치 부문에 있어서도 2.82만큼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는 등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경제적 부문에 있어 긍정적 효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경험 전·후 경제적 부문의 수준 변화량

주. 1) '매우 높음' =+5부터 '매우 낮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2) 경험 전후 결과의 차이(현재-경험 전)를 나타내며, '경험 전보다 현재가 _만큼..' 으로 해석함

(2) 주민역량 부문의 수준 변화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경험하기 이전의 주민역량 부문의 수준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력 -0.62,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 -0.44, 마을자원 인지도 -0.29, 마을색깔과 발전방향성 발견 -0.36,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만족도 -0.21 등 낮은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졌다.

<표 13> 경험 이전 주민역량 부문의 수준

Variable	Mean	T-value	Std.D.	95% C.I.		Vai ld N
				min.	Max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력	-0.62	-5.04	1.74	-0.87	-0.38	197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	-0.44	-3.43	1.79	-0.69	-0.19	197
마을자원 인지도	-0.29	-2.12	1.92	-0.56	-0.02	197
마을색깔과 발전방향성 발견	-0.36	-2.87	1.76	-0.61	-0.11	197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만족도	-0.21	-1.64	1.79	-0.46	0.04	195

주. '매우 높음' =+5부터 '매우 낮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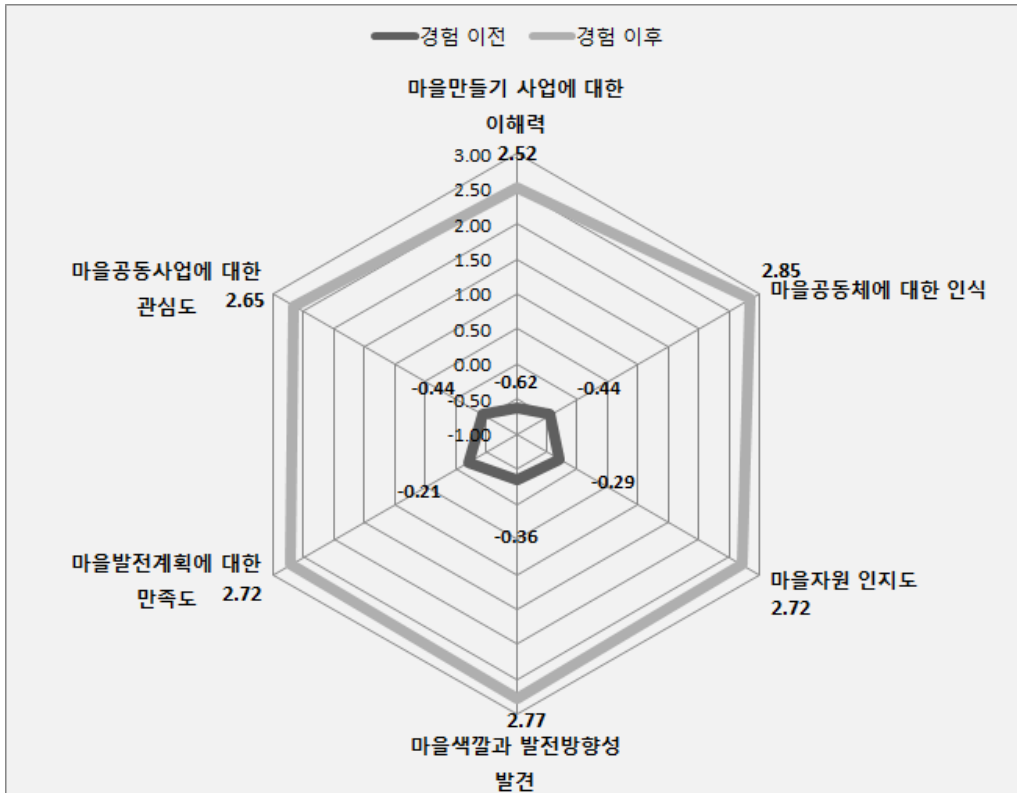
<표 14> 경험 이후 주민역량 부문의 수준

Variable	Mean	T-value	Std.D.	95% C.I.		Vai ld N
				min.	Max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력	2.52	27.32	1.30	2.34	2.70	197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	2.85	15.01	2.67	2.48	3.23	197
마을자원 인지도	2.72	30.68	1.24	2.55	2.90	197
마을색깔과 발전방향성 발견	2.77	28.52	1.36	2.58	2.96	197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만족도	2.72	28.84	1.32	2.53	2.91	197

주. '매우 높음' =+5부터 '매우 낮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그러나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경험한 이후의 주민역량 부문의 수준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력은 2.52로 높은 수준까지 향상되었으며,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2.85로 높은 수준까지 개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을자원 인지도도 2.72로 높은 수준까지 향상되었고, 마을색깔과

발전방향성을 발견하는데 있어서도 2.77로 높은 수준까지 향상되었으며, 마을 발전에 대한 만족도도 2.72로 높은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림 9> 경험 전·후 주민역량 부문의 수준

주. '매우 높음' = +5부터 '매우 낮음' =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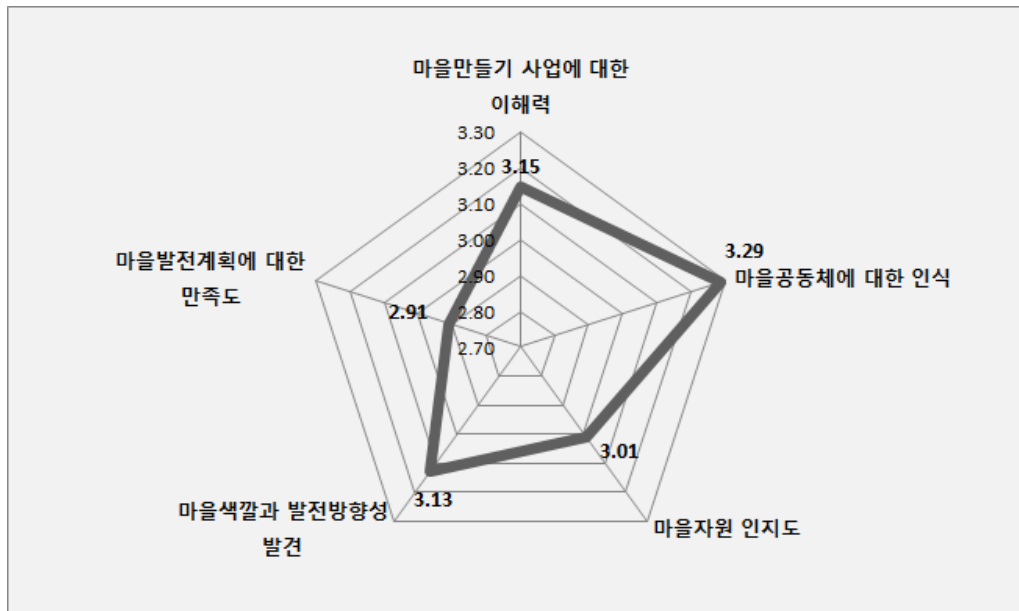
<표 15> 경험 전·후 주민역량 부문의 수준 변화

Variable	Paired D.	T-value	Std.D.	95% C.I.		Valid N
				min.	Max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력	3.15	19.67	2.25	2.83	3.46	197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	3.29	14.70	3.14	2.85	3.73	197
마을자원 인지도	3.01	19.03	2.22	2.70	3.32	197
마을색깔과 발전방향성 발견	3.13	21.86	2.01	2.85	3.41	197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만족도	2.91	19.15	2.12	2.61	3.21	195

주. 1) '매우 높음' = +5부터 '매우 낮음' =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2) 대응편차(Paired D.) : 경험 전후 결과의 차이(현재-경험 전)를 나타내며, '경험 전보다 현재가 _만큼...' 으로 해석함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경험하기 전·후의 주민역량 부분의 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력은 3.15만큼 매우 높은 수준 향상되었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 또한 3.29만큼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을자원 인지도도 3.01만큼 매우 높은 수준 증가하였으며, 마을색깔과 발전방향성 발견에 있어서도 3.13만큼 매우 높은 수준 향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만족도 또한 2.91만큼 높은 수준 증가하였다.



<그림 10> 경험 전·후 주민역량 부분의 수준 변화량

- 주. 1) '매우 높음' =+5부터 '매우 낮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2) 경험 전후 결과의 차이(현재-경험 전)를 나타내며, '경험 전보다 현재가 _만큼...'으로 해석함

(3) 공동체 의식 부분의 수준 변화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경험하기 이전의 공동체 의식 부분의 수준은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관심도 -0.44, 마을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 힘 -0.18, 마을에 대한 주인의식 0.01,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0.11,

주민간 교류 0.25,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헌신·봉사 -0.27, 마을공동사업을 위한 재산·재능의 기부 -0.71, 마을발전을 위한 토론 -0.45등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6> 경험 이전 공동체 의식 부분의 수준

Variable	Mean	T-value	Std.D.	95% C.I.		Vaild N
				min.	Max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관심도	-0.44	-3.51	1.77	-0.69	-0.19	197
마을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	-0.18	-1.45	1.72	-0.42	0.06	197
마을에 대한 주인의식	0.01	0.05	1.53	-0.21	0.22	197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0.11	-0.97	1.62	-0.34	0.12	197
주민간 교류	0.25	1.96	1.78	0.00	0.50	197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헌신·봉사	-0.27	-2.31	1.64	-0.50	-0.04	197
마을공동사업을 위한 재산·재능 기부	-0.71	-5.07	1.97	-0.99	-0.43	197
마을 발전을 위한 토론	-0.45	-3.30	1.92	-0.72	-0.18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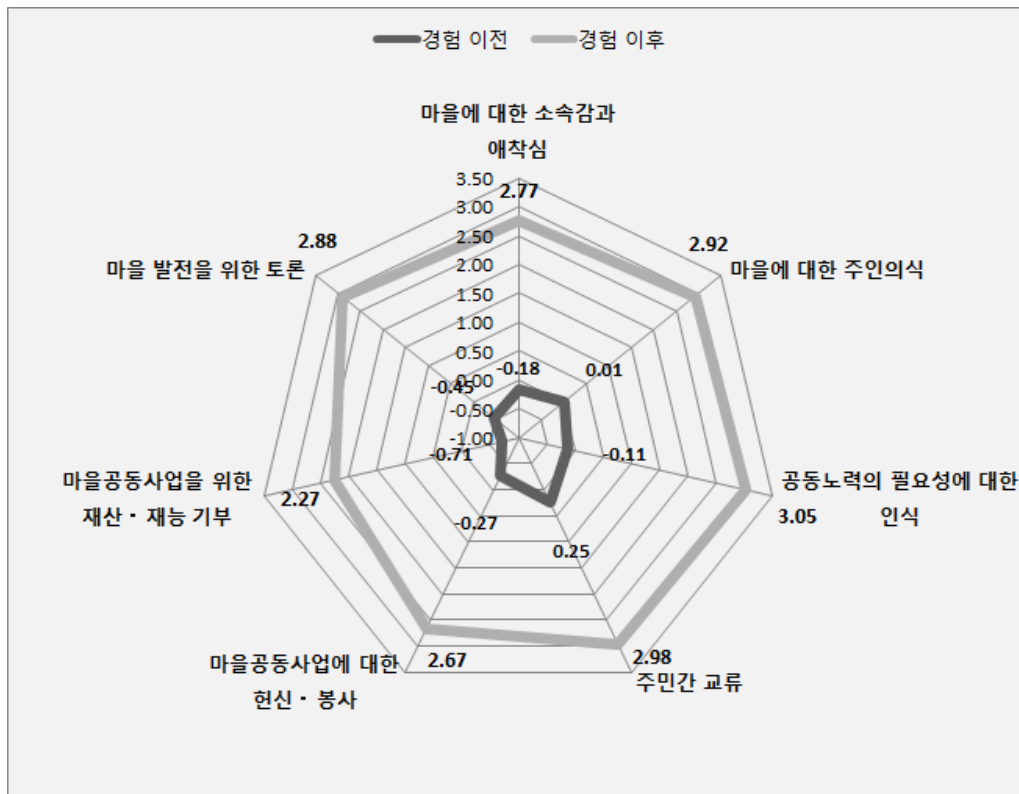
주. '매우 높음' =+5부터 '매우 낮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표 17> 경험 이후 공동체 의식 부분의 수준

Variable	Mean	T-value	Std.D.	95% C.I.		Vaild N
				min.	Max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관심도	2.65	26.67	1.40	2.46	2.85	197
마을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	2.77	27.21	1.43	2.57	2.97	197
마을에 대한 주인의식	2.92	28.65	1.43	2.72	3.12	197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05	31.52	1.36	2.86	3.24	197
주민간 교류	2.98	29.07	1.44	2.78	3.19	197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헌신·봉사	2.67	28.90	1.30	2.49	2.85	197
마을공동사업을 위한 재산·재능 기부	2.27	17.81	1.79	2.02	2.53	197
마을 발전을 위한 토론	2.88	28.60	1.41	2.68	3.08	197

주. '매우 높음' =+5부터 '매우 낮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그러나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경험한 이후에는 공동체 의식 부문에 있어서 마을 공동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2.65로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고, 마을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도 2.77로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마을에 대한 주인의식도 2.92로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3.05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주민간 교류도 2.98로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헌신·봉사도 2.67로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마을공동사업을 위한 재산·재능 기부도 2.27로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마을 발전을 위한 토론도 2.88로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그림 11> 경험 전·후 공동체 의식 부문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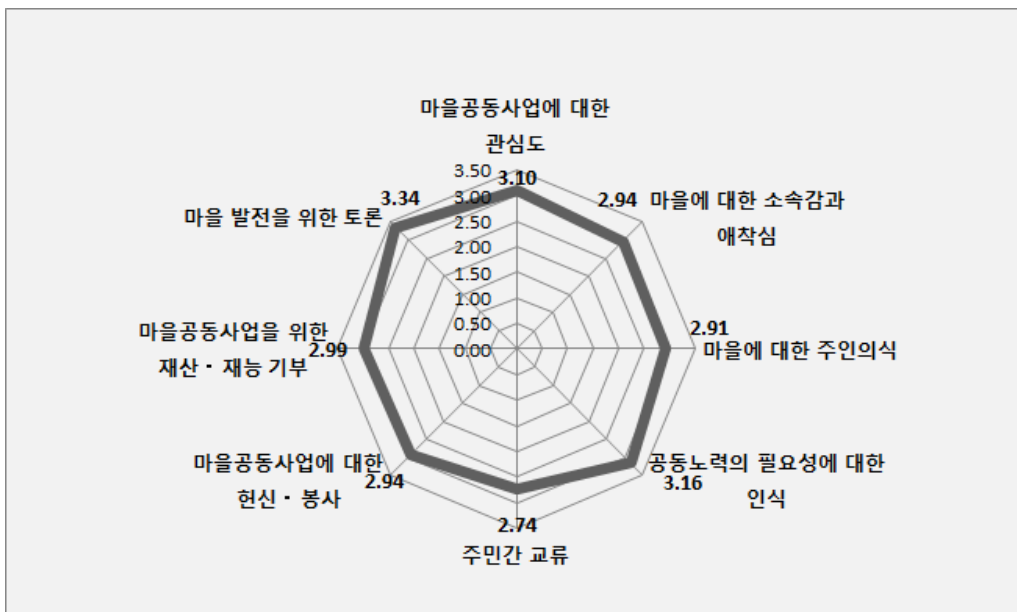
주. '매우 높음' = +5부터 '매우 낮음' =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표 18> 경험 전·후 공동체 의식 부분의 수준 변화

Variable	Paired D.	T-value	Std.D.	95% C.I.		Vaild N
				min.	Max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관심도	3.10	21.26	2.04	2.81	3.38	197
마을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	2.94	18.46	2.24	2.63	3.26	197
마을에 대한 주인의식	2.91	22.00	1.86	2.65	3.18	197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16	22.07	2.01	2.88	3.44	197
주민간 교류	2.74	18.61	2.06	2.45	3.03	197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헌신·봉사	2.94	22.56	1.83	2.68	3.20	197
마을공동사업을 위한 재산·재능기부	2.99	20.15	2.08	2.69	3.28	197
마을 발전을 위한 토론	3.34	20.11	2.33	3.01	3.66	197

주. 1) '매우 높음' =+5부터 '매우 낮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2) 대응편차(Paired D.) : 경험 전후 결과의 차이(현재-경험 전)를 나타내며, '경험 전보다 현재가 _만큼..' 으로 해석함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의 경험 전·후의 공동체 의식 부분의 수준 변화량을 살펴보면,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3.10만큼 매우 높게 증가하였고, 마을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은 2.94만큼 높게 향상되었다.



<그림 12> 경험 전·후 공동체 의식 부분의 수준 변화량

주. 1) '매우 높음' =+5부터 '매우 낮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2) 경험 전후 결과의 차이(현재-경험 전)를 나타내며, '경험 전보다 현재가 _만큼..' 으로 해석함

또한 마을에 대한 주인의식도 2.91만큼 높게 향상되었으며,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3.16만큼 매우 높게 향상되었다. 주민간 교류에 있어서도 2.74만큼 높은 증가가 있었으며,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헌신·봉사도 2.94만큼 높은 증가가 있었다. 마을공동사업을 위한 재산·재능기부도 2.99만큼 높은 증가가 있었고, 마을 발전을 위한 토론도 3.34로 매우 높은 증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4) 사업추진력 부문의 수준 변화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경험하기 이전의 사업추진력 부문의 수준은 마을회의시 규칙을 정하여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0.78, 마을회의시 현장포럼 기법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1.20, 마을회의 과정에서 상호존중하는 부분은 -0.56, 마을회의시 회의내용을 기록하는 것에 있어 -0.80, 주민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은 -0.19, 마을사업을 위한 포럼이나 교육 참여에 있어 -0.53, 마을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교류하는 것은 -0.74, 외부 방문객 응대력은 -0.53 등의 수준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추진력은 보통 이하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표 19> 경험 이전 사업추진력 부문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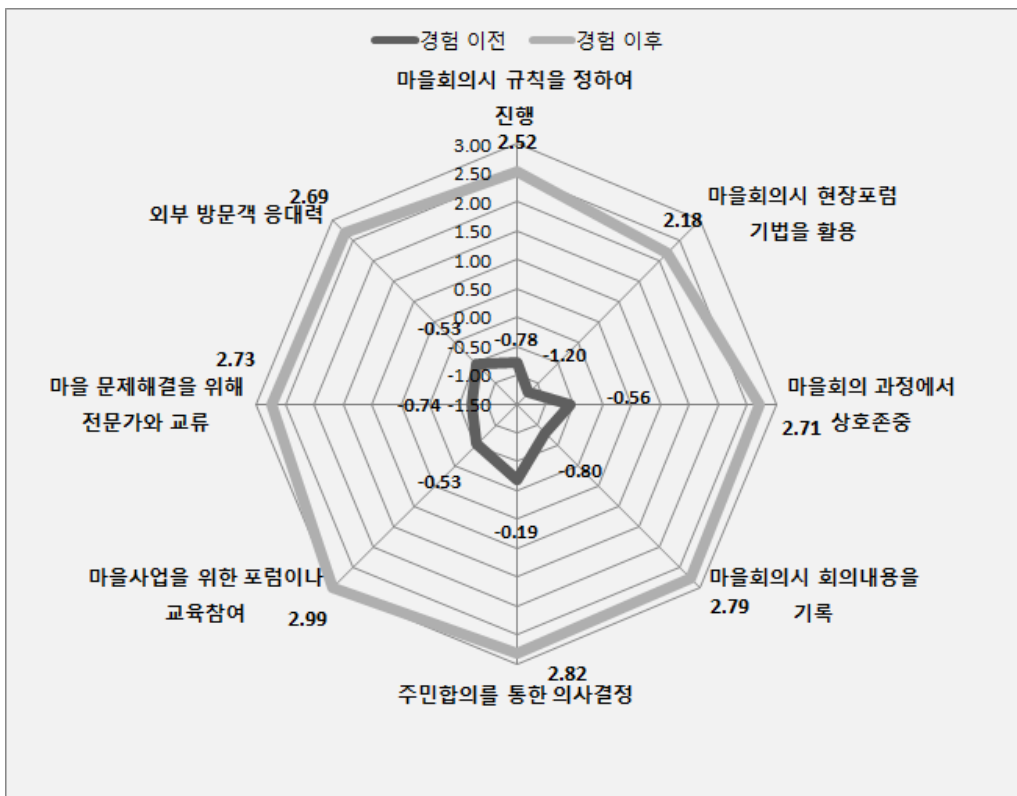
Variable	Mean	T-value	Std.D.	95% C.I.		Vaild N
				min.	Max	
마을회의시 규칙을 정하여 진행	-0.78	-5.47	1.99	-1.06	-0.50	197
마을회의시 현장포럼 기법을 활용	-1.20	-7.69	2.19	-1.51	-0.89	197
마을회의 과정에서 상호존중	-0.56	-4.24	1.85	-0.82	-0.30	197
마을회의시 회의내용을 기록	-0.80	-3.67	3.07	-1.23	-0.37	197
주민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0.19	-1.68	1.61	-0.42	0.03	197
마을사업을 위한 포럼이나 교육참여	-0.53	-3.74	2.00	-0.81	-0.25	197
마을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교류	-0.74	-5.62	1.85	-1.00	-0.48	197
외부 방문객 응대력	-0.53	-4.19	1.78	-0.78	-0.28	195

주. '매우 높음' = +5부터 '매우 낮음' =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표 20> 경험 이후 사업추진력 부문의 수준

Variable	Mean	T-value	Std.D.	95% C.I.		Vaild N
				min.	Max	
마을회의시 규칙을 정하여 진행	2.52	26.86	1.32	2.33	2.70	197
마을회의시 현장포럼 기법을 활용	2.18	18.40	1.66	1.94	2.41	197
마을회의 과정에서 상호존중	2.71	29.21	1.30	2.53	2.89	197
마을회의시 회의내용을 기록	2.79	29.57	1.32	2.60	2.97	197
주민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2.82	29.04	1.36	2.63	3.01	197
마을사업을 위한 포럼이나 교육참여	2.99	27.82	1.51	2.78	3.20	197
마을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교류	2.73	27.43	1.39	2.53	2.92	197
외부 방문객 응대력	2.69	25.73	1.47	2.48	2.90	197

주. '매우 높음' = +5부터 '매우 낮음' =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그림 13> 경험 전 · 후 사업추진력 부문의 수준

주. '매우 높음' = +5부터 '매우 낮음' =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그러나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경험한 이후의 사업추진력 부문의 수준은 마을회의시 규칙을 정하여 진행하는데 있어 2.52로 높은 수준까지 향상되었고, 마을회의시 현장포럼 기법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2.18로 높은 수준까지 향상되었다. 마을회의 과정에서 상호 존중하는 부분도 2.71로 높은 수준까지 향상되었고, 마을회의시 회의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2.79까지 높게 향상되었다. 주민합의를 통한 의사결정도 2.82수준까지 높게 향상되었으며, 마을사업을 위한 포럼이나 교육참여도 2.99로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마을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교류하는 부분도 2.73으로 높게 향상되었고, 외부 방문객 응대력도 2.69수준까지 높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 경험 전·후 사업추진력 부문의 수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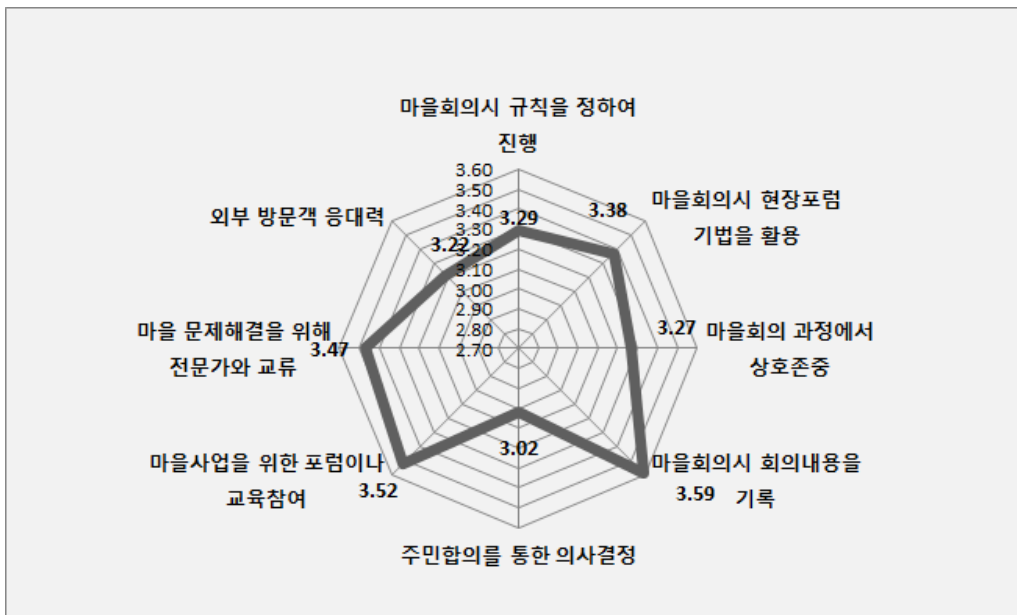
Variable	Paired D.	T-value	Std.D.	95% C.I.		Vaild N
				min.	Max	
마을회의시 규칙을 정하여 진행	3.29	18.50	2.50	2.94	3.65	197
마을회의시 현장포럼 기법을 활용	3.38	20.81	2.28	3.06	3.70	197
마을회의 과정에서 상호존중	3.27	19.33	2.37	2.94	3.60	197
마을회의시 회의내용을 기록	3.59	14.19	3.55	3.09	4.09	197
주민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3.02	19.48	2.17	2.71	3.32	197
마을사업을 위한 포럼이나 교육참여	3.52	18.04	2.74	3.14	3.91	197
마을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교류	3.47	20.13	2.42	3.13	3.81	197
외부 방문객 응대력	3.22	20.01	2.25	2.90	3.54	195

주. 1) ‘매우 높음’ =+5부터 ‘매우 낮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2) 대응편차(Paired D.) : 경험 전·후 결과의 차이(현재-경험 전)를 나타내며, ‘경험 전보다 현재가 _만큼..’ 으로 해석함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의 경험 전·후 사업추진력 부문의 수준은 마을회의시 규칙을 정하여 진행하는데 있어 3.29만큼 매우 높게 증가하였으며, 마을회의시 현장포럼 기법을 활용하는 것에는 3.38만큼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마을회의 과정에서 상호존중하는 것도 3.27만큼 매우 크게 증가하였고, 마을 회의시 회의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3.59만큼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주민합의를 통한 의사결정도 3.02만큼 매우 크게 증가하였으며, 마을사업을 위

한 포럼이나 교육 참여도 3.52만큼 매우 높게 증가하였다. 마을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교류하는 부분도 3.47만큼 매우 높게 증가하였고, 외부 방문객 응대력도 3.22로 매우 높게 향상되는 등 중간지원조직의 사업과 프로그램이 사업추진력 부문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4> 경험 전·후 사업추진력 부문의 수준 변화량

- 주. 1) '매우 높음' = +5부터 '매우 낮음' =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2) 경험 전후 결과의 차이(현재-경험 전)를 나타내며, '경험 전보다 현재가 _만큼...'으로 해석함

(5) 마을환경개선 부문의 수준 변화

<표 22> 경험 이전 마을환경개선 부문의 수준

Variable	Mean	T-value	Std.D.	95% C.I.		Valid N
				min.	Max	
마을 청결도	-0.22	-2.16	1.45	-0.43	-0.02	197
환경개선 주민의식	-0.20	-1.90	1.47	-0.40	0.01	197
주민자체 정화활동	-0.18	-1.76	1.42	-0.38	0.02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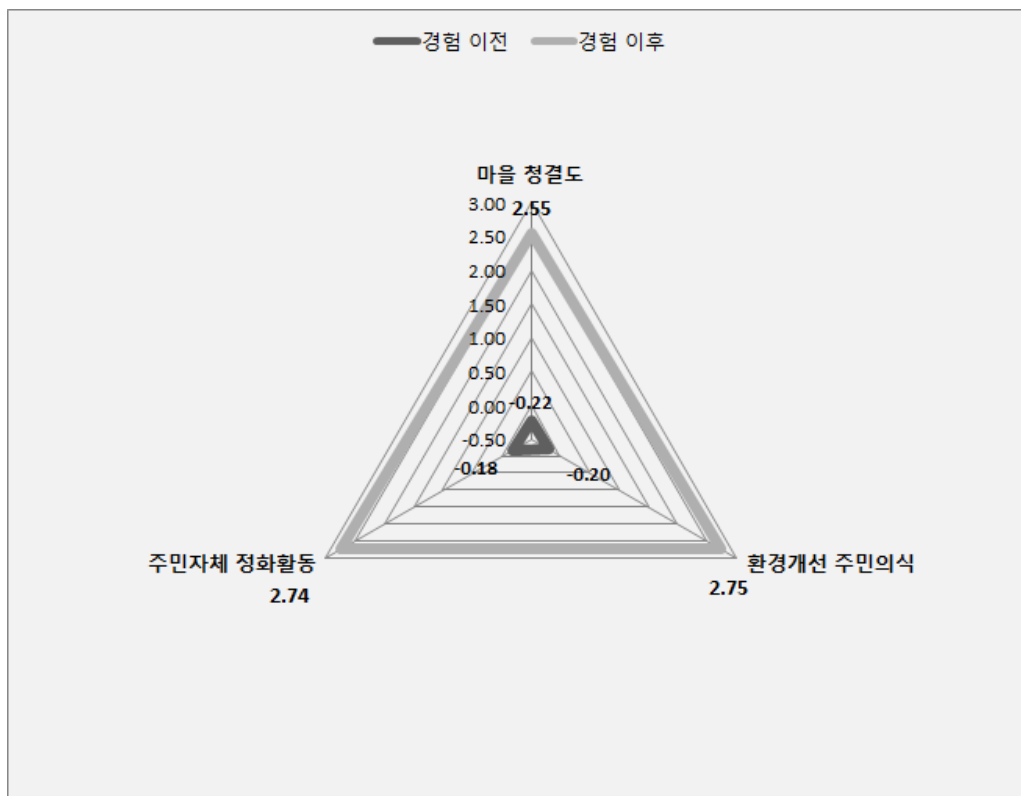
주. '매우 높음' = +5부터 '매우 낮음' =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의 경험 이전 마을환경개선 부분의 수준은 마을 청결도 -0.22,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인식 -0.20, 주민자체 정화활동 -0.18등 낮은 수준에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3> 경험 이후 마을환경개선 부분의 수준

Variable	Mean	T-value	Std.D.	95% C.I.		Vaild N
				min.	Max	
마을 청결도	2.55	26.58	1.35	2.36	2.74	197
환경개선 주민의식	2.75	29.21	1.32	2.56	2.93	197
주민자체 정화활동	2.74	26.61	1.45	2.54	2.94	197

주. '매우 높음' =+5부터 '매우 낮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그림 15> 경험 전 · 후 마을환경개선 부분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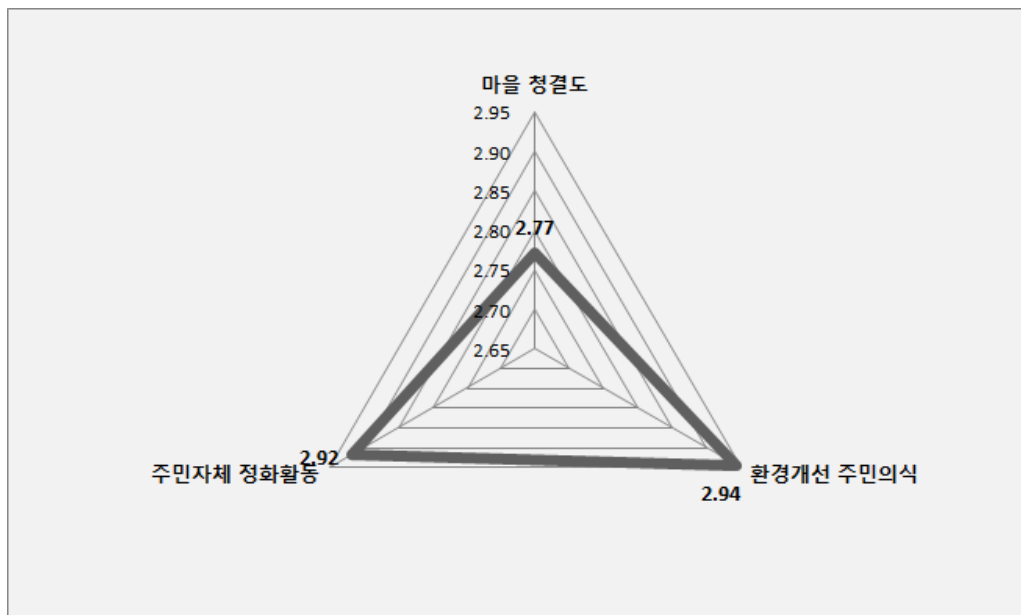
주. '매우 높음' =+5부터 '매우 낮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의 경험 이후 마을환경개선 부분의 수준은 마을 청결도 2.77,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인식 2.94, 주민자체 정화활동 2.92 등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4> 경험 전 · 후 마을환경개선 부분의 수준 변화

Variable	Paired D.	T-value	Std.D.	95% C.I.		Vaild N
				min.	Max	
마을 청결도	2.77	21.62	1.80	2.52	3.02	197
환경개선 주민의식	2.94	21.01	1.97	2.67	3.22	197
주민자체 정화활동	2.92	21.86	1.88	2.66	3.18	197

- 주. 1) '매우 높음' =+5부터 '매우 낮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2) 대응편차(Paired D.) : 경험 전후 결과의 차이(현재-경험 전)를 나타내며, '경험 전보다 현재가 _만큼..' 으로 해석함



<그림 16> 경험 전 · 후 마을환경개선 부분의 수준 변화량

- 주. 1) '매우 높음' =+5부터 '매우 낮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2) 경험 전후 결과의 차이(현재-경험 전)를 나타내며, '경험 전보다 현재가 _만큼..' 으로 해석함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의 경험 전·후의 마을환경개선 부분의 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마을의 청결도는 2.77만큼 크게 향상되었고,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의식도 2.94만큼 크게 향상되었다. 주민자체 정화활동도 2.92만큼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업 · 프로그램의 경제적 파급효과

1) 농업소득 향상 금액

응답자의 진술 선호에 의한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농업소득 향상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농가당 14만1천3백70원의 농업소득 향상을 가져다 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25> 농업 소득 향상 금액

변수명		추정치	T-추정치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원/농가당)		141,370.56	6.331	22,328.417	97,335.77	185,405.35
인구 사회 특성 변수	성별(1=남성)	54,459.79	1.067	51020.235	-46,182.47	155,102.06
	나이(세)	-1,096.94	-.504	2175.399	-5,388.12	3,194.24
	지역(1=시)	149,604.25	3.287	45507.172	59,837.03	239,371.47
	교육년수(년)	145.61	.020	7184.411	-14,026.33	14,317.54
	가구당 월소득(원)	0.04	1.750	.020	0.00	0.08
	역할(1=리더)	-41,001.51	-.639	64172.680	-167,588.22	85,585.21
	정착유형(1=원주민)	36,068.95	.769	46884.749	-56,415.68	128,553.57

2) 농외소득 향상 금액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농외소득 향상 부분에 있어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농가당 24만6천4백97원의 농외소득 향상을 가져다 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26> 농외 소득 향상 금액

변수명	추정치	T-추정치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원/농가당)	246,497.46	11.604	21,243.023	204,603.22	288,391.70	
인구 사회 특성 변수	성별(1=남성)	97,194.20	1.990	48831.254	869.91	193,518.49
	나이(세)	2,195.89	1.055	2082.065	-1,911.18	6,302.96
	지역(1=시)	89,916.88	2.064	43554.724	4,001.04	175,832.71
	교육년수(년)	3,782.88	.550	6876.169	-9,781.02	17,346.77
	가구당 월소득(원)	0.03	1.786	.020	0.00	0.07
	역할(1=리더)	-24,567.26	-.400	61419.404	-145,722.87	96,588.36
	정착유형(1=원주민)	-13,928.04	-.310	44873.198	-102,444.69	74,588.61

3) 마을공모사업 유치 금액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응답자의 마을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마을당 평균 2천5백13만8천71원의 마을공모사업 유치 금액 향상을 가져다주었다.

<표 27> 마을공모사업 유치 금액

변수명	추정치	T-추정치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원/마을당)	25,138,071.07	8.570	2,933,245.728	19,353,296.25	30,922,845.88

5. 중간지원조직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

1)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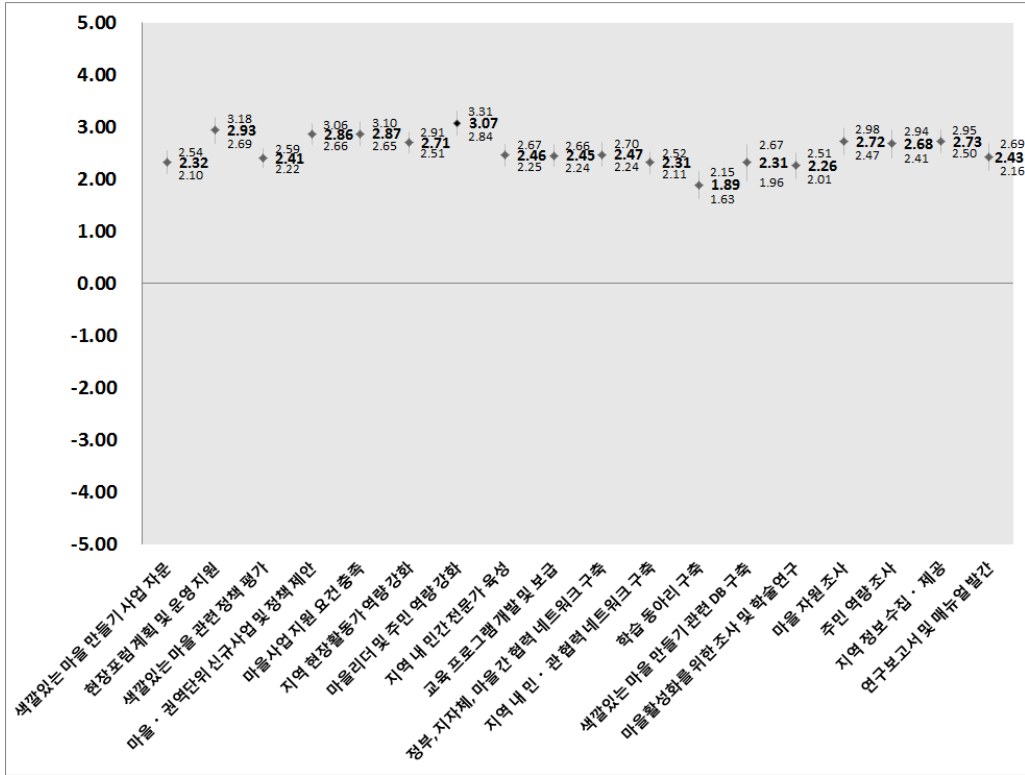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농촌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세부 사업들과 프로그램들이 농촌과 농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24>와 같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마을리더 및 주민 역량 강화에 있어서는 3.07로 매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현장포럼 계획 및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2.93으로 크게 도움, 마을·권역단위 신규사업 및 정책제안 2.86, 마을사업 지원요건 충족 2.87, 지역 정보 수집·제공 2.73, 마을 자원 조사 2.72, 지역 현장활동가 역량 강화 2.71, 주민 역량 조사 2.68, 정부·지자체·마을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2.47, 지역 내 민간 전문가 육성 2.46,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45, 연구보고서 및 매뉴얼 발간 2.43, 색깔있는 마을 관련 정책 평가 2.41,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자문 2.32, 지역 내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2.31,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관련 DB 구축 2.31, 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학술 연구 2.26 등이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8>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세부 역할들의 영향력

Variable	Mean	T-value	Std.D.	95% C.I.		Valid N
				min.	Max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자문	2.32	20.831	1.563	2.10	2.54	197
현장포럼 계획 및 운영 지원	2.93	23.978	1.717	2.69	3.18	197
색깔있는 마을 관련 정책 평가	2.41	25.362	1.332	2.22	2.59	197
마을·권역단위 신규사업 및 정책 제안	2.86	28.008	1.432	2.66	3.06	197
마을사업 지원 요건 충족	2.87	25.303	1.594	2.65	3.10	197
지역 현장활동가 역량 강화	2.71	26.805	1.415	2.51	2.91	196
마을리더 및 주민 역량 강화	3.07	25.662	1.680	2.84	3.31	197
지역 내 민간 전문가 육성	2.46	23.204	1.486	2.25	2.67	197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45	22.984	1.489	2.24	2.66	195
정부, 지자체, 마을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2.47	21.280	1.631	2.24	2.70	197
지역 내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2.31	22.728	1.429	2.11	2.52	197
학습 동아리 구축	1.89	14.323	1.855	1.63	2.15	197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관련 DB 구축	2.31	12.711	2.556	1.96	2.67	197
마을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학술연구	2.26	17.945	1.767	2.01	2.51	197
마을 자원 조사	2.72	21.106	1.809	2.47	2.98	197
주민 역량 조사	2.68	20.111	1.867	2.41	2.94	197
지역 정보 수집·제공	2.73	24.267	1.577	2.50	2.95	197
연구보고서 및 매뉴얼 발간	2.43	18.149	1.877	2.16	2.69	197

주. '매우 도움이 되었음' =+5부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그림 17>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세부 역할들의 영향력

주. 1) ‘매우 도움이 되었음’ =+5부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2) 95%신뢰구간 하한, 평균값(◆), 95%신뢰구간 상한값을 나타내며, 식별의 편의를 위해 항목 최대치에 대해서는 흑색으로 표기하였음

2) 향후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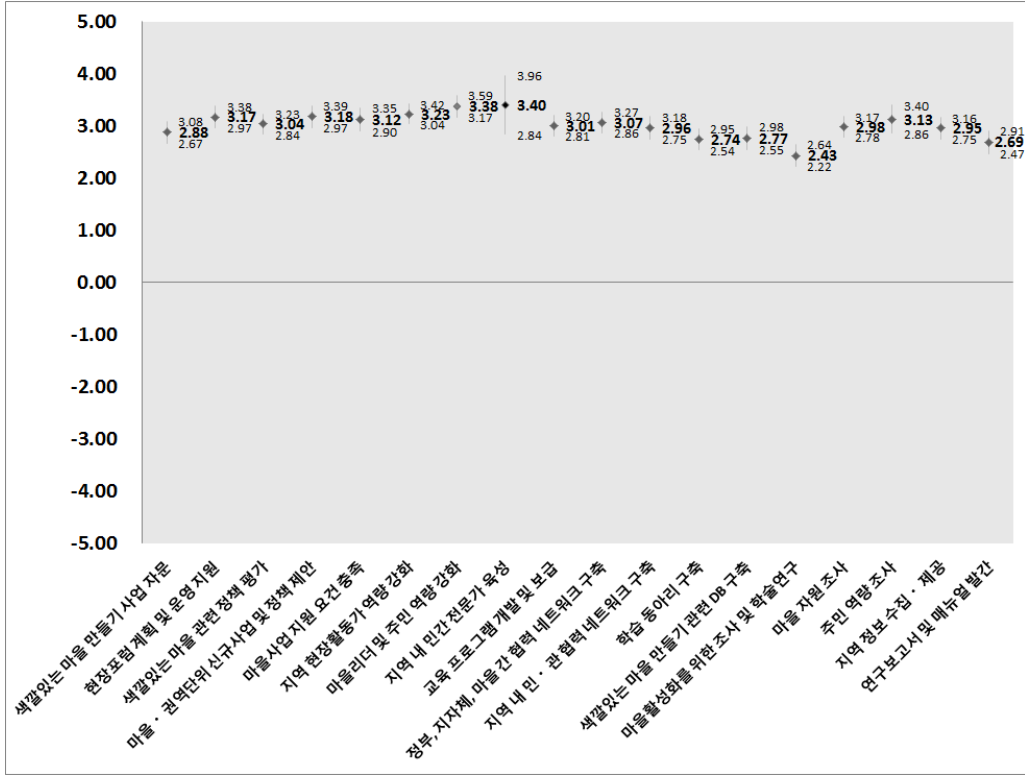
향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세부 역할들의 중요성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지역 내 민간 전문가 육성 3.40, 마을리더 및 주민 역량 강화 3.38, 지역 현장활동가 역량 강화 3.23, 마을·권역단위 신규사업 및 정책 제안 3.18, 현장포럼 계획 및 운영지원 3.17, 주민 역량 조사 3.13, 마을사업 지원 요건 충족 3.12, 정부·지자체·마을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3.07, 색깔있는 마을 관련 정책 평가 3.0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01 등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마을 자원 조사 2.98, 지역 내 민·관 협력네트워크구축 2.96, 지역 정보 수집·제공 2.95,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자문 2.88,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관련 DB구축 2.77, 학습동아리 구축 2.74, 연구보고서 및 매뉴얼 발간 2.69, 마을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학술 연구 2.43 등도 앞으로 중요한 역할이라고 분석되었다.

<표 29> 향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세부 역할들의 중요성

Variable	Mean	T-value	Std.D.	95% C.I.		Valid N
				min.	Max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자문	2.88	27.496	1.469	2.67	3.08	197
현장포럼 계획 및 운영 지원	3.17	30.634	1.454	2.97	3.38	197
색깔있는 마을 관련 정책 평가	3.04	30.175	1.412	2.84	3.23	197
마을·권역단위 신규사업 및 정책 제안	3.18	29.741	1.500	2.97	3.39	197
마을사업 지원 요건 충족	3.12	27.112	1.605	2.90	3.35	194
지역 현장활동가 역량 강화	3.23	32.948	1.375	3.04	3.42	197
마을리더 및 주민 역량 강화	3.38	31.615	1.499	3.17	3.59	197
지역 내 민간 전문가 육성	3.40	11.958	3.992	2.84	3.96	197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01	30.412	1.387	2.81	3.20	197
정부, 지자체, 마을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3.07	29.968	1.436	2.86	3.27	197
지역 내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2.96	26.905	1.546	2.75	3.18	197
학습 동아리 구축	2.74	26.415	1.457	2.54	2.95	197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관련 DB 구축	2.77	25.149	1.544	2.55	2.98	197
마을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학술연구	2.43	22.730	1.499	2.22	2.64	196
마을 자원 조사	2.98	30.119	1.389	2.78	3.17	197
주민 역량 조사	3.13	22.775	1.927	2.86	3.40	197
지역 정보 수집·제공	2.95	28.580	1.451	2.75	3.16	197
연구보고서 및 매뉴얼 발간	2.69	23.783	1.588	2.47	2.91	197

주. '매우 중요하게 운영되어야 함' =+5부터 '전혀 중요하지 않음'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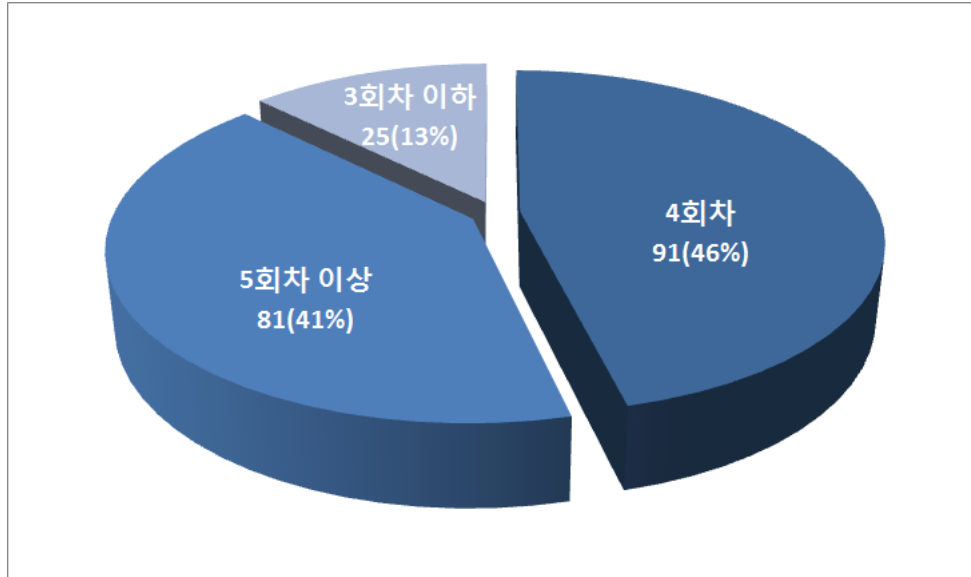


<그림 18> 향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세부 역할들의 중요도

- 주. 1) ‘앞으로도 매우 중요함’ = +5부터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까지 10개 수준에 대한 선택 평균값임
 2) 95%신뢰구간 하한, 평균값(◆), 95%신뢰구간 상한값을 나타내며, 식별의 편의를 위해 항목 최대치에 대해서는 흑색으로 표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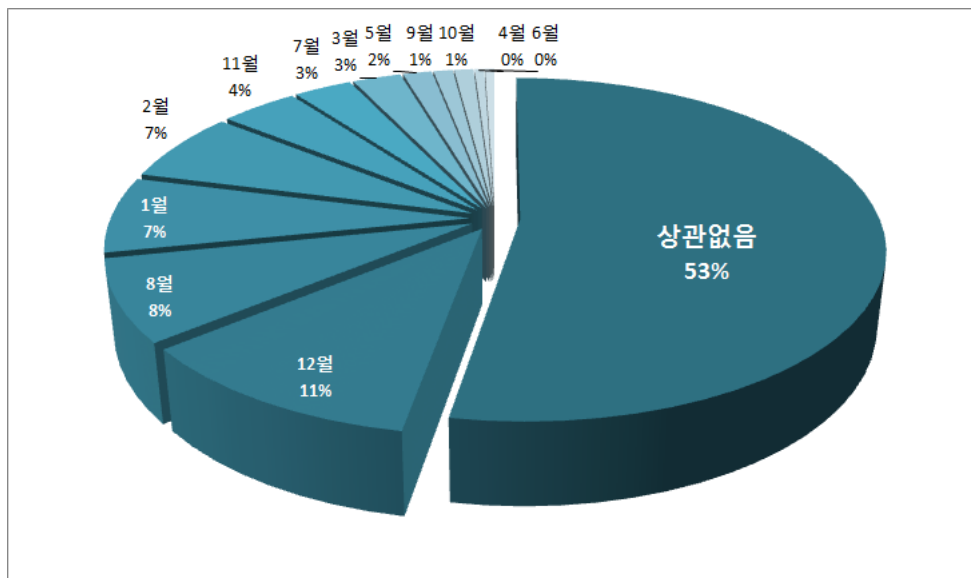
6. 농촌현장포럼에 대한 일반 인식

농촌현장포럼에 대한 일반 인식을 살펴보면, 농촌현장포럼의 적정 운영횟수로는 현재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4회차가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이 91명(46%)으로 가장 많았으며, 5회차 이상이 적정하다는 응답도 81명(41%)에 달했다. 3회차 이하는 25명(13%)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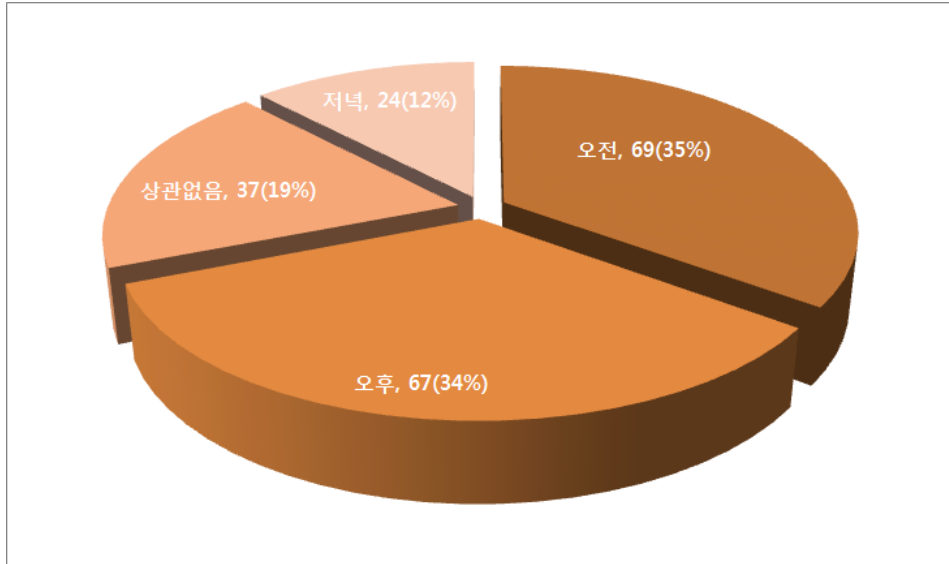


<그림 19> 농촌현장포럼의 적정 운영 횟수

농촌현장포럼의 진행 희망 시기로는 언제 개최해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12월(11%), 8월(8%), 1월(7%)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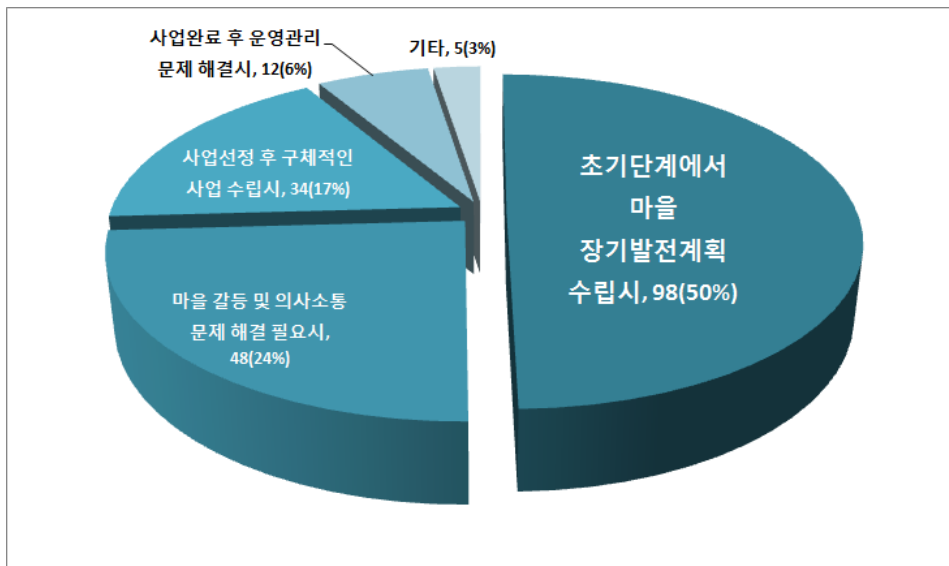


<그림 20> 농촌현장포럼 진행 희망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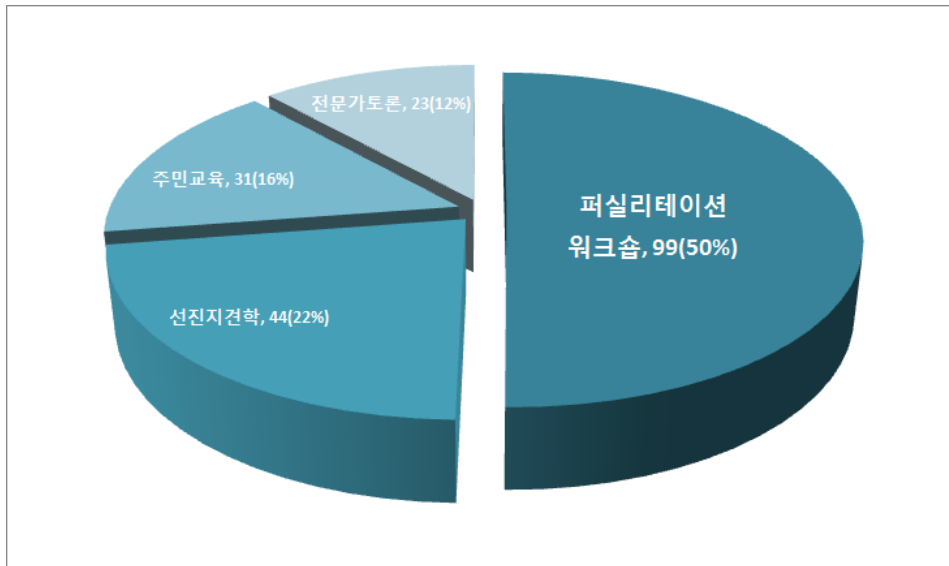
<그림 21> 농촌현장포럼 진행 희망 시간대

농촌현장포럼의 진행 희망 시간대는 오전이 69명(35%)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오후가 적정하다는 응답도 67명(34%)에 달했다.



<그림 22> 농촌현장포럼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된 시점

농촌현장포럼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된 시점은 초기단계에서 마을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8명(50%)로 가장 많았고, 마을 갈등 및 의사소통 문제 해결 필요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48명(24%)에 이르렀다.



<그림 22> 농촌현장포럼 중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

농촌현장포럼 중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으로는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이라는 응답이 99명(50%)으로 가장 많았고, 선진지 견학 44명(22%), 주민교육 31명(16%), 전문가토론 23명(12%) 등이 뒤를 이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정립과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경상북도 23개 시·군과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지역리더·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식,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업의 효과성, 경제적 파급효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농촌현장포럼에 대한 일반 인식 등을 분석하였다.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국내 중간지원조직 중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인지도가 1.62로 농업6차산업지원센터(-0.05), 어촌특화지원센터(-1.0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에 있어서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매우 중요(3.11)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농촌과 농민에게 도움(2.87)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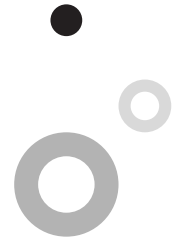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들의 효과에 있어서는 마을공모사업 유치에 있어서는 2.70으로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민의 역량강화에 있어서는 2.75로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파급효과로 농업소득 향상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농가당 14만1천3백70원의 농업소득 향상을 가져다 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농업6차산업지원센터는 농가당 3만6천40원의 농업소득 향상을 가져다 준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외소득에 있어서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농가당 24만6천4백97원의 농외소득 향상을 가져다 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농업6차산업지원센터는 농가당 5만9천6백44원의 농외소득 향상을 가져다 준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마을당 평균 2천5백13만8천71원의 마을공모사업 유치 금액 향상을 가져다주었으며, 농업6차산업지원센터는 마을당 1백77만6천6백49원의 마을공모사업 유치금액 향상을 가져다 준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중요성과 효과, 역할 정립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정보와 향후 관련정책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 지역이 대구·경북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농

촌활성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보완 조사와 연구는 후의 과제로 한다.



경남 농촌활성화지원센터

2017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 추진동향 분석 및 개선방안

2017. 12.

경상대학교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7년도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연구기관명 : 경상대학교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책임자 : 김 영 주

선임연구원 : 최 영 완

연구 원 : 진 솔 지

김 수 영

공 주 희

서 지 은

<차 례>

I. 연구배경 및 목적	533
II. 연구방법 및 범위	533
III. 계획수립 실태분석	534
1. 사업아이템 유형분류	534
2. 예비계획과 기본계획 사업아이템 비교 분석	536
3. 주민의향과 기본계획 사업아이템 비교 분석	540
4. 중심성 분석과 기본계획 사업아이템 비교 분석	540
IV. 운영관리 지원체계 분석	542
1. 경상남도 지원 체계	542
2. 지원체계 의견 조사	543
3. 해외 중심지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551
4. 고 찰	551
V. 결론 및 정책 제언	555
참고문헌	556
부 록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관계자 의견조사 결과	557

〈표 차례〉

Table 1.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비교	535
Table 2. 사업아이템 유형 분류	536
Table 3. 예비·기본계획 기능별 사업아이템 비교	538
Table 4. 예비·기본계획 유형별 사업아이템 비교	539
Table 5.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지역개발 업무로드맵(요약)	543
Table 6. 의견조사 개요	544
Table 7. 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546
Table 8. 준공된 시설물(센터 등) 운영관리 주체	547
Table 9. 일본의 농촌중심지 관련 정책	552
Table 10. 영국의 시장도입진흥대상 주제별 요약	553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관계자 의견조사 결과〉

Table 1-1. 의견조사 개요	559
Table 1-2. 사업 담당하는 동안 가장 어려운 점	559
Table 1-3.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 반영 여부	560
Table 1-4.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완할 점	560
Table 1-5. 사업 추진과정에서 잦은 계획변경 이유	561
Table 1-6. 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561
Table 1-7. 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	562
Table 1-8. 준공된 시설물(센터 등) 운영관리 주체	562
Table 1-9. 농식품부 3단계 점검 효과	563
Table 1-10. 경남도 자체점검 효과	563
Table 1-11. 공사 모니터링 및 컨설팅 효과	564
Table 1-12. 경남도와 센터, 공사 공동 부진지구 컨설팅 효과	564
Table 1-13. 사후관리 활성화에 가장 유효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565
Table 1-14. 앞으로 사업의 성과 고양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	565

<그림 차례>

Figure 1. 연구 흐름도	533
Figure 2. 예비-기본계획 기능별 사업비 변화	537
Figure 3. 예비-기본계획 유형별 사업비 변화	537
Figure 4. 주민의향조사 결과와 기본계획 사업 아이템별 사업비 비율 비교	540
Figure 5. 중심성 분석과 기본계획 사업아이템 비교	541
Figure 6. 경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점검 체계	542
Figure 7. 사업 담당하는 동안 가장 어려운 점	544
Figure 8.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완할 점	545
Figure 9. 사업 추진과정에서 잦은 계획변경 이유	545
Figure 10. 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	546
Figure 11. 농식품부 3단계 점검 효과	547
Figure 12. 경남도 자체점검 효과	548
Figure 13. 공사 모니터링 및 컨설팅 효과	548
Figure 14. 경남도와 센터, 공사 공동 부진지구 컨설팅 효과	549
Figure 15. 사후관리 활성화에 가장 유효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550
Figure 16. 앞으로 사업의 성과 고양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	550

I. 연구배경 및 목적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소재지에 교육과 문화, 복지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충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기능의 향상을 도모,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어촌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 소도읍육성사업을 시작으로 추진하여 2010년까지 100개 권역이 완료되었고, 2011년부터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변경되어 2011 ~ 2014년 283개 권역이 선정되어 추진(완료)되었다. 2015년 지역개발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개편되어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최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개편된 이후 이전의 사업 목적에 따른 다양한 사업내용과는 달리 일부 지구의 경우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이나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계획으로 변질되었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읍면단위 중심지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의 사업 계획수립 실태를 분석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및 범위

이 연구에서는 Figure 1과 같이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정비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지침(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사업아이템 유형을 분류하고, 사례대상 경남지역 4개지구의 중심성 분석과 주민의향조사, 예비계획이 기본계획의 사업아이템에 잘 반영하였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사업지구의 운영관리 지원체계(경남도와 농어촌공사 지원체계, 사업 담당자 의견 조사)와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앞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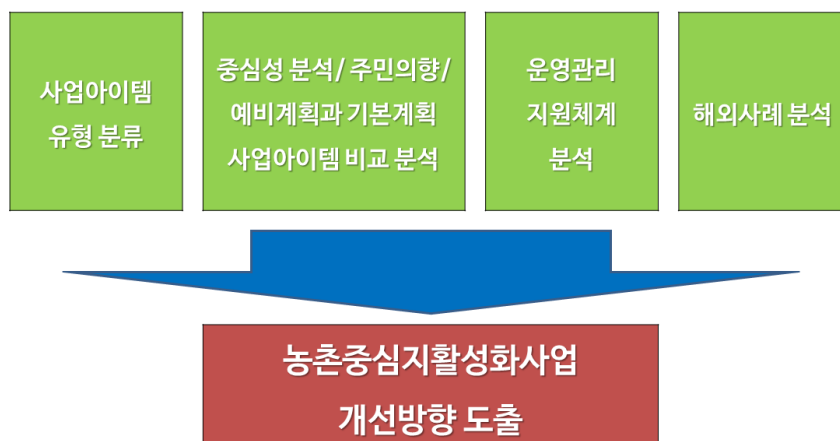


Figure 1. 연구 흐름도

III. 계획수립 실태분석

사업 추진 지구의 계획수립 실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정비사업과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의 목적과 가이드라인을 비교·분석하였다(Table 1).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정비사업은 면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면소재지의 서비스 기능이 위축되어 배후 농촌마을의 쇠락을 방지하고, 도시 및 소도읍 지역과 농어촌 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서의 면소재지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주변의 면 농촌주민들까지 거점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계획(다른 시책 사업과의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선정기준은 현재 거점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사업시행을 통해 지역 거점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면소재지 중 인구 3천~1만명/면 수준으로 적정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1개 법정리 이상의 중심마을이 대상이다. 도시화가 상당히 진전된 면(1만명/면 이상)과 인구과소지역(3천명/면 미만)은 제외된다.

이에 반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촌 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중심기능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기존의 도로정비 등 H/W 중심의 투자에서 주민 참여를 강화한 경제·문화·복지·공동체 등 S/W 중심으로 전환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중심성 분석을 통해 중심성이 높은 지역은 거점기능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중심성이 낮은 지역은 기초인프라 중심으로 투자하는 등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 계획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대상지는 농촌 중심지를 포함한 하나의 동일 생활권이나 상업권 등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읍(면)단위의 중심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지구의 계획수립 실태분석을 위해 경남 지역 4개 지구를 사례지구로 선정하여 예비계획과 기본계획을 비교·분석하였다.

1. 사업아이템 유형분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사업내용(예시)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아이템을 복지 및 인프라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S/W), 기타(시장정비 등)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Table 2).

복지 및 인프라 유형은 도로나 교통, 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의 시설이고, 지역경관개선은 마을가꾸기, 생태공원, 가로경관정비 등, 지역역량강화(S/W)는 주민의 교육이나 컨설팅, 홍보·마케팅, 부대비용 등, 기타 유형은 시골장터정비나 재래시장 정비 등의 사업 아이템으로 분류하였다.

Table 1.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비교

구 분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¹⁾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²⁾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면소재지의 서비스 기능이 위축되어 배후 농촌마을의 쇠락을 방지하고, 도시 및 소도읍 지역과 농어촌 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서의 면소재지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서비스 기능의 향상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중심기능 활성화,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마을에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면 농촌주민들까지 거점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권역당 70억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시책 사업과의 연계가 필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를 들면 타부문에서 지원하는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주민의 기초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과 농산물유통시설, 가공시설, 생산기반 등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상하수도 및 기타 지역개발사업 등 ○ 선정기준은 현재 거점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사업시행을 통해 지역 거점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면소재지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3천~1만명/면 수준으로 적정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면(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1개 법정리 이상의 중심마을) ※ 도시화가 상당히 진전된 면(1만명/면 이상)과 인구과소지역(3천명/면 미만)은 제외 - 도시관리기본계획 수립, 재래시장, 오일장, 중·고등학교, 대학 등 지역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면 - 단, 대도시나 중소도시, 읍소재지와 연결하고 있어 인근 도시지역에서 기초서비스를 충족하는 면지역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을 배후지역에 대한 경제·문화·복지·공동체 중심(S/W주도) ○ 도로정비 등 H/W 중심의 투자에서 주민 참여를 강화한 S/W 중심으로 전환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 중심성 분석을 통해 중심성이 높은 지역은 거점기능 활성화 중심으로, 중심성이 낮은 지역은 기초인프라 중심 투자 ○ 사업대상지 범위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중심지를 포함한 하나의 동일 생활권, 상업권 등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읍(면)단위의 중심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 단, 지형적으로 마을간 연계가 어려우며, 생활권과 상업권 등이 전혀 달라 객관적으로 동일한 대상지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을 임의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지양(농촌중심지 : 읍(면)사무소가 위치한 마을(법정리)을 의미함)

1)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2007, 농촌마을리모델링 기법개발에 관한 연구

2) 농림축산식품부, 2013,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Table 2. 사업아이템 유형 분류

구 분	사업아이템
복지 및 인프라	연결도로, 버스승강장, 주차장, 소형 교량,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하천정비, 옹벽설치, 안전펜스, 기타 안전시설 CCTV, 마을회관리모델링(공동급식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공동생활홈, 야외공연장, 향토자원정비,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설치, 기계화 경작로,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
지역경관개선	마을안길 가꾸기, 마을숲 조성, 빈집정비,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생울타리조성, 마을조형물, 문화자원 복원,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 소규모 쓰레기처리시설, 소규모 대체에너지시설, 가로경관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 간판정비 등
지역역량강화 (S/W)	지역주민 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마을해설사양성, 마을사무장양성, 마을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견학,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 전산기기, 귀농프로그램, 농어촌경관계획수립비,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 등
기타 (시장정비 등)	시골장터정비, 재래(5일)시장정비 등

※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기능별 사업내용(예시) 기준

2. 예비계획과 기본계획 사업아이템 비교 분석

경남지역 4개 사례지구의 예비계획과 기본계획의 기능별·유형별로 사업 아이템을 비교·분석하였다(Table 3, 4).

분석 결과, 예비계획과 기본계획의 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능별 분류에서는 사업비 비율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Figure 2), 세부 사업내용을 이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예비계획과 기본계획에 있어 사업비가 크게 변동되었다(Figure 3).

사업 내용을 유형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Figure 3과 같이 사례연구 대상지역 모두 지역경관 개선 사업비 비중이 감소하고 복지 및 인프라 사업비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B지구의 경우 경관 개선비용이 감소하고 복지 및 인프라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비에 큰 변동이 있었다. 또 D지구의 ‘복사꽃쉼터’의 경우 기능별 분류에서 지역경관개선사업이지만 실제 사업 내용을 살펴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복지 및 인프라 시설로 분류되어 사업비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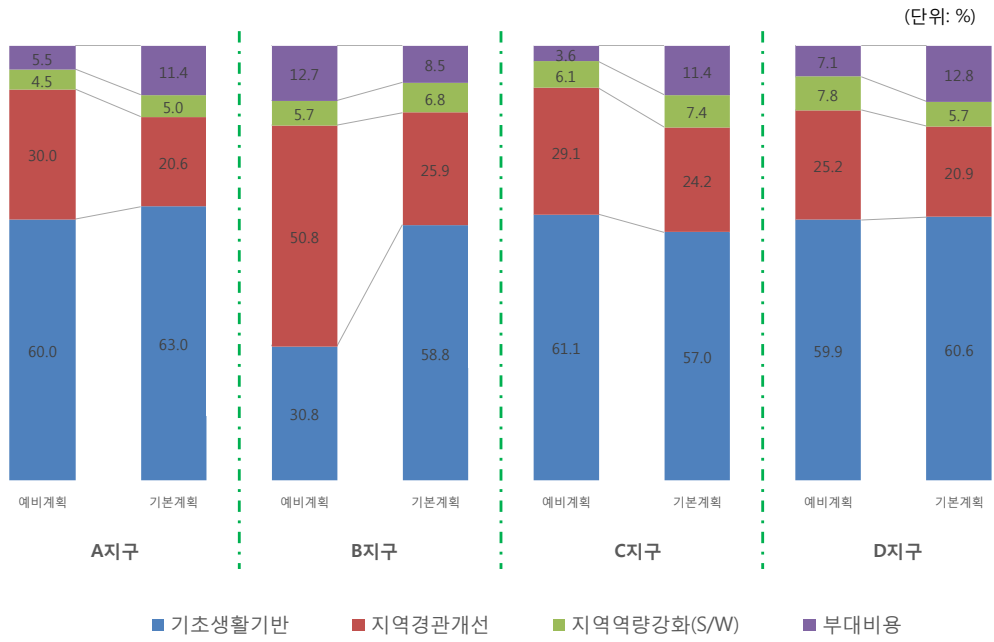


Figure 2. 예비-기본계획 기능별 사업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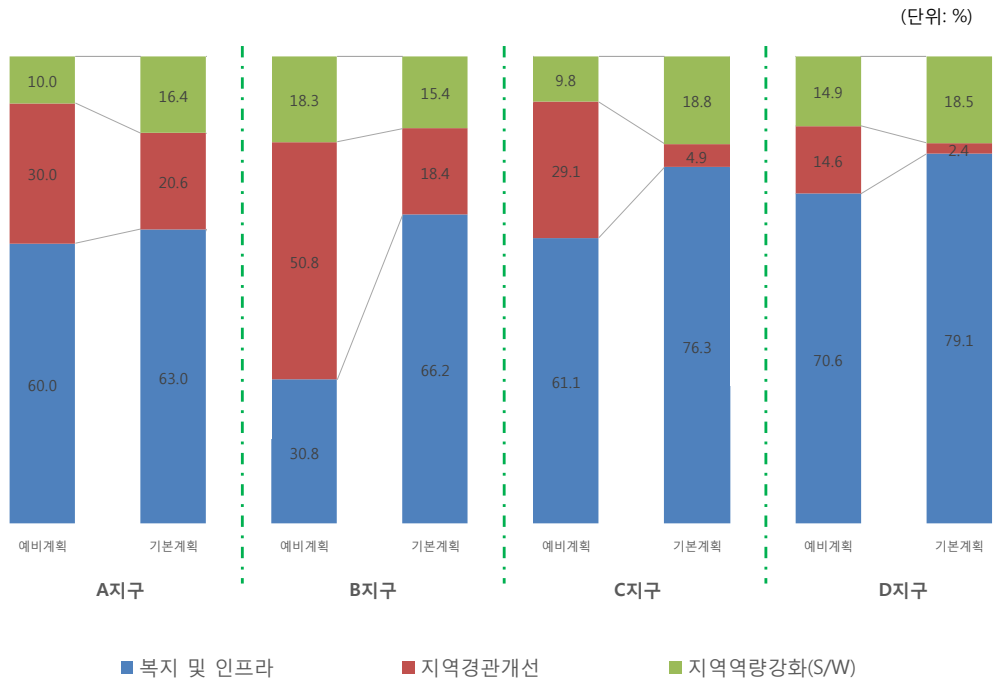


Figure 3. 예비-기본계획 유형별 사업비 변화

Table 3. 예비·기본계획 기능별 사업아이템 비교

구 분	총사업비	기초생활기반			지역관광개신			지역역량강화(S/W)			부대비용	
		예비계획	기본계획	예비계획	기본계획	예비계획	기본계획	예비계획	기본계획	예비계획	기본계획	
A지구	7,000백만원	테마광장 정비 테마공원 조성 복지센터 조성 어울림마당 정비	테마주변정비 복지센터 마을회관	중심테마가로 정비 남만의 길 조성 추억의 길 조성	중심테마가로정비 간판정비 돌담정비 지붕개량 남만의길 조성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구축 정비 읍면발전협의회 지원	교육 컨설팅 마을경영 일반농산어촌지원	기본계획수립비, 세부설계비, 문화재조사비, 환경성검토비, 경관계획수립비, 예비비 등	기본계획수립비 경관형성계획수립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지출	798,298백만원 (11.4%)	385백만원 (5.5%)	798,298백만원 (11.4%)
	사업비	4,200백만원 (60.0%)	4,410백만원 (63.0%)	2,100백만원 (30.0%)	1,441.702백만원 (20.6%)	315백만원 (4.5%)	350백만원 (5.0%)	385백만원 (5.5%)	798,298백만원 (11.4%)			
B지구	- 예비계획: 6,000백만원 - 기본계획: 5,000백만원	다목적열린마당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동생활 홀) 쉼터 조성	복합문화복지센터	하천 정비 두랑길 정비 물안개수변길 조성 수변전망대 조성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경영지원	교육 및 견학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기기 마을경영지원	기본계획, 경관형성계획, 기타	계획, 설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예비비 등	427.4백만원 (8.5%)	760백만원 (12.7%)	427.4백만원 (8.5%)	
	사업비	1,850백만원 (30.8%)	2,938백만원 (58.8%)	3,050백만원 (50.8%)	1,293백만원 (25.9%)	340백만원 (5.7%)	341.6백만원 (6.8%)	760백만원 (12.7%)	427.4백만원 (8.5%)			
C지구	- 예비계획: 6,870백만원 - 기본계획: 6,100백만원	도로·교통(공동주차장, 연결도로) 복지시설(다목적회관) 문화시설(문화광장) 운동휴양(레크리േഷ널, 체육시설)	문화마당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공동주차장	도시경관 - 안내간판설치 - 테마가로경관정비 - 간판정비	교육·훈련 마을홍보 (홍보마케팅, 정보화 구축)	이커뮤니티 컨설팅 정보화 경영지원	마을발전 및 지역마케팅 전략수립, 지속적인 마을운영, 모니터링, 기본계획 설계 등	기본계획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694백만원 (11.4%)	250백만원 (3.6%)	694백만원 (11.4%)	
	사업비	4,200백만원 (61.1%)	3,479.908백만원 (57.0%)	2,000백만원 (29.1%)	1476.092백만원 (24.2%)	420백만원 (6.1%)	450백만원 (7.4%)	250백만원 (3.6%)	694백만원 (11.4%)			
D지구	- 예비계획: 5,612백만원 - 기본계획: 5,286백만원	문화복지회관조성 공동생활홀조성 마을안길정비 공동주차장조성 등산로조성	농업인복지회관 마을회관신축	마을쉼터조성 생태하천정비 복사꽃길조성	복사꽃쉼터 전통마을숲정비 가로경관정비 마을안길정비 등산로정비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마을경영지원 경관형성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지출	기본계획수립비 경관형성계획수립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지출	678백만원 (12.8%)	400백만원 (7.1%)	678백만원 (12.8%)	
	사업비	3,361백만원 (59.9%)	3,203백만원 (60.6%)	1,416백만원 (25.2%)	1,105백만원 (20.9%)	435백만원 (7.8%)	300백만원 (5.7%)	400백만원 (7.1%)	678백만원 (12.8%)			

Table 4. 예비·기본계획 유형별 사업아이템 비교

구 분	총사업비	복지 및 인프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S/W)	
		예비계획	기본계획	예비계획	기본계획	예비계획	기본계획
A지구	7,000백만원	테마광장 정비 테마공원 조성 복지센터 조성 어울림마당 정비	테마추진정비 복지센터 마을회관	중심테마가로 정비 남만의 길 조성 추역의 길 조성	중심테마가로정비 간판정비 돌담정비 지붕개량 남만의길 조성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구축 읍면발전협의회 지원 부대비용	교육 컨설팅 마을경영 일반농산어촌지원 부대비용
	사업비 4,200백만원 (60.0%)	4,410백만원 (63.0%)	2,100백만원 (30.0%)	1,441.702백만원 (20.6%)	700백만원 (10.0%)	1,148.298백만원 (16.4%)	
B지구	- 예비계획: 6,000백만원 - 기본계획: 5,000백만원	다목적열린마당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동생활 홈) 쉼터 조성	북함문화복지센터 쉼터	하천 정비 두랑길 정비 물안개수변길 조성 수변전망대 조성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경영지원 부대비용	교육 및 견학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기기 마을경영지원 부대비용	
	사업비 1,850백만원 (30.8%)	3,309백만원 (66.2%)	3,050백만원 (50.8%)	922백만원 (18.4%)	1,100백만원 (18.3%)	769백만원 (15.4%)	
C지구	- 예비계획: 6,870백만원 - 기본계획: 6,100백만원	도로·교통(공용주차장, 연결도로) 복지시설(다목적회관) 문화시설(문화광장) 운동휴양(레포츠시설, 체육시설)	문화마당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공동주차장 하천수변공간조성	도시경관 - 안내간판설치 - 테마가로경관정비 - 간판정비	교육·훈련 마을홍보(홍보마케팅 , 정보화 구축) 부대비용	아카데미 컨설팅 정보화 경영지원 부대비용	
	사업비 4,200백만원 (61.1%)	4,656백만원 (76.3%)	2,000백만원 (29.1%)	300백만원 (4.9%)	670백만원 (9.8%)	1,144백만원 (18.8%)	
D지구	- 예비계획: 5,612백만원 - 기본계획: 5,286백만원	문화복지회관조성 공동생활홈조성 마을안길정비 공동주차장조성 등산로조성 마을쉼터조성	농업인복지회관 마을회관신축 복사꽃집터 마을안길정비 등산로정비	생태하천정비 복사꽃길조성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마을경영지원 경관형상계획수립 부대비용	교육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부대비용	
	사업비 3,960백만원 (70.6%)	4,183백만원 (79.1%)	817백만원 (14.6%)	125백만원 (2.4%)	835백만원 (14.9%)	978백만원 (18.5%)	

3. 주민의향과 기본계획 사업아이템 비교 분석

주민의향조사 결과가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례대상 4개 지구의 주민의향조사결과와 기본계획 사업 아이템 유형별 사업비 비율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 지구의 지역 주민 대부분은 복지 및 인프라(문화·복지와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A지구의 경우 복지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게(98%) 나타났다. 기본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기본계획 수립 때에도 주민들의 수요 의견대로 예비계획에 비해 복지 및 인프라시설에 대한 사업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지구는 경관개선에 대한 수요(10%)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만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사업비 비중이 예비계획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Figur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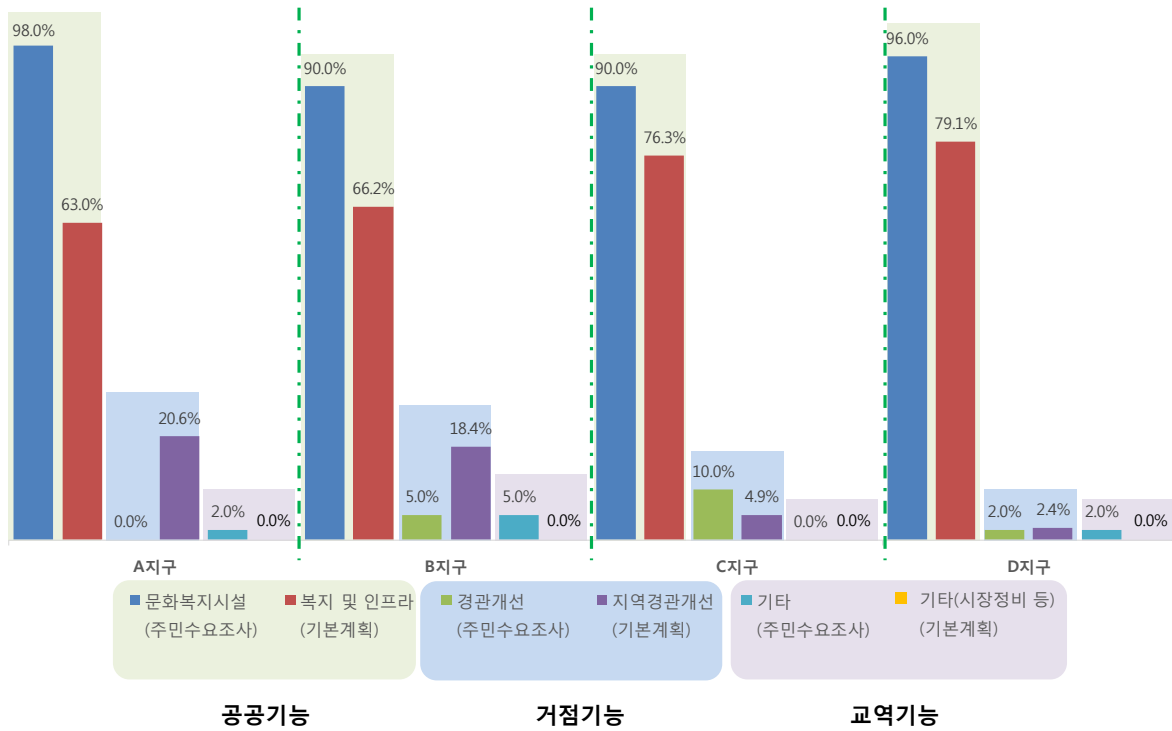


Figure 4. 주민의향조사 결과와 기본계획 사업 아이템별 사업비 비율 비교

4. 중심성 분석과 기본계획 사업아이템 비교 분석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읍면소재지의 부족한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중심성 분석을 통해 중심성이 높은 지역은 거점기능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중심성이 낮은 지역은 기초 인프라 중심으로 투자하는 등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분석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대상 4개 지구의 중심성 분석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구별로 그 기능이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복지 및 인프라 분야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지구는 교역기능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됐지만, 기본계획에서는 교역기능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B지구는 공공·거점기능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됐고, 이를 반영해 기본계획에서는 공공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C지구는 공공기능이 열악한 된 것으로 분석됐는데, 기본계획에서 이를 반영하여 공공기능을 강화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D지구는 거점·공공기능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됐는데, 기본계획에서는 거점기능 사업을 축소하고 공공기능 사업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Figur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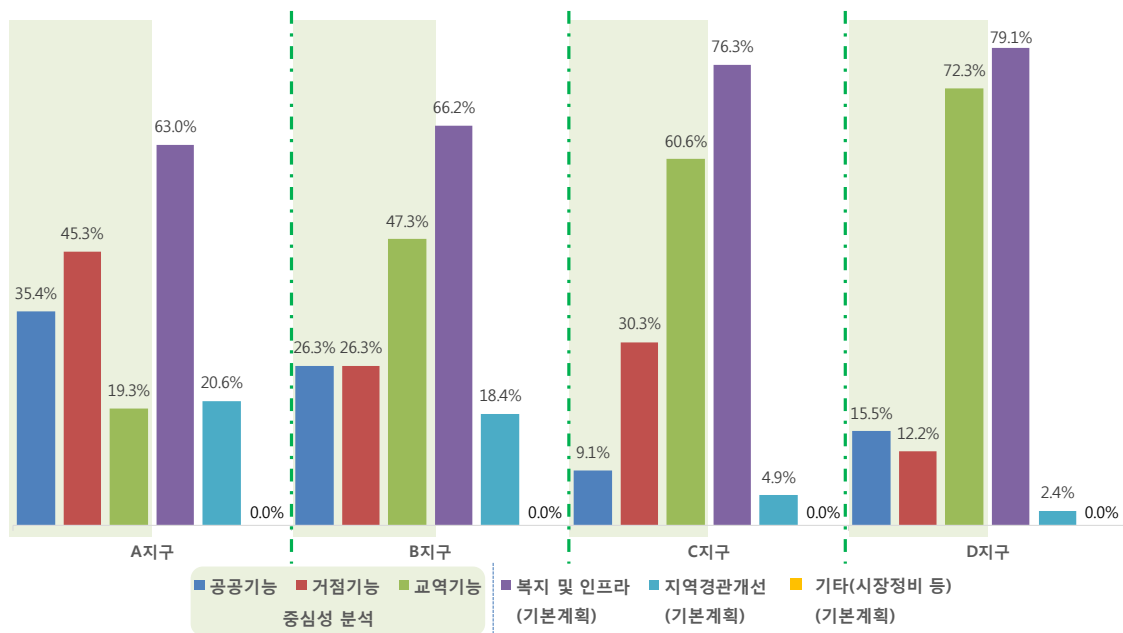


Figure 5. 중심성 분석과 기본계획 사업아이템 비교

IV. 운영관리 지원체계 분석

1. 경상남도 지원 체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부 예비계획과 기본계획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 지원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 체계를 분석하였다.

경남도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이하 공사)와 공동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도 자체점검(전수조사)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기점검 결과 우수한 시·군에게는 신규사업성 검토시 가점(최우수 +5점, 우수 +2점)과 우수사례 타 시·군 전파, 중앙부처 건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점검결과 부진지구는 경남도와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센터), 공사가 공동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시·군에게는 신규사업성 검토시 감점(시·군별 최대 +5점)을 하고 있다(Figure 6). 또한, 완료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부 권역 완료지구 현장포럼에도 경남도와 센터, 공사, 컨설팅 업체 등이 참여하여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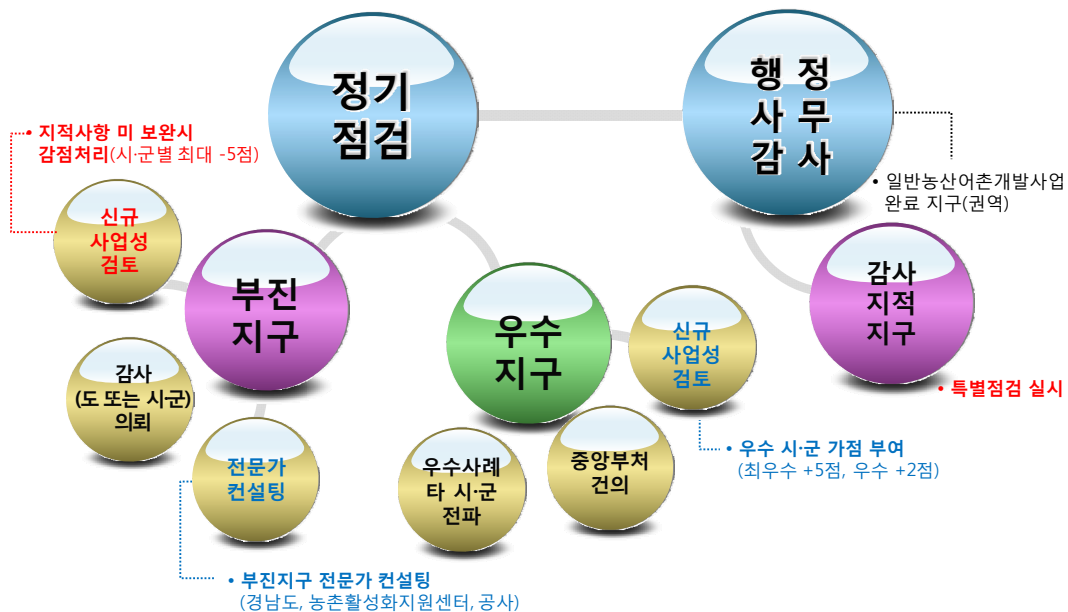


Figure 6.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점검 체계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 자체점검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경남도와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가 합동 워크숍(정기)을 개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 개편에 대응하는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Table 5).

Table 5.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지역개발 업무로드맵(요약)

구 분		업무내용
정기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상시 모니터링 지원 ○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자체 워크숍 강의 및 지원 ○ 현장활동과정 및 현장포럼 운영 지원
	분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현황 분기 별 점검(공사 자체)
월별	3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계자 합동 워크숍(상반기, 경남도)
	5	○ 지역개발사업 경남도 공사 합동점검(상반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모니터링(매출, 지사 위임지표 평가) ○ 기본계획수립지구 중간보고회(지구별, 지자체 주민 참석)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지구 운영실태 점검(공사 자체) ○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 1차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사업 종합평가 지사지표 모니터링 ○ 지역개발사업 경남도 공사 합동점검 부진지구 모니터링(경남도, 센터, 공사)
	9	○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 2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계자 하반기 워크숍(경남도, 지역본부, 센터) ○ 지역개발사업 경남도 공사 합동점검(하반기)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사업 종합평가 지사지표 모니터링 ○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 3차

* 센터: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 지원체계 의견 조사

가. 의견조사 개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추진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남지역 사업 담당자(지자체 공무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를 대상으로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메일과 직접대면조사를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유효한 표본 113부(지자체 56부, 공사 57부)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지자체 공무원(시·군, 도) 56명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57명으로 비슷한 표본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연령은 40대(50.4%)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36.3%)로 전체의 약 86.7%를 차지하였다. 사업 참여기간은 3년 이상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6).

Table 6. 의견조사 개요

소 속			연 령			참여기간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지자체 공무원 (시·군, 도)	56	49.6	30세 미만	12	10.6	1년 미만	22	19.5
			40세 미만	57	50.4	2년 미만	31	27.4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57	50.4	50세 미만	41	36.3	3년 미만	12	10.6
			50세 이상	3	2.7	3년 이상	48	42.5
합 계	113	100	합계	113	100	합계	113	100

나. 분석결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추진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소속과 참여기간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참여기간에 따른 특별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소속별 교차분석 결과를 분석하였다.

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질문

사업 담당자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주민협조와 이해부족’이 전체의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각종규제와 행정지원(16.8%)’, ‘경험부족(10.6%)’, ‘부지확보(6.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4명 중 3명이 ‘주민협조와 이해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Figur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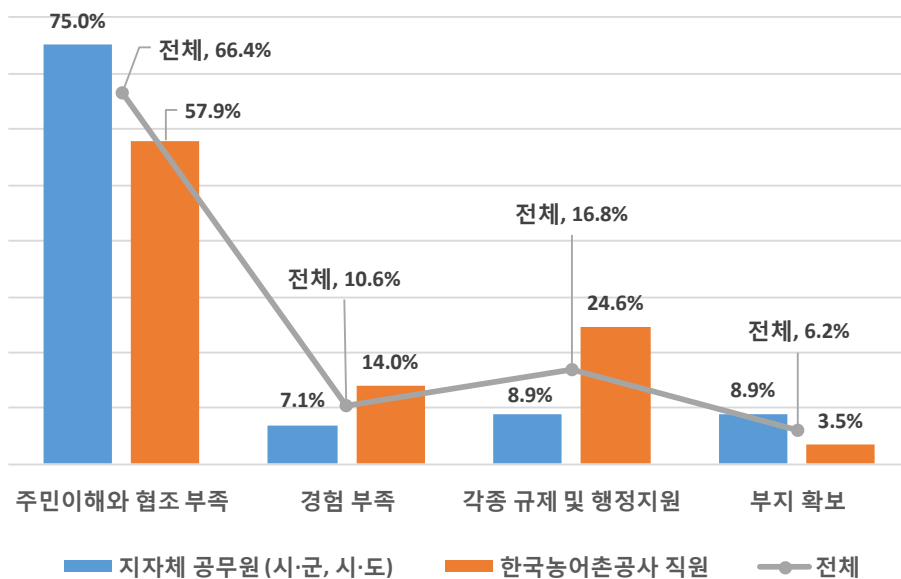


Figure 7. 사업 담당하는 동안 가장 어려운 점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내실 있는 계획(기본/시행) 수립'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ur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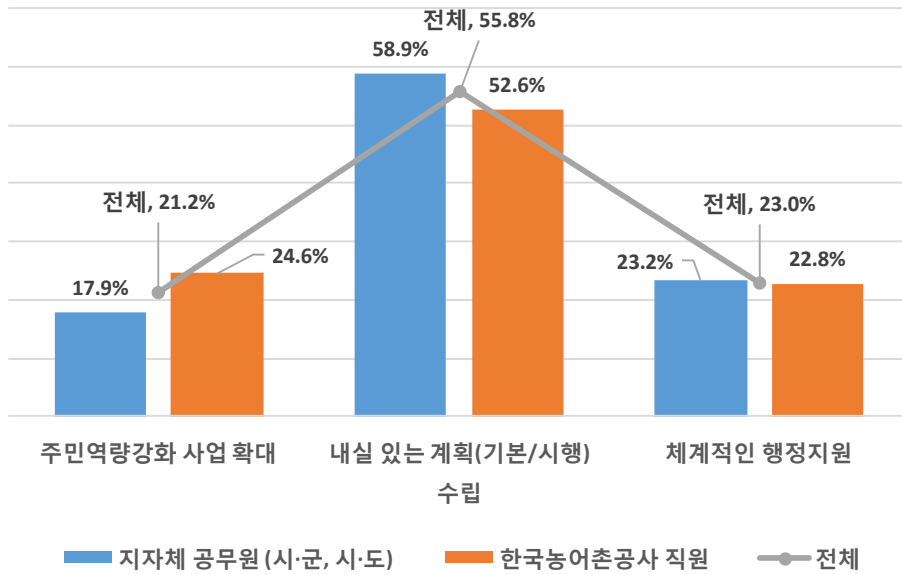


Figure 8.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완할 점

사업추진과정에서 잦은 계획(기본/시행 등) 변경이 일어나는 이유로 '지자체 및 추진위원회의 정책방향 변화(50.4%)'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한편, 소속별로 다른 응답을 보였는데, 공사 직원의 64.9%가 '지자체 및 추진위원회의 정책방향 변화'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고, 다음으로 '지자체(공사)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사업의 연속성 결여(12.3%)', '계획수립자의 전문성 부족(10.5%)' 순서인데 반해, 지자체 공무원은 '지자체 및 추진위원회의 정책방향 변화(35.7%)', '계획 수립자의 전문성 부족(30.4%)', '짧은 기본/시행계획 수립기간(8.8%)' 순으로 나타나 다른 시각을 보였다(Figur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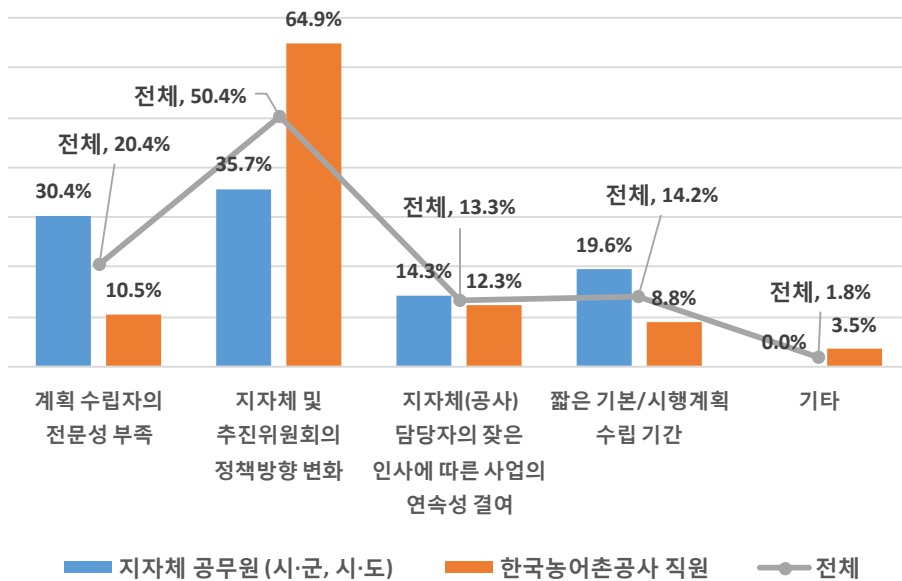


Figure 9. 사업 추진과정에서 잦은 계획변경 이유

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질문

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6.5%가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된다 31.9%, 도움이 되는 편이다 64.6%)고 응답하였다(Table 7).

Table 7. 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구 분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전체
분류	지자체 공무원 (시·군, 시·도)	빈도	22	33	1	56
		비율	39.3%	58.9%	1.8%	100.0%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빈도	14	40	3	57
		비율	24.6%	70.2%	5.3%	100.0%
전체		빈도	36	73	4	113
		비율	31.9%	64.6%	3.5%	100.0%

한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응답자의 72.5%가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을 꼽아 사업비 투자 비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Figur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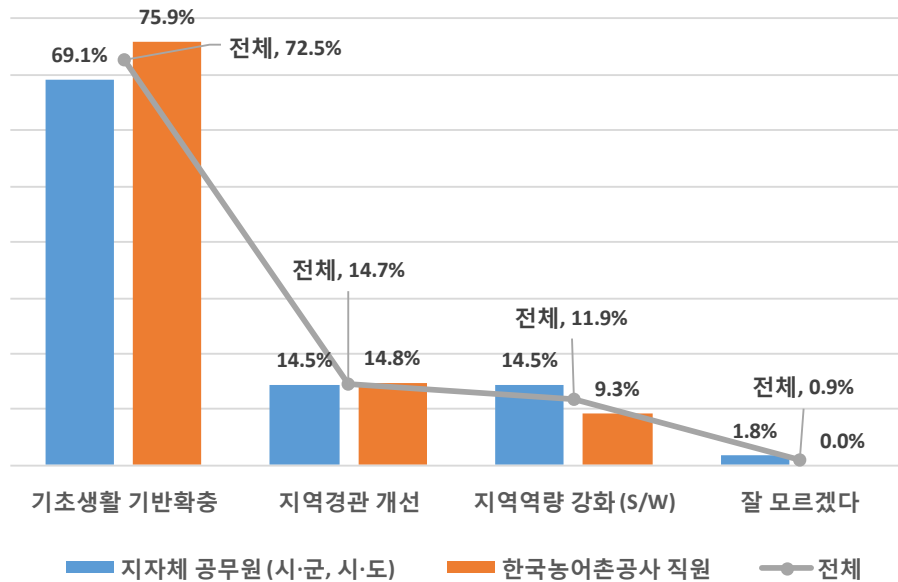


Figure 10. 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

3) 운영관리 지원체계에 대한 질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센터 등)의 운영관리 주체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78.8%가 운영위원회(주민)가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지자체(15%), 지자체 산하기관(4.4%), 기타(1.8%) 순으로 나타나 관리주체는 명확하게 주민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Table 8. 준공된 시설물(센터 등) 운영관리 주체

구 분		운영위원회 (주민)	지자체 (시·군)	지자체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 등)	기타	전체	
분류	지자체 공무원 (시·군, 시·도)	빈도	48	7	1	0	56
		비율	85.7%	12.5%	1.8%	0.0%	100.0%
	한국농어촌 공사 직원	빈도	41	10	4	2	57
		비율	71.9%	17.5%	7.0%	3.5%	100.0%
전체		빈도	89	17	5	2	113
		비율	78.8%	15.0%	4.4%	1.8%	100.0%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사업지구에 대해 【농식품부→농관원→지자체(도)】등 3단계 점검(계획의 적정성, 활용도, 운영관리) 체계로 사후관리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점검 시스템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유효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73.4%로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Figur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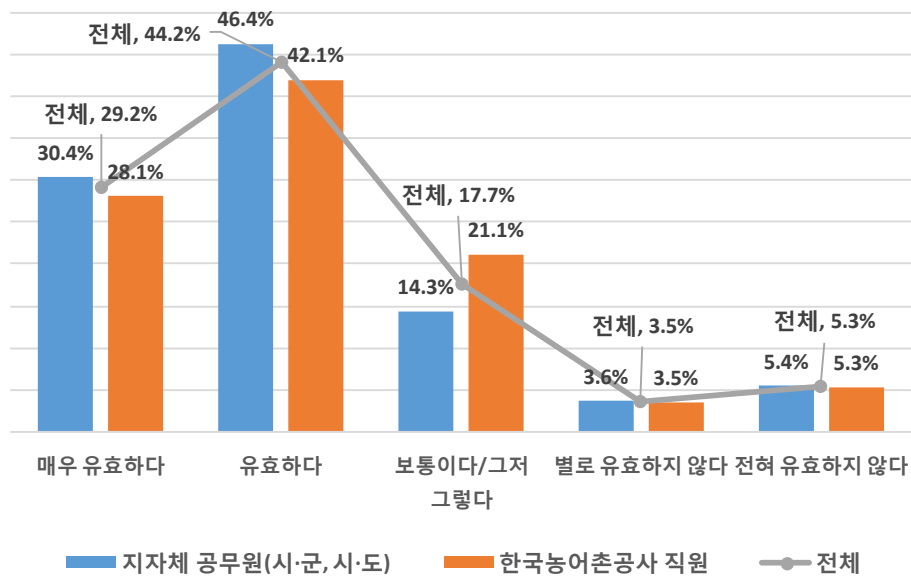


Figure 11. 농식품부 3단계 점검 효과

경남도는 【자체점검→점검결과 부진지구 자체 조치→컨설팅】의 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체점검 역시 전체의 85.9%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92.9%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Figur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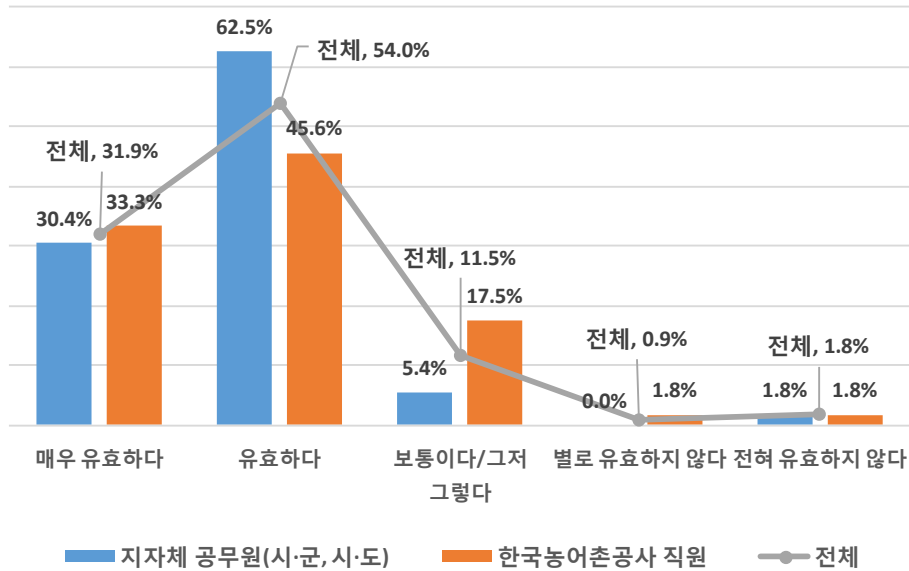


Figure 12. 경남도 자체점검 효과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자체점검→점검결과 부진지구 컨설팅】의 시스템으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체점검도 응답자의 91.8%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유효하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다(Figur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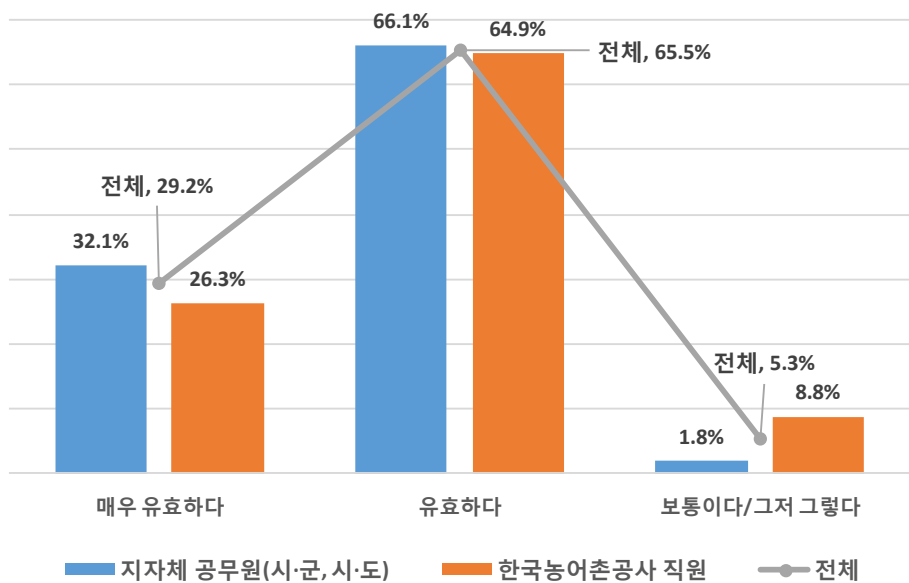


Figure 13. 공사 모니터링 및 컨설팅 효과

한편, 경남도와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매년 공동으로 부진지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부진지구 컨설팅에 대해 응답자의 87.6%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사업이 완료된 후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지자체의 만족도가 공사 직원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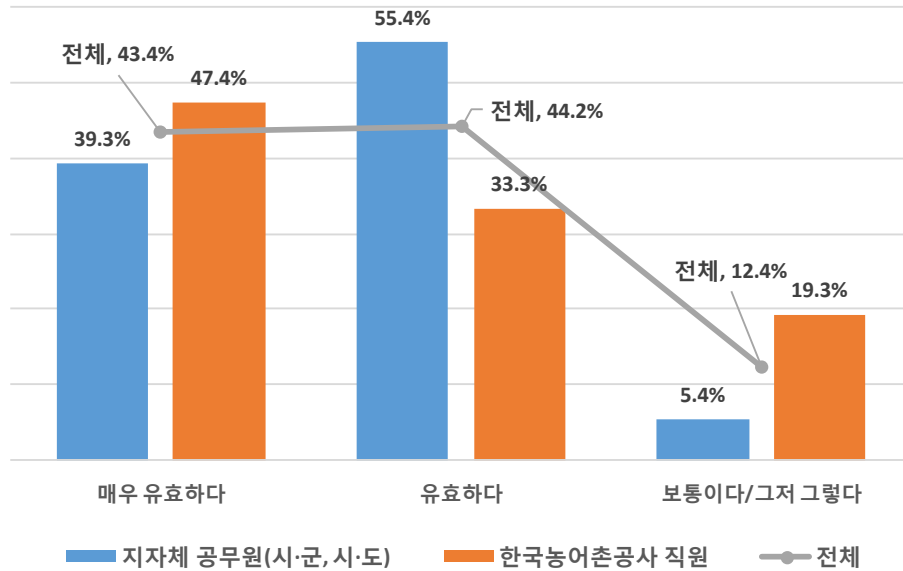


Figure 14. 경남도와 센터, 공사 공동 부진지구 컨설팅 효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시스템 중 사후관리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될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경남도 자체점검/통보 및 부진지구 지자체 조치, 경남도와 센터 공동 컨설팅(44.2%)’,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점검 및 컨설팅(35.4%)’, ‘농식품부 3단계 점검 및 컨설팅(20.4%)’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소속별로 살펴보면, 지자체 공무원은 경남도(합동)와 공사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이 상대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공사 직원의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경남도(합동) 컨설팅이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Figur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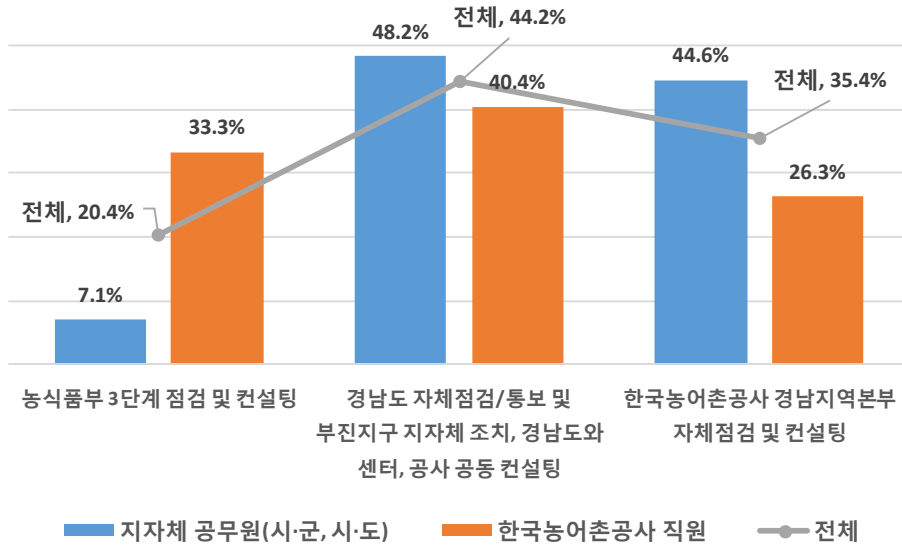


Figure 15. 사후관리 활성화에 가장 유효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마지막으로 농촌중심지활성사업의 성과 고양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강화’가 전체의 54.9%로 ‘지속적인 주민역량 강화 교육(27.4%)’, ‘추가 예산 지원(16.8%)’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Figur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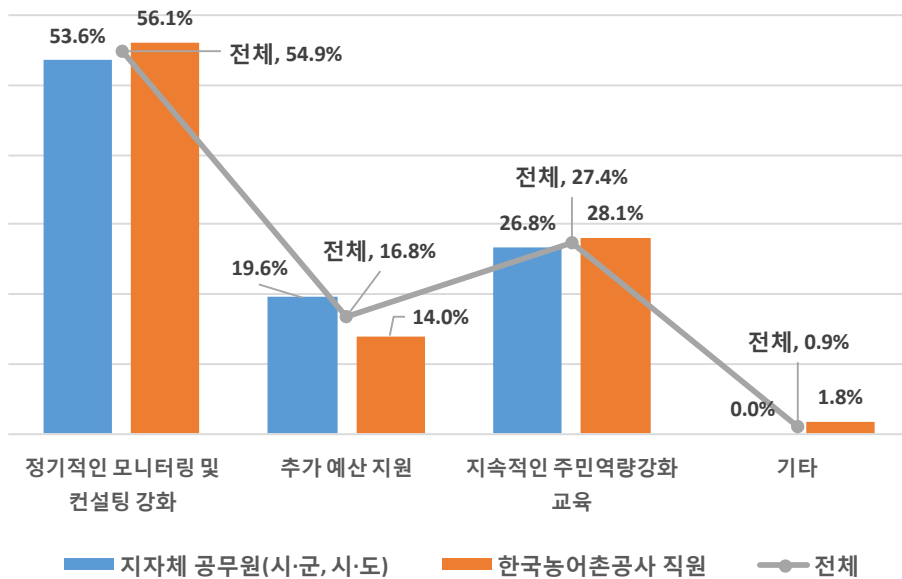


Figure 16. 앞으로 사업의 성과 고양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

3. 해외 중심지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³⁾

가.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중심시가지활성화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대응을 보면, 초기에는 상업 활성화에만 치중하였지만 점차 상업 활성화와 시가지정비를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발전하였다. 1998년부터 시행된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에 의해 355개(2001년 기준) 시정촌에서 중심시가지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호응을 받고 있다.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의 핵심은 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률상의 특례조치는 물론 보조, 용자, 세제특례 등의 국가 지원이다. 또한, 지역특성이나 지역주민, 사업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결정하고,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를 설치하여 업종 구성, 점포배치, 기반정비 등을 일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Table 9와 같이 시정촌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는 시정촌합병 지원시책과 지역의 다양성 발전을 위한 농촌중심지 관련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3) 고영배(2009)의 '거점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기능설정 및 유형화 모델정립' 박사학위 논문에서 요약 발췌

Table 9. 일본의 농촌중심지 관련 정책

공간규모	사업명	목 표	내 용
시정촌의 중심지	상점가진흥정비 특별사업	지역기반의 상점가정비 및 마을만들기	- 지역상업진흥을 위한 시설정비 - 소비자를 모을 수 있는 상점가 시설정비 - 매력있는 보행공간 정비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도시기능의 증진 및 경제활력의 향상 도모	- 시가지의 정비와 상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체적으로 추진
일부 시정촌	과소지역 자립촉진 시정촌계획	과소지역의 생산기능 및 생활환경 정비	- 안정적 고용증대 - 정보화와 타지역간 교류촉진 -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 - 특색있는 지역사회 건설 - 지역재편 촉진
	과소지역내 시정촌활성화 사업	도농교류	- 고향 C&C 모델사업 - 리프레쉬 고향 추진 모델사업 - 緣의 후루사토·후레아이 프로젝트 - 과소지역 활성화 추진 모델사업 - 과소지역 취락재편정비사업 - 과소지역 체재시설정비 모델사업 - 산촌도시 교류환경종합정비 모델사업
	신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지역산업육성, 지역경제의 구조전환	- 지역경제진흥형 - 특정업종 의존형 - 독창적사업추진형
시정촌	고향만들기사업	지역주도의 특색있는 지역만들기	- 역사·전통문화 보존, 학습 문화시설 정비 - 건강·스포츠·레크레이션 시설 정비 - 환경정비, 도시기반정비 - 교류·정보네트워크 정비 - 지역산업 육성, 복합지구 형성
시정촌의 통합	시정촌합병 지원정책	시정촌 행정체계의 합병	- 행정지원책 - 재정지원 - 관계부처 지원사업
몇 개의 시정촌	640개의 지역전략계획	지역의 다양성 발현	- 교통공간 정비 - 지방정주 및 교류거점 정비 - 여가공간 및 관광공간 정비 - 전원·삼림·연안역·산간지역 정비 - 거주환경 정비

* 자료: 한상욱 등, 2006,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면소재지 기능강화방안, 충남발전연구원

나. 영국의 시장도읍시책(Market Town Initiative)

영국은 시장도읍을 활성화 하려는 지역파트너십이 형성되면서 도심부 재생시책들이 확산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도 지역의 경제·사회·환경적 재생거점으로서 시장도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장도읍 진흥대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시장도읍진흥대상(National Market Town Awards)은 효과적인 시장도읍 재생프로그램의 가능 성과에 대한 중요한 쇼케이스(showcase)로 활용하는 것을 장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성이 발휘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환경 및 문화, 사회 및 지역공동체, 비즈니스 및 경제, 파트너십과 전략적 작업 등 4개 부문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7개 권역의 주제별 수상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 Table 10과 같다.

Table 10. 영국의 시장도입진흥대상 주제별 요약

부 문	프로그램	개 요
사회·지역 사회부문	청소년 이용시설	'60년대 낡은 건물을 개조하여 청소년 클럽 개량·확장
	커뮤니티센터(보수)	1912년 건축된 극장을 보전·개수하여 활용
	HOPE 가족센터	모든 연령계층, 사회적 소외자를 대상으로 가족서비스시설 신축
	학습 씨뿌리기	생활관련기술 학습, 지역사회주도 학습, 학습기회 확대시설 개발
	커뮤니티센터(신축)	옛 가축시장 부지에 지역사회사무실·학습센터·예술활동공간·기업지원시설 마련
	침대경주행사	세계적 명성을 지닌 Knaresborough 침대경주 개최
	장애자용 물리치료 시책	스포츠센터에 장애우들의 수요에 부응한 보완적 조치
기업·경제 부문	첨단해변엽서발행	12분 상영의 Hayling섬 문화유산을 담은 DVD 엽서 제작
	창업보육시설 설치	기업센터의 빈공간에 창업 또는 기존기업용 보육시설 설치
	Pavillion 복구·활용	크리켓 구장의 Pavillion을 사회적 기업인 아이스크림 판매장과 카페로 개조하여 장애인 고용
	지역사회센터 설치	옛 경찰서를 개수하여 방문자·비즈니스·지역사회센터화 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쇼핑객 재유치	대형 유통업체에 적용되고 있는 고객 유치기법을 도입하여 보상카드, 소매점 시상, 쇼핑가이드, 가게외관 개량
	빈공간의 새로운 이용	가게 이층 빈공간의 사무실 전환, 가게 전면부 개량, 건물 복구
	지역사회서비스센터	유산으로 등재된 건물을 복구하여 작업공간, 기업지원·학습·지역사회시설로 활용
환경·문화 부문	옛 방앗간 수로 복구	지역의 흉물로 전락한 개천을 자연형으로 보수·미화
	예술 축제 개최	다양한 예술활동, 퍼포먼스, 전시회, 워크숍 진행을 통해 예술인 그룹·주민들의 열광·확신 유발
	지역발견행사 개최	홍수·아구창병 만연에 의해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일신키 위해 매 주말 'Bewdley 재발견' 행사 개최
	수변환경 개선	독특한 하천관문을 고급표준을 적용·미화하고 일상적 이용에 의해 지역발전에 기여
	지역부흥사업	중심가로 물뿌리, 브로셔 제작, 주민의 다양한 기부·봉사·참여에 의해 지역의 분위기 일신
	전국 트레일로의 관문 설치	전국 도보·사이클 트레일의 동단부를 감각적 설계개념에 의해 기종점 공간화
파트너십 ·전략적 작업부문	유산·관광 감사	지역대학의 학부생들이 지역사회 협조 하에 문화·유산에 대한 방문자 조사, 참여관찰, 관광 감사 수행
	도입 벤치마킹사업	14개 도입들이 합동으로 자원봉사팀을 구성하여 각개 도입의 수행도를 12개의 핵심수행지표에 의해 확인
	운하도입의 부두 복구	훼손된 건물·정박지·역사적 구조물 등 운하환경을 복구·고양하고 관련 역사·문화적 유산 교육
	지역사회자원·학습 센터	도심부 건물을 개조하여 회의·야외행사시설, IT·기술개발실, 정보·조언·지도 서비스 공간 확보
	지역사회 비전 실현 계획	스스로 계획, 완전한 참여, 스스로 조직화하고 사업을 계획·조정·교류·수행하는 적극적 시도
	보행자 환경 도입	산보차 오는 방문객을 위해 도입의 평판 강화, 지역주민들의 걷기 장려 및 '보행자의 날' 축제 참여
	시장도입 진보전략	시장도입 네트워크 설립에 의해 경험의 학습·공유 및 일관·객관적인 해결책 제시

4. 고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민이 해와 협조 부족으로 지속적인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짧은 계획수립 기간과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내실 있는 기본/시행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사업 지원체계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농식품부의 3단계 점검과 더불어 경남도 자체점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경남도와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공사의 공동부진지구 컨설팅 등이 대체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중앙정부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경남도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모니터링과 컨설팅이 더 효과적이라 응답하여 지자체와 지역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의 성과를 고양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합동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과 더불어 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이전의 사업 목적에 따른 다양한 사업내용과는 달리 일부 지구의 경우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이나 선정되기 위한 계획으로 변질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일본과 영국 등 해외 정책 및 프로그램과 같이 사업 유형과 프로그램을 세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정책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의 네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능별 사업비 변경에 대한 규제 강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촌중심지의 중심 기능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일부지구의 경우 기초생활기반시설의 확충에만 집중하여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능별 사업비 변경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심성 분석 의무화 및 사업 연계성 강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SWOT분석과 중심성 분석(계층분석), 주민수요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농촌중심지의 약화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립이 필요한데, 중심성 분석을 의무화하고 사업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성과를 고양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남의 점검시스템 사례처럼 광역지자체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유형 개발 및 프로그램 다양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촌중심지의 중심기능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기초생활기반시설의 확충에 집중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특성 따른 사업유형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과 추진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내부자료(경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관리현황)
2. 고영배, 2009, 거점면 소재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개발모델 정립,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2007, 농촌마을리모델링 기법개발에 관한 연구 -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I)
4. 농림수산식품부, 2011, 농산어촌 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보완 가이드라인
5. 농림축산식품부, 2013,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6.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지침서
7. 사례대상 4개지구 예비계획서·기본계획서
8.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내부자료(지역개발 업무로드맵)
9. 한상욱 등, 2006,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면소재지 기능강화방안, 충남발전연구원

문9) 현재 농식품부는 아래와 같이 3단계 점검 시스템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 시스템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사업지구에 대해 【농식품부→농관원→지자체(도)】 등 3단계 점검(계획의 적정성, 활용도, 운영관리) 체계로 사후관리 및 컨설팅을 실시 중

- ① 매우 유효하다
- ② 유효하다
- ③ 보통이다/그저 그렇다
- ④ 별로 유효하지 않다
- ⑤ 전혀 유효하지 않다

문10) 현재 경남도는 【자체점검→점검결과 부진지구 자체 조치→컨설팅】의 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사업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유효하다
- ② 유효하다
- ③ 보통이다/그저 그렇다
- ④ 별로 유효하지 않다
- ⑤ 전혀 유효하지 않다

문11)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자체점검→점검결과 부진지구 컨설팅】의 시스템으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사업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유효하다
- ② 유효하다
- ③ 보통이다/그저 그렇다
- ④ 별로 유효하지 않다
- ⑤ 전혀 유효하지 않다

문12) 현재 경남도와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는 매년 공동으로 부진지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사업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유효하다
- ② 유효하다
- ③ 보통이다/그저 그렇다
- ④ 별로 유효하지 않다
- ⑤ 전혀 유효하지 않다

문13) 귀하는 아래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시스템 중 사후관리 활성화에 어느 시스템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식품부 3단계 점검 및 컨설팅
- ② 경남도 자체점검/통보 및 부진지구 지자체 조치
- ③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점검 및 컨설팅
- ④ 경남도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공동 컨설팅

문14) 귀하는 향후 농촌중심지활성사업의 성과 고양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 ①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강화
- ② 추가 예산 지원
- ③ 지속적인 주민역량강화 교육
- ④ 기타()

▶▶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 의견조사 결과

1) 의견조사 개요

Table 1-1. 의견조사 개요

소 속			연 령			참여기간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지자체 공무원 (시·군, 도)	56	49.6	30세 미만	12	10.6	1년 미만	22	19.5
			40세 미만	57	50.4	2년 미만	31	27.4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57	50.4	50세 미만	41	36.3	3년 미만	12	10.6
			50세 이상	3	2.7	3년 이상	48	42.5
합 계	113	100	합계	113	100	합계	113	100

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과정

Table 1-2. 사업 담당하는 동안 가장 어려운 점

구 분		주민이해와 협조 부족	경험 부족	각종 규제 및 행정지원	부지 확보	전체	
분류	지자체 공무원 (시·군, 시·도)	빈도	42	4	5	5	56
		분류 중%	75.0%	7.1%	8.9%	8.9%	100.0%
		전체%	37.2%	3.5%	4.4%	4.4%	49.6%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빈도	33	8	14	2	57
		분류 중%	57.9%	14.0%	24.6%	3.5%	100.0%
		전체%	29.2%	7.1%	12.4%	1.8%	50.4%
전체	빈도	75	12	19	7	113	
	분류 중%	66.4%	10.6%	16.8%	6.2%	100.0%	
	전체%	66.4%	10.6%	16.8%	6.2%	100.0%	

Table 1-3.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 반영 여부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전체	
분류	지자체 공무원 (시·군, 시·도)	빈도	10	41	5	56
		분류 중%	17.9%	73.2%	8.9%	100.0%
		전체%	8.8%	36.3%	4.4%	49.6%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빈도	8	36	13	57
		분류 중%	14.0%	63.2%	22.8%	100.0%
		전체%	7.1%	31.9%	11.5%	50.4%
전체	빈도	18	77	18	113	
	분류 중%	15.9%	68.1%	15.9%	100.0%	
	전체%	15.9%	68.1%	15.9%	100.0%	

Table 1-4.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완할 점

구 분		주민역량강화 사업 확대	내실 있는 계획(기본/시행) 수립	체계적인 행정지원	전체	
분류	지자체 공무원 (시·군, 시·도)	빈도	10	33	13	56
		분류 중%	17.9%	58.9%	23.2%	100.0%
		전체%	8.8%	29.2%	11.5%	49.6%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빈도	14	30	13	57
		분류 중%	24.6%	52.6%	22.8%	100.0%
		전체%	12.4%	26.5%	11.5%	50.4%
전체	빈도	24	63	26	113	
	분류 중%	21.2%	55.8%	23.0%	100.0%	
	전체%	21.2%	55.8%	23.0%	100.0%	

Table 1-5. 사업 추진과정에서 잦은 계획변경 이유

구 분		계획 수립자의 전문성 부족	지자체 및 추진위원회의 정책방향 변화	지자체(공사) 담당자의 잦은 인사에 따른 사업의 연속성 결여	짧은 기본/시행 계획 수립 기간	기타	전체	
분류	지자체 공무원 (시·군, 시·도)	빈도	17	20	8	11	0	56
		분류 중 %	30.4%	35.7%	14.3%	19.6%	0.0%	100.0%
		전체 %	15.0%	17.7%	7.1%	9.7%	0.0%	49.6%
	한국 농어촌 공사 직원	빈도	6	37	7	5	2	57
		분류 중 %	10.5%	64.9%	12.3%	8.8%	3.5%	100.0%
		전체 %	5.3%	32.7%	6.2%	4.4%	1.8%	50.4%
전체	빈도	23	57	15	16	2	113	
	분류 중 %	20.4%	50.4%	13.3%	14.2%	1.8%	100.0%	
	전체 %	20.4%	50.4%	13.3%	14.2%	1.8%	100.0%	

4)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성과

Table 1-6. 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구 분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전체	
분류	지자체 공무원 (시·군, 시·도)	빈도	22	33	1	56
		분류 중%	39.3%	58.9%	1.8%	100.0%
		전체%	19.5%	29.2%	0.9%	49.6%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빈도	14	40	3	57
		분류 중%	24.6%	70.2%	5.3%	100.0%
		전체%	12.4%	35.4%	2.7%	50.4%
전체	빈도	36	73	4	113	
	분류 중%	31.9%	64.6%	3.5%	100.0%	
	전체%	31.9%	64.6%	3.5%	100.0%	

Table 1-7. 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

구 분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S/W)	잘 모르겠다	전체	
분류	지자체 공무원 (시·군, 시·도)	빈도	38	8	8	1	55
		분류 중%	69.1%	14.5%	14.5%	1.8%	100.0%
		전체%	34.9%	7.3%	7.3%	0.9%	50.5%
	한국농어촌 공사 직원	빈도	41	8	5	0	54
		분류 중%	75.9%	14.8%	9.3%	0.0%	100.0%
		전체%	37.6%	7.3%	4.6%	0.0%	49.5%
전체	빈도	79	16	13	1	109	
	분류 중%	72.5%	14.7%	11.9%	0.9%	100.0%	
	전체%	72.5%	14.7%	11.9%	0.9%	100.0%	

5) 운영관리 지원체계

Table 1-8. 준공된 시설물(센터 등) 운영관리 주체

구 분		운영위원회 (주민)	지자체 (시·군)	지자체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 등)	기타	전체	
분류	지자체 공무원 (시·군, 시·도)	빈도	48	7	1	0	56
		분류 중%	85.7%	12.5%	1.8%	0.0%	100.0%
		전체%	42.5%	6.2%	0.9%	0.0%	49.6%
	한국농어촌 공사 직원	빈도	41	10	4	2	57
		분류 중%	71.9%	17.5%	7.0%	3.5%	100.0%
		전체%	36.3%	8.8%	3.5%	1.8%	50.4%
전체	빈도	89	17	5	2	113	
	분류 중%	78.8%	15.0%	4.4%	1.8%	100.0%	
	전체%	78.8%	15.0%	4.4%	1.8%	100.0%	

Table 1-9. 농식품부 3단계 점검 효과

구 분		매우 유효하다	유효 하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별로 유효하 지 않다	전혀 유효하 지 않다	전체	
분류	지자체 공무원(시·군, 시·도)	빈도	17	26	8	2	3	56
		분류 중%	30.4%	46.4%	14.3%	3.6%	5.4%	100.0%
		전체%	15.0%	23.0%	7.1%	1.8%	2.7%	49.6%
	한국농어촌 공사 직원	빈도	16	24	12	2	3	57
		분류 중%	28.1%	42.1%	21.1%	3.5%	5.3%	100.0%
		전체%	14.2%	21.2%	10.6%	1.8%	2.7%	50.4%
전체	빈도	33	50	20	4	6	113	
	분류 중%	29.2%	44.2%	17.7%	3.5%	5.3%	100.0%	
	전체%	29.2%	44.2%	17.7%	3.5%	5.3%	100.0%	

Table 1-10. 경남도 자체점검 효과

구 분		매우 유효하 다	유효하 다	보통이 다/그저 그렇다	별로 유효하 지 않다	전혀 유효하 지 않다	전체	
분류	지자체 공무원(시·군, 시·도)	빈도	17	35	3	0	1	56
		분류 중%	30.4%	62.5%	5.4%	0.0%	1.8%	100.0%
		전체%	15.0%	31.0%	2.7%	0.0%	0.9%	49.6%
	한국농어촌 공사 직원	빈도	19	26	10	1	1	57
		분류 중%	33.3%	45.6%	17.5%	1.8%	1.8%	100.0%
		전체%	16.8%	23.0%	8.8%	0.9%	0.9%	50.4%
전체	빈도	36	61	13	1	2	113	
	분류 중%	31.9%	54.0%	11.5%	0.9%	1.8%	100.0%	
	전체%	31.9%	54.0%	11.5%	0.9%	1.8%	100.0%	

Table 1-11. 공사 모니터링 및 컨설팅 효과

구분			매우 유효하다	유효하다	보통이다/그저 그렇다	전체
분류	지자체 공무원(시·군, 시·도)	빈도	18	37	1	56
		분류 중%	32.1%	66.1%	1.8%	100.0%
		전체%	15.9%	32.7%	0.9%	49.6%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빈도	15	37	5	57
		분류 중%	26.3%	64.9%	8.8%	100.0%
		전체%	13.3%	32.7%	4.4%	50.4%
전체	빈도	33	74	6	113	
	분류 중%	29.2%	65.5%	5.3%	100.0%	
	전체%	29.2%	65.5%	5.3%	100.0%	

Table 1-12. 경남도와 센터, 공사 공동 부진지구 컨설팅 효과

구분			매우 유효하다	유효하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전체
분류	지자체 공무원(시·군, 시·도)	빈도	22	31	3	56
		분류 중%	39.3%	55.4%	5.4%	100.0%
		전체%	19.5%	27.4%	2.7%	49.6%
	한국농어촌 공사 직원	빈도	27	19	11	57
		분류 중%	47.4%	33.3%	19.3%	100.0%
		전체%	23.9%	16.8%	9.7%	50.4%
전체	빈도	49	50	14	113	
	분류 중%	43.4%	44.2%	12.4%	100.0%	
	전체%	43.4%	44.2%	12.4%	100.0%	

Table 1-13. 사후관리 활성화에 가장 유효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구 분		농식품부 3단계 점검 및 컨설팅	경남도 자체점검/통보 및 부진지구 지자체 조치, 경남도와 센터, 공사 공동 컨설팅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자체점검 및 컨설팅	전체	
분류	지자체 공무원(시·군, 시·도)	빈도	4	27	25	56
		분류 중 %	7.1%	48.2%	44.6%	100.0%
		전체%	3.5%	23.9%	22.1%	49.6%
	한국농어촌 공사 직원	빈도	19	23	15	57
		분류 중 %	33.3%	40.4%	26.3%	100.0%
		전체%	16.8%	20.4%	13.3%	50.4%
전체	빈도	23	50	40	113	
	분류 중 %	20.4%	44.2%	35.4%	100.0%	
	전체%	20.4%	44.2%	35.4%	100.0%	

Table 1-14. 앞으로 사업의 성과 고양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

구 분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강화	추가 예산 지원	지속적인 주민역량 강화 교육	기타	전체	
분류	지자체 공무원(시·군, 시·도)	빈도	30	11	15	0	56
		분류 중%	53.6%	19.6%	26.8%	0.0%	100.0%
		전체%	26.5%	9.7%	13.3%	0.0%	49.6%
	한국농어촌 공사 직원	빈도	32	8	16	1	57
		분류 중%	56.1%	14.0%	28.1%	1.8%	100.0%
		전체%	28.3%	7.1%	14.2%	0.9%	50.4%
전체	빈도	62	19	31	1	113	
	분류 중%	54.9%	16.8%	27.4%	0.9%	100.0%	
	전체%	54.9%	16.8%	27.4%	0.9%	100.0%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경상대학교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센터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2017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2017. 1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부설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목차

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
제2장 이론적 고찰	4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4
2. 마을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5
3. 농촌현장포럼	8
제3장 농촌현장포럼 전·후의 효과 분석	10
1. 설문조사 개요	10
2. 설문조사 분석결과	11
3. 설문조사 분석결과 종합	22
제4장 역량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24
1. 설문조사 개요	24
2. 설문조사 분석결과	25
3. 설문조사 분석결과 종합	42
제5장 사업대상마을의 현장포럼내용 및 예비계획서 비교	46
1. 제주지역 농촌현장포럼 대상 마을 현황	46
2. 현장포럼 결과 및 예비계획서 비교	47
제6장 사업대상마을의 기본계획서 검토	71
1. 마을별 기본계획서 수립 내용	71
2. 사업 추진 중인 마을 현황	79
3. 예비계획서 및 기본계획서 분석결과 종합	83
제7장 정책적 제언	86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경제 문제 등 농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발굴하는 농촌개발정책으로 농촌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제주지역의 경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포함) 11읍면동,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14권역(30개 마을), 마을단위사업 19마을, 시군창의 아이디어사업(6마을)이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음.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액사업 및 타 중앙부서의 농촌지역개발 관련 사업 등을 포함하면 다양한 규모와 영역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2000년 이전의 지역개발사업은 행정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일부 지역은 리더가 계획에 동참하였지만 주민들의 참여는 극히 제한되었음. 2000년 이후에는 주민에 의한 상향식 계획의 패러다임이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주민에 의하여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기 보다는 행정이나 농어촌공사, 컨설팅 업체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해 수립되는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마을개발방식은 마을 전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마을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결과적으로 주민의 불만이나 주민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사업성이 떨어지며, 사후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 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음. 또한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의 성격에 부합된 특색 있는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였고, 많은 마을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계획되어져 농촌마을의 경쟁력이 저하되었음.
-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마을 역량 단계별 추진체계’를 통하여 마을역량에 맞는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13년부터 ‘마을 역량 단계별 추진체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비단계에서는 ‘농촌현장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진입단계에서는 창조적마을만들기와 중규모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며, 발전단계에서는 마을 및 권역단위 종합개발을 지원하며, 자립단계에서는 완로지구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예비단계인 역량강화 및 자체사업을 경험한 뒤 중규모 사업과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비단계의 주요정책 프로그램으로 ‘농촌현장포럼’을 운영하고 있음. 농촌현장포럼은 마을만들기 사

업의 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을 참여시켜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주민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들이 마을의 자원을 찾고, 비전을 제시하고, 마을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 농촌현장포럼은 2012년 시범운영 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총 1,456개의 마을이 현장포럼을 운영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한 마을까지 포함하면 많은 마을들이 마을만들기 사업 예비단계에서 농촌현장포럼을 이수하였음. 성공적인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 역량 단계별 추진체계’ 정책이 이전의 지역개발 사업추진과 비교했을 때 마을에서 직접적인 성과가 있는지, 정책의 목적이 마을사업의 실제 추진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에서는 2013년 4개 마을, 2014년 8개 마을(지자체 연계 2개소 포함), 2015년 7개 마을, 2016년 7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현장포럼을 추진하였으며, 이들 마을 중 현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8개 마을이 있음. 이들 마을을 현장포럼 정책 실시 전후의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사업추진 중인 현재 시점에서의 주민들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예비계획서 및 기본계획서의 검토를 통하여 예비단계(농촌현장포럼)에서의 내용 반영 여부 및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봄으로써 ‘역량단계별지원체계’ 정책이 마을만들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주지역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에서 운영한 ‘농촌현장포럼’을 이수한 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원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포럼 운영 및 결과, 신규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서 내용, 사업 선정 후 수립된 기본계획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함. 이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 시 현장포럼 및 기타 주민역량강화교육과정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통하여 발굴한 비전과 과제들이 반영되어지는지에 관한 내용 분석하고자 함. 또한 기본계획서 예비계획의 내용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함.

- 연구대상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준비 및 추진과정에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역량단계별 지원체계가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마을만들기 사업의 계획 수립 과정을 검토하여 역량단계별 지원 체계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대상 마을

마을명	추진현황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 2013년 현장포럼 운영 -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집행중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 2013년 현장포럼 운영 -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집행중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 2013년 현장포럼 운영 -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집행중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 2014년 현장포럼 운영 -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승인 중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 2014년 현장포럼 운영 - 창조적마을만들기 경제(체험·소득) 기본계획 승인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	- 2014년 현장포럼 운영 - 창조적마을만들기 환경(경관·생태) 기본계획 승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	- 2014년 현장포럼 운영 - 시·군창의사업 기본계획 승인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1리	- 2014년 현장포럼 운영 - 마을단위종합개발 사업 집행중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성과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 향후 마을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제2장 이론적 고찰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2004년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세부 사업명과 사업의 부분적 내용이 단계적으로 변경되어 현재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군역량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됨.

<사업유형별 개요>

사업유형		총사업비	사업기간	
농촌 중심지 활성화		(통합지구) 120억원 이하 (선도지구) 80억원 이하 (일반지구) 60억원 이하	5년 이내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 단위	종합개발	10억원 이하	5년 이내
		공동문화·복지	5억원 이하	5년 이내
		경제(체험·소득)	(체험) 5억원 이하 (소득) 2억원 이하 *체험·소득중1개만선택가능	
		환경(경관·생태)	5억원 이하	
		신규마을	1.5억 ~ 36억원 이내 (세대당 0.3억~0.4억원)	5년 이내
	권역 단위	종합개발	40억원 이하	5년 이내
산림휴양치유마을		(기반) 5억원 이하 (종합) 10억원 이하	5년 이내	
시·군 역량	시·군 단위	시·군창의	10억원 이하	5년 이내
		시·군역량강화	2.5억원 이하 (50백만원 단위 신청)	1년

※ 자료 :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사업유형별 사업내용>

사업유형		사업내용	
농촌 중심지 활성화		농촌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중심기능 활성화,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 마을에 서비스 제공 등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 단위	종합개발	마을단위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및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공동문화·복지	공동체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 체감형 사업
		경제 (체험·소득)	도농교류활성화와 특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활력을 가져다주기 위한 사업
		환경 (경관·생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거나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유지를 통해 농촌 어메니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신규마을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주거공간조성사업으로 기반조성사업비 및 기반조성계획 수립비 등 지원
	권역 단위	종합개발	인근 마을(행정리)을 포함한 종합개발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산림휴양치유마을		산림지역을 특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 이상의 행정리에 지역특성에 맞춘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해당마을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시·군 역량	시·군 단위	시·군창의	창의적인 S/W 중심 사업추진을 통해 문화적, 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 등의 사업효과가 시·군 전체에 파급될 수 있는 사업 지원
		시·군역량 강화	-마을 역량진단, 주민 및 지자체 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준공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역 간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마케팅 등

※ 자료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정리

2. 마을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1) 마을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마을역량 단계별 지원체계는 지자체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를 통하여 역량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6년 신규사업부터 본격 적용하였음. 사업역량이 부족한 마을에 대규모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창조

적마을만들기 사업유형에 대해 마을별 단계를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계획임¹⁾. 마을 역량단계별 지원체계는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를 거치는데, ‘예비단계’에서는 농촌현장포럼 또는 지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사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주도의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업의 실시를 통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권장함. ‘진입단계’는 예비단계에서 기초역량을 확보한 마을을 대상으로 중규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단계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5억 미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발전단계’는 중규모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에 필요한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중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 또는 권역단위종합개발 사업 등 5억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자립단계’는 종합개발사업 등 발전단계에서의 사업을 완료한 마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 완료 후 투자된 시설물의 지속적 활용과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계속적 사후관리 단계임.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 마을 또는 권역의 홍보 등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S/W 프로그램 개발 등의 추가적 지원을 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함.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www.raise.go.kr/;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정리

(2) 제주형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의 역량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여 마을이 소규모사업부터 경험하여 점차적으로 마을의 자립도를 제고시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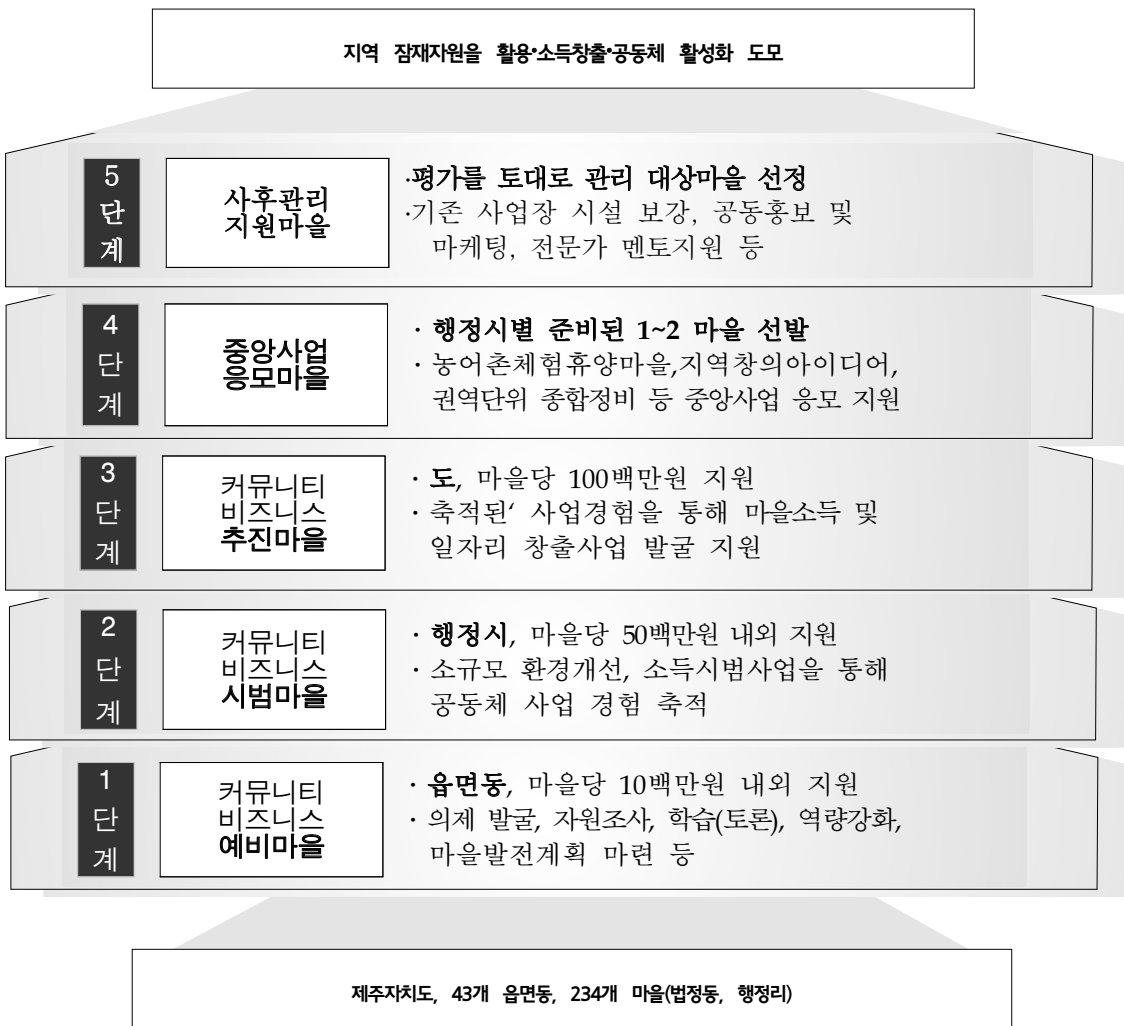
1) 농촌지역 지역개발분야 포관보조사업 5개년 계획수립용역보고서

위한 시스템이다.

<제주 마을만들기 5단계 행정지원시스템의 개요>

구분	내용
개념	마을에서 1단계(소규모)부터 5단계(대규모)까지 단계적으로 마을사업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마을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행정시스템
목적	중앙부처·도·행정시의 유사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도모 및 경험축적을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극대화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43개 읍면동, 234개 마을(법정동, 행정리)
추진경과	12. 2. ~ 12. : 마을만들기 5단계 행정지원시스템(안) 마련 '13. 1. ~ : 마을만들기 5단계 행정지원시스템 시행 중

자료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보완), 2013.



<마을만들기 5단계 행정지원시스템>

※ 자료 : 제주도청 균형발전과

3. 농촌현장포럼

농촌현장포럼은 주민들의 참여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을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주민주도형 상향식 마을개발사업 지원 정책임. 농촌마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유·무형의 마을 자원을 찾고,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마을만의 특색 있고 차별적인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²⁾. 농촌현장포럼은 2012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13년에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농촌현장포럼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지자체,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음.

농촌현장포럼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자원과 역량을 발굴·진단하여 마을발전과제를 도출하는 공동체 중심의 협의프로그램으로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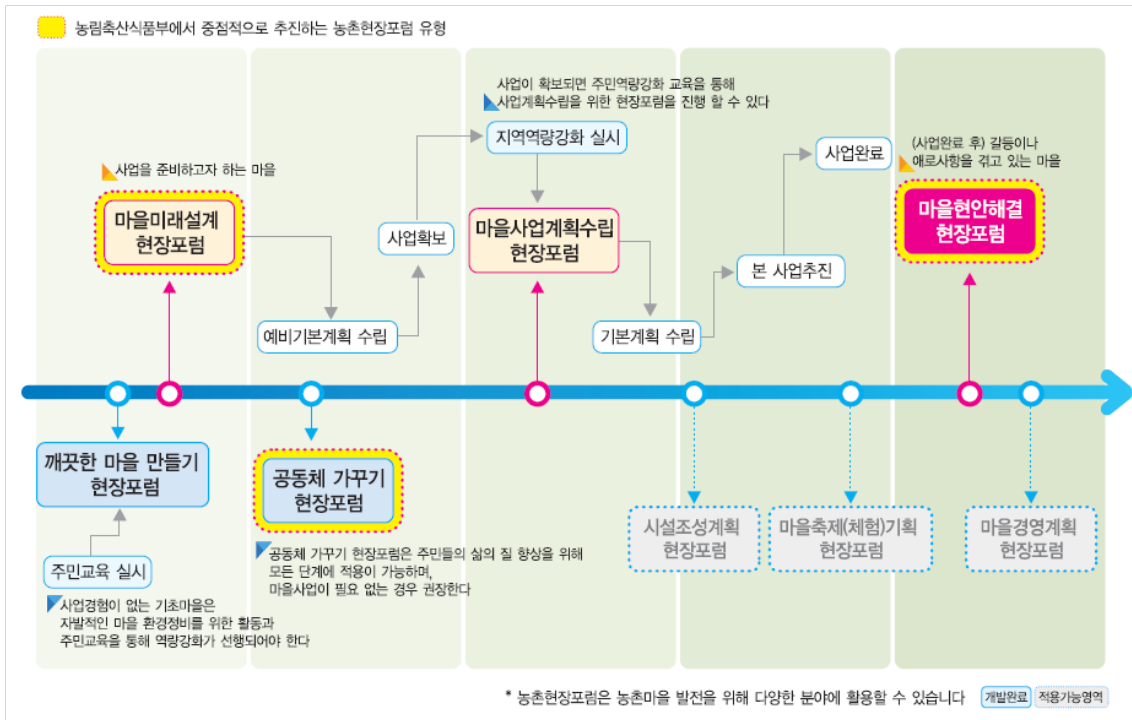
마을 단위 농촌현장포럼의 유형은 목적에 따라 마을미래설계하기 현장포럼, 마을사업계획 수립 현장포럼, 마을현안(갈등)해결 현장포럼, 깨끗한 마을 만들기 현장포럼, 공동체가꾸기 현장포럼으로 구분할 수 있음.³⁾ 권역단위 현장포럼은 권역사업 완료 지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현장포럼이 있으며, 읍면단위(중심지) 현장포럼의 경우 사업신청 전 예비계획단계의 현장포럼과 사업확보 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포럼이 있음.

‘마을미래설계하기 현장포럼’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마을테마 및 발전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농촌현장포럼으로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서 예비단계에 이수하는 현장포럼임. ‘마을사업계획수립 현장포럼’은 사업 선정 후 기본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한 현장포럼으로 사업비내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을 현안(갈등)해결 현장포럼’은 마을 혹은 권역에서 실제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현안이나 구성원들 간의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포럼임. ‘깨끗한 마을 만들기 현장포럼’은 주민들이 스스로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2) 농림축산식품부 www.raise.go.kr/

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현장포럼 핸드북(최종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현장포럼이며, ‘공동체 가꾸기 현장포럼’은 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화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장포럼으로 모든 단계에 적용가능한 현장포럼임.



<마을단위 농촌현장포럼 유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현장포럼 핸드북(최종판)

마을역량단계별 지원체계의 예비단계에서 이수하는 ‘마을미래설계하기 현장포럼’의 기본프로세스는 (사전조사) → 1) 주민역량강화교육 → 2) 마을테마발굴 워크숍 → 3) 선진지견학 → 4) 마을발전과제 발굴 워크숍 → 5) 마을발전심화’의 과정으로 운영함. 이 중 2, 4차 워크숍은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하도록 하며, 2차는 필수적으로 전문가인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돕고, 마을의 역량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있음.

제3장 농촌현장포럼 전·후의 효과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농촌현장포럼 운영 마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현장포럼 시작 전과 현장포럼 마지막 회차에 각각 시행하여 현장포럼을 통하여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사임.

(2) 조사내용

- 농촌현장포럼 시작 전과 마지막 회차에 같은 질문을 통하여 농촌현장포럼이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 설문 내용은 마을 발전 및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및 마을자원 활용 능력, 마을 발전가능성에 대한 생각 및 사업 참여에 대한 의사 등으로 항목이 구성됨.

(3) 조사 및 분석방법

- 조사대상은 본 연구의 대상마을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3년부터 시행한 농촌현장포럼 대상 마을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지원 및 선정되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8개 마을(은평리, 와흘리, 영락리, 신례1리, 위미1리, 조수1리, 토산1리, 평대리)임.
- 설문조사는 각 마을이 현장포럼 운영 시 시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빈도분석을 하여 주민의견을 살펴보았음. 또한 현장포럼 전과 현장포럼 후의 응답의 변화를 살펴보았음. 응답 항목별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전-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쉽도록 ‘전혀그렇지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과 같이 5점 척도로 나타내 평균분석을 하였음.
- 현장포럼 전-후의 변화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인 현장포럼 이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주민들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조사결과와도 비교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설문은 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포럼 전 170명, 포럼 후 118명에 각각 응답을 받았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구분		포럼 전		포럼 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30	76.5	79	66.9
	여성	40	23.5	39	33.1
	합계	170	100.0	118	100.0
연령대	45세 미만	22	12.9	17	14.4
	45-55세 미만	50	29.4	39	33.1
	55-65세 미만	41	24.1	37	31.4
	65-75세 미만	39	22.9	16	13.6
	75세 이상	18	10.6	9	7.6
	합계	170	100.0	118	100.0
정착 유형	원주민	143	84.1	85	72.0
	귀농	12	7.1	16	13.6
	귀촌	15	8.8	17	14.4
	합계	170	100.0	118	100.0
사업 역할	리더	14	8.2	19	16.1
	추진위원	28	16.5	24	20.3
	사무장	5	2.9	3	2.5
	일반주민	123	72.3	72	61.0
	합계	170	100.0	118	100.0

(2) 마을 발전 및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해

가. 나는 우리 마을의 현안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마을 현안문제의 인지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포럼 전에는 3.75점, 포럼 후

3.92점으로 포럼 후 현안문제를 인지하는 정도가 다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음.

구분	포럼 전(A)		포럼 후(B)		변화(A→B)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아니다(1점)	0	0	0	0	0%
아니다(2점)	6	3.5	2	1.7	-1.8%
보통이다(3점)	59	34.7	34	28.8	-5.9%
그렇다(4점)	76	44.7	53	44.9	0.2%
매우그렇다(5점)	29	17.1	29	24.6	7.5%
합계	170	100.0	118	100.0	
평균값	3.75		3.92		

나. 나는 우리 마을의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

- 마을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포럼 전 3.39점, 포럼 후 3.67점으로 큰 변화는 아니지만, 다른 주민의 생각에 대한 개인의 이해정도가 다소 높아졌음을 살펴볼 수 있음.

구분	포럼 전(A)		포럼 후(B)		변화(A→B)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아니다(1점)	1	0.6	0	0	-0.6%
아니다(2점)	21	12.4	10	8.5	-3.9%
보통이다(3점)	69	40.6	34	28.8	-11.8%
그렇다(4점)	68	40.0	59	50.0	10%
매우그렇다(5점)	11	6.5	15	12.7	6.2%
합계	170	100.0	118	100.0	
평균값	3.39		3.67		

다.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알고 있다.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이해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포럼 전 3.29점, 포럼 후 3.92점으로 포럼 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대답한 주민이 포럼 전 보다 많아졌음을 알 수 있음.

구분	포럼 전(A)		포럼 후(B)		변화(A→B)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아니다(1점)	3	1.8	1	0.8	-1%
아니다(2점)	40	23.5	7	5.9	-17.6%
보통이다(3점)	49	28.8	18	15.3	-13.5%
그렇다(4점)	61	35.9	66	55.9	20%
매우그렇다(5점)	17	10.0	26	22.0	12%
합계	170	100.0	118	100.0	
평균값	3.29		3.92		

라.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마을의 발전효과를 알고 있다.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발전효과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포럼 전 3.56점에서 포럼 후 4.08점으로 현장포럼 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음.

구분	포럼 전(A)		포럼 후(B)		변화(A→B)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아니다(1점)	2	1.2	0	0	-1.2%
아니다(2점)	23	13.5	3	2.5	-11%
보통이다(3점)	47	27.6	12	10.2	-17.4%
그렇다(4점)	73	42.9	76	64.4	21.5%
매우그렇다(5점)	25	14.7	27	22.9	8.2%
합계	170	100.0	118	100.0	
평균값	3.56		4.08		

(3) 의사소통 및 마을자원 활용 능력

가. 나는 마을 회의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 마을회의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포럼 전 3.67점에서 포럼 후 3.74점으로 다소 향상했으나 포럼 전 후의 큰 차이는 없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구분	포럼 전(A)		포럼 후(B)		변화(A→B)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아니다(1점)	0	0	0	0	0%
아니다(2점)	10	5.9	8	6.8	0.9%
보통이다(3점)	50	29.4	29	24.6	-4.8%
그렇다(4점)	93	54.7	67	56.8	2.1%
매우그렇다(5점)	17	10.0	14	11.9	1.9%
합계	170	100.0	118	100.0	
평균값	3.67		3.74		

나. 나는 마을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 할 수 있다.

- 마을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포럼 전 3.57점, 포럼 후 3.60점으로 포럼 전과 포럼 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구분	포럼 전(A)		포럼 후(B)		변화(A→B)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아니다(1점)	0	0	1	0.8	0.8%
아니다(2점)	20	11.8	11	9.3	-2.5%
보통이다(3점)	48	28.2	34	28.8	0.6%
그렇다(4점)	87	51.2	60	50.8	-0.4%
매우그렇다(5점)	15	8.8	12	10.2	1.4%
합계	170	100.0	118	100.0	
평균값	3.57		3.60		

다. 나는 마을 회의에서 갈등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 마을 회의에서 갈등상황 해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포럼 전 3.26점, 포럼 후 3.47점으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포럼 후에 갈등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주민의 비율이 다소 많아진 것을 살펴볼 수 있음.

구분	포럼 전(A)		포럼 후(B)		변화(A→B)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아니다(1점)	0	0	1	0.8	0.8%
아니다(2점)	28	16.5	12	10.2	-6.3%
보통이다(3점)	78	45.9	45	38.1	-7.8%
그렇다(4점)	55	32.4	50	42.4	10%
매우그렇다(5점)	9	5.3	10	8.5	3.2%
합계	170	100.0	118	100.0	
평균값	3.26		3.47		

라. 나는 우리 마을의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마을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포럼 전 3.52점, 포럼 후 3.67점으로 포럼 후 주민들의 자연자원 활용 능력이 다소 향상된 것을 살펴볼 수 있음.

구분	포럼 전(A)		포럼 후(B)		변화(A→B)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아니다(1점)	0	0	0	0	0%
아니다(2점)	17	10.0	7	5.9	-4.1%
보통이다(3점)	68	40.0	38	32.2	-7.8%
그렇다(4점)	65	38.2	60	50.8	12.6%
매우그렇다(5점)	20	11.8	13	11.0	-0.8%
합계	170	100.0	118	100.0	
평균값	3.52		3.67		

마. 나는 우리 마을의 경제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마을 경제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포럼 전 3.40점, 포럼 후 3.79점으로 포럼 후 주민들의 경제자원 활용 능력이 향상된 것을 살펴볼 수 있음.

구분	포럼 전(A)		포럼 후(B)		변화(A→B)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아니다(1점)	2	1.2	0	0	-1.2%
아니다(2점)	20	11.8	7	5.9	-5.9%
보통이다(3점)	70	41.2	31	16.3	-24.9%
그렇다(4점)	64	37.6	60	50.8	13.2%
매우그렇다(5점)	14	8.2	20	16.9	8.7%
합계	170	100.0	118	100.0	
평균값	3.40		3.79		

바. 나는 우리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마을 역사·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포럼 전 3.36점, 포럼 후 3.82점으로 포럼 후 주민들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능력이 향상된 것을 살펴볼 수 있음.

구분	포럼 전(A)		포럼 후(B)		변화(A→B)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아니다(1점)	2	1.2	1	0.8	-0.4%
아니다(2점)	23	13.5	4	3.4	-10.1%
보통이다(3점)	70	41.2	32	27.1	-14.1%
그렇다(4점)	61	35.9	59	50.0	14.1%
매우그렇다(5점)	14	8.2	22	18.6	10.4%
합계	170	100.0	118	100.0	
평균값	3.36		3.82		

사. 나는 우리 마을의 공동체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마을 공동체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포럼 전

3.52점, 포럼 후 3.81점으로 포럼 후 주민들의 공동체자원 활용 능력이 향상된 것을 살펴볼 수 있음.

구분	포럼 전(A)		포럼 후(B)		변화(A→B)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아니다(1점)	2	1.2	1	0.8	-0.4%
아니다(2점)	8	4.7	2	1.7	-3%
보통이다(3점)	74	43.5	35	29.7	-13.8%
그렇다(4점)	72	42.4	60	50.8	8.4%
매우그렇다(5점)	14	8.2	20	16.9	8.7%
합계	170	100.0	118	100.0	
평균값	3.52		3.81		

아. 나는 우리 마을의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명칭 및 주제(브랜드 및 테마)를 설정할 수 있다.

- 마을의 브랜드 및 테마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포럼 전 3.39 점, 포럼 후 3.79점으로 포럼 후 주민들의 브랜드 및 테마설정 능력이 다소 향상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음.

구분	포럼 전(A)		포럼 후(B)		변화(A→B)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아니다(1점)	1	0.6	0	0	-0.6%
아니다(2점)	24	14.1	6	5.1	-9%
보통이다(3점)	66	38.8	29	24.6	-14.2%
그렇다(4점)	66	38.8	67	56.8	18%
매우그렇다(5점)	13	7.6	16	13.6	6%
합계	170	100.0	118	100.0	
평균값	3.39		3.79		

(4) 마을 발전가능성, 사업 참여도

가. 나는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자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 마을 발전을 위하여 활용할 자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포럼 전 3.71점, 포럼 후 4.07점으로 포럼 후 자원 활용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음.

구분	포럼 전(A)		포럼 후(B)		변화(A→B)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아니다(1점)	1	0.6	0	0	-0.6%
아니다(2점)	9	5.3	4	3.4	-1.9%
보통이다(3점)	52	30.6	13	11.0	-19.6%
그렇다(4점)	84	49.4	72	61.0	11.6%
매우그렇다(5점)	24	14.1	29	24.6	10.5%
합계	170	100.0	118	100.0	
평균값	3.71		4.07		

나. 나는 우리 마을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마을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포럼 전과 포럼 후 모두 4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포럼 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욱 향상 된 것을 살펴볼 수 있음.

구분	포럼 전(A)		포럼 후(B)		변화(A→B)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아니다(1점)	0	0	0	0	0%
아니다(2점)	0	0	1	0.8	0.8%
보통이다(3점)	31	20.0	7	5.9	-14.1%
그렇다(4점)	101	59.4	67	56.8	-2.6%
매우그렇다(5점)	35	20.6	43	36.5	15.9%
합계	170	100.0	118	100.0	
평균값	4.01		4.29		

다. 나는 마을 사업을 통해 우리 마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 마을 사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포럼 전 3.96점, 포럼 후 4.12점으로 포럼 전과 후 모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특히 포럼 후에 긍정적인 인식이 더욱 향상된 것을 살펴볼 수 있음.

구분	포럼 전(A)		포럼 후(B)		변화(A→B)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아니다(1점)	0	0	0	0	0%
아니다(2점)	2	1.2	2	1.7	0.5%
보통이다(3점)	37	21.8	13	11.0	-10.8%
그렇다(4점)	97	57.1	72	61.0	3.9%
매우그렇다(5점)	34	20.0	31	26.3	6.3%
합계	170	100.0	118	100.0	
평균값	3.96		4.12		

라.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참여 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포럼 전 4.07점, 포럼 후 4.17점으로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포럼 후 참여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음.

구분	포럼 전(A)		포럼 후(B)		변화(A→B)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아니다(1점)	0	0	0	0	0%
아니다(2점)	3	0.6	1	0.8	0.2%
보통이다(3점)	29	16.5	18	15.3	-1.2%
그렇다(4점)	91	55.3	59	50.0	-5.3%
매우그렇다(5점)	47	27.6	40	33.9	6.3%
합계	170	100.0	118	100.0	
평균값	4.07		4.17		

마.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포럼 및 워크숍 등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 마을만들기 사업의 포럼 및 워크숍 등 행사에 대한 참여 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포럼 전 4.10점, 포럼 후 4.11점으로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구분	포럼 전(A)		포럼 후(B)		변화(A→B)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아니다(1점)	0	0	1	0.8	0.8%
아니다(2점)	1	0.6	1	0.8	0.2%
보통이다(3점)	28	16.5	18	15.3	-1.2%
그렇다(4점)	94	55.3	62	52.5	-2.8%
매우그렇다(5점)	47	27.6	36	30.5	2.9%
합계	170	100.0	118	100.0	
평균값	4.10		4.11		

바. 나는 우리 마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민주적인 태도로 임하고자 한다.

- 마을의 현안문제 해결에 민주적인 태도를 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포럼 전 4.03점, 포럼 후 4.14점으로 포럼 후 태도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음.

구분	포럼 전(A)		포럼 후(B)		변화(A→B)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아니다(1점)	0	0	0	0	0%
아니다(2점)	1	0.6	0	0	-0.6%
보통이다(3점)	29	17.1	18	15.3	-1.8%
그렇다(4점)	104	61.2	66	55.9	-5.3%
매우그렇다(5점)	36	21.2	34	28.8	7.6%
합계	170	100.0	118	100.0	
평균값	4.03		4.14		

사. 나는 우리 마을의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마을의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포럼 전 3.85 점, 포럼 후 4.07점으로 포럼 후 현안문제 해결방안 능력이 향상한 것을 살펴볼 수 있음.

구분	포럼 전(A)		포럼 후(B)		변화(A→B)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아니다(1점)	1	0.6	0	0	-0.6%
아니다(2점)	2	1.2	1	0.8	-0.4%
보통이다(3점)	38	22.4	20	16.9	-5.5%
그렇다(4점)	109	64.1	67	56.8	-7.3%
매우그렇다(5점)	20	11.8	30	25.4	13.6%
합계	170	100.0	118	100.0	
평균값	3.85		4.07		

아. 나는 우리 마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마을 주민들의 단합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안문제 해결하는데 주민들의 단합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포럼 전 3.81점, 포럼 후 3.85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포럼 전-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음.

구분	포럼 전(A)		포럼 후(B)		변화(A→B)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아니다(1점)	0	0	0	0	0%
아니다(2점)	7	4.1	8	6.8	2.7%
보통이다(3점)	46	27.1	23	19.5	-7.6%
그렇다(4점)	89	52.4	66	55.9	3.5%
매우그렇다(5점)	28	16.5	21	17.8	1.3%
합계	170	100.0	118	100.0	
평균값	3.81		3.85		

3. 설문조사 분석결과 종합

(1) 마을 발전 및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해

- 현장포럼 운영 이후 주민들의 마을 발전 및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의 이해도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포럼 전과 비교하여 포럼 이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음. 특히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도(포럼 전 3.29점→포럼 후 3.92) 및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마을발전효과 정도에 대한 인식(포럼 전 3.56 → 포럼 후 4.08점)은 비교적 많이 향상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음. 이를 통하여 현장포럼이 주민역량 향상 및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음.

(2) 의사소통 및 마을자원 활용 능력

- 마을 회의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포럼 전 3.67점에서 포럼 후 3.74점, 마을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포럼 전 3.57점에서 포럼 후 3.60점, 회의의 갈등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장포럼 전 3.26점, 포럼 후 3.47점으로 나타남. 의사소통 능력은 현장포럼 전에 비해 현장포럼 후 다소 향상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음. 현장포럼에서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을 통하여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자원과 테마를 발굴하고, 마을 사업을 찾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현장포럼만으로는 주민들의 의사소통 능력 자체를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임.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는 마을 내부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민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주민들의 마을자원 활용 능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자연자원(3.52점 → 3.67점), 경제자원(3.40점 → 3.79점), 역사·문화 자원(3.36점 → 3.82점), 공동체 자원(3.52점 → 3.81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포럼 전보다 포럼 후 활용 능력이

향상된 것을 살펴볼 수 있음. 큰 차이는 아니지만 현장포럼에서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여 마을의 비전과 테마를 설정하고 발전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은 주민들의 자원이용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데 효과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음.

(3) 마을 발전가능성, 사업 참여도

- 마을 발전가능성과 사업 참여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포럼 색깔 있는 마을의 이해도 및 자원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위의 질문들과 비교하면 포럼전과 포럼 후 모두 전반적으로 평균점수 4점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현장포럼 대상 마을 선정 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따라 주민들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또한 큰 차이는 아니지만 포럼 후 태도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현장포럼은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게 하는 효과가 있어 마을 역량수준에 맞는 현장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4장 역량지원체계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본 설문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촌현장포럼을 시행한 뒤 마을만들기 중앙공모 사업에 지원한 제주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현장포럼이 실질적으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임.
- 농촌현장포럼은 상향식 지역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프로세스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마을 역량단계별 추진체계에 따라 단계별로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추진체계가 실제 추진 과정에서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준비 및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함.

(2) 조사방법

- 조사기간 : 2017년 08월 ~ 09월
- 조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3년부터 시행한 농촌현장포럼 대상 마을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지원 및 선정되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마을 주민으로, 표본은 대상마을 방문 후 현장설문을 위한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음. 자기기입방식의 응답을 받았으며, 마을주민들 중 나이가 많거나 직접 기입하기 힘든 대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설문지 항목 수를 최소화 하고, 경우에 따라 조사요원이 설문 설명 및 기입을 1대1로 도움을 주었음.

(4) 분석방법

- 설문지 분석을 위하여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18.0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설문 전체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하여 응답자의 의견을 정리하였음.

- 또한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하위집단 간 응답에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 ‘전혀 모르고 있다’ 1점과 같이 5점 척도로 나타내 집단별 평균분석을 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음.

2.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가. 지역

- 설문은 현장포럼 운영 후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공모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선정 및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 8개 마을을 대상으로 163명의 주민에게 응답을 받았음.

<응답자의 거주지역>

구분	빈도(명)	비율(%)	비고
온평리	18	11.0	
와흘리	30	18.4	
영락리	22	13.5	
신례1리	25	15.3	
위미1리	18	11.0	
조수1리	17	10.4	
토산1리	18	11.0	
평대리	15	9.2	
합계	163	100.0	

나. 성별

-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107명(65.6%), 여성이 56명(34.4%)으로 분포함.

<응답자의 성별>

구분	빈도(명)	비율(%)	비고
남성	107	65.6	
여성	56	34.4	
합계	163	100.0	

다. 거주기간

- 응답자의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30년 이상이 72명(44.2%)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5년 미만 순으로 분포함.

<응답자의 거주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비고
5년 미만	8	4.9	
5년 이상~10년 미만	22	13.5	
10년 이상~20년 미만	32	19.6	
20년 이상~30년 미만	29	17.8	
30년 이상	72	44.2	
합계	163	100.0	

라. 마을 내 역할

- 응답자 중 106명(65%)이 일반 주민에 해당하였으며, 이장 및 자생단체리더(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 추진(발전)위원, 사무장 등 리더역할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57명(35%)을 차지하였음.

<응답자의 마을 내 역할>

구분	빈도(명)	비율(%)	비고
마을이장	4	2.5	
자생단체리더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	11	6.7	
추진(발전)위원	37	22.7	
사무장	5	3.1	
일반주민	106	65.0	
합계	1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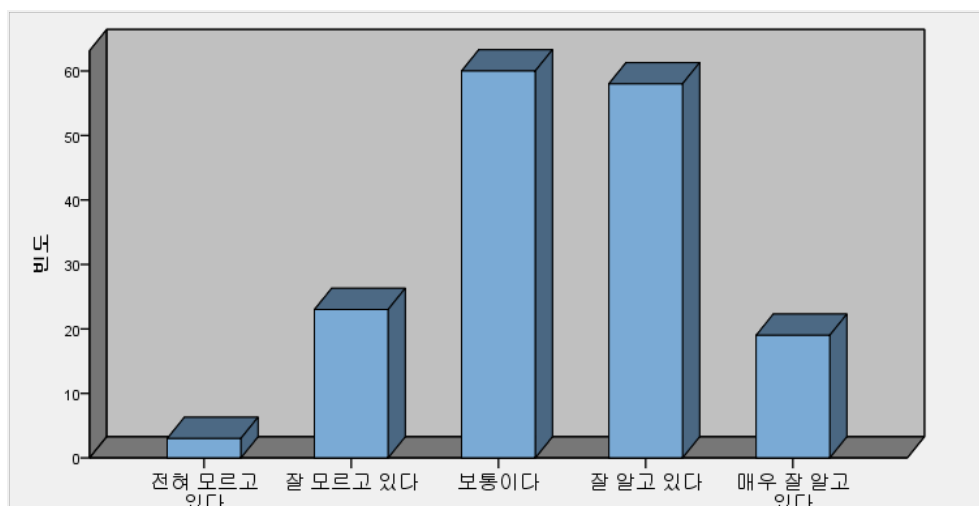
(2) 마을만들기 사업의 인지도 및 참여도

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지도

- “현재 귀하의 마을에서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36.8%)’, ‘잘 알고 있다(3.6%)’, ‘매우 잘 알고 있다(11.7%)’로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 내용에 대해 인지 정도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지도>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값	비고
전혀 모르고 있다(1점)	3	1.8	3.41	
모르고 있다(2점)	23	14.1		
보통이다(3점)	60	36.8		
알고 있다(4점)	58	35.6		
매우 잘 알고 있다(5점)	19	11.7		
합계	163	100.0		



<그림 4-1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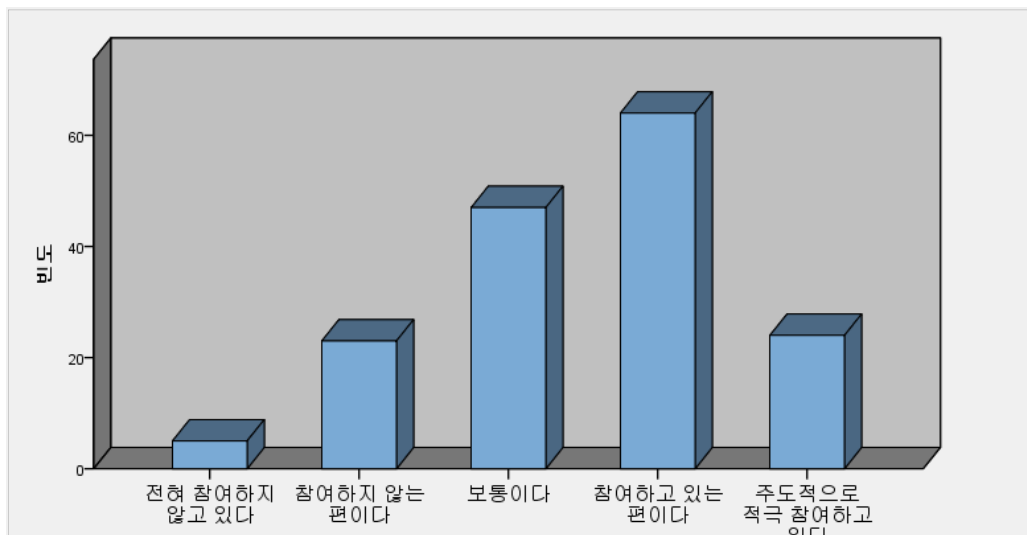
나.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도

- “마을만들기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까?” 라는 질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14.7%)’, ‘참여하고 있는 편이다 (39.3%)’ 로 50%이상의 응답자가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보통이다(28.8%)’라고 대답한 주민들을 포함하면 비교적 많은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도>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값	비고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1점)	5	3.1	3.48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2점)	23	14.1		
보통이다(3점)	47	28.8		
참여하고 있는 편이다(4점)	64	39.3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5점)	24	14.7		
합계	163	100.0		



<그림 4-2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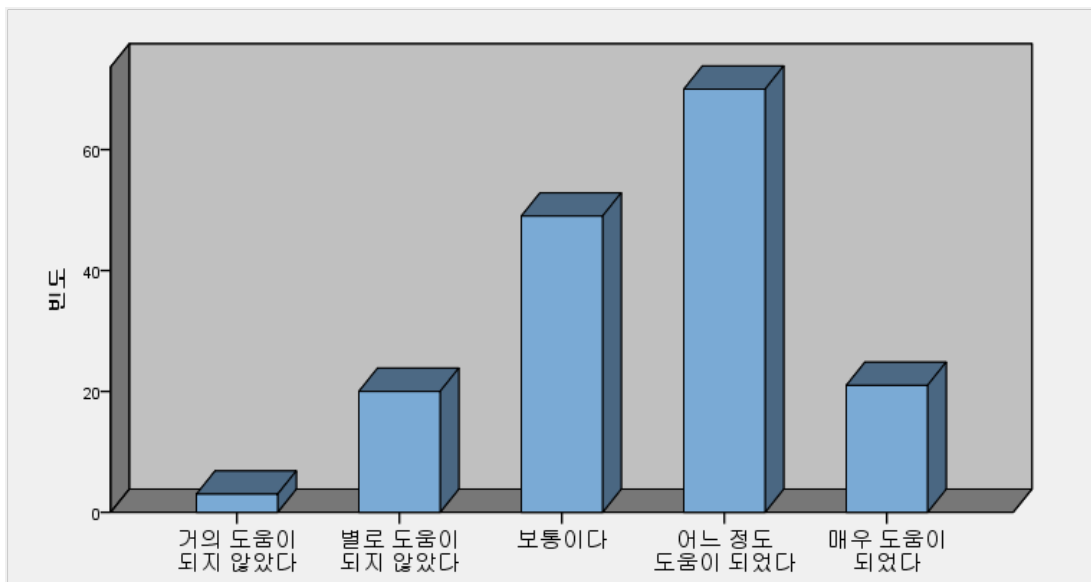
(3) 농촌현장포럼(진입단계)에 대한 의견

가. 마을 발전에 대한 농촌현장포럼의 기여도

- “마을 사업 지원하기 이전에 운영하였던 ‘농촌현장포럼’이 마을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는 응답이 14.1%로, 80% 이상의 응답자가 농촌현장포럼이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마을발전에 대한 농촌현장포럼의 기여도>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값	비고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1점)	3	1.8	3.53	
도움이 되지 않았다(2점)	20	12.3		
보통이다(3점)	49	30.1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4점)	70	42.9		
매우 도움이 되었다(5점)	21	12.9		
합계	1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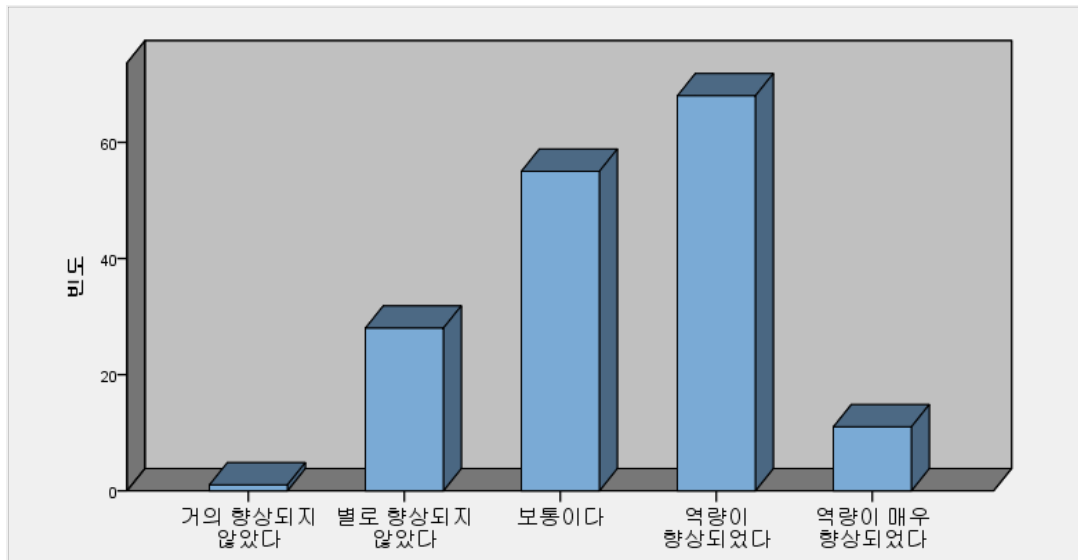
<그림 4-3 마을발전에 대한 농촌현장포럼의 기여도>

나. 농촌현장포럼을 통한 역량 향상 정도

-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역량이 향상되었다(41.7%)’, ‘역량이 매우 향상 되었다(6.7%)’ 등으로 농촌현장포럼이 주민 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며, 주민들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농촌현장포럼을 통한 역량 향상 정도>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값	비고
거의 향상되지 않았다(1점)	1	.6	3.37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2점)	28	17.2		
보통이다(3점)	55	33.7		
역량이 향상되었다(4점)	68	41.7		
역량이 매우 향상되었다(5점)	11	6.7		
합계	1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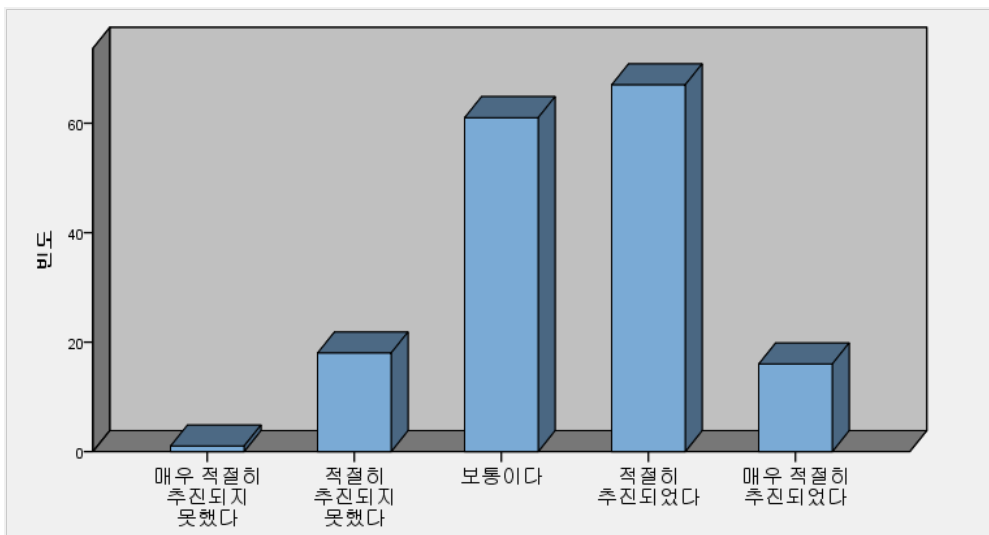
<그림 4-4 농촌현장포럼을 통한 역량 향상 정도>

다. 농촌현장포럼 내용의 적절성

- “농촌현장포럼의 내용은 적절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히 추진되었다(41.1%)’, 매우 적절히 추진되었다(9.8%) 등 50% 정도의 응답자의 경우 내용 적절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이에 비하여 ‘적절히 추진되지 못했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11.6% 정도 있었음.

<농촌현장포럼 내용의 적절성>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값	비고
매우 적절히 추진되지 못했다(1점)	1	0.6	3.48	
적절히 추진되지 못했다(2점)	18	11.0		
보통이다(3점)	61	37.4		
적절히 추진되었다(4점)	67	41.1		
매우 적절히 추진되었다(5점)	16	9.8		
합계	1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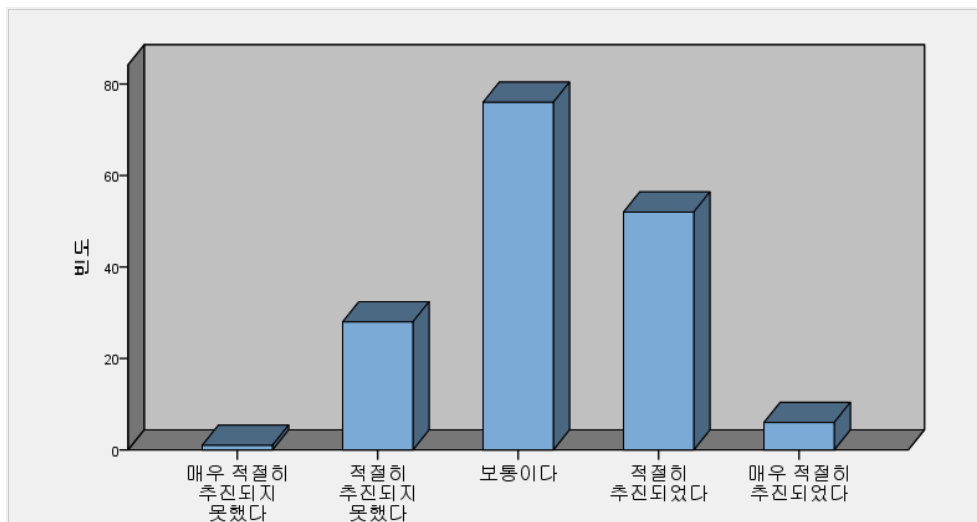
<그림 4-5 농촌현장포럼 내용의 적절성>

라. 농촌현장포럼 사후관리의 적절성

- “농촌현장포럼의 사후관리는 적절히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적절히 추진되었다(31.9%)’, ‘매우 적절히 추진되었다(3.7%) 등 적절히 추진되었다는 응답이 약 35%정도 차지하였음. 현장포럼 사후관리의 경우 위의 현장포럼 자체에 대한 응답에서 긍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와 비교하여 적절히 추진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적게 나타났음을 살펴볼 수 있음.

<농촌현장포럼 사후관리의 적절성>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값	비고
매우 적절히 추진되지 못했다(1점)	1	0.6	3.21	
적절히 추진되지 못했다(2점)	28	17.2		
보통이다(3점)	76	46.6		
적절히 추진되었다(4점)	52	31.9		
매우 적절히 추진되었다(5점)	6	3.7		
합계	1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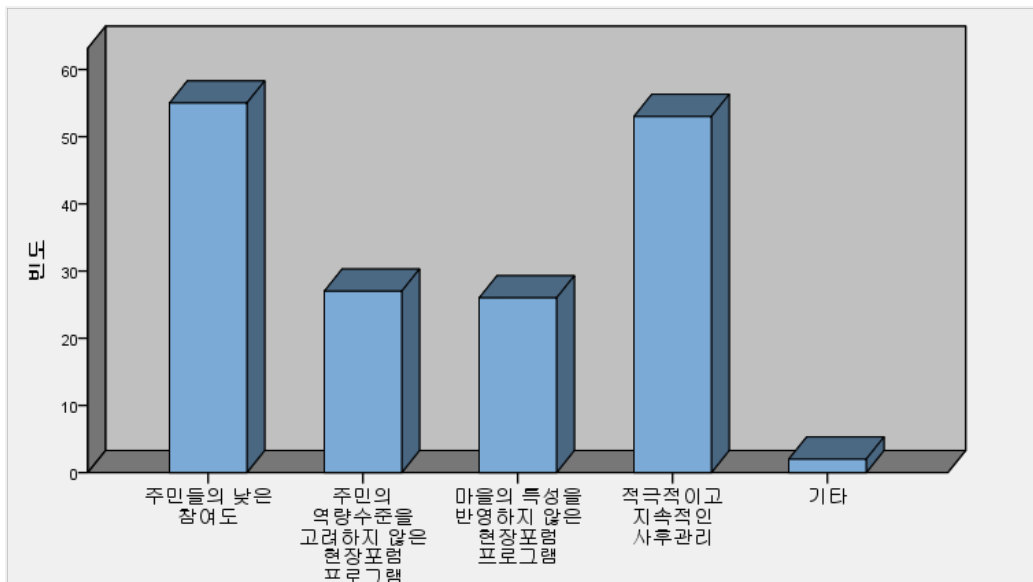
<그림 4-6 농촌현장포럼 사후관리의 적절성>

마. 전반적인 측면에서 농촌현장포럼의 아쉬운 점

- “농촌현장포럼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주민들의 낮은 참여도(33.7%)’,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32.5%)’, ‘주민의 역량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현장포럼 프로그램(16.6%)’, ‘마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현장포럼 프로그램(16.0%)’ 순으로 나타남. 마을 자체적으로는 주민들의 참여도에 대한 아쉬움을 살펴볼 수 있으며, 지원적 측면에서는 주민들이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음.

<농촌현장포럼의 아쉬운 점>

구분	빈도(명)	비율(%)	비고
주민들의 낮은 참여도	55	33.7	
주민의 역량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현장포럼 프로그램	27	16.6	
마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현장포럼 프로그램	26	16.0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53	32.5	
기타	2	1.2	
합계	163	100.0	



<그림 4-7> 농촌현장포럼의 아쉬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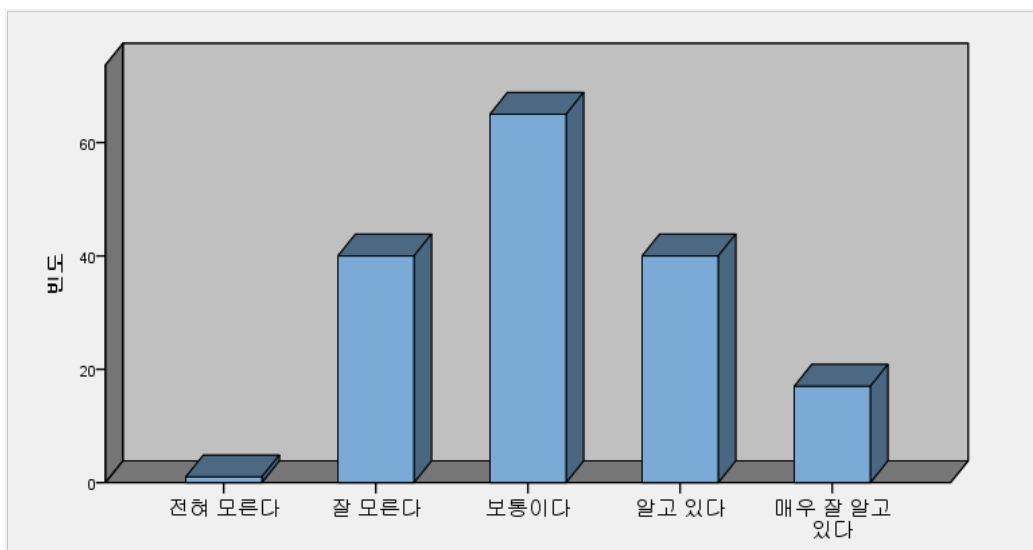
(4)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에 대한 의견

가.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에 대한 인지 정도

-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다(10.4%)’, ‘잘 알고 있다(24.5%)’, ‘보통이다(39.9%) 등 비교적 많은 주민들이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음.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에 대한 인지정도>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값	비고
전혀 모른다(1점)	1	0.6	3.20	
모른다(2점)	40	24.5		
보통이다(3점)	65	39.9		
알고 있다(4점)	40	24.5		
매우 잘 알고 있다(5점)	17	10.4		
합계	1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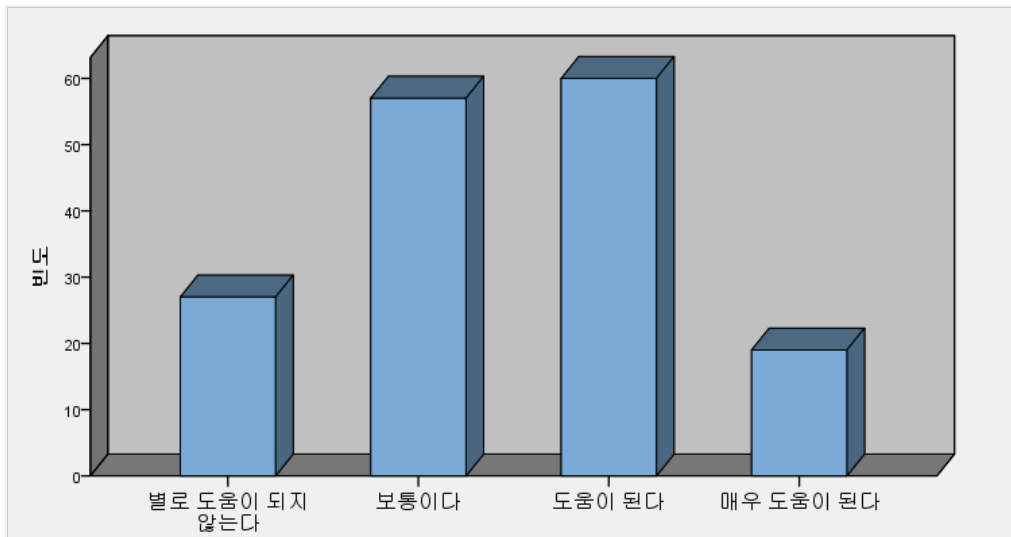
<그림 4-8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에 대한 인지정도>

나.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의 도움 정도

- (예비단계) → (진입단계) → (발전단계) → (자립단계)의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에 대하여 설명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고,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는 마을 사업 추진 및 발전에 있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약 48% 정도의 응답자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이에 반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한 응답자는 20% 미만이었음.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의 도움정도>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값	비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점)	0	0	3.44	
도움이 되지 않는다(2점)	27	16.6		
보통이다(3점)	57	35.0		
도움이 된다(4점)	60	36.8		
매우 도움이 된다(5점)	19	11.7		
합계	163	100.0		



<그림 4-9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의 도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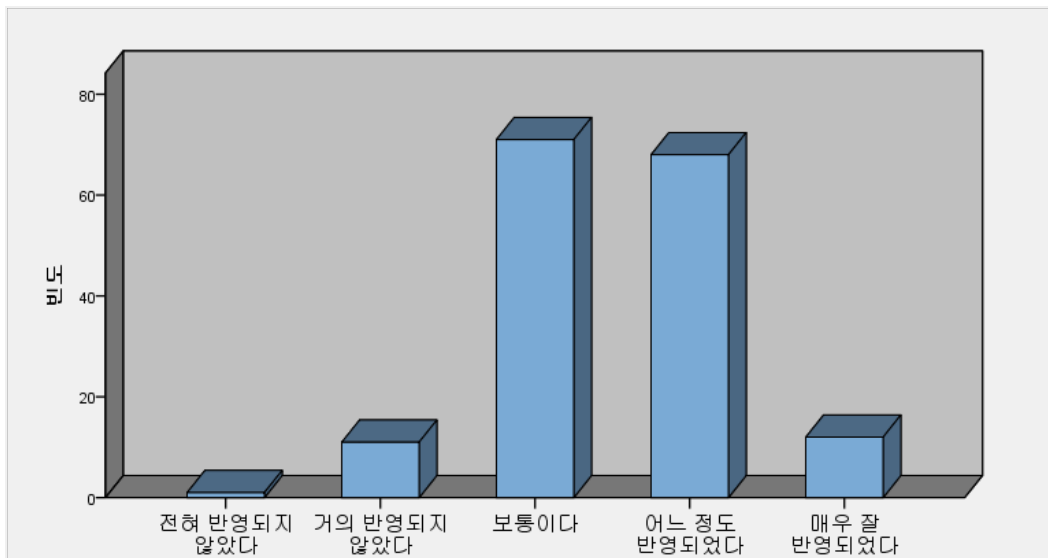
(5)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가.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시 농촌현장포럼 결과 반영 정도

- “마을만들기 사업 계획 수립 시 농촌현장포럼의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보통이다(43.6%)’,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41.7%)’, 매우 잘 반영되었다(7.4%)’ 순으로 50%의 가까운 응답자가 현장포럼 내용이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영 되지 않았다는 대답은 10% 미만으로 적은 편이었음.

<예비계획 수립 시 농촌현장포럼 결과 반영정도>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값	비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1점)	1	0.6	3.48	
반영되지 않았다(2점)	11	6.7		
보통이다(3점)	71	43.6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4점)	68	41.7		
매우 잘 반영되었다(5점)	12	7.4		
합계	1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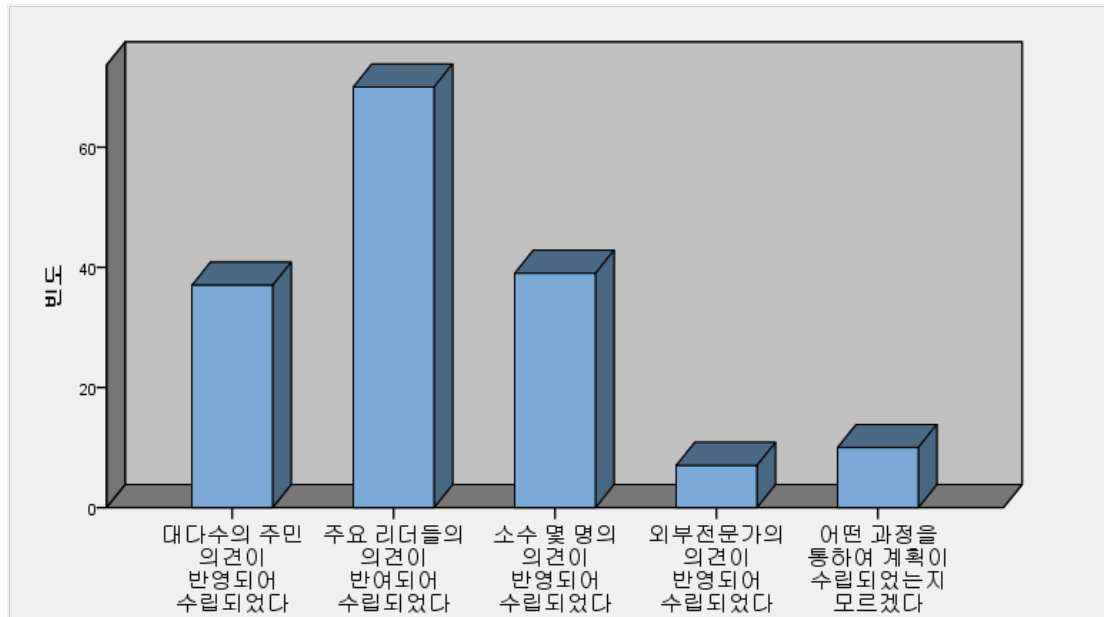
<그림 4-10 예비계획 수립 시 농촌현장포럼 결과 반영정도>

나. 마을만들기 사업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 여부

- “마을만들기 사업의 계획이 수립될 때(예비계획, 기본계획)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다수의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 수립되었다(22.7%)’에 비하여 ‘주요 리더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립되었다(42.9%)’와 ‘소수 몇 명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립되었다(23.9%)’ 라는 응답이 많이 나타남.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비고
대다수의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 수립되었다	37	22.7	
주요 리더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립되었다	70	42.9	
소수 몇 명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립되었다	39	23.9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립되었다	7	4.3	
어떤 과정을 통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모르겠다	10	6.1	
합계	1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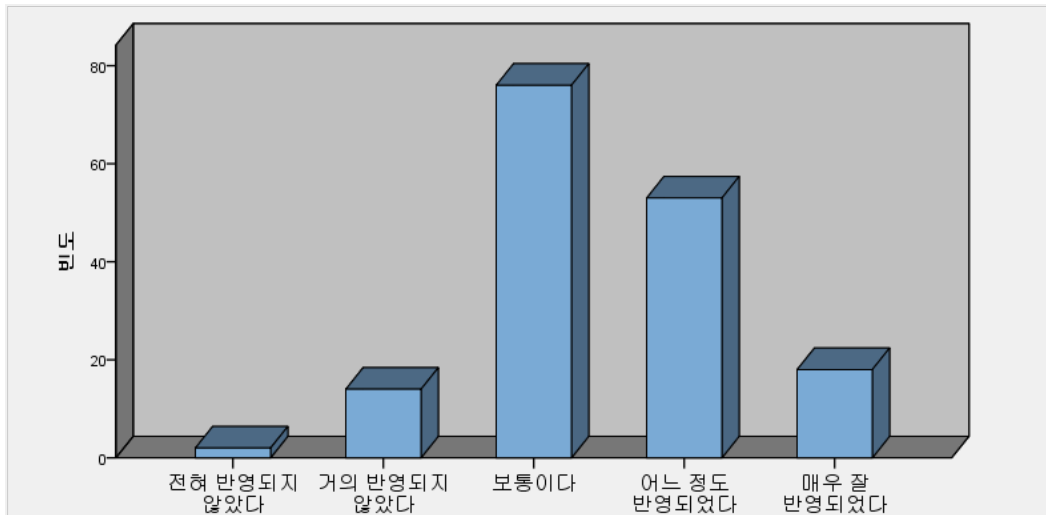
<그림 4-11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 여부>

다. 마을만들기 사업 계획의 마을 자원 및 특성 반영 정도

- “수립된 마을만들기 사업 계획은 우리마을의 자원과 특성이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32.5%)’, ‘매우 잘 반영되었다(11.0%)’ 인 것에 비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8.6%)’,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1.2%)’로 마을 자원 및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마을만들기 사업 계획의 마을 자원 및 특성 반영 정도>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값	비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1점)	2	1.2	3.44	
반영되지 않았다(2점)	14	8.6		
보통이다(3점)	76	46.6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4점)	53	32.5		
매우 잘 반영되었다(5점)	18	11.0		
합계	1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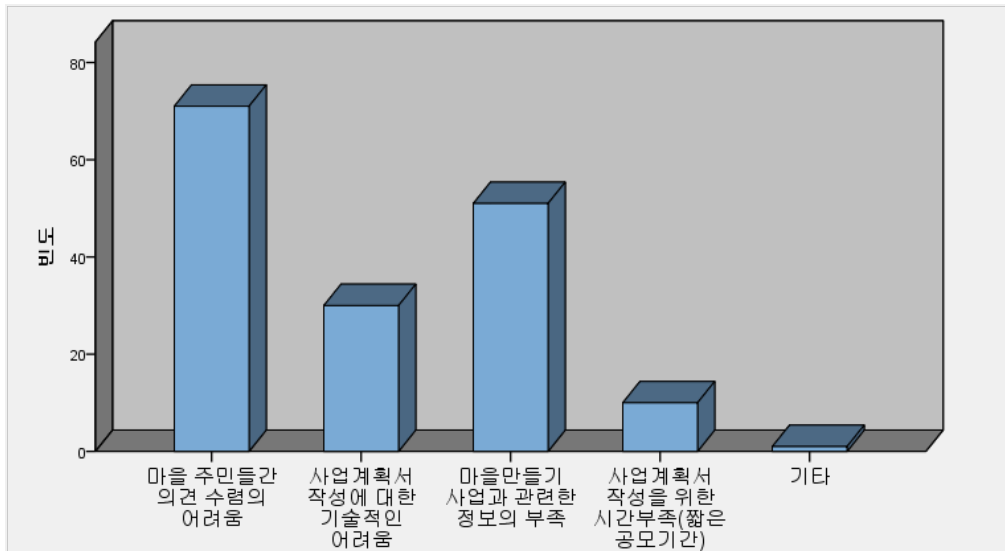
<그림 4-12 마을만들기 사업 계획의 마을 자원 및 특성 반영 정도>

라.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어려움

-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예비계획) 수립 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간 의견 수렴의 어려움(43.6%)’ 이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정보의 부족 (31.3%)’,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기술적인 어려움(18.4%)’ 순이었음. (답변 항목의 구성은 마을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들었던 의견들을 기본 정보로 하여 작성하였음)

<사업계획 수립 시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비고
마을 주민들간 의견 수렴의 어려움	71	43.6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기술적인 어려움	30	18.4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정보의 부족	51	31.3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시간부족 (짧은 공모기간)	10	6.1	
기타	1	0.6	
합계	1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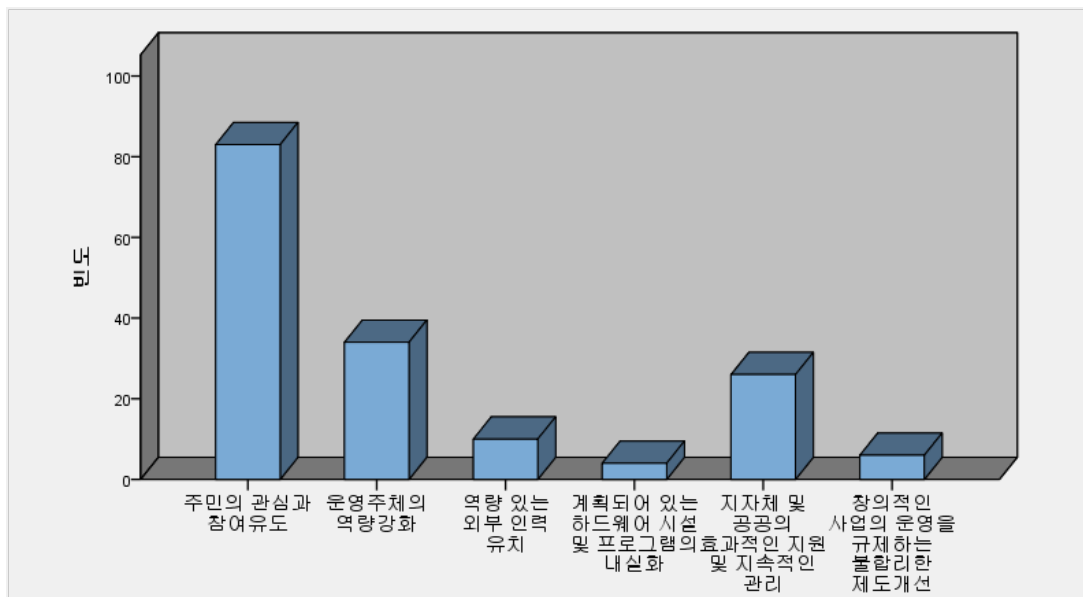
<그림 4-13 사업계획 수립 시 어려움>

마.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우선 과제

- “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많은 답변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유도(50.%)’ 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운영주체의 역량강화(20.9%)’, ‘지자체 및 공공의 효과적인 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16.0%)’ 순으로 나타남.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우선과제>

구분	빈도(명)	비율(%)	비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유도	83	50.9	
운영주체의 역량강화	34	20.9	
역량 있는 외부 인력 유치	10	6.1	
계획되어 있는 하드웨어 시설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	4	2.5	
지자체 및 공공의 효과적인 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	26	16.0	
창의적인 사업의 운영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6	3.7	
합계	163	100.0	



<그림 4-14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우선과제>

(6)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지도

- 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의 인지 정도에 대하여 마을 리더와 일반주민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 ‘전혀 모르고 있다’ 1점과 같이 5점 척도로 나타내 집단별 평균분석을 하였음. 그 결과 일반주민의 경우 마을이장, 자

생단체리더, 추진(발전)위원, 사무장 등 주요 역할을 맡은 리더그룹에 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내용에 대한 관심 또는 인지 정도가 적은 것을 살펴볼 수 있음.

<마을 내 역할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의 인지도 차이>

마을 내 역할	마을이장	자생단체 리더	추진(발전) 위원	사무장	일반주민	합계
평균값	4.50	3.82	3.97	4.00	3.10	3.41

- 또한,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마을만들기 사업 내용 인지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음.

<표 4-7> 마을 거주기간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의 인지도 차이

거주기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30년미만	30년이상	합계
평균값	3.00	3.23	3.03	3.55	3.63	3.41

나.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도

- 마을 내 역할별로 구분한 집단별 간 참여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 ‘전혀 모르고 있다’ 1점과 같이 5점 척도로 나타내 집단별 평균 분석을 하였음. 그 결과 마을이장, 추진(발전)위원 등 리더 집단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주민은 보통 정도의 참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 마을 내 역할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도 차이

마을 내 역할	마을이장	자생단체 리더	추진(발전) 위원	사무장	일반주민	합계
평균값	4.75	3.64	4.22	3.80	3.15	3.48

- 거주기간에 따른 참여도 역시 마을 사업 인지도와 비슷하게 거주기간이 길수록 참여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남.

<마을 내 거주기간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도 차이>

거주기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합계
평균값	2.63	3.41	3.00	3.66	3.75	3.48

다. 마을 별 현장포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 각 마을에서 농촌현장포럼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마을별로 현장포럼의 마을발전에 대한 기여도, 현장포럼을 통한 역량향상정도, 현장포럼의 내용적절성, 사후관리 적절성에 대하여 차이분석을 하였음.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 ‘전혀 모르고 있다’ 1점과 같이 5점 척도로 나타내어 평균점수를 비교 하였으며, 마을별로 다소 평균점수의 차이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음.

<마을 별 현장포럼에 대한 의견>

구분	온평리	와흘리	영락리	신례1리	위미1리	조수1리	토산1리	평대리	합계
마을발전 기여도	3.33	3.77	3.41	3.00	3.61	4.18	2.71	4.47	3.48
역량향 상정도	3.22	3.70	3.27	2.96	3.61	3.65	2.56	4.07	3.37
내용 적절성	3.56	3.70	3.32	3.12	3.67	3.76	2.78	4.13	3.48
사후관리 적절성	3.17	3.57	3.23	2.84	3.17	3.53	2.56	3.60	3.21

3. 설문조사 분석결과 종합

(1) 마을만들기 사업의 인지도 및 참여도

-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및 참여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인지 또는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마을 내 역할 및 거주기간의 특성에 따라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리더 그룹에

비하여 일반주민의 참여도가 떨어지며, 마을에서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참여도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장 및 추진(발전)위원 등 리더그룹의 경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일반 주민의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의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원래부터 거주했던 주민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이주 주민과 젊은 청년층의 주민들도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농촌현장포럼(진입단계)에 대한 의견

- 농촌현장포럼이 마을 발전 또는 주민 역량강화 향상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살펴본 결과 농촌현장포럼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보통 미만의 영향을 받았다고 답변을 한 응답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 주민 전반적으로 현장 포럼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포럼의 프로세스 및 운영 내용 등에 대하여 재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을 발전에 대한 농촌현장포럼의 기여도 및 주민 역량강화 정도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마을별 평균분석을 한 결과 평균점수가 높은 마을이 있는 반면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마을이 있어 마을 별로 차이를 보였음. 마을발전 기여도 및 역량향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마을은 그렇지 못한 마을에 비하여 현장포럼의 내용 적절성과 사후관리 적절성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보였음. 현장포럼 운영의 유무, 현장포럼 운영 수준과 내용, 사후관리 등의 질적 측면이 중요하므로 현장포럼을 운영하는 현장활동가의 역량 강화, 마을 특성과 수준에 맞는 현장포럼 기획 등을 통하여 현장포럼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사후관리에 대한 적절성 및 전반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점에 대한 의견을 분석해본 결과 주민들은 현장포럼에 대한 만족도에 비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현장포럼 자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현장포럼 및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었던 마을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일시

적이 아닌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3)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에 대한 의견

-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주민이 그렇지 않은 주민들 보다 더 많았으며, 지원체계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주민들보다 훨씬 많이 나타났음. 이는 현장포럼을 운영하고, 공모 사업 등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 주민을 응답대상으로 하여 주민들이 기본적인 마을 만들기 관련 정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현장포럼 등 예비단계 과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역량강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음.
-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도움이 된다고 한 주민이 많기는 하였으나 보통이다 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응답자 역시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각 단계별로 지원되는 정책적 지원을 검토해보고, 참여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는지 또는 사업의 접근에 대한 어려움이나 정보부족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 정책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4)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시 현장포럼의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과가 반영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비교적 많이 나온 것과는 상반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계획이 수립될 때(예비계획, 기본계획)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대답보다는 주요 리더 또는 소수 몇 명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응답이 많이 나온 것을 살펴 볼 수 있었음. 마을만들기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진입 단계의 현장포럼 외에는 주민참여 수단이 부족해서 그런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

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해 봐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수립된 마을만들기 계획에 대해서는 마을의 자원과 특성이 잘 반영되었다는 응답이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에 비하여 비교적 많았는데, 마을 자원 및 테마발굴 등의 과정을 통하여 마을 과제를 발굴해 가는 농촌현장포럼이 마을만의 색깔(특수성과 고유성)을 찾는 데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주민들간 의견 수렴, 기술적 어려움, 정보 부족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현장포럼 뿐만 아니라 마을사업계획 현장포럼, 공동체 활성화 현장포럼, 현안해결 현장포럼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포럼에 대한 지원과 운영을 확장하여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의 경우 주민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어려운 수준의 계획서임을 감안하여 센터,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한 우선과제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이외에도 운영주체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서는 내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마을만들기 정책은 향후 농촌 마을이 도시와 공생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제5장 사업대상마을의 현장포럼내용 및 예비계획서 비교

1. 제주지역 농촌현장포럼 대상 마을 현황(2017년 9월기준)

농림축산식품부가 상향식 지역개발 수행을 위한 지역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농촌 현장포럼’을 추진한 2013년부터 제주 지역에서 농촌 현장포럼을 운영한 마을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2013년 현장포럼 대상마을

마을명	추진현황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집행중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집행중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집행중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2리	- 중앙사업 지원 및 추진 사항 없음

(2) 2014년 현장포럼 대상마을

마을명	추진현황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	- 중앙사업 지원 및 추진 사항 없음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 중앙사업 지원 및 추진 사항 없음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승인 중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 경제(체험·소득) 기본계획 승인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1리	- 마을단위종합개발 사업 집행중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	- 지자체 소액사업(서귀포시 자립마을 육성사업) - 환경부 생태마을 지정 - 중앙사업 지원 및 추진 사항 없음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	- 환경(경관·생태) 기본계획 승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	- 시·군창의사업 기본계획 승인

(3) 2015년 현장포럼 대상마을

마을명	추진현황
제주시 한림읍 한림3리	- 공동체활성화 현장포럼 운영(2016년도 현장포럼 우수마을 선정)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 권역사업 완료마을(사후관리 현장포럼 운영)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 권역사업 완료마을(사후관리 현장포럼 운영)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	- 권역사업 완료마을(사후관리 현장포럼 운영)
서귀포시 중문동 대포마을	- 동지역/ 도시활력지역으로 구분 - 지자체 소액사업(서귀포시 자립마을 육성사업)
서귀포시 중문동 하원마을	- 동지역/ 도시활력지역으로 구분 - 지자체 소액사업(서귀포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마을	- 동지역/ 도시활력지역으로 구분

(4) 2016년 현장포럼 대상마을

마을명	추진현황
제주시 한경면 고산2리	- 중앙사업 지원 및 추진 사항 없음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	- 중앙사업 지원 및 추진 사항 없음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 권역사업 완료마을(사후관리 현장포럼 운영)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 지자체 소액사업(제주시 베스트특화마을) - 중앙사업 지원 및 추진 사항 없음
제주시 성산읍 성산리	- 해양수산부 소관 지역으로 구분
제주시 표선면 성읍1리	- 창조적마을만들기 공동문화·복지 지원 및 선정
제주시 대정읍 일과1리	- 중앙사업 지원 및 추진 사항 없음

2. 현장포럼 결과 및 예비계획서 비교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농촌현장포럼을 완료 한 제주지역 농촌마을 중 중앙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지원한 마을(평대리, 와흘리, 온평리, 조수1리, 영락리, 토산1리, 신례1리, 위미1리)을 대상으로 현장포럼 결과와 예비계획서를 비교

하였음. 이를 통하여 마을에서 예비계획 수립시 현장포럼에서의 주민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1)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마을

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개요

- 평대리 마을은 2013년 7월~ 10월에 걸쳐 4차례의 농촌현장포럼을 운영하였으며, 2014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5년 신규사업 중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음. 사업기간은 2015~2017년으로 현재 사업 집행 중에 있음.

나. 현장포럼 운영내용

구분	내용	비고
1회차	색깔있는 마을만들기의 이해/ 주민역량 강화/ 마을 자원의 이해와 활용 / 마을 자원을 활용한 색깔있는 마을 추진전략/ 구조 당근을 활용한 마을 활성화 방안	
2회차	마을테마발굴 퍼실리테이션 워크숍(마을 자원 찾기, 테마발굴)	
3회차	선진지 견학 (가시리권역 벤치마킹)	
4회차	마을 장단점 분석, 전문가 특강(비자립을 활용한 의료관광과 마을 활성화 방안,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사업지원 및 참여방법), 발전방안 토론 및 현장포럼 성과평가	



다. 현장포럼 결과

마을테마	발전목표	세부과제
천년의 비자림 당근마을 평대리	건강을 품은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기반시설 확충 - 도농교류활성화 사업 - 건강한 거리 기반조성 - 테마형 체험관광 조성
	자연을 품은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관 개선정비 - 비자림 축제 등 활성화 - 돛개동산 정비사업 - 셋모살해수욕장 개발
	활력을 품은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역량강화 - 지역컨설팅강화사업 - 마을주민역량강화사업 - 향토음식체험마을 사업



라. 창조적마을만들기 예비계획서 수립내용

- 평대리 마을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지원하였음. 평대리 마을은 예비계획에 현장포럼을 통하여 발굴한 테마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기초생활 및 지역경관개선 중심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포럼

시 발전목표로 도출한 건강, 자연, 활력이라는 목표를 담아 ‘에코힐링 마을’ 만들기라는 비전을 담아 예비계획을 수립하였음. 현장포럼을 통하여 도출한 뚝개동산 정비사업, 셋모살 해수욕장 개발사업 등의 사업 내용을 포함하여 마을안길 정비, 특색 있는 비자나무 가로수 및 비자림, 당근을 활용한 상징물 조성, 뚝개동산 정비, 해안도로 문화·역사자원 복원, 용천수 정비 등을 예비계획서에 반영하였음.



구 분	세부내역
기초생활 기반확충	- 주요 마을 뱅디길 만들기, 돌담길정비, 마을보호수(팽나무)정비 - 쉼터 조성
지역경관개선	- 해녀들의 삶 벽화 조성(걸으면서 둘러보는 마을 박물관) - 중동 도깨비동산의 부대각비 정비 및 해녀공원조성 - 용왕당, 수데기 갯마리당, 서할망당 복원 - 환해장성 주변 정리 및 복원(일부구간) - 비자나무 가로수 조성 - 마을 상징물(비자림, 당근) 조성 - 용천수 정비
지역역량강화	- 자생단체별 교육진행(개발위원회,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어촌계) - 평대리 100년 마을발전계획 수립

(2)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개요

- 와흘리 마을의 경우 2013년 8월 ~ 9월에 총 4차례의 농촌현장포럼을 운영하였으며, 2014년 중앙공모사업인 창조적마을만들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지원 및 선정되었음. 사업기간은 2015년 ~ 2018년 총 4년간으로 현재 사업 집행 중에 있음.
-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선정 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역량강화 교육 과정을 추가적으로 운영하였음.

나. 현장포럼 운영내용

구분	내용	비고
1회차	색깔 있는 마을의 이해/ 마을자원조사 및 주민역량평가 분석 결과 설명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한 색깔 있는 마을 추진전략/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발전 방안	
2회차	마을테마발굴 퍼실리테이션 워크숍(마을 자원 찾기, 테마발굴)	
3회차	선진지 견학 (웃뜨르권역 벤치마킹)	
4회차	전문가 특강(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방안,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사업 지원 및 참여), 발전방안 토론회 및 현장포럼 성과평가	



다. 현장포럼 결과

마을테마	발전목표	세부과제
신이 품은 메밀구름 들관마을 와흘리	天을 품은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 기반정비 - 본향당 정비사업 - 주차장조성사업 - 본향당대체활성화
	地를 품은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관 개선정비 - 메밀꽃축제 등 활성화 - 먼나머루 활용사업 - 상동연못재정비사업
	人을 품은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역량강화 - 지역건설팅강화사업 - 마을주민역량강화사업 - 전통음식체험마을 사업



라. 창조적마을만들기 예비계획서 수립내용

- 2015년 신규사업의 경우 중규모 사업을 거치지 않고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신규사업에 지원가능하였으며, 와흘마을의 경우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지원을 위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하였음.
- 와흘리 마을의 경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예비계획서를 수립하면서 현장포럼에서 발굴한 테마 및 대부분의 세부과제를 그대로 반영하여 본향당 정비사업과 이를 통한 본향당 대제 활성화, 만나머루 정비를 통하여 메밀꽃 축제 및 체험관광 운영, 상동 생태공원 정비, 마을 안길 돌담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예비계획서를 수립하였음.

구 분	주요사업	세부내역
기초생활 기반확충	본향당 정비사업	와흘본향당 주변정비 및 돌담정비, 마을안 내소 및 CCTV설치, 인근에 주차공간을 확보
	다목적문화복지센터	리사무소 부지내에 있는 2층 건물을 리모델 링하여 문화공간, 건강관리공간, 세미나실, 체 험공간, 마을방송실, 권역사무실 및 방문자 식당과 숙소시설 마련
지역소득증대	체험관광	마을소유부지인 먼나머루(10만평)를 활용하 여 메밀꽃 축제 활성화 및 메밀체험관광 시 설 설치
지역경관개선	생태공원조성사업	상동에 위치한 연못을 재정비하고 생태공원 조성으로 조성
	마을 돌담정비	갓담 등 마을내 돌담을 친자연적으로 정비 하고 마을안길 가꾸기 및 마을조형물 설치
지역역량강화	주민 역량강화	주민교육, 교육비품 및 장비구입, 마을해설 사 및 농촌체험지도사 양성, 마을사무장 양 성, 마을리더 양성, 국내외 선진지 견학
	권역마을 홍보	홍보·마케팅, 마을브랜드 개발, 마을안길 이 야기 만들기, 체험관광프로그램 및 코스개 발, 문화콘텐츠 개발, 축제개발
	분야별 전문가 연계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 자문, 현장포럼단 운영

(3)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개요

- 온평리 마을은 2013년 8월~9월 4차례의 농촌현장포럼을 운영하였으며, 현장포럼 이후 2015년 신규사업인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 ~ 2017년 3년간이나 2018년까지 사업 집행이 예정되어 있음.

나. 현장포럼 운영내용

구분	내용	비고
1회차	색깔 있는 마을의 이해/ 마을자원조사 및 주민역량평가 분석 결과 설명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한 색깔 있는 마을 추진전략/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마을발전 방안	
2회차	마을테마발굴 퍼실리테이션 워크숍(마을 자원 찾기, 테마발굴)	
3회차	선진지 견학 (웃뜨르권역 벤치마킹)	
4회차	마을 장단점 분석, 전문가 특강(어촌체험관광을 활용한 마을발전방안,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사업지원 및 참여방법), 발전방안 토론	



다. 현장포럼 결과

멋진 해안과 소중한 인연을 품은 (슬로건)	혼인지 (브랜드)	마을
<p>↳ 온평리 마을이 다른 마을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문화자원인 혼인지와 뛰어난 해안경관 두 가지 자원을 모두 담아 테마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 멋진 해안이라는 표현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멋진 해안을 보러 가고 싶다는 욕구를 자극할 수 있으며, 인연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시킬 수 있음. 마을 브랜드는 온평리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혼인지로 정하여 마을의 홍보를 용이하도록 함.</p>		

라. 창조적마을만들기 예비계획서 수립내용

- 평대리마을은 농촌현장포럼 내용을 바탕으로 2014년에 2015년 신규사업인 창조

적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예비계획서를 수립하였음. 현장포럼을 통하여 발굴한 ‘멋진 해안과 인영을 품은 혼인지마을’이라는 테마를 반영하여, 마을의 삼성신화 이야기를 재현하고, 어촌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들을 예비계획에 반영하였음. 기초생활기반사업 외 혼인지 테마 수중조각공원, 마을 스토리텔링 테마 조성을 통한 지역경관사업 등을 계획하였음.

- 제주지역의 삼성신화를 홍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과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및 이야기를 전해주는 마을 온평리



사업명		사업내용
기초생활 기반확충	마을운동장 일대 정비	- 동계전지훈련 팀을 맞이하기 위한 마을 운동장 일대 정비 및 보수
	주민역량강화센터 건립	- 노후된 청년회 사무실 개·보수하여 주민역량을 위한 공간마련 - 지역방문객을 위한 쉼터 제공 및 온라인 이용공간마련
지역소득 증대	방문객 쉼터 구성	- 방문객을 위한 야영장 및 휴게·편의시설 설치
지역경관 개선	혼인지 테마 수중조각공원 구성사업	- 삼성신화를 재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조각공원 조성(수중조각공원)
	마을안길 테마구성	- 마을 내 자원인 황루알에서 혼인지까지 이어지는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테마 조성
지역역량 강화	혼인지 활용을 위한 정보화네트워크 조성	- 혼인지를 활용한 체험활동 및 전통혼계 예약자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운용 교육
	선진지 및 해설사 교육	- 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자발운영을 위한 유사지역 시찰 및 문화해설 교육

(4)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개요

- 영락리 마을은 2014년 4월 ~ 7월 4차례의 농촌현장포럼을 운영하였으며, 현장포럼 완료 후 2016년 신규사업 중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단위 경제(체험)분야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음. 사업기간은 2016년~ 2018년이며, 현재는 기본계획 승인 완료 후 사업집행 중에 있음.

나. 현장포럼 운영내용

구분	내용	비고
1회차	색깔 있는 마을의 이해/ 농업·농촌의 발전전략/ 마을자원의 이해와 활용/ 깨끗한 마을 만들기 워크숍	
2회차	마을테마발굴 퍼실리테이션 워크숍(마을 자원 찾기, 테마발굴)	
3회차	선진지 견학 (신홍동백마을, 가시리권역 벤치마킹)	
4회차	마을 비전체계도 작성(퍼실리테이션 워크숍)/ 전문가 강의(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사업 지원 및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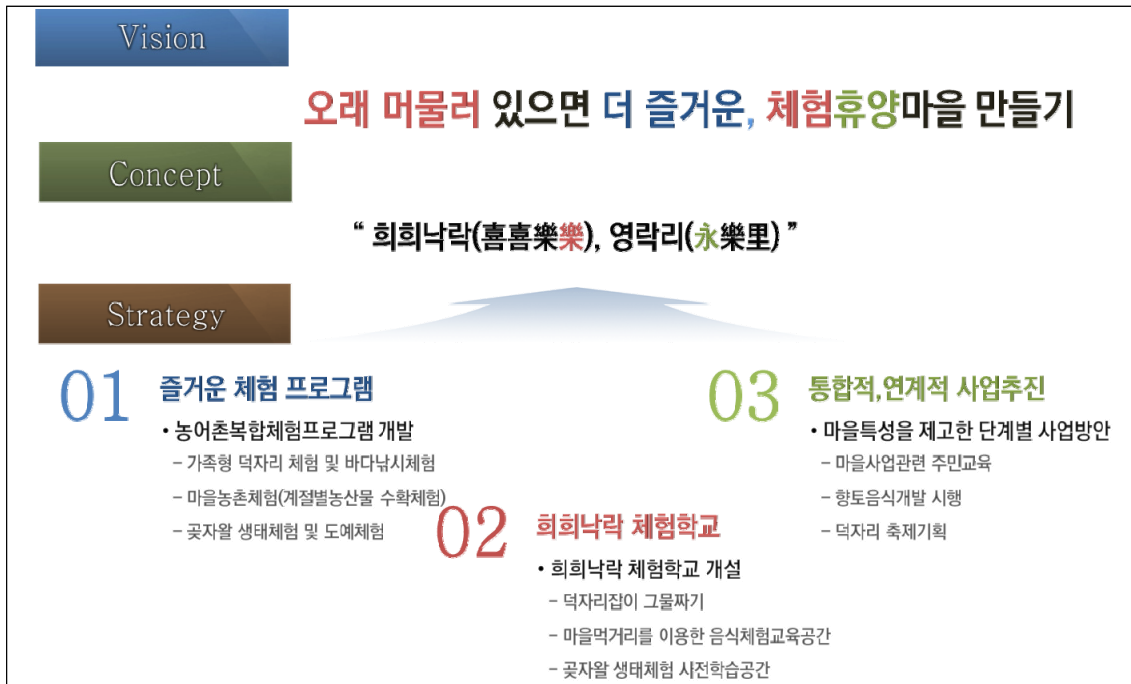


다. 현장포럼 결과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margin-right: 10px;">테마</div> <div> <p style="font-size: small;">'전통을 이어가는 마을'</p> <p>차롱밥 먹으멍(먹으며) 덕자리 거리논(뜨는) 영락리 마을</p> </div> </div>			
발전 목표	더 잘사는 마을	더 행복한 마을	더 즐거운 마을
주진 방향	- 소득기반기반 확충	- 경관 개선 · 환경 정비	- 주민 교류 활성화
전략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마늘 등) 직거래 판매장 운영 • 농산물 품종 개량 • 농산물 공동 작업장 마련 •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덕자리돔 음식점 운영 • 덕자리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차롱 제작 및 판매(특산품화) • 폐교 활용 아영장 및 오토캠핑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안길 환경정비 사업 • 곳자왈에 자왈탐방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문화사랑방 마련 • 마을주민 찜질방(쉼터) 만들기 • 노인일자리 창출 • 1사1촌 맺기(도농교류 활성화)

라. 창조적마을만들기 예비계획서 수립내용

- 영락리 마을의 경우 현장포럼 완료 후 창조적마을만들기 체험분야에 지원하면서 예비계획서의 테마 및 발전방향은 현장포럼의 테마가 반영되지 않았음. 대신 체험휴양마을 조성과 어울리는 비전과 테마를 설정하여 예비계획을 수립하였음. 사업내용은 덕자리의 전통 테마와 곳자왈을 활용한 사업 등 예비계획에 제시된 사업 대부분이 현장포럼에서 도출된 마을발전과제가 반영된 것을 살펴볼 수 있음.



사업명		사업내용
체험휴양 시설조성	희희낙락 체험학교	• 창고 리모델링을 통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험시설 조성
	희희낙락 야영시설	• 유희부지를 활용한 체험야영시설 조성
지역역량 강화	주민교육	• 주민교육 • 향토음식개발연구 • 체험지도사양성과정
	컨설팅	• 덕자리 축제 기획 및 운영활성화 컨설팅 •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 마케팅	• 마을브랜드(CI) 개발 • 홍보물제작 • 덕자리 축제 운영 지원

(5)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1리

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개요

- 토산1리 마을은 2014년 6월~ 7월에 거쳐 4차례의 농촌현장포럼을 운영하였으며, 현장포럼 완료 후 2016년 신규사업 중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단위 종합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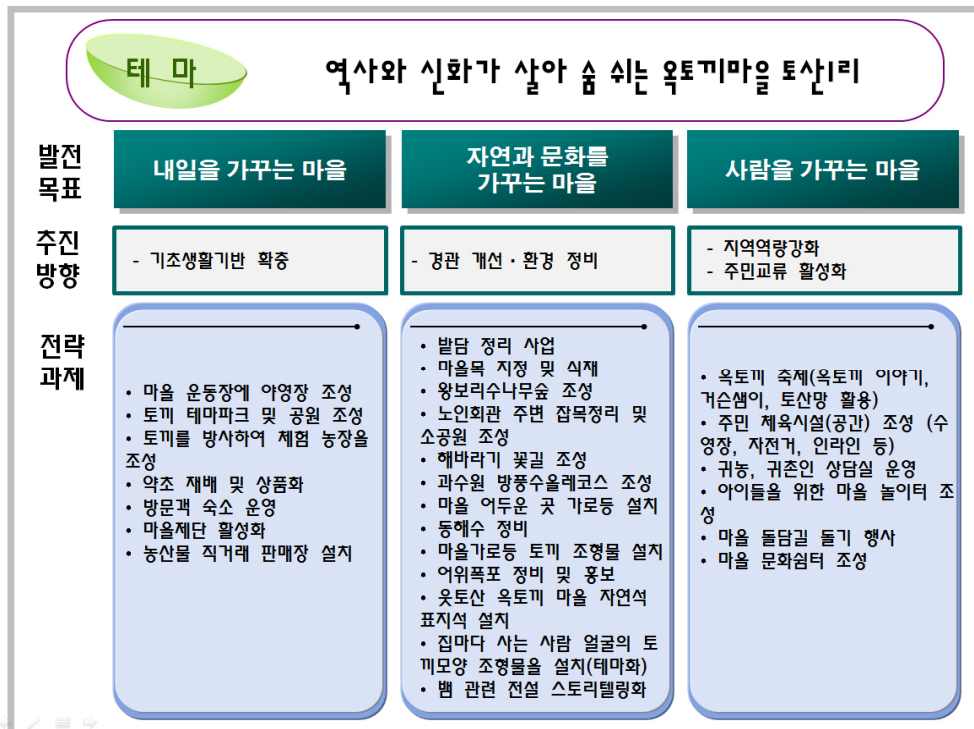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음. 사업기간은 2016~2018년으로 현재 기본계획 승인 완료 상황임.

나. 현장포럼 운영내용

구분	내용	비고
1회차	색깔 있는 마을의 이해/ 마을자원조사 결과 및 자원의 이해와 활용	
2회차	마을테마발굴 퍼실리테이션 워크숍(마을 자원 찾기, 테마발굴)	
3회차	선진지 견학 (웃뜨르권역, 아홉굿마을 벤치마킹)	
4회차	마을 비전체계도 작성(퍼실리테이션 워크숍)/ 전문가 강의(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사업 지원 및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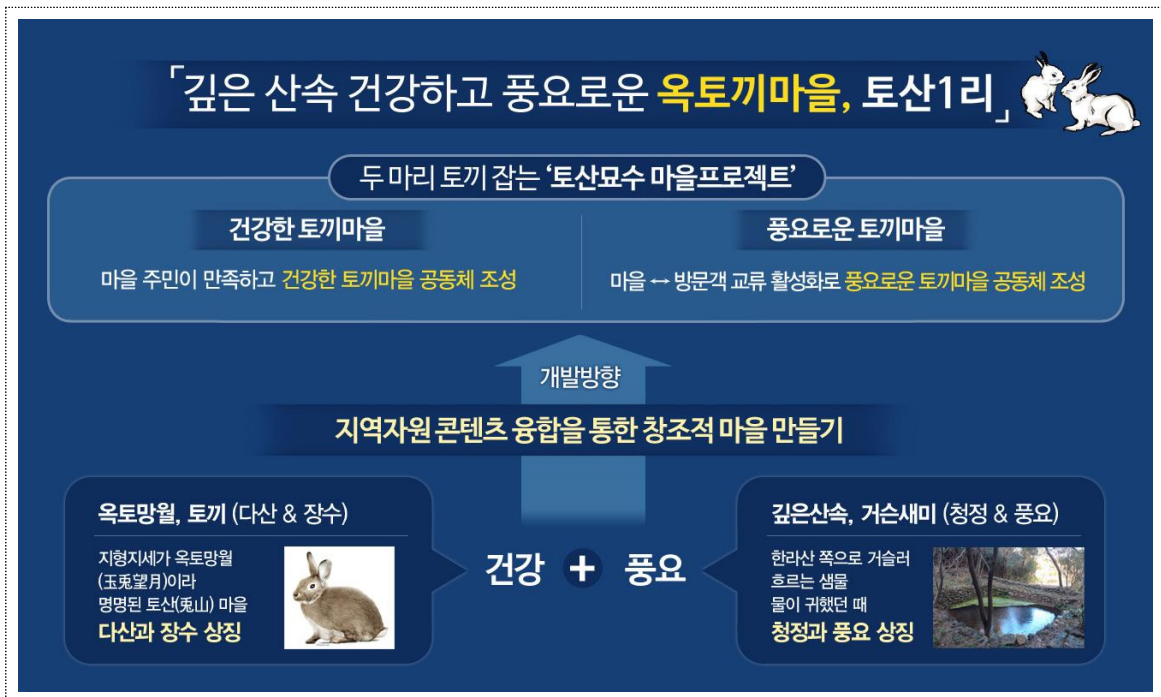


다. 현장포럼 결과



라. 창조적마을만들기 예비계획서 수립내용

- 토산1리 마을의 경우 현장포럼을 통하여 발굴한 ‘옥토끼 마을’이라는 브랜드를 예비계획서에 반영하였으며, 현장포럼에서 주민의견으로 도출된 사업들 중 옥토끼 브랜드와 관련된 생태공원 및 테마체험장, 토끼를 활용한 테마경관조성(조형물, 안내판 등) 사업을 예비계획에 반영하였음.



공간 구분	활용 자원	공간 테마	주요사업		
			S/W구상	H/W구상	연계전략
토산 1리	옥토망월 (이야기) 거슨새미 (생태자원)	건강 & 풍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스터플랜(사업계획) •스토리텔링콘텐츠 •주민교육훈련 •홍보및컨설팅 •깊은산속옹달샘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토끼 생태공원 조성 •옥토끼마을 테마체험장 •옥토끼마을 테마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끼사육농가 육성 •옥토끼마을 6차산업화 •금연마을육성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농특산물유통사업

(6)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

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개요

- 신례1리 마을은 2014년 6월 ~ 9월에 걸쳐 현장포럼이 운영되었으며, 신례1리 마을의 경우 지자체와 연계하여 운영한 현장포럼으로 총 6회차로 운영되었음. 현장포럼 완료 후 2015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6년 신규사업 중 창조적마을만들기 환경(경관·생태)분야 지원하여 선정되었음. 사업기간은 2016~2017년(2년)으로 되어 있으나 기본계획 추진 중 도와 협의기간이 길어져 2017년 상반기가 지나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사업기간이 다소 지체되고 있음.

나. 현장포럼 운영내용

구분	내용	비고
1회차	색깔 있는 마을의 이해/ 마을자원조사 결과 및 자원의 이해와 활용	
2회차	마을 자원 찾기 및 대표자원 선정(퍼실리테이션 워크숍)	
3회차	선진지 견학 (웃뜨르권역, 아홉굿마을 벤치마킹)	
4회차	마을테마선정 및 비전체계도 완성(퍼실리테이션 워크숍)	
5회차	마을발전과제 보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토론 및 성과평가	
6회차	마을 발전체계도 작성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비전체계도 보완, 장·중·단기 과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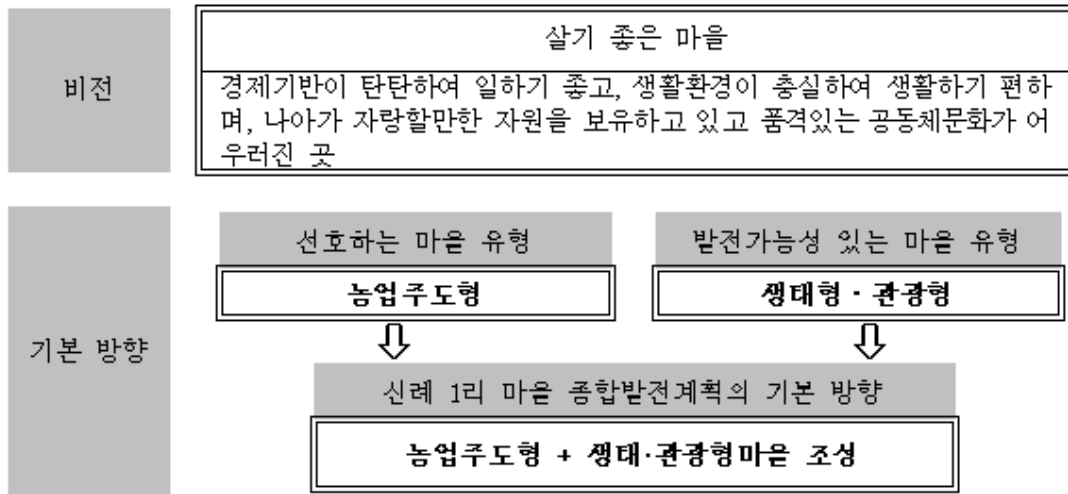


다. 현장포럼 결과

비전	또! 천년을 준비하는 예촌마을 신레1리		
테마	한라산 즐기기 따라 천년의 예를 지켜온 예촌마을 신레1리		
전략 목표	천년을 중요하게 채워가는 마을	천년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마을	천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마을
전략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기반 확충 - 관광기반시설 마련 • 농산물 직판장 조성·운영 • 마을 공동 저온저장고 설치 • 베스트마을 사업 활성화 • 특성화 상품개발(잡감류) • 마을식당 확장 및 리모델링 • 마을 식당 조성 및 연중 메뉴 개발 • 고사리 재배 및 가공·판매 • 약초단지 조성 • 마을 식당 앞 휴장 조성 • 마을 운영 숙박시설 조성 • 감귤 체험용 바구니 제작 • 특색 있는 소포장지 만들기 • 감귤 명주 홍보 • 감귤 활용 가공식품 개발 • 소형 바래기 제작·판매 • 마을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활성화 • 감귤농장 체험프로그램 개발 • 캠핑장 조성 및 운영(마을공동목장 주변) • 신레천 물놀이 시설 조성 • 방문객을 위한 열린화장실 마련 • 마을 공동목장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닭 키우기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신레천 포토존 만들기 • 마을 공동목장 잔디썰매장 조성 • 감귤체험프로그램 운영(감귤염색, 감귤주스) • 마을 명소 투어코스 개발 • 호·예를 테마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고사리 꺾기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이승악과 마을을 연결하는 탐방코스 개발 • 농촌민박 활성화 및 특성화 • 마을주막 만들기 • 신레천 계곡 트레킹코스 개발 • 목장을 이용한 바래기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 개선·환경 정비 • 마을 내 뽕나무 가로수 심기 • 마을 진입 도로 확충 • 신레천 주변 하천정비 사업 • 마을 외곽 걷는 길 개설 • 돌담 보존 및 정비 사업 • 마을 안길 정비 • 마을 꽃길 조성 • 굴나무 가로수 조성 • "예촌마을"/"천년의 예" 안내판 설치 • 신레천변 가로등 설치 • 신레천변 벤치 설치 • 신레천변 꽃길 조성 • 신레천 주변 편의시설(노후화)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역량강화 - 공동체 회복 • 야외 영화 상영 • 노인문화복지센터에 즐깁거리, 여가·복지 프로그램 구축 • 전통을 살린 마을 축제 • 어린이 놀이시설 마련 • 문화센터 조성 • 학교살리기 학부모와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이주민의 밤' 모임 만들기 • 예와 도를 주제로 한 마을 향토박물관 조성 • 마을 해설사 교육 및 육성 • 서당 운영하기 • 귀농·귀촌인 주거시설 마련 • 귀농인 정착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일자리 창출

라. 창조적마을만들기 예비계획서 수립내용

- 신레1리 마을은 창조적마을만들기 환경(경관·생태사업) 분야에 신청하였으며, 현장포럼을 통하여 주민들이 도출한 다양한 마을과제 중 경관정비 및 환경개선 분야로 분류 되는 마을과제의 내용을 반영하여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과 신레천변 정비 및 조성 사업, 기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예비계획서를 수립하였음. 현장포럼을 통하여 마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은 예비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음.



구분	사업명	사업목적
조성사업	황칠나무, 왕벚나무 가로수길조성	- 마을 대표수종의 가로수길 조성(조경구역)
	육묘장설치 및 운영	- 신례천 자생 황칠나무, 산매자나무, 왕벚나무 육묘 및 증식
	생태탐방로 조성	- 신례천과 생태휴게소 사이의 탐방로 조성(신규1) - 신례천의 송목교를 이용한 탐방로 조성(신규2,3)
정비사업 및 기타	탐방로 길 정비 및 안내판 설치	- 기존 개설된 신례천 및 이승악 탐방로 개보수 및 안내판 설치
	주민역량강화	- 선진지 견학 및 주민교육
	홍보 마케팅	- 마을 홈페이지 및 공동브랜드 개발, 경관에 대한 기록물 제작

(7)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

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개요

- 위미1리 마을은 2014년 7월~ 10월에 거쳐 현장포럼이 운영되었으며, 위미1리 마을의 경우 지자체와 연계하여 운영한 현장포럼으로 총 6회차로 운영되었음. 현장포럼 완료 후 2015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6년 신규사업 중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음. 사업기간은 2016~2018년이며기본계획 추진 중 도와 협의기간이 길어져 현재 기본계획이 승인 완료된(2017년 9월 현재) 상황임.

나. 현장포럼 운영내용

구분	내용	비고
1회차	색깔 있는 마을의 이해/ 마을자원조사 결과 및 자원의 이해와 활용	
2회차	마을 자원 찾기 및 테마발굴(퍼실리테이션 워크숍)	
3회차	선진지 견학 (웃뜨르권역, 아홉굿마을 벤치마킹)	
4회차	마을 비전체계도 만들기(퍼실리테이션 워크숍)	
5회차	전문가 컨설팅(마을계획 추진 방안), 토론 및 성과평가	
6회차	마을 발전체계도 작성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비전체계도 보완, 장·중·단기 과제 구분)	



다. 현장포럼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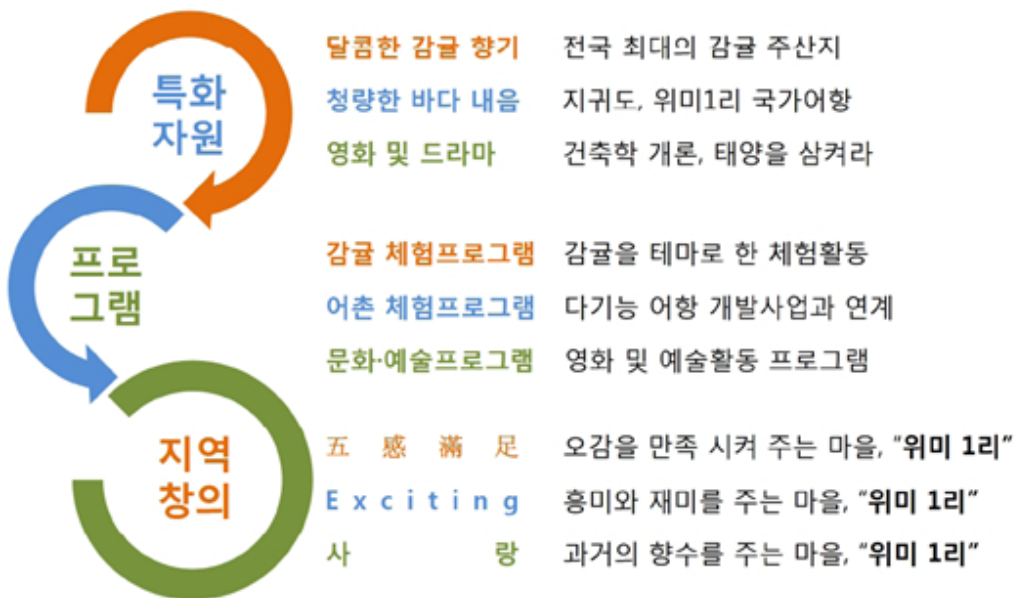
테마	돌담 따라 굴 꽃 향기 가득한 바닷동네 위미1리		
전략 목표	공동체 사업(We)으로 풍요로운(美) 마을 - 경제기반 확충 - 마을 공동체 사업 운영	사람들이(We) 아름다운(美) 마을 - 지역역량강화 - 공동체 회복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We) 즐거운(美) 마을 - 경관 개선·환경 정비 - 관광기반시설 마련
전략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계 (해녀)식당 운영 열대과일 재배 및 판매 농산물(만감류) 소포장 개발 및 판매 감귤꽃차 생산 및 판매 레드향 주스, 잼 가공 공장 사업 만감류 직거래 판매 상설매장 운영 감귤꽃 가공 감귤 체험장 조성 및 운영 한라봉 잼, 한라봉 고추장 만들기 체험 투스제비 만들기 체험 운영 마장길 체험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교육-주민역량 교육, SNS교육, 바리스타 교육, 스마일 교육, 경제교육, 부모교육 결혼 아카데미 운영 아름다운 마을 아카데미 운영 - 주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주민 공동식사를 위한 식당 운영 굴밭 지켜내기 운동(토끼 팔지 않기) 어촌계 교육 어린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북카페 운영-도서관 회원 주민 동아리 모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갤러리 마을 만들기 비포장 도로 꽃 심기 굴꽃 축제 운영 마을 유희시설 활용방안 마련 위미1리 특색있는 안내 표지판 설치 마을 안길 쓰레기 청소 하늘나무 가로수길 조성 마을정비-예초, 가지치기 등 깨끗한 주변 환경 조성 돌담 가꾸기 색깔있는 가정 만들기 사업-특색있는 문패 만들기 등 조형물(작품) 공원 조성 마을 내 숙박업 연합 조성하여 체계적 운영 투스제비 만들기 체험 운영 빈집 꾸미기 체험 활동(그림 그리기, 벽화 등) 4계절 마을 체험활동 운영(봄-고사리축제, 여름-보말잡기, 가을- 굴파기 체험, 겨울-가공식품체험) 농촌민박 운영(가정집 활용)

라. 창조적마을만들기 예비계획서 수립내용

- 지역창의사업에 지원한 위미1리 마을의 경우 현장포럼을 통하여 주민들이 만든 테마는 변형이 되었으나 그 의미는 담겨 있으며, 사업의 발전방향을 잘 반영하기 위하여 정교화 한 것으로 보임. 예비계획서를 통하여 수립한 사업내용이 현장포럼에서 도출한 과제들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으나 감귤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는 오감만족 활동공간, 특색 있는 마을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사랑의 감성길 조성 등 주요사업들이 현장포럼 시 주민의견을 다수 반영하였음.

1. 기본방향 및 목표

달콤한 감귤 양기와 청량한 바다 내음을 품은 마을 위미 1리



4.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년도								
			'16	'17	'18	'19					
계		2,000									
기초생활 기반확충	✓ 고망물 문화예술공연장 조성	300			■	■	■	■			
	✓ 五感滿足 활동공간 조성	800		■	■	■	■				
지역 소득증대	✓ 해양레저 체험장 조성	300		■	■						
	✓ "사랑의 감성 길" 조성	300			■	■					
지역 경관개선	✓ 방문객 쉼터 조성	100		■	■						
	✓ 기본계획수립	100	■	■							
지역 역량강화	✓ 브랜드개발, 홍보, 컨설팅 등	50		■	■						
	✓ 추진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30	■	■	■	■	■	■	■	■	■
	✓ 문화예술 전문가 연계	20		■	■	■	■				

(8)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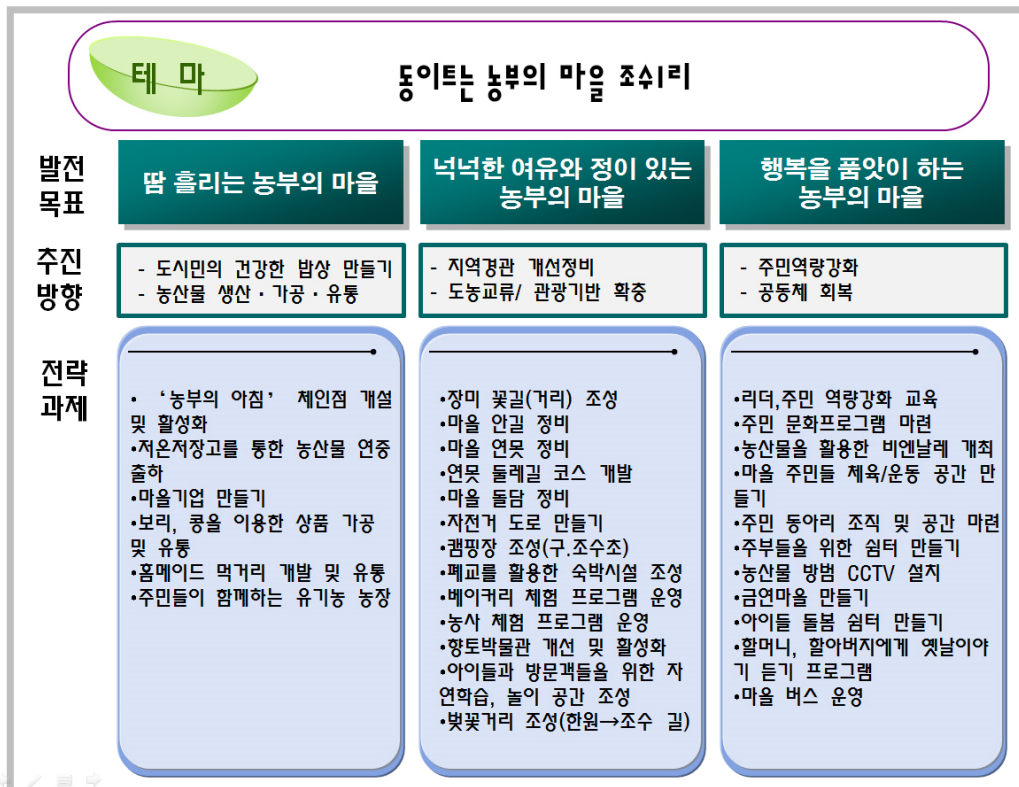
- 조수1리 마을은 2014년 4월 ~ 7월에 거쳐 4차례의 농촌현장포럼을 운영하였으며, 같은 해인 2014년에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예비단계 사업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을 운영하였음. 예비단계 사업 이후 2015년에 2016년도 신규사업 중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음. 현재 ICT 사업으로 인해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져 기본계획 승인만 완료된 상황임.

나. 현장포럼 운영내용

구분	내용	비고
1회차	색깔있는 마을만들기의 이해와 정책/ 마을자원의 이해와 활용	
2회차	마을테마발굴 퍼실리테이션 워크숍(마을 자원 찾기, 테마발굴)	
3회차	선진지 견학 (무릉외갓집, 동백마을 벤치마킹)	
4회차	마을 발전 과제 발굴을 위한 마을 발전 체계도 작성(퍼실리테이션 워크숍)/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사업 지원 및 참여 방법/ 마을 발전 방안 토론 및 성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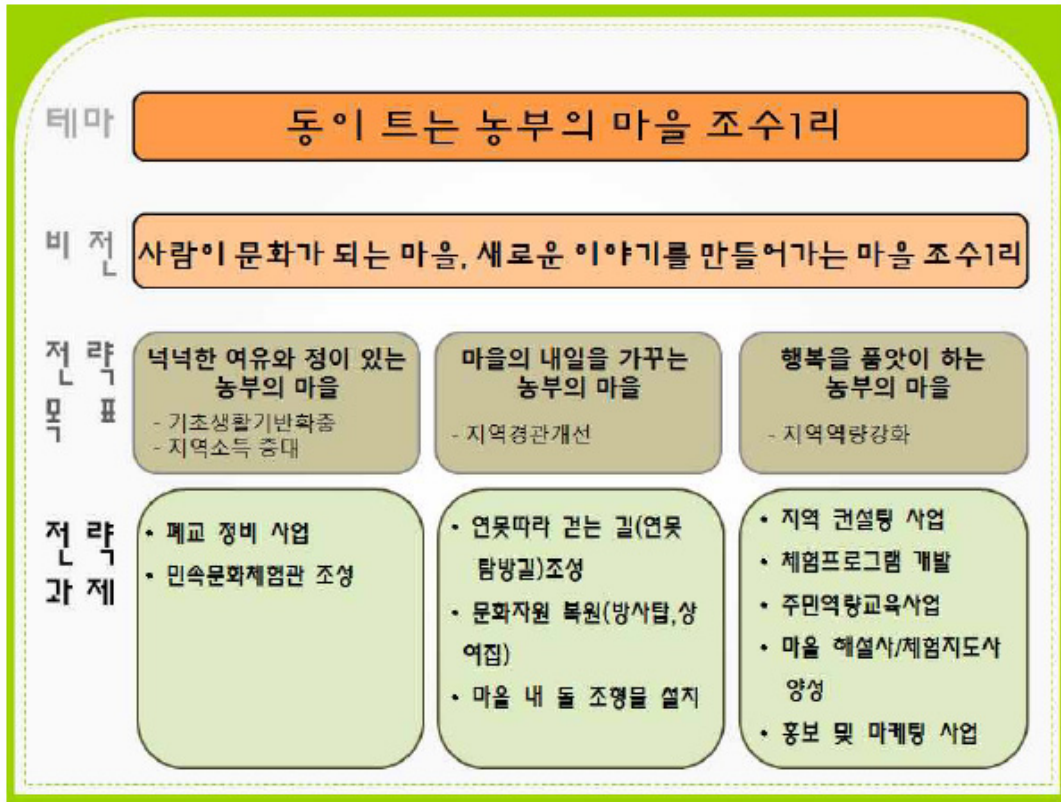


다. 현장포럼 결과



라. 창조적마을만들기 예비계획서 수립내용

- 조수1리 마을의 경우 현장포럼 완료 후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현장포럼을 통하여 도출한 테마 및 전략과제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예비계획을 수립하였음. 현장포럼에서 주민들이 발굴한 전략과제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폐교활용 캠핑장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향토박물관(민속문화체험관) 조성, 연못정비(연못 탐방길), 마을안길정비(문화자원복원 및 조형물 설치) 등을 예비계획에 반영하였음. 꽃길 조성, 주민 문화프로그램 등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들은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사업명		사업내용
기초생활 기반확충	폐교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내부 리모델링(방문자센터, 체험공간) • 운동장 야외 간이무대 설치 • 학교 운동장 및 주변 편의시설 설치(식수대, 화장실, 샤워시설, 휴게 공간 등)
	민속·문화전시 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문화 전시관 조성(신축) •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역경관 개선	연못따라 걷는 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못 정비 • 연못 따라 걷는 길(탐방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방길 안내표지판, 연못 탐방길 지도, 가이드북, 인증서 개발·제작
	문화자원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대 복원 • 상염집 정비
	마을 내 돌 조형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내 주요 거리에 돌 조형물을 설치하여 마을 경관 조성
지역역량 강화	주민역량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교육, 리더교육, 해설사/ 체험지도사 양성 등
	선진지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등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프로그램 개발, 문화콘텐츠 개발 등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플릿 제작, 가이드북 개발, 책자 발간, 온라인 홍보, 기타 홍보활동 등
	전문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자문 등 분야별 전문가 연계 등

제6장 사업대상마을의 기본계획서 검토

1. 마을별 기본계획서 수립 내용

(1)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 평대리 마을의 기본계획서를 살펴보면, 사업 선정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비계획 시 수립되었던 비전과 발전목표가 수정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음.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예비계획의 사업 중 일부인 벵디 쉼터 조성, 도깨비 동산 정비, 용왕당 정비, 마을 상징물(조형물) 조성이 반영되었음. 일부 반영이 된 사항은 사업비 반영 등으로 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임.



사업명		내용
기초생활 기반확충	뱅디쉼터 조성	-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5곳의 나무 그늘의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나무벤치 조성
지역경관 개선	해안도로 역사문화 유적복원	- 도댓불 복원 - 용왕당 복원
	도깨동산 쉼터	- 도깨동산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콘크리트 철거 및 원형으로 복원하여 쉼터 조성
	뱅디길 안내시스템	- 비자림을 형상화한 상징조형물 설치 - 지역 자원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
지역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2)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 마을에서 수립한 예비계획서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서가 수립되었으며, 마을의 테마와 추진방향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내용이 농촌현장포럼을 통하여 주민이 발굴한 사업 내용을 많이 반영하였으나, 그 중 일부 상세계획은 수정되었음.



- 본향당 정비사업의 경우 예비계획서의 계획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다목적문화복지센터 계획은 마을 리사무소를 활용하는 대신 먼나머루에 방문자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되었음. 연못정비 및 생태공원 조성 계획과 마을 돌담 정비 사업 역시 먼나머루 내 소공원 조성과 돌담길 조성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음. 먼나머루 체험관광 활성화 시설은 먼나머루 내 야외체험장을 건립하고 마을 내 공동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농산물 판매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음. 사업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주민들이 대표자원이라고 생각하는 먼나머루를 중심공간으로 하여 사업들을 집중하여 배치하는 계획을 통하여 마을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표 > 와흘마을 기본계획서 사업내용 요약

사업명	내용
본향당 정비사업	잡목제거, 돌담정비, 도로정비(배수로 정비), 잔디식재 및 잔디블록설치, 입간판 1개소/ 정비면적 약 4,005㎡
와흘체험마을 방문자센터	먼나머루 내 주차장설치, 와흘체험마을 방문자센터 건립, 상징조형물 설치(입구)
체험관광	소규모 야외체험장 건립 및 농산물판매장 구축/ 교육장 및 교육단상, 농산물판매장 리모델링 및 메밀포장기계 구축
소공원 및 먼나머루 돌담길 조성	먼나머루 내 와흘체험마을 방문자센터 방문객 등을 위한 소공원 설치 및 돌담길 조성/ 팔각정 설치, 잔디식재, 데크시설, 조경수 식재
조형물 및 입간판 설치	와흘리의 메밀을 모티브한 조형물 및 와흘리를 모티브한 입간판(먼나머루 입구 조형물, 본향단 입구 입간판 설치)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해설사 양성, 현장포럼단 운영, 마을 이야기, 브랜드 개발, 전단지, 문화콘텐츠 개발, 축제개발 및 지원

(3) 서귀포시 성산읍 은평리

- 은평리 마을의 기본계획서는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방문객 쉼터 조성사업을 제외하고 예비계획서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수립되었음.



사업명		내용
기초생활 기반확충	마을운동장 정비	지역주민의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 휴게/편의시설(화장실, 식당, 조리시설 등)
	주민역량강화 센터	지역 내 청년회 및 부녀회 자발적 참여를 위한 공간 조성(청년회, 부녀회실, 정보화교육장, 방문객 쉼터)
지역경관 개선	혼인지 테마 수증조각공원	온평리 포구일대 혼인지 스토리를 테마로 한 조각상 설치
	혼인지 테마 부조	마을회관 전면 부조
지역역량강화		주민역량강화(주민교육, 해설사교육, 선진지견학), 캣츰형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브랜드, 스토리북, 축제기획, 정보화구축)

(4)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 영락리 마을의 기본계획은 비전과 테마, 발전방향 및 사업내용이 예비계획시 수립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기본계획 시 S/W 내용을 구체화 하여 제시하였음.

순채 더부족면 더 즐거운 영락리 마을

의의낙락(喜喜樂樂)



사업명		사업내용
지역소득 증대	희희낙락 체험학교	- 체험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시설계획
	희희낙락 휴양공간	- 체험객이 머물 수 있는 야영 공간 조성 - 주차, 편의, 안내 시설 조성
지역역량 강화	주민교육	- 주민참여 활성화 유도 - 향토음식개발의 필요성 -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 축제기획 및 운영활성화 - 마을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 마을브랜드 개발 - 홍보물 제작 : 리플릿 등

(5)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1리

- 토산1리 마을은 예비계획의 ‘옥토끼마을’이라는 브랜드를 반영하여 옥토끼 생태공원, 옥토끼 체험장, 옥토끼 경관 조성 등의 H/W 사업을 기본계획에도 반영하였음. 예비계획에서의 S/W 사업 중 축제 프로그램은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으며,

스토리텔링, 브랜드 개발 및 주민교육 등 마을 특색에 맞는 S/W 사업과 6차산업 등 연계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사업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기본계획은 전반적으로 예비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음.



사업명		내용
지역역량 강화	옥토끼체험장 조성	· 실내체험공간 신축 (체험공간, 식음 및 숙박서비스 공간)
지역경관 개선	옥토끼 생태공원 및 안내시설 조성	· 테마체험장 주변 생태정원 및 테마쉼터 등 조성 · 옥토끼 체험장 및 생태공원 홍보를 위한 안내시설 등 구축
지역역량 강화	교육	· 주민마인드 교육 · 리더교육 · 맞춤형과정(체험휴양운영과정, 마을상품개발과정, 마을미관가꾸기 과정)
	컨설팅	· 마을자원 스토리텔링 · 단위사업 활성화 · 연계사업계획 수립
	홍보마케팅	· 브랜드개발 및 상품 디자인 · 마을홍보물 제작 · 도시민교류 이벤트 · 정보화 기기 구축

(6)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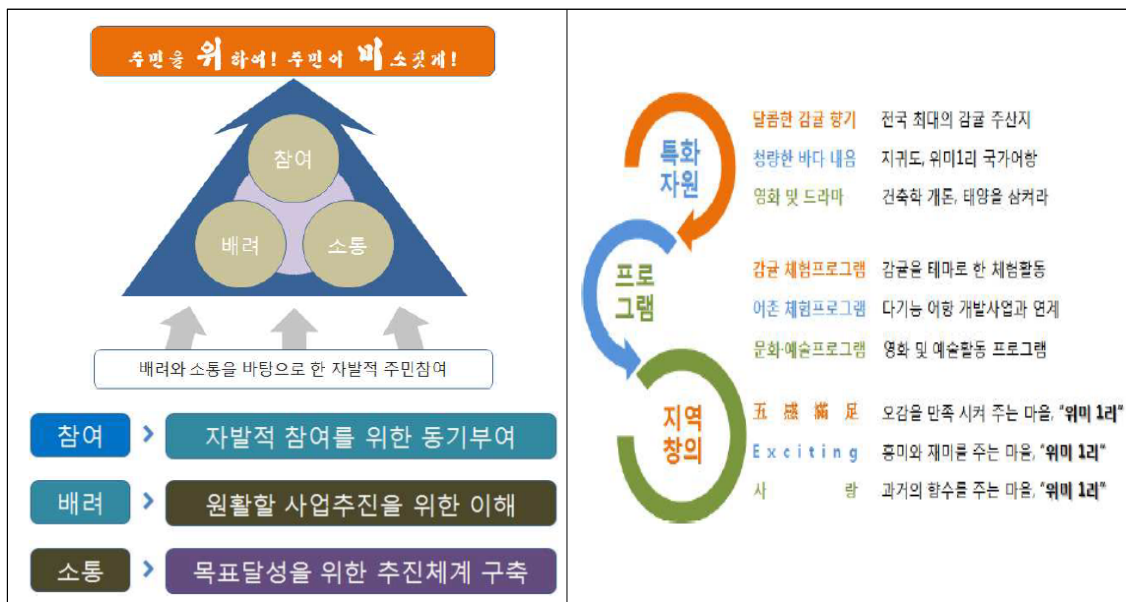
- 신례1리 마을의 경우 마을 비전 및 발전방향이 현장포럼의 결과와 예비계획, 기본계획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남. 신례1리 마을은 창조적마을만들기 환경(경관·생태사업) 분야에 지원을 하였는데, 예비계획에서의 사업 내용 중 육묘장 설치 사업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왕벚나무 가로수길 조성, 생태탐방로 조성, 탐방로 안내판 설치 사업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음. 또한 기초생활기반 사업인 주민휴게쉼터 조성사업이 기본계획서에 추가적으로 계획되었음.



사업명		내용
지역경관 개선	왕벚나무 가로수길 조성	신례천을 따라 신례천 방향으로 왕벚나무 식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마을 내 공동목장 부지를 활용하여 탐방로 및 휴게공간 조성
	생태탐방로 안내판 정비	기 조성되어 있는 탐방로의 노후안내판 교체 및 이정표 신규 설치
기초생활기반확충	주민 휴게쉼터 조성	리사무소 유희부지 활용하여 오픈공간 조성(파고라, 잔디블럭, 돌담 등)
지역역량 강화	주민교육	동기화교육, 특성화교육, 국내선진지 견학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기록물 개발

(7)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

- 위미1리의 지역창의 사업 기본계획에는 예비계획에서 계획된 마을 비전은 ‘달콤한 감귤 향기와 청량한 바다 내음을 품은 마을 위미1리’에서 ‘주민을 위하여! 주민이 미소짓게’ 수정되어 반영되었음. 예비계획서 및 기본계획서의 사업계획을 비교해 보면 예비계획에서는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오감만족 활동공간(체험)과 해양레저 체험장 조성 사업이 있으나 기본계획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음. 대신에 예비계획서에 없었던 넙빌레(용천수/노천탕) 정비 및 고망물(용천수) 복원 사업이 추가적으로 계획되었음.



사업명		내용
기초생활 기반확충	문화예술공연 장 조성	상설무대, 휴게공간(파고라, 벤치, 탁자 수로 등) 조성
	사랑의 감성 길 조성	LOVE상징 조형물 4개소, 해안도로 테마 벽화 부조
지역경관 개선	넙빌레 일대 정비	기존 야외 노천탕 보수
	고망물 복원	고망물 (용천수) 복원, 돌계단 정비, 벤치조성, 잔디블럭 설치
지역역량 강화	주민교육	리더교육,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교육, 선진지 견학
	컨설팅	6차산업 체험프로그램 컨설팅, 문화예술전문가 연계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지역홍보책자 발행

2. 사업 추진 중인 마을 현황

(1)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마을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평대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총 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공정율 : 약 20%(2017년 8월 기준)
- 평대리 마을의 경우 주요 사업인 해안도로 역사문화 유적 복원 사업과 도깨동산 쉼터 조성사업이 해안도로에 위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공사가 늦어지고 있음. 주민교육 및 브랜드 개발 등 역량강화 사업은 대부분 진행되었으며, 시설공사의 경우 2017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나. 사업현황



- 평대리 마을 내에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하는 나무그늘이 많은데 나무 주위가 콘크리트로 덮여있어 이용이 불편하고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나무벤치를 설치하여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 도깨동산은 콘크리트와 아스콘으로 덮여 있어 기존의 해안경관을 찾아볼 수 없음. 기존의 모습인 현무암 바닥 포장으로 복원시키고,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승터로 조성할 계획임.



• 해안도로에 용왕당과 도댓불이 있었던 곳으로 용왕당의 경우 형태가 많이 훼손되었으며, 도댓불은 원래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음. 당과 도댓불은 어촌 지역의 문화가 반영된 귀중한 자원으로 이를 복원·보존하는 계획을 함.

(2)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와흘메밀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총 사업비 : 2,686백만원
- 사업공정율 : 약 20%(2017년 8월 기준)
- 2017년 8월 기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 S/W 사업 위주로 추

진되었으며, H/W 사업들의 경우 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인·허가 단계 과정으로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에 집중적으로 집행 될 예정입니다.

나. 사업현황



- 와흘 본향당 내·외부 현황임. 향후 잡목제거, 돌담정비, 배수로 정비, 잔디식재 및 잔디블록 설치 등 본향당 주변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임.



- 와흘마을은 예로부터 메밀을 많이 심었는데, 약 10만평 정도의 마을 소유 토지인 먼나머루에는 메밀이 잘 자라는 곳임. 먼나머루의 토지를 활용하여 방문자 센터, 야외체험장, 소공원, 돌담길 조성, 조형물 설치 등 H/W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임.

(3)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온평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총 사업비 : 929백만원
 - 사업공정율 : 약 30%(2017년 8월 기준)
- 온평리 마을은 마을 운동장 정비사업을 거의 완료하였으며, 역량강화센터는 착공한 상태임. 마을회관 한편의 테마부조와 수중조각공원은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음. 수중조각공원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의 어려움이 있음. 사업기간이 2017년이나 2018년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임.

나. 사업현황



- 마을 운동장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임.



- 노후화된 청년회사무실은 노후화되어 활용이 어려우므로 지역주민역량강화센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신축공사 중임. 청년회 및 부녀회 사무실뿐만 아니라 주민 교육 및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겸할 예정임.



• 혼인지의 역사를 간직한 마을임. 혼인지를 테마로 한 수중조각공원을 조성하여 마을의 랜드마크 및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온평리사무소를 지나는 마을 안길에 삼성신화 이야기를 벽화부조로 만들어 설치할 계획임.

3. 예비계획서 및 기본계획서 분석결과 종합

제주지역에서 농촌현장포럼을 완료한 후 중앙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지원한 8개 마을의 현장포럼 결과 및 예비계획서와 기본계획서를 비교해본 결과 일부마을은 현장포럼에서 발굴된 마을 테마 및 사업과제가 예비계획서와 기본계획서에 대부분 반영된 반면 예비계획서 또는 기본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뀐 경우도 있었음.

(1) 사업내용이 바뀌지 않은 경우

와흘리 마을의 경우 현장포럼에서의 마을 테마와 발전목표, 세부과제가 예비계획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음. 또한 기본계획 역시 마을의 테마와 발전목표는 그대로

반영이 되었으며, 사업 내용 중 상세계획 일부는 수정되었는데 이는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집중 배치 설계 등에 따라 수정된 것으로 현장포럼의 주민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사업계획임. 와흘리 마을의 경우 현장포럼 이후 전문가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졌으며, 현장포럼 당시의 마을 이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현장포럼 당시의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토산1리 마을의 경우도 마을의 테마가 일부 수정이 되기는 하였으나 현장포럼에서 발굴한 ‘옥토끼마을’이라는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포럼에서 주민의견으로 도출된 사업들 중 옥토끼 브랜드와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토산1리 마을 역시 현장포럼 당시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며, 마을의 이장이 바뀌는 것과는 관계없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조수1리 역시 ICT 사업의 추진으로 기본계획 기간이 늦어지긴 하였으나 예비계획 수립 시 현장포럼에서 발굴된 테마와 발전방향, 사업과제가 반영되었음. 조수1리 역시 현장포럼부터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하여 예비계획을 수립되었으며, 당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시 이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임.

(2) 사업내용이 바뀐 경우

평대리 마을, 영락리 마을, 신례1리 마을, 위미1리 마을은 현장포럼에서 도출된 테마와 발전방향이 예비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동안 많이 수정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음.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결과 현장포럼 이후 바뀐 마을 리더나 추진위원회가 마을에서 추진했던 현장포럼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었으며, 현장포럼에 참여하지 않아 내용을 모른다고 대답한 리더도 있었음. 마을 리더가 바뀌면서 사업의 연속성이 없이 마을리더 그룹(이장, 추진위원회 등) 또는 컨설팅업체 등에 의해 사업계획서가 수정된 경우라고 할 수 있음.

예비계획서 및 기본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장포럼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용

역회사와 마을이장단에 의하여 마을에서 현장포럼시에 작성한 마을 테마(Theme & Vision)과 발전목표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음. 결국에는 주민의 불만이나 주민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으며,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의 성격에 부합된 특색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음.

예비계획과 비교하여 기본계획의 세부사업 내용이 바뀐 경우 예산이나 법적 검토를 통하여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음. 이는 마을에서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문적이지 못하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전 검토가 부족한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로 예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거나 검토를 해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마을의 현장포럼부터 참여한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마을을 방문하며 사후관리를 한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현장포럼 이후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현장포럼을 통하여 마을의 역량이 제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리더가 바뀌거나 주민들 간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해주는 외부 전문가의 역할은 중요함.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는 있으나 현재 현장포럼 이후 장기적으로 해당 마을에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일회성의 현장포럼이 아니라 현장포럼의 효과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장포럼 이후 마을이 자립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강화되는 시점까지 전문가 및 지자체의 장기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종합

- 현장포럼 참여 전문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
- 리더가 바뀌거나 주민 갈등이 있는 경우 외부의 조정자가 필요
- 예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거나 검토를 해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필요

제7장 정책적 제언

1.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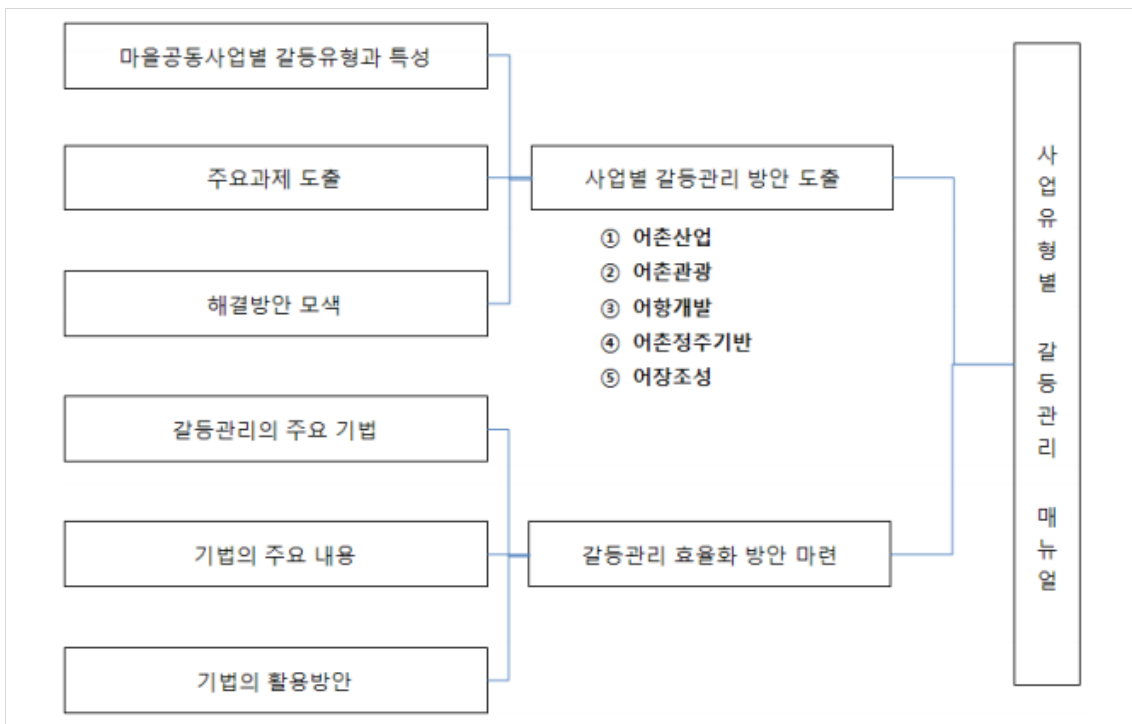
- 현장포럼 전-후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마을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갈등상황에 대한 해결 등 의사소통과 관련된 질문은 현장포럼 이후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주민역량 향상이나 동기부여 등과 비교했을 때 변화의 차이는 크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음. 마을만들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인 ‘미래설계 현장포럼’ 운영으로는 주민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물론 마을사업이 진행 중인 마을에서 갈등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마을 현안(갈등)해결 현장포럼’을 통하여 현안이나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있으나 이는 갈등 또는 현안문제의 발생시 직접적으로 현안을 해결해주는 프로세스로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현장포럼은 아님. 또한 마을의 현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마을 현안(갈등)해결 현장포럼’ 대상은 사업추진 중인 마을이기 때문에 이전 단계 마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현장포럼의 마을 공모는 매년 초에만 실시되어 시기적으로 현장포럼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현장포럼 대상마을에 선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빈번하게 현안문제가 일어날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마을에서는 주민간 의사소통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서는 마을 내부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 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장기적 사업으로 한 마을에서 중대한 현안문제 및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 담당 현장활동가나 퍼실리테이션, 전문가 등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고 전문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마을 내부적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갈등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 농촌마을에서의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은 예정된 갈등, 계속적 갈등의 성격이 강함. 갈등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악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으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과정을 포함함. 그러나 단순히 제도정비나 외부 개입을 통한 사전예방이나 사후관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촌마을사업의 갈등 해결은 갈등 당사자 및 구성원들에 의한 내부적인 해결

이 바람직함.⁴⁾

-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사전 예방의 측면에서 기존의 ‘미래설계하기 현장포럼’에 마을 내부의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을 포함한 새로운 현장포럼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음. 이를 통하여 농촌 현장포럼에서 마을의 비전체계도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장포럼 이후에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마을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기존 현장포럼의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임. 또는 ‘미래설계하기 현장포럼’의 프로세스는 기존대로 운영을 하되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농촌현장포럼 유형을 추가하도록 함.
 - 사후관리 과정의 측면에서는 ‘마을 현안(갈등)해결 현장포럼’의 대상마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에 따르면 현장포럼 이후 예비 및 기본계획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며, 주민들도 예비 및 기본계획서에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아닌 소수 주민 또는 리더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음. 그 외에도 마을 리더가 바뀌는 경우, 계획 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등 사업 운영 중 뿐만 아니라 현장포럼 이후 계획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현안해결 및 갈등해결 상황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마을 현안(갈등)해결 현장포럼’에 대한 대상마을의 범위를 확대하고 마을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현장포럼의 프로세스를 통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함.
- 농촌에서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다양한 갈등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이 필요함. 마을 만들기 사업은 장기적인 것으로 현안 문제나 갈등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마을 내부에서 이러한 갈등에 유용하게 대처하거나 문제가 좀 더 심각하여 외부 조정자가 필요한 경우 현장활동가나 퍼실리테이션, 전문가 등이 바뀌더라도 이들이 일관성 있고 전문적으로

4) 장우환·권중섭, 2011, 농촌마을공동사업의 갈등 양상과 구조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34(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 마을 내부에 들어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유형과 특성, 갈등문제의 핵심요인 도출, 해결방안 모색, 갈등관리 기법과 적용방안 등을 각 사업별로 표준화시켜 마련해야 하도록 함. 이를 통하여 갈등 문제에 따라 갈등관리에 필요한 방법, 착안사항, 문제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원활한 합의점을 스스로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음.⁵⁾



<갈등관리 시스템 개발 예시 -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매뉴얼>

※ 자료 : 박상우·이승우·이호립, 2014,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의 갈등관리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현장포럼 결과를 예비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본 연구를 통하여 농촌 현장포럼 완료 후 중앙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포럼 결과와 예비계획서 및 기본계획서를 비교해 본 결과 현장포럼에서 발굴된 대표자원과 테마 및 사업과제가 예비 및 기본계획서에 반영된 마을이 있는 반면 예비계획서 또는 기본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상당부분 바뀐 마을도 있었음. 현장포럼의 내용이 잘

5) 박상우·이승우·이호립, 2014,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의 갈등관리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반영되지 않은 마을의 경우 마을 리더가 바뀌면서 사업의 연속성이 없이 마을리더 그룹 또는 컨설팅 업체 등에 의해 사업계획서가 수정된 경우였음.

- 제주도는 동-서가 남-북에 비해 약 2.4배 정도 긴 타원 형태의 섬으로 중심부에 1,950m의 한라산이 원추형으로 위치하고 있어 한라산을 정점으로 동서사면은 완만한 경사(3~5°)를 이루고 있으며, 남북사면은 동서보다 급한 경사(5~10°)를 이루고 있음. 또한 해발고도에 따라 해발 200m미만을 '해안지역', 해발 200~600m 지역을 '중산간지역', 600m 이상을 '산간지역'으로 구분함. 해안지역은 제주도 전체면적의 55.3%를 차지하며 취락이 대부분이 해안지역에 거주함. 중산간 지역은 목야지나 유희지로 되어있으며, 산간지역은 정주민구가 거의 없으며 삼림이나 버섯재배로 이용하고 있음. 제주도는 위도와 해발고도 등에 따라 지형·지질, 기후, 생물 등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산업, 마을 특성 등 인문환경도 조금씩 다른 특성을 보임. '동부해안지역'은 토질이 척박하여 농업 생산성이 낮은 편이며 해녀의 해산물 채취활동이 활발함. '서부해안지역'은 비교적 토질이 비옥하고 고산들 같은 넓은 농경지가 발달하여 농업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한편 중산간지역은 비교적 평평한 초원 지대로 오름이 많이 분포하고, 습곡이 곳곳에 발달해 있어 지하수의 주요 함양지대 역할을 함. 토지이용은 초지가 45% 이상으로 가장 많고, 대규모 목장들이 많이 입지하고 있음. 기후 또한 한라산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차이를 보임. 남동 해안지역의 경우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북서 해안지역보다 많은 연평균 강수량을 보임. 풍속의 경우에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보이는 북서지역(관측지점 고산)의 연평균 풍속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값을 나타냄.⁶⁾

<제주지역별 평년값>

구분	제주	고산	서귀포	성산
평균기온(℃)	15.5	15.5	16.2	15.2
최고기온(℃)	18.7	18.2	19.8	19.0
최저기온(℃)	12.4	13.1	13.0	11.3
평균습도(%)	73.3	76.5	70.7	75.3
강수량(mm)	1,456.9	1,094.7	1,850.8	1,840.9
평균풍속(m/s)	3.8	6.9	3.1	3.1

※ 자료 : 기상청 <http://www.kma.go.kr>

6)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2, 한국지리지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청 <http://www.kma.go.kr>

-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마을마다 취락의 형성, 산업적 특성, 역사·문화 자원 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남. 이러한 지역 어메니티를 통한 농촌개발전략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자원을 내생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마을의 테마 선정은 주민이 마을 자원을 찾고 대표자원을 선정하는 과정을 통하는데, 주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과정은 그것을 활용하려는 집단의 정체성 및 긍지와 맞물려 공감대와 일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음.⁷⁾ 마을에서 오랫동안 형성해온 지역의 정체성이나 마을의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 그런데 주민들의 합의를 통하여 현장포럼에서 도출한 대표자원과 테마를 일부 집단이 임의로 바꾸게 된다면 마을 사업의 장기적인 방향성이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의지를 저해시킬 수도 있음. 물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예산, 제약사항 등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이 도출한 대표자원과 마을 만들기 방향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새로운 테마와 사업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사업성 검토 지표(2019년 신규사업 기준)를 살펴보면 현장포럼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 자체 프로그램인 사전 준비단계의 충실도를 평가 시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전 준비단계 충실도 평가기준은 현장포럼 이수 여부의 정도로 검토되고 있으며, 신규사업성 검토 지표에서 현장포럼 결과의 반영여부를 검토하는 항목은 없음. 현장포럼이 이수를 위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마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됨. 따라서 예비계획서 평가 시 평가지표에 이를 현장포럼 결과의 반영여부를 검토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현장포럼의 결과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평가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현장포럼에서 주민들이 선정한 테마나 전략과제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주민들이 현장포럼을 통하여 도출한 결과가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3. 현장포럼 사후관리체계 구축

- 농촌현장포럼 이후 전반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현장포럼의 내용적인 측면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다

7) 강승진, 2008, 제주지역 농촌어메니티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는 의견이 많이 나왔음. 뿐만 아니라 현장포럼 이후 예비계획 수립 시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사업계획서 작성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느낀다는 주민들이 많았음. 현장포럼 이후 농촌활성화센터에서도 현장포럼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다수의 마을인데다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이나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현장포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포럼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반영해나갈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함. 그러나 4~5회의 현장포럼의 운영만으로는 사업계획 및 사업에 대한 운영·관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예비계획을 마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현장포럼 이후 현장포럼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장포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현재 농식품부의 농촌현장포럼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 프로그램 등 현장포럼의 대상마을은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현장포럼 이후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예비계획서 수립에 대한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더 이상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못하고 있는 마을도 있음. 물론 이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일부의 시·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현장포럼 사후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또한 예산이 편성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은 각각 중앙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차별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장포럼의 표준화된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장포럼 사후관리체계 역시 현장포럼 프로세스와 같은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마을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중요한데 마을사업 추진한 마을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활성화 및 경영 안정화가 된 마을과 그렇지 못한 마을을 비교·분석하여 각각의 요인을 분석하도록 함. 우선적으로 마을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마을과 그렇지 못한 마을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살펴볼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평가지표를 통하여 마을 사업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활성화 되지 못한 마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적절한 사후관리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함. 추후에는 사후관리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로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지자체가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문헌

- 강승진, 2008, 제주지역 농촌어메니티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2, 한국지리지 제주특별자치도.
- 기상청 <http://www.kma.go.kr>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현장포럼 핸드북(최종판).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부 www.raise.go.kr
- 강기호·이진희(2015), 주민참여와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성과의 관계에서 거버넌스의 매개효과 실증분석, 농촌계획 21(1) : 103-115.
- 강하나·이진희(2016), 제주도의 농촌관광 이미지 유형별 선호 체험활동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22(2) : 141-152.
- 박상우·이승우·이호림, 2014,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의 갈등관리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장우환·권중섭, 2011, 농촌마을공동사업의 갈등 양상과 구조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34(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진희(2005a), 제주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자립형 생태관광 활성화 연구,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 이진희(2005b), 1·3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1세기 비전 남제주군 민대토론회, 남제주군; 19-66.
- 이진희(2006a), 서귀포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0(2), 251-264.
- 이진희, (2006b), 서귀포시 생태관광마을조성에 대한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0(2) : 17-25.
- 이진희(2007), 관광을 활용한 농촌 주도의 경제 활성화 방향, 07 농촌관광 전문인력육성 1차 워크숍,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 이진희(2008), 제주도의 명품·명소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제23권,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 171-210.
- 이진희(2009a), 제주도 농어촌 관광마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제24집,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 159-184.
- 이진희(2009b), 제주시 하도 생태체험교육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 이진희(2011a), 제주도 어촌관광 동기분석에 따른 관광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7(3) : 43-53
- 이진희(2011b), 제주도 자연경관자원의 사례분석,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

- 리방안 구축용역, 제주특별자치도.
- 이진희(2011c), 제주지역의 명품녹색관광(Green-Tourism) 확산전략, 세계 7 대자연경관 선정과 명품 녹색관광 확산전략, 제주웰컴센터.
- 이진희(2012), 제주 환경자원의 보전과 활용방안, UNESCO 3관왕 · 세계7대 자연경관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과 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그랜드호텔.
- 이진희(2013a), 안덕면 서광동리 건강문화체험마을 조성계획 자문 및 사업타당성검토 보고서, 제주대학교.
- 이진희(2013b), 일본 마치즈쿠리의 사례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 이진희(2013c), 제3판 장소마케팅, 대왕사.
- 이진희(2013d), 세계자연유산마을 특성화 연구-제주 선흘리 마을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 이진희(2013e), 제주도 농어촌 관광마을 성공사례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 이진희(2014a), 유네스코 3관왕 제주도의 관광개발전략, 제주관광공사 웰컴센터 3층 회의실, 제주관광학회 동계학술대회.
- 이진희(2014b), 제주도 어촌체험마을의 관광 명소화 전략, 경남대학교 제2경상관, 경남대학교 Green & Blue 융합형 관광전문인력 양성사업단.
- 이진희(2015a), 북촌 다려도 어촌특화발전계획, 제주씨그랜드센터.
- 이진희(2015b), 제주도 농촌마을의 관광동기유형에 따른 관광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제50호 : 153-180.
- 이진희(2015c), 장소마케팅 전략을 활용한 세계자연유산마을 활성화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제34집 : 241-262.
- 이진희(2015d), 제주도 오름을 활용한 마을발전 방안-수산리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이진희(2016a),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시행으로 인한 제주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제주씨그랜드센터.
- 이진희(2016b), 제주도 애월읍 유수암리 마을발전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이진희(2017a), 추자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어촌6차산업화 방안, 제주대학교 제주씨그랜드센터
- 이진희(2017b), 중국인관광객의 제주해양관광 활동유형, 만족도, 재방문의사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논집, 48(3) ; 75-90.
- 이진희·홍원식(2010), 표선 어촌마을 관광활성화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제3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389-432.
- 제주특별자치도(2013), 제주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보완).
- 충청북도 청주시(2016), 농촌지역 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수립용역.

제주도 마을역량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연구원 명단

□. 책임연구원 : 이진희(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 교수)

관광시설계획 전공, 조경기술사

□. 연구원 : 고성보(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

강하나(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박사과정)

□. 연구보조원 : 이형규(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3학년)